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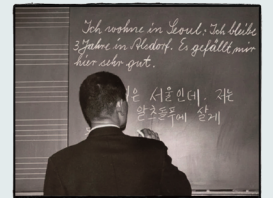




독일과 한국, 양국에서는 파  
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독일  
이주사를 성공적인 사례로 중  
중 언급한다. 독일 담론의 초

점은 성공적인 사회 통합에 있다. 그러나 각 나라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주 정책의 도구로 이용되는 성공 스토리 외에 파독 이주자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독일 한인들의 사회 통합이 실제로 어떤 과정을 겪었으며 명목적인 성공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 파독간호사의 증언이나 연구는 다소 있지만, 파  
독광부들의 광범위한 삶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광부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하는가.

# 파독광부 생애사



구술자: 김근철·최종옥·이문삼·김완수·박종선·정승식·김재승·김창선·나복찬·이동철  
면담자: 이유재·이선영





구술사료선집

29

## 일러두기

---

이 책의 편집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이 『구술사료선집』은 국사편찬위원회의 2012년 구술자료 수집지원 사업 결과물인 <파독광부 50주년 기념 구술>을 저본으로 하여 간행되었다. 본 구술사료선집은 구술자가 말한 내용을 읽기 쉽도록 재정리한 편집본이다.
2. 이 『구술사료선집』은 한국사 연구의 기초가 되는 사료로서 구술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간행되었다. 구술 녹취록 원본과 구술 동영상은 국사편찬위원회 열람실에서 열람 가능하다.
3. 『구술사료선집』에 실린 내용은 질문에 대해 구술자가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피력한 것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입장과는 전혀 무관하다.
4. 이 구술의 내용은 개별 구술자의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기 때문에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그 내용이 단순 착오일 경우에만 면담자 또는 편집자가 수정하였으며, 대부분의 경우는 확인하기 어렵거나 교차 확인해야 하는 경우라 그대로 두었다.
5. 이 책의 용어는 구술자가 사용한 그대로 기록하였으나, 내용 이해에 방해가 되거나 반복되는 말은 일부 삭제하였다. 또 구술 내용의 시대적·개인적 맥락과 상관없는 비표준어는 표준어로 변경하였다.

구술사료선집 29

# 파독광부 생애사

---

**구술** 김근철 최종옥 이문삼 김완수 박종선  
정승식 김재승 김창선 나복찬 이동철  
**면담** 이유재 이선영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한국사 연구 심화와 국민의 자국사 이해 증진을 위해 사료의 조사·수집·보존, 편찬 및 정보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는 일제의 식민통치와 독립운동, 광복과 분단, 6·25전쟁, 산업화와 민주화 등으로 이어지는 격변의 역사였습니다. 역사의 격변기에는 미처 기록을 남길 수 없었거나, 남겼더라도 보존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역사 연구는 문헌자료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한국 근현대사의 격변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을 사료화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구술사 수집사업을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여왔습니다.

구술자료는 구술자가 경험한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주기에 문헌자료나 공식 역사와는 다른 측면에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구술자료는 개별 구술자의 경험과 기억, 의견에 기초하기 때문에 공인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술자가 언급하는 내용은 우리 위원회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구술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적절한 사료비판이 요구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채록한 구술자료 가운데 학계의 요구가 크고 시의성이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구술사료선집』을 편집·간행해오고 있습니다. 구술은 기본적으로 구술자와 면담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구술사료선집』에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술 내용을 ‘편집’하는 또 하나의 행위가 추가됩니다. 『구술사료선집』에 실린 내용에는 구술자 자신이 경험한 의견이 담기기에, 때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편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편집·발간하는 『구술사료선집』이 구술자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역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자극함으로써 역사 연구를 풍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구술사료선집』 제29집은 ‘파독광부들의 삶’을 다루었습니다. 1960년대 시작된 광부의 독일(서독) 파견은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내 과잉 노동력의 해외 송출로 실업문제를 완화하고 외화 가득를을 제고시킴으로써 경제개발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파견된 광부들은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으며 고된 노동에 시달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인종차별도 겪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독일인 체격에 맞게 제작된 광업 도구를 사용했기에 고생이 더했습니다. 제대로 적응하기 힘들었던 사람들은 계약 기간을 채우지도 못하고 귀국하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힘든 노동을 견뎌내고 독일 사회에 정착해 교민사회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러 울림으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간행되는 『구술사료선집』이 학계를 비롯해 관련 분야에서 소중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의 구술자료 수집사업에 흔쾌히 참여하시고, 구술하신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구술자 및 면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 12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김인걸**

## 목차

일러두기 2

간행사 4

### 해제: 파독광부들의 독일에서의 삶 13

1. 파독광부.....	14
2. 구술자 선발 및 구술 과정.....	16
3. 구술의 내용.....	21
4. 결론.....	44

## 구술

### 김근철 47

어린 시절 일제하의 기억.....	50
중·고등학교 시절과 한국전쟁의 기억.....	51
대학 진학과 군대 생활.....	52
제대 후 생활.....	54
파독광부 지원 계기와 파독 과정.....	55
독일에서의 초기 정착 생활과 막장 근무.....	57
지상통역으로 근무.....	59
이직과 은퇴.....	62
선교 및 기타 활동.....	63

결혼과 형제 관계.....	65
목회 생활.....	67
광부 생활과 귀국 문제.....	69
재독음악가 윤이상과 이효석 노무관.....	70
독일 생활 회고.....	71

## 최종옥 74

---

간략한 생애사 구술.....	78
이직과 가정생활.....	79
파독 전의 삶과 파독 과정.....	80
첫 번째 광산과 광부 생활.....	82
독일에서 적금 붓기와 집 구입.....	85
그로츠 베커트에서의 근무.....	86
파독광부 모임과 독일에서의 삶.....	90
파독광부 파독간호사의 공로와 교민들의 사고방식.....	94

## 이문삼 97

---

파독 이전의 삶과 파독 과정.....	100
광부 생활.....	102
독일에 대한 선망과 독일에서의 삶.....	106
광산의 육체노동과 병가 활용.....	110
광산 내 통역 근무와 대사관 근무.....	113
결혼을 하기 위한 서류정리.....	116
동료의 절도 행각과 언론 보도.....	118
파독광부와 파독간호사의 결혼.....	121
여행사 경영.....	124
본으로 이주.....	126
독일 생활 회고.....	129

파독 계기와 과정.....	142
파독 후 탄광 생활.....	145
광부 시절의 복지 체험과 독일에서의 삶.....	152
광부의 병가휴가.....	152
막장에서의 인간관계.....	155
결혼과 베를린으로 이주.....	157
지멘스에서의 근무.....	159
보르직에서의 근무.....	161
은퇴와 가정생활.....	163
종교생활 및 교민들과의 교류.....	165
귀국 계획과 독일 생활 회고.....	169

유년 시절과 대학 그리고 군경험.....	176
독일광부 지원 계기와 준비 과정.....	181
가족과 성장 배경.....	183
광부로서의 초기 정착 생활.....	186
광산에서의 작업과 어려움.....	188
가톨릭단체에서의 음악활동.....	193
한국으로 귀국의 좌절과 체류 생활.....	196
학창 시절과 가정생활.....	199
광부 은퇴 직후 생활의 회고와 밴드 생활.....	202
연애와 결혼.....	204
출국 전 한국 정치의 혼란과 독일에서의 사업.....	209
연금자 생활.....	212
연금자 생활과 한국과의 관계.....	215

## 정승식 219

---

어린 시절과 서울 상경.....	222
군 생활과 베트남 파병.....	225
파독 과정.....	229
결혼 생활과 신앙 생활.....	233
새로운 직장과 차별 경험 .....	238
식품점과 식당 운영 .....	239
네커만(Neckermann)과 루프트한자 근무 .....	244
호텔 운영.....	246
노년의 계획과 독일 생활 회고.....	255
한국인 및 독일인과의 관계 .....	257

## 김재승 265

---

가족 사항과 광부로 오기 이전까지의 삶.....	268
이주의 계기와 정착 .....	269
광부로서의 경험과 어려움.....	273
여가 생활.....	276
결혼과 독일 생활.....	277
오펠(OPEL) 근무.....	279
가정생활과 자녀교육.....	280
한의사 전직 이후의 삶.....	281
한국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독일의 사회활동 .....	284
한의원 운영과 의학 공부 .....	287
은퇴에 대한 생각과 독일 생활 회고.....	291



어린 시절과 가정생활..... 300

군 생활..... 301

군 제대 후 파독 과정..... 309

파독광부와 베트남 파병..... 312

독일 생활과 결혼 그리고 가족 초청..... 313

광산 첫 근무와 독일 생활..... 315

귀국 포기과 이주..... 318

금성사 근무..... 319

금성사 퇴직과 식당 운영..... 324

한글학교 관리자 근무..... 328

광부시절의 농장일과 광산 야간 근무..... 328

가족 생활과 독일 생활의 회고..... 330

종교 활동..... 334

광부로 오기까지의 삶..... 342

독일 정착과 한국의 사정..... 343

은퇴자 쉼터(Seniorentreff) 운영의 목표와 계기..... 345

가족 이야기..... 347

노동운동의 계기, 그리고 영향..... 348

군대 시절과 파독 과정..... 350

광산의 부당한 처우와 작업장 이야기..... 353

은퇴자 쉼터와 한인문화회관 활동..... 357

세대 차이와 교포신문..... 360

한인사회와 독일 사회..... 365

한인교회와 한인사회..... 373

유년 시절과 군 생활.....	382
독일에 오게 된 과정.....	382
결혼과 가정.....	384
광부 체험과 이후의 삶.....	385
베를린 정착과 경제활동.....	387
6개월간의 미국 생활.....	390
민박 사업과 연금생활.....	392
독일 사회와 한인사회.....	393
독일과 한국 생활 회고.....	394



# 해제

---

파독광부들의 독일에서의 삶

# 파독광부들의 독일에서의 삶<sup>1</sup>

이유재 (튀빙겐대학 교수)

## 1. 파독광부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한국에서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광부 7,936명, 간호요원 11,057명 총 18,893명이 독일로 이주했다.<sup>2</sup> 광부의 경우 1963년, 간호요원은 1969년과 1970년에 양국의 협정에 따라 이주과정이 공식화되었지만, 이런 공식 협정이 있기 전에 이미 1950년대 말부터 간호요원 또는 간호학생 상당수가 종교기관이나 적십자병원 또는 사적인 매개로 독일에 왔다. 하지만 그 자세한 수치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중 몇 분이 현재 독일에 체류하는지도 파악하기 쉽지 않다. 다만 광부의 경우, 2009년에 발간된 『파독광부 45년사』에 게재된 회원 명단을 보면 1,189명의 전 광부들이 독일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sup>3</sup> 간호요원의 경우 그 다섯 배는 되지 않을까 추측하지만 확실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과 그 자녀들은 현재 독일에 있는 약 4만 명의 한인 디아스포라의 근간을 형

1 이 글은 독일어로 먼저 작성되었고, 이상구가 한국어로 초역한 것을 수정·보완하였다. 원본은 아래를 참조하라. You Jae Lee ed., *Glück Auf! Lebensgeschichten koreanischer Bergarbeiter in Deutschland*, iudicium, 2021, pp. 9~38.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파독 광부·간호사의 한국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의 건』. 기능공으로 독일 회사에 취직한 인원도 함부르크의 조선기술자 300명을 포함하여 1,000명 가까이 있지만 자세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3 재독한인글뤽아우프회 편, 『파독광부 45년사: 1963~2008』, 2009. 참조.



성했다. 현재는 1980년대 이후에 독일에 정착한 유학생, 이주자, 주재원이 한인의 다수를 차지하지만 말이다.

독일과 한국, 양국에서는 이들의 독일 이주사를 성공적인 사례로 종종 언급한다. 독일 담론에서 초점은 독일에 이주한 아시아계 노동자와 그 자녀의 성공적인 통합에 있다. 2차대전 후 서독의 경제복에 필요한 노동력을 외국 노동자로 대체하려고 시작한 손님 노동자 체제의 근본은 노동자들을 3년 계약 이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주자를 독일 사회에 통합시킬 생각은 애초에 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노동이주자가 3년의 계약 종료 후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어떤 이는 독일에 정착하여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든지, 또 어떤 이는 본국에서 가족과 친지를 초청하였다. 독일에 정착한 노동이주자들과 그 자녀들에 대한 통합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들은 독일 사회의 중심부에 침투하여 자리잡기가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 이주노동자들의 사례는 독일 사회에 통합되지 못했다고 평가되는 이주민 그룹에게 반면교사로 활용된다. 사실 한인 이민 1세대에게는 공공연하게 눈에 띄는 이주민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예컨대 높은 실업률, 범죄율, 계도화, 2세의 낮은 학력 등이다. 반면, 한인들은 독일 사회에 통합되어 문제없이 모범적으로 잘 적응해서 살고 2세대에게는 평균 이상의 높은 학력이 특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한국 담론에서 파독 광부와 간호사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한국 경제 발전에 재정적으로 기여했기 때문에 영웅적으로 기념된다. 박근혜 정부 시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 하나의 기념실 전체를 할애하여 이들에 대한 전시회를 진행했다. 블록버스터 영화 ‘국제시장’(감독 윤제균, 2014)에서 주인공 윤덕수와 그의 부인은 독일에서 광부와 간호사로 만나서 결국 결혼하게 된다. 이 두 가지 사례만 봐도 서독으로 이주한 광부와 간호사들이 한국 현대사 성공서사에서 중요한 한 획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도 2008년 보고서에서 파독 광부·간호사들이 한국에 보낸 송금액이 1965년부터 1975년까지 총 1억 153만 달러라고 밝혔다. 1965년부터 1967년의 송금액의 경우 총 수출액 대비 각각 1.6%, 1.9%, 1.8%였으며, 이는 가득률이 100%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경제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1975 한 해의 송금액은 그해 국내총생산의 0.13%를 차지했다.<sup>4</sup>

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앞의 보고서, 213~214쪽.

그러나 이러한 각 나라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주 정책의 도구로 이용되는 성공스토리 외에 파독 이주자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독일 한인들의 사회통합이 실제적으로 어떤 과정을 겪었으며 명목적인 성공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 파독간호사에 대한 증언이나 연구들은 다소 있지만,<sup>5</sup> 독일에서 파독광부들의 광범위한 삶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광부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하는가? 그들은 (그들이 이룩한 독일에서의 통합이 성공적이라고 말하는) 지배 서사에 대해 거부하는가, 아니면 동의하는가. 독일로 떠나기 전 광부들의 상황은 어떠했으며, 독일로 떠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지하 광산에서 일은 어떠했으며, 독일에 계속 머물렀던 이유는 무엇이고, 정착 이후에는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 가족은 어떻게 구성되었고, 자녀는 어떻게 양육했는가. 그들은 독일에서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2. 구술자 선발 및 구술 과정

이러한 질문들을 바탕으로 두고 본 연구자는 생애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독일에 거주하는 10명의 전직 파독광부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여덟 개의 인터뷰에는 이선영 연구원이 함께했다. 인터뷰 대상자는 파독 기간을 고려해서 처음으로 독일에 온 1963년 1차 1진에 속한 분부터 마지막으로 독일에 온 1977년 2차 47진에 속한 분까지 포함하여 선발하려고 노력하였다. 시대별로 파견 과정과 광산의 경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 거주지역도 가능하면 독일 전역으로 넓히고자 했는데, 이는 정착 과정에서 지역적 특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광산촌이었던 루르 지역에서부터 인근 지역인 라인란트와 동독에 둘러싸여 있었던 서베를린과, 현재 한인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프랑크푸르트와 인근 지역, 광산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바덴뷔르템베르크 주까지 구술자들을 찾아다녔다. 마지막으로 현재 또는 은퇴 전 최종 직업의 다양성을 고려했다. 그래서 공장 노동자, 택시 기사, 목사, 의사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호텔, 여행사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구술자로 선정됐다.

5 대표적으로 재독한국여성모임, 『독일 이주여성의 삶 그 현대사의 기록』, 당대, 2014; 나혜심, 『독일로 간 한인 간호여성』, 산과글, 2012.

### 한국 파독광부 수

1차	1진	1963. 12. 21/12. 27	249	2차	21진	1973. 5. 13~15	109
	2진	1964. 10	429		22진	1973. 5. 26/5. 29	47
	3진	1964. 11. 23	377		23진	1973. 6. 26/8. 18~19	105
	4진	1965/3	541		24진	1973. 10. 27	30
	5진	1965	503		25진	1973. 11. 10~11/11. 20	106
	6진	1965. 11	136		26진	1974. 3. 11/3. 16	61
	7진	1966. 7. 30	288		27진	1974. 4. 10	84
2차	1진	1970. 2. 19/25	244		28진	1974. 5. 8/5. 22	119
	2진	1970. 6. 1~3/ 7. 7	716		29진	1974. 6. 13/6. 27	93
	3진	1970. 10. 6/11. 15/11. 22	140		30진	1974. 7. 11/7. 16	156
	4진	1970. 12. 9	142		31진	1974. 8. 14/17/21/29	187
	5진	1971. 1. 3	30		32진	1974. 9. 5/9.19	101
	6진	1971. 2. 10	140		33진	1974. 10. 12	52
	7진	1971. 4. 5/4. 25	174		34진	1974. 11. 23	50
	8진	1971. 5. 9/5. 26	200		35진	1974. 11. 28/30/12. 12	141
	9진	1971. 6. 9	137		36진	1975. 1. 16/3. 13	35
	10진	1971. 9. 27	140		37진	1976. 3. 13	88
	11진	1971. 10. 31	72		38진	1976. 4. 26/7. 18	75
	12진	1972. 12. 15	71		39진	1976. 11. 24/11. 27	103
	13진	1973. 1. 4	14		40진	1977. 3. 1/3. 23	96
	14진	1973. 1. 30	100		41진	1977. 4. 12	87
	15진	1973. 2. 17	70	42진	1977. 5. 17	128	
	16진	1973. 2. 19	33	43진	1977. 6. 21	73	
	17진	1973. 3. 18	30	44진	1977. 7. 12	100	
	18진	1973. 3. 17(?)	63	45진	1977. 8. 23	136	
	19진	1973. 4. 2	75	46진	1977. 9. 8	41	
	20진	1973. 4. 4	60	47진	1977. 10. 25	134	

총 7,316

\* 진실화해위원회 2008년 보고서에서는 전체 파독광부의 수를 7,936명으로 제시했지만 재독한인글뤽아우프친목회의 자료에는 7,316명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 파견된 사람들의 명단으로 통계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재독한인글뤽아우프회 편, 앞의 책 참조.

인터뷰 참여자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처음에는 연구자가 광부의 아들로서 많은 광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싶었다. 이는 곧 불가능한 일임을 깨달았다. 전직 파독광부들은 이제 한인사회 내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한인 상점이나 식당, 교회 또는 한국 학교 등 일상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예순이 넘는 한인 남성은 모두 전 광부였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한 나는 몇몇 사람들을 만나본 후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래서 한인회 또는 전직 파독광부협회인 Glück auf회에서 소개를 부탁했다. 소개받은 사람들은 처음 전화통화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터뷰를 거절했다. 질문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이 인터뷰에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또 다른 사람들은 낯선 인터뷰 진행자를 신뢰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하다. 결국 사적인 연결망을 통해 본 연구자는 지인들에게 인터뷰 진행이 가능한 사람들을 소개해줄 것을 부탁했고,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아는 전 광부들을 접촉하였다. 이로 인해 짧은 프로젝트 기간이지만 10명의 인터뷰 참여자들을 찾을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선발 과정에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선발된 인터뷰 참여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먼저 10명 모두 기독교인(가톨릭 3명, 개신교 7명)이었다. 또한 10명 중 4명이 베트남전쟁 참전용사였다. 기독교인과 베트남전쟁 참전 용사라는 두 가지가 매우 강하게 드러난다. 기독교인들이 현재 독일에 체류하는 전 광부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100%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베트남에 파병되었던 한국인들 가운데 현재 약 200명이 독일에 산다고 하니까 1,000명 중 약 20%는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선발된 인터뷰 참여자들이 엄격한 의미에서 ‘파독광부’ 전체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대표성을 충족하는 것은 이 프로젝트의 목표가 아니다. 다만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했던 점에서 기독교 외 타 종교나 무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빠졌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또 한편 한국 민주화운동이나 통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점도 아쉬운 부분이지만 연구자가 의식적으로 접촉한 운동가들은 인터뷰를 거절했다. 하지만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에 참여한 독일 한인과의 인터뷰들은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sup>6</sup>

연구자가 파독광부의 1.5세 또는 2세에 속한다는 사실은 인터뷰 과정에서 구술자들에게

6 정진현,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 11: 독일 편』, 광부, 5.18 기념재단 2021.

다양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 2세가 1세의 생애에 관심을 보이는 것 자체를 인정과 존경의 표시로 볼 수도 있고, 친근감과 이해를 전제할 수도 있다. 반면 너무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하면 도리어 인터뷰 과정에서 경직되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다. 또한 2세에게 들려주고 싶지 않은 1세대 내의 갈등이나 분쟁, 그로 인한 수치를 의식적으로 제외할 수도 있다. 특히 본인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인터뷰어의 입장과 위치를 고려해서 편하게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인터뷰는 인터뷰 대상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모국어인 한국어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참여자가 가급적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택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나복찬의 경우에만 참여자의 일정상 그가 다니는 교회에서 진행했다. 자택에서 인터뷰가 진행된 경우 자연스럽게 부인이 인터뷰 자리에 합석하는 경우가 4건 있었다. 또한 인터뷰 과정에서 부인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개입하여 부연 설명하거나 수정·교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인터뷰는 2~5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1회로 마무리되었다.

인터뷰는 생애사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사전에 인터뷰의 목적과 진행 방식에 대해 구술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지만 질문지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을 감안하여 삶의 단계 순서에 따른 인터뷰 질문지를 준비했다. 인터뷰는 간단한 자기 소개를 부탁하며 시작되었다. 인터뷰 참여자의 이름, 생년, 고향에 대해 먼저 밝힌 뒤,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김완수는 독일로 이주하기 이전의 시간에 대해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구술자의 구술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독자의 독해에는 불편할 수 있는 단어와 문장도 구술한 그대로 두었고, 독일어 단어나 고유명사 등도 가급적 그대로 두고 괄호 안에 원어와 번역을 추가했다. 이해가 매우 어렵든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정을 했다.



## 구술자 명단

이름	출생지	출생 연도	파독 연도	지역 및 광산	최종 직업	현 거주지	비고
김근철	전남 나주	1937	1차 1진 1963	아헨 EBV Merksteim Adolf	목사	본	광부 생활 2주 후부터 5년 동안 통역, 그 후 전산실 근무, 1992년 조기 은퇴
최종욱	전남 광주	1936 2020년 사망	1차 4진 1965	뒤스부르크 Lohberg	공장 노동자	비츠	광부 생활 후 한 공장에서 계속 일하다가 1996년 2년의 병가와 2년의 실업 후 조기 은퇴
이문삼	전남 무안	1942	1차 6진 1965	카스트롭-라우셀 Victor-Ickern	여행사 운영	본	1970~1978년 통역, 1978~1981년 대사관 근무, 1982년부터 여행사 운영
김완수	전남 함평	1942	2차 2진 1970	딘스라켄 Lohberg	택시 운전자	베를린	직업병으로 공장을 그만뒀지만 직업병으로 인정되지 않음, 이후 택시 운전
박종선	서울	1942 2015년 사망	2차 2진 1970	겔젠키르헨 Ewald	음악가	켈른	1968~69년 베트남 파병, 한인 사회에서 음악가로 활동
정승식	경북 문경	1947	2차 27진 1974	아헨 Emil Mayrisch	호텔 운영	괴닉슈타인	1970~1972년 월남에 두 번 파병, 여러 자영업을 실패한 후 현재 호텔 운영
김재승	전남 곡성	1950	2차 33진 1974	노이키르헨-플린 Niederberg	한 의사	에쉬본	1969~1970년 직업군인으로 월남 파병, 1993년부터 중국에서 5년 반 한의학 공부, 독일에서 민간치료사 자격증 획득
김창선	전남 고흥	1947	2차 40진 1977	알렌 Bergwerk Westfalen EBV	한국학교 하우스 마이스터	프랑크 푸르트	1972~1973년 월남 파병, 광산 업무 1년 연장, 봄스 LG 회사에 채용, 이후 간이식당 운영
나복찬	서울	1948	2차 47진 1977	아헨 Eschweiler Bergwerk Siersdorf	교포신문 기자	뒤셀도르프	광산 일이 너무 어려워 두 번 귀국. 계약 종료 귀국 후 독일로 재이주, 한인노인복지회관 설립 추진
이동철	경북 안동	1947	2차 47진 1977	레클링하우젠 Bergwerk Recklinghausen (RAG)	호텔 운영	베를린	계약 완료 1년 전 베를린으로 이주, 후에 미국으로 이민 시도했지만 다시 독일로 돌아옴

### 3. 구술의 내용

#### 파독 이전의 시기: 빈곤에서 벗어나기

인터뷰 참여자들이 독일로 떠나오기 전의 삶은 가난으로 얼룩져 있었다. 대부분 가난하고 비천한 시골 출신이었다. 도시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학업을 마친 후 불안정한 상황이거나 직업을 구하지 못한 상태였다. 시골에서 자란 참여자들은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왔다. 김창선은 국민학교 시절부터 가족의 농사일을 돕기 위해 학교를 절반이나 빠져야만 했다. 이동철은 청소년기 소년가장이 되어 어머니와 함께 농사일을 해야 했다. 이것은 그에게 매우 ‘힘든 시간’이었다. 다른 이들은 학업 이후 또는 군 복무 이후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의 농사일을 거들어야만 했다. 그러나 이들은 농사일에 전망이 없다고 생각했다. 자신과 가족을 이 빈곤에서 해방시키고 돈을 모아 부자가 되는 것은 많은 구술자들의 어린 시절 꿈이었다. 김재승은 “빨리 내가 성장해서 돈 벌어주고 우리 집 좀 약간 잘살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성장”했다고 했다.

어떤 사람들의 기억에는 어린 시절 굶주렸던 경험이 각인되어 있었다. “무엇보다도 힘든 거는 6·25사변이나 해방되기 직전에 정말 배고픈 설움이 너무나도 컸던 거 같아요.”라고 1937년생인 김근철은 말했다. “쌀밥을 한 번 신나게” 마음껏 먹어보는 것은 이문삼만의 소원은 아니었다. 보통 보리밥이나 잡곡밥을 먹었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흰쌀밥’은 부의 상징이었다.

가난은 종종 학교나 대학을 중퇴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이동철은 국민학교만 마칠 수 있었고, 이문삼과 김창선은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김근철은 등록금 미납으로 대학졸업증서를 수여받을 수 없었다. 구술자들의 형제자매 및 조카들이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자신이 독일에서 재정적으로 돕는 것, 또는 본인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에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은 어린 시절 이들이 이루지 못한 욕망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빈곤은 식민지배와 한국전쟁을 겪은 한국에서 흔한 현상이었다. 한국은 서구 국가들의 개발 원조에 의존했다. 1960년대 초반 실업률은 20%를 넘었으며, 1970년 한국의 1인당 GDP

는 256만 원이었다.<sup>7</sup> 이에 비해 서독은 같은 해 1인당 GDP가 5,945유로였다.<sup>8</sup> 그러니 독일에서 광산 노동자의 일당이 한국 고급인력의 일당보다 높다는 이문삼의 언급은 현실적이다. “우리나라에 … 아무리 봉급이 많다고 하는 사람도 우리 … 광부의 22마르크 인생보다 봉급이 적었어요, 일당이.”

일부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거나 아버지의 무책임한 행동이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 이문삼·김원수·이동철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 나복찬의 아버지도 그가 중학생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가족은 아버지의 병원비로 모든 재산을 잃었다. 하지만 나복찬의 어머니는 일곱 자녀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해준 것 같다. 나씨의 가족은 6년 동안 서울에서 네 번 이사를 다녔다. 이사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직업과 관련 있거나 집세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정승식의 아버지는 술을 마시기 위해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훔쳤으며, 경찰관이었던 김창선의 아버지는 6·25전쟁에서 돌아온 뒤 가족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가족을 떠났다. 그들의 행동이 전쟁 경험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여부는 구술자가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종종 6~7명의 자녀를 둔 대가족 형태는 빈곤 상황을 악화시켰다. 1960년대 한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버지가 없거나 구실을 제대로 못해 큰아들이 가장의 역할을 떠맡는 것은 매우 큰 부담이었다.

여러 면에서 3년의 군 복무는 인터뷰 참여자들의 인생에 첫 번째 전환점이 되었으며, 군 복무는 독일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했다. 첫째로 남성은 군 복무 이후에야 온전한 남자 또는 사회의 가치 있는 구성원으로 대우받았다. 병역은 통과 의례였고, 박정희의 군 부독재(1961~1979) 기간 동안 남성들의 생애주기에서 사회적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김창선은 “요즘 세상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데”라고 말했다. 부대 내 선배의 괴롭힘이나 군사훈련이 어려움을 가중시켰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 그것은 어느 부대에 그리고 어느 보직에 있느냐에 따라 달랐다. 일부는 그들의 군 복무 시절, 1972년에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 유신헌법 개정과 관련된 투표를 해야만 했다. 정승식과 나복찬은 특별히 유신헌법에 반대표를 던졌고, 그 결과 불이익을 당했다. 김근철은 인사과에 배치되고

7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21#quick\\_02](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21#quick_02);

8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14433/umfrage/bruttoinlandsprodukt-bip-in-deutschland-pro-kopf-seit-1970/>

신학생으로서 사단에서 군종병(軍宗兵)으로 복무하며 육체적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군 복무를 했다. 그는 이 기회를 활용해 2년 동안 전북대학교에서 경영학 야간 과정을 다녔다.

인터뷰 대상자 10명 중 4명은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다. 1964년에서 1973년 사이에 한국군은 325,517명의 군인을 베트남에 파견했는데 그중 5,099명이 사망하고 11,232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4명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159,132명은 고엽제와 기타 전쟁 피해의 영향을 받았다. 베트남전쟁에서 한국은 미국에 이어 외국군 중 가장 많은 전투부대를 파견했다. 한국 정부는 군인을 파견한 대가로 2억 3,500만 달러 이상을 미국으로부터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한국군은 현대화되고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추가적인 개발원조를 받았다. 전쟁은 한국 경제도 부양했다.<sup>9</sup>

월남 파병은 공식적으로 군 입대 대상자 중 자원하는 인원으로 이뤄졌으며 1년으로 제한됐다. 정승식은 예외적으로 두 차례 베트남에 파병됐다. 김재승은 직업군인으로 베트남에서 1년 이상을 보냈지만 인터뷰에서 이 시간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69년도에서 70년까지 월남 갔을 거예요, 제가.”라고 아주 간결하게 언급했다. 모든 사람이 전투병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박종선은 연예병으로 베트남에 갔고, 정승식은 수송병으로 파견되었다. 김창선은 베트남전쟁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군량이 바닥났을 때 마을을 약탈하는 것은 일상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쟁 중 비인간적인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억한다. “처량하게 가면서 앞사람 배낭을 보면 먹고 살겠다고 닭다리를 묶어 가지고 배낭에다가 달고 가는 거예요. 그럼 닭이 죽으니깐 모가지가, 목이 쳐져가지고는 머리가 덜렁덜렁 ‘야, 참 처량하다. 사람 먹고 사는 게 참 더럽다.’” 전쟁에서 귀국 후 개최된 서울의 거리 퍼레이드에서 김창선은 기쁨이나 자부심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그는 베트남에서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와의 슬픈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다. 임무 전달 손톱과 머리카락을 담아야 했던 유물 상자는 죽음의 편재를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언제 죽음을 만나도 이상하지 않았다.

베트남전쟁 파병에 자원한 주된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이를 통해 인터뷰 대상자들은 군 복무 기간 동안 번 돈의 잉여금을 전역 이후에 투자할 수 있었다. “1년 월남 생활에서 만 받은 돈을 가지고 한국에서 … 돈을 몇 마지기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었고 … 그때 당시

9 박태균, 『베트남전쟁—잊혀진 전쟁, 반쪽의 기억』, 한겨레출판, 2015; 윤충로, 『베트남전쟁의 한국 사회사—잊힌 전쟁, 오래된 현재』, 푸른역사, 2015.

에는 큰 밑천이었어요.”라고 정승식은 회상했다. 김창선은 입대하기 전부터 이미 베트남 파병에 지원할 것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왜 갈라고 했었냐면 그 당시 친구들이 월남엘 갔다 와가지고 시골 쪽에 상당히 그제 돈이 돼가지고 뭐 전답들을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부락에서 한 20명이 갔다 왔거든요. 140여 명 되는 부락에서 … 그 동네는 옛날에 그렇게 가난해가지고 우리 동네 형들은 장가들을 못 갔었어요. … 그런데 우리 때부터는 이 부락이 월남 갔다온 친구들 덕분에 부자가 돼가지고 … 다른 시골 쪽에서 서로 시집들을 올라고 그러는 계기가 됐었지요.”

그러나 그들 대부분에게는 창업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희망이 실현되지 않았다. 정승식의 아버지는 돈을 다 써버렸고, 박종선은 ‘방탕한 생활’에 그 돈을 썼다. 김창선은 집을 살 돈이 있었지만 투자를 하지 않았다. 그는 나중에 사실은 한국 파병군의 월급이 57달러가 아니라 1,080달러였다는 것, 그 차액은 한국 정부가 가져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한국 사회는 군사독재 아래서 많은 부분이 군사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성들은 군 복무와 베트남 파병을 경험하며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사회 생활에 대해 준비된 것처럼 보였다. 군 복무 기간은 교육과 직업을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다. 베트남전쟁 파병은 광부들이 서독으로 파견을 선택하는, 이른바 돈을 벌기 위한 동기라는 내러티브를 따른다.

인터뷰 참여자들 다수의 경제적 위치는 군 복무 이후 제자리로 돌아갔다. 직업적인 전망은 밝지 않았다. 최종옥은 폐차장, 자전거 가게, 사진관을 차렸었다. 그는 그것들 중 어느 것에도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노동운동에 가담했던 나복찬은 여러 회사에서 일하다 결국 노점상에서 일하게 되었다. 김재승은 군 복무 직후 파독광부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합격해서 23세 나이에 독일로 건너간 유일한 사람이다. 그는 1년 전에 광부로 독일에 온 삼촌에게서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었다. 김창선과 이동철도 군 입대 직후 광부로 독일에 가고 싶었다. 그러나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없었다. 김창선은 시장에서 일하면서 인맥을 쌓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광부와 간호사의 선발과 파견을 담당하는 해외개발공사(KODC) 직원과 위조된 광업 경력서를 제공한 고향 친구를 통해 군 전역 후 4년 만인 1977년에 독일에 올 수 있었다. 1970년대에는 실제 광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독일로 갈 수 있다는 정보를 얻고 이동철은 장성 탄광으로 가서 4년 동안 일하다가 마침내 서독에 파견되는 광부로 지원했다. 이동철은 1977년 10월 25일 마지막 그룹으로 독일에 왔다. 그는 “그렇게 해서 독일에 온 것이 제일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온 거죠.”라고 회상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직접 신문 광고를 보았거나 신문 광고를 읽은 친구에게서 우연히 파

독광부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들 중 대부분은 가장 중요한 조건, 즉 ‘광업 경험’이 없었다. 그래서 대부분 증명서를 조작해야 했다. 면접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쌀이나 모래 한 가마를 들어 올리는 신체검사였던 것 같다. 많은 지원자가 거기에서 실패했다. 진짜 광부였던 이동철은 경력 있는 직장 동료들이 실기 시험에서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해 “모래 가마를 들려면 경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요령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뭐 거의 많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파독광부를 선발하는 면접은 광부로서의 직업적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력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광부들은 오히려 불리하기까지 했다. 김완수는 1969년 많은 광부들이 기폐증 때문에 선발에 실패한 것을 기억했다. “탄광에서 일하신 분들은 많이 떨어졌어요. 기폐증으로 해가지고 많이 떨어졌어요.” 즉, 경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다.

광부라는 직업은 한국에서 높이 평가되지 않았고, 독일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독광부 프로그램은 매우 인기가 있었다. 지원자 수는 모집인원을 몇 배 초과했으며, 모집이 가능한 인원보다 더 많은 지원자가 종종 선발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비인원으로 선발되었지만, 이는 또한 다음 기수에 포함될 인원이기도 했다. 해외개발공사(KODC)의 장점은 독일석탄총협회 (Gesamtverband des deutschen Steinkohlenbergbaus)에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을 때 단기간에 다음 기수를 파견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다만, 선발되었으나 파견되지 않은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영문도 모른 채 금방 파견될 것만 믿고 초초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 기간은 6개월을 넘기기도 했는데, 지방에서 서울에 온 사람들에게는 그 기간 동안 숙소를 구해야 하는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이 가해졌다. 광부 프로그램은 당시 남성이 해외에 나가 돈을 벌 수 있는 보기 드문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많은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한국에서의 빈곤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광부 파견은 1차와 2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차는 “독일 탄광에서 한국 광부의 임시취업 프로그램”(Programm zur vorübergehenden Beschäftigung koreanischer Bergarbeiter im deutschen Steinkohlenbergbau)이라는 제목의 공식 프로그램이었다.<sup>10</sup> 이는 1963년 12월 16일에 시작되어

10 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음의 공문서를 참조할 수 있다. Beschäftigung koreanischer Bergarbeiter in der Bundesrepublik, Bek. des BMA vom 29. Januar 1964 – II a 6-2430.7, in: Der Bundesminister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편) Bundesarbeitsblatt, 1. Märzheft 1964 Nr. 5, pp. 143~147; Bundesanzeiger Nr. 99



1970년까지 진행되었다. 1967년에서 1969년 사이에 서베를린과 서독 출신의 한국인 17명이 한국 비밀경찰에 의해 납치된 이른바 ‘동백림 사건’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중단되었다. 1970년에 2차 파견이 재개되어 1980년까지 지속되었으며, 1977년에 마지막 기수가 선발되어 독일에 도착했다. 1차 시기에 2,539명의 광부, 2차 시기에 5,397명의 광부가 파견되어 1963년에서 1977년 사이에 총 7,936명의 한국인이 서독 광산으로 파견되었다.

교육수준은 1차 시기에 파견된 광부들이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근철은 “1진으로 온 사람들은 약 80퍼센트 대학 졸업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있었고 교직·교편 잡은 사람들도 있었고,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라고 회상했다. 그러나 진짜 광부 출신자라는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원자들은 의도적으로 학력을 낮춰 제출했다. 높은 학력은 오히려 감점 요소로 작용했다. “우리가 이력서에서도 대학교 졸업했다고 쓴 사람 없거든요. 다 그냥 고등학교, 그냥 중학교 졸업했다고 그렇게만 썼지.”라고 최종옥은 회상했다. 2차 시기에 선발된 광부들의 교육수준은 1차 시기 광부들에 비해 높지 않았으며, 1차 시기 광부들에 비해 기혼자나 광업 경험자도 많았다.

파독 당시 인터뷰 참가자들의 나이는 23~30세 사이였지만, 대부분 20대 후반이었다. 프로그램 협정에 따르면 20세에서 35세 사이의 남성만 참여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독신으로 독일에 와서 파독간호사와 결혼을 했다. 하지만 이미 결혼한 사람들도 있었다. 파독을 앞두고 김근철은 약혼을 했었고, 파독 이전에 김창선에게는 어린 자녀가 있었으며, 이동철에게는 이미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다.

출국 준비는 약 3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어학연수, 소양교육, 광업훈련 세 영역으로 나누어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는 충분하지 않았다. 대부분이 전문 광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광산에서 한 달 동안의 훈련을 받으며 매우 기초적인 차원에서 광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웠다. 일부는 탄광 내부를 처음으로 보고, 지하에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김완수는 이런 곁핍기식 교육에 실망했다. 어학연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작업 재료의 독일어 명칭은 배웠지만, 독일의 역사, 사회, 문화에 대한 기본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틀린 정보를 배우기도 했다. 예를 들어, 김근철은 목욕 수건이 독일에는 없다고 배워 이를 한국에서 사왔다. 1970년 이후 2차 시기에서는 동백

vom 4. Juni 1970, Bekanntmachung der Vereinbarung über die Zulassung koreanischer Bergarbeiter zur vorübergehenden Beschäftigung im deutschen Steinkohlenbergbau.

림 사건을 겪은 후였기 때문에 반공 훈련과 정치교육이 강화되었다. 독일에 파견된 광부들은 해외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나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피해야만 했다. 소양교육의 핵심은 이 하나였던 것 같은데, 대부분의 광부들에게 큰 인상을 남기지는 않은 것 같다.

출국에 대한 준비는 모든 파독광부에게 충분히 그리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들은 독일어를 거의 구사하지 못했고 광산 일에 익숙하지 않았다. 거주지역과 어떤 광산에서 일할지조차 몰랐다. 독일에 도착해서야 편성과 배치가 알려졌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이미 군대에서 이런 방식에 익숙해졌고, 독일로의 파견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이며 많은 돈을 가지고 한국으로 금의환향할 수 있다는 희망과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 독일에서의 광산 작업: 버거운 노동조건에서 살아남는 방법

지하에서의 육체노동은 모두에게 큰 도전이었다. 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전에 채굴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처음에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더운 연기와 탁한 공기라는 열악한 지하의 작업 조건은 견디기 어려웠다. 게다가 독일 노동자의 신체 조건에 맞춰진 작업 자재가 더욱 감당하기 어렵게 했다. 이것은 한국인에게 너무 크고 무거웠다. 지하 작업은 성과급(도급계약)으로 이뤄졌다. 더 많은 석탄을 채굴한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었다.

김근철은 “하루에 배당량이 얼마고 하니 5메타를 가야 됩니다. 1메타 넓이에 5메타를 굴진해야 돼요. 근데 그걸 배당량을 해내는 사람은 없었어요.”라고 말했다. 정승식은 작업 자재와 부족한 체력 때문에 절망하기도 했다. “그 슈템펠(지주)이라는 게 ... 아마 한 20, 30kg 쯤 될 거야, 그거 하나가. 근데 그게 위에서 기울어져가지고 한 중간쯤 붙이면요, 빼내질 못하는 거예요. 우린 그걸 쭈껍으로 그걸 땡겨가지고 이렇게 쇠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쇠로 잡아 땡기는 게 있어요. 그걸로 빼내면은 일을, 능률을 못 올리잖아요. 독일 사람들은 힘이 좋으니까 이렇게 안고 두어 번 주석주석 하면 금방 빼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나는 못 빼내니까. 한 일주일 다니고 2주 다니고 했는데요,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어요, 제 힘으로는.” 독일로 떠나기 전, 박종선은 독일 광산에서는 광산 작업이 모두 기계화되었다고 오해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때 한국에서 나갈 때 아 서독은 뭐 광산이 전부 기계화 돼가지고 전부 기계로 허기 때문에 버튼만 눌러면 되고 [웃음] ... 그런 거 환상에 젖어서 갔었다고. 근데 서독에 와 보니까 광산에 있는 기계들이 전부 서독인들 체구에 맞게 만든 기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 동양, 한국 사람들 그 체격에는 전부가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력적으로 굉장히 견뎌내기가 힘들었죠.” 그 시간을 기억하며 몇몇 이들은 눈물을 보였다. 김재승은 “막장 가서 보니까, 침에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라고 고백했다. 이동철은 “나올 때는 힘도 빠지고 배도 고프고 해가지고 약 먹은 핑처럼 … 엘리베이터(가) …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 그때까지 즐고 있는 거야. 힘들고 맥이 빠지고 이래서.” 지하에서의 절망, 잠자리에서의 눈물, 일을 마친 후의 탈진, 엘리베이터 앞에서 꾸벅꾸벅 조는 것은 한국 광부들에게 흔한 일이었고 이미 첫 며칠 만에 이 일은 본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과한 노동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작업은 3교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의 새벽조는 아주 일찍 일어나야 했다. “아침 6시에 가서 갈아입을라면 광산에 늦어도 5시 반에 도착해도 바빠요, 작업복 갈아입고 뭐 하고 그럴라면. 그니까 3시쯤 일어나야 돼, 아침 3시.”라고 이문삼은 말했다. 야간 근무는 추가 수당이 있었다. 그러나 기숙사에서 같은 방에 있는 남자들이 다른 교대 시간에 배정되는 일도 발생했는데, 이것은 개인의 수면 리듬에 영향을 미쳤다.

일부는 서독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감이 있었다. 그들은 이문삼처럼 젊음의 패기를 믿었다. 김창선은 농사, 군대, 전쟁 경험을 통해 자신감이 있었다. 지하 작업은 이 모든 것보다 더 나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는 독일로 올 때부터 다른 사람들은 광산 일에 대해서 힘들다고 그런 식으로 하지만은 나는 어디까지나, 물론 시골에서 일도 해봤지만은 특별한 것은 나는 군대에서 전투할 때 말입니다. 그 정도의 생각이라면 무엇을 못하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힘든 작업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터뷰 참여자는 교대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 때문에 의도적으로 야간 교대와 주말 교대를 선호했다. 휴가기간에는 건설현장이나 농장 일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돈벌이를 했다. 일부는 몸을 혹사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이문삼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휴가를 가면 하루에 가서 돈을 얼마를 써야 된다. 이걸 꼭 사람이 망하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광산에다 사정을 하는 거야. ‘내가 휴가기간에 내 일을 시켜다오… 나 돈이 필요하다고 우리나라(로) 돈을 보내야 한다’고. 그러니까 첫해인가는 일을 시켜줬어요. 우리는 한없이 그것이 고마웠지. 휴가를 가서 돈을 까먹지 않아서 돈 벌고, 휴가기간에 일을 해서 돈 벌고, 이거 얼마나 좋냐?” 이런 태도는 짧은 기간 내에 최대한 돈을 많이 벌고 최소한 적게 쓰려는 동기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유급휴가’라는 제도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러한 도전을 견뎌낸 것은 아니었다. 일부는 조기에 귀국했다. 김창선은 독일에 도착한 후 또 다른 신체검사를 받았던 것으로 회상한다. “신체검사 받아서 3명 떨어져 갔는데. 거기에 불운이 있는 사람은 2번째 와가지고도 떨어져 간 사람 있었어요.” 박종선은 이렇게 기억했다. “한 달 두 달 사이에 벌써 몇십 명 도중하차야. 아이구 못 있겠다고 그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귀국하는 사람, 어디 무슨 다른 나라로 간 사람들. 오지로 가고 하루아침 뭐 어디 없어지고.” 그중에는 한 번뿐 아니라 여러 번 일을 그만두고, 한국에 갔다가 결국 독일로 돌아온 나복찬도 있었다. “독일에 오니까 그 힘든 일을 내가 감당을 하질 못 하겠더라고. 그래 이제, 독일 생활을 접고 11개월 만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 그 당시에 3년 계약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내 자신으로도 허락지 않고 해서 다시 독일을 들어왔죠. 36개월이라는 기간을 채우려고. 다시 들어왔는데, 또 그것도 진득하니 하질 못하고 그 이듬해에 또 나갔어요, 한국을.” 지하에서 계속되는 고된 작업에는 항상 사망과 부상의 위험이 동반 되었다. 1진에서는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총 65명의 한국인 광부들이 1964년에서 1979년 사이에 독일에서 사망했다.<sup>11</sup>

이러한 육체적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다. 첫 번째는 가능하면 지하 막장이 아닌 다른 일을 찾는 것이었다. 광산에서 근무한 지 한 달 뒤 최종옥은 관리자에게 육체적으로 덜 힘든 일을 부탁했다. 관리자는 그에게 컨베이어 벨트를 작동시키는 임무를 주었다. 비록 그 월급은 막장 노동보다 적었지만, 그는 편하고 안정적인 업무를 선호했다. 김완수는 체력 소모가 적은 직업을 모두 살펴보고 업무 이동을 결정했다. 정승식은 실트 조종 보조라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주저없이 기회를 잡고 관리자에게 자신을 추천했다. 프로그램상 한국의 모든 광부들은 지하 작업을 하기 위해 독일에 왔지만 개별적으로 업무를 변경하는 것은 분명히 가능했다. 그러나 업무 변경은 당연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광부의 자발성과 관리자의 선의에 달려 있었다.

지하의 고된 육체노동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방법은 통역사였다. 지하 작업장에서도 통역하는 통역사와 지상에서 광부의 소통을 돕는 통역사가 있었는데, 통역사는 광부들 중에서 독일어를 좀 더 잘하는 한인을 광산 관리자가 임명했다. 이 업무는 어떤 면에서는 육체노동

11 재독한인글뤼아우프 친목회 편, 앞의 책, 28쪽.

에서 면제된다는 특권을 받았고, 광산 관리자와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특정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광산 지도부로부터 받는 신뢰 때문에 광부들 내에서도 더 높은 지위를 얻었다. 하지만 통역사가 더 많은 돈을 벌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광부의 임금이 더 높았다. 통역사라는 직업은 매우 소수의 사람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종종 시기와 불신의 대상이 되었다. 나복찬에 따르면 “통역 맡으신 분네들하고 일반 근로자들하고 그런 알력이 참 많았어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통역사의 언어 능력이 통역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통역사가 개인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자기를 이용한다는 의심을 받았다. 또한 갈등 상황에서 통역사는 광부 쪽보다는 관리자 편인 것처럼 보였다.

김근철은 지하에서 단지 2주만 근무했다. 왜냐하면 그는 3개월 뒤에 오는 2진 그룹을 위해 통역사로 일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문삼은 1965년부터 1970년까지 지하에서 일했다. 1970년부터 2차로 새로운 광부들이 독일에 파견되었을 때 그는 통역사로 일했다. 주요 업무는 광산 관리들과 광부들 간의 대화를 통역하는 일이었다. 김근철의 실제 통역 활동을 살펴보면, 이는 단순한 통역 작업 이상의 역할이었다. 그들은 안내원 또는 인사 매니저 역할에 더 가까웠다. 통역사들은 일상적인 문제와 사적인 문제도 도와야 했다. 계약된 근무 시간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통역을 위해 일해야 했다. “사무실 일 … 또 어떤 사람들이 상담할 때에 그 사람들이 일을 처리하는 것, 대사관 내에 연관된 일을 처리하는 것, 그 업무가 주종이고 또 8시간 일하지만은 24시간을 그냥 조용히 지낼 수 없는 그런 업무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500명이 되다보니까 사고쟁이도 있고, 술 먹고 난동 치는 사람도 있고, 또 교통사고로 해서 사고 나가지고 경찰에 불려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 상태가 심하니깐 병원에 실려 가서 정말 임종을 내가 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에 같이 따라가야 하고 어떤 때는 심지어는 연애편지를 써달래요. 근데 하는 시늉을 하지만 어떻게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24시간 항상 출동할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김근철은 특히 시신을 한국으로 이송하는 일, 죽음과 관계된 일을 감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 일로 위궤양이 생겼을 때 그는 통역 일을 그만두었다.

힘들고 위험한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유급 병가라는 제도였다. 병가를 신청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가장 최근의 임금을 계속 수령하면서 최대 4주 동안 일을 쉴 수 있었다. 정말로 몸이 아파서 병가를 낸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한국인들은 스스로 휴식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병가를 사용했다. 그것은 전략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수행되었다. 병가 기간에 높은 급여를 받기 위해 두 달 동안 광산에서 일했다. 그 후 그들은 한 달 동안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 병가 동안 받는 월급은 마지막 병가 전에 받은 월급에 따르기 때문이다. 의사로부터 병가를 위한 소견서를 얻기 위해 그들은 아픈 척했다. 어떤 의사가 소견서를 쉽게 내주는지 광부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빨리 돌았다. 김완수는 운 좋게도 한국인의 상황을 잘 이해해주는 의사를 알게 되었다. 그 의사는 “니들 참 불쌍하다고. 나이도 그렇고 그 작은 체격으로 여기 와서 광산에 일하는 너희들 참 불쌍하다고, 고국을 떠나서 일하는 너희들. 그래서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한 내가 크랑크(Krank, 병가 진단서)를 써주마. 그런 의사를 만났”다고 말했다. “제 경우는 꼭 아파서는 안 끊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끊었습니다.”라고 김완수는 솔직히 말했다. 광부들은 이러한 복지제도를 악용한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다. 그들에게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노동환경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정당한 저항 행위였다. 광산 도구들은 이들에게 적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지 지하에서 고된 노동만 더해주었다. 그들은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허점을 찾았다. 게으름, 업무 규율 부족 또는 부정직에 대한 도덕적 비난 등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광산에서의 계약이 끝날 때까지 부상을 당하지 않는 데에 가장 큰 관심을 가졌다. 그 이후 결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대의 준비를 한다는 것은 점점 더 이들이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였다.

이문삼이 회상하듯이, 독일인들은 한국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독일 사람들이 죽을라 그래. 너희들이 힘들면 처음에 와서 힘들다 이래야, 처음에 왔을 때. 이게 2년, 3년째는 숙달이 돼서 훨씬 편찮을 텐데 그때 크랑크(krank, 병가)를 더 많이 한다 이거야.”

한국인은 광업 경력이 있든 없든 모두 새내기로 출발했다. 광부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이들은 초보 광부로서 숙련된 광부로 승진할 때까지 3년간 일했다. 그러나 그들의 계약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인 광부들은 숙련된 광부로 승진하기 이전에 일을 그만두었다. 제한된 계약기간 때문에 그들은 또한 광산에서 제공하는 정근 수당도 적게 받았다.<sup>12</sup> 광산에 대한 광부들의 불성실은 이러한

12 Cornelius Nestler-Tempel/Ulrike Tempel, Im Schatten des Lebens. Südkoreaner im Steinkohlenbergbau von Nordrhein-Westfalen-eine Untersuchung zur Rotationspolitik mit ausländischen Arbeitnehmern, Heidelberg 1985.

처우에 대한 반응이기도 했다.

복지 시스템의 악용은 너무 지나치기도 했는데, 일부는 혜택을 받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다. 이들은 거짓 결혼증명서와 자녀 출생증명서를 가족수당과 자녀 양육비를 받기 위해 만들었다. 한국에 있는 자녀를 위한 아동수당은 수령할 수 없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지만, 관청에서는 그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서류를 위조한 박종선은, 한 동료가 결혼증명서와 세 자녀가 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위조했을 때 같은 일을 하면서도 한 달에 300마르크 이상을 더 버는 모습이 자신의 위조 동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300여 마르크 차이가 3년간 지속되는 것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그는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 친구가 보내온 서류는 너무 허술했기 때문에 그조차도 한눈에 이것이 위조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대사관은 서류를 인 증해 광산에 송부했다. “그래서 3년간을 인제 드라이 킨더(세 자녀)의 아버지로 인제 봉급을 타 먹었”다고 박씨는 회상했다.

이 위조 서류는 광부들이 나중에 독일에서 한국인 간호사와 결혼하기 원했을 때 문제가 되었다. 서류상에만 등록되어 있던 가짜 사람들이 갑자기 죽었다고 함으로써 이 위조 서류를 철회할 수 있었다. 이문삼은 다음과 같이 기억했다. “죽었다고 정리를 하면 또 애네들 사회보장제도가 그 크랑켄카세(Krankenkasse, 보험회사)에서 돈을 또 얼마 줘요. 참, 그러면 뒤에 이 마누라 죽었다고 신고한 요놈은 실질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 간호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깐 지난 폭풍우 때 배를 타고 친정을 가다가 이 배가 불이 붙었다. 그래갖고 애까지 (죽어버렸다. 그러면) 아이고, 행정 보는 여자가 그냥 ‘독일에 돈 벌러 와가지고 너무 다 죽어버렸다’고 슬퍼서 죽을라고 하는 거라.”

독일 노동부에 들어온 제보를 통해 독일 관청도 이러한 위조문서를 일찌감치 눈치채고 있었다. 켈젠키르헨의 한 한국인은 한국에서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켈른에서 임신한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려다 그의 신분이 가짜였음이 드러났다. 위조된 혼인 신고서는 본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취소해야 했고, 동시에 새 혼인신고서가 발급됐다.<sup>13</sup>

문서 위조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흔한 현상이었던 것 같다. 그들은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운전면허증 및 자녀 양육비 지불 증명서를 위조했다. 한국인들의 이러한 범죄행위를 어

<sup>13</sup> 코블렌츠 연방문서고BA, B 149/22428, Karl H.W. Tacke K.G. an Herrn Oberregierungsrat Weidenböner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3. Januar 1967.

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우리는 그들이 이미 한국에서부터 위조 서류를 기반으로 파독광부 신청을 했음을 알아야 한다. 광산 경력에 대한 대부분의 증거는 위조된 것이었다. 물론 한국의 관청도 이를 알고 있었겠지만 엄격하게 검증하지는 않았다. 독일의 광산 관계자들 또한 한국인들이 모두 광부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1차 1진이 도착한 이후에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최소 6:4 비율의 경험자와 초보자를 요구했다. 한국대사관도 위조 증명서와 문서가 승인되는 것을 묵인했다. 따라서 위조는 이주를 위한 하나의 관문이었다. 그들이 독일의 선진 혜택을 받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제도적으로 그들의 권리를 제한시키는 체제 내에서 고의적인 행위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인터뷰 참여자들은 이 모든 것을 공개하면서도 그러한 행동이 과거의 일이었음을 확신시키는 것이 중요했다. 이문삼은 “그런데 지금은 없어. 왜? 그 광부들이 그 젊은 시절이 끝났기 때문에”라고 강조한다.

문서 위조나 병가가 일상적이면서도 광부들은 절도만큼은 용납하지 않았다. 이를 증명하는 극적인 사건이 문서로 남아 있다. 한 한국인 광부가 카메라 가게에서 도둑으로 적발되자 200명의 한국인 광부들은 그를 다음과 같이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이문삼은 “도둑질을 해가지고 경찰이 알아버렸어. 이제 저놈이 우리나라 국위를 손상시켰다 이거야. 그러니 저놈은 카날(Kanal, 운하)에, 일본 놈들도 그랬다는데 우리도 가서 빠져서 요 새끼를 욕을 보이든지 죽이든지 하자.”라고 회상한다.

거의 모든 광부들이 돈을 벌기 위해 독일에 왔다. 인터뷰 참여자 그룹에서 최종옥과 박종선만이 독일에서 번 수입을 본인이 관리했다. 다른 사람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정기적으로 한국에 송금했다. 일부는 저금을 위해 또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집세만 떼고 나머지는 한국으로 모두 송금했다. 김완수는 최소한만 남겨두고 나머지 금액을 모두 송금했다. “저는 그 1,000마르크를 벌어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인제 최상으로 생활을 했거든요. 제가 150마르크 정도 가지고 생활했어요, 한 달 생활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가족들은 이 돈을 자녀 교육비, 결혼 자금, 가족 생활비 또는 가족의 사업을 위한 초기 자금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했다. 그들이 가족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들었을 때, 그들은 만족감을 느꼈다. 이문삼은 자신이 보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리는 편지를 기대했다. “이번 제사에는 조상님한테 쌀밥도 올렸고, 이번에는 조카가 학교에 가는데 중학교 학비를 니가 보내준 돈으로 했고, 이것이 그때는 마음이 그냥 시원하고 그렇게 기분이 좋았



어요.” 그러나 돈이 늘 잘 사용되고 잘 관리된 것은 아니었다. 아버지와의 불편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정승식은 3년 동안 아버지에게 돈을 이체했다. 베트남 파병에서 번 돈을 모두 아버지에게 줬지만 그때도 그의 아버지는 돈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 독일에서도 “나머지는 아버지한테 보냈는데 아버지가 그 돈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결국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동생한테 편지가 왔는데 아버지한테 돈 보내지 마라고 그렇게 편지가 왔더”라고 말했다. 유사하게 김재승도 3년간 보내준 돈을 가족들이 모으지 못했다고 말했다. “워낙 송금시켜주면은 한국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3년 마치고 나니까 남은 돈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지.” 비참한 보증인과 사기꾼의 이야기는 드문 일이 아니었다. 김완수는 모은 돈을 사기를 당해 한국에서 모두 잃었다. “열심히 벌어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서 뭘 해놨는데 하루 아침에 그게 다 어디로 갔어요. 하루아침에. 그게 어디로 다 가버린 거예요. … 사기는 아니었는데 그냥 친척이 사기를 당한 거 같아요.”

이 당시 한국으로 송금된 총액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8년 보고서에서 1965년부터 1975년까지 광부와 간호사의 송금액이 총 1억 153만 달러라고 보고했다.<sup>14</sup> 한국에게 이 자금은 순수한 외화 수익이었다. 수출품처럼 생산비를 공제하거나 개발원조금 대출처럼 이자를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이었다. 송금이 서민들에게 직접 전달되면서 국내 수요가 급증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그들이 한국으로 보낸 송금액이 본국의 발전에 이바지한 것으로 여겨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따라서 그들은 고국을 방문할 때 특혜의 형태로 자신들의 수고를 인정받기를 원한다. 박종선은 광부들의 파송과 서독의 한국을 위한 차입금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커뮤니티에 널리 퍼진 소문, 즉 파독광부의 월급이 국가의 차관을 갚는 데 사용된다는 소문을 반박했다. 김재승은 또한 이주는 자발적인 것이었으며 독일의 경제원조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보고서도 이와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3년의 계약이 종료되면 광부들은 한국으로 돌아갈지, 다른 국가로 이주할지, 독일에 머무는지 결정을 내려야 했다. 1963년에 독일에 온 김근철에 따르면 1960년대에는 단지 1/4만이 한국으로 돌아갔다. “다른 지역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아헨 지역은 60명이었습니다. 그중에 4분의 1이 귀국하고, 그 다음에는 전부 독일에 잔류하거나 불란서나 네델란드, 또 미국이

<sup>14</sup>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앞의 보고서, 213~214쪽 참조.

나 캐나다로 이민을 갔었습니다. … 이후에는 돌아간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가는 길이 많이 막혔거든요. 미국 비자도 잘 안 내줬어요. 그러니깐 할 수 없이 돌아가는 일이 많았었죠. 그래 나중에는 반 이상이 한국으로 귀국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1970년대 후반에 온 사람들은 1980년 체류 허가가 공식적으로 나기 때문에도 독일에 더 많이 잔류한 것으로 보인다.

광부들은 대부분 광부 생활 이후의 이민을 준비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미국으로 이민 간 동료들에 대해 긍정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비자 문제도 있었고 1만~2만 마르크의 추가 비용이 필요했지만 미국으로의 이민은 좋은 결정이었다. 이문삼은 “지금 생각으로는 아메리카로 튼 사람들이 잘한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 박종선도 “여기 독일에서 광부를 마치고 캐나다랑 미국으로 간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하”였다고 동의했다. 정승식과 이동철은 미국 이민을 고민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동철은 나중에 미국에서 목회자로 정착한 전 동료의 초청을 받아 그 꿈을 이뤘지만 결국 다시 독일로 돌아왔다.

반면 한국에 돌아온 동료들의 삶을 보면 부럽지 않았다. 오히려 성공적으로 귀국한 경우에도 한국에서 그들의 삶은 순식간에 희생자로 전락했다. 물론 한국에서는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 한국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적·경제적으로 계속 발전했으며 독일에 있는 한인 이민자의 생활수준을 넘어선 것같이 보이기도 하였다. 김재승은 “하지만 독일에서 오래 살수록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뒤처지는 느낌을 점점 받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상황에 적응하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반면, 나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여기에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독일에 머물기로 결정한 주된 원인은 경제적인 이유였다. 3년 계약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하기에는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족들은 이미 대부분의 돈을 다른 곳에 지출했다. 이처럼 이들의 상황은 이주 전과 비교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했다. 이문삼은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요약했다. “좀 더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 야, 이거 생활은 택시 하나라도 운영을 해야 밥 먹고 살 텐데 이거 가지고 되겠나 이 말이지. 좀 더 있어야겠다.”

광부로서 계약 연장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능했다. 우선 통역사는 3년 이후의 체류 비자를 쉽게 연장할 수 있었다. 광산에서 계약 연장을 원하는 사람들은 전년도 실적과 병가를 얼마나 냈는지 검토한 후 1년 계약을 체결했다. 김창선은 광산에서 총 4년 동안 일할 수 있었다. 이문삼은 계약 종료 후 통역이 되기 전에는 몇 개월씩 연장했다고 한다. “그때 정말 3



개월씩, 4개월, 6개월 이렇게 막 감질나게 해주더라고.” 이들의 체류권은 취업 허가증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되면 더 이상 독일에서 거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다. 장기 체류 허가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체류 허가를 소지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었다. 광부들과 거의 같은 시기에 서독과 서베를린 병원에 약 11,000명의 한국인 간호사가 파견된 것은 체류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파독광부에게는 좋은 일이었다.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독신 여성이었고, 이들의 계약 연장은 광부들에 비해 수월했다. 이로 인해 결혼할 의사가 있는 광부와 간호사 사이에 많은 교류가 생겼다.

독일 체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독일에 영원히 정착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그 당시 독일에 완전히 정착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극히 소수였다. 체류 연장은 이들에게 귀국을 지속적으로 미루는 행위였다. 그러나 자신의 가족을 형성하고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귀국하려는 의지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

1975년에 김근철은 13년 만에 귀국해 그동안 모은 돈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을 고민했다. 그러나 부부는 독일에 있는 동안 한국 사회가 낯설어졌고 다시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그들은 복귀 계획을 철회했다. “13년 만에 갔는데 우리말도 들리고, 또 사회에서 흐르는 이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에 적응할 수가 없고 또 사람들이 너무 참 날뛰어가지고 밥이 되기 마련이더라고요.” 오랜만의 한국 방문에서 그들은 낙담했다. “날뛰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기당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없었다.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돌아갈 수 없다는 좌절 사이의 갈등은 일부 광부들을 평생 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만들었다.<sup>15</sup> 기본적으로 이 상태는 은퇴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계약 만료 후 광부들은 한국인 간호사와의 결혼이라는 개인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1979년 말 한국 광부들은 “독일 탄광에서 한국 광부의 임시취업 프로그램”의 철회를 위한 운동을 시작했다. 거주권과 직업 연동 그리고 거주지가 지정된 이 계약은 기본적으로 인권과 상충되었다. 결국 광산에 남겨진 약 800명의 광부들은 그들의 3년 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비자, 직업 선택권, 타 지역으로의 이주를 요구했다. 독일의 신문과 텔레비전은 시위 활동에 대해 보도했다. 그러나 독일 연방정부는 한국 광부의 요구를 거부했다. 한국 군부가 1980년 5월 광주에서 민중항쟁을 유혈 진압한 후, 연방정부는 한국 광부의 요구를 결

15 Jae-Hyeon Choe/Hansjürgen Daheim, Rückkehr- und Bleibeperspektiven koreanischer Arbeitsmigrant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Frankfurt a.M.: Peter Lang, 1987, 68쪽.

국 수용했다. 한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광부들을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sup>16</sup> 나복찬은 한인 광부들의 독일 거주권이 광주항쟁 진압과 관련 있다는 점을 아이러니하다고 묘사한다.

체류권을 얻기 위한 한국 광부들의 성공적인 투쟁은 독일 이민자들의 역사에서 의미 있게 여겨진다. 왜냐하면 단지 소수의 이민 집단이 그들의 체류권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연대적인 시위를 통해 얻어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1977~1978년에 한국 간호사들은 반추방과 체류권을 위한 성공적인 캠페인을 벌였다.<sup>17</sup> 한국인 광부들과 간호사들은 거주권을 위해 집단적으로 투쟁한 소수의 “손님 노동자” 중 하나였다.<sup>18</sup> 다른 유럽 파견 국가의 손님 노동자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쉽게 독일에 머물기 위한 개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고, 집단적인 투쟁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권을 위해 투쟁한 것은 1990년 통일 직후 동독에 계약직으로 왔던 이주민들이—특히 베트남 출신 노동자들이—하룻밤 사이에 그들의 거주권을 상실하였을 때이다.

### 가족의 형성: 도전받는 남성성

광부들은 스스로를 이민자로 여기지 않았지만, 독일에 체류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타국으로의 이주 또는 귀국보다 더 나은 선택으로 보였다. 대부분의 결혼 대상자였던 한국 간호사들은 대체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남성들은 광산을 떠나 새 직업을 찾아야 했다. 독일의 학교 시스템은 한국보다 아이들 교육에 장점이 있어 보였고, 교육비 측면에서도 한국에 비해 합리적으로 보였다. 광부와 간호사의 결혼은 거주법상 남성의 신분이 여성의 신분에 의존적이었음을 의미했다. 또한 여성은 결혼 후에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고, 따라서 가구의 80~90%가 맞벌이를 했다.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독일에 있는 한인 가정의

16 이유재, 「이주민 인권운동에서 국제연대로, 그리고 다시 이주민 인권운동으로」, 『기억과 전망』 제46호, 2022, 151~170쪽.

17 Koreanische Frauengruppe in Deutschland (편), 25 Jahre Koreanische Krankenschwestern in Deutschland. Eine Dokumentation der Koreanischen Frauengruppe in Deutschland, Frankfurt a.M. 1995 참조.

18 Manuela Bojadzjev, *Die windige Interantionale: Rassismus und Kämpfe der Migration*, Münster, 2012, 142~145쪽.

성별 역할은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역할 모델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간호사는 전형적인 혼전 직업이었다. 결혼 후 대부분의 여성들은 간호계를 떠나 가정에서 아내와 어머니가 되었다. 그들은 이상적인 중산층 가족의 이미지를 받아들였다.

독일에서는 간호사가 결혼 후 거주법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 수 없었다. 그러나 남성의 체류 자격이 확실해진 상태에서도 여성의 직장 생활은 가정경제의 닢과 같은 역할을 했다. 박종선과 정승식의 부인들은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다. 사업이 망했을 때, 그들은 간호사라는 직업으로 다시 돌아갔다. 종종 남자는 여자의 거주지로 이사했다. 초기에 남자들은 간호사들의 숙소에서 살았다. 독일에서 한인 가정은 전통적인 한국 가정보다 남성이 가사와 육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어떤 면에서 이주라는 공간은 기존의 성별 역할과 분명히 단절되어 있었다. 파독광부들의 남성성은 광산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노동으로 도전을 받았다면, 광산을 떠난 후에는 부인에게 법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신분과, 가장으로서 경제적 책임을 부인과 나눠야 한다는 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협회, 교회 공동체 또는 한인학교 같은 공적 모임에서는 전통적인 성별 역할의 모습이 다시 공고해지는 경향이 드러났다. 여기에서 남자들은 리더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런 커뮤니티 내의 공공성은 도전받는 남성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인터뷰 참여자 중에는 가족 결함을 위해 아내를 독일로 데려온 사례가 4건 있었다. 김창선의 경우를 통해 우리는 그의 아내가 금성에서 그와 함께 일했고, 그와 함께 식당 사업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동철의 아내는 주부로 지냈다. 그는 5명의 식구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 큰 책임을 느꼈다.

처음에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독일 체류 기간을 연장했지만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하는 시점부터는 교육이 체류 연장의 주 원인으로 변화했다. 맞벌이 가정의 부부는 자녀 양육을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 의지할 수 없었다. 그들은 교대 근무를 통해 아이들 양육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 부부가 교대를 할 때 종종 아이들은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집에 남겨져야 하는 시간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것은 어린아이나 학령기 아이들 모두에게 해당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좋은 학교교육에 관심을 기울였다. 김완수는 자녀들이 유명한 사립 가톨릭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개종하기까지 했다. 자녀 교육에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대학에 가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졌다. 법학, 의학, 경영학 등의 고전 과목에 초점을 맞춘 것은 경력, 안정, 사회적 평판을 보장받는 중산층의 이미지와 관련지을 수 있다. 인터뷰에서 아이들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지만, 그것이 지나치다고 인식되지는 않았다. 이것은 인터뷰를 수행하는 본 연구자가 이주 2세대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과 관련 있을 수 있다.

### 직업: 불안정성의 연속

광산에서의 작업은 고된 육체노동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 이후의 직업들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부분은 직업 훈련을 받지 않았다. 그들은 우선 독일에서 직무를 익혀야 했다. 김근철은 IT를 배웠고, 다른 이들은 용접, 기계, 택시 운전 등을 배웠다.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일부는 자영업으로 식당, 여행사, 숙박업을 운영했다. 탄광 이후 직업 세계로의 진입은 꽤 어려웠다. 최종옥은 회사에 합격할 때까지 2년간 계속 같은 회사에 지원서를 넣었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전직 광부들은 직장과 직업을 자주 바꿨다. 이동철은 미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후 호텔을 열기 전까지 3개의 다른 회사에서 근무했고 중간에 여러 번 실업자로 등록했다. 김완수는 지멘스와 보르직에서 근무하다가 먼지 알레르기로 직장을 그만둔 후 택시 운전으로 전향했다.

대부분의 전직 광부들에게 광산 이후의 삶은 불안정한 직업 상황, 실업 및 조기 퇴직으로 요약된다. 자영업이라는 선택은 그들 스스로가 사장이 되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대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슈퍼마켓, 간이식당, 레스토랑, 실내 테니스 코트, 호텔·게스트하우스, 여행사 또는 한의원 등을 열었다. 그러나 직업 세계의 험난한 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자영업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더 심각했던 것 같다. 정승식은 슈퍼마켓과 식당을 개업했지만 여러 번 실패했다. 그는 “뭘 진짜 먹을거리가 없어 가지고 진짜 된장 하나도 없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라고 회상했다. 그는 네커만이라는 통신 판매 회사에서 처음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과도한 육체노동으로 7개월 만에 그만뒀다. 그가 루프트한자에 취직한 것은 기적이었고, 처음에는 3개월 단기 계약에 서명했지만 60세 나이로 조기 퇴직을 했다. 그 후 호텔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사업이 안정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자영업을 통해서 큰돈을 번 사람은 없는 것 같다.

파독광부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광산에서의 육체노동은 그들의 삶에서 진정한 도전이 아니었다. 불안정한 직업, 잦은 이직, 자영업의 불확실성, 실업, 조기 퇴직 및 질병이 종종 큰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오히려 탄광에서의 어려움은 이미 예상된 일처럼 보였다. 광산에서 보낸 개별적인 기억은 광부들의 유사한 경험으로 인해 크게 상충되지 않는 하나의 집단 기

역으로 병합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광산 이후의 직업 세계에서 개인들의 경험은 쉽게 일반화시킬 수 없다. 따라서 광산 이후에 그들의 힘들었던 경험은 지금까지도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중들에게도 이 시기는 그다지 힘든 시간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전직 광부들의 직업 세계에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그들이 독일에서 한국 기업과 국가 기관의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문삼은 통역 업무를 거쳐 본(Bonn)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다. 그의 업무는 주로 외교관들이 독일에 원활하게 정착하도록 하는 일이었지만, 대사관 측은 현장에서 일상 업무에 정통한 사람도 필요했다. 그런 까닭에 그의 노동시간은 정해진 시간을 넘기기가 다반사였다. 잡일로 인한 업무량은 그가 전문성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게다가 그가 하는 일은 외교관들의 개인생활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정착 자신이 대사관 내에서 경력을 쌓을 곳은 아니었다. 그 때문에 그는 대사관에서 나와 여행사와 이사업체를 시작했다. 이 일을 통해 그는 주로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한국 학생들에게 도움을 제공했다. 그는 개발도상국에서 온 학생들의 이주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재단을 찾기도 했다.

김창선은 금성(현 LG)에서 8년간 근무했다. 뮌헨에 있는 한국 회사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으로서 그는 투철한 책임감을 느꼈고 회사에 대한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한국 노동자들과 전문가들을 위해 자신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했다. 심지어 회사 직원들에게 더 나은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도 했다. 계속 찾아오는 손님들로 인해 집이라는 사적 공간은 마치 준공공숙소처럼 여겨졌고, 특히 아내와 아이들은 사생활을 잃었다. 김씨는 그로 인해 겪었던 고충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손님 접대는 회사 사람들이 주말에 유럽 여행을 떠날 때 스스로 운전대를 잡았을 정도로 극진했고, 이것은 당연히 신체적인 부담으로까지 이어졌다. 손님들은 밤늦게까지 머물거나 긴 일정의 여행을 정기적으로 떠날 것 등의 대접을 요구했다. 김씨는 회사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손님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승식의 호텔은 한국인 출장객들이 정착할 때까지 장기적으로 숙박을 제공했다. 초창기에는 특히 삼성과 대우 직원들이 그의 서비스에 혜택을 받았다. 레스토랑, 호텔, 아시아 식품점, 여행사 등 전직 광부들은 그들이 독일에 도착했을 때 발견할 수 없었던 기반 시설을 만들어 나갔다.

한국 사회에서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경제성장에 대한 광부와 간호사의 기여는 잘 나타난다. 광부들은 인터뷰에서 이러한 서사를 부분적으로 수용한다. 그러나 1980년대의 유학

생들과 1990년대의 한국 공관, 기업 주재원들과 사업가들에게 무시할 수 없는 인프라를 제공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한국 기업의 글로벌 확장과 디아스포라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를 감안할 때 커뮤니티 구축에 대한 그들의 공헌은 인정받고 더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 자치 조직 형성

높은 수준의 자치단체 조직은 한인사회의 특징이다. 직종별 단체(광부와 간호사)는 지역 및 연방 차원에서 조직되었다. 지역 한인 모임들도 연방 차원에서 형성되었다. 2세대의 경우 부모들에 의해 일찍부터 조직된 주말 한글학교를 경험했으며, 현재는 연방 차원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자체적인 주간 신문은 커뮤니티 내에서 소통과 소식을 담당한다. 한국인 단체는 독일 사회와의 통합에서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직장 밖에서 한국인들은 독일인과 거의 접촉점이 없었다. 친밀한 관계도 거의 없었다. 그들은 독일 커뮤니티나 단체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뢰할 만한 커뮤니티 내의 단체 형성은 사고, 정보 및 경험의 교환,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러한 한인 단체는 커뮤니티의 고령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전직 광부들에게 사회보험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금은 늘 풍족하지 않고, 노인 복지는 제한된다. 3년 계약의 광부들은 다시 귀국할 것으로 여겨졌었기 때문에 이 기간의 연금은 별도로 관리되다가 긴 시간이 지나 한국 정부에 이양되었다. 광부들은 개인적으로 한국에 많은 금액을 송금했기 때문에 본인들을 위한 돈을 적금하지 못했다. 또한 불안정한 직업, 실업, 조기 퇴직 등으로 인해 노후 연금을 많이 모으지 못했다. 그들이 선택한 자영업으로는 큰돈을 벌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혼한 남성이나 독신 남성의 경우 이런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나복찬은 한국 노인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를 마련하고자 할 때 이러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 누구도 한인 노인들을 돌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커뮤니티는 규모가 너무 작고, 재정적으로나 조직적으로 큰 현신이 필요한데 내부에서는 이런 사업을 진행할 여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개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이다.

단체 형성의 수준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사람들이 이주한 후에 기독교로 개종했다. 1970년대 독일 한인사회의 기독교인 비율은 한국의 3배에 달했다. 교회는 이



민자들에게 무엇보다 심리적 안정, 보호, 영적 돌봄,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신앙적인 이해 또는 의미 부여와 같은 것들을 제공했다. 독일에서 처음 기독교로 개종한 후 독실한 신앙인으로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정승식은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힘이 독일에서 받은 외국인 혐오 또는 차별에 맞서면서 발전했음을 발견했다. 직장 동료들로부터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분명한 차별을 받았을 때 그는 이런 대응을 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냈어. 난 여기 있어야 해.” 관점의 전환을 주목해야 한다. 그가 독일에 남는 것은 독일에서 일자리를 찾아 돈을 벌어야 한다는 본인 자신을 위한 이유가 아니었다. 독일에서 그를 필요로 하는 것은 독일인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위해 머무르지 않고 독일인을 위해 독일에 머문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 이런 입장을 형성하는 데 종교적인 해석이 결정적이었다.

### 차별 경험과 계급 상승

차별의 경험은 독일에 도착한 이후부터 흔한 일이었다. 지하에서 근무하면서 그들은 육체적으로 더 강하고 덩치가 큰 독일인들로부터 차별을 받았다. 그들은 불공평함을 크게 느꼈지만, 그에 반해 강렬한 저항은 거의 할 수 없었다. 서러움을 감내하면서도 밤에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때로는 억눌림이 폭발하기도 했다. 한 모로코인 광부가 지하에서 한국인을 때린 후 두 광부 그룹이 난투를 벌였다. 외국인으로서 불리함은 노동시장과 주택시장에서 점점 더 분명해졌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일부 참여자들이 이 불리함을 정면돌파한 것이었다. “주택 임대가 너무 어렵다면 나는 내 집을 사겠습니다.”는 최종옥, 정승식의 해답이었다. 많은 경우에 자영업은 노동시장의 차별을 피하기 위한 도피처로 볼 수 있다. 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은 하지만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다. 흥미롭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차별대우를 확실히 인지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차별의 원인이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겼다. 김재승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독일하고 한국하고 그런 게 언어, 풍습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샤이세(Scheisse, 똥, 쨌장) 하는 소리도 그냥 혼잣말로 하고 뭐하는데 그때 인제 우리가 독일 사람들 샤이세를 하면, 재가 분명히 나한테 지목하는 거다! 이런 인상을 받고. 그러니깐 말이 안 통하니깐, 안 통하잖아 말이.” 오히려 이들은 종종 그들의 부족한 능력, 약점, 그리고 결핍을 문제의 원인으로 여겼다. 이동철은 “한국 사람이라서 어려운 건 아니고, 언어 소통이 안 돼서 어려웠고. 그 다음에 내가 기술이 딸

려서 어려웠고. 기술 딸리고 말 딸리고 힘 딸리니까 사실 무시당한 거지. 그래도 무시당하면 자존심 상해서 금방 내팽겨쳐버리고 나올,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참 많았지만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많은 인내를 가지고 힘들게 살았지 뭐. 힘들게 살았어.”라고 말했다. 독일인이 외국인에 대해 혐오적이거나 차별적이라는 일반적인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이들은 독일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독일 사회와 독일 국가에 감사와 존중을 드러낸다.

본인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사회의 차별적 구조나 사람들의 혐오 때문이라고 보지 않고 본인의 결핍에서 찾은 것은 지배적 시각의 내면화와 차별구조의 공고화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바로 차별구조를 극복하고자 하는 동력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직접적인 저항운동은 아니지만 세대를 넘어 자식들은 바로 본인들의 결핍을 극복하길 바랐고, 그렇게 하기 위해 모든 힘을 쓴 것이다. 자식들이 독일 중산층에 진입한다면 그들의 능력으로 인해 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것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광부들의 자녀들이 진정 차별을 극복했는지는 모르지만 부모의 시각에서는 최소한 1세대 안에 계급 상승을 이루었다고 판단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남은 삶을 여전히 독일에서 머물고자 한다. 독일에서의 삶을 ‘희생’, ‘고생’, ‘전심전력’ 등으로 표현했지만 당시의 독일행을 후회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몇몇 한국인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다. 독일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독일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여겨지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 외국인으로 보는 시선으로 인해 그들은 한국인으로 남아 있으며 결코 독일 사회의 구성원이 못한다고 생각한다. 김근철은 한국에서야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독일이 결코 그의 고향이 아님을 깨달았다. “첫째로 자기 나라 말, 자기 문화에서 사는 것이 사람으로서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자기 말도 다른, 산천 다르고 이런 데서 생활하는 것은 항상 어려움이 따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독일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얼굴로 보면 한국 사람입니다. 독일 시민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한국 사람이예요. 한국 사람으로 취급하지 독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볼 때에 한국을 가야 한국 사람 대우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 오면 영원한 나그넵니다.” ‘영원한 나그네’로서 그는 평화와 안정을 갈망한다. 김창선은 여전히 한국에서 학업을 마치는 꿈을 가지고 있다. 이동철과 김재승은 형제자매 그리고 친척들과 같이 보내지 못한 시간을 만회하고 싶어한다.



## 4. 결론

한국 광부의 생애 이야기는 다면적이지만 그들은 또한 몇 가지 공통된 특성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이들의 삶은 빈곤과 암담한 미래가 주된 특징이었다. 독일로의 이주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였다. 이 선택의 주된 동기는 우선 경제적 요인이었고, 의지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지원 과정에서 이들은 일반적으로 뇌물, 문서 위조 및 인맥 동원 등의 행위에 의존했다. 그러나 루르 지역에서 광부로 일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어려움을 안겨주었고 여기에 대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대다수는 이전에 직업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1970년 이전에 광부 다수는 고등교육을 받았고 일부는 대학 졸업자였다. 이들은 독일 광부들에 비해 육체적인 열등함과 동시에 지적 우월함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였다. 한인 광부들은 독일의 복지 시스템, 예를 들어 병가 제도 등을 악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악용은 그들이 완전히 소진되지 않고 탄광에서 다치지 않기 위해 수행한 그들의 완고한 행동 중 하나였다. 광산에서의 계약 종료 후 한국으로의 귀국은 대부분의 광부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동안 저축한 돈은 한국에서 가족이나 친척이 그 돈의 대부분을 사용했기 때문에 창업 자본 또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없었다. 당시의 상황은 독일로 출국하기 전보다 눈에 띄게 나아진 것이 없었다. 정착의 이유는 시간이 가면서 경제적인 문제에서 자신의 가족, 자녀 문제로 이동했다. 그러나 많은 광부들은 직업 세계에서 지속적인 불안정성을 경험했고 자영업을 선택했다.

독일에 있는 한국인들을 '모범적인 통합 사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희생적인 서사를 간과하는 것이다. 엄격한 계약 때문에 파독광부들은 다른 손님 노동자들보다 더 힘든 이주 체제 속에서 독일에 왔다. 노동과 주택 시장, 직업 생활에서 그들은 동양인으로서 부당한 차별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들은 한국인 간호사와 결혼함으로써 개별적으로 거주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에는 간호사들뿐 아니라 광부들도 모두 독일 체류권을 획득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열심히 투쟁했다.

단, 그들은 삶의 서사에서 본인을 희생자로 여기지는 않는다. 돌이켜보면 전직 광부들은 독일로 오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들은 사회적 차별을 자신의 약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인식하고, 본인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여기에서 자신과 가족을 위해 자랑스럽게 여길 무엇인가를 만들어냈다.

광부들의 한국 개발에 대한 기여는 지금까지 그들이 광산에서 노동할 때 한국에 송금한

액수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이 점은 광부들도 충분히 인식한다. 본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이 결국 거시적으로 한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것 말이다. 하지만 한인 이주자들이 정착한 이후 그동안 쌓아온 디아스포라 구조는 1980년 이후 한국 공관, 기업, 학생들이 자리잡고 성장하고 공부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으며 여전히 한국의 세계적인 발전에 중요한 초석을 낳았다는 점은 넓게 인식하지 않는 것 같다.

이제 정년이 된 전직 광부들의 이주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한국으로 여행을 가거나 영구적으로 귀국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고를 독일 사회로부터 인정받은 것보다 한국에서 더 인정받기를 기대한다. 희생, 박탈 및 인내로 가득 찬 긴 삶을 보낸 많은 광부들은 이제 인정과 돌봄을 갈망하고 있다.

책이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다.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인터뷰를 같이 진행하고, 녹취록을 작성해준 이선영 연구원에게 감사한다. 구술자 사진을 찍어준 최동하 작가에게 감사한다. 2013년 튀빙겐에서 파독광부 사진전을 개최하고, 독일어 출판에도 사진을 실어주고, 이번에도 사진을 직접 고르고 출판을 허락해주었다. 해제 번역 초안과 녹취록 교정을 맡아준 이상구 조교에게 감사한다. 특별히 이 인터뷰 작업에 응해주신 구술자들에게 감사한다. 이미 운명을 달리하신 박종선 씨와 최종옥 씨에게는 이 책이 그들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한국에서 출간할 수 있도록 노력해준 국사편찬위원회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 이 책에 수록된 10편의 면담자 사진은 독일 한인 사진작가 최동하의 작품이다.

김근철

# 김근철

- 1937 전라남도 나주 출생
- 1957 고려신학교 예과 칼빈대학 입학
- 1961~1963 군 복무
- 1963 파독광부 1차 1진 아헨 EBV Merkstein Adolf에서 근무  
광산통역사로 근무  
광산 본사 전자 계산과에서 근무
- 1972~1975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신교 총연합회 회장
- 1974~1975 교회 소식지 『금주의 말씀』 제작
- 1975~ 사단법인 병원선교회 회장  
11년간 아헨 한글학교 이사장  
아헨 한인회장  
글뤽아우프회 회장
- 1992 광산 조기 퇴직





## 어린 시절 일제하의 기억

---

저는 김근철이라고 합니다. 1937년 5월 23일에 낳았으니깐 지금 만 75세가 됐네요. 저는 전라남도 나주에서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봉황면 덕림리라고 하는데 거기서 태어나서 세리면 동창리라고 있는데 거기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이게 경충 뛰는데 국민학교만 나오고 광주로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시골에 있으면서 국민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요. 특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제시대에 제가 국민학교 2학년에 해방이 됐으니깐 그분들이 좀 탄압하고 학대한 것을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사참배를 강제를 시켜요. 한 4km 되는데 신사당이 있는데 거기까지 끌고 가서 절을 시키고 공부 는 제쳐두고 거기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인상적이고, 두 번째는 우리말을 못 하게 했습니다. 한국말 하면은 그냥 벌을 썼어요. 그리고 우리 이름까지도 고쳤습니다. 김근철인데 일본 이름은 金本根哲(카네모토 콘테쯔)였습니다. 그게 좀 언짢은 것이 있고 또 다른 것은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놓으면 그 곡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가지고 타작할 때 타작마당에서 그냥 강제로 다 압수해 가버립니다. 농민이 농사를 다 해 갖고도 그 곡식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풀로 나무껍질, 또 칩뿌리로 연명하다시피 하다가 죽는 사람들 많이 있죠. 제일 내가 질린 것은 가을에 무를, 그걸 채를 썰어가지고 그거 삶아서 찐은, 저희가 한 7식군데 찐은 한 주먹도 안 됩니다. 거기 섞어서 먹는 겁니다. 그럼 무 냄새가 얼마나 지겨운지 그게 참 힘들었고 그러나 그거라도 먹을 수 있었으니까 좋았죠.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 사람하고 그렇게 우호적인 감정이 없습니다. 에... 참... 보통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인데 '놈'자가 들어가면은 좀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정도로 지금도 감정이 완전히 해소되지 아니하고, 또 지금도 독도문제 가지고 그러하고 위안부 문제도 사과 않고 한국 식민지 정책에 대해서 7만 명인가 고문으로 죽었다지요. 7만 명. 얼마나 많은 숫잡니까? 그렇게 정말 인도적으로, 정말 아무런 그렇게 뭐라 할까...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질러가지고 지금 일본 사람들 그렇게 좋게 생각을 못합니다. 이제 목사의 신분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온 세상 사랑하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일본 사람한테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 중·고등학교 시절과 한국전쟁의 기억

---

그게 어렸을 때의 기억이 그렇고. 그 다음에는 12살 때에 광주로 중학교를 진학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대대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가 있었습니다. 송일, 광주 송일학교라고 송일중학교 3년 다녔는데 도중에 6·25가 터집니다. 1년을 다녔는데 6·25사변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퇴학도 하고 공부도 그냥 할 수 없지요. 이북사람들이 와가지고 인민군들이 진치고 있는데, 학교는 휴교가 되고 집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반년 정도를 그렇게 지내다가 다시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에... 정말 중요한 시기에 휴학을, 휴교를 해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제일 한이 되는 게 뵈고 하면 지금도 인수분해를 잘 못합니다. 그 인수분해를 배워야 수학의 모든 실마리를 풀어가지 않아요? 그래 수학에 자신이 없어. 학교를 가려고 입학시험을 보면은 수학은 빵점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등록하러 광주로 가다가 그게 한 35km 정도 됩니다. 직선코스로는 가면은 걸어서 가야 돼요. 차가 없으니깐. 가다가 그때 인민군들이 있는, 어... 그러니깐 주둔한 그런 상태여서 폭격기가 날라옵니다. 참 간혹 날라오는데 한번은 광주로 올라가는데 호죽기라고 있어요. 썩썩이라고도 하고 호죽기라고 그랬어요. 호주에 전투기가 우리 사람들이 지나가니깐 그냥 공중에서 총을 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길에 옆에서 엎드려져 있었는데 겨우 살았지요. 그런 전쟁에 대한 경험도 좀 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거는 6·25사변이나 해방되기 직전에 정말 배고픈 설움이 너무나도 컸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장기인데 6·25 때는 아직 14살이 못됐었습니다. 아주 잘 먹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뭐 먹을 것이 없으니깐 제가 키가 1m 70이 못됩니다. 그것이 좀 아쉬운 것이 있고 배고픈 시절이 지금도 생각이 나서 음식을 요새도 남기지 않습니다. 더구나 아프리카에 가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한 톨이라도 버리는 것은 죄라고 생각을 해서 어린애, 어린아이들까지도 남겨선 안 된다,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가져가서 먹고 접시에 올려진 거는 다 먹어야 한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애들도 또 실행하고.

제가 중학교 시절에 자취를 했습니다. 방을 얻어가지고. 왜냐하면 하숙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자취를 했는데, 양식은 집에서 갖다가 꺼내 먹고 공부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때 자취한 3년 동안은 그때도 참 힘들었습니다. 12살부터 자취를 했으니깐 음식을 끓일 줄 압니까, 어디? 겨우 쌀밥이나 해서 먹고 가져간 김치를 가지고 이제 간장이나 찍어서 먹고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6·25 끝나고 이제 복학을 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송일중학교가 중학



교 위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3년을 거기서 마쳤습니다. 그래 광주가 제 고향처럼 그런 가까운 느낌이 있고 광주나 가면은 정다운 곳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대학 진학과 군대 생활

---

그 다음에는 제가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데, 전남 의대를 가고자 했어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아까 이야기 했듯이 수학은 빵점이 아닙니까? 어떻게 대학교 입학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영어시험을 보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어... 그러니깐 내용 에스더 아하수레오, 아... 아하수레오 왕 사이에 대화가 시험문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썼어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수학 때문에 입학할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 그러면 제가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예과인 칼빈대학이라고 하는데 부산에 있었습니다. 그래 부산에 가서 고려신학교 예과에 칼빈대학이라고 했는데 거기 가서 공부를 1년을 했습니다. 2년째 올라가는데 군대에서 영장이 나왔어요. 57년입니다. 그런 영장이 나왔으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입대해서 훈련을 받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얼마나 배고픈지 그때에는 제가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담배 배급이 나오잖아요. 군대에는 담배도 나오고 건빵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온다고요. 그것을 담배를, 다른 사람은 건빵을, 건빵하고 바꿔요. 훈련 받을 때 배고프니깐 건빵을 먹는 거예요. 그래 그걸로 좀 뭐라 할까 배고픔을 좀 면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4주간 훈련이 참 힘들었습니다. 지옥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 말은 다른 사람도 다 그런 훈련을 받으니까 일반화하지는 못하지만, 좌우간 힘들기는 참 힘든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고 이제 배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곳은 동과 별로 전방으로 갈사람, 또 다른 특수부대로 갈사람, 그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돼서 논산 훈련소에 자충대원이라는 거예요. 논산 훈련소에 필요한, 아...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라고 아주 별도로 또 4주간을 또 이래 훈련을 받습니다. 저 뭐 이제 그때에는 논산에서 조금 날아가면 익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3~4주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논산 훈련소에 배치가 됐는데 수용연대라고 하는 그런 연대로 배치됐습니다. 수용연대는 뭐고 하면은, 민간들이 군대에 입대할 때에 거기 들어와서 신체검사 하고 학력이나 그 특수적인 무슨 기술이 있으면은 그것을 분과 별로 분류해가지고 훈련 받도록 합니다. 훈련이 끝나면은 다시 수용연대로 와서 배출대라고 하는데, 거기서 전국, 그 사람들이

가야될 배치 받은 데로, 수용연대에서 현재까지 대동해서 거기서 인수해주고 돌아오는 그런 수용연대의 일입니다. 수용연대는 입대할 때의 그 사람들을 다 신체검사하고 분과시켜서 훈련소에 넘겼다가 사람들 다시 나오면, 넘어오면은 그 사람들이 가야 될 지정지로 끝까지 데려다 주고 인수하고, 인계해주고 돌아오는 것이 수용연대가 할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군대에는 1종, 2종, 3종, 4종이 있습니다. 그분과 별로 자기가 배치를 받아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1종은 똥고 하면은 일반 행정부입니다. 2종은 정보부입니다. 정보 전하는 정보과. 3종은, 내 할 때는 공병 가는 거 옷 수선하고 그런 거, 4종은 병참호라고 해서 군대 군수물자들을 관리하고 또 식사하는데 납품을 받아가지고 식사를 취사하도록 하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제가 1종으로 인사과에 배치를 받았습시다. 아무 계급장이 없는 이등병이 인사과에 갔는데 무엇을 맡기시고 하면 관인계를 맡깁니다. 관인계가 똥고 하면은 연대장의 이름으로 그 관인을 찍어서 증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증명관인을 소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직책이지요. 그런데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괴로운 것이 있었습시다. 왜냐하면은 처음 그 계획대로 해서 딱딱해서 일을 처리하면은 그건 문제가 아닌데, 그 상사들이 그냥 이름도 쓰지 아니하고 도장을 눌러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휴가증 같은 거, 또 무슨, 무슨 군품을 거기 부대 외로 나가야 되는데 통과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찍어달라고. 근데 그것을 찍어달라고 하는데 나는 도저히 찍어줄 수가 없었어요. 나는 연대장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오면 내가 찍어주겠다. 그 외에는 안 된다. 그러니깐 이등병이 그렇게 버티고 있으니깐 장교들이나 하사 중사 상사 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래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어서 한 6개월을 버티다 그래서 안되겠어요. 군종과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갔어요. 내가 도저히 양심에 거리껴서 내가 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겠습시다. 도와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깐 아, 마침 지금 다음 달에 제대하는 군중병이 있대요. 그러면 거기서 오래요. 그래가지고 6개월 후에 군종과로 옮겼습시다. 그러니깐 얼마나 편합니까? 그거는 점호도 없습시다. 점호는 아침마다 일어나고 또 기상도 열외예요. 필요가 없어요. 또 비상이 생겨도 거기 집합하지 않는 그런 겁니다. 거기다가 또 보초 같은 것도 안서고. 예를 들어서 특갑니다. 하나님 덕분으로. 특과에서 근무를 했지요. 제가 거기서 3년 동안을 군중병으로 근무를 했습시다. 그 목사님 이름도 잊어버렸다. 강경 사시는데, 김... 김... 잊어버렸어요. 그분이 아주 저를 봐줬다고 할까? 사랑했다 그럴까?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시다. 그래서 또 군대 생활하는 중에 전북대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시다. 야간에 다니는 것인데. 그래 2년 동안 전북대학교를 다녔지요. 1년

은 신과 예과 다녔던 것을 인정받아가지고 2년을 다녔어요. 3년 중에. 그리고 거기를 제대하고 1년을 더 다녔습니다. 그리고 전북대학교 상학과를 나왔는데 졸업시험까지 쳤는데 등록비를 내야 됩니다. 등록비가 없어서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때에는 집도 어려웠고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10여 년 동안 아프니깐 집에 있는 재산을 다 모아서, 모아졌던 것을 다 뭐 돈을 팔던지 그 치료비로 사용하고 의원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마지막 등록비를 달라고 이야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1년 다니고 그 다음에 61년 말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 제대 후 생활

---

집에서 아버님이 농사를 짓는데 제가 농사를 한번 다해봤습니다. 한 1년 동안 못해본 것이 없습니다. 산까지 한 6km 이상이 될 겁니다. 거기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나무를 지고 오고 또 겨울을 월동하기 위해서 풀을 뽑니다. 큰 풀, 그 풀이 약 1메타 50정도 되는데 그 갈대 같은 거예요. 그걸 베어서 말려서 짚어지고 그것을 등에 짚어지고 옵니다. 그때 생각이 나요. 얼마나 짐이 거추장스럽고 무거웠던지. 그러나 안질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어려운 일도 있었고. 우리 집 밭이 약 한 3,100리 되는 큰 밭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농작물을 합니다. 근데 한국은 옛날에 측간이라거나 뒷간이라거나 화장실 그게 있는데, 그 변을 받아가지고 위에까지 차면은 그걸 퍼내야 됩니다. 그것을 퍼서 밭에 농작물에 주는 겁니다. 그 일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거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발란스를 맞춰야 하는데 못 맞추면 그냥 튀기는 거예요. 그래 어려운 일이 있었고 제일 또 안타까운 것은 비가 안 오면은 그냥 작물들이 다 말라요. 낮에 나가면 빌빌 꼬여가지고 참 볼 수 없는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천수답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천수답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는가? 지금 강원도 쪽에는 그렇다는데, 요새는 다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농토에 물이 다 들어간다고 그러. 한국에 그렇게 잘돼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비를 주시면 풍년이 되고, 안주시면 그냥 흉년이요 그렇게 해를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1년 동안 집에 있을 때에도 정말 비가 안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힘이 들었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생활개선을 할 수 있나? 축산도 해보고 또 뽕나무도 심어가지고 누에를 기르면 또 부수입이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1년 동안 했었습니다.

## 파독광부 지원 계기와 파독 과정

그런데 그런 사이에 광주에 사는 친구 하나가 고태석이라 하는데 전남 대학교 화공과를 졸업했네요. 화공과를 나왔는데 그 애도 직장이 없는 겁니다. 신문을 가지고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광주에서 집에 까지는 한 40km 됩니다. 버스로 왔다가 걸어서도 또 6km 들어와야 되는데 신문을 들고 왔는데 뒀고 하면은 서독 광부 모집 광습니다. 그 모집내용을 보니까 제게 해당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체격이 뭐 55kg 이상이 돼야 되는데 나는 그때 55kg가 못됐습니다. 53kg가 됐어요. 그래서 안되고. 또 광산경력이 있어야 되네요. 1년 동안. 그거는 광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것도 안돼요. 거기다가 또 독일로 간다는데 독일어를 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2학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고등학교에 독일어 배우는 거 그렇잖아요. 나중에 독일에 왔을 때에 생각나는 단어 하나는 바서(Wasser, 물) 물, 물 밖에 생각이 안 나요. 다른 거는 생각 안나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배웠던 그 발음이 여기서도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어도 안 되고, 외국어도 안 되고 전부 안 된다 그건 나 해당 없다. 공연히 바람만 넣는다고 괜히 투정만 했지요. 그러니까 그 애가 지가 서류는 전부 준비하겠다고요. 신체검사만 나오래. 광주에서 했는데.

그래가지고는 어느 날 통고가 왔어요. 신체검사 나오라고. 광주로 올라갔습니다. 친구와 같이 신체검사를 받는 겁니다. 체중이 모자라니까 2kg를 때워야 되네. 그냥 신체검사 전에 화장실에 가서 물을 실컷 마시는 거예요.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건 또 통과했는데 체력을 검열한다고 30kg짜리 모래포대를 이렇게 몇 번을 들어야 됩니다. 30kg를 들어본 적이 어딴어요? 여기 어깨까지 올려야 하는데 안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 안간힘을 다해서 들어올리기는 했어요. 근데 몇 번은 못 들었어요. 그러나 한번들은 걸 가지고 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신체검사는 아마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서류전형이 있었다는데 그건 틀림없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되고 준비한 친구는 안됐어요. 그래 그 친구 이야기가, “난 참 서운하다만 너는 됐으니깐 먼저 가라. 독일로 가라.” 그럼 자기는 나중에 오겠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독에 광부로 오기로 작정을 하고 서울로 가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먼저 6주 동안 독일어 공부, 광산에서의 쓰여지는 용어들을 배우는 겁니다, 6주 동안. 거기다가 특강이 있었는데 인스부르크(Innsbruck)에서 공부했던 어떤 박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을 초청해다가 독일 생활의 상식, 독일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또 무엇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좀 상식으로 강의를 했어요. 그래 우리가 참 집합해서 다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

니까? 근데 그분 이야기가 독일에 가면은 목욕타올이 없대요, 큰 거. 그 타올이 없어서 여기서 준비해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모두 이제 목욕하는 타올을 큰 거를 하나씩 샀습니다. 그 가방에 부피가 있는데 그 타올을 넣으니깐 공간을 3분의 1을 차지해부러요. 거기다가 또 독일에 가면 채소가 없대요. 채소가 없다고. 그러니깐 비타민제를 많이 사가지고 가래요.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엉터리 정보를 쫓어요. 사실 여기 와보니깐 그 양반이 공부만 했지, 세상물정을 하나도 몰랐던 분이여.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은 말하지 말라. 남에게 폐를 끼친다. 그분이 우리들한테 얼마나 폐를 끼쳤습니까? 그리고 언어를 배우고 장성, 강원도 장성이라는 데가 탄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주 동안 또 실습을 갔는데, 그 채광하는 것을 우리가 관람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독일 채광법하고 한국 채광법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탄도 탄층도 한국하고 독일하고 전연 다릅니다. 가서 굴에 들어가서 탄가루만 마시고 나온 것뿐이지 결국 도움이 하나도 안돼요. 그래 장성이라고 하면 탄광촌을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로 오게 됩니다. 독일로 오게 되는데, 63년 12월 21일인데, 그날 이제 출발식을 거행합니다. 첫 진이, 처음 비행기를 탄 사람이 256명이예요. 그런데 그중에도 첫 비행기가 127명입니다. 첫 비행기를 제가 타게 됐지요. 그 출발식을 하는데 독일기를 걸어야 되는데, 독일기를 어떻게 걸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검정이 위에 가는지 노랑이 위에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한국기는 다 알잖아요? 빨강 것이 위이고 파란 것이 밑에. 근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독일대사관에 전화해가지고 그걸 알아내가지고, 독일 대사도 참석하는 공식적 식장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아마 면하게 한 거예요. 정말 많이 황당했어요. 준비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그때는 비행기도 우리나라가 없는 형편입니다. 에어프랑스 707이었어요. 보잉 707. 그걸 이제 대절해가지고 왔더라구요. 데리러 왔어요. 거기에 우리 127명이 타고 알래스카, 앙카라지(Anchorage)를 거쳐서 독일 함부르크(Hamburg)로 해서 뒤셀도르프(Düsseldorf)로 도착합니다. 그 시간이 장장 21시간이었습시다. 요새는 직행해가지고 11시간이면 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한국에서 독일을 북극을 거쳐서 오는 것이었는데 21시간 거쳐서 도착했어요. 그때 알래스카부터 그랬지마는 정말 모든 것이 낯설은 산천이었고, 말도 모두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왔었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우리가 도착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유학생을 통역으로 등용했어요. 근데 저는 한... 저 외의 59명이 아헨(Aachen) 도시에 에베파우(EBV)라는 광산에 배치를 받았습시다. 나머지는 함본(Hamborn), 겔젠키어헨(Gelsenkirchen) 그 쪽으로 배치를 받았어요. 그때에 카

지노라고 하면은 조금 나쁜 감정이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는 그 큰 식당을 광산에서 카지노라고 했어요. 그 큰 홀에 우리를 초대해놓고 저녁을 먹이더니 각 개인 집으로 배치를 한 겁니다. 그때 우리를 위해서 특히 독일어를 빨리 배워야 된다. 독일 가정에서 배워야 된다, 하고 한 가정에 여섯 명씩을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 그 가정에 주인들이 나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때 또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금을 주는데 20DM(마르크)을 줬습니다. 20DM이면, 한 2주 동안은 살 수 있었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짚기 때문에 (2주 동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20DM을 선불로 받아가지고, 받은 기억이 있고. 그때 처음 우리가 일당 얼마고 하면 13DM인가 됩니다. 13DM 그 일당을 줬어요.

## 독일에서의 초기 정착 생활과 막장 근무

근데 우리가 각 가정에 배치를 받아가지고 두 방을 싸게 3사람씩 두 방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페스타로치 슈트라세(Pestalozzistrasse) 1번지인데 그 주인이 신교 교인 에반겔리쉬(Evangelisch, 개신교) 크리스찬이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니깐 크리스찬을 광산에서 그 가정으로 전부 보냈어요. 6명이 기독교인들이 그래, 거기 갔었습니다.

거기서 있는 동안에 이게 또... 한국에서 배웠던 것처럼 언어를 다시 배웁니다. 언어를 4주 동안 배우고, 또 막장실습장이 있는데 매일 가서 거기서 연습하고 합니다. 그러는 것을 6주 동안을 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 신체검사를 모두 하게 됐습니다. 60명 신체검사를 하는데, 그중에 한 명이, 우리 동료 중에 하나가 회충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 보통 회충이 아니라 촌충이라고 하는데 회충은 길잡아요. 지렁이처럼. 그것이 아니라 또막또막한 촌충이 있어요. 촌충이 나왔는데 그것은 아주 이 사람들 굉장히 무서워하는 회충입니다. 왜냐하면은 불란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독일에서 광산에서 인부로 사용했는데 그 광산에서 그 불란서 사람한테서 촌충이 발견됐는데 그것이 전염이 됐대요. 그래서 몇십 명이 죽었대요. 그래서 촌충을 그렇게 무서워하였어요. 그래서 그 촌충을 제거하느라고 우리가 매주 알코파(Alkopal)라는 그런 약이 있었는데 그 영국에서 나온다는 그 약을 복용 했었습니다. 그것을 3개월, 3개월 이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촌충 나온 사람을 검사하는데 그게 안 떨어져 나가고 계속 나오거든요. 그 사람 덕분에 우리는 지하에 안 들어가고 기상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쉬운 일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버력산이라고 하는데 탄을 캐고 돌이 나오면은



그걸 산에다 갖다 쌓아 올려요. 그러면은 아헨 가면은 군데군데 그 벌판인데 산이 있어요. 인제 그것이 버럭산입니다. 그 버럭산에 식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 사람들이 생각해가지고 나무를 우리들한테 줘서 식수를 했어요. 지금 50년이 됐으니깐 이렇게 컸을겁니다. 버럭산에서. 아마 나도 궁금한테 가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 덕분에 한 3개월 동안 입항을 안 한 덕분에 일은 쉬운 일을 하려니깐, 고되지 않으니깐 시간이 좀 나더라구. 그래서 그 때에 독일 김나지움(Gymnasium, 중·고등학교) 졸업생 한 사람 하임라이터(Heimleiter, 사감장) 사감의 아들이었는데, 그 사람하고 청해서 우리를 가르쳐달라 우리가 보수는 주겠다. 시간 보수는 주겠다고 그래서, 그분한테 6개월 동안을 배웠습니다. 그래 3개월하고 입항을 하면서도 그 다음에도 3개월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3개월 후에는 그 사람이 이제 촌충이 없어져서 깨끗하니깐 입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항해서 처음 하는 일이 1주일마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채광 탄을 직접 캐야 된다 그러면은 트란스포트(Transport, 운송)한다. 그 다음에는 굴진 하는데 그 막장을 만들어가는데 이렇게 굴진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큰 암석을 떨어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배우게 됩니다. 제가 한번 한 것은 제일 처음에 탄층에서 탄을 캐는 겁니다. 탄층이 70센치밖에 안 됩니다. 70센치면 이정도 되는데 사이에 사람들이 일어설 수 없고 그냥 기어서 다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나무로 탄을 캐고 나무를 받쳐야 (탄층이) 안 무너집니다. 나무대신에 나중에는 철주가 있는데 철주에다가 철 봉을 대가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30kg를 메야 합니다. 30kg를 이렇게 올리는데 한 손으로 어떻게 올릴 수 있어요? 우리들이 정말 한국에서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탄을 캐는데 피카머(Pickamer)라고 해서 피카머는 그런 절단, 굴절입니다. 굴절해서 탄을 굴절로 찍어서 그게 또 부서지게 되면은 삽으로 이제 운반하는 탄차에다가 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삽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이 정도[손으로 크게 원을 그리며] 커요. 우리가 빈 삽도 그렇게 좁은 데서 옮기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근데 그것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배당량이 얼마고 하니 5메타를 가야 됩니다. 1메타 넓이에 5메타를 굴진해야 돼요. 근데 그걸 배당량을 해내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뭐 도저히 안될 것인데 거기 지하에는 빨간 모자가 있습니다. 안전을 담당하는 독일 사람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한 조에 한 다섯 사람 정도있으면 한 사람이 안전 담당으로 따르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보더니 너무 체격이 약하니깐 그 사람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피카머질을 하면 나는 삽질을 해야 되고 내가 삽질을 하면 그 사람이 피카머질을. 그래서 얼마 정도 양을 배당량을 할 수 있었어요. 그

것을 일주일 동안 내내 고맙게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채탄하는 기간은 무사히 마쳤죠. 그 다음에는 인제 운반하는데, 운반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불끈불끈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 지상통역으로 근무

---

근데 저는 2주만 지하에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1진인데 2진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2진을 위해서 통역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학생 통역은 있는데 그 사람이 전부 카바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의사한테 가서 어디가 아프다,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한다, 그걸 의사소통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유학생 통역은 그런 일까지 다 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 조금 독일어를 한다하는 사람들을 차출해가지고 그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 제가 아비투어하는 사람한테 배운 덕분에 조금 안다고 거기에 차출이 되어서 의사 통역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이에 2진으로 오는 사람들 중에 제 친구가, 처음 나하고 시작했다가 탈락된 그 친구가 왔어요. 근데 우리 아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에베파우(EBV)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저기 카스트롭 라우셀(Castrop Rauxel)이라는 그런 광산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산의 인사 과장한테 이야기해서 내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리 데려오고 싶다. 좀 데려올 수, 좀 여기 데려오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서로 편지하고 전화하고 뭐 해가지고 친구가 오기로 되었어요. 그래 우리가 다 데려왔지요. 데려와서 같은 광산에서 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진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달 후에 3진이 오게 됐어요. 그러면 또 통역이 또 더 필요 한 겁니다. 유학생 통역들은 거기까지 다른 진을 생각할 수 없고, 1진 2진만을 위해서 처음 광산에 남았어야 돼요. 그런데 3진부터 4진 5진 6진 계속 오는데 이 사람들은 에베파우(EBV)라는 에쉬바일러 베르크베르크페어아인(Eschweiler Bergwerks-Verein, 에쉬바일러 광산조합)이라는 광산에 여러 광업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메르크슈타인 아돌프(Merkstein Adolf) 광산인데 여기 뷔르셀렌(Würselen)이라는 아헨 근처에 굴라이(Gouley)라는 광산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어스도르프(Siersdorf)에 에밀마이리쉬(Emil-Myrisch) il-Mayrisch라는 그런 광산이 있었는데 굴라이하고 에밀마이리쉬에 인원이 필요한데, 한국 사람을 보내야 하는데, 통역을 필요한 거예요. 그래 통역을 독일어를 조금 한다는 사람들을 조금 차출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에밀마이



리쉬에 다섯 명을 차출하는데 저도 하나님 은혜로 주통역으로 거기 차출이 됐습니다. 주통역은 지하에 안 들어갑니다. 지상 사무실에만 있어요. 사무실 일, 거기서만 일어나는 일들, 또 어떤 사람들이 상담할 때에 그 사람들의 일을 처리하는 것, 대사관 내에 연관된 일을 처리하는 것, 그 업무가 주종이고 또 8시간 일하지만은 24시간을 그냥 조용히 지낼 수 없는 그런 업무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500명이 되다보니깐 사고쟁이도 있고, 술 먹고 난동 치는 사람도 있고, 또 교통사고로 해서 사고 나가지고 경찰에 불려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 상태가 심하니깐 병원에 실려 가서 정말 임종을 내가 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에 같이 따라가야 하고 어떤 때는 심지어는 연애편지를 써달래요. 근데 하는 시늉을 하지만 어떻게 다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24시간 항상 출동할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이런 생활을 한 5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동안 했는데 정말 위가 나빠져가지고 위궤양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의 지금도 그러지만은 노(No, 아니요), 나인(Nein, 아니요)을 잘 못합니다. 어떤 칭이나 원이 있으면 꼭 들어주고 싶은 동정심, 그 냉정하지 못해가지고, 같이 그 사람하고 같이 고통을 당하다가 위가 나빠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 그 주통역 할 때에 나는 지상 근무하니깐 괜찮지만은 지하 통역하는 사람들은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막장은 같이 따라다니면서 일해야 돼. 일은 많지만은 그 사람들 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통역하고 해야 되니깐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상에 있으니깐 지하에 있는 통역들한테 미안하지요. 또 그 양반들의 시기도 좀 받기도 하고, 좀 주목을 받을 때도 많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제가 주통역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때는 독일어를 한다고 하지만 여기서 독일어를 배워가지고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다 의사소통 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광부 중에 답답한 사람은 자기가 아는 유학생을 데리고 옵니다. 광산에 데리고 와서 통역을 해달라고. 근데 광산에서는 독일인들이 절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들이 세운 통역의 말을 듣지, 말을 잘 못하지만 통역 말을 듣지 다른 외부에서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사람의 말은 안 들어요. 독일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한번 신임하면 끝까지 신임하지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아요. 그런 것이 있었고 통역하는 중에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도 크랑크(Krank, 병가)가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즉 한국 사람, 유고 사람, 모로코 사람, 스페인 사람, 이태리 사람 다섯 나라에서 왔는데, 이 다섯 나라 통역이 같은 사무실에서 또 일하고 또 그 사람들도 또 지하에서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서로 잘 이해를 하지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은 서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한번은 모로코 사람이 지하에서 한국 사람 하나를 그냥 눈을 때려버렸어요. 지하에서 구타하면 크게 아주 저축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벌을 받아요. 그것을 이제 안전과에서 그 취급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맞고 나온 그 사람을 보고 너무나도 억울하다 모로코 사람한테 맞았거든. 너무나도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아침반을 끝나고 집에 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도 안 가고 다 모여서 지상에 있는 거예요. 그 모로코 사람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모로코 사람도 자기 동료들이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을 때렸기 때문에 좀 이상한 감이 들어서 그 때린 사람을 호위하고 나르는 겁니다. 그제 한 홀이 있는데 계단으로, 홀로 나르는데 한국 사람들이 한 30명이 기다렸다가 모로코 사람이 한 50명이 같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을 그냥 때려눕힙니다. 한 2분이니깐 다 끝나버렸어요. 태권도를 다 해가지고 다 없어뜨린 거예요. [웃음]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이제 광산 내에서 구타하는 건 금지됐는데, 지하에도 안 되지만은 지상에도 안 되는 거예요. 안전과에서 일을 취급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해버렸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버렸어. 그래 통역들이 불러, 거기 대략 저한테 불러와가지고 추궁을 받는 거예요. 그래 말을 해도 안 듣는데 어떡하느냐 말이야. 자기들이 감정이 폭발쳐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그래 병원도 실려 가고 난리도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모로코 통역하고 무사히 마무리했어요. 서로 처벌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안동회라는 사람인데, 5진으로 와서 그 양반이 이제, 그 양반 동생이 또 왔는데 6진으로 왔습니다. 그 양반이 6진으로 왔는데 독일에서 광산이 끝나고 미국 가서 60년대 말에 억 대를 벌었대요. 2억인가, 2억 달란가 벌었대요. 그 뭐 전자계통에 부속품을 팔아가지고 갑자기 벌었대요. 그런 일도 있었지요. 그 다음에 광산 통역으로 있을 때에 지상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장례식을 하는데 그렇게 힘이 들었고 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죽은 시신을 한국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럼 장례사하고 함께 유축해가지고 그거는 대사관 소속 상관 소속도 아니에요. 상관도 안 해요. 각 광산에서 통역들이 주선해가지고 보내야 됩니다. 근데 한국까지 시신이 어떻게 갑니까? 화장은 한국 사람이 잘 안 하잖아요. 그건 아연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시신을 보냈는데 몇 천 DM(마르크)가 그때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가족이 원하니깐요. 그 관으로 아연관으로 만들어가지고 물이 흐르지 못하게 완전히 봉해서 그렇게 비행기, 비행기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 케이스가 한 10여 건 있었는데 그때가 참 힘들었습니다.

## 이직과 은퇴

---

여러 가지 광산에서의 통역할 때에 일들이 있었지만은 제가 위궤양으로 도저히 견뎌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토요일마다 소원을 받는 1년 6개월 동안에 컴퓨터 코스를 내가 그때 받았습니다. 그때 독일에도 처음에 컴퓨터가 시작할 때예요. 그 제일 처음에 홀로리터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지멘스(Siemens)도 아직 시작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 코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거 임금 표 같은 거 찍어내는 데는 여러 가지 한 장을 넣어가지고 찍어내기도 하는 처음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지멘스에서 개발한 컴퓨터가 나옵니다. 또 미국에서 엔씨알(NCR)이라는 그런 컴퓨터 제도가 나왔어요. 그때 아이비엠(IBM)이 나왔었는데, IBM은 너무 비싸가지고 다른 컴퓨터를 사용합디다. 내가 거기서 28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광산 그만두고 이제 거기 광산 본사에 전자계산과가 있는데, 거기 예를 들어서 그때 종업원들이 24,000명이었습니다. 그럼 그 봉급 표를 다 찍어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느 그 자제 반입하는 거 나가는 거 전부 관리하고, 또 지하에 통풍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통제도 해야 되고 그 가스가 어떻게 어디가 머물러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뽑아내야 되는지 그런 것을 하는 뭐라 관제시설이 있었는데, 통제하는 관제시설을 우리 본사에서 했습니다. 그때에는 광산이 우리 본사에 그 소속에 광산이 열 몇 개였습니다. 그러니깐 그 전부 컴퓨터를 연결시켜가지고 거기서 통제를 하고, 또한 그걸 관장하는 과가 우리 전자 계산과 였어요. 거기서 제가 근무를 계속 해서 했지요. 거기서는 좀 편한 생활을 했지요. 왜냐면은 컴퓨터 일하게 해놓고 그 시간이 있잖아요. 실 수 있는 시간. 다른 거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시간. 그거 이용도 많이 하고. 그 덕분에 제가 우리 교회에 활동을 선교활동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이 일을 일하는 가운데 컴퓨터를 사용해서 문서도 만들고, 또 일복사해서 인쇄도 해서 또 우리 인쇄과가 또 우리 회사에 있었거든요. 본사에. 그 사람들한테 의뢰해서 돈만 좀 주면은 딱 만들어주고 그래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선교활동이나 또 그때 당시에 한글학교를 제가 11년 동안 이사장을 했습니다. 아헨 한글학교. 그래서 그 컴퓨터 덕을 그때도 많이 봤죠. 그리고 광산 경력은 이제 그 정도로 마무리지어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1992년에 광산 회사가 150년 전통이 있는데 폐광을 다 해야 되는 운명에 다다랐어요.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생산비가 높기 때문에 그때에는 남아공이나 남아프리카 회사나 또 중국에서 나오는 그 탄이 유럽에 오기 때문에 그 탄이 함부르크 항구에 도착하는 그 탄을

사는 값보다는 생산비가 배 이상이 비쌌어요. 그래서 독일 정부에서 많이 보조를 했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그냥 폐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55세였는데 1992년에 조기정년퇴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때 제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깐 지금부터 20년이? 20년이 됐네요. 20년이 됐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55센데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는 신학을, 한국에서 했던 신학을 계속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신학을 독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4년에 졸업하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 선교 및 기타 활동

---

원래 종교는 한국에서부터 기독교였나요? 저는 할아버지부터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나면 서부터 기독교인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목사님이 된 후에 목사안수를 받으신 후에 여기서도 이제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나요)? 예, 한인교회도 그리고 선교 선교회. 제가 선교지에 가면은 신학생들을 졸업시킬 때 안수해서 보내야 됩니다. 또 목사안수식이 매년 있습니다. 목사안수식이 선교지에서는. 지금까지 목사 안수를 준분이 한 250명이 됩니다. 그러면 선교회 회장으로서 거기 가면은 목사의 입장에서, 신분으로서 안수를 해야지 목사 신분이 아니고도 거기는 파스터어(Pastor, 목사)라고 해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양심이 거리껴서 나는 안수를 안 받을라고 했었어요. 안 받아도 평신도로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신념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그 안수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안수를 받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목회도 하고 주로 선교 활동을 했죠.

그 전에 이제 또 종교 활동이 있는데 병원선교회라고 하는 그런 사단법인 제가 75년에, 1975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럼 상당히 오래됐지요. 그 선교회에 요새는 선교회장 위임 위촉을 좀 다른 사람한테 해야 되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받을라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회장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85년에 우리 선교회에서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라위로 갔다가 지금 스와질란드에 정착해서 큰 사업이 정말 했었어요. 지금 7나라에 주 남아공, 스와질란드, 모잠비크, 말라위, 잠비아, 콩고 그

리고 케냐까지. 7나라에 지금 한 400개가 우리가 개척해서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140개의 교회당을 우리가 또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현지에서 일하는 분이 김종량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일을 많이 하죠. 지금 스와질란드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설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세워졌고 지금 대학교를 설립 중에 있습니다. 명년에 개학할 계획인데 주로 의과 공대 간호과를 지금 준비하고 공사 중이고, 또 거기 현지에 있는 대학교하고 제휴해서 아마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고 또 한국에서 뜻이 있어서 지원하겠다는 분들이 자기 자신들이 사업부진이라 약속한 현금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 한국에서 60%가 와야 되는데 현지에서 40%를 지원하겠다는데. 스와질 정부에서. 근데 스와질 정부에서 지원하는 40%가 US달러로 투엘브 밀리언(Twelve Million, 1200만)입니다. 그럼 한국에서 60%면 얼마예요? 한 20, 쯔반직 밀리오넨(Zwanzig Millionen, 2000만)은 와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완공을 볼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 외에도 모잠빅에 초등학교 대주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1,800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오전하고 오후, 그렇게 갈라서 수업하고 있는데 1,800명이 공부하고 있고 그 옆에 중·고등학교를 세웠는데 거기에도 1,200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대조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대조동에 있는 대조 순복음교회에서 지원을 했고 또 그 옆에 중·고등학교에는 소망중·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의정부에 있는 소망교회에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모잠빅에 중·고등학교를 지금 짓고 있는데 아마 자금이 좀 모자라서 완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잠빅에는 우리 선교회에서 농업 그러니깐 농사 개발원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한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56만 평입니다. 호수 곁에 있는데 그걸 개발을 하고 지도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아공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임마누엘 국제 신학교라고 그래서 거기에 10년 동안 신학생들을 목회자들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이어서] 또 거기 임마누엘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그걸 확보해서 회합장소로,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원도 26만 평입니다. 땅을 무진장 아마 선교회가 지금 확보한 땅은 100만 평 정도 될 겁니다. 누가 누군가가 개발하고 이용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말라위에 교회가 100여 교회 있고 콩고에도 한 100여 교회 있고 우리 동역자들이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말라위하고 잠비아에만 한국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고 다른 분들이 원주민들이 코미티(Committee, 위원회)를 선교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선교회에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는 한국 사람들이 8가정이 와서 지금 수고하고 교수하고 있고.

그럼 목사님께서 독일에서 하시는 그 선교사업하고 관련해서 하시는 것은 어떤 겁니까?

병원선교회인데 이게 아프리카 대륙선교도 우리가 파송하고 리더는 명칭상으로 우리 병원 선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파송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자금을 모아서 그쪽으로 보내는 겁니까? 예, 그러기도 하고. 예, 그러니깐 그 사역을 알려서 원하는 자원하는 분들이 가서 지원도 하고 또 자금도 보내기도 하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일들은 사회적으로도 좀 무슨 처음 오래 살다보니깐 아헨 한인회장도 맡고 글뤽아우프(Glück Auf, 재독파독광부협회)라는 광산 친목회 회장도 했었고... 지금은 좀 쉬고 싶은 생각이네요. [웃음]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양반들한테 일하도록 해야지, 붙잡고 있으면은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안하기도 하고.

## 결혼과 형제 관계

---

한국에서 나오시고 여기 오셔서 결혼을 하셨습니까? 한국에서 나오기 전에. 서로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했는데, 그러니깐 12월 11일 결혼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결혼은 독일에서 했는데 2년 후에 데려왔어요. 독일에서 그때 가정주부로 독일에 온 케이스는 첫 케이스였습니다. 그때 비행기 샀도 참 비쌌어요. 1년 이상을 저축해야 될 임금이었어요. 그만큼 거액이었어요. 65년도에 와가지고 12월 말일, 그름에, 석 달 그름에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상 사모가 우리 호적에 넣는 바람에 법적 결혼은 12월 11일에 했습니다. 그때 우리 결혼을 반대를 많이 했지요. 왜냐하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다. 직장도 없다. 그런 걸 옛날엔 봤잖아요. 근데 그 반대를 했는데 사모가 그걸 다 무릅쓰고 나는 신앙인이면 된다, 무엇 다 필요 없이 신앙인이면 된다. 그래가지고 담대하게 호적을 떼서 우리 호적에 입적 할 정도니깐 그때는 대단했죠. 그런 일 별로 없지요.

반대는 사모님 덕에서 반대하신 건가요? 그렇죠.

한국에서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큰누나가 있고 둘째 누나 있고, 그 다음엔 저



고 그 다음에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막내 여동생이 또 하나 있는데, 여동생이 고생을 많이 했지요. 우리가 모두 외지에 나가있으니깐 아픈 엄마를 시중하고 간호해야 되니깐 중학교도 못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어머니 곁에 붙어 있어야 되니깐 그 애가 너무나도 고생을 했지요. 그래도 머리는 괜찮은 모양이에요. 옛날 70년대에 인쇄하는 데에 자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판을 쓰는 데 영어도 하고 한글도 하고 또 중국 자판이 이렇게 컸습니다. 중국어도 치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데도 그렇게 잘해냈어요. 그래 그 애가 하는 거보면 대단하더라구요.

나머지 형제분이 타지에 계셨다는 것은 공부라든가 일 때문에. 그렇죠.

다른 지역에 사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결혼은 했고, 누나들을 결혼을 했고 또 저는 여기 나왔고 동생도 학교 다니고 그러니깐 막내 자녀는 가정에서 엄마 간호 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에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까? 우리가 75년도까지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적은 임금이지만 약 7만 DM(마르크)을 송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시골에 땅을 25마지기를 그럼 5천 평입니까? 그걸 사도록 했어요. 근데 75년도에 막상 가보니깐 도저히 한국에서 배겨날 수가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75년도면, 13년 만에 왔는데 우리말도 들리고, 또 사회에서 흐르는 이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에 적용할 수가 없고 또 사람들이 너무 참 날뛰어가지고 밥이 되기 마련이더라구요. 그래 아무래도 안 되겠다. 또 큰 문제는 그때 어린애가 셋이었는데 교육을, 교육비가 그리 문제가 한국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아예 여기서 주저앉기로 했습니다. 그래 우리 시민권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고 85년도까지 머물렀어, 버텼습니다. 25년간을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애들이 대학교를 가고 하니깐 뭐 국적, 우리가 한국 국적 버리기 미안하지만은 독일 국적을 취득하자 해서 그때부터 독일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가족이 다 그때 한국에 갔었습니까? 75년에? 75년에 우리 둘이 갔어요. 둘이.

구술자 부인 그때만 해도 비행기 값이 굉장히 비싸가지고, 그렇게 쉽게 우리 보통 수입가지고 한국 내왕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어요. 그때 왜 갔냐면은 이제 돌아가신다는 아버지님 전보를 받고. 마지막 도리다 생각을 하고 그때 나가게 됐어요.

근데 막상 한국에 가니깐 장례를 치르고 난 뒤더라고요. 10일이 지났어. 근데 형제들이 일부러 안 알렸대요. 그 동안에 못 봤는데 얼굴이라도 보자, 만나기라도 하자 그래서 안 알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한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고향생각이 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국에 막상 가면은 일주일 후면은 판 세상 왔다, 독일로 가야 되겠다. 자녀들이 여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국하는 거는 한국에서 열심으로도 하고 있으니깐 우리가 한국에서 부담 안 시키는 것이 애국하는 우리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 부담을 주기도 하는데 우리는 부담 주지 말자.

## 목회 생활

---

제가 총회장을 한 72년부터 75년까지, 3년 동안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 Westfalen) 신교 총연합회 총회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장성환 목사님이 오시기전부터 시작을 했지요 그중에 우리가 장성환 목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일하기로 했는데 우리들이 원하는 영적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으시고 엉뚱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자꾸 종용 했습니다. “목사님,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목사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이야기만 하고 우리의 뜻은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성환 목사님하고의 관계가 아주 안 좋았지요. 그래 3년 끝나고는 도저히 같이 동행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갖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끝나기 전에 1년 동안은 『금주의 말씀』이라는 주보를 냈는데 처음에는 시작한 것이 500장이 나갔습니다. 근데 끝날 무렵에는, 제가 끝날 무렵에는 1500장이 나갔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부 타자를 쳤어요. 거기서 글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목사님의 한국의 목사님들이 설교문을 타자에 옮겨서 말씀을 적고, 그 다음에 선교회 우리 총연합회 소식들을 적고, 우리 회원들의 동향을 적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적어서 배포를 했지요. 그때는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도, 유럽 다른 나라까지도 보내졌었습니다.

구술자 부인 그러니깐 그렇게 된 배경은 여기에서 간호원 분들이나 광부들이 끝마치고 인제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나 유럽에 퍼지게 되니깐 목사님들이 거기 안 계시니깐 너무 갈급하니깐 인제 목사님이 여기 총회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에 총회장을 하셔서 말씀이 나간다는 걸 알고 우리 집으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디 주소로 몇 부를 보내주



십시오. 이런 걸 하다보니깐 정말 우리 그때의 일과는, 목사님 설교를 한국의 목사님 좋으신 말씀을 거기서 인제 발췌를 하시겠지요. 여러분 교파가 많으니깐 한 교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교파를 고루고루 해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타자를 치셔가지고 그걸 인제 이후 [손을 내 저으며] 그때 인제 우리 애들이 그때 1972년인데 벌써 그때 아이들이 서이(셋)였는데 어떤 곳은 20부, 어떤 곳은 5, 어떤 곳은 한 장, 한 10분 이상 모이는 곳에서는 꽤 여러 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깐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우표가 다 다르지요. 무게에 따라서. 아무튼 우리가 굉장히 바쁘게 살았던 거 같아요. 월요일 날 그걸 해서 화요일 날 그걸 부치고 수요일 날은 그 우표가 홀란드에 가서 더 싸다 그럼 우리가 아헨에 사니깐 거기 가서도 부치고. 이, 참. 그때 당시에만 해도 한국에서 참 종교심이 강하니깐 우리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안 계시니깐 연락이 오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은 그대로 다 발송을 하다보니깐 그리고 각 기숙사가 매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무관계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안 계시니깐. 그래 아무튼 독일전역에 그게 가니깐 한 1,500부가 나가더라구요. 그러니깐 우리는 좌우지간 일하면서 살림하면서 그걸 참 바쁘게 했는데 인제 그런 거마저도 장성한 목사님이 못마땅하게 생각하신 거지. 사실은. [웃음]

**그 『금주의 말씀』은 매주 발행됐나요?** [구술자와 구술자 부인] 그랬죠. 매주 발행, 1년 반을 했습니다.

구술자 부인 근데 그때 목사님이 그 본사에 총무과에 근무를 하시면서 월급계산을 하고 큰 IBM 컴퓨터가 있으니깐, 거기에서 일하면서 다른 노는 걸 다해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자기 복음을 위해서 적소 적재에 아주 배치를 하셔가지고, 만약 그것을 일반 인쇄소에서 다 인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감당하기 힘들지요. 근데 그때는 거의 그게 일하시는 곳에서 워낙 기계가 크니깐, IBM 회사가 한 2만 명인가 광부들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가 컸지요.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거기서 쉬는 시간도 없이 좌우지간 쉬실 때는 그거 해서 배포를 하셨으니깐.

**그럼, 『금주의 말씀』은 혼자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구술자 부인 그때 발췌해 치셔가지고 우리 앉아서 개고 접고 넣고 우표 붙이고 [웃음] 우리 세 살까지, 세살 먹은 아이까지 우표 붙이고 그랬어요.

구술자 부인 푹푹하니 딱 앉아가지고 옛날에 이거 붙일라고 인제 막 우리가 분류하면 앉아

서 자기 꺼 막 붙이지. 모든 것을 이제 회상해보니까 50년 동안 하나님 은혜였어요. 막힌 것도 있고 곤란하고 안 되는 것도 있었지만 다 순조롭게 풀렸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제가 병원 신세를 네 번 졌습니다. 한번은 약물중독. 한번은 한 저 아프리카 선교지에 가가지고 모기 물려서, 말라리아로 열이 42도로, 8일 동안 그냥 죽기 전에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건 아프리카 선교지에 가서가지고 모잠비크에서 마지막 예배드릴 때 모기에 물리신 거예요. 목사님 사실 하신 일이 영적인 면이나 통역로나 그때는 정말 아무도 없으니깐 무슨 변호사 역할 같은 권익을 위한 이런 것들이 없어요. 아무튼 그래요.

## 광부 생활과 귀국 문제

---

통역을 할 때 가족수당으로, 그러니까 직업이 있었는데 보호자를 위해 5유로씩 5DM(마크)씩을 별도로 줬어. 수당으로.

구술자 부인 그러니까 사회사업을 하는 사람의 그 역할을 했다고 해서 추가로 말하자면 독일 사람들이 그걸 생각을 해준 것 같아요.

광산회사에서 매일 5DM을 30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거나 안 하거나 그 정도로 보호자라고 해서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구술자 부인 참 그래도 독일은 신앙의 국가라서 여러 사람의 의견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저 믿는 사람에 있어서 그렇게 신뢰를 했고, 참 우리가 그런 점에서 도전을 받았던 거 같아요. 용기를 우리가 참 얻기도 했습니다.

**그 초기에 오신 분들은 학벌들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1진으로 온 사람들은 약 80 퍼센트 대학 졸업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있었고 교직·교편 잡은 사람들도 있었고,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 정말 제가 통역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왜 나왔었죠?** 직업이 어떻게 해서 한국에서 짤렸는지 이것이 호기심이 낫는지 해외 나간다고 해서 아마 그런 이유가 있는 거 같아요.

후에는 그럼 학벌이 그렇게 계속 높게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지원하는 사람들이 학벌 좋은 사람들이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광산 또 우리들이 처음에 왔을 때, 악착같이 일을 했지마는 체력이 부족하니깐 정부에서 경험이 있는 광부, 경력이 있는 광부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해외 개발공사에서 광산 현지 광부들을 차출해서 보낸 거 같아요. 그 다음에는 학력이 굉장히 낮아졌죠.

그때 오신 분들 중에서는 학업을 계속 한다든지 공부를 더 한다든지 하신 분은 없나요?

그 후에 온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처음에 온 사람들은 많았어요. 저도 공부할라고 했지요. 근데 애기가 애들이 셋이 있어가지고, 또 가족을 생각해야 돼서 포기를 했죠.

그리고 그때 3년 계약으로 주로 왔는데 돌아간 사람하고 제3세계로 간 사람 비율은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아헨 지역은 60명이었습니다. 그중에 4분의 1이 귀국하고, 그 다음에는 전부 독일에 잔류하거나 불란서나 네델란드 또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을 갔었습니다.

1차 1진 60명 말고 목사님께서 한 30년 넘게 계속 광산업계하고 관련된 일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돌아가는 사람 비율이 그렇게 적었습니까? 그 이후에는 돌아간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가는 길이 많이 막혔거든요. 미국 비자도 잘 안 내줬어요. 그러니깐 할 수 없이 돌아가는 일이 많았었죠. 그래 나중에는 반 이상이 한국으로 귀국했다고 볼 수 있죠.

## 재독음악가 윤이상과 이효석 노무관

---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시대에 나와 있던 윤이상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했던 거 같은데.

작곡가, 그때에 베를린에 계셨는데 베를린에는 동부 베를린, 서부 베를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부 베를린은 북한에서 유학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접촉이 있었던 거 같애. 그래 윤이상 씨가 내가 알기에는 북한에 몇 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서부 독일에 유학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북한에서 그러니까 학자금을 받고 공부한 사

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더 잘 알겠지요. 그것을 파악하고 몇 사람을 지적해가지고 잡아들이라 하는 거예요. 독일에는 알리지 아니하고.

**그게 67년 소위 동백림 사건이죠?** 네, 동백림 사건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에 총지휘가 권총을 차고 총지휘를 한 분이 이효석 노무관이 총지휘를 한 거. 그래서 총 책임을 지고 또 귀국한 분이고 외교관으로서. 그 다음에 윤이상 씨가 풀려 나왔다고 그랬죠. 근데 그 사실은, 그건 사실입니다. 그분이 북한과 접촉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 북한 출신이 아닌 줄은 모르겠지요. 북한에서 서부 독일로 유학한 사람도 더러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광부들에게 특별히 도움을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은. 광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광부하고는. 광부 관여 있는 건 이효석 노무관이 노무관이니깐. 직접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노릇을 했지요. 그래 그때 당시에 광산에서 일하기 싫어가지고 일을 못 끝내니깐 동료들한테 지하에서 도끼로 내 손가락을 좀 잘라달라고 그렇게까지 청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르면 한 1개월 이상을 쉬거든. 그 지하에 나가기가 그렇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병가가 또 있었는데 한국 사람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분들이 병가를 일 년에 몇 번 하게 되면 해고를 시킵니다. 그럼 해고를 시키면 한국에 돌아가야지요. 그러면 한국 안 돌아간다고, 발버둥치고. 또 그걸 자기가 해고되는데 다시 고용 안 시켜 준다고 통역이 죽일 놈 살릴 놈이다 근데 그렇게 올 데 갈 데 없는 사람들을 이 노무관이 자기 집에다가 데려가 숙식시키면서 자기 월급으로 비행기표를 마련해 한국 보내기도 한 사람이 수두룩이에요.

## 독일 생활 회고

---

**지금 한평생을 돌아보면 그때 독일에 온 것을 잘하신 것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잘 못 왔다고 생각이 돼요. 한국에 있으면은 무엇을 직장이라도 있고 거기서 생활했더라면은 다르게 발전이 됐지 않겠나 생각이 되요. 그러나 이제는 물릴 수도 없고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자원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와가지고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또 교회에 선교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 왔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어머니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처음에 동기가 나오게 됐어요. 근데 어머니도 그땐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내가 독일에 떠나올 때 “네가 이제 가면은 다시는 못 보겠구나.” 하는 말이, 말씀이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요.

그럼 한국에 있었으면 한국에 일찍 귀국했으면 어떤 점이 더 좋았을 것 같습니까?

첫째로 자기 나라 말, 자기 문화에서 사는 것이 사람으로서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자기 말도 다른, 산천 다르고 이런 데서 생활하는 것은 항상 어려움이 따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독일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얼굴로 보면 한국 사람입니다. 독일 시민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한국 사람이예요. 한국 사람으로 취급하지 독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볼 때에 한국을 가야 한국 사람 대우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 오면 영원한 나그넵니다. 지금 열두 살부터 지금 외지에 떠돌아다닙니다만 영원한 나그네, 지상에 있는 동안은 나그네 길이라고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나그네지만은 영원한 천국에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다고 하는 거, 그 소망에 살고 있죠.

이렇게 객지에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나름대로는 한국 발전에도 이바지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파독광부들과 간호사들이. 그리고 독일에서도 필요한 부분에서 이렇게 노동을 하고 그런데 한국 측이나 독일 측이나, 정부나 사회에서 광부들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수가 처음에 발언하고, 발표를 함으로써 광부나 간호사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그래요. 내 알기에는 광산에 근무하고 간호사로 온 분들이 약 2만 명 되잖아요. 그분들이 뭐 봉급을 받아가지고 보낸 것이 뭐 얼마나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담보로 박정희 대통령이 차관을 받아갔습니다. 그때 2000, 아니 3000만 달러를 차관을 받았대요. 케네디 대통령은 그때 군복입고 쿠데타 했다고 해서 군대로 돌아가라고, 박절하게 만나주지도 않았대요. 근데 독일에 와가지고 천대를 받았지만은 독일에 서는 그런 지원을 받고 나중에는 호남비료, 나주비료 공장이 독일 사람이 호프만이 그 비료 공장 책임자가 나가서 건설했는데 그런 건설적인 생산성 있는 공장을 지어라, 독일에서 그렇게 권면을 했답니다. 차관을 그냥 쓸 것이 아니라 좌우간 그런 데(에) 투자해서 그런 산업 근간에 조성시키는 데 사용하라고, 투자, 그러니깐 자금을 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에 광부와 간호사들이 한국 산업발전에 처음으로 이바지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파월 전쟁 베트남전쟁에 파송된 많은 희생자들을 냈지요. 그분들의 공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중동에 나가서 근로자로 그 더운 곳에서 수고한 그분들의 공로가 이 세 가지가 근간이 되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산업개발에 상당히 도움이 됐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 면담 개요

<b>구술자</b>	김근철 (전 파독광부)
<b>면담주제</b>	파독광부의 생애사
<b>면담일시</b>	2012년 9월 8일 (토) 15시 25분 ~ 17시 50분 (총 116분)
<b>면담장소</b>	구술자(김근철) 자택, 본(Bonn)
<b>면담자 1</b>	이유재 (튀빙겐대학 한국학과 교수)
<b>면담자 2</b>	이선영 (튀빙겐대학 한국학과 연구원)



최종옥



# 최 종 욱

- 1936 전라남도 광주 출생
- 1965 파독광부 1차 4진 뒤스부르크 Lohberg에서 근무  
광산 근무 1년 연장
- 1969 파독간호사와 결혼, 남독으로 이주
- 1971 독일 바늘회사 그로츠 베커트에서 근무
- 1982 자택 건축
- 1991 부인 사망
- 1996 조기 은퇴  
형제들의 유럽여행 초대
- 1999 형제와 미국여행
- 2000 조카들의 유럽여행 초대  
슈투트가르트 한인회장 역임
- 2020 사망



## 간략한 생애사 구술

---

제 이름은 최종옥입니다. 전라남도 광주에서 출생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까지 광주에서 지냈고 그리고 군 복무를 전라남도 병무청에서 한 후에 사회생활을 2~3년 하다가 독일로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버님이 계셨고 여러 형제분들이 있었지만, 내가 독일 와서 버는 돈은 내 자유대로 쓰고 한국에는 보내지 않았습니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버님의 경제사정이 좋아서 나는 3년 후에 한국으로 돌아갈 걸로 생각하고 이곳에서 유럽을 구경하고 갈까 하고 왔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서 이곳에 와서 생활하다보니깐 모든 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광산생활도 한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실패하면서 느끼는 고통보다는 그래도 내가 여기서 노동하고 버는 돈이, 정상적으로 남에게 뜯기지 않고 제대로 내가 받을 수 있는데 대해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같이 온 동료들과도 아주 친절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중에 몇몇 친구들은 캐나다, 미국으로 갔지만 3년 계약이 끝난 후로 1년 연장해가지고, 이곳에서 간호원으로 있는 김정애 씨를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둘 낳고 살았습니다. 그때가 1969년이었습니다.

루르(Ruhr) 광산에서 이곳 남부지방 튀빙겐 근처로 와서 부인이 병원에서 근무하였고 나는 이곳에서 제일 먼저 용접공으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루르 탄광에서 광산 근무하면서 야간에 용접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때 그 증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용접공으로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한 2년 동안 이곳에서 바늘 만드는 공장 그로쯔 베커트(Groz Beekert)라는 데가 있는데 아주 소치알 시스템(Sozialsystem, 사회복지제도)이나 모든 것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입사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지원서류를) 제출했지만 항상 갈 때마다 서류가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먼저 겪어야 할 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줄곧 찾아다닌 결과 거기 세크리테린(Sekretärin, 비서)이 어찌됐든 간에 저를 대화시켜줬습니다. 인사과장과. 그래가지고 거기 취직돼서, 71년도에 취직해가지고 91년도 제 집사람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난 후, 2년 병가 한 후에 또 2년 실업한 다음에 1996년도 제 60세 되는 해에 은퇴하여 연금자로 들어가서 오늘날까지 이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 이직과 가정생활

---

용접을 광산에서 일하시면서 야간학교를 다니셨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가 광산에서 주어졌 습니까? 그러니깐 그 코스를 밟으려면은 먼저 아침반만 들어가야 됩니다. 근무를 아침에만 해야 오후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후 3시부터는 직업교육을 위한 시간을 내야 했기 때문에 그때 뒤스부르크(Duisburg)에서 이태리 사람 하나하고 저하고 지금 캐나다에 이민 가 있는 그때 우리 광부회 회장했던 그분하고 서이 뒤스부르크 매일 저녁 5시에 출발해가지고 9시에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아침에 또 출근하고. 근데 그게 일주일에 세 번 가요. 그 래가지고 그, 6개월인가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 합격증 받은 후에 캐나다로 간 그분은 카 나다에서 제일 먼저 그걸로 취직을 했어요. 근데 그 애는 외대 출신이어서 금방 다른 데로 갔는데 이태리에서 온 이분은 계약이 끝나고 한 3년인가 있다가 다시 이태리로 갔어요. 그 래가지고 저는 그 증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바로 취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71년도에 내 첫아이, 큰아들을 낳고, 그리고 73년도에 이곳 비츠(Bitz)로 이사 왔습니 다. 그 당시에 아파트를 하나 사가지고 와서 살다가 82년도에 아파트를 처리하고, 82년도에 이 집을 짓기 시작해가지고, 손수 이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83년도부터 이 집에서 살 고 있고 그 다음에 85년도에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우리 집사람이 먼저 세상을 뜬 후에 여러 가지 심적 고통으로 일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가 한국에 있는 내 형제들을 내가 초대, 초청을 했습니다. 누이동생, 작은 누나, 큰 누나 초청을 해서 이 유럽을 구경시켜, 이태리, 불란서, 구경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96년도에는 내 남동생 부부, 여동생 부부, 작은 누나 그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전에 두 조 카들도 이곳에 다녀갔고, 전 식구가 본모빌(Wohnmobil, 캠핑카)을 가지고 이태리, 불란서를 2 주, 거의 3주 동안 돌고,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내가 99년도에 미국 가서 내 작은 누나하고 형제들 만나서 큰 누나 다 같이 만나서 1개월 보내다가 독일로 와서 내 조카들을 또 초대를 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2000년도에 조카들하고 또 오이로파(Europa, 유럽)를 구경 하고 조카들은 불란서, 영국 구경시키고 다시 돌아갔고.

2001년도에 큰애가 결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딸을 2001년도에 낳고 지금 같이 살고 있 습니다. 두 번째 애는 2005년도에 낳았고, 그리고 지금 저와 같이 살고. 저는 93년부터 이곳 간호원으로 있는 분, 그분도 한국에서 이혼하고 오신 분이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분과 같 이 지내고 있습니다. 작은 애는 지금 슈투트가르트(Stuttgart)에서 제약회사에서 근무하고 있



고, 큰애는 나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 파독 전의 삶과 파독 과정

---

독일 오시기 전에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2년, 3년 정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생활을 하셨는지? 먼저, 고물상을 했어요. 그때 고물상을 하면서 그게 자전거, 그때 한참 자전거 붐이 있어가지고 삼천리호, 기아호 같은 거 조립해서 팔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걸 그만두고 또 사진관도 했습니다. 사람 하나 데리고. 그 사람은 기술자였지요. 사진관도 해보고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참 어려워요. 살기가. 이게 예, 그 쪼그만 가게하고 있는 데는 세금을 내라고 쫓아다니는데 그 돈을 그 받아가지고 세금 낼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깐 다 문닫아버리고 그때 당시에 제 1진으로 내 국민학교 동창이,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 애가 서영은이라고, 광부로 제 1진으로 63년도 12월 달에 갔어요. 그 애가 내게 독일로 자주오라는 거예요. 여기 오라고. 그래서 65년도 3월에, 그 당시 제 4진으로 독일에 왔었어요. 근데 그 애는 3년 계약 마친 66년돈가 67년도엔가 한국을 돌아갔어요.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특명으로 “1진 광부가 한국에 돌아올 경우는 꼭 일자리 줘라.” 그래서 그 애도 일자리를 전남 도청에 일자리를 임시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은 전부 다 60세까지 근무를 하는데 “자기는 임시직원이기 때문에 55세까지밖에 일 못한다.” 하고 나에게 하소연을 할 때 참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그 후론 이, 3년 계약을 마친 사람이 미국이나 또 캐나다로 많이 갔어요.

그럼 그때 독일로 오시게 된 계기가 그 친구 분이 권유를 하셔서 독일에 가겠다고 결정을 하신 건가요? 그 점도 있다고 봐야죠. 왜냐면은 그때 사업은 제대로 안되고 여러 가지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항상 나이는 서른이 되어가는데 부모 밑에서 있다는 것, 도저히 그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애도 오라고하고 또 나도 이제 내 앞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취직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래서 독일로 간 거지요. 독일 온 데 대해서는 후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 우리 집사람은 진짜 한국에다가 자기가 번 건 다 보냈어요. 그래서 한

국에다 집도 사고 나하고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받아서 한국에 집도 사고 다 샀지마는, 어머니 그 병이 있었는데 그 병 때문에 여기서 약을 계속 보내드려도 감당 못 해 갖고, 그 집을 팔아서 썼어요. 그래 그 집도 없어지니깐 이 양반 화가 좀 낫지마는 인생 살이에 남한테 사기도 당하지마는 엄마가 없앤 거 어떻게 하느냐, 이 양반은 자기가 처녀시대 때부터 모은 돈. 여기서 자기가 참, 한국여자 그러잖아요. 억척스럽게 한 돈 우리가 여기서 그 사람하고 살면서는 휴가도 못 갔어요. 이 집 짓고 한국에 같이 갈라 해도 같이도 못 가고. 그래도 그렇게 모은 돈을 없었으니 좀 슬펐지요.

독일에 오시기 전에 따로 독일어교육이라던가 그런 것은 받으셨나요? 그건 고등학교 때 조금 배운 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도 여기 와서 막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거 같아요. 다 고등학교 때 독일어 한두 번씩 했기 때문에 그저 조금 그 몇 개 단어만 외우면은 그래도 그냥 어데 가서 예를 들어서 꽃, 그러면 “블루메(Blume, 꽃)” 그러면 꽃 주고 그랬잖아요. “Ich kaufe Blume.” 그러지 않고 그냥 블루메 그러면 이것 달라면 이것 주고 그렇게 어렵지 안 았았는데, 우리 올 때만 해도 외대생도 있었고 대학교 졸업생이 많기 때문에 뭐 그게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특별히 광산이 지정한 통역, 그분들은 여기서 인제 한국에서 독일어도 했지마는 여기서도 해가지고 통역시험을 봐서 합격한 분이고 또 주 통역이라고 양통역이라고 있는데 양씨, 그분은 6·25 때 여기 입양하신 분이예요. 나하고 동갑인데. 그분 자주 만나서 얘기하면은 음, “내 꿈은 캐나다 가서 소 기르고 양 기르는 거네잉.” 그런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여기서 살고 계세요.

한국에서 그전에 광산에서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경력이 없었지요. 진짜 광부는, 우리가 그때 당시에 500 몇명이 왔는데 진짜 광부는 110명인가밖에 없었어요. 그 전부 다 그냥 서류만 해가지고 왔지요. 그리고 여기, 광산에서도 손 내면 이게 일한 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당장에 노동이 필요하잖아요. 없으니깐 사람이. 우리 전에 일본 사람이 왔다 갔어요. 일본 사람은 완전히 광부 출신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단 하나 둘 남았어요. 독일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리고 다 갔어요. 우리는 좀 틀리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우리하고 같이 일한 사람들은 좀 그러지만은 우리를 지휘하는 과장이나 계장 좀 위에 사람은 “아, 이놈들 머리가 있다” 그걸 알아요. 말하는 거부터 틀리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언어교육이나 지상에서 교육받을 때 비가 오고 그러면, 굴속에 타고 다니는 전철이 있거

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노래 부르잖아요. 그럼 독일에 민요는 우리들도 다 부르지. 저기 좀 듣는 사람은 “어, 저놈들이?” 예를 들어서 독일은 국민학교 졸업한 사람이나 광산에 들어가 지 그 이상의 학벌을 가진 이들은 광산에 안 들어가거든요. 국민학교 졸업한 놈이 한국 광부들이 저런 노래 부르고 국민학교 졸업한 놈이 어, 한국 광부들은 좀 틀리다. 이 애들도 그걸 벌써 알아요.

우리가 말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력서에서도 대학교 졸업했다고 쓴 사람 없거든요. 다 그냥 고등학교, 그냥 중학교 졸업했다고 그렇게만 썼지. 다른 터키나 이, 유고슬라비아나 이 태리에서 온 사람은 좀 교육을 잘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지하에 들어가 니깐 “삼 곱하기 둘은 얼마냐, 너 아냐?” 물어보기도 그랬어요. 그러니 애가 “삼 곱하기 둘은, 너 아냐?” “너는 아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 첫 번째 광산과 광부 생활

---

근데 나 있는 뒤스부르크(Duisburg) 로베르크(Lohberg) 광산은 우리가 첫 번째 갔던 텐데 아주 좋았어요. 정말 조건도 좋고, 대우도 좋고. 참 어, 노동자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진짜. 먼 사람 피병을 부리고 일 안 나오고 그것도 옛날에 우리 올 때만 해도 피병부린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70년도 이후로 온 사람들이 피병을 많이 부러가지고 좀 복잡했지요. 1차로 온 사람들은 피병 부린 사람들이 정말 없었어요. 1차에 1진, 2진, 3진, 4진, 5진까지 왔는데 참 피병 부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이 피병 부러가지고 여러 가지 말썽이 있었지요.

이제 그러고는 이제 그 뒤로 한국에서 자기가 배운 것을 활용해서 여기서 기업도 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은 자기가 렌테(Rente, 연금) 안 부여도 다 잘 된 사람들 있어요. 근데 사업하다가 제대로 안된 분들은 좀 고생해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 중 한 분도 사업이 안 되가지고 지금은 소치알(Sozial, 사회보조)로 살고 있는 이도 있고. 또 잘된 분들은 뭐 여유 있게 잘살지요. 요 밑에 살고 있는 우리 김경중 씨, 그분도 한국에선 태권도 사범으로 있다가 여기 와서 태권도를 하지만 지금까지도, 지금 68세, 내일모레가 일흔인데도 지금도 해요. 요즘은 내 손녀딸 가르쳐요.



선생님, 탄광 막장에서 일할 때 그 환경이 좋고 광산이 좋다고 그랬는데,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러진 않았습니까? 나는 또 행운을 맞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마는 제일 처음에 내가 자진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느냐를 한번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자진해서 삽질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옛날에 한국에서 수유리에서 교육받고, 그때 그 강원도 광산에서 2주간 실습을 했는데 그때 내가 광산에서 실습했을 때하고 여기서는 완전히 그 환경이 틀려요. 한국은 그냥 바람을 내뿜어가지고 그냥 먼지가 자욱한데 여기는 바람을 빨아 들여 버려요. 그러니깐 바람이 있는 데서, 바람이 나오는 데서 일하게 되면 아주 신선한 바람을 마시고 일을 했기 때문에 제일 밑에서 삽질하게 되면은 아주 좋아요. 위에는 고약하죠. 나는 제일 밑에서 삽질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삽보다 이렇게 삽이 큼니다. 근데 그 삽으로 하나 떠도 가벼워요. 무연탄이기 때문에. 우리 것은 좀 무거운데 이것은 가벼워요. 제일 처음으로 하니깐 쉬지 않고 100번까지도 해요. 근데 그것을 한 한 달간 하니깐 그 여러 사람들이 말할 때에 그래도 폐에 나쁘다. 그래서 이제 그 과장한테 얘길 했죠. “나 저, 그냥 일 고 단하게 안하고 적게 하는데 없냐?” 그러니깐 왜 그러냐 해요. 몸이 좀 힘들어서 그렇다고 그러니깐. 그럼 그러라고. 그러면서 반트라우펜(Bandlaufen, 콘베이어 벨트)이 있어요. 거기 지키고만 있는 거예요. 어디 반트(Band, 벨트) 위에 석탄이 날라가는데 어디가 막혀가지고 슈타인(Stein, 돌)이 넘었을 때 반트를 스톱시키고 퍼 넣어서 하는 거. 거기는 공기가 아주 맑아요. 공기가 들어온 데라. 거기서 했어요. 그러니 아주 편하지요. 돈은 적지만. 그러다가 인제 또 돈도 좀 생각나고 그러니깐 밤근무조를 하자. 그래가지고 밤근무조 들어가는데 그때 뺏을 하시고 하니 4개의 조로 하는데 아침에 들어가서 굴을 뚫고 발파하면은 그 다음 사람이 들어가서 그걸 다 끄집어내요. 내가지고 또 굴을 뚫어요. 그럼 그 다음에 밤근무조가 들어가서 케테(Kette, 사슬)라고 인제 그 끌어내리는 거, 그거 이는 작업을 해요. 이는 작업을 하고 모든 기계를 앞으로 전부 정지시켜놓고 그러지요. 그걸, 그 밤근무조를 하게 되면 공기가 아주 맑아요. 아무것도 안 하니깐. 그리고 시간이 많아요. 딱 너이 들어가서 하는데 한국 사람 하고 둘이. 나하고 오씨라는 분하고 그분하고 둘이 들어가서 한 세시, 네 시간하면 다 일이 끝나요. 그러면 여덟 시간인데 들어갈 때 한 시간, 나올 때 한 시간 그러거든요. 그럼 한 시간 정도 쉬었다가 나오고 아주 편하게 했어요. 마지막까지도 아주 편하게 나는 참 그렇게 일을 했지요. 다친 데도 없고.

**그럼 숙소는 기숙사에서 지내셨나요?** 기숙사에서는 한 2년? 2년 살다가 고향선후배들이 “아, 우리 나가서 살자”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나는 빵 먹는 것도 괜찮았는데 후배 된 사람이 빵을 못 먹어요. 김치하고 밥을 먹어 아침부터. 할 수 없이 그럼 “나가자” 그래가지고 너이 나가서 방을 얻어가지고 방 4개 부엌 하나 본침머(Wohnzimmer, 거실) 하나, 그거 하나 얻어서 너이 살다가 69년도에 전부 같이 헤어졌죠. 둘이 캐나다 가고 하나는 프랑크푸르트에 있고, 내가 여기 와 있고.

**계약이 끝나고 한국에 들어올 생각은 왜 안 하셨습니까?** 71년도에 큰애를 막 낳고, 내가 취직을 딱 내가 원하는 데를 하고 그러고는 ‘아,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러는데 애가 김나지움(Gymnasium, 중·고등학교) 다니고 내일모레 학교를 졸업하는데 군대를 가야 된다는 거여. 그때 딱 생각하니깐 야 이게 ‘지금 뭐 내가 이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 전에 78년도에 한국 가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나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없어요. 내가 원하는 곳은 좀 더 옛날같이 우리끼리라도 한다는 건데 78년도 가니깐 완전히 각자 다 뿔뿔이 헤어져서 내가 가니깐 대우는 해주고 하지만은 오는 것은 별로예요. 예를 들어서 “너 거기서 세금 넣고 거기 가 있어라.” 그거예요. 그래도 좀 귀국할 생각을 했고. 어, 집사람이 한국에 집도 사고, 그래서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어려웠어요. 그리고 인제 애가 독일 군대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러기 전에 내가 독일 시민권 신청을 해가지고 독일 시민권이 된 후에 여러 가지 것을 다 포기했죠. 한국에 휴가를 가더라도 한 3주 정도 되면은 다시 독일로 가고 싶어요. 기껏해야 뭐, 한국에 6주, 4주 있다 오는데 3주, 2주 있으면 그냥 가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아마 내가 살던 데가 고향이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한국 가고 싶은 생각은 어쩌다 꾸적꾸적 나지만은 애가, 애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간다 해도 나만 행복해 질 수가 없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거기 가서 나 혼자 어려워요. 그냥 여기서 살기로. 지금은 거의 80% 눈감을 때까지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예요. 한국은 왔다 갔다 하지만은, 거기서 산다는 것은 어려워요. 몇몇 사람도 여기서 30~40년 살다 한국 가가지고 다시 독일로 돌아왔어요. 살기가 어려워서. 그래 오래 여기서 살다 보면은 어려운 거 같아요. 한국 가서 살기가.

## 독일에서 적금 붓기와 집 구입

근데 여기 광산을 떠나시고 결혼하시면서 여기 아파트도 사시고 구입하시고 할 정도로 돈은 충분히 모으셨던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결혼해가지고 한 3, 4년 만에 집을 샀어요.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 사기 전에 한국에도 집을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벌어서 10전도 안 쓰고 무조건 저축만 했어요. 저축만 해가지고 하여튼 집을 하나 사자 이거예요. 근데 69년도에 여기 왔을 때요, 외국인이라고 방을 세주지 않아요. 큰 도시하고 틀려요. 방을 안 줘요. 가면은 외부인이 이래 얼굴 보고 방 나갔다고 그래요. 안 줘요. 69년도만 해도.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의 그 슈베스터(Schwester, 간호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집을 보러 가잖아요. 그럼 세를 안 줘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판에 간호원장이 또 주선해서 방을 하나 얻었는데, 가니깐 늙은 할머니, 할아버가 살고 있는데 들어와서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봤더니 난로 석탄 때는 난로 때는 방이에요. 방 2개, 침실하고 본침머(Wohnzimmer, 거실)하고 부엌 조그만 한게 하나 있고 화장실 있고. 나는 침실하고 본침머하고 부엌만 보고 “아! 됐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아니, 하기 전에 다시 또 한 번 갔어요. 화장실을 안 봤는데 그 뭘 또 볼 게 있는가 하면서 집 주인이 물어요. 그런데 그 집 화장실이 그 옛날 우리 화장실 있죠? 그거예요. 2층집인데. 가을에 들어갔는데 이 파리가 얼마나 많은 지 도저히 이건 감당이 안 되네요. 정말로 한국에서는 그런 생활했으게 거기 살았는데 여기 와서 몇 년 동안 그런 변소 화장실을 못 봤거든요. 근데 그 화장실 때문에 이게 도저히 맘에 안 내켜요. 그래 그때 결심을 하기를, 좋다, 하여튼 1년이라도 살자 그래서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 쓰면서 1년 이내라도 해약할 수 있는 계약을 썼어요. 주인이 왜 해약 조항을 덧붙였냐고 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란 건 알 수 없잖나. 행운이 와서 로또라도 당첨된다든지, 그럼 내가 집을 사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경우는 내가 이 집을 해약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영감이 그래도 되네요. 그러지요. 그 사람이 생각할 때 그 이게 아르메 아우스랜더(Arme Ausländer, 가난한 외국인)가 언제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고 그걸 허락을 했어요. 엑스트라(extra, 추가)로 썼어요. 1년 계약을 하되 내가 원할 경우, 내가 집 조건이 집을 사든지 짓든지 할 경우에 해약할 수 있다. 그걸 딱 명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년 살았어요. 거기서.

1년 살면서 정말 어디 휴가 때 가지 않았어요. 휴가, 그때 휴가비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로츠 베커트 다닐 때는 게빈베타일리궁(Gewinnbeteiligung, 이익공유)이라고 해서 회사

가 돈을 벌 면은 그 돈 버는 돈 가지고 기업주하고 직원들 하고 다 나뉘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그래서 한국같이 보너스 100%주네, 200%주네 그러지 않아요? 그러듯이 그로츠 베커트도 그런 것을 줬어요. 그래서 그 돈 받고 그러면서 1년 동안 주택보험을 들었어요. 주택보험을 들어도 한 4년, 5년 동안은 주택보험을 부어야 그 돈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1년 되니깐 내가 그 주택보험 들면서 그때 돈 한 달에 500마르크 넣는 것을 1,000마르크 정도 넣어서 그냥 막 배로 넣어가지고 포인트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2년 후에 타갈 수 있는 그런 돈이었는데 그 당시 은행에 가서 이제 대출을 낼려고 하니깐 은행에서 빚을 안 줘요. 그래 인제 주택 보험 든 거 하고, 또 회사에서 보증선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회사에 근무한다, 또 병원에서, 이 병원에서 근무한다, 그래가지고 그 은행에 대출하는 사람도 우리를 좀 봐준 거지요. 그래서 집을 산 게 됐지요. 그 집을 73년도 사가지고 80년도에 팔았으니깐 7년 만에 팔았어요. 빚다 갚고 7년 만에 팔고 이 집을 짓기 시작했지요.

## 그로츠 베커트에서의 근무

**그로츠 베커트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로츠 베커트가 나델 파브릭(Nadelfabrik, 바늘공장)이에요. 그로츠 베커트, 이게 세계적으로 아주 큰 회사예요. 그게 미국에 있고 불란서에 있고 인도에 있고. 그로츠 베커트. 바늘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 바늘 종류가 몇 천 종류예요. 예를 들어서, 이 텍스틸(Textil, 직물 제품) 만드는 이런 바늘, 또 철조망 짜는 바늘, 어망 짜는 바늘. 글구 미국에서 나온 것은 신, 신주 메는 바늘. 여기가 본점이지거든요. 내가 들어갈 때만 해도 2,400명이었는데 나올 때는 2,000명. 바늘은 그 배를 만들고.

**그럼 몇 년도에 그로츠 베커트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셨나요?** 71년도.

**그럼 거기서 구체적으로 하신 건, 거기서도 용접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파인메카니커(Feinmechaniker, 정밀기계공)로 일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받은 월급이 광산에서 받은 월급보다 더 많았습니까?** 적었지요. 적었는데 내가 메카니커(Mechaniker, 기계공)로 입사하면서 거기서 6개월간 교육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메카니커 교육을.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들어가가지고. 봉급표가 8급으로 들어가가지고, 6개월 동안 교육받는데 3개월 되니깐 인사과장이 하는 말이 “당신 더 받을 필요 없이 그냥 8급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 뒤로부터 8급 근무하다가 오일쇼크 해가 있었지요. 75년도. 그때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t)가 수상이었을 때, 매주 일요일 토요일 날은 전국적으로 차를 못 다니게 했어요. 단, 근무하러 다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 의사 노트팔(Notfall, 비상시), 그 사람들은 차를 타고 다녀도 그 외에는 차를 못 타요. 그 오일 쇼크 때 우리 회사도 감원을 했어요. 감원 바람이 불어가지고 내가 거기 있으려면은 다른 데로 가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그 내가 지금 기계를 4개를 정비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림멜핑겐(Grimmelfinen)이라고 있는데 그 그림멜핑겐에 그리로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 2년 동안 일하다가 이 집을 짓게 되니깐, 아니, 여기서 살게 되니깐 그림멜핑겐 그 노조회에서 비츠에 있는 회사로 안갈라냐? 그러더라구요. “아, 그래 좋지 나야 좋지”, 여기 사니깐 그래서 난 갈란다 그래서 일루 왔어요. 일루 오니깐 여기서 저기서보다 더 대우가 좋았어요. 나는 완전히 그냥 저기서 메카니커로 있다 여기 오니까 아우토마티시(automatisch, 자동적으로)로 나 여기서 일할 때 참 좋게 대해줬고.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일하면서 우리 집 사람이, 암이 83년도에 암을 발견했어요. 그래갖고 7년 7개월, 이 집에서 살다가 91년도에, 6월 달에 갔지요.

그럼 광산이나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실 때 독일인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아주 좋았어요. 독일 사람 내가 여기 나를 가르친 사람이 있어요. 그 정비하는 데를 맡겨주는데. 그 당시에 터키 사람 하나하고 나하고 유고 사람 하나하고 독일 사람 둘을 가르키는데 다섯을 가르킨데, 나를 가르킨 사람은 나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동양 사람에 대해서 참 인터레산트(interessant, 관심)를 가져왔고 별걸 물어봐요. “한국에도 뭐 독일같이 뭐가 있냐? 없냐?” 그럼 난 다 얘기해주고. 아주 나에게 뭐라 할까, 친절을 베풀었어요. 동갑쟁이지만. 그래서 나도 참 그 사람들한테 배우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터키 사람이나 유고 사람을 가르킨 사람은 외국인애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괘시를 해가지고 애들이 배우다 일을 그만 뒀어요. 그래 나는 독일 사람하고 유대가 좋은데 그 외국인을 가르치고 있는 유고 사람이 있는데 유고 사람이 유고 사람을 가르키는데, 그 유고 사람이 그렇게 괘시를 해요. 그래 내가 몇 번 “너도 유고, 너도 유고, 외국인이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한테 달려드는 거여. 그래가지고 한바탕 싸움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둘이 싸우면 둘이 쫓겨나요. 그런 법

이 있기 때문에 절대 손을 들고 싸움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걸 내 손을 안 댔지마는 말로 내가 그 애하고 여러 가지 많이 다봤어요. 그 외국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유고 사람이 자기 유고 사람을 가르키는데 그렇게 박대를 하고 막, 그걸 못 보겠더라구요. 그래 나도 몇 번 다 두고 독일 사람이 터키 사람을 가르키는데 팔세를 해가지고 그래 그만뒀어요. 그 독일 사람 하나 하고 나하고 6개월 동안에 3개월 안에 들어가서 제대로 일하고. 독일 사람은 한번 믿으면은 그 사람 말이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해도 “야(Ja, 응)” 그래요. 한번 믿었다 하면은 더 이상 안 물어봐요. 독일 사람 참 진실해요. 내가 아는 사람. 또 물론 좀 못된 사람도 있지만은 어찌 그런 사람 없을 수가 없죠. 내가 저 아인바우큐셰(Einbauküche, 부엌)를 바우엔(bauen, 만들) 할 때, 83년도에 8,900(마르크)을 줬는데 이 공사를 맡긴 사람이 할튼 나한테 사기를 되게 쳤어요. 이 광목 하나에 그때 돈으로 150마르크를 받았어요. 나중에 리스트를 딱 보니까. 그래서 내가 쫓아갔어요. 쫓아가니깐 벌써 문 닫고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그렇게 못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될 수가 없지요. 사업을 할 수가 없지. 그 못된 사람도 있지만은 되게 일하는 사람들은 참 순진해요. 좋아요.

여가시간에도 집에서 잔치를 한다던지 아니면 그 사람의 생일 파티를 한다던지 같이 만나고 초대하고 이런 것도 하셨나요? 그렇죠. 그이가 한번 초대하면 나도 한번 초대하고, 또 내가 또 다른데 초대 한번 하고. 그이가 지금 내가 아파트에 살 때 왔다 가고 여기 있을 때 한두 번 왔다 가고. 근데 자기 집은 좀 적거든요. 적은데 인제 내가 아파트 사고 있으니깐 “하, 너 집 좋은데 지었다”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난 또 외국인인데 그것도 전에 날 갈켜주고 그랬는데. 근데 사람이 참 좋아요. 참 좋아. 지금도 만나면은 참 진짜 옛날 친구 같아요. 옛날 친구 같애. 내 마음에 지금 다시 한 번 오라고 해서 같이 술 한 잔 해야 되겠다. 지금 맘먹고 있는데, 날짜를 그 애와 전화를 해야 되지요. 참 친하게 잘 지내요. 지금도. 그리고 그런 예도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깐 어디 가든지 배워야 되요. 참 간단한, 아주 내가 그거, 메카니커(Mechaniker, 기계공)로 딱 들어가니깐 제일 먼저 거기서 제일 왕초라고 하는 지금 그런 양반이 와서 내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36루트는 얼마냐?”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나한테 루트를 물어보면 좀 배운 분인데. 그래 내가 6이라고 했지요. 음, 그러고 딱 지나가더라고요. 야, 내가 제대로 다 모르는데 그거 하나밖에 모르는데 속으로, 그 뒤로는 내가 좀 맘이 좀 망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 고등학교 공부 다니다 해서라도 실습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기계만 보고 와서 그대로 그림 그렸잖아요. 그리고 셈,



이렇게 돌린다 깎는다 이거 밖에 모르잖아요. 그래도 여기서 실질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깐 아무래도 딸리지요. 해본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좀 그러면 모를까, 한국 사람은 손재주가 있는 거 같아요. 손에 할튼 비상한 재주가 있어요. 한두 번 보고 한두 번 만지면 해요. 이것도 [거실로 들어가는 통로에 바른 타일무늬를 가르키며] 이태리 사람이 이것과 똑같이 했는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 하루는 지가 나를 초대를 하더라구요. 이거 집 짓는데. 그이가 이 벽을 천장을 깃스(Gips, 석고 칠)를 다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갔어요.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가만히 타일무늬를 쳐다봤어요. ‘저거 하나하고 가운데 3분지 하고, 저 부분에 3분지해서 3분지해서 저 부분에 붙인다.’ 딱 그걸 보고 왔어요. 해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2평반이 나오더라구요. 딱 계산해가지고 2평 반 주문해가지고 했어요. 딱 해가지고 내가 초대를 했어요. 오라. 와서 딱 보더니요. “니가 이웃집에서 안 살면은 니가 했단 걸 믿지 못한다.” 글더라구요. 그 애는 그 전문이거든요. 그 애가 일을 다 하기로 했어요. 원칙은 전부 하기로 했는데. 내가 목욕탕을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한번 타이루(타일) 입히라고. 그러니까 그때 돈으로 24마르크를 줘야 되는데,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는 아니 10분도 안 돼서는 1메타, 2메타(를) 10분도 안 돼서 짝 해버리잖아요. “야, 고맙다. 내가 했다가 안 되면 너 부를게.”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니가 하면 뭘 할 거냐 이거지. 그리고 갔어요. 그 뒤로 내가 싹 해버렸잖아요. 자기 안 부르니깐 지 마누라랑 지 장모를 보냈어요. 여기로. 한번 가보라고. 내가 일하고 있는데 왔더라구요. (내가 작업을) 혼자하고 있지. 개 와서 니가 여기서 내 곁에서 안 살면은 믿지 않는대요. 하튼 고맙다고 그이가 갈켜준 놈으로 해서 내가 다 했어요. 밑에도 하고, 위에도 하고 내가 다 했어요. 단 저 하이츱(Heizung, 난방 장치) 저거 놓은 거, 보덴 하이츱(Bodenheizung, 온돌 난방 시설)하고 전기도 내가 이 전부 다 줄 다 빼서 저 쟈트랄(Zentral, 중앙)까지 전부 다 내가 다 이었어요. 한국 사람 참 하여튼 한번만 보면 다 해요. 내가 이 집질 때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밖에 나가서 집 짓는데 가서 구경해요. 어떻게 지었는가. 그거 보고 와서 내가 똑같이 지었어요. 이 집 지을 때 이 집 지은 재료를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내가 도면을 갖다 주면은 재료가 얼마큼 들어간다는 것을 보이고 또 거기서 사다 쓰면서 베라터(Berater, 설계전문 조연자)가 와요. 그래가지고 베라터가 어떻게 어떻게 해라해서 그렇게 해서 지은 거죠.

**그러면 외국 사람들 하고도 관계가 좋았습니까?** 외국 사람은 특별히 이 터키 사람, 또 이 태리 사람 좋아요. 유고 사람도 좋고. 근데 터키 사람 그 아주 못된 사람은 처음부터 내가



아주 관계를 얹지만은, 그런 사람 믿고 이태리 사람도 고약한 사람도 있고 대개들 좋아요.

## 파독광부 모임과 독일에서의 삶

---

우리 지금 여기 광친회라고 있거든요. 13명이 광부 출신들만 근데 우리 예외로 박수남 씨라고 세계 태권도 연맹 부회장. 그분이 들어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광부 출신이지요. 대개 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요즘에는 석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이번 추석잔치는 30일 날 만나서 또 보름잔치 같이 하고.

**그 광친회는 이 지역 근방에 사시는 광부들이 주로 모이시는 건가요?** 예, 한 분은 보덴제(Bodensee) 징엔(Singen) 거기서도 와요. 그리고 슈투트가르트(Stuttgart) 근처. 비츠, 루르 뒤스부르크(Ruhr Duisburg), 슈투트가르트 움게bung(Umgebung, 주변 지역), 거기서 다 와요. 뵐블링엔(Böblingen).

**그럼 그, 광친회는 같이 독일에 오신 분들끼리 모이는 겁니까?** 한때 같이 온 것이 아니고 뭐 내가 제일 빨리 왔지요. 그 다음에 3년 뒤에 오고 4년 뒤에 오고, 5년 뒤에 오고 전부 다 하여튼 광부로 일한 분들의 남아 있는 사람 여기서.

**광부들의 글뤽아우프(Glück Auf, 재독파독광부협회)회가 있지 않습니까?** 글뤽아우프회 옛날에 이상우 씨가 회장하고 할 때는 나도 자주 올라가고 했는데 지금 고창훈이가 회장 할 때는 내가 별로 못 올라갔어요. 가서 폐만 끼치고 오고.

**그러면 한인들끼리 활동하시는 것도 많습니까?** 교회는 옛날부터 나가고 있고. 우리 집사람 가기 전으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88년, 87년도부터 교회 나갔었고. 그리고 한인회는... 94, 5년부터 나갔을 거예요. 그렇지요. 내가 교회에서 회갑잔치 하고 딱 다 했으니깐. 그리고는 페어아인(Verein, 협회)은 안 들어갔고. 여태까지 가족 위주로 살았어요.

**그럼 그 교회 다니기 전에는 종교가 없으셨나요?** 왜요, 그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안

식일 교회 좀 다녔고 그리고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할라다가 안 했어요. 광산에 있으면서 독일 분하고 사귀면서 페터 디드리히(Peter Friedrich)라는 독일 사람 사귀었어요. 그 애가 그때 김나지움 다니는 앤데 자기 집에 초대를 몇 번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몇 번 다니고 했는데 그 후로는, 그 애는 아마 목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어떤 계기로 87, 88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나요? 그 애가 교회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교회 안 갈라냐?”고 그러면서.

부인분께서요? 독일 분이.

아, 독일 분이요. 몇 번 나갔다가 그때 천주교회에 갔었나? 아마 그랬을거예요. 그리고는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여기 와서 살면서 집사람이 병이 있고 그러니깐 교회도 나가고 그러면서 아마 84년인가 85년도부터인가 나갔을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자제분들에게도 한국문화나 한국어를 가르치거나 한국 사람들하고도 교류를 가지게 했습니까? 애들 한글 가르치는데 참 나도 무던히 애썼습니다. 그러나 참 어려웠어요. 둘이 근무하기 때문에 애를 보는 시간이 밤 빼곤 없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좀 커가지고 이제 비디오를 본다 하면 한국 비디오를 갖다 놓고 한국말 하는 비디오를 틀어주면서 “이 비디오를 두 시간 보고 난 다음에 니그들이 좋아하는 비디오를 봐라.” 그렇게 몇 번 했지만 그게 제대로 안 됐고 한국에 한번 데리고 갔는데 한국말을 못하니깐 안 갈라 그래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영어로 자기 친척들하고나 자기 사촌들하고 얘기하는데 영어로 하니깐 미국은 가요. 근데 한국은 안 갈라 그래요. 한번 가고 안 가요. 미국은 두 번씩 갔는데.

그럼 여전히 집에서는 대부분의 대화를 독일어로 하시는 건가요? 네, 큰 실수죠. 사람이 남한테 경제적으로 지지 않기 위해서 모든 걸 쏘다보니깐 이렇게 된 거죠. 좀 더 생각을 했더라면... 애들을 한국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왜 애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나라 국민이던 간에 자기 나라에 그 뿌리가 있잖아요. 이런 말하면 왜 그러면 독일 국적을 가졌냐? 그렇게들 물으시겠

지마는 그 당시에 나는 진짜 대사관에 가는 것이 진짜 아주 큰 고통이었어요. 하루 있다와도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뭐 할 때는. 연장하러 가는데. 그래서 그때는 좀 다급한 마음에, 엄청 그런 마음에 그냥 독일여권을 했지마는. 살아갈수록 사람은 자기 뿌리 그게 있어야 된다고. 지금 애들한테 아무리 그 말을 해도 애들은 몰라요. 자기 뿌리가 어딘지 몰라요. 지금. 가만히 보면은 지가 여기 낳으니 여기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거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미국은 미국에서 나면 미국 사람이다 이거지 애는 그렇게만 생각해요. 달리 생각하지도 여지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둘째는 지금 한국어, 한글을 배우겠다고 해서 몇 번 내가 슈투트가르트하고 연락하고 있지만은. 그것도 어려울 거 같아요. 다 커가지고.

아까 대사관에서 연장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외국인관청에서 비자 연장을 받는데 그 당시에는 대사관에서 비자 연장을 받았나요? 네, 그때만 해도 하루 종일 걸렸어요. 아침에 가서 제출하고 하루 종일 기다려야 오후에 나와요. 그러면은 그때는 본(Bonn)이었거든요. 여기서 본까지 하루 종일 갑니다. 아침 새벽부터. 그럼 그 12시나 1시에 도착해요. 제출하면은 저녁에 줘요. 끝날 때. 그리고 밤에 와요. 다음 날 아침에 일 나가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 말이야. 지금은 영사과에서 직접 나와서 하잖아요. 옛날하고 틀리죠. 옛그저께 문태영 대사가 여기 슈투트가르트까지 왔어요. 작년, 재작년에 자기가 취임해가지고. 옛날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참 세상 많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찾아가도 제대로 안 했는데 대사님까지 오신다니 많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광부나 간호사가 대사관에 그런 불만이 많았었나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대사관에 백이 있으면 금방 해줘요. [강조하며] 금방 해줘요. 그러나 줄이 없는 사람은 기다려야 돼요. 그런 기억도 있잖아요. 애를 낳아가지고 애를 출생신고로 왔는데 애기를 차 속에다 놔뒀는데 차문을 다 닫아가지고 애가 죽었어요. 질식했어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럼 그때 광부 임기가 다 끝나고 많이들 한국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같이 일하셨던 분 중에는 몇 명이나 독일에 남으셨나요? 내가 거의 확실히 모르겠네. 몇 명인지. 그건 모르겠네.

한국에 돌아가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미국, 캐나다 간 사람하고 독일에 머문 사람이 더 많았습니까? 독일에 머문 사람이 내 생각에 더 많은 것 같아요. 캐나다나 미국에

간 사람, 뉴질랜드까지 간 사람이 있고 또 캐나다, 미국 비자가 안 나오니깐 남미, 페루, 페루 그리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고생 많이 해가지고 한국으로 갔다는 말 들었는데 아마 독일에 남은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때 이제, 독일 가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그러셨는데, 그 돈 갖고 한국에서 새로운 걸 출발할 수 없었습니까? 그래요. 그때 인제 아파트 살 때에 그 전에 생각했지마는, 참 어려웠어요. 참 어려웠어요. 그때 당시, 아파트를 73년도에 샀는데, 4년 만에 사면서 그래도 한쪽으로는 한국 가고 싶지만은 그때 '내 먼저 안정해야 되겠다.' 내가 재정적으로 안정이 돼야지, 먼저 가던 안 가던 뭐 부동산이든 언제든지 자기 갖고 있으니깐. 그래 살다보니깐 글케 안 되더라구요.

그럼 그 광부 때 임금을 받으셨는데 그거는 한국에 보내지 않고 인제 스스로를 위하여 돈을 가지고 사용하셨다는 건데 그건 대부분 저금하셨나요? 많이 여행을, 나는 좀 많이 여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노조에 가입하면은 여행할 때 노조에서 반 내주고 내가 반만 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갔다 오면은 노조에서 다 내고 나는 부담이 없고 그랬어요. 그 돈 나도 한국에 부치기 부쳤지마는 다른 사람같이 많이는 안 부쳤어요. 집을 사계끔 부친다 뭐 그런 건 않고 그저 부모님 쓰실 돈 한 번씩 보내주고 그런 건 했지만은 큰돈은 난 안 보냈어요. 근데 결혼한 후에는 저쪽으로 우리 집사람이 같이 그냥 한 거지요. 그전에야 참 자유롭게 썼지요.

후에 친지 형제들하고 가족들 다 유럽여행을 초대하시고 하셨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그 당시에 좀 렌테(Rente, 연금)를 받지만은 여유도 있고 한국가면 내가 또 제대로 페 끼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만해도 외국을 간다는 것을 얼마나 동경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 조카들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대학교 들어가서든가 들어 왔다 가고, 그 형제분들도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내가 다 못해줬고, 나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전부 초대를 한 거죠. 초대할 일을 제일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내 주위 사람한테 여유 있으면은 형제 부모를 모시고 한번 대접하라고 해요. 내가 저 아파트 산후로 부모를 초청했어요. 그때 그 당시만 해도 한국 회사에서 70세 넘으면은 비행기를 안 태워줬어요. 티켓을 안 줬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못 오셨어요.

## 파독광부 파독간호사의 공로와 교민들의 사고방식

광부 간호사로 독일에 오셔서 일하신 분들이 충분히 공로가 인정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보기에는 말로만 이 여러분의 덕이다, 여러분의 은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혜택 그런 것이 없어요.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 했지마는 광부 간호원이 한국 갔을 때에 좀 어디 기거할 수 있는 모텔이나 조그마한 거주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가면은 형제 있는 데도 어렵고 그러니깐 요즘은 인터넷으로 방을 하나 구해가지고 가고 그러거든요. 대개들 보면은. 나는 아직까지 내 형제한테 가지마는. 모든 분들이 인터넷을 봐가지고 방구해가지고 가요. 가서 4주, 5주 있다 오고 그래요. 물론 형제한테 가게 되더라도 그만큼 부담을 해주고 와야지요. 부모님한테 갈 때는 그렇게 안 느끼지마는, 형제한테 갈 때는 느껴야 돼요. 우리들의 사상이, 우리의 생각이 옛날 70년대하고 똑같아요. 미국에서나 한국에 산사람은 우리 나이에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인제는. 지금 한국에서 친구들 만나면은 잠깐 옛날 학창시대, 옛날 놀던 그 시대에 잠깐 만나서 얘기 하고, 술좌석 하고 헤어질 때는 다시 지금 본연으로 다 돌아가요.

왜 여기 사시는 분들은 옛날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나도 내 언어에 대해서 볼 때는 가끔 나 혼자 좀. 나는 변소란 말을 쓰거든요. 한국에서 지금 변소라 하면 다 쳐다보잖아요. 변소란 말 쓰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 있는 사람 대개 다 보면 다 그 말 써요. 나하고 광친회 모이는 사람. 그 말을 쓴 사람이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옛날 그 사고 그대로예요. 좀 보수적이라 할까.

다른 반면 여기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새로운 동료들과 접하고 이런 큰 변화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여기서 살기 때문에 변화가 돼야지요. 그건.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슬림 강경파 그 사람들도 옛날 우리나라 속담대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듯이 자기가 여기서 살라면은 여기서 살게끔 해야지. 그 테러단을 하고 그 강경을 주장하려면 자기 나라 가서 하지 왜 여기서 해요. 난 이해가 안가요. 자기 나라 가서 하지 못할 거 먼 나라 와서 해요. 난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에서 이런 광부생활을 했으면은, 또 내가 광부생활 하면서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한국에서 외국 광부들 와서 광부 생활할 때에 내가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는 이런 기분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때 한국에서 얼마나 배반했어요? 외국 사람들. 나 그거 많이 느껴요. 그래 독일 사람들은 참 우리 인간답게 대우했어요. 일하는 만큼 줬으니깐. 우리나라 사람 지금도 그러잖아요. 외국인 일하는데 돈 안주고, 잡아가면 도망가 버리고. 난 도대체 이제, 내 자신이 외국에서 일했기 때문에 이걸 정말 볼 수 없어요. 우리 가끔 만나서 이야기 하지만 열 올라요. 진짜.

여기서 외국인으로서 노동하고 생활하고 하는 것이 한국사회에 또 다른 시각으로 비춰질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나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참 잘되길 바래요. 또 그에 맞게끔 지불해줄기를 바라고 인간다운 대우를 해줘야 되요. 그래야 지금 선진국 10위권에 들어가네 마네 말로만 그러지 말고 회의를 해야지요. 또 한 가지 건, 외국의 입양아 시키는 것. 돈, 한국에 돈, 진짜 돈 많은 사람들 어린애들에게 투자해야 돼요. 그 외국에 입양하면 뭐해요. 진짜. 그 쟁피하지도 않은가 몰라요. 그걸 입양해 놓고 뭐 입양하네 마네. 말하는 거 도대체 여기 독일도 한국에서 입양한 사람이 많아요. 가끔 만나서 얘기하지만은 그 애들은 모르지요. 한국이 어떻게 산다는 것을 지금. 갔다 온 사람도 있지만은 안 갔다 온 사람은 모르지요. 자기 뿌리를 찾으려고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전 그럼 다시 돌아가서 교회에 대한 걸 여쭙볼게요. 독일인과의 어떤 연대도 좋으시고, 사이도 좋으시고 이웃의 관계도 많으신데 굳이 한인교회를 다니시는 건 어떤 이유인가요?

그건 첫째, 언어에 대해서 내가 몇십 년 살아도 자신이 없어요. 지금도 독일 사람하고 대화 할라 면은 막혀요. 근데 한국 분하고 대화해도 요즘은 막혀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독일 분하고도, 여기 지금 우리 한인 교회도 요즘 레폼(Reform, 개혁)을 해가지고 만약에 한인교회가 없어질 경우, 왜냐하면은 점점 나이가 들면은 지금 여기 튀빙겐(Tübingen) 교회를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4, 50명 60명까지도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에 가버리고, 또 한국에서 유학 오신 분들도 학위 따면은 가버리고, 그리고 지금 한 30여 명 모이는데 여기 있는 사람 전부 70이 가깝고 70이 넘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난 말이에요. 그럼 내 후손, 내 아들딸들이 교회에 나와야 하는데 안 나가요. 그럼 언제까지 이걸 지탱해요. 지금 현재 지탱하는 것은 우리인데 지금 한국에서 유학생이 안 와요. 안 오고 교환학생이 와서 몇 개월 있다 가거든요. 그럼 이게 언제까지 가냐가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게 없어지면은, 튀빙겐 교회가 없어진다면은 독일교회에 나가던지 제일 큰 슈투트가르트 교회에 나가던지 그럴 수밖에 없지요. 지금 현 상황에. 내 생각에는 교회가 유지되는 게 어려울 거 같아요. 언젠가는 슈투트가

르트 가든지 독일교회를 가든지 그래야 될 거 같아요. 아마 더 이상 다른 대책이 없어요.

**한인교회에 다니는 가장 주된 이유가 그러면?** 먼저 언어에. 언어에 대해서 내가 듣는 데에 대해서 어렵지요.

**교회로써 충족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많다고 봐야지요. 먼저 나이가 젊었을 때는 오라는 데도 많고 갈 데도 많아요. 근데 나이가 이제 70 넘으면은 오라는 데도 없지만은 갈 데도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막 제일 처음 렌테(Rente, 연금)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막 형제도 초대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형제들도 나이가 드니깐 내가 찾아가기도 어렵고 찾아오기도 어렵고 그래요. 지금 현재 나 자신도 어디를 가야 된다면 차타고 가야 되는데 차 타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깐 직접 가기가 어렵죠. 또 오시는 분도 그래요. 그래 좀 거리가 좀 뜬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지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님이나 그 외의 다른 사람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통화도 하고 그러지요. 한인사회도 그래요. 한인사회도 옛날에 한인회 했기 때문에 또 교제가 있고 저 위에는 그 친구들이 몇 분 있으니까 일 년에 두세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요. 또 내려오기도 하고….

네, 감사합니다.

#### 면담 개요

<b>구술자</b>	최종옥 (전 파독광부)
<b>면담주제</b>	파독광부의 생애사
<b>면담일시</b>	2012년 9월 27일 (목) 10시 30분 ~ 12시 (90분)
<b>면담장소</b>	구술자(최종옥) 자택, 비트(Bitz)
<b>면담자 1</b>	이유재 (튀빙겐대학 한국학과 교수)
<b>면담자 2</b>	이선영 (튀빙겐대학 한국학과 연구원)



# 이문삼

# 이 문 삼

- 1942      전라남도 무안 출생
- 1965      파독광부 1차6진 카스트롬-라우셀 Victor-Ickern에서 근무  
            광산 근무 2년 동안 연장
- 1970~1978      광산통역사로 근무
- 1978~1981      본 대사관 현지직원으로 근무
- 1982~      여행사 운영  
            본 한인회장 역임  
            본 한글학교 학부형 대표  
            독한협회 활동



## 파독 이전의 삶과 파독 과정

---

저는 이름이 이문삼이라 그러고, 1942년 1월 26일생인데, 고향은 전라남도 무안 태생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목포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까지를 다녔고,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에서 육군에 가서 3년간 근무를 마치고 한 1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독일로 오게 됐는데, 그때의 독일이라 하면 하나의 그 선망의 나라이고, 우리가 가난해서 못산 사람으로서 한 번 독일에 가서 젊음을 한 번 불태워보겠다. 그런 각오로써 내 앞으로 가난을 한 번 물리쳐보자 이런 기분으로 제가 독일에 왔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죠?** 65년 11월 23일에 제가 비행기를 탄 것 같습니다. 1차의 6진 광부라 그러죠, 소위.

**가족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저는 기혼자는 아니었고요, 고국에는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님과 형님, 누나, 제가 막동이었습니다.

**독일에는 어떤 계기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에 파독광부라는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알게 되었지요. 그 당시 외국에 나가는 길은 다른 방법은 하나도 없었고, 독일은 그 광부라는 이 직업으로이지만, 이 선진국에 이번 기회에 독일에 가서 내 젊음을 한 번 불태워보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때는 온 거죠.

**선발과정과 지원, 이런 과정은 어땠습니까?** 어, 선발과정과 지원은 상당히 그 뭐라고 할까. 제가 광부는 솔직히 얘기해서 광부 출신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선발과정에서는, 이론적인 시험에서는 정말 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뭘니까? 신체검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정밀하고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진짜 육군사관학교를 갈 만한 체질이 아니면 서독광부에 갈 수가 없다는 이 정도의, 건강은 거의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자신이 있었습니까?** 저로서는 건강에 대해서는 지장이 조금도 없었다고 생각했고, 또 현지 강원도 광산에 가서 30일 동안 우리가 연수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게 상당

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됐습니까?** 예, 지하광산이라는 것은 정말 생소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평소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직업이기 때문에, 지하 석탄광산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도대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30일이라는 그 강원도 정선에 가서 교육을 받는 데, 이게 석탄광산이며 이걸 채굴하는 것이며, 이게 광산이라는 게 채굴했다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여기에 와서 굉장히 당황했을 뻔했다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거기서는 저희들이 독일에 가서 있을 수 있는 이러한 거, 언어교육도 있었고, 또 광산의 그 위험성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것들 등등을 체험했죠.

**그럼 원래 떠나실 때는 3년을 예정하시고 다시 한국에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3년간 계약기간, 그러니깐 우리가 그 당시에는 뭐 우리 광부 스스로가 다 잘 알고는 있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더 자세히 보면 우리가 하나의 연수생이었죠. 독일에 파견 나가서 독일석탄도, 선진국의 석탄광산을 보고 우리나라의 광산에 이바지하라는 정부 간의 차원의 계약은 아마 다른 측면이 있었다고 늦게사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근로자로서 독일에 온다는 것은 독일이 이웃나라에 대한 뭐 체면과 모든 것이 좀 용납받기가 힘들다. 왜? 이웃나라에서 이 나라에 와서 이 일하고 싶어 하는데, 저 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웃 사람들과 같이 고용을 한다면 이걸 이웃 사람들에 상당히 거부적인 반응이 있지 않나, 그래서 하나의, 그 뭐라 그러니까? 연수, 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사 우리가 알게 됐지요. 정부차원에서들 이야기입니다.

**그럼 6진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그때는 몇 명이나 같이 오셨습니까?** 137명이던가? 우리 동기들이 한 비행기에 타고 온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4개 광산에 나누어서 카스트롭 라우셀(Castrop-Rauxel)에 있는 광산에 몇명, 함본(Hamborn)에 몇명, 아헨(Aachen)에 몇명,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배치됐습니다.



## 광부 생활

---

**그래서 어디로 배치 받으셨나요?** 저는 그 당시에 카스트롭 라우셀이라는 도시에, 광산 이름은 빅토이칸(Victor-Ickern)이라는 그 광산에 배치를 받아서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때 당시에는 1개월인가는 지상에서 어학교육과, 보안교육 같은 것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기계과로 배치를 받았어요. 광산 기계과라는 게 있습니다, 솔로서(Schlosser, 기계수리공) 뭐 엘렉트리커(Elektriker, 전기공), 뭐 막장에서 일하는, 최전방에서 일하는, 돈이 많기는 하지만 가장 힘들고 위험한 그런 막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기계과에 배치 받아서 거기서 솔로서로 일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지원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막장에서 일한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희망도 하고, 또 그쪽에서 자기들 보기도 적성에 맞다고 판단되면 그 사람을 막장에 받아주기도 하고. 또 기계과에 가는 사람, 전기과에 가는 사람, 뭐 여기저기 그때 배치를 서로, 우리가 군대에 가면 무슨 배치, 뭐 다루듯이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면 막장에 안 가는 사람들은 지상에서 일을 했습니까?** 지상에서는 교육기간 동안만 합니다. 그러고는 전부 지하에, 지하에 요원이, 그러니까 기계과도 있고 전기과도 있고, 막장에서 석탄 파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막장에서 석탄 파는 사람을 위해서 전부가 보조역할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죠? 그런 역할이죠.

**그러면 그러한 역할을 하신 분들은 막장에서 직접 일한 사람보다는 그 봉급이 어땠습니까?** 봉급이 적죠, 예, 일당이나 봉급이 적죠.

**적었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오히려 봉급이 뭐 호봉이라고 그럴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호봉이 뭐 1서부터 12까지 있다면 그런 식으로 호봉제가 있죠. 그루페(Gruppe, 그룹).

**그 차이는 얼마큼 많았습니까?** 글썬요, 벌써 세월이 뭐 한 47, 8년이 지났나요? 그렇죠. 우리가 막 들어와서 일할 때 22마르크 정도 받았습시다, 22마르크. 그래도 그때 당시에 그 돈이 우리나라로서는 엄청나게 큰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누구라고 그럴까? 아

우리 봉급이 많다고 하는 사람도 우리 그 광부의 22마르크 인생보다 봉급이 적었어요, 일당이. 제가 하룻가는 일을 열여섯 시간인가를 더 했는데, 그러니깐 독일 사람들하고 항시 같이 가는 거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인제, 기계과에서 일을 하는데. 이 모든 기계가 모든 것이 돌아가서 벨트도 돌고 무엇이 돌아야 막장에서 있는 사람이 석탄을 파내고 그걸 실어 내거나 말거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고장이 났다 하면 모든 막장이 일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고장이 났을 때는 그 기계과 요원이 자기 분야별로 가서 그 수리를 저녁이라도 해줘야 돼요. 그게 소위 말하자면 광산의 말하자면, 연근(연장근무) 또는 도펠아르바이트(Doppelarbeit, 잔업), 뭐 랭어아르바이트(Längerarbeit, 연장근무) 그러죠? 연근, 그리고 도펠 아르바이트 그러면 2시간 이상부터는 시간당 수당이 뭐 얼마씩 더 높고,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 6시에 일을 나가는데, 아침반은 아침 6시에 나가서 2시에 끝나는데, 그 이튿날 아침엔가 나왔어. 그러니깐 나가 기술이 있어서 그렇게 오래 있는 것이 아니라 독일 사람들이 기술잔데, 거기에서 내가 들어달라면 들어줘야 되고, 연장을 달라고 하면 연장을 줘야 되고, 누군가는 도와야 되는 요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한 일이란 건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이제 그 이튿날 나오면서 그때는 빵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오면서 돈 계산을 하니깐, “이야, 내가 쌀을 한 가마의 반인가를 살 돈을 벌었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돈이었지요. “우리가족이 이 돈으로 이번에 쌀밥을 한 번 신나게 잡수시겠구나.” 이 통쾌감이라고 할까 이런 게 생겼어요.

그때 그리고 이 돈을 벌어서 우리는 친구들과 서로 이제 돈 송금 요금이 1마르크 50, 2마르크 할 때, 우리는 그때 봉급을 한 달에 두 번 받았으니까 15일에 한 번 받고 30일에 한 번 받고 이렇게 하는데, 15일에 받은 그 200마르크를 내가 보내자니 2마르크 송료가 아까워. 그러니까 한 방에 있던 동료는 “너 이번에 나한테 다오.” 그러면 400마르크를 보내나 200마르크를 보내나 송료가 같애. 그러면 다음에 나올 때는 내 돈을 니가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그때는 전화가 없으니까 편지 아닙니까? 편지. 지금 생각으로는 옥중의 편지나 같애. 그 편지 다 들여볼 수 있는 그 편지, 거기다 그냥 깨알같이 한 자라도 더 써서 보내지요. 그럼 오는 편지가 거창하지. “이번 제사에는 조상님한테 쌀밥도 올렸고, 이번에는 조카가 학교에 가는데 중학교 학비를 니가 보내준 돈으로 했고.” 이것이 그때는 마음이 그냥 시원하고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에 우리가 잘살고 있는 지금은 내가 그렇게 시원한 장도 보내지 않을 것이요. 내 돈을 그렇게 썼다가는, 형제간이라도 그렇게 썼다가는, 난리가 나지 않을까? 지금 이게 슬픔이야. 가난했을 때는 가족이 단합이 잘 되는 것 같애.



내 생각에. 그런데 그것이 나쁜만 한 게 아니라 거의가 여기에 온 사람들이 다 그랬어. 그때 당시에 말입니다, 우리가 보낸 돈을 다 형제간에 잘 모아서 우리 한강을 개발할 때 강남에 있는 땅을, 거기에 있는 땅을 투자했다면 우리는 서울에서 지금 엄청난 부자노릇을 할 사람들이야. 그러지 않아요? 그때는 뭐 쓸 데 없는 강남땅, 막 그냥 뭐 그런 거였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은 100명 중에 한 사람 있을 듯 말 듯 할 거야. 그런 사람은 부자가 됐지.

**그때 월급의 얼마큼을 한국에 보냈습니까?** 제가 총각으로서요, 실제로는 총각인데, 서류상으로는 기혼자로 돼 있습니다. 그게 뭐 말이냐, 서류상으로는 기혼자로 해왔다 이 말이요. 어린애가 몇 있었고. 그때 독일광부들 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독일 지금 재무부 차관이면서 동시에 독한협회 회장인 코식(Hartmut Koschyk)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우리 회의할 때 “우리 광부들은 전부 파피어 킨더(Papierkinder, 서류상의 아이들) 많았다.” 그러니깐 깔깔 웃고 알더라고. 그게 슬픔이야, 우리 역사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서류상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결혼이 다 돼 있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어린애와 기혼자로 함으로써 월급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 독일에 온 그 또 백그라운드를 또 얘기해볼까요? 얼마나 웃긴지. 박정희가 쿠데타를 해서 군사혁명을 일으켰는데, 거기에서 쿠데타 정부가 없어지고 다시 새 정부로 들어서면서, 총리를 최두선으로 민간인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총리가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총무처 차관이 민주당 때 전라남도 무안군 우리 고향의 국회의원이고, 노동청장이 경상도의 민주당 국회의원이니까 차관급이에요. 그러니깐 총리라는 사람이 차관급 둘을 자기사람으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총무처 차관이 우리 고향의 민주당 국회의원이었어. 그런데 우리 당숙이란 사람이 그 세월에 그 사람 국회의원 사무장을 했어, 응? 사무장. 선거본부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중앙청을 이제 찾아가는 거야, 이 전라남도 무안군 이 촌놈이. 이제 이 당숙하고 같이. 그런데 내 생각에 시골사람들 달걀을 이렇게 뭐 10개나 12개나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친척집에 방문하고 뭐 할 때 선물로 가져가는 건데, 야, 내가 생각해도 지금 기가 맥힌 순간이야. 대한민국에서 말이야 그 달걀을 중앙청까지 들고 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허물 어버렸지만 그 중앙청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앙청 차관이 이제 우리 고숙을 보니깐 자기 사무장 아닙니까? 자기는 앞으로는 그만두고 또 민주화 돼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면 또 고향에 가서 또 선거하면, 우리 고숙이 또 도와야 되잖아요. 물론 자기들끼리 연락을 했는지 어쨌

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가서 돌이 막 먹고 잡고 뭐 하고 난리더라고. 그리고 독일 가지 말래. 독일 가서 뭐 할라냐고. 내가 중앙청 앞에 교통순경 시켜줄 테니깐 하지 말래요. 교통순경 시켜주면 “너 일 년에 집을 한 채 서울에 산대.” 응? 교통순경, 그렇다고 나 군대에서 제대하면 교통순경. 그러니깐 아, 그러면 상공회의소에 취직을 시켜서 한국 광산에 기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대요. 그러니깐 석탄공사가 있고, 민영광산이 있고, 상이군인들이 운영하는 광산도 있는데 거기에 그 기계를 빌려주는 그 직책. 엄청나게 좋은 직책이에요. 돈이 막 보따리 채 온대요. 그것도 싫은 거야. 이 독일 광부에 딱 쫓힌 그 한 사람은 하늘의 뭐가 쥐도 싫어. 그래서 광주 옆에 송정리라고 있는데, 지금은 광주시로 편입됐습니다. 그때 제일 제당에서 한국 송정리에다가 통조림공장을 했어요, 제일제당. 경상도 저 구룡포에서 온 사람들이. 삼성 그 이병철이 회사 제일제당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전라남도 송정리에다가 통조림공장을 하나 하는데 수백 명의 여자 종업원들을 채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형님이 거기에 전라남도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이제 직원으로서 일을 하게 돼요. 왜, 도청이나 이런 데 일을 받아 널려면 전라도 사람이 전라도에 가야지 경상도 말로 하다가는 거기선 안 되지, 그때. 얼마나 경상도 전라도가, 지금도 뭐 하는 거 있지만. 거기서 이제 나와 근무를 같이 했어요. 서울에서 난 본사 직원 하고. 영광 덕성포 거 굴비가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기에. 거기에 새우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통조림을 해서 한국이 미국과 스웨덴으로 수출을 합니다. 그 새우는 우리나라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통조림으로서 상당히 유일한 제품이었어요. 그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보고 독일 가지 말라는 거야. 너 독일 안 가면 광주에다가 제일제당 대리점 내주겠다. 제일제당 설탕 대리점, 그 사람들 다 경상도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전라도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밖에. 그거 다 차려주면 너는 전라도에서 돈 꽤나 버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 된다 이거야. 나는 그 참 좋은 안게보트(Angebot, 제안)가 그렇게 많은데, 다 거절하고 독일만 고집했어요. 지금 생각하면요, 그때 내가 한국에 있으면 진작 죽었지 않았을까. 날마다 술 마시고요, 친구들과하고 해서 진즉에 죽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 물론 부자는 됐을 가능성이 많지. 그런데 “야, 내가 잘못했다, 그때 그 좋은 기회를 버리고.” 그 덕성포에 가서 세월을 볼 때 역시 삼성이 부자야. 시골에 당산나무에다가 그 봄철에 30km를 놓을 수 없는 우리 도롭니다.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그런데 새우를 실어가야 되는데요, 얼음 깔고 새우 깔고, 얼음 깔고 새우 깔고. 그러면 당산나무 앞에다가 얼음 탱크를, 이 방보다 몇 배 큰 얼음탱크를 만들어서 그 어부들이 새우를 잡아 오면 얼음 바닥에 새우 깔고 얼음 깔고 이렇게 해서 차가 온다고, 트럭이. 그럼 거기다가 또 실어서 이

렇게 보낸다고. 야, 해파리, 하여간 서해안에서 나오는 거는 죄다 우리 거야. 그런 천국에서. 지금 생각하면 독일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 휴가를 보내려고 돈을 갖다가 버리고 그냥 환장을 하는데, 우리는 그때. 아, 이게 내가 왜 여기에 독일에 와서 지금 내가 맥주를 쿵쿨쿨 마시는지. 그때가 천국에서 살 때라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무식했으면 서해바다에서 나온 그 계를 소화할 못 시켜서 다 썩혔습니다, 소화를. 왜 계를 잡아서 그 저렇게 하는데? 계가 새우를 잡으면 그물을 다 찢거든. 그걸 다 잡아서 어디 얼음 창고나 어디에 재성을 해서 좀 국민이 먹고살아야 되는데 그때 처분을 못해갖고 다 버렸다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못살 때가 있었어요.

## 독일에 대한 선망과 독일에서의 삶

---

아, 근데 그렇게 독일이 오고 싶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런데요, 그 독일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지요. 그때 뭐 국민 누가 독일을 압니까? 그런데 하여튼 말이 말을 전해서 가본 사람도 없고, 들은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거기는 누가 보기는 봤지. 맥주를 맥주 집에서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틀면 물이 나오듯이 쿵쿨쿨 나오잖아요. 소리가 나면서 나오고. 그거는 맞는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 그리고 맥주가 흔하기는 흔하지, 와서 보니까. 우리는 광산에서 일을 했으니까 여기 갔다 나오면 광부는 맥주를 마셔야 돼.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어야 돼. 왜? 이 석탄가루를 쓸어내려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그랬고. 못사니까, 막걸리에다가 돼지고기를 먹어야 뭐 먼지를 쓸어내리든지 말든지 하지. 그런데 있어야 먹지. 그러니까 우리 참 옛날에 삼겹살에, 돼지족발에, 이 곳간에 가서요 내가 독일 말을 잘 하는 편에 들었어요, 우리 교육생들 중에서. 나이도 젊고. 나는 총각으로 와서 밥을 해도 맨날 생밥을 해. 근데 다른 사람들은 기혼자라 밥을 잘 해. 그러니까 기혼자 하고 나하고 연령 차이가 열 몇 살이야. 이렇게 심하게 날 때도 있었어.

그러니까 스물세 살 때 오신 거예요? 그럼 진짜 제일 젊은 축에 속했겠네요? 그런 사람이 뭐 두세 사람 우리 1진에.

최하연령 그런 조건이 없었습니까? 없지요. 군대만 갔다 오면 되니까. 우선은 군대야. 군

대는 무조건 갔다 와야 돼. 그러니 뭐 연령이 많은 사람은 서른 몇 살짜리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광부가요, 먼저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연령이 많은 게 아니고, 먼저 왔지만 우리보다, 우리하고 같이 온 사람이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많습시다. 우스운 일은요, 기숙사에서 우리가 밥을 하잖아요. 그러면 장성광업소에서 화순광업소에서 온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장성광업소 화순광업소에서 온 사람이 우리하고 같이 온 동료 중에 그 사람보다 동생 급으로 해서 두급, 세급 동생이 먼저 왔어. 자기보다 형이 이제 왔다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아주 큰 형이라고. 그런데 거기서는 후진이야. 그런데 우리는 군대의식이 있어서 우리 광부생활에서도. 선진, 후진이 있어. 그래가지고 기합도 많이 받고 그랬어, 우리. 그때는 재밌는 과거여.

**그래서 오셔가지고 기숙사에 생활하셨습니까?** 예, 그럼요. 오자마자 너나 할 것 없이 기숙산테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기숙사가 아마 우리 한국 사람이 네 군데로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광산 중에서는 가장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2명 아니면 한 사람. 거의가 독방. 근데 우리 광산이 유명한 게, 이렇게 문을 열쇠생활을 할 거잖아, 열쇠생활을. 문을 이렇게 달아버리면 밖에서 열고 들어오지를 못해. 그렇게 그 열쇠를. 내가 열어줘야 들어와. 그런 생활, 그러니까, 개인 삶이 상당히 보장되는 그 독방의 기숙사 생활을 했다고 보죠. 그리고 자취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기숙사에는 그러면은 한 방에 몇 명이나 같이 지냈나요?** 다른 광산 기숙사들은요, 한 방에 2명, 3명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식사도 독일 칸티네(Kantine, 구내식당) 식으로 독일 식사를 하는 광산도 있고.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좋아하니까 독일 구내식당 요리사들이 김치를 만들어 주고 싶는데 어떻게 만들 줄 몰라서, 빨강게 먹으니까. 토마토를 이거를 가지고 배추에다가 그냥 넣었어요. 그걸 한 사람도 안 먹으니까 왜 안 먹내. “야, 임마, 빨강게만 해주면 토마토를 넣어야 이 사람들이 영양이 있지, 그 고추를 먹으면 사람이 죽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라고요. 식사 때문에 어려웠던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식사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까?** 많았지요. 우리는 이제 막 와서는 6시에 광산에 가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일 해야 되는데, 독일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언제 우리가 우유를 먹어본 적이 없잖습니까?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우리를 모르고 우유도 주

고 뭇도 주고 그러는데, 우유를 마시고 설사한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니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깐 오직 밥을 해먹고 가야 되는 기라. 그러니깐 아침 6시에 가서 갈아입을라면 광산에 늦어도 5시 반에 도착해도 바빠요, 작업복 갈아입고 뭐 하고 그럴라면. 그러니까 3시쯤 일어나야 돼, 아침 3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선진들은 10분이라도 더 잘려고 3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5시나 이렇게 일어나서 후라이팬에다가 달걀이나 해서 소세지나 해서 후라이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커피 마시고 그 자리에서 빵 싸가지고 광산으로 뛰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되려면 한 6개월 이상은 아침식사를 해서 된장찌개나 먹어야 그게 힘을 쓰는 거야. [웃음] 그래 빵에다가 꿀을 바르는 사람도 있고요, 설탕에다가 꿀에다가 바르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간 이게 그 식생활이 도저히 맛보지 못했던 식생활. 그렇다고 우리가 다 미군부대에서 근무해본 사람도 아니고, 언제 빵을 먹어봤어야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애네들은 좋다는 그 감자도 이렇게 납작하게 싸가지고 구워진 걸 우리보고 먹으라고 준다고. 그러면 이 돼지가 먹는 감자를 우리한테 준다고 화를 내지요. [웃음]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면 그때 식재료, 쌀이라든가 그런 거 구하기는 어떠셨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뭐 레베(REWE, 슈퍼마켓)나 페니 마크트(Penny Markt, 슈퍼마켓)다 이런 데 가면 그 요만한 봉지에 쌀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쌀은 또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 애네들 쌀은 안남미 쌀 같은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비싸요, 그 쌀이. 우리가 좋아하는 쌀은 싸면서도 그렇게 흔하진 않았다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쌀이 묵은 쌀인지 밥이 그렇게 신통치 않아. 그리고 배추는 아예 꿈에도. 배추가 먹고 싶으니까 꿈에도 배추가 나타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포로 배추가 반통이 오는 거야. 그런데 이 편지를 이렇게 보면 그 글씨가 반통만 보여. [웃음] 그러면 그 지금 마누라한테서 그걸 보내줬다는 편지가 왔어. 이 새끼한테는 소포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는 거야. 그놈보다 더 먼저 기다린 거지, 그거 얻어먹을까 하고. 그런 적도 있어. 하여튼 그 배추가 그렇게 꿈에 환상적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깐 지금 생각하면 가베스(Cabbage, 양배추), 그걸로 배추 사다 먹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가베스 배추가 맛은 괜찮은 건데 지금은 갖고 올 수 있으니까 괜찮은 거고, 그 당시에는 그게 최고고 이렇게 위로했어.

**그러면 이제 시간 지나면서 서양식, 독일식 음식에는 익숙해지셨나요?**

그렇게 될라니까 오래 되고요, 지금도 한국음식은 끊을 수가 없는 것이, 그래도 이제는 많

이 숙달이 됐지. 독일음식을 먹어도 좋고, 중국음식을 가도 좋고, 이제는 어디 음식을 먹어도 너무 좋고, 이제는 한국음식도 좋고. 이제는 완전히 인터내셔널 됐지. 그리고 지금, 요즘은 한국음식이 너무 풍부하게 많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하나도 고향이다, 외롭다, 뭐 이런 것은 없는 건데.

근데 요즘 워킹 홀리데이에 우리 친척애가 하나 와서 보니까, 아, 그것들 내 못 보겠대. 내 눈으로. 우리하고는 전혀 이게, 생각과 모든 것이 천지차이야. 내가 지난번 교회를 가서 처남 아들이 지금 군대에서 끝나고 와 있어서 대학 다니다가. 내가 “너 독일에 가서 워킹 홀리데이 1년간 있다 올래?” 그러니까 좋다고, 모든 거 집어치고 그놈도 나 독일로 온 것 하고 똑같이. 그런데 딱 잘하는 것은 이 컴퓨터 하나 잘하는 거야, 그건 잘 해. 그런데 지금 젊은 애들 한국에서 올나이트, 밤새도록 놀다가 밤 몇, 낮 12시까지 잠자고, 그런 습관을 버리질 못하더라. 그리고 자기들 친구들 하고, 여자 친구들하고 떨어져 사니까. 지금은 서로 얼굴 보고 대화하잖아요. 참 꿈과 같은 거지.

내가 65년에 와 갖고, 저 우리나라에는 상대방 우리 가족이 전화 가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전화가 재산이었습니다. 무슨 전화, 무슨 전화 해가지고. 그리고 전화를 설상가상 해본다 하더라도 통역을 몇 군대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전화를 가진 사람이 가족이 하나도 없어요. 서울에 살아도 그렇고, 또 시골에 살아도 그렇고, 전화 가진 사람이 그 당시엔 없었어. 그래서 전화를 해본 사람도 없고, 전화를 할라면 3분에 45마르크야. 45마르크면 생각해 봐, 내가 며칠간 일을 해야 되나. 그래서래 해서 전화를 해본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달나라 사람들하고... 한국이 그 정도로 달라진 거죠, 그죠?

**그때는 대부분 편지로만 소식을 전달하셨나요?** 다른 방법이 없잖습니까. 편지 외에는. 팩스가 있습니까? 팩스만 해도 뭐 거시기 한데 편지가 있으니까, 지금은 말도 아니지, 핸드폰이니 뭐니 지금은 참말로 실감이 안 나는 거지.

**아까 16시간이나 추가노동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여기는 휴가가 많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와서 저희들한테 휴가를 주고 보나스를 주더라고요. 처음에 와서 휴가하고 보나스를 주는데, 보나스는 보나스대로 기분이 좋더라. 쪼끔 줘. 조금 주는데 휴가를 또 주더라고. 휴가를 14일인가 1년에, 주는데. 그런데 이 휴가를 갈 데가 있어야지. 그리고 휴가를 만약에 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야. 휴가를 가면 하루에 가서 돈을 얼마를 써야 된



다. 이진 쪽 사람이 망하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광산에다 사정을 하는 거야. “내가 휴가기간에 내 일을 시켜다오, 일을. 나 돈이 필요하다고. 우리나라(로) 돈을 보내야 한다.”고. 그러니까 첫해인가는 일을 시켜줬어요. 우리는 한없이 그것이 고마웠지. 휴가를 가서 돈을 까먹지 않아서 돈 벌고, 휴가기간에 일을 해서 돈 벌고, 이거 얼마나 좋냐? 이거 간호원도 그랬고, 광부도 그랬어. 간호원들도 그때 이중 삼중 막 일을 못해서 환장을 했으니까, 눈에 불을 쬐으니까. 그러니까 젊음이 그렇게 좋고 그런데. 나중에는 노동조합에서 이거 노동자 착취다, 그래가지고 절대 일을 못 시키고 그 다음 해 3월 달까지 휴가를 강제로라도 다 얻어야 돼. 와, 이거 휴가를 갈 데가 없지. 휴가를 받아 갖고 집에 가 있으면 동료들 밥을 해줘야 돼요. 일 갔다 온 놈한테 밥을 해줘야 돼. 이런 고역이 어디가 있나? 지금 생각해보면은요. 그러니까 독일 놈들은 그걸 모르고 휴가 니 꺼 나 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랬어. 그래서 14일간 처음에는 이 휴가 받았어, 14일간.

## 광산의 육체노동과 병가 활용

일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이 힘이 좋다 그래도 이 사람들한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제가 한국광산, 그 막장이 뭐 이런 걸 사람 시켜서 자료를 실어서 보냈다 그랬잖습니까. 그걸 광산에서 요청하는 대로 슈템펠(Stempel, 지주)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나무로 된 동발, 이렇게, 이 놈을 세우고 나무로 받히고, 또 받히고. 그래야 자꾸 전진이 돼서 석탄을 파놓으지. 반면에 쇠로 된 슈템펠이 또 있고 나무로 된 슈템펠이 있는데, 그걸 다 지금 한국으로 보낸 겁니다. 열 개씩요. 그것을 제가 한번 뭐 쇠 동발을 한 번 해봤어. 야, 그 당시 우리 동료들이 이것을 하루에 사십 몇 덩어리씩을 해서 사십 몇 마르크씩을 올리고 막 노동의 영웅 말을 듣고 그러고, 독일 사람들은 “야, 너 킴, 지금 힘을 너무 많이 쓰면 나는 어찌라고, 나는 집에 가면 마누라도 있는데. 너는 마누라가 없으니까 괜찮지만 나는 임마, 마누라가 있어서 마누라한테 봉사해야 되는데.” 독일 놈들이 그러면 처음에는 그 말이 뭐 말인가, 말이 부족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 3년쯤 되어야 서로 별 이야기를 다 하고 나야 이제 소통이 되면 “아, 그렇구나.” 그럼 니 때문에 내가 죽는다 이거야. 우리는 절대 그렇게 일을 안 한다. 힘을 남겨놔야 “나 이 집에 가서도 정원일도 해야 되고, 마누라한테 봉사해야 되고 그러는데 너는 그렇게



힘을, 야 임마, 줘 힘을...” 그런데 한국 사람은 저쪽 막장에 있는 흥이라는 사람이 45마르크로 올랐다 그러면 자기는 47마르크로 올리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경쟁이. 그래갖고 이제 가르텐(Garten, 정원)에 나와서 서로 브라보 ”내가 최고단가다“라고 외치죠. 그런데 최고단가라고 올려봐야 그날 술 받느라고 돈이 더 들어가. [웃음] 지금 그걸 들어보니까 못 들겠습니다. 무겁더라. 그리고 이 요령이야, 요령. 이 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렇게 요령을 할라면 상당히 이 위붕스차이트(Übungszeit, 연습시간)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지하에서 쓰는 힘과 지상에서 쓰는 힘이 다르고, 이 혁띠나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야지. 여튼 힘 쓰는 것도 다 요령이야. 지금 갑자기 한 번 해볼라고 하니깐 안 되겠더라고. 역시 내가 이제 나이는 들었군, 들었구나. 옛날에도 물론 그런 일은 나는 안 했지만 힘은 세기는 세더라고 그제. 아마 서울에서 동료들 아마 누가 연습을 할는지 모르지만 힘들 거예요.

**일이 힘들어서 사람들이 자주 병가도 냈다고 들었는데요?** 아, 병가라는 것은 이제 우리 광부들은, 남자들은 정말 독일 국위선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광부들은. 간호원들은 국위선양했어요. 한국 간호원이야 정신이 다르니까 이 사람들하고 다르니까 기술도 좋고, 인간미도 좋고, 뭐 그런데. 우리 광부들은 솔직히 말해서 일을 잘 하는 사람은 진짜 이북 가서도 김일성 뺏지를 달 정도로 일을 잘 하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고, 제일 농땡이를 친 사람들도 평균적으로 한국 사람이라고 말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얼마나 농땡이를 멋있게, 아주 고상하게 쳐버리냐 하면, 독일의사는 내가 가서 어느 정도 아프다고 쇼만 하면 이 크랑켄샤인(Krankenschein, 진단서), 1주, 2주 끊어주는 것은 그냥 아무 제약을 받지 않아요. 감기 걸려서 한 열흘 간 쉬는 것은 그냥 간츠 노르말(ganz normal, 보통)이라, 독일 사람들은. 그리고 내가 허리 아프다는데 그 허리 아픔을 어떻게 의사가 찾아내냐고. 그러니까 한 2년이 지났다 하면요, 사람들이 자기 몸 주의 한다고 해서 크랑크(krank, 아프다고) 해, 간호원 찾아가서 결혼하면 넘을 수 있으니까 또 크랑크(krank, 아프다고) 해, 뭐 아무튼 일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어쩔 때는 진짜 70프로, 80프로가 병가라는 그 독일의 이 좋은 제도를 남용한 것이 우리 한국 광부들입니다. 그거는 정말 우리가 빼고 살아야지, 한 번.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광산을 떠나서, 단체생활을 떠나서 결혼 해가지고 사회로 나가면 일등이여. 단체생활 할 때는 제로고.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죽을라 그래. 너희들이 힘들면 처음에 와서 힘들다 이래야, 처음에 왔을 때. 이게 2년, 3년째는 숙달이 돼서 훨씬 편찮을 텐데 그때 크랑크(krank, 병가)를 더 많이 한다 이거야. 야, 그리고 뭐 남자가 못하면 여자 간호원

이 데리고가서 산부인과에 가서 크랑켄샤인(Krankenschein, 진단서)를 끊어온 사람도 있어, 심하게 말해서. 우리 보너 탈벡(Bonner Talweg) 식품점의 김상근 사장도 산부인과에 가서 크랑켄샤인 끊어온 사람이야. 그런데 광산을 떠나면 일등이라. 한국 사람은 단체가 안되고 개인은 그래서 훌륭하다는 말이 누가 이야기 했든가, 그것도 일리가 있는지도 몰라. 이 단체생활이 그렇게 힘들어. 그리고 나쁜 습관들도 도박도 많이 했고, 남자들은. 여자들은 나쁜 점이 일을 너무 많이 한 거여. 수없이 해. 돈만 벌어. 한국으로, 한국으로 자식들 보내고 엄마한테 보내고, 누구한테 보내고. 참 우리 한국 간호원들 일을 많이 했었어. 내가 보기에는.

**직업장에서 차별이나 이런 것들 겪은 것은 없습니까?** 차별은 물론 있죠.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못 알아 들으면 차별대우를 받죠. 그리고 저 사람이 웃으면 나를 보고 비웃는 것인지, 무슨 내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저 사람들 나를 보고 비웃는 것인지, 저희들끼리 다른 말로 웃는 건지. 또 그렇게 웃는다 하더라도 내가 알지 못하니까 나는 항상 나를 보고 웃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 뭐 지하에서는 이렇게 조용하게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기계가 돌고 시끄러우니까. 소리를 질러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급한 상황에 천천히 “야, 김 비켜!” 그러다가는 맞아 죽어요. 떨어져서, 석탄도 떨어지고 돌도 떨어지고 뭐,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냥 꼭 전투장에서 하는 용어식, 말도 시끄럽고 뭐 해야 되니까. 내가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을 저 독일 사람은 바보, 둠(dumm, 바보)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거침없이. 광부들 다 그렇게 하지 누가 뭐 “야, 왜 말을 모르니?” 이런 식은 없어요, 그런 대화는. 왜 그리고, 저 사람이 일진으로 와서 1년, 2년 된 사람이고 난 옛그제 온 사람인데 그걸 몰라요. 옛그제 온 사람인지 1년 전에 온 사람인지. 이 사람은 말을 잘 알아듣는데, 그런 대로. 나는 못 알아듣으니까 나는 둠이야, 둠. 너는 코레아로 가야 돼, 지금. 그것은 나는 서러운 거야. 그럼 서러워서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야, 이 그러니까 베갯머리 적셨다 이 말이야. 베갯머리 적시며, 그 눈물이 이 얼마나 흘러, 얼마나 서러워서. 나는 어제 와서 독일말이 서툴러서 못 알아듣는 것도 서러운데 저 새끼가 나보러 둠이라 그리고 코레아로 가라고 그러니. 그게 이제 사실 그 순간이 서러울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고,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 환경이 다시 나빠져서 다른 나라에 가서 한다면 다를 겁니다. 왜, 외국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른데, 지금은 또 한국에 있는 젊은 애들이 오면 또 다를 거예요. 그때 젊은 애, 우리하고 지금 애들은 다르겠지만 그 땐 정말 왜 그렇게 서러운지. 예, 그때는 그러고 우리 생각이나, 이 표현이 좀 부끄러움이 많고. 지금 젊은 애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외국인들과

허물없이 친하게 막 그러더라. 여자들도 별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부끄러워했고, 또 그랬는지 몰라. 우리끼리는 좋았는데. 그러니까 서럽고 말을 못하는 때니까.

**그런 걸 극복하려고 어떤 것들을 하셨습니까?** 예, 저는 또 그 옆의 선진들이나 이 사람들의 말을 그런대로 충고를 잘 받은 것 같아요. 저보고 선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너 독일에서 살라면 독일말을 하나라도 단어를 들고 다니면서 외워. 단어만 외워 그냥, 문법도 필요 없고, 그냥 단어. 그래서 자동차 면허를 보는 학교에 나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갔어요. 갔더니 한 마디도 못 알아 듣겠더라고. 레흐츠, 링스(rechts, links, 오른쪽, 왼쪽) 뭐 포어(vor, 앞) 어찌고, 저찌고 하는데, 저 말이 뭘 말인지. 집에 와서 찾아봐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봉사 뭐 하는 식으로 거기 가서 계속 앉아 있었어. 그래도 세월이 지나고 뭐 하다보니까 한 마디 두 마디가 들어왔나봐. 그러니까 전연 파슐레(Fahrschule, 자동차 면허학원)에 안 나간 우리 동료에 비하면 내가 아는 것이 많은 축에 들었더라고.

## 광산 내 통역 근무와 대사관 근무

---

후진이 70년대에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하임장이 “아이, 너 기다렸다고. 너 오라고.” 그러더라고. 너 코레아너 베르카르바이터(Bergarbeiter, 광부)들이 오는데 너가 돌메쳐(Dolmetscher, 통역)를 해야 되겠다.”고. “나 돌메쳐, 나 못한다.”고 그러니까 아, 그래도 해야 된다고. 참, 그래서 뭐 시키니까 할 수 없이 돌메쳐를 하는데, 환자들 데려가서 이 사람 바우흐슈메어첸(Bauchschmerzen, 복통), 이 사람 코프슈메어첸(Kopfschmerzen, 두통) 그 말만 전달하면 되는 거야, 의사한테. 그러면 그 사람도, 환자들도 그 말을 할 수는 있지, 내가 없으면. 근데 아예 나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가 약 처방해주고 크랑켄샤인(Krankenschein, 진단서)만 해주면 그냥 최고이지. 크랑켄샤인을 못 하면 내가 나쁜 놈이고. [웃음] 그러니까 날마다 환자들 데리고 하우스아츠티(Hausarzt, 주치의)한테 가고, 거기서 아우젠아츠티(Augenarzt, 안과 의사), 피부과 의사에 이비인후과에, 여기저기 다 이제 분류돼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도시에 살면서 통역이 된 뒤로는 경찰서고 시장실이고 어디고, 나만 가면 “어, 너는 코레아너 돌메쳐(Dolmetscher, 통역)니, 너는 바쁜 사람이니까 먼저 가. 환자 몇 명 데리고 왔

냐?” 경찰서에도 내가 가면 교통순경도 나를 잡으면, “어, 너는 통역관이구나” 그리고 통과시키고. 그거 하나는 좋더라고. 도시가 좁아서.

**통역 일은 얼마나 하셨어요?** 70년도에 나가 77년인가 8년까지가 하다가 대사관 노무과에 왔어요. 대사관 노무과에 나 같은 사람이 있다가 그 사람이 대우로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누군가는 하나가 있어야 되거든, 간호원 하고 광부 관해선. 뭐 한국에서 오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와서, 내가 여기 대사관에 와서 있는데. 고것도 한 3년만 있다가 나도 그 사람 같이 대우나 삼성이나 어디로 취직돼서 가야겠다 했는데, 고 취직할, 운동할 시간도 없더라고, 대사관에 오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 1시나 12시에 보통 집에 왔어요. 맨날 집사람하고 싸웠지. 애들은 있는데, 아침에 출근하면 독일직장은 8시에 끝나면 집에 오는데, 이놈의 직장은 집에 오는 직장이 아니여. 어째 그렇게 한국에서 그뻐 여행 자유화가 없는데 사람은 많이 와가지고. 그래 시간을 많이 보냈죠, 대사관에서.

**그럼 광산에서는 65년부터 77년, 78년까지 일하셨던 거예요?** 그래, 그랬죠.

**그러니까 통역으로 일할 때는 그럼 막장에서 일을 안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지하에 안 들어가신 거네요?** 지하 통역은 또 따로 있습니다. 지하에는 지하 통역이라 해가지고 거기 담당 통역이 또 따로 있고, 지상은 그냥 한인광부들이 한 이백 몇십 명 되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여기, 막 사회적인 문제점이 항상 생존해요. 보니까 그 사람들 뒷바라지 하는 것을 나 혼자 못했어요. 그러니까 또 한 사람, 저 크롭틀린 볼트에 백상호라고. 그 사람을 이제 부퍼탈(Wuppertal)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친구 보고, “야, 니가 와서 통역 같이 하자. 이거 통역이 어차피 또 하나 더 필요하다는데 나 혼자서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거고, 또 한 사람 필요해서 광산에서 뽑는 거니까 니가 할래?” 그러니까 “와서 하겠다.” 그래서 하다 거기는 또 크롭틀린 볼트로 갔고.

**통역도 그러면 월급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적지도 않고. 한 중간쯤 돼요.

**지하에서 일하는 사람보다는 어떤 조금 더 많은 대우를 받았습니까?** 지하에서 일하는 사

사람들, 막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이, 막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이 받아야죠. 그 독일은 그러잖아요. 기술자가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사과고 뭐이고 뭐 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하에서 일하다가 손이 다쳤든지, 상이군인이라든지, 눈이 다쳐서 뭐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차지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건 독일은 참 그런 걸 배려를 잘 해. 지하에서 팔이 하나 나갔다, 팔 하나 나갔다, 너 행정 볼 수 있다, 눈 하나 나갔다, 행정 볼 수 있다, 그러면 인사과고 회계과고 그런 자리에 앉히고. 그런 것들이 독일 사람들이 잘 하더라고요.

**3년 계약이 마감됐을 때 어땠습니까?** 저희는 계약이 그러니까 65년에 왔잖아요. 66, 67, 68이 3년 아닙니까. 고때 68, 근데 뭐라고 할까? 일을 노동영웅쯤 됐어요, 그때 제가, 광산에. 일을 잘 하는, 크랑크(병가)가 없는, 아주 부지런한. 그런 사람의 우리 그 기계과에. 그런 사람들이 자기 압타일룽(Abteilung, 과)에 가서 연기신청을 해요. 경우에 따라 다 다르지만, 내가 더 있고 싶다 그러면. 야, 그때 정말 3개월씩, 4개월, 6개월 이렇게 막 감질나게 해주더라고요. 지금도 그 여권이 나한테 기념으로 다 가지고 있고만. 막 읽으면 이렇게 막 붙어 있어요, 그 여권에. 그래가지고 70년 5월이 딱 되니까, 이제 후진이 오니까 그때는 내가 통역이 되니까, 그때는 연기라는 게 없이 그냥 그 통역만 계속 했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한국 간호원들 하고 결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외국인 조항에는 없지만, 인도적인 측면에서 부부를 떼어 놓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간호원 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여기 계속 거주허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노동 허가도 나오고. 그러니까 작은 직장도 얻고, 광산연장 해도 되고, 그러는 거죠.

**3년 그 계약이 종료된 후, 돌아가실 생각은 없었습니까?** 예, 돌아간 동료들이 있었는데, 저는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고, 좀 더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때 한국에 갈때도 없고 3년간 하다보니깐 7,000마르크를 송금했더라고. 7,000마르크. 그러니까 7,000마르크 가지고는 한국에서 장가가는데, 뭐 우리 총각들이 하는 말이, 상대 여자한테 함에다가 뭐 선물 얼마 해주고, 뭐 어찌고 해주면 없다. “야, 이거 생활은 택시 하나라도 운영을 해야 밥 먹고 살 텐데 이거 가지고 되겠나 이 말이지. 좀 더 있어야겠다.” 그래서 더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생각으로는 아메리카로 튜 사람들이 잘한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은 가서 직장을 잘 얻을 수 있었으니까, 그때는 아메리카가 좋았지요.

그럼 그때 7,000마르크를 보내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가족들이 쓰지 않고 이제 모아두신 돈 인가요? 일부는 썼죠.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생각으론 그래, 그걸 갖다가 뭐 우리 가족들이 어디다 잘 해놨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 참, 나한테는 잘 해놨구나. 잘 해놨고, 서울에 그 거기가 어디야? 그 여튼 서울에 조금 안 좋은 데가. 거기다 집을 조그만 한 걸 하나 샀는데, 김신조인가, 그 저 이복의 테러단 말이야. 그 친구가 거쪽으로 보이는 데로 내려왔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투자했던 그 동네 집이 죽었다가 깨나도 안 올라가는 거여. 수 년 동안. 그래갖고 그걸 팔아 갖고 우리 매형이나 형님이 여기저기 사업에다 좀 보태 쓰고 하다가 아무래도 재미를 못 봤나봐. 그래서 내가 나가면 미안해서 죽을라 그러지. 어떻게 그렇다고 내가 내놓으라고 하기도 뭐 하고. 그게 우리 세대들의 슬픔이었다고, 우리 세대의. 그리고 우리 조카들이, 형님이 아들이 셋, 딸이 하나. 근데 그 애들이 형님이 큰 공무원, 그 공무원도 아니고 회사원인데 그 애들 다 대학까지 졸업시키는 거 보면 그래도 내 원조가 좀 들어가서 도움이 됐겠지, 그지? 또 이제 우리 매형이 아들이 둘, 딸이 하나데 애들이 또 다 대학 다닌대. 애들이 그래도 다 대학 다니고 뭐 해서 그래도 다 잘 됐어요. 즈그들 원하는 대로 잘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면은 뭐 이놈이 그래도 뭐 저 밥 먹으러 가자 뭐 가자하고 아쉬운 소리를 얹게끔 잘 해. 그래서 나는 그걸 큰 복으로 생각하죠. 행복으로 생각하지. 그걸 갖다가 지금 와서 어찌 할 겁니까, 네? 그때 형님 보고 어찌 해야지. 그거 안 되지. 그러니깐. 그 애들도 잘 됐으니까 다행이고. 내일 내 조카가 하나 오는구만. 지금 딸 둘 데리고. 네 식구가 우리 집, 지금 구라파 여행 처음으로 하면서, 내일 또 우리 집에 오기로 되어 있어. 우리는 그래도 행복하게 잘살았습니다. 독일 와서.

## 결혼을 하기 위한 서류정리

---

그럼, 죄송합니다. 서류상 결혼하셨는데, 진짜 결혼은 언제 하셨습니까? 진짜 결혼은, 맞습니다. 나뿐 아니라, 마누라, 애가 그냥 한꺼번에 한날 죽어버린 사람이 많지. 광산에 이제 그걸 정리하러 가면 광산에선 초상집이 된 거야.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막 광산에. “헤어 리(Herr Lee, 이씨), 이번엔 누가 죽었냐?” 이거야. 그럼 또 죽었다고 정리를 해야 또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럼 죽었다고 정리를 하면 또 애네들 사회보장제도가 그 크랑켄카세(Krankenkasse, 보험회사)에서 돈을 또 얼마 줘요. 참, 그러면 뒤에 이 마누라 죽었다고 신고



한 요놈은 실질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장가가기 위해, 간호원을 이제 하나 찾았기 때문에 간호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지난 폭풍우 때 배를 타고 친정을 가다가 이 배가 불이 붙었다. 그래갖고 애까지 (죽어버렸다. 그러면) 아이고, 행정 보는 여자가 그냥 “독일에 돈 벌러 와가지고 너무 다 죽어버렸다.”고 슬퍼서 죽을라고 하는 거라. 거기서 안 웃을 수 없는데, 웃으면 안 되지. 우리같이 참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었어. 박정희 씨가 독일광부들은 뭐 호적을 한 번 정리 해줘야 되겠다고 하더만. 그런 말이. 그리고 독일광부들이 또 한국에 오면 라디오 갖고 온 것을 잡지 말으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 당시에 라디오 뭐 그 펠프타우젠트(Fünftausend, 라디오 상품명)인가 뭐 이런 것이 조금 고급스러웠는데, 이북방송까지 나와요. 그리고 광부들 촌에 왜 이북 노동신문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지, 아주 잘도 찾아 온다고. 그리고 이북방송 들으면 들을 만하거든요. 꼭 와서 본 것 같이 우리나라 그 정치 현실에 지금 누가 막, 장준하가 뭐 죽고 뭐 어찌고 했다 그러면 김대중이가 잡혀갔다 그러면 이름까지 전부 붙이고 이름까지 대서 막 일본에 누가 막 가서 뭐 하고 지가 막 보고 이야기 하는 것 같이 그런, 그거 안 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서 뭐 잡아가지도 않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광부들이 그런 슬픔이 있어. 돈 때문에 그 호적을 다 얹혀 놔네, 이 사람.

그 정리하는 건 쉬웠나요? 왜냐하면 여기서 정리한다는 건 여기서만 정리가 되고 한국은 같이 정리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 정리한다는 게 참 자네 말도 그 일리가 있는데. 그 당시에 뭐 독일은 세금반지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1년간 내가 세금을 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1년에 12,000마르크를 또는 6,000마르크를 한국에 송금을 했다, 그러면 한국에 송금을 했으면 내가 잘살기 위해서 송금을 한 사람도 있고, 내 부모 형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송금한 사람도 있고 그렇대. 근데 독일법이 내 부모, 형제, 처자식을 위해서,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보냈다. 이렇게 해서 부양가족 증명서를 첨부하면 그 세금을, 1년에 냈던 세금을 그 퍼센트를 다시 돌려줘. 그 돈이 무지 많습니다. 이 보나스보다 훨씬 많아요. 거의 다 줘요, 거의. 그러니 그 돈이, 그것이, 그런데 부양가족 증명서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말이 부양가족 증명서지, 부양가족 증명서는 국회의원들이 수없이 여기 방문하면 광부들이 건의를 해도 한국 가면 그걸 해주도록 하겠다! 그러지만 개소리고, 그 없어. 그러면 여기 광부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그냥 어떤 사람은 강원도지사 김행량, 자기 이름을 감자로 파



서 도장을 콕 찍은 사람도 있고, 레코드판의 수입인지를 뜯어 갖고 그 저, 이라고 붙인 사람도 있고, 별의 별 사람 많아. 그런데 그 불쌍한 독일 놈은 또 그것을 독일어 하고 한글로 그 누구야, 그 타자를 쳐 갖고 하면 이제 그것이 그것이라고 인정을 해줘, 또. 그러니까 대사관은 아예 그 서류를 해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도 있고, 대사관에서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자기들이 스스로 해버린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독일의 그 서류위조랄까 이런 거는 정말 부끄러운 과거가 많았어. 그런데 지금은 없어. 왜? 그 광부들이 그 젊은 시절이 끝났기 때문에. 광부들 지금 프랑크푸르트에서 프리바트(Privat, 개인 사업)를 하고 정년퇴직을 하고 한 사람들이 다 가짜도장을 찍은 사람이 프리바트 증명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한국 사람은 군대에서 의무병과도 있었고 의무병과 안 한 사람도 프리바트 정도면 또 다 해.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뛰어난 끈들이 많아. 그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지나가는 그 길목들이 많아. 내가 심한 것, 나쁜 것만 예를 들어서 그렇지, 그 나쁜 점도 그런 점은 있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일을 잘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잘 하고.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 광부 저 장단점이 거기에 있어. 천과 지의 차이를. 일본 광부가요, 우리가 오자마자 일본 광부는 끝나고 갔습니다. 광산에 일본 광부가 최고 단가를 올린 사람이고. 근데 그 단가를 훨씬 위에까지 올린 사람들이 한국 광부들이야. 그리고 우리 광산 같은 데서는 우리 광부가 카메라 같은 것을 상점에서 도둑질하고 한 걸 그 카날(Kanal, 운하)에 가지고 가서 막 빠치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광산에서 일어났던 일이야.

## 동료의 절도 행각과 언론 보도

**무슨 일이에요? 자세히 좀 얘기해줄 수 있겠어요?** 1971년 9월에 우리 광산에 왔던 광부들이 구십 몇명이 왔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상당히 이 쓰리꾼, 도둑질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 왔었던가 봐요. 서울 시내에서 막 옛장사도 하고. 근데 이 친구가 독일 상점에서는 그 도둑질하기가 아주 수월했던가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내 상점에 가서 훔친 게 굉장히 많았는데요. 한 번은 카메라 집에 가서, 여기 독일은 카메라를 한꺼번에 팔지 않고 부분적으로 카메라 팔고, 이 콤팩트 팔고, 또 다리 팔고, 램페(Lampe, 플래쉬) 팔고. 그런데 이놈이 카메라를 성공적으로 다 훔쳤는데, 그 이튿날은 이제 콤팩트 없으니까 그 콤팩트를 훔치러 간 거야. 그 콤팩트를 훔쳐 갖고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이게 좀 똥똥하니깐 주인이 그 전 날 그 카메라 한 대

가 없어졌으니까 그 사람은 신기하게, 이상하게 걸렸지. 그랬더니 그 한국 사람이 여기다 그걸 집어넣었거든. 그런데 71년 9월에 온 사람이 12월 크리스마스 때 일어난 일이나간 독일 말이 충분하지 못하지. 그래서 그 사람을 붙들어서 경찰이 잡고 그 사람 방을 수색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광산이 독방이었다고. 근데 옷장을 열어보니까 여자 스타킹이 그렇게 많고, 양산도 그렇게 많고, 또 뭐가 그렇게 방에서 상자로 몇 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광산이 그냥 난리가 났지. 그때가 크리스마스이븐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광산에서는 외국인들 기숙사에서 잔치를 해줘요. 내일이 크리스마스니까 상을 차려놓고 광산 디렉토어(Direktor, 광산장)가 와서 인사말, 크리스마스 축복 받으라 그러고, 또 맥주도 한 잔씩 주고. 뭐 이런 잔치를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냥 집단으로 여기 메고 카날(Kanal, 운하)이라는, 기숙사에서 카날까지 가려면 한 5, 6분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놈을 여기다 묶어가지고 그 200명이 그 카날로 가는 거여, 이놈을 빠뜨려 죽인다고.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어서 일본 사람들이 광부를 빠져 죽일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 그것을 우리 기숙사 사감이 알고서는 경찰한테 연락하고, 경찰이 또 이제 헬리콥터에 연락하고 그래가지고는 막 난리가 난 거야. 이 12월 24일이니깐 얼마나 추울 땀니까? 헬리콥터가 하늘에서 떴지, 경찰차들이 와서 사람을 빠져, 카날로 빠져 죽인다하니까 이 사람들 사람들은 인명을 찾아야 되겠고. 한국 사람들 하고 카날에서 붙은 거야. 경찰들은 곤봉으로 치면서 사람 내놓으라고 그러고, 한국 사람들은 일보 후퇴, 일보 후퇴, 꼭 한국에서 데모하는 거하고 똑같어. 그리고 하늘에선 헬리콥터가 돌고, 아주 그냥 어디 영화의 한 장면 같아. 나는 폭스바겐 1200, 그거 가지고, 그거 타고 가서 나 아무리 저 뭐 해도 막무가내여. 그래서 사람들이 “빠져라! 이놈 새끼야, 빠져라! 이놈 새끼야.” 그러니까 이놈이 카날에 가서 빠질까, 말까? 빠질까, 말까? 이렇게 하더만. 이 카날이 상당히 언덕지거든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빠지라고 하니까. 그러다가 풍 하고 빠지더라고. 우와, 경찰들이 다섯 명이 손에 손을 착 잡고, 그러더만 한 명이 곤봉을 가지고 그 빠진 놈한테 딱 들이대니깐 곤봉을 탁 잡더라고. 짹 올라오니까 이걸 탁 잡더만 확 잡아채더라고. 그러니까 꼭 쥐새끼가 그냥, 그 물에 빠진 쥐새끼가 나오듯이 덜덜덜덜 떨더라고. 그놈을 담요로 싸고 그대로 자동차에 싣고 막 병원으로 나르더라고. 그리고 헬리콥터는 막 뭐라 하고, 사람 살렸다 이거야. 뭐 이제 이거는. 그리고 느그들은 뒤지거나 말거나, 이제 뭐. 그랬는데 이제 그 뒤로부터 볼 만하지. 전 도르트문트(Dortmund) 지역에 모드콤포미사(Mordkommissar, 살해담당 경찰)이 경찰서에서 동원돼가지고 우리 광부들 사진 찍은 게 신문에 다 났는데, 철수할 때 사진 찍고, 올 때 사진 찍은 것을 다

해갔고 전부, 전원을 조사를 하는 거야. 하여튼 그게 전 독일에 이슈가 됐어.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왕코너가 그때 불나는 날이었어. 서울의 대왕코너.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이브에 독일에 8시 15분 뉴스에 우리 광산에서 헬리콥터 뜨고 경찰하고 그 장면이 속보로, 할리우드에서도 못 찍은 그 장면이 뉴스에 나가고, 대왕코너가 불나갔고 막 여자들 떨어져서 막 뭐 하는 거. 그래갔고 한국이 그때 히트를 친 적이 있어, 71년 12월 24일.

그런데 왜 그 200명의 광부들이 그 사람을 물어뜯으려고 그랬나요? 국위를, 국위를, 도둑질을 해가지고 경찰이 알아버렸어. 이제 저놈이 우리나라 국위를 손상시켰다 이거야. 그러니 저놈은 카날(Kanal, 운하)에, 일본 놈들도 그랬다는데 우리도 가서 빠져서 요 새끼를 욕을 보이든지 죽이든지 하자. 그래서 우리 자치회장도 있고, 그러잖아, 한국 사람들 그 저 그런 거 회장 인기가 좋았잖아요. 그래갔고 나중에는 한 몇십 일을 진을 치고 온 독일이 시끄러웠어요. 여하튼 ‘한국 사람들이 잘 했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거는 식인종들이 하는 짓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의사들이 시내에 내가 저 가면 말이에요, “의사들이 너 빨리 오래.” 진단을 앓고 그것부터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된 거냐고. 잘 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여튼 그 독일경찰들도 그러더만. 독일에서 백화점에서 제일 도둑질을 많이 한 것은 경찰들 마누라가 제일 많이 한대, 모드콤폴미사 담당 경찰이. “왜 그런 줄 아냐?” 그래. 경찰들은 아침에 마누라 하고 밥 먹으면서 오늘은 도둑놈 누군데 그러면 여자가 뭘 훔치다가 어떻게 잡았다 하는 것을 부인하고 이야기 하는 것이 제일 많대. 누구하고 이야기 하느냐 그거야, 애들하고 이야기 할 수도 없고. 아침 프뤼슈튀크(Frühstück, 아침 식사) 하면서 부인하고 이야기 하는데, 여자들은 그 지혜를 다 받아 들여갖고 자기도 한 번 도둑질을 해보면 이렇게 달콤한 것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통계를 보면요, 경찰들 그 마누라가 도둑질을 제일 많이 한다는 거야. 그러면 누구 같이, 경찰들은 마누라가 그렇다고 가서 물에다가 빠져 죽이면 경찰들은 그럼 다 훌애비로 살게? 그러면서 그건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 선진국, 이 코리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냐고. 그 일이 아주 재밌었어요. 어떻게 보면 국위를 선양했다니깐. 그런데 그 선동한 놈을 한국으로 쫓아 보내고 도둑놈은 운터주흥(Untersuchung, 조사)해서 감방에 넣었는데, 그놈이 나 그 광산에 돌아가면 죽을런지도 모르니까 나 딱 광산으로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딱 광산으로 보냈다고. 그런데 딱 광산에 가서 또 했다고. 응? 그놈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옛장사하면서 그 인간 같지 않은. 그래서 그놈이 갔다가 한국에 추방됐다가 또 스페인인가 어디 선원인가 해갔고 다시 독일에

와 갖고 도둑질 하다가 또 걸렸어. 그러니까 이것은 그 병이야, 병. 그런 것 같아요. 그 도둑이라는 것은 그 끼가 버릴 수가 없는가봐, 쉽게. 참, 재밌는 일이지….

## 파독광부와 파독간호사의 결혼

전두환 대통령 올 때도 여기서 그렇고, 노태우 대통령 올 때도요, 병원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때 켜어. 그때 광부 시절에 독일간호원들 하고 우리 독일광부하고 결혼한 얘기를 하면 재밌어 갖고, [웃음] 재밌는 얘길 하니깐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참 재밌는 이야기 많죠. 광부, 간호원들이. 저는 이제 아우스나메(Ausnahme, 예외)예요, 그래도. 그때 나는 주가가 높았지. 그래도 광산에서 통역이니까. 내가 결혼해서 슈탄데스암트(Standesamt, 호적사무소)에서, 독일은 슈탄데스암트에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결혼을 하면 그 양쪽에서 초이게(Zeuge, 증인)가 하나씩, 신랑, 신부 초이게가 하나씩, 여권 가지고 와서 서명하고. 나는 돌메쳐(Dolmetscher, 통역)니까 이 사람들이 독일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항상 거기 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 끼게 되는데, 한 90쌍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이렇게 하면 양쪽에서 신랑, 신부측에서들 오고 그러니까, 거기서 서로 만남의 장소가 지금 다음 만남의 장소 몇 쌍을 만들어. 그 인연으로 인해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다 젊은 사람들이고, 처녀, 총각이고. 처녀, 총각 아니라 기혼자 남자한테 제일 잘 넘어가는 게 또 저 아가씨들이잖아.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임마, 너 때문에 임마 뭘 일이다 돼 가다가 잘못 났다.” 싸우기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 참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만나셨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광부는 월요일, 금요일 일을 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요. 반드시 그 이튿날 내가 직장에서 너 공휴작업을 나오라, 이런 아우프트락(Auftrag, 지시)을 받기 전에는 정상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다 쉬다고. 그런데 간호원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일을 해요. 2주에 한 번 토요일, 일요일 쉬던가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남자가 간호원촌을 가게 돼 있다고. 여자가 오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무슨 이유로서 뭐 이, 간호원촌에 누가 있고, 누가 있고, 뭐 고향에 누가 있고, 이런 핑계가 돼 있더라고요, 연결이 되겠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가게 돼. 그러면 간호원촌에 가면, 간호원한테 가면은 나이가 있는 사람이 있고, 나이

도 적은 사람도 있고, 아줌마도 있고, 다 이게 연령층이 또 달라요. 역시 우리 남자들도 그렇습니다. 연령층이 뭐 적은 사람도 있고 등등등, 그러면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인테레세 (Interesse, 관심)가 있어서, 아, 그러면 같이 이제 산보도 가고, 뗏도 가고 그런데. 그때는 우리 남자들이 차가 부족했어요. 남자들이 차 운전을 하는 사람도 숫자도 적을 뿐 아니라, 돈이 없어요. 그러니 겨우 싸구려 차, 500마르크 차, 저 한 몇백 메타 가다가 그냥 서버리는 차들. 그런 차들이 우리의 차였다고. 그러면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서잖아요? 그 차를 밀어줄 사람 누구니까? 간호원들이지. 그지? 우리 그 시대의 간호원들 높은 굽을 신는 시대예요. 그걸 또 미는 거야. 독일 사람들이 여자가 미는 건 많이 협조해줘, 또. 근데 남자가 밀 수는 없잖아,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래 저러다가 이제 그 통차도 로렐라이(Loreley)까지도 오고 막 그래요. 기분이 좋을 때는 차가 말이야. 그러면 우리 로렐라이 가자, 그러면 여자들이 이제 김밥 싸고 이제 막 그러잖아요. 그때 자가용 타고 로렐라이를 간다든지 이것은 참 흔한 일이 아니지. 우리 한국에서도 아무리 간호원 했어도 자가용 타고 어디 저 뭐 야외를 간다든지 뭐 이런 게 흔한 일은 아니지. 그지? 응,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친해지게 되는 거여, 친해지게, 하나씩 하나씩 친해지게. 그럼 자기만 친해지나? 이 사람 혼자 또 친해지면 재미없잖아. 자기 옆에도 아가씨들이 수두룩이 있는데. 그러면 그 아가씨가 그 아가씨한테 부탁하게 돼 있어. 그러는 것 같애, 내 생각엔. 그러면 남자도 마찬가지로. “야, 임마, 너 혼자만 다니면 어떻게 해? 나도 임마, 이제 고려해야지.” 그러면 그 친구가 이제 일하고 나오잖아. 그러면 밥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멕일라, 그놈 차 한 번 타고 따라갈라고. 응? 응? 그리고 그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뭐 완전히 그때 말하자면. 지금 우리 동네 그, 저, 그 채소장사 하는 이 조익훈이라고 있잖아요. 그 친구가 우리 광산에 있을 때는 완전히 그때는 저 차 가지고 여기저기를 많이 다니던 사람인데, 지금까지도 장가 못 가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은 희한해, 다른 사람은 다 갔는데. 그래 재밌는 사연들이 참 많아요.

선생님은 이제 부인분도 마찬가지로 간호사로 오셔서 여기서 만나신 거예요?

나는 65년 왔고 거기는 69년에. 69년에 왔어. 그래가지고 거기는 전주 간호학교 나오고, 나는 전라남도고, 고향이. 그런데 거기는 저기 비텐(Witten)이라고 거기 보쿰(Bochum) 바로 옆엔데, 거기 우리 순찰지역이지, 그러니까 간호원들 순찰지역. [웃음] 그러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지요. 그때 내 직책이 통역으로 관촬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뭐 나한테 눈에 들라면 그 상당히 거시기 했지. 지금이니까 내가 설움 받고 살잖아. 마누라한테 꿈쩍 못했지,

뭐. 시장 보러 가자고 하면 시장 봐야 되고. 밭에 가서 뭐 일 하자면 일 해야 되고.

**몇 년도에 만나셨어요?** 70년. 나가 65년에 나왔는데 여기는 69년엔가 왔거든.

**70년에 만나서가지고 바로 이제 결혼을 하셨나요?** 바로 몇 번 데이트 하고 성공했지, 성공.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보고 뭐 총각 때 자기 말고도 다른 사람들하고도 과거가 많다 이거야. 그렇지만 내가 자기한테 눈을 준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해야지. 무슨 과거 찾고 뭐 찾고 그래. 지금 독일 놈들은 그 수상이고 대통령이고 지금 저 본처하고 사는 놈이 몇이나 있어. 대통령은 뭐 애인하고 살잖아? 응, 그지? 뭐, 외무부장관? 그 새끼는 뭐 저 남자친구하고 살잖아. 그 SPD(사민당)니 뭐니, 이 전부 두 번째 세 번째하고 살지. 이 독일 애들은 엉망이야, 독일 사람들은. 우린 그래도 한국 사람은 엄청난 거지. 그래서 내가 독일 사람들 보고, 도이치-코리아니쉬 게젤샤프트(Deutsch-Koreanische Gesellschaft, 독한협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한국 여행을 여러 번 갔어요. 독일대사 했던 사람, 참사했던 사람, 사업했던 사람들이 한국을 더 그리워해. 그래서 같이 가서 “야, 독일 놈들 정말로 내 이거 하나 내 진짜 정말 기분 나빠.” 그러면은 “뭐냐?” 이거야. “야, 이 새끼들아, 느그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뭐 남자하고 남자하고 사는 놈이 없나, 뭐 한 놈이 없나, 이게 뭘 짓이야?” 이거 그러니까. “그게 다 구약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고 신신약이래.” 그것까지 에어라우트(Erlaubt, 허락)한대. 그러니까 지금 열 번 결혼한 사람은 없다는 거야, 이놈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앞으로. 열 번 결혼한 사람 없대. 와, 참. 그리고 보면 참….

**부인분은 아직까지 간호사로 일을 하시나요?** 정년퇴직했어. 간호사로 이 일 하는 사람이 우리 본에는 몇 안 돼, 지금은. 본대학이 한 이백 몇십 명이 우리 간호원들이 근무했고, 전 독일이요, 한국 간호원이 싹 장악을 했어, 한때. 생각해보세요, 본대학에 이백 몇십 명, 뭐 다른 병원도 거의 다 장악을 했다고. 그 정도로 한국 간호원이 많이 왔고, 그 하도 질이 좋고 그러니까 여기에 수출의 대상이 됐고, 거기에 보조는 그냥 끼어서, 우리가 요구해서 받아 준 거지.



## 여행사 경영

---

그래저래 해서 가정이나 우리 국가에 이바지를 많이 한 거지. 개인한테도. 너무 못살았으니까. 그런데 한때 못 산 것은 성경에 말했듯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고생을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절대 내가 빵의 부족함을 느끼게 해선 안 되겠다, 이것만은. 그래서 우리는 휴가를 몇십 동안 안 가는 거여. 못 갔지. 돈 아끼느라고. 쪼다지. 지금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쪼다지. 돈이 아까워서. 그러나 내가 근래에 와서는 1999년, 2000년 이렇게 됐나? 우리 교민 중에서는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 손꼽혀. 나는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해요. 왜? 한국을 여행해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 1차 광부 나와가지고. 왜? 학교 땡기면서 무슨 소풍이나 수학여행 다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배운 것은 있지. 경주가 어찌고, 석굴암이 어찌고, 배우긴 했는데 언제 석굴암을 가본 사람이 있냐고. 군대에 가서 객지를 구경한 거야, 우리 나이에. 그 다음에 이제 독일로 온 거야. 그러니 한국을 가본 적이 없는 거지. 내가 전라도 목포에서 학교를,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녔는데, 흑산도다, 완도다, 진도다, 홍도다, 제주도를 내가 가본 적이 없어요. 같은 지역인데도. 그러니깐 가보고 싶어. 내가 그래서 여행사를 차려갖고 이제 독일 사람들을 데리고 한국을 가야겠다 하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한국을 가서 좀 보고 와야지. 내가 한국을 모르는데 이놈을 데리고 와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갖고 갔어요. 설악산이고 제주도로 이렇게 한국 여행 KTX를 타고 갔는데, 챔피언해서 내가 독일 사람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 그 당시에. 우리나라 화장실이 설악산에 가니까 이진 너무너무 개판이야, 챔피언해. 막 밖에다가 그냥 거기서 보는 거야. 그리고 아우토헨(Autobahn, 고속도로)이고 뭐이고 이게 화장실이 너무너무. “이거 우짜지,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이거 버스로 이렇게 돌아댁기면서 언젠가는 이런 데 가서 마주쳐야 되는데 이걸 어짜지?” 제일로 고생, 걱정이 그거더라고. 그래도 그중에 한국 간호원들하고 결혼한 독일 사람들이 몇이 끼어가지고 즈그 나름대로 한국을 여행한 놈들이 있어. 그래갖고 그놈들이 한국은 그런 나라라고 이렇게, 그래도 또 그런대로 좋게 봐주니까, 좋은 호텔가면 또 깨끗하니까. 그래서 몇 번은 그 고비를 넘겼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갔는데, 그때는 감쪽같이 한국이 얼마나 화장실이 잘 돼 있는지... 지금은요, 아주 독일 사람들이 한국 가서 화장실이고 공짜여. 독일같이 돈도 안 내. 고속도로도 돈 안 내고, 깨끗하고. 대리석으로 응? 까비까비. 이 독일 사람들이요, “헤어 리(Herr Lee, 이씨),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야, 한국이. “한국은 이렇다, 뭐든지 빨리빨리다.” 참 무서운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응? 그런데 내가 뭘 보여주고 싶은 것은 나는 그 뒤로 그 흑산도도 가 봤고, 홍도도 가봤고, 개인적으로. 내 형님하고 매형, 누나들 모시고 갑시다, 우리가 그런 것도 한 번 가봐야지, 저기가 그렇게 좋다는데 한 번 갑시다. 서울에서 기차 타고 목포로 가고, 목포에서부터, 스웨덴인가 덴마크에서 그 쾌속정을 수입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2시간 반인가 가는데, 흑산도, 홍도를 가는데요. 지금 한 10년 전일 겁니다. 그 다도해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나는 이 구라파에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다도해를 못 봤어. 그런데 아직도 흑산도나 홍도는 화장실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호텔문화가 덜 났더라고. 그래서 한화갑 씨가 그 동네의 국회의원이었거든. 그 친구, 당신은, 나는 전라남도 무안군이고 당신은 신안군인데, 옛날엔 신안군도 무안군이었어. 그래서 당신 고향이 신안이라는데, 당신이 저 민주당 대표도 하고, 김대중이 오른팔도 되고 뭐 그러던데, “당신이 해놓은 게 뭐 있어? 나 흑산도, 홍도 가봤는데, 화장실이 그래가지고 어디 거 저 세계적인 관광지라고 말할 수 있든가 하매. 자연적인 환경은 이 세상에서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자연환경이더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 좀 일을 하세요. 그런 일도 안 하고.”

이번에도 독일에 또 왔어. 민주당 대표라는 사람이 저 국회의원 나가 갖고 떨어져가지고 어디다 대고 지금 와서 엉뚱한 소리하고 있냐고 말이지. 뭐? 교민들 보고 독일 국적 가진 사람도 투표, 대통령선거에 투표해야 돼? “달콤한 소리 하지마. 당신 같은 사람들 나는 첩피하고 부끄러워.” 김대중이 먹고 살고, 나도 먹고 사는 거야. 그런 선후배 관계에서. 그 자식이 부정축재 한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어. 나는 다 좋은데, 그 사람이. 뭐 햇빛정책, 뭘 정책해서 다 좋아. 그리고 얼마나 불안하게 지냈냐면, 남북 사람들이 여기 독일에서 만나면, 이북사람들 오면 우리 교포들이 가서 만나주고 싶어도 내 형제가 누가 고문이고, 거기에 부당한 처사를 당할까봐 누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김대중이가 그 길을 열어놨지 않습니까? 그런 불안감을 털어줬잖아요. 그래서 그건 좋은데 왜 그 자식이란 자식들은 부정축재를 그 몇천 억씩 해쳐먹고도. 그것은 김대중이나 김영삼이나 그건 죄 받을 일은 받아야지. 이제 한 사람은 죽어버렸으니까 뭐 하지만, 그 난 용서 못한다고. 당신도 용서 못해. 최근에 왔었어, 여기. 그건 앞잡이야. 국회의원 떨어져버렸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이름 없는 사람한테 떨어졌어. 그러면 첩피해서 절에 들어가서 도를 닦고 있어야지. 그 와서 뭐 엉뚱한 소리해, 교민들 듣기 좋으라고? 뭐 동서한인회 회장? 그것도 이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여행해가면서, 엉뚱한 소리나 해가면서. 나는 그거 싫습니다.

그러면요, 그 78년도에 대사관 노무과에 현지직원으로 들어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대사관에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현지직원들이 영사과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대민창구에서. 영사가 다 못하잖아요. 영사는 결재만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없으면 일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무과에 나 같은 사람이 있는데, 대사관에는 나 같은 사람이 없어. 또 다른 지부에는. 독일 사람은 있는데. 나는 유일하게 그 대사관에 봉고차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나 승용차로 운전하고, 독일말로 그래도 구텐 탁(Guten Tag, 안녕하세요)도 하고, 독일 사람 하고 일반적인 대화는 대충 한다고. 그런 사람이, 운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침에 출근을 하면 노무과에 내 책상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 줄을 서 있어. 무관실에 손님이 와 있고, 무슨 저 교육관실에 손님이 와 있고, 뭐, 뭐 무슨 실에. 각 부처에서 손님들이 그냥 기차도 오고 뺏도 오고, 그런데 사람이 없어. 그러면 누군가는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아침에 나갔다 하면 그냥 나는 사무실을 놓고 그냥 돌아댁기고 있는 거야. 일 때문에 차출 돼 갖고. 그러니까 독일 천지를 안 가본 데가 없어요. 형무소에도 가고 어디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별의 별 곳을 다 가봤어요.

## 본으로 이주

---

그러면 그때 본으로 이사를 오신 건가요? 그렇죠. 제가 77년인가 78년에 이제 광산에 있다가 대사관 노무과로 오게 되니까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대사관, 그렇다고 또 봉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여. 광산보다 봉급도 적어요. 그때는 탄넨부쉬(Tannenbusch) 거기서 살다가, 우리 애들이 72년생이고, 하나가 76년생이라고요. 딸이 72년생이고, 아들 놈이가 76년생이에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여기 이사 와갖고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탄넨부쉬 서찰아파트에 사니까 아주 어둥이 작둥이 다 살아 갖고 이게 막 소리가, 요쪽 방에서 지른 소리 저쪽 방에서 지른 소리도 시끄럽고, 그리고 이사 하고, 이사 나가고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우리한테 시끄럽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뭐 이 동네가 개발을 하기에, 이 집을. 또 노이에 하이마트(Neue Heimat)라는 게베르크샤프트(Gewerkschaft, 노동조합)가 운영하는 부동산 노이에 하이마트에서 집을 지어서 그 분양하는데, 여기 내가 80년 1월 5일에 이사를 온 겁니다. 벌써 그러니까 삼십몇 년 돼 버렸어요. 그러가지고 요즘은 슈퍼마켓도 두 군

데나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살기가 좋아져가지고 몇 만 유로가 올랐어, 이 동네가, 우리 동네가. 그런데 옛그제 게네랄 안자이거(General Anzeiger, 지역 신문)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동네에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산다네. 나는 그렇게까지 많이 사는 줄 몰랐는데, 아주.

**그럼 그 대사관에는 몇 년까지 일을 하셨습니까?** 어, 81년인가, 82년인가. 여하튼 5년인가 6년인가를 일했지, 근무했지. 그래서 직원들이 그래. 저를 이제 좀 애긴다는 사람들이 “여기와 있으면 별 거 없어, 별 거 없어요, 여기서 하면 별 거 없어. 뭐 하나 해서 돈도 벌고 사장도 하세요.” 가만 이제 생각하니까 그때 그래서 그 노무관이 여자 노무관, 김희연 노무관이라고,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왔다가 돌아갔는데, 다시 노무관으로 왔어. 그 사람이 백그라운드가 좋았어. 특채 된 사람이야, 노동부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자기 외삼촌이 경호과장인가, 여튼 계급이 높았는데, 박 대통령이 궁정동에서 죽을 때 그 사람도 죽었어. 엄청나게 그 사람이 경호팀에서 박정희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 정도로 백그라운드 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두 번을 온 거예요, 여자가. 그리고 남편이 또 누구지? 대우에 김우중이, 또 뭐, 뭐 이런 사람들하고 경기고등학교 동기동창에 자기가 학생회장이었고, 김우중이는 생활지도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 그리고 지난번에 서울시장 했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동기동창이더라, 보니까. 하여튼 그런데 그 사람이 두 번째 와가지고 지금 뭐 퇴직광부 친목회들이, 뭐 적립금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전임 노무관이 한국으로 송금을 시키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 노무관이 서울에서 발령 받아가지고 오면서 보니까, 차관 방에 가서 이렇게 공문을 보니까 그 돈이 넘어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차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여자 노무관이. “차관님, 저 노무관으로 발령을 취소시키시든지, 안 그러면 이 돈을 중지시켜서 다시 독일로 보내주십시오. 저 노무관으로 가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이 돈이 한국으로 와버리면.” 그러니까 “그 말이 뭐 말이요?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광부들이 눈을 벌레 벌레 뜨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이 돈을 한국광산을 위해서, 광부를 위해서 쓴다고 이 돈을 넘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으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돈이 있는 광부들이 어떻게든 우리 대사관 불을 지르든지, 우리를 죽이든지, 대사하고 나는 여기 가서 근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노무관으로 발령한 것을 취소시켜주시든지, 이 돈을 물르든지.” 그러니까 그 차관이 군 출신이어서 그 여자 노무관의 말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 정도로 배짱이 있었던가봐, 내 생각에. 그래가지고 그 이 노무관이 와갖고, 대사관님이 그 공관장 회의에 가는데, 이 노무관이, 여자 노무관이 이야기를 했잖아

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이 선생님, 나하고 둘이 이거를 얹읍시다. 그래서 광부연합, 글뤽아우프에 다 알려져 와서 연설을 시키게끔 합시다. 그래서 이 돈이 넘어가버리면 우리 여기서 살 수 없잖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날마다 몽둥이 들고 난리칠 텐데, 어찌. 외국 사람들이 뻔히 당신들의 아는 사례에서 보내는 거를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냐?”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 남아서 오늘이 광부들이 뭐 에센(Essen)에다 회관도 하나 사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뭐 하고,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그 사람들도 3억 얼마를 받아서 서초동에 사무실도 사고, 이번에 이 한국에 글뤽아우프(Glückauf, 재독파독광부협회) 그 사람들한테 25억을 지원을 받아서 국무총리도 독일에서 유학한 사람이고, 박근혜 씨도 음으로 양으로 여기 오면 우리 광부, 간호원들의 뒤애를 줄줄줄 따라다니면서 기분 좋게 만들어준 사람이고. 그리고 야당에도 독일광부, 간호원들을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꽤 많거든. 그래서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광부, 파독광부들이 25억씩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도쿠멘타필름(Dokumentarfilm, 다큐영화)을 제작하는 마이스터(Meister, 감독)가 거기 회장이야. 그리고 밑에 권이종 씨나 이런 분들 부회장이고, 일 해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광부 출신들이 70, 80명이 교순데, 광부 출신이라고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광부 출신이라고 한 사람은 숫자는 적지만, 이번에 힘을 받은 것이, 국무총리도 여기 유학을 했던 사람이라 아주 동정적으로 많이 우리를 살피고 있대요. 그런데 용케 그 팀이 다 맞아버렸잖아요. 여당으로서도 저 현대사박물관을 11월에 오픈하는데, 이거 선거에 딱 써먹게 돼 있거든. 그러니 그 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25억을 받은 거예요. 그 현대사박물관은 별도고. 그것은 별도고. 그래서 광부들에 대해서 이제 이번엔 교수님이 선발 되신 것은 정말, 빠른 것은 아니지만 정말 그건 잘 하신 거라고. 왜 그러냐면 누군가는 체계적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걸 잡자니 그건 우리가 그런 것을 써본 사람도 아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서 잘 써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생각해도 서울에도 권이종 씨나 이런 사람들이, 교수 분들이 이런 여직원이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사람들이 다 같이 그렇게 밋마헨(Mitmachen, 같이) 해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꽃을 저런 것도 보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뭐 되겠냐 싶어. 그런데 시기가 딱 잘 맞은 것 같어.

한국에서는 그럼 상당 부분 다시 그 광부들의 업적이나 이런 것이 인정이 좀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 그러기는 그러는데요. 그 사실은 그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말, 말로 뵈대는

거야 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행동으로는 아직도 멀었잖아요. 우리 욕심은 그래도 어디까지 이 일을 봐줘야 욕심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뭐 어느 교수는 그렇다. 진주대학교에 있는 독문과 교수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그래도 그 무슨 유공자 취급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을 교수들은 무슨 세미나에서 그 사람은 주장을 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그런거 인제, 그것까지도 혜택을 받을런지 어쩔런지는 모르는데. 예, 그런 혜택을 주면 더 좋기는 좋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서울에 사는 뺏도 생기고, 남해에는 남해대로 또 뭐 거기도 마을이 들어섰고. 거 지금 몇 군데서 뭐를 하는데 모르겠어, 얼마나 더 발전적으로 나갈런지.

## 독일 생활 회고

---

지금 돌아보셨을 때, 계속 독일에 이렇게 체류하고 남으신 게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래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한국에서 있었다 라면 나한테 좋은 기회가, 재정적으로는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내 친구들이 한국에 가니까 생각 외로 경제적으로 잘 된 사람도 있고, 천당에 가버린 사람도 많더라고. 그래서 나도 천당에 가버린 사람 속에 하나에 들어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여기가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 것은 틀림없다. 한국은 좀 숨 막히게, 막 정신없이 막 살아야 되고, 그러는 것만은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여기가 좋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좋다. 착하고, 일반적으로 착해요. 나하고 일하는 노동자들도, 운전해주는 사람도 얼마나 착한지. 저 어디 칼스루헤(Karlsruhe)도 갔다 오고 어디도 갔다 오면 그 우리 학생들이 착한사람 잘 뵈네요, 그래. 독일 사람 대부분이 착해요. 사기꾼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애. 그래서 저는 독일 생활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좋은 나라에 와서 잘살고 있는데. 내 딸래미가 시집을 안 가서 그것이 하나 아쉬워서 그렇지. 아들래미도 정식 장가는 안 가고 동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것이 독일인데, 내가 막을 길이 없어. “딸도 아들도 꼭 결혼을 해야 한다.” 이걸 막을 길이 없었어요. 이런 쪽으로는 안돼. 대통령에서부터 장관에서부터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 딸은 베를린에 살고 있고요, 아들래미는 지금 프랑크푸르트에 있습니다. 딸래미는 뮌스터대학에 베트립스 비어트샤프트(Betriebswirtschaft, 경영학)를 졸업했고, 베를린에서 지 나름대로 무슨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리고 아들레미는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처음엔 영국 회사, 독일 회사에서 막 고통받고 신입 받고 하더라도 이제는 독일 회사 콘티넨탈(Continental)에 가서 한다 하더라도? 외국 기술자들이 지금 오면 그걸 골라갖고 더 높은 셰프(Chef, 장)한테 바친다든가, 뭐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고 지 나름대로 또 뭐 바빠 살면서. “너 한국여자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 자식이, 본대학 나왔어요. 본법대 나왔어요. 그래 너 유라(Jura, 법학) 하지 마라, 유라 할 거야. 근데 어쨌든 그거 해놓고 이제는 자기도 조금 후회하는 것 같애. 내가 괜히 유라 했다, 그러는 것 같애.

여기서 종교 활동 하시나요? 종교가 어떻게 되나요? 저요? 저는 종교는, 처음에는 없다가, 그 다음에 개신교였다가, 개신교에다가 지금은 카톨릭에 나가고 있는데요. 개신교에서 있다가 카톨릭으로 온 이유가 있어요. 개신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요. 아, 거기는 보니까 집사들이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독일로 말하자면 내 후배들이야. 나는 65년에 왔고 그 사람들은 70년대에 오고 그랬는데. 근데 말하는 것이 형님 같은 그 목사님을 그냥 집사들이 그냥 주물락 주물락 하고 그러는데, 나로서는 그것이 용납이 안 되더라고. “야, 내 가정으로 봐도 다섯 살, 서너 살 넘으면 이 형님인데, 내가 보기엔 형인데 누가 보기엔 더 형이지. 그런데 누가 집사라는 그 명목으로 그렇게 면박스럽게 하고 그럴 수가 있냐? 나는 너같이 믿음이 든든하지 못해서 그러는지 나는 그게 도저히 그쪽에선 기도가 안 나온다, 그 얼굴 보고.” 그랬더니. “우리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평신도로서 거기에 대해서 뭐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 그 얼굴을 맞대고 몇 달 동안을 있다가 보니까 그거 안 되겠더라고. 아유, 난 쉬어야겠다, 파우제(Pause, 휴식). 파우제를 하고 나니까 온 동네에 또 인제 그 소문이 그 방송이 되는가보더라고. 남 홍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내 주위에 사는 사람들 전부 카톨릭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카톨릭 신부는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고스톱도 하고. 아유, 나는 그때는 몰랐지, 그 카톨릭 신부가 그렇게 재미있는지를. 전에는 아주 위엄스럽고 개신교보다 훨씬 이렇게 같이 대화의 상대가 아닌 걸로 생각을 했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꾸만 나를 꼬실라고 그랬잖지, 불러. 나도 고스톱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같이 뭐 하고 그러는데, 다들 뭐 요즘 신부나 목사나 뭐 다 나이는 적은 편이죠. 그런데 그때 개신교 목사는 나보다 나이가 많았으니까, 좀 많은 편인데. 그러다가 카톨릭 사람들 하고 정이 들어갔고, 그래갖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어머님이 카톨릭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너는 언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그때는 뭐 내가 그런 철



도 없고 어머님한테 효도한다는 생각도 그닥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신 어머님한테라도 “내가 늦게라도 왔으니까 받아주십시오.” 하지만 내 믿음은 뭐 아직 미미합니다.

**한인사회에서도 활동 좀 하셨습니까?** 한인사회에서는 저는 그런대로 본 한인회장도 한 두 세 번 했고, 본 한글학교도 몇 번 맡아서 했고. 처음에는 대사관에 왔을 때 본 한글학교가 처음 있었는데, 구기선 박사가 그래가지고 아시고, 그 다음에 이종수 박사가 오는데 그때 부터 또 내 마음이 그분들이 대단했을 때도 막 그렇게 존경스럽지가 않더라고, 이 사람들이 하는데. 왜, 이유는 뭐냐? 자기가 한글학교 구기선 씨 할 때는 내가 깊이는 잘 몰라. 그런데 이종수 씨한테는 자기가 무슨 이사장이야, 이사장. “뭐, 이사장?” 내가 그때만 해도 내 애들 한글학교에 이제 나갈 텐데, 이사장? 무슨 이사장이야, 지가 동네에서 하는 이 사립학교가 무슨 이사장이야. 그게 우선은 말이 안 되고, 자기 자식은 한글학교를 안 다니는 거야. 응? 그 뭐 짓이야? 우리 애들은 다니는데 자기 자식은 한글학교를 안 나가고, 자기는 한글학교에서 지가 이사장이고. 유학생들이 그 당시에 선생을 하는데 그 우리 한국에 학교 이사장이 우리 학교 어렸을 때 선생, 그냥 어디 무신 머슴 다루듯이 막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이사장이라고 할 수 없지. 지가 돈 다 내서 선생 봉급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다, 학부형 대표로 바꾸자.” 그래서 스스로 학부형 대표를 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학부형 대표 갖고는 안 되겠고, 교장을 누구 뉘야겠냐, 교장. 나는 학부형 대표고, 교장을 또 뉘야겠어. 그 선생을 리드하고, 덕망 있는 사람이 교장을 해야지. 교장이란 이름을 붙여서 교장을 합시다. 그래갖고 이제 누구 교장 하고, 내가 학부형 대표 하고. 그것도 몇 년 하면서 유일하게 그때 카리타스 페어반트(Caritas Verband, 카리타스협회)가 쾰른(Köln)에 있는데, 정부에서 돈 주지, 카리타스에서 내가 2년간을 공을 들여서 돈을 뜯어냈습니다. 독일에서 돈을 뜯어내려면 공을 들여야 돼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자료를 다 제공해야 돼요. 그러자면 급히 오늘 신청해서 금년 말에 돈 나오는 곳이 없더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돈이 나오는데 그만큼 또 일을 많이 제출을 해야 되더라고. 한국선생들이 거기에 다 따라가질 않으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장사하면서 그걸 맡아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했더니, 그때는 우리 한글학교 돈이 18,000유로, 우리 구좌에. 양쪽에서 돈을 받으니까. 대사관에서 받지, 카리타스에서 받았지. 그랬더니 그 돈이, 현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들 까먹고 카리타스 것도 뜯어 먹고, 뭐 또 뜯어 먹고 그러대.



독한협회에서도 활동을 하셨나요? 네, 독한협회에서도 그러다보니까, 우리 본에 있는 김성은 박사가 유일하게 한국 사람, 독일 사람, 독일 국적이잖아요. 그렇지만 독한협회 회장이 됐었어요. 그때 김우중 씨가 대우 이제 걸려서 헬무트 콜(Helmut Kohl) 수상까지 내독투어 초대들을 해서 김우중이가 30주년, 독한협회 30주년 행사에 오고 그래서 큰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서 저렇게 우리 김성은 박사가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이거든. 가난에 찢어져서, 응? 가난에 찢어져서 이남으로 넘어와 갖고, 목사의 아들인데, 이북에서 넘어온 목사니까 좋은 자리 주겠습니까? 시골에 저 어디 밥도 못 먹는데 이런 데로 나와서, 그런데 독일로 어떻게 유학을 와갔고, 유학을 나와서 여기 와서 독일여자도 치과교정이. 이 사람이 또 치과교정이, 치과교정이 덩치는 적은데 손이 적어서 독일 프로페소어가 김성은 씨한테 사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가 착하고 사람이. 그래서 김성은 씨가 독한협회 할 때 최고 황금시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 독일 사람들 데리고 내가 한국도 가고 그러니까, 김우중 씨는 바빠서 해외에 나가 없고, 김우중 씨 프라우(Frau, 부인)가 무슨 호텔을 경영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독일, 독한협회 직원들, 사람들 여행을 갔는데, 얼마나 그 만찬상을 멋있게 차리냐 하면, 한국, 독일 깃발에다가, 맨 위에다가 다 해가지고 나비넥타이 멘 손님맞이 하는 그 사람들이 열 몇명들이 계속 다니면서 베니눔(Bedienung, 서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천당에 간 것 같이 자기 생전에 그런 천당을 언제 대접을 받아, 독일촌놈들이, 그지? 완전히 붕 떴지, 뭐. 그래갖고 또 한 번은 또 가가지고 백영훈 박사가. 백영훈 박사가 또 독일말 잘 하고, 연설 잘 하고 그래서, 백 박사님 이번에 독일 놈들 데려오니까 사무실 방문에서부터 저녁에 어디 사무실 앞에 놀부집, 거기서 “박사님이 다 내, 그럼 돈은 내가 다 뒤에서 처리할 테니까. 그럼 박사님이 내는 거야. 그럼 내 기분도, 내가 돈은 내지만 당신이 내서 그 사람들에게도 좀 뭐 하고, 당신 말 잘 하고, 어? 그렇게 합시다.” “좋아.” 딱 그랬어. 그리고 이제 백 박사 사무실에 가갔고, 백 박사가 자기 훈장 받은 거에서부터 막 그 대위 훈장 받은 거 다 벽에 붙여놓은 것에서부터, 그냥 또 그 강당에서 연설을 그냥 빠삭하게 하거든. 필 게바인트(viel geweint, 많이 울었다) 하면서 우리 간호원들 라인강이 눈물이 적셔서 흘러. 너희들이 우리를 도와준 돈으로 지금 한국이 이 야경이, 이 한국의 그 호텔에서 그 야경을 보면 멋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것은 너희들이 도와준 덕분이 많다. 아, 그 좋은 말로 막 독일말로 하니까 독일놈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막 이 얼음을 깎아 놓고 막 조각을 해서 막 그래 하고, 그러니까 독일놈들 중에서, 야, 우리 저 본에 안과의사 있어. 한국노래를 또 잘 해요, 하라면 잘 해요. 그리고 헤어 브루멘(Herr

Brumen, 브루멘 씨)이라고 독일에 한국에서 십몇 년간 영사 했던 그 친구, 노란 샤쓰 입은 사나이부터 영등포의 밤이여, 뭐 이런 거부터 하라고 하면 잘 한다고. “너 노래 불러, 노래. 우리가 임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상 차려줬는데 갚아줄 것은 없고 노래로, 한국노래로 갚아 버려야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두 사람을 노래를 해갖고 했더니, 아이고, 한국에 저, 뭐, 백 박사 주변 중에 원로들, 옛날에 박 대통령 밑에서 손, 발이나 뭐 했던 사람들, 군바리고 뭐이고, 거 별 놈들 다 왔어. 영감들 많이 왔어. 그래가지고 또 재밌게. 그 또 그 독일 사람들 그걸 또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백 박사도 몇 번 써 먹었어, 내가. 그래도 절대 내가 백 박사 돈 십 원 한 장을 자기 돈 쓰게 안 만듭니다. 간호원들하고 한국에서 데이트를 해도 그 양반이 연설하고, 돈은 우리가 내서 우리가 식사비를 공제해야지, 저 양반 지금 돈 쓸 데 많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까지 빨개 먹으면 되겠냐? 판공비 얼마 많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말해주고 활동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게 생각하자.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그 사람한테 밥을 안 해먹어요. 그래서는 안 될 거 같애. 나는 여행비로 쓴다고,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오는데 그걸 뭐 70, 80만 원만 쓰면 그 그냥 놀부식당에서 기분 좋게 그냥 노는데 뭐 할라고 그래? 정 돈이 뭐 할 때는 또 우리 사회에서 잘 버는 또, 지금 명동성당에 옆 주고. 형이 여기 헹켈(Henkel) 지점장을 했거든, 서울에서. “야, 미스타 옆, 여기서 슈타이저(Steiger, 갱부장)가 있거든. 나랑 같이 광산통역 또 그룹들이야, 나 독일놈들 데려가는데 니가 한 번 기분 내라.” 명동에 뭐 저 우성아파트 그 학원들 그거 하는데, 그 무슨 식당이 좋은 데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독일 사람들이요, 불고기, 막 한식으로 막 해서 뭐 신랑방인지 각시방인지 거기다 넣고 하는데, 한 팔십 몇 만 원인가 나오던가, 그러는데. “야, 독일 놈들 고기 무지하게 먹네. 재밌는 거 있어.”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분 났다 하면 돈 칠팔십만 원 뭐 이 정도는 연락을 하면 써줄 사람이 꽤 있어요. 그게 한국 사람이예요. 독일 사람은 그거 못해. 독일 사람들은 그거 못해. 근데 유감스럽게도 내년에도 가자는데 이 유료가 너무 떨어지고, 한국은 너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야, 느그들 나하고 같이 가지 말고 딴 사람 하고 가. 나하고 같이 가봐야 비싸다 그럴 테니까 이번엔 딴 사람하고 좀 가라.” 한국 사람들 다르게 가는 곳 저렴한 게 많거든. 그게 사실 재미있거든. 근데 이 독일 사람들은 그 근사한 호텔에 가서 그 피아노 치는 거기 가서 뭐 또 거기서 뭐 하고 그런 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더라고. 그게, 또 어떤 사람은 어디 시장 통에 가서 그냥 그 막걸리에다 뭐 이런 거 대접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 게슈막(Geschmack, 취향)을 다 맞추기가 힘들어.

근데 어떻게 하시다가 여행사를 하시게 되셨어요? 대사관에 있으면서 내가 오히려 대사관 직원들이 와서 갈 때까지 뒷바라지를 다 하는 것은 나야. 그거 한 5, 6년간을 하다가 보니까, 야, 새 사람들이 와서 애들 유치원 가고, 국민학교 가는 거 넣어주는 거, 자동차 끌어드는 거에서부터 전부 이삿짐 나가는 것까지, 눈보라가 휘날릴 때까지 내가 와서 돌봐줄 사람은 나뿐이야. 다른 사람들은 그 창구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대사관이란 게 그렇게 공무원들 그 예산을 충분히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참 그거 해외 사람들이 그렇게 고달프게 살아요. 그래 내가 그 당시에 그랬어. “야, 나 그만두면 여행사 하고 이삿짐 센터 저런 것이나 해야겠다.” 그런데 뭐 한다고 그것이... 그런데 말이 씨 돼버렸어요. 내가 막상 나와서 뒤셀도르프 가가지고 그 신영숙 씨라고 이 구라파에서 제일 크게 하는 식품점, 그 사람하고 동업을 했어요, 네 사람이. 나는 대사관 있을 때 그 사람하고 동업을 하면 돈을 꽤 잘 벌릴 줄 알았어. 그랬더니요 식품 상품 종류가 한 2,000가지는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수입이 없어. 그래서 신 형, 나하고 같은 광산에 내 선배거든, 1차로 왔고 나는 좀 늦게 왔고. “신 형, 나는 이제 대사관에 있다가 거주허가, 노동 허가 살려서 나는 이제 자유스럽게 됐으니, 나는 이제 본으로 가야겠어. 나 이제 이거 못하겠어. 이걸 당신이나 하고 나는 못해먹겠다. 당신이나 컴퓨터 두드려 가면서 2,000가지 뭐가 있고 뭐가 없는지 하고.” 그리고 잘못 수입을 하면요, 벌금을 내는 것이 보통 만 유로, 이만 유로 내고 그래요. 그래 식품점은 해먹은 사람이나 하지 아무나 초년병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또 희한하게, “그래 그렇게 해.” 그래가지고 본으로 와갖고 처음에는 한 달에 200마르크도 벌고 그랬어요. 내가 언제 대사관에서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나중에는 벌이가 너무 형편없어.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고 하긴 좀 이상하고. 알테나(Altena) 산장에 가서, 그 산에 등산, 그 산장에, 알테나 가보셨어요?

**아니오.** 바인 트링켄 알테나(Wein Trinken Altena) 아직 안 가봤어? 아이, 거기를 가야지. 나는 오늘 거기를 가야 할라고 했는데. 거기를 가야 참 좋은데. 바인 트링켄 마이헤스(Wein Trinken Meiches) 아직 안 가보셨다고? 어. 독일에서 뭐 바인 마이헤스 알테나가 제일 역사가 깊은, 저 역사가 깊은 곳인데.

**저 아직 안 가봤습니다.** 정말이요? 로마인들이 여기 콜로니아를 지배할 때 포도주가 없으면 전쟁을 못하니까 심은 것이 알테나 바인(Altena Wein)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마이헤스

도 바인켈러(Weinkeller, 와인창고) 그걸 보고 아이디어를 창출하시면 어떤 내 후배가 한국에 바인켈러 알테나 마이헤스를 하는데 되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일본에서 유학 온 여자가 하이텔베르크에 유학 와 해갖고, 자기 과목을 바꿔서 포도주 전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일본에서 오사카에서부터 전 일본을 지금 지배했대요, 포도주 학교에서부터. 그러니까 전공을 잘 하라고. 그거 전향할 줄도 알아야 돼. 그 마이헤스 포도주가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그 언덕에 로트바인(Rotwein, 레드와인), 반더벡(Wanderweg, 등산로), 그리고 그렇게 반더룽(Wanderung, 등산) 코스로서 유명해요. 여기 저 지벤게비르게(Siebengebirge)도 유명하지만. 이종수가 말하기를 지벤게비르게 하고 이 알테나 이 반더룽 코스가 골프치는 것보다 건강에 백 배 낫다는 거야. 이것은 돈 안 들고, 기쁘고, 좀 늦게 가도 동료 간에 시비하는 사람 없고, 온 가족이 한꺼번에 할 수 있고. 제일 건강에 좋은 게 이 반더룽. 이 코스가 그러고 뗏, 수백 킬로거든. 꾸불꾸불꾸불꾸불해서. 고걸 개발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동네가 괜찮아요. 그 지벤게비르게 하고 여기 하고 해서.

**거기 갔다가 기도하진 않고?** 응, 그래서 기도하진 않고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여행사 해가지고 이렇게 밥을 못 먹는데 뭐를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유학생들이 도대체 공부를 마치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따리를 싸서 보내야 될 텐데. 책도 보내고 옷도 보내고. 근데 그걸 한 번 모아볼까? 그러고는 그걸 한 번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대사관에 있으면서도 유학생들이 귀국할 때 이사비용을 대주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든. 근데 내가 여행을 하면서 그것을 해보니까 장학생이든 아니든, 음대생도 수료만 하면 귀국하는 항공요금과 이사비용을 대주는 곳이 너댓 군데가 있어. 아니, 이런 것을 신청만 하니까 줘. 그것도 가장 비싼 요금으로. 운송회사가 와서 포장해갖고 한국 집에까지 넣어주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상자에 350이다 그러면, 그걸 다 주더라고. 여기 항공요금이 1,000유로다 그러면 1,000유로를 다 줘. 어떤 사람은 4,000유로를 그놈을 타달래. 와, 그래서 그렇게 타달라고 해도 주는데, 그 사람들이 주는 사람들이 다 알아. 한국에 얼마드는지. 왜? 그렇게 받아간 사람이 전부 예를 들어서 900유로, 1,000유로를 다 타가는데 이 사람은 4,000유로를 달래. 그런데 줘.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900유로면 충분히 가는데 왜 이 사람은 그렇게, 거기에 써진 대로, 요금을 써진 대로 그 요금을 달라는 거야, 이 친구는. 그 귀국하는 유학생이. '당신은 박사학위 잘못 받았다, 이걸 속은 털 난 박사다.' 내가 속으로 그랬지. 그 짓을 몇 년간을 내가 하다보니까, 나한테 이삿짐을 오는 사람은 다 공짜로 가는 거 아닙니까요.

그리고 돈이 남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쇼핑을 그 땐 많이 할 때라고,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책이고, 뭐 이케아 가구고, 책꽂이고 다 사는 거야, 그 돈으로. 그런데 김영삼 씨가 대통령 하면서 우리나라 후진국이라는, 도상국이라는 것을 탈퇴해버렸어. 우리가 선진국으로 들어가버렸다고. 그 뒤로 그 돈이 판 나라로 다 가버렸어,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 김영삼 씨가 경제를 몰라갖고 나를 망하게 만들었어.

**훨씬 전부터 여행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지. 82, 3년경에 했으니까 김영삼 씨가 대통령 돼 갖고, 선진국으로, 뭐 우린 선진국이다, 후진국이 아니다하고 어디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돈을 다 받아 먹었으니까. 그 양반이 그 짓거리만 안 했더라면, 참.

**말씀 들어보니까 그 통역으로도 오래 일하시고, 그리고 이제 독한협회에서도. 역할 많이 하신 걸로 봐서 독일 사회에서 독일 사람과의 관계는 별로 어려움이 없으시겠어요?**

독일 사람들한테 사실 그래요. 저는 처음부터 이상하게 독일에 막 왔을 때도 이제는 독일이다, 여기는 흠결도 없는 나라. 이제는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신나게 일을 해서 거기서 노동자로서 인정을 받으면 되겠다. 상대방한테 내가 인정을 받아야 하겠다. 그 가슴에, 어쨌든 내 그 젊은 나이에도 그런 생각을 했는지, 나는 처음부터, 이제는 다른 길이 없구나. 순사도 뿔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이제는 내가 오직 내가 내 일로써 상대방을 감동시키려, 이 일 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착하게 살고, 뭐 하면 니가 맘이 통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여. 그래가지고 광산에서도 37도, 38도가 되든 나 겁나 갖고 절대 크랑켄샤인(Krankenschein, 진단서, 병가) 내고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독일 사람들 하고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나하고 같이 했던 사람들은 내 생각에는 지금도 많이 믿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면 그럼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안 믿게끔 할 필요가 없어. 그게 내 재산인데. 내가 여기서 호남향우회장도 해봤고, 글뤽아우프 회장도 해봤고, 또 뭐 다른 데.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면서 내가 젊은 시절에 40대에 했던, 그 젊었을 때 한 거고, 지금은 열중쉬어하고 밭에 가서 채소 가꾸고, 호박 가꾸고, 내 하는 일, 지금도 내 그 콘테이너 엇그제 싣고 젊은 사람들 하고 같이 힘쓰고. 거기다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운동한다, 거기서 내가 건강을 좀이라도 찾는 거예요. 나도 지금 당이 있고, 다 그런 병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4월 10일에 헤어진 헤어츠인파크트(Herzinfarkt, 심근경색)를 받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열흘 간 입원도 하고. 그렇지만 나는 헤어츠인파크트란게 도대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병인 줄 알았거

든. 그런데 나한테도 어느 날 헤어츠인파크트가 탁 왔는데요, 여기 보일(Beuel) 병원에 갔는데 나는 또 역사적으로 복이 있나봐. 한국여자가, 의사가 거기서 오버아츠티(Oberarzt, 수석의사)가 다 되어가서 지금 칼스루헤(Karlsruhe)에 가 있어요. 나 딱 치료 끝나치고. 그 칼스루헤 병원으로 오버아츠티가 되어가지고 가는데, 여기 본대학 나왔대요. 아가씨가 아직까지 시집도 안 갔어. “시집도 안 가고 뭐 했어?” “시간이 없어요, 시집갈 시간이.” 칼스루헤 오버아츠티가. 야, 그런데 또 거기에 또 쉘프아츠티(Chefarzt, 주임의사) 프로페소어(Professor, 교수)가 두 번째 내가 3일간을 저 거시기 하러 갈 때는 프로페소어가 또 나를 하더라고. 프리바트(privat, 사보험)에 들어서 당신이 나를 손을 댄다는데 나는 보통 영광이 아니네 그랬더니. 자기가 발명하고 있는데 당신이 최고 좋은 마테리알(Material, 장치)을 지금 넣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이 나를 테스트한 것이 아닌가 싶어. 그 수많은 환자들 하는 과정에서. 그래 프로페소어가 나를 뭐 젊은 사람이야. “나 보통 영광이 아니다, 너가 나를 이렇게 해준다는 거는, 프로페소어는 아무한테나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갖고, 바룸 니히트(Warum nicht?, 좋다!) 나는 그런 복이 있어. 나는 참 희안한 복을 타고 난 것 같애. 내가 독일에서도 교통사고가 67년도에 나갔고 나하고 같이 가던 사람은 죽었어요. 나는 한국에서 라디오방송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전화통화를 못할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았다 죽었다 의식도 불명도 하고 그럴 때였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런 고비를 몇번 넘기긴 넘겼는데요, 사실 내가 생각해볼 때, “그래, 내가 4월 10일 날 내가 죽었다, 다시 지금 또 한 번의 삶을 산다. 그래, 그때 또 겸손해서 잘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내 나이 지금 뭐라고 하지, 70, 80이라 그러냐? 아직 80까지는 안 갔고, 70에나 들어갔어.

## 면담 개요

<b>구술자</b>	이문삼 (전 파독광부)
<b>면담주제</b>	파독광부의 생애사
<b>면담일시</b>	2012년 9월 8일(토) 18시 30분 ~ 20시 40분 (130분)
<b>면담장소</b>	구술자(이문삼) 자택, 본
<b>면담자 1</b>	이유재 (튀빙겐대학 한국학과 교수)
<b>면담자 2</b>	이선영 (튀빙겐대학 한국학과 연구원)





김완수

# 김 완 수

- 1942 전라남도 함평 출생
- 1970 파독광부 2차 2진 딘스라켄 Lohberg에서 근무
- 1973 베를린으로 이주, 파독간호사와 결혼
- 1973~1975 지멘스(Siemens)에서 근무
- 1975 보르직(Borsig)에서 9년간 근무  
먼지 알레르기 때문에 퇴사
- 1986~ 택시운전사  
베를린 가톨릭 성당에서 본당 회장 역임



## 파독 계기와 과정

---

저는 김완수입니다. 그때 당시 1969년 광부가 모집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 광부 신청을 했습니다. 1969년도 12월에 마감이어서 그때 했는데 그게 어떻게 잘못 되가지고 70년 7월 7일 날 독일로 오게 됐습니다. 광부, 광부로. 근데 그때 당시 한국이 경제적으로 참 이렇게 빈곤해서 아마 불란서 에어프랑스 비행기를 전세를 해가지고 온 거 같아요. 근데 저희들은 그 확실한 내막은 모르고 우리가 광부로 온다. 그래서 독일에 광부로 가면은 정말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래 생각해 왔거든요. 근데 실상 와보니깐 또 그렇지는 안 했어요. 와서 저희들은 이제 제가 광부로 온 것은 뒤셀도르프(Düsseldorf) 공항에 와서 딘스라켄(Dinslaken) 로베르크(Lohberg)라는 광산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3일 교육받고 지하에 들어가서 하루 교육받고 그래서 3일 후에 일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깐 그 독일어는 전혀 모르고 한국 지하통역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하통역은 염수용 씨라고 그때 독일에 우리 선진으로 오신 분이 여기서 슈타이거(Steiger, 갱부장) 그러니깐 반장이 되는 교육을 받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아마 우리 통역을 했습니다.

**독일어 교육은 없었어요?** 독일어 교육은 없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 선진이 일 끝나고 오면은 오후에 잠깐 1시간 정도 교육을 했는데 그거 해가지고는 전혀 도움이 안 된 거 같아요. 약 한달 헛거 같아요.

**한국에서 오시기 전에는 교육이 없었습니까?** 내가 올 때는 광부 교육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독일에서 그때도 조금 배웠어요. 근데 그게 나이든 사람들이 전혀 신경을 안 썼거든요.

**어디서 교육을 받았어요?** 서울 청진동에서 받았습니다.

**몇 개월 받았습니까?** 몇 달은 아니고 아마 몇 주 같은데 거기서 그 광부로 오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셨었어요. 하나는 경력자고, 하나는 경력이 없는 사람, 그래서 저는 경력자로 왔어요. 그래서 경력자로 와가지고, 그때 한국은 경력이 없는 사람도 경력자로 만들었고 경력이 있는 사람도 경력자고 그래서 저는 경력이 없었는데도, 광산에 안 가봤는데도 경력자로 이케해서 올려서 그 광부 교육 2주간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받으려 안 갔습니다. 저는.

어디서 교육을 해줬어요? 강원도의 가장 큰 탄광인데 거기서 2주간 교육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교육을 안 받아도 됐습니까? 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예, 교육을 안 받아도 됐어요.

그냥 거기에서 안 가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까? 교육을 가라고 했죠. 거기 소장이, “교육 받으러 가라!” 그랬는데, 전 그때 그런 말 한 거 같아요. “2주간 교육을 받으나 2주간 교육을 안 받으나 그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나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장이 “아, 당신 말이 옳은 거 같다.” 해서 저는 안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오기 전에 특별히 다른 교육 같은 거, 정치적인 교육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정치적인 교육은 소양교육이라고 해서 이북과의 대치상태니깐 소양교육을 아주 철저히 받았죠.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소양교육은 이북사람들 만나면 안 된다. 그리고 절대 만나선 안 된다. 그 교육 받았습시다.

그리고 독일에 대한, 독일나라가 어떻게 일하는 건 어떻게 독일의 상황은 어떻게 그런 교육은 받으셨습니까? 그런 것은 별로 생각이 난 것이 없습니다.

그럼 독일에 대해 전반적인 어떤 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기대 같은 게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독일에 광부로 온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하나의 목적이 있었던 거 같아요. 돈 벌어서 한국 다시 돌아온다.

그럼 한국에서 출국하시기 전에 특별히 준비하신 게 있습니까? 준비한 것 없었습니다.

예. 그냥 그때 젊었으니깐 남도 가니깐 나도 가서 왜 남이 하는 노동을 내가 못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다. 그런 노동에 대한 자신감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광고 같은 것은 어떻게 보셨어요? 광고, 독일에 오는 광고는 그때는 69년도에는



특히 광고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는 분이 이케 독일에 가자 그래서 그때 인제 마음이 설레가지고 그래 독일에 오게 된 동기가 그런 거 같습니다.

근데 그 아시는 분은 다른 친구 분은 어떻게 알았어요? 친구분은 못 왔습니다.

왜요? 병역의무를 못 마쳐가지고. 그분 못 왔습니다.

올 때 조건이 병역의무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예, 병역의무를 해야 되고 신체이상이 없어야 되고 거기서 인제 그 광부 시험에 그 맞는 그런 체격을 가졌어야 되고.

그럼 시험이 따로 있었습니까? 예

시험은 어땠습니까? 시험은 이제 체력검사 있었고, 또 광부에 대한 그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뭐 동발이 어떠니 뭐니 그런데 저는 그걸 전혀 몰랐거든요.

예. 그래도 어떻게 합격을 했어요.

어떻게 합격이? 몰랐는데 어떻게 합격이 됐습니까? 예, 그냥 어떻게 합격이 됐어요.

그럼 그때 경쟁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까? 경쟁률이 제가 올 때는 69년도에 광부 신청을 한 사람들이 70년 2월 달에 오게 되었는데 300명을 오게 돼있는데 700을 합격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알아보니까 광부가 67년에서 69년도까지 끊겼다가 70년도에 다시 시작이 되니깐, 한국에 있는 모든 정치적인 배경이 동원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300명이 올 텐데 700명을 시켜놓으니깐 이게 400명은 떨어졌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저도 거기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떨어졌었고, 그런 다음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인제 7월 달에 온 걸로 됐습니다.

예, 그때도 그럼 경쟁률이 높았습니까? 그때도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독일로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준비를 특별히 많이 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준비를 많이 할 것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안 했을 것이고 우선적으로 체력적으로 약한 분들이 많이 왔었는데 신체검사에서 많이 떨어진 거 같아요.

신체검사가 제일 중요한 그 검사과정이었네요? 예, 예, 그니까 그때 보편은 탄광에서 일하신 분들은 많이 떨어졌어요. 기폐증으로 해가지고 많이 떨어졌어요.

도리어 그니까 말하자면 경력자는 더 많이 떨어졌다는 거네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인자 그 후에는 그런 게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 경력자라는 것이. 그냥 2주 교육을 받고 그냥 왔다고 그래요.

그때 독일 가서 돈 많이 벌겠다고 그러셨는데 얼마 정도 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때 그 생각은 못했어요. 왜냐면은 독일에 광부로 가는 것은 내가 얼마를 받는 것도 모르고 얼마를 버는 것도 몰랐거든요. 그래 미지수라. 그래서 내가 그냥 한국보다 돈을 많이 벌고 그때는 아, 이게 집 한 채 사면은, 참 그게 꿈이었잖아요. 젊은 사람들. 그래서 독일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와서 우리 형님 집 한 채 사고 내 집 한 채 사고 그래서 예쁜 아가씨하고 결혼해서 잘살란다. 그렇게 그냥 그것만 가지고 왔어요.

부모님도 가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형제님들도? 부모님들은 없고, 그러니까 형제들이야 동의하거나 않거나 그건 관계없었습니다.

그냥 어른으로 혼자 결정할 수 있었으니까. 네.

## 파독 후 탄광 생활

---

그 뒤셀도르프에 도착하셨다고 그러는데 오시기 전에 벌써 여기 어느 탄광에서 일할지 알고 계셨습니까? 아, 전혀 몰랐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여기 뒤셀도르프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뒤셀도르프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인제 그 광산 측에서 버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다 불러가지고 어느 버스 어느 버스 그래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40명은 던스라켄 로베르크 탄광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측에서 미리 그 리스트를 작성해서 나눠가지고 도착할 때 픽업해 간 거네요? 네.

그럼 가서가지고 사실 이틀 교육을 받고 막바로 막장에 들어가셨다는 거네요? 네.

그럼 한국에서 교육도 2주 동안 안 하시고 여기서 처음으로 막장에 들어가셨는데 어땠습니까? 그래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니깐, 그리고 지하통역이 한국말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다 알려주고. 글고 그 지하에, 지하에서 교육시키는 것은 지하에 가면 지하에서 일할 때 작업을 쓰는 그 도구, 그런 이름을 가르쳐줬습니다.

예, 어떤 게 있습니까? 그때 함머(Hammer, 망치), 삽, 곡괭이 이런 거 같은 경우들.

그럼 한국 사람들이 한 팀을 이루었습니까? 아니면 독일 사람과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했습니까? 저는 이제 로베르크에서 약 6개월 있다가 오버하우젠(Oberhausen) 슈테어크라데(Sterkrade)라고 하는 광산으로 처음으로 한국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처음으로 그 광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다시 일이 재편성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끼리 했어요. 근데 거기는 그러니깐 작업을 인도하거나 작업을 알선하는 사람은 독일 사람 한 분 있었고 그렇게 했어요.

거기도 지하 통역자가 있었습니까? 예, 거기는 이제 지하 통역자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반년 하시고 옮기신 거예요? 예.

그럼 뭐가 더 편했어요? 그때는 이제 편코 안편코는 그때 잘 일에 익숙지가 않아서 그거

잘 몰랐어요. 광산은 거의 비슷하다.

한국 사람끼리 하니깐 더 좋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 오버하우젠에서 몇 년 더 있었습니까? 3년 임기를 마쳤습니다.

거기서 그럼 계속 하신 거네요? 예.

근데 중간에 그럼 왜 디스라켄에서 오버하우젠으로 바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꾼 게 아니라 광산 측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보낸 것 같아요.

그럼 오셔가지고 숙소 같은 건 어떻게 됐습니까? 숙소는 기숙사였죠. 기숙사였고 거기서 셋 끼니 다 주는 기숙사였습니다.

그럼 그 한 방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두 명 내지 세 명.

다 한국 사람들이었습니까? 네, 같이.

그럼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었습니까?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었지요. 다만 이제 음식을 못 먹어서 불편했지요. 한국에서 막 오니깐 그때 음식이 참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웠어요, 그때.

그럼 먹은 음식 어떤 게 기억에 남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침에는 일허러 갈 때 빵을 싸주죠. 빵 먹고 브뤼첸(Brötchen, 독일식 빵). 지금 생각하면 참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영, 그 부어스트(Wurst, 소세지)가 냄새가 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기숙사에서 하임(Heim, 기숙사)에서 참 잘해줬다.

그래서 한국음식이 먹고 싶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한국음식이 먹고 싶을 때는 그 모르게 해먹었습니다. 몰래 해먹고 1년 정도 지나서는 간호원 기숙사를 찾았어요. 주말에.

그래서 밥을 같이 해먹고? 예, 밥을 같이 해먹고 얻어먹고.

근데 그 하임에서는, 기숙사에서는 한국음식을 해먹으면 안 되게 돼 있었나 보죠? 예.

부엌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습니까? 부엌은, 그러니깐 우리가 부엌은 그 처음에 떨어졌을 때는 부엌이 없었습니다. 부엌이.

그냥 이게 배식식으로 나오면 먹고? 예. 시간 딱딱 맞춰서 가서 밥 먹고.

근데 왜 몰래 해먹었습니까? 먹고 싶었으니까 한국음식이.

거기선 못 먹게 했습니까? 예, 못 해먹게 했습니다.

아, 못 해먹게 했어요? 왜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 하임의 규율이 아마 그랬을 것이다 생각해요. 그래 우리가 한국에 왔을 때는 그때 돼지족발 또 그 닭똥집 이런 것들이 여기 오니깐 엄청나게 썼어요. 그래서 그걸 사다 독일 사람 모르게 끓여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럼 김치 같은 건 먹었나요? 김치는 그때 못 먹었지요. 못 먹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히나콜(Chinakohl, 배추) 배추가 없었습니다. 캐비지(Cabbage, 양배추)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그 캐비지를 썰어가지고 소금혀고 고춧가루가 어찌 그때 고춧가루가 있었는지 고춧가루에 해서 저게 해농면은 인제 혈줄 모르는 사람은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해농은 사람이 나가고 없으면 그거 다 갖다 먹는 거지 뭐.

근데 그 막장에서 일하면 육체노동이 있기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옛날에 그런 일도 안 했다면. 근데 음식도 똑바로 못 먹고 하면 더 힘들지 않았습니까? 힘이 없지요 그러니깐. 힘이 없죠. 근데 인자 저 같은 경우에는 힘든 일을 허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일자리를 다 돌아다녀 봤어요. 뭐가 좀 힘이 안 들고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다 돌아다녔어요. 다 돌아다녔는데 저는 굴진을 했습니

다. 굴진을 허는데 굴진을 하면서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독일 사람들이 참 멋있는 신사들이다. 저 같은 사람은 그 굴진기 그걸 잡고 못허거든요. 힘이 약해서. 뒷일 해주는 데도 돈은 똑같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아! 그때 광산에서 일할 때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 일 잘하고 저는 뒷일을 하는데도 돈은 같이 받았다. 독일이 참 좋은 나라다.

제가 그 막장일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굴진이 어떤 겁니까? 굴진은 이제, 그 지금같이 이 시내로 말하면 도로를 내는 거지요. 사이에. 그래야 이제 그 물건을 나르고, 물건을 실어 나르고 밖으로 내올 수 있는 거 그 큰 항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아, 거기에 이제 앞에 기계가 가서 뚫으면 아버님께선 그 탄을 그러면 뒤로 캐서 나오시는 건가요? 탄이 아니라 그 허면 항도니깐 항도를 내야 이제 옆으로 또 탄막이, 탄창이, 탄을 파는 데가 뚫어나가거든요. 우선적으로 굴진은 항도를 하는 내는 거예요.

그게 탄을 캐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었습니까? 그거 쉽지 않지요. 보통 해선. 돌가루 날리는 것은 똑같거나 비슷비슷해요.

아니, 아버님께서 좀 쉬운 걸 찾으셨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내가 이제 슈템펠(Stempel, 지주-支柱)을 올리고 내리고 하지 않고 뒷일을 해줬어요.

네네, 그럼 그때 받은 임금에 대해서 만족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족했어요. 근데 돈은 지금이나 예나 항상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때 얼마 정도 버신지 아세요? 저는 그렇게 많이 못 받았어요. 저는 850에서 1000마르크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럼 많이 번 사람은 얼마 정도 벌었는데요? 그게 건강하고 많이 번 분들을 일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토요일 일요일까지 일하고 그런 분들은 아마 1400, 1500 이렇게 번 것 같아요.



그럼 기숙사비는 얼마였어요? 그때 기숙사비가 별로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비싸지 않았 습니다.

네네, 그럼 한 1,000마르크 정도 벌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은 없었습니까? 저는 그 1,000마르크를 벌어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인제 최상으로 생활을 했거든요. 제가 150마르크 정도 가지고 생활했어요, 한 달 생활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럼 한국에선 그걸 저축을 해준 거예요? 저축을 했으면은 좋은데 인제 저는 저희 형님한테 보냈어요. 형님이 아들, 딸들이 많아가지고 저축해달라 소리도 않고. [웃음]

형님 생활 보태 쓰라 하면서 보내신 거예요? 예. 예.

그렇게 3년을 계속 꾸준히 했습니까? 예.

처음부터 끝까지? 예.

지금 생각하셨을 때 잘 하신 결정 같습니까? 아,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전 항상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형님께서 고맙다고 표시를 많이 하셨겠네요. 그렇지요, 형님 돌아가셨는데 지금 형수씨가 살아계시는데 지금도 그러지요.

그 기숙사에 세 명이 같이 살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막장에서는 쉬히트(Schicht, 교대조)가 세 개로 나뉘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둘 아니 세 명이 항상 같은 쉬히트에 계셨어요? 아니요. 틀리지요, 쉬히트는. 우리가 했을 때는 우리가 얼마 안 되서 쉬히트가 그렇게 많이 안 바뀌었어요. 인자 광부생활을 좀 능숙해지면은 바뀌죠.

네, 그럼 보통 일하는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였습니까? 아. 아침 6시부터 8시간 노동시간이니까 2시까지. 그러니깐 저는 거기서 약 1년 있다가 방을 얻어가지고 나왔어요.

아, 혼자요? 예, 혼자 살았어요.

보통(Wohnung, 집) 아파트를 찾아서 나오신 거예요? 예.

얼마나 큰 거였어요? 거기는 나하고 둘이 나갔는데, 개인 집인데 방 두 칸, 본침머(Wohnzimmer, 거실)하고 슬라프침머(Schlafzimmer, 침실)하고 두 칸.

그걸 혼자서 다 쓰셨어요? 두 사람이 썼어요.

그럼 한 명씩 방을 쓴 겁니까? 아뇨, 방 하나에, 방 하나 가지고 두 사람이 썼어요.

아, 침실에서 둘이 자고 응접실을 하나 따로 두고. 예.

근데 왜 그럼 그 기숙사에서 나가셨어요? 그 기숙사보다는 자유롭잖아요.

어떤 면에서요? 왜 자유롭냐면은 첫째로는 제가 독일에 도착하고 쯤 일 년 정도 됐으니깐 나가서 시장도 볼 수 있고 해먹는 거 밥 먹는 거 (가능하니까 기숙사에서 나왔어요.)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하셨습니까? 예 밥 먹는 거. 우선적으로 내가 자유로이 해먹을 수 있고 우선적으로 밥을 해먹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 밥 해먹고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어려움이 없었어요.

## 광부 시절의 복지 체험과 독일에서의 삶

---

그때 그 휴가도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휴가 받았지요.

휴가는 몇 주 아니면 며칠 받으셨습니까? 휴가가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확실한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주 정도 받은 거 같아요.

그럼 휴가 때는 뭘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휴가 때는 일을 했습니다.

탄광에서요? 탄광에서 아니면은 그때 70년도니깐 독일에 경제적으로 성장할 때라 집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집을 짓는 데 가서 집을 많이 지었어요.

그럼 아버님께서도 휴가 때는 뭐하셨습니까? 저는 그냥 쉰 거 같아요. 쉰 거 같애.

근데 그 쉬는 게 필요하다고 느끼셨어요? 네.

막장에서 일하는 게 그만큼 힘들었으니까? 예, 그러니깐 돌이켜 말하면은 다는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너무 체력이 딸리고, 힘이 딸렸죠. 광산일이라는 것은.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휴가 때 쉬지 않고 일을 더 한 건 어떤 이유입니까?

그건 돈 때문에. 인제 저는 그래도 가정이 없었잖아요 한국에. 근데 가정이 있는 분들은 일을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 광부의 병가휴가

---

독일은 병가, 휴가 같은 것도 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아프면 쉬면서도 돈을 받는 그런 건 어떻게 채우셨어요? 그건 저는 이제 광산 일하다가 너무 힘들다 그럴 때는 항상 의사한테 갔습니다. 한 의사가 아주 좋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와서 “내

가 어디가 아픕니다.” 그러면은 “아, 그러냐?” 병가를 끊어줬는데 3주가 되면은 그 지금 같은  
면 아오키(AOK, 독일 공보험 회사 중 하나) 거기서 오라 그랬어요. 너가 정말 아픈가 아니면은  
저짓말로 아픈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 그걸 종이를 가지고 그 의사한테 다시 가면은 그  
의사가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더 놀아라. 그 서신, 그 온 편지를 그냥 찢어 버리고 이렇  
게 병가를 더 내줬어요. 그 의사는 니들 참 불쌍하다고. 나이도 그렇고 그 작은 체격으로 여  
기 와서 광산에 일하는 너희들 참 불쌍하다고, 고국을 떠나서 일하는 너희들. 그래서 너희들  
에게 해줄 수 있는 한 내가 크랑크(Krank, 병가 진단서)를 써주마. 그런 의사를 만났었어요. 저  
는.

3주 동안 이렇게 병가를 끊을 수 있었다는 겁니까? 3주, 4주 이렇게 끊을 수 있었어요. 근  
데 이렇게 보통 4주는 길고 한 2, 3주 많이 끊었죠.

그럼 진짜 어디 아파서 끊습니까? 저, 제 경우는 꼭 아파서는 안 끊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끊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그런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진짜 아파가지고 쉬면은 그래도 월급이  
나오고 이러는데 그런 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독일에 와가지고 아까도 말씀 드렸  
듯이 참 독일이 좋은 나라다. 그리고 복지시설이 참 잘 돼 있는 나라다, 그걸 처음에 느꼈어  
요. 저는.

한국하고 비교가 됐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집을 마련하시고 보농(Wohnung, 아파트)을 따로 마련하시고 사실 때 그림 가구  
도 마련해야 되고 이렇게 또 마련할게 늘어나잖습니까? 근데 그때 특별히 마련한, 공을 많  
이 들고 아니면 애정을 가지고 마련한 물건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새집으로  
들어올 때는, 전 임대자가 나갈 때는 슈랑크(Schrank, 장롱) 하나 놔두고 또 그릇도 있었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간 것은 그릇 두 개, 냄비 하나, 돌이 사니깐 숟가락, 젓가락 하  
나씩 그렇게 해가지고 살았습니다. 더 이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 TV도 스스로 마련하시고? 텔레비,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니까 거기 사는 동안은 특별히 더 물질적으로 누리고 싶은 게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때 광산 일할 때에는 항상 내가 독일에 살지 않고 3년 임기가 끝나면 한국에 돌아간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일했고 그런 마음으로 독일에 살았습니다.

아침 6시에서 오후 2시까지 일을 하면 오후시간, 저녁시간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때는 이제 나와서 조금 이렇게 주위에 조금 쉬고 좀 돌아보고 그리고 또 저녁에 저녁 먹고 일찍 자야 되니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면 주말이나 아니면 휴가를 받았을 때에 여행 같은 것도 좀 하시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여행은 주말에는 동료들과 함께 그때는 70년대, 그때는 독일에 주말에는 거의 정장들 했거든요. 독일 분들이. 그래서 우리도 어디 나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나가는데 항상 정장하고 다니자. 그래서 나가면 항상 정장하고 나갔습니다.

여행은 어디어디 해보셨어요? 저는 70년도에 71년도, 70년도에 와가지고 71년도 말에 9월 인가 10월 달인가 해서 홀란드, 영국, 지금 생각하면은 홀란드, 영국 거기로 갔다 온 거 같아요. 아 불란서. 거기 갔다 온 거 같아요.

그럼 어떻게 기차로 갔습니까? 자동차로 갔습니까? 그때 한국 사람들이 그때 여행사가 있었어요. 그 여행사를 통해 여행을 했으니깐 아! 비행기로 갔어, 아 버스로 갔습니다.

아, 버스요. 여행하는 게 좋았습니까? 그때? 예, 여행하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때 남자들이 8명이 탔었고, 45명인가 갔었는데 그 외에는 전부 처녀들이었어요.

간호사로 오신 분들이었습니까? 그때 간호사로 오신 분들이 있었고, 부퍼탈(Wuppertal)에 그때 방직공장에 오신 아가씨들도 있었어요.

그럼 여행사에서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은 거네요? 네, 네.

그 여행할 때 비쌌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 여행비를 얼마 줬다는 건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 막장에서의 인간관계

---

그 막장에서 일하실 때요. 그 독일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지요. 왜 그런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냐면은 내가 만약에 너무 힘든 일을 할 때 그걸 강요를 당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여기 잘 살러 왔는데 이리다 죽으면 내가 안 좋다. 그래서 부딪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부딪혔습니까? 그러니깐 싸우지요 뭐. 싸우는데 독일 사람은 독일말로 하고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하고 그래서 거기서 막장에서 조금 커지면은 통역이 내려옵니다. 내려 와서 또 잘해줘요 또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니깐. 또 그냥 무마돼요. 그냥.

그러니깐 노동하면서 크게 갈등이 있고 뭐 그런 것은 없었고요? 그런 것은 없었어요.

네, 네. 우리가 항상 여기 독일에 온 것이 왜 왔는가를 저 개인적으로 항상 생각했습니다. 내가 독일에 왜 왔는가? 그것은 나를 위해서 온 것 아닌가, 나를 위해서 왔지 않은가. 그렇다면면은 내가 일하러 왔으니깐 내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생각하면은 별로.

그럼 한국 사람들끼리 관계는 어땠습니까? 한국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그러니깐 어쩔 때는 안 좋을 때도 있었고 또 뭐 한국 사람들이 모인 것은 다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그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대사관 직원들이 들어와가지고 한국인 사이의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들었죠.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깐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억이 나는 걸로는 본에 있는 대사관, 배노무관이라고 있었는데, 그 배노무관이 자기가 맘에 맞는 광부들이을 형성을 해가지고 인제 뭐라 그래, 나쁘게 말하면 집단을 만들었지요. 그래서 그 일이 아마 제 광부 생활할 때 제

기억으로는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배노무관이 한국에 불러 들어갔지요. 그 일로 해서. 그 후로는 별로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집단이 뭐 특별히 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겁니까?  
말 안 듣는 사람들에겐 위협을 했죠. 깡패랑 비슷하게.

어떤 식으로 위협을 했어요? 잘 안 들으면 이제 가서 이렇게 때린다, 아니면 뭐 험다 위협을 했죠.

근데 뭐 말을 뭘 안들은 게 있어요? 아니면 어떤? 제가 지금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요. 아. 그때는 참 그 옛날 얘인데 임기가 끝날 무렵 되면은 여권연장을 잘 안 해줬어요. 대사관에서. 그런데 일자리를 우리가 찾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여권연장만 해주면은 우리가 광부들이어서 나서서 자신들이 일자리 찾아 나가는데 일을 잘못했다. 병가를 많이 냈다 이런 것 때문에 여권연장을 안 해줬어요, 잘 안 해줬어요. 그리고 그때에 대사관이 본에 있었는데 아침에 새벽밥을 먹고 가면은 12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대사관에서 점심시간이라고 사람이 없어요. 그때 올 때까지 기다리면 또 뭐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서 일을 못보고 돌아오는 일도 있고 그러니깐 광부들이 너무 많이 불만을 품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노무관이 그런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인제 통역의 소견서가 있어야 인제 여권연장을 해 준다 그러니깐 노무관 소관이 아닌데 영사소관인데 노무관이 그렇게 권력을 아마 남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아주 불편을 줬죠. 광부들한테.

아버님 오셨을 때 사람들이 임기가 3년으로 제한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3년 후에 얼마큼 많이 한국으로 돌아갔습니까? 확실히는 알지 못하는데 3년이 끝나고 나 끝나기 전에 미국이나 캐나다로 많이들 갔지요. 또 옛날에 진필식 대사님이라고 그분이 캐나다 대사로 계시다가 독일로 왔어요. 그분이 이제 “독일 광부 끝나면은 캐나다로 가십시오.” 라고 해서 그분이 또 이렇게 많이 그런 말을 해서, “캐나다가 독일보다 낫다. 그래 그리로 가십시오.” 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던 거 같아요.

그럼 한국에 돌아간 분들도 많습니까? 예, 많이 돌아갔지요.



네네, 그럼 남은 사람은 얼마큼 되나요? 남은 사람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냐면은 그때는 저희들이 한 3년 끝나고 일자리 찾아서 일하기에 아주 바빴거든요. 그니깐 3년 끝나고 나서 아주 다정한 친구 아니면 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근데 임기가 3년하고 계속 남을 수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광부들이 3년이 끝날 무렵에 여기서 결혼을 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 광부들은 3년 계약을 딱 하고 왔지만 간호원들은 얼마든지 연장, 여기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간호원하고 결혼하면은 가족이 함께 있어야 된다, 독일 민법에 그케 나와 있대요.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한 것이 광부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서 임기 3년 끝나기 전에 그럼 결혼을 하신 건가요. 결혼을 해야지요.

네네, 근데 왜 그럼 그때 한국에 안 돌아가고 여기에 있고 싶으셨어요? 저는 인제 한국에 돌아가려고 했지만은 아... 3년 임기를 딱 두고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가진 돈이. 그래서 한국에 가면 안 되겠다. 여기서 더 살면서 여기 간호원과 결혼해서 독일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임기 아마 거의 끝날 무렵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럼 결혼해서 독일에서 계속 사시려고 계신 거네요? 독일에서 이렇게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었고 아. 얼마 동안 살다 한국에 돌아가자라고 생각했었어요.

얼마 정도를 더 생각했어요? 그때는 확실한 그런 연도 수는 주지 않고, 마음에 먹지 않고 그냥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한국 가서 살수 있으면은 한국 돌아가자라고 생각했지요.

## 결혼과 베를린으로 이주

---

조금 여유롭게 생각하셨네요. 그럼 어떻게 결혼하셨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 친구가 결혼을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노더나이(Norderney)라고 섬나라에서 왔어요. 자기 부인이. 그래서 거기서 친구부인이 거기 왔으니깐 저도 한번 놀러 가볼까 하고 갔었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여기 독일에서 결혼해서 산다는 것은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임기 얼마 안 남았을 때 이게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앞길을 보니깐.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가 아무래도 여기서 결혼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지금의 제 처를 이렇게 소개해줬어요. 해줬는데 나는 그 여자가 얼마나 독일에 있었는지, 언제 독일에 왔는지도 내가 알 필요도 없고 알고고도 않았는데, 독일에 온지 얼마 안 됐었네요. 근데 그분들이 부탁을 하니깐 그냥 나를 한번 만나준 거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깐. 근데 나는 나를 좋아서 만난 줄 알고. 그 후로 인제 그 곳을 떠나왔을 때는 나는 이런 사람이라 결혼하지 않는다, 만난 것은 인사로 만나준 것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꼭 결혼을 해야만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제가 여러 방면으로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이렇게 찾아도 가고 다른 면으로 노력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한 것이 내가 너무 불쌍해서 그랬대요.

**어디에 살았어요? 그때?** 그때 저는 오버하우젠(Oberhausen)에 살고, 제 처는 노더나이에 살고 쾰른에.

**그럼 거리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렇지요, 거리가 멀지요. 약 한 지금 몇 킬로나 되는지 모르겠네. 오버하우젠에서 노더나이까지가 약 500km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거리를 자주 왔다 갔다 하셨습니까?** 자주는 못 다녔지요.

**네. 그래서 임기 끝나기 전에 결혼을 하신 거네요?** 아뇨, 저는 임기 끝나고 결혼을 못했고 임기 끝나자마자 저는 베를린으로 들어왔습니다. 베를린에 들어와서 지멘스(Siemens)에 일 자리를 잡아가시고 여기서 독일 분의 도움으로 체류 허가도, 노동 허가도 받았습니다.

**누구 도움으로요?** 독일 분의 도움으로.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예, 그리고 인제 베를린은 그때 일자리만 있으면 체류 허가를 해주어요. 딱 도시보다 수월하게.

그럼 결혼하기 전에 벌써 베를린에 이사를 하신 거네요. 예예.

그럼 체류권하고 노동허가증하고 다 있었으니깐 결혼할 필요도 없었잖아요. 그래도 인제 그때는 벌써 약속이 돼있었으니깐. 혼자 살기는 또 힘들고.

네네, 그래서 그럼 베를린으로 이사한 다음 결혼을 하신 거네요? 예.

그래서 베를린에서 다 같이 합류하고? 그럼 어떻게 병원도 바꿨는데 여기도 병원 일자리를 구하기 쉬웠습니까? 예, 쉬웠습니다. 나 체류허가증 내주신 분들이, 도와주신 분이 병원까지 알선해주었습니다.

어떤 독일 분이었어요? 그분은 그 여기 뭐냐 세나트(Senat, 베를린 시 행정부)에서 일하는 분이었는데, 게준트하이츠베젠(Gesundheitswesen, 보건부)에서 일하던 분이었어요.

네네, 근데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분이 한국 여자분하고 다정히 살았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 많이 도움도 주고 그랬어요.

## 지멘스에서의 근무

---

오버하우젠에서 베를린에서 올 때 지멘스를 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멘스에 특별한 이유는 옛날 선진들이 지멘스에서 일을 했었대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간호원으로 함께 지내면서 옛날에 지멘스 카벨베어크(Kabelwerk, 전선공장)이라고 카벨베어크만 아니라 그 하우스 할트(Haushalt, 가전제품)를 만드는, 냉장고, 바쉬마쉬네(Waschmaschine, 세탁기) 만드는 그 공장을 가서 거기 그 인사과장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면은 여기 일자리를 줄 수 있냐?” 그러니깐 인제 나는 여기서 일할 수 있다, 해서 그 일자리를 받아가지고 왔지요.

그럼 추가적인, 그러니깐 광산에서 왔을 때 추가적인 교육과정이나 새로운 바이터빌둥(Weiterbildung, 직업교육)이라던가 이런 게 필요했습니까?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멘스에서 하시는 일은 어떤 거였어요? 저는 카벨베어크에서 그 카벨(Kabel, 전선) 만들기 전에 구리를 뽑는 일이 있어요. 그 어떤 구리냐면은 저 샬터(Schalter, 개폐기, 스위치)에 들어가는 거 구리를 뽑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일했어요.

그건 어떤 육체적인 노동이 더 심했어요? 더 약했어요? 그렇지요, 육체적인 노동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탄광에서 막장에서 일하는 것과 비교하면 어땠습니까? 훨씬 수월하지요. 우선 지상이니깐.

그리고 임금은 어땠어요? 임금은 약했습니다.

탄광에서 얻는 것보다? 임금은 약했지만 여기서 브루토(Brutto, 세금을 제하기 전의 임금)의 8퍼센트를 추가하니깐 또 그걸로 차이 나는 부분이 메꿔졌어요.

브루토의 8프로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그게 브루토의 8프로는 서베를린은 옛날엔 동독에 둘러싸여 있는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위험수당이 나왔어요. 그래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베를린에서 일하는 분들은 전체가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일하는 데는 만족했습니까? 아니요, 저는 불만족했어요. 불만족해서 저는 여기서 지멘스에서 일하다가 용접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용접을 배워가지고 보르직(Borsig)이라는 회사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용접공으로 일했어요.

그럼 왜 지멘스에서 불만을 가지셨나요? 일을 했는데 임금이 적으니깐, 적게 주니깐 그래서 용접을 하면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용접학교를 가서 용접을 배워서 용접을 했습니다.

그럼 지멘스는 몇 년 하신 다음에 바꿨습니까? 지멘스에는 제가 73년에 가서 75년도에 75년도, 5월 말까지 일했어요.

그럼 용접 학교에서는 이직을 위한 직업교육을 한 것입니까? 예.

그럼 용접공으로서의 교육받은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저는 지멘스 일하면서 저녁으로 나가서 배웠습니다. 오전에는 지멘스에서 일을 하고 끝나고 나서 저녁으로 용접학교에서 용접을 배웠습니다.

몇 개월 정도 배운 것 같아요? 4개월간 받은 거 같아요.

공식 독일식으로 말이 있습니까? 예, 슈바이서(Schweißer, 용접공) 아우스빌둥(Ausbildung, 직업교육).

슈바이서 아우스빌둥(Schweißerausbildung, 용접공 교육), 그러면 직공이 슈바이서(Schweißer, 용접공)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 보르직에서의 근무

---

그럼 슈바이서로서 일한 보르직은 큰 회합니까? 보르직은 아주 오래된 회사였죠. 거기서 옛날엔 로코모티베(Lokomotive, 기관차) 같은 걸 만들고 아주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리 옮겨서 아주 일도 재미있고 일도 잘했어요.

거기서 번 돈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그게 한... 거기는 저는 오전근무만 했거든요. 오전근무만 했으니까.

오전근무는 몇 시에서 몇 시예요? 6시부터 2시까지.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봉급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천 몇백 마르크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데 광산에서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버신 건가요? 예, 용접공으로 가서 제가 열심히 배웠어요. 또 회사에 가서.

용접공으로 바꾼 그 계기는 어떤 겁니까? 그 다른 사람도 벌써 용접을 했습니까? 아니면 추천을 해줬습니까? 아니요, 그때 그냥 추천이 아니라 혼자 용접을 해야 되겠다. 용접을 하면은 한 달에 돈을 좀 더 많이 받는다 하니까 제가 혼자 찾아가서 배웠습니다.

그럼 주변에 있는 광부로 오신 분들 중에서 주로 지멘스에서 일을 하셨구요?

예, 지멘스에서 일했고 또 인제 아카베(AKW, Atomkraftwerk의 줄임말, 원자력발전소)라고 거기서도 일을 많이 했어요. 아톰크라프트베르크(원자력 발전소) 옛날에. 거기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계속 보르직에서 일을 하셨습니까? 예, 저는 9년 동안 일하다가 제가 병을 얻었어요. 슈타우(Staub, 먼지) 알레르기. 그래 거기서 나와가지고 택시를 탔어요. 택시 면허증을 받아가지고 택시를 탔어요.

그럼 80 몇 년도부터? 86년도부터 택시를 탔어요.

아, 예, 그럼 그 보르직에서 슈타우 알레르기 때문에 직장을 계속 못 다녔으면 그럼 보르직에서 보상금이나 뭐가 나왔습니까? 이후에? 보르직에서 이제 보상금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압권디궁(Abkündigung, 해약 통고) 해가지고 약간의 돈만 받고 나왔고 그것은 그 루프트크랑크하이트(Luftkrankheit, 공기매개 질병)라 해갖고 병원에서 그러면 고소를 해라해가지고 뉘그리프(Rückgriff, 보상청구)를 걸었어요. 근데 제가 재판에서 졌습니다. 만약 거기서 이겼다면은 제가 돈을 좀 받을 수 있었겠지요. 근데 져서 받지 못했습니다.

재판까지 갔었는데 지셨구만요? 예.

그럼 택시운전은 86년부터 베를린 택시운전기사가 되셨네요? 예.

택시운전은 어땠습니까? 택시운전수는 괜찮았어요.

네, 그럼 개인택시입니까? 아니면 회사 택시입니까? 아닙니다. 회사차를 타다가 몇 년 지나고 나서 차를 사가지고 택시운전을 조금 했어요. 그러다가 그거 안 돼서 또 그만두고 계속 회사차를 탔어요.

아, 개인택시하는 거보다 회사택시 타는 게 더 편한 거였습니까? 일을 많이 해야 하는데 내가 일을 많이 못했어요.

그럼 택시운전사로서는 그럼 보르직에서 일을 했던 것만큼 돈을 벌 수 있었습니까? 적게 벌지요. 택시운전수는 시간을 많이 해야 하는데 시간을 내가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다른 일 하느라고. 다른 거 하느라고.

네, 어떤 거 다른 걸 또 하셨습니까? 애도 봐야 되고 또 그 성당도 나가야 되고 뭐 이런 일 하다보니까 그건 딱 메여있는 일이 아니니까, 내 자유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꼭 그렇게 많이 일을 못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가정 일을 도와줘야 되고 이런 거 때문에 직장 일을 조금 줄이신 거네요? 네, 네 소홀했던 거지요.

## 은퇴와 가정생활

---

보통은 여자들이 가정일 때문에 직장 일을 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택시를 타니까 애들 어디 데려가주고 데려오고 이런 거. 이런 것이 아주 좋았어요. 택시 타면서. 돈 좀 덜 받아도 아주 좋았어요.

그럼 어머님께서는 병원에서 일을 좀 덜 하고 이러시진 아니셨구요? 아니요.

서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까? 아니요. 그냥 그런 얘기 안했어도 그냥 그렇게 자동적으로 글게 된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여기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고 나는 적게 버는



사람이고, 이렇게 딱 되어 있었으니깐.

그럼 부인이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게 보르직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버신(전가요)? 예, 그렇지요.

택시운전은 언제까지 하셨어요? 저는 택시운전을 4년 전까지 66세까지 했어요.

보통 정년 들어갈 나이보다 조금 더 하신 거네요. 1년 더 했어요.

네, 1년 더 하신거네요. 둘이 사실 맞벌이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탄광에서 나온 다음에 한국에 더 이상 돈을 이체 안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 베를린 와서도 조금씩 보냈어요. 그러다가 우리 조카들이 대학을 나오고 그후부터는 우리 형님한테 안 보냈지요.

그런 다음 여기 있는 가족을 위해서도 돈을 모을 수 있었겠네요? 예, 우리를 위해서 [웃음].

그래서 적금 같은 걸 하셨습니까? 적금 같은 것은 별로 못했습니다.

그래도 맞벌이해서 돈을 그만큼 버는 데 무엇에 돈을 그렇게 썼습니까? 그 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깐. 우리만이 아니라 한국의 부조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인제 열심히 벌어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서 뭘 해놨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다 어디로 갔어요. 하루아침에. 그게 어디로 다 가버린 거예요. 돈은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요. 그것은 다 내 돈이 아니고 또 저는 돈의 철학을 배웠다면은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 있어야 그게 내 돈이고 내 주머니에 들어 있지 않은 돈은 내 돈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부인하고 나하고 앉아서.

그러니까 한국에 적금을 어디에 하셨는데 사기를 당하신 거나 비슷한 거네요? 사기는 아

니었는데 그냥 친척이 사기를 당한 거 같아요.

그럼 충격이 크셨겠어요. 충격이 컸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달리 돈에 대한 애착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둘이 다.

네, 독일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어렵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요. 그냥 돈은 많이 축적은 못해도 우리가 생활하는 데는 어렵지 않게 살아간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럼 노후 걱정이나 그런 것도 별로 안 하셔도 되고요? 노후 걱정은 안 했습니다.

## 종교생활 및 교민들과의 교류

---

네네, 아까 그 성당 일도 하시고 다른 일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직장 생활 말고 어떤 활동들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은 다른 활동 안 했어요. 교회활동밖에 안 했어요.

그럼 교회는 언제부터 다니셨어요? 제가 80년엔가 81엔가 영세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한국에서 다니지 않으셨네요? 아니요, 저는 전혀.

음... 그럼 여기 와서 그럼 베를린에 오셔서? 네, 베를린에 와가지고, 예.

그럼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됐고 영세를 받게 되었습니까? 어. 그 교회를 가게 된 것은 제가 광부로 왔고 무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어떻게 교육을 잘 시킬 것인가 고민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을 때 종교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참 잘 시킬 수 있다. 그걸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지은이를 카톨릭학교를 보낼 것이냐? 아니면은 에반겔리쉬(Evangelisch, 개신교) 학교를 보낼 것이냐? 그 둘 중에 인자 하나를 선택하는 데 카톨릭학교

가 더 좋았어요. 학교를 두 군데 다 가봤는데. 그래서 제가 카톨릭 학교에 국민학교에 가서 교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내가 내 딸을 당신 학교에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느냐? 라고 좀 가르쳐주십시오,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영세증서만 가져오면은 학교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성당에 가서 우리 딸 영세 좀 시켜주십시오 했어요. 어리니깐 영세를 받았어요. 받아서 그래서 카톨릭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아버지가 딸을 이해할라면 나도 가야되겠구나, 성당을. 그래서 가게 됐어요.

자식 교육 때문에 종교를 선택했지만 결국 교회활동을 열심히 한 것이네요. 예. 그니깐 애들이 가서 열심히 국민학교 나오고 중·고등학교도 예수회 학교 나왔고 두 애들 다. 그것에 감사하면은 저도, 저희들도 열심히 가서 봉사해야지요.

그럼 성당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성당에서는 이제 그 신빙단체장도 하고, 본당 회장도 하고, 또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본당회장하고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해요. 저희들 나름대로.

네 그럼 한인회, 한글학교에서 활동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안 나갔습니다.

왜 안 나갔었어요? 일하면서 한 군데도 제대로 못하는데, 두 군데 나가면 한 군데도 못 한다 해서 저희들은 전혀 그런 데는 안 나갔습니다.

그럼 옛날 광부들하고의 어떤 친분과 이런 조직 같은 것도 참여하고 하십니까? 그건 글뤽아우프(Glückauf, 재독파독광부협회) 회합이 있어요. 모임이. 거기는 이제 나갑니다.

거기 가면은 어떤 걸 합니까? 거기 가면은 이제 그 복지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그 나오는 복지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또 어떤 대상에게 줄 것인가? 그런 것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광부 적립금이 한국에서 다 왔습니다. 독일로. 그래서 와가지고 베를린은 그 적립금을 한꺼번에 이렇게 받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인회관 하는데 거기다 협조를 해서 조금 더 늘리자 회관을. 그걸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를린 한인회를 봤을 때, 옛날 그 광부하고 간호사가 한인사회의 축입니까? 예.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교민사회에서는 그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 아니면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한 95%는 광부, 간호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럼 독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럼 광부 간호사들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구요? 예, 예.

아버님께서 여기 지금 오래 사셨는데, 독일 사회하고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제가 독일 사회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요. 독일은 참 좋은 나라다. 그런데 내가 왜 내 개인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느냐? 그것은 내가 무식해서. 내가 언어장벽 때문에 문화적으로 내가 못 들어가고 소외감을 느끼고 산다. 그건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또 살 것이다.

언어교육을 똑바로 배울 계기가 계속 없었던 거죠? 그렇죠. 언어교육, 언어를 배울 계기는 없었죠.

그럼 독일 친구분들도 이렇게 여가 때 서로 만나고 그런 일도 있습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런 필요를 느끼십니까? 안 느낍니다.

네, 그니깐 성당과 가족하고 움직이는데 너무 편하시고 다른 필요를 많이 못 느끼십니까? 예, 그 정도면 충분하고, 또 그거만 해도 충분하고.

예, 그럼 한국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한국하고의 관계라면 무슨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니깐 한국에 자주 가십니까? 아니면 한국에 대한 소식을 접하는 방법이나. 한국에는, 한

국에는 자주 못 갑니다. 자주 못 가고. 전화는 자주 합니다. 안부전화는 제가 자주 합니다.

70년에 독일 오셨는데, 지금까지 한국은 전체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제가 한 8번 정도 갔다 온 거 같아요.

예, 그럼 가족하고 다 같이 갑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는 함께 갔었고, 또 커서는 성장해서 는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가고 우리는 우리끼리 가고 그래요.

그럼 한국에 대한 소식도, 요즘은 신문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한데 많이 접하십니까?

예, 요새는 많이 접합니다.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매일 이렇게 잠깐 잠깐씩 한 5분, 10분씩 인터넷을 봅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도 보십니까? 예, 봤습니다.

예, 그럼 한국 정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도 꾸준히 관찰하시겠네요? 예, 그런 것도 하루에 뭐 5분, 10분 봅니다.

아버님, 그럼 국적은 어느 국적이십니까? 독일 국적입니다.

아, 독일 국적이세요? 예.

왜 독일 국적으로 바꾸셨어요? 2003년도에 바꿨습니다. 그게 한국 국적을 갖고 있을라 그랬는데 한국 국적을 허면은 여권 바꿀 때마다 너무 복잡해요. 제 개인적으로 그 뭐, 써내야 되고 옛날에 써낸 것도 다 다시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리고 어디 갈라면 조금 복잡하고. 그래서 한국 돌아간다 간다 하면서 못 가고 있는데 여기서 편히 살다 죽자, 그래서 독일 국적 받았습니다.

## 귀국 계획과 독일 생활 회고

---

그럼 나중에 한국에 귀국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에 정착해가지고 사시는 게 확실해졌는데 그사이에 언제 그때 내가 한국에 갔어야 했는데... 뭐 이런 후회 같은 건 없습니까? 저는 한국에 갔어야 됐다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금 상태로는 지나간 일은 많이 접어버렸어요. 그래서.

언제? 후회할 때는 언제 후회하셨습니다? 내가 후회했을 때는 애들이 이 중·고등학교 아직 안 갔을 때. 그때 갔었으면 참 좋았다. 그 생각했어요.

왜 그런 생각하셨어요? 한국이 우리나라니깐. 내가 태어난 나라니깐.

네네, 근데 왜 그때 못 가셨어요? 경제적으로 안 됐어요.

네, 충분히 적금이 안 돼서, 그러니까 한국 가서 살만한 기반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근데 그때 가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분들은 아주 용기 있는 분들.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네네. 지금도 연락을 하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예, 예.

지금 이렇게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가신 분 하고 남으신 분하고. 저는 비교를 하면은 그 가신 분들은 한국에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갔거나 능력 있는 분들이 갔는데, 이렇게 보면 저희하고 같이 허시다가 가신 한 분은 참 잘됐어요. 중소기업 지금 사장을 하는데 아주 잘됐어요. 그랬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아, 여기 사는 것이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 독일 생활에 대해 만족을 하십니까? 그 한국에 가기 전에는 한국에 고국이니깐 가서, 우리말이고 또 똑같고 같은 민족이고 가기 전에는 참 좋은데 가보면은 다 이렇게 조금, 이래 뭐라 그럴까 한국에 가면 외국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독일에 베를린에 돌아오면은 마음이 편해지고. 그래서 아, 한국이 참 살기 힘든 곳이구나. 우리로서는.

근까 독일이 제2의 고향이 되신 거네요? 네, 네.

그 자제분들 교육할 때 종교를 바꿀, 개종을 할 정도로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개종이 아니라, 아예 난 종교가 없었으니깐.

근까 없다가 받아들일 정도로. 그건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 내가 백만장자 아들도 아니고 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고 만약에 내가 백만장자나, 대학을 나왔다면 독일 광부로 안 왔지요. 그러니깐 그런 것들을 다 갖추지 못한 사람이니깐 이 애들을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나왔지 않는가.

애들이 교육을 잘 받는 게 아버님께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네요? 예, 예. 가장 중요한 것.

그럼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셨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헌 거 같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개네들이 원하는 건 다 해준 거 같아요.

어떤 걸 원했어요? 그 애들이 원한 것은 미국 1년씩 간다. 예를 들어서. 그럼 가거라.

그 중·고등학교 김나지움(Gynasium,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리고 또 저희 부부는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학교 다닐 때 배우고 싶은 것은 다해라. 그러면 어찌됐던 간에 뒷바라지는 다해주마. 그 대신 학교를 나오고 나면 그것은 끝이 나는 것 아니냐? 그 이상은 없다.”

그럼 학교 다닐 때까지는 필요한 걸 다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예, 예.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게 부담이 되었었습니까? 아뇨. 마음에 부담 전혀 안 가졌어요. 마음에 부담 가지면 못하지요.

아니, 경제적인 부담도 있었습니까? 그때는 둘이 일하니깐 그렇게 큰 부담 안 가졌어요.

큰 부담 아니었구요. 그럼 지금 이제 자제분들이 다 크고 이제 직장 생활하고 하는데 만족하십니까? 그 부모의 만족이라는 것은 마음을 어떻게 갖는가에 달려 있는 거 같아요. 항상 내 아들딸들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거 같아요. 부모로서. 그래서 만족이라는 것이 어느 내가 만약에 어렸을 때 어느 기준을 딱 거뒀으면은 만족을 헐텐데 그 만족이라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그 기대가 시간이 가면서 더 커진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그럼 자제분들한테 바람이 있다면? 지금 독일에 사니깐. 독일에 사는 일원으로서 바람이 있다면 특별한 게 있습니까? 저는 바람이 있다면은 자기 삶에 충실히 살고,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열심히 함께 도와주고 이렇게 살고 또 그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아갔으면은 그런 것이 바람인 것 같아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장시간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아유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 면담 개요

구술자	김완수 (전 파독광부)
면담주제	파독광부의 생애사
면담일시	2012년 6월 25일 (월) 14시 30분 ~ 15시 46분 (76분)
면담장소	구술자(김완수) 자택, 베를린
면담자	이유재 (튀빙겐대학 한국학과 교수)



**박종선**

# 박 종 선

- 1942 서울 출생
- 1961~1965 고려대학교 사학과
- 1966~1969 해병 연예대 입대  
월남 파견
- 1970 파독광부 2차 2진 겔젠키르헨 Ewald에서 근무  
독일에서 타이거스 밴드 활동
- 1973 파이프로르간 직업교육 시작, 쾰른대학교 동아시아사 등록, 모두 중단
- 1979 불법체류하다가 한국으로 강제추방
- 1980 파독간호사와 결혼 후 독일에 재입국  
다양한 자영업 공동 운영
- 1989 8년 동안 테니스장 운영
- 1997~2000 호프집 운영
- 2001 은퇴  
일인밴드 활동
- 2015 사망



## 유년 시절과 대학 그리고 군경험

---

제 이름은 박종선이고 1942년 11월 19일 서울 동대문에 있는 이화여대부속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그 당시,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 초등학교 2학년 때 6·25사변이 나가고, 부모님이 전라북도 전주로 피난을 가서 거기서, 전주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때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그 뒤로 쪽 서울서 학교를 다녔고. 난 어릴 때부터 소원이 예능계 통으로 나와가지고, 영화감독이나 음악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경을 갖고 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 우리 가정에서는 그런 게 용납이 안 됐죠. 다시 말해서 너무 보수적이고, 집에서 부모님들은 대학교를 꼭 가야된다. 대학교도 다른 대학교는 안 되고, 서울대, 고대, 연대. 이 세 개 학교 중에서 한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부모님들은 아주 지상과제로 그런 걸 요구를 했어요. 그니까 나로서는 그때 한참 사춘기 때, 그냥 숨 막히는 사춘기를 보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랬다가 내가 61학번인데. 65년도에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가야되는데, 사실은 내가 조금 부지런허믄, 그때 우리가 그때야 그게 ROTC 3긴가 그럴 거예요. 그 ROTC를 신청을 해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군사훈련을 받고 그랬으면은 졸업과 동시에 임관 되가지고 2년간 장교로 복무하고 제대가 되는데. 그것도 그 대학교 3학년서부터 ROTC 군사교육도 그것도 귀찮거든. 방과 후에 또 군사교육도 받아야 되고 여름방학 때는 입영 해가지고 4주간해야 되고. 그게 귀찮아서 그것도 신청도 않고. 그래서 딱 졸업하고 나니까, 인제 막연한거라. 인제, 군대를 가야되는데. 군대 졸병을 가자니 너무나 고생스럽고. 그래서 그 당시 연예대라 그래가지고. 연예인들, 영화배우, 가수, 사회자, 코메디언. 이런 연예인들 중에서, 아직 군대 병역을 피하지 않은 사람들이. 해병대에서 편법으로 그런 사람들 입대를 시켜서, 3개월 훈련만 시키고 해병대 현역 군인으로 3년간 복무기간으로 허는 걸로 하고, 3년 동안 실질적으로 군에 입대해서 복무를 하지 않고, 그 밖에 나가서 연예활동을 보장해주면서 3년이 지나면 제대를 시키는. 그런 제도를 그때 해병대에서 실행했는데, 해병대에서는 모병 포스터를 10,000장을 붙이는 것보다, 해병대 현역 연예인이 한번 공연을 하면은, 모집하는 데 더 선전효과가 크다고 해서 그 해병대 정국의 판단으로 해병연예대가 창설이 됐어요. 내가 알기론 초기 대장이 그 우리 한국의 원로 가수, 그 비의 탱고를 불러서 유명해진 도미씨라고 그 양반이 해병연예대를 창설하다시피 해가지고. 그 당시 쟁쟁한 톱 가수들. 예를 든다면 그 해병연예대 출신이 누가 있냐면, 도미가 대장이었고 그 당시. 거기에 인제 가수, 남



석훈이라고 있어요. 지금 뭐 남석훈이라고 재즈가수하고 영화배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희준이, 오기택이. 이런 사람들이 다 해병연예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인제 말년에 남진이하고 진성남이하고, 태원이. 그땐 인제 남진이가 톱스타였고. 진성남이랑 태원은 그래도 약간 B급 가수였는데, 그 사람들도 섭외를 해서 해병대 입대를 해가지고 인제 말하자면 해병대 선전 효과를 노리는 그런 측면에서 했었는데. 그게 인제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알게 돼가지고 그게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해병대 현역 군인이, 머리를 기르고 쇼무대 출연하고 극장 쇼무대에 출연하고 영화 출연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나? 그게 인제 기사가 터지니까 사회문제가 돼가지고, 애초에 입대할 때는 그 해병대 사령보고 남진에게 훈련만 3개월 훈련 받고 난 다음에 모든 연예활동 보장해준다고 약속했거든. 그 대신 해병대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와서 행사에 공연을 해줘야 된다. 이런 처우로 입대해가지고 연예활동하고 있는데 해병대 그 사령부 측에서 여론화가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이 남진을 갖다가 포항 해병사단에 입대시켜서 근무를 시킬 수 없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월남으로 보내버렸어요. 그 남진도 사실은 그 해병연예대 입대해가지고 결국 월남으로 가게 되었지요. 나도 연예대에 입대 해가지고 연예대 일원이었어요. 사실은 거긴 프로 연예인만 입대하게 돼 있는건데, 나는 대학교 졸업하고 사실 아마추어 연예인인데, 프로 연예협회에 회원증도 다 만들고. 프로 연예인으로 가장을 해서 인제 해병연예대로 입대를 헌거죠. 거기 우리 조건은, 훈련만 받고 나머진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보장해준다. 그런 조건으로 입대를 헌거지. 그래가지고 그때 월남전이 터지니까 우리도 해병 청룡부대의 그 연예대로 월남에 가게 되었어요. 우리 임무는 뭐냐면은 월남에 가서, 청룡부대에 휴양소라고 있어요. 그게 원래 그래서 유명한 거고, 다낭(Da Nang)에 있는 차이나 비치라고(미케My Khe 해변) 유명한 휴양소 해변 백사장에. 거기에 인제, 미군부대 휴양소가 있고, 그 옆에 인제 해병청룡부대 휴양소, 있어가지고 우리가 거기 청룡부대 주둔, 그 휴양소에 주둔하면서 작전 나가서 전투를 하고 온 전투병들 휴양소에 가서 3박 4일, 4박 5일 쉴 때. 우리는 거기서 인제 공연해주는 게 우리들의 임무였다고. 그러니까 사실 난 월남에, 군인으로 월남전에 참전했지만, 전투 한 번도 안 해보고 총 한 번도 못 쏘보고. [웃음] 우리 임무는 거기서 공연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언제였어요?** 그게, 그게 내가 해병연예대에, 65년도에 (대학) 졸업을 하고, 66년도 5월 달에 해병대 입대를 해서 진해 해병훈련소에서 3개월 훈련을 받고, 인제 나와서 사회활동을



해줬죠. 그리고 있다가 1년 있다가 인제 월남, 파병이 돼가지고. 68년도에 인제 청룡부대 일원으로 월남을 가서 1년, 13개월인가 있다가, 69년도에 인제 귀국해서 바로 제대를 했죠. 69년도에 제대를 하고, 인제 사회인이 됐는데. 그때 한국에 그 뭐 모든 상황이 정치상황이 그 참 아주 막연했죠, 막연하고 암담했죠.

**월남에서 그러면 그 연예인으로 가서서 돈도 좀 버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현역 군인이니까 돈을 벌수가 없지. 어디. [웃음] 그 당시 우리 봉급이, 자세하게 기억은 없지만, 이병이 35불, 상병으로 올라가면 40불. 병장이 43불. 하역튼 40불 미만이었어요, 우리 한 달 봉급이. 물론 한국에서 군인 본봉, 그때 돈으로 몇 천원 됐을 거예요, 우리 월남에 가서 현지에서 수당, 받는 게 약 40여불 가량 됐지. 약 40여 불이 우리 인제 그 해외 수당으로 받는 봉급이었다고. 그래서 40불가지고, 물론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시간이 나는 대로 PX에 가서 무슨 담배를 사다가 월남시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용돈도 벌었어.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건 우선 시간이 허락돼야 되고, 모든 여건이 허락 되어야 되니까 아무한테나 그계 여건이 맞는 건 아니고. 우리들은 비교적 시간이 많은 편이었어요, 그 청룡부대 휴양지에서 근무하면서 시간이 많은 편인게, 주로 옆에 있는 미군 휴양소에 가서 미군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군인 생활치고는 정말 신선놀음 격을 했죠. 그러하고 인제 공연 같은 게 있으면 공연하고. 일반 사병들은 그 한 달에 40불 받는 거, 더군다나 전투병들은 뭐 그거 외에는 어디 수익 날 데가 없지. 원래는 돈을 번 대는 얘기는, 내가 알기로는, 적어도 이렇게 하사관급 이상, 장교들. 장교도 일선 지휘관들은 아주 그 장교 봉급 외에는 진짜 그게 전혀 가능성이 없고, 그 후방에서 서무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은 그 자기 나름대로 또 다니면서, 돈을 번 대는 건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전부 다 그거 군인으로서의 허용되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해서 돈을 버는 거지. 합법적으로 군인이 자기 받는 봉급 외에 무슨 수입이 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우리도 시간이 날 때 가끔 그런 걸 했지만은, 이 6·25사변 때 한국 상황과 같이 또 미군에다 우리가 봉급을 인제 40불 받으면 저걸 받거든요? 군표. 군표라는 건 미군이 해외 주둔할 때, 그 나라에서만 통용할 수 있는 화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40불 받으면 인제 군표를 받는다고. 그러면 그 군표가지고 다 월남에선 통용이 되는데. 근무가 끝나치고 귀국할 때는 그 군표는 못쓰잖아. 그 군표를 미국에서 쓰는 본토불(本土弗)로 교환을 해준다고. 그러면 그 본토불이라는게 똑같은 100불이지만은 군표 100불하고 본토불 100불 하고는, 월남 달러시장에 가면은 이게 차이가 나요. 차

액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본토볼 가지고 월남, 그 달러시장에 가지고 나와가지고 균표를 교환을 하면은 본토볼 100볼을 주면은 그 월남에 있는 달러시장 상인들한테, 물론 이 시세가 차이가 나지만, 시세가 심혈 때는, 아주 심혈 때는 150볼까지 받는다고. 그럼 100볼 본토볼로 가지고 가면은 균표가 150볼이 되는 거예요. 50볼, 인제 수입이 생긴 거지. 1,000볼이면 500볼이고. 원래 그거는 전시에서 그거는 완전 이적행위야. 왜, 이 본토볼이라는 게 미국 본토에서 나오는 그런 100달러인데, 이게 그 월남 이 달러시장에서 그 상인들이 균표를 150볼 주고 본토볼을 100볼 구입을 해가지고. 160볼이나 170볼에 그 베트남들한테 그걸 팔아요. 그럼 베트남들은 그 본토볼 사가지고 그걸로 무기를 산다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적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판 본토볼이 나중에 베트남한테 넘어가서 그게 무기가 되가지고, 우리 아군한테 날라오는 총알을 사고 대포를 사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적행위라고. 그러니까 그게 만약 발각이 되면은, 군법에 회부되는 하나의 범죄행위지, 군인으로서는. 이적행위니까. 근데 그게 우리 한국의 6·25사변도 달러시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남도 그때 상황 비슷하고 그런 식이에요. 그런 거 전부 다 사실 따지면 불법 행위지. 내가 알기로는 장교들 있잖아요, 중령급 장교, 뭐 청룡부대 여단장이 그때 육군 중장인데.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은 나중에 그 당시 뭐 그 지휘관들이 무슨 참 큰일 날 소리지만, 지금 인제 벌써 역사적으로 벌써 50년 이상 된 일이니깐 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군이 대포를 한 발 쏘면은, 그 대포 꺾질, 그 신주그든? 그 꺾질을 원래가 반납하게 돼있어요, 미군한테. 우리가 뭐든 장비를 미군한테 지원을 받았잖아. 그럼 대포알을 50밀리 포, 100밀리 포를 받아가지고 10발을 쏘면은 대포알이 나가고, 그 대포꺾데기. 그 신주거든. 그걸 반납하게 돼 있는데, 그걸 반납을 안고. 인제 그게 한국에 갖고 오면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 신주가 원래 비싼 거거든. 그러믄 그게 영관급 여단장쯤 되고 그런다면, 그 신주들을 대포, 전투하고 난 그 대포포탄을 갖다가 부피가 나가니까 납작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인제 큰 귀국박스에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그거 매달 한 번씩 귀국 장병들이 그 배로 귀국 허니까, 그 편에 보내면. 그게 한국에 오면 그게 바로 돈이 되는 거여.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은 인제 자기 개인 축적을 했죠. 그러니까 전부 다 부정행위지, 따지고 보면은. 그때 지금으로써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때만이라도 시대가. 전투도 그때는 아날로그 식으로 전투를 해갔고, 지금은 디지털 시대니까 그런 게 허용이 안 되지. 그래서 모든 이런 상황이 내가 보기엔 그래요. 미군이 월남전을 이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 미군이 지원한 모든 무기들이 전부 다 적군에 들어가지고 거기에 포탄이 들어가 다시 날라오는데. 그리고 또 예를 들으면 우리 군대 내에서

그 C-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그 군대 식량이 나와요. 근데 인제 작전을 나가면은, A-레이션, B-레이션 C-레이션이 있는데. A-레이션은 주위에서 요리하는 요리, 뭐 채소 고기 이런 거고. B-레이션은 포장된 무슨 어떤 그 비스킷트나 이런 거고. C-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큰 박스 하나에 쪼쪼만 한 저게 스물네, 그 봉지라 그럴까? 그런 게 들어있는데, 이 봉지가 1인분, 한 끼 식량이에요. 식량. 그러면 그 C-레이션을 그걸 열면, 전부 정확하게 영양 가치를 계산해가지고 소위 도제(Dose, 통조림)지, 통조림. 소고기 통조림 요만한 거, 여기 또 스프 요만한 거. 여기 또 무슨 파인애플 그런 거 들은 통조림 이런 거하고, 밥 먹고 나서 후식으로 먹는 거. 담배 다섯 개비. 화장지 용지. 심지어는 이빨쭈시개까지. 완전히 그 한 봉지를 뜯으면은 한 끼를 식사를 해결 하고 전혀 불을 안 피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인제 전투 때 작전을 나가서, 그 밀림에 가가지고 불을 피우면 안 되잖아, 불 피면 적한테 우리 소재를 알려주기 때문에. 불을 안 피우고 동굴이나 이런데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한 끼 해결이 된 아주 완벽한, 담배까지. 심지어 화장지까지 그렇게 돼 있다고. 그 C-레이션을 인제 배당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서 인제 점심시간에 그거를 먹는 거지. 그러니까 전시용 식량이지. 그런데 배당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전시식량을 팔아요, 월남시장에 가서. 그럼 월남 상인들은 그걸 사가지고 그걸 다시 베트남한테 되판다고. 한번은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거 작전 나갔든 사람들 얘기가, 그 월남에, 한참 월남전이 치열할 때 애들은, 그 베트남들 전부 정글 속에, 전부 땅속에, 굴속에 들어가 숨어있는데. 그 땅굴을 급습을 해가지고 이 선별을 시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수색을 해보니까. 그 안에 미군에서 나온 그 C-레이션 박스가 거기 쌓여 있는 게, 땅굴 아래에. 1개의 중대가 6개월 동안 그 땅굴 안에서 밖에 안 나오고 그걸 갖고 연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실정이니까 미군이 그 월남전에 지는 건 아주 당연해요. 미군이 전비(전투비용)를 합의에,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불, 하루에 5천만 불을 쏟아부었으면 그중에 절반은 전부 새는 거야.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그래 내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그 미군은 월남전에 그 당시 승리 할 수 없게 돼있었고, 더 중요한 거는. 월남 국민들이 미군들이 잘 보아주는 걸 원치가 없애. “양키 고 홈(Yankee, go home), 양키 고 홈.” 그 래 월남 민간인들이 자기 베트남들 간첩들 숨겨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미군들이 그 전쟁에 이길 수가 없지. 국민들이 고맙지않고 원하지않는 그런 전쟁을 벌린거기 때때. 여기 월남 실정이 이래요, 그 당시 보면은. 한집안에 있는데 형은 자기 베트남 쪽이고 동생은 월남, 정부, 정부군이에요. 아침에 아침밥 같이 먹고 형은 저 베트남 월맹군으로 가고, 동생은 정

부군으로 가고. 밤에 또 와서 저녁식사 하고. 칠흠같은 밤은 이런 실정이라고. 그러니까 월남 그 민간인들은 그 베트남, 소위 공산 호志明(胡志明)군에 대해서 큰 그런 악감정이 없어요. 미군이 인제 그 호志明군을 섬멸 할라고 그러는 거지, 월남 국민들은 이 보는 시각이 틀리다고.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야 미군이. 한국군은 미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기 참전한 거니까 똑같죠. 미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한국군도 미군하고 똑같이 월남 민간인들한테는 증오의 대상이 됐지. 그러니까 베트남들, 진짜 아주 완전 공산, 저기에 물 들은 베트남들은 총살당할 때 죽으면서, “파이한(Đại Hàn) 남바텐, 파이한 남바텐.” 그리고 죽는다고. 파이한은 대한민국이라는 얘기고, 남바텐은 나쁘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죽는다고. 그런 실정이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실지로 전투에 참가는 안했지만 전투에 나가서 작전하고 헌 사람들을. 휴양시설, 매일, 며칠 같이 지내니까 거기서 얘기를 다 들죠. 근데 전쟁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13개월을 근무를 마치고. 69년도에 인제 한국에 귀국해서 제대했어요.

## 독일광부 지원 계기와 준비 과정

---

그래서 그 당시 진로를 결정해서 살아가야 해야 되는데. 나는 그 당시는 좌우간 이 한국이 싫었어요. 어떻게든지 한번 기회만 있으면. 월남에 가서, 물론 전쟁터지만 거기 가서 미군들하고 교류도 하고, 그 월남 우리 군 부대 주위에 항상 전쟁터에 가든 항상 제일 풍부한 게 돈하고 여자는 풍부하더라고. 전쟁터에 가면 물자가 풍부하니까. 군인 주위에 항상 그게 따르기 마련이여.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돈하고 여자는. 남자들의 신세계에는. 창녀촌에 가면은 세계 각국 여자들이 다 있어요. 심지어는 아프리카에서도 흑인 여자들이 있고. 그러면 그 창녀들 몸 값이 전부 틀립니다, 이게. 제일 싼 게 월남여자가 제일 싸고. 제일 비싼 게 유럽 여자. 그러니 뭐 성병이 만연하고 아주 전쟁터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그런 데 가서 눈도 좀 시야도 넓어지다보니까 한국을 기피하고 싶어요. 그 당시 정치, 사회적인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숨이 막힐 거 같고. 인제 어디 취직을 해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참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뭐 좀 소위 말하자면 고급 룸펜(Lumpen, 지식층에 속하면서 일정한 직업이 없이 놀며 지내는 사람을 의미)이지요, 그때 전부. 그런 생활을 몇 개월을 했죠. 매일 뭐 술 마시고, 일종의 방탕생활을 몇 개월 허는 동안에 우연히 청진동 뒷골목에 있는 여

관에서 인제 술 먹다가, 그때는 통행금지하기 때문에 12시가 넘으면 집에 못 들어가잖아. 그러면 인제 하여튼 젊었을 때니까, 뭐 술집에서 여자들과 술도 마시고 어찌구. 그때 용돈은 비교적 좀 내가 푼푼이 썼어요. 왜냐하면 월남에서 가져온 선풍기니 카메라니 이런 거 사다가 이렇게 팔아서 쓰면은, 그때는 그 양키물건장사가 있어가지고 미제라 그러면 전부 다 사갔죠. 심지어는 전투병들 나가가지고 귀국할 때 가져올게 없으니까, 그 배급 나온 커피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다방에서 팔면은 꽤 돈을 줬다고. 다방에서 미제커피라고. 지금 요즘 사는 사람들 이해를 못 허겠지만. 그래서 월남에서 가져온 소위 중대원, 전리품, 이런 걸 하나씩 팔아가지고는 용돈은 비교적 잘 쓴 편이죠. 그래서 그날 우연히 청진동 뒷골목 여관에서 투숙을 해가지고 자고 있는데, 아침에 그 신문팔이 애들이 조간신문 돌리는 걸 하나 사가지고 그 여관방에 이렇게 앞드려서 신문을 뒤척이는데, 거기 광고란에 서독광부모집 광고가 딱 있드라구요. 그 광고가 내 인생의 진로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 우연히 본, 여관방에서 본 그 서독광부모집. 그래서 아 이거다. 이거를 내가 지원을 해야 되겠구나. 물론 집에는 전혀 상의도 않고, 나 혼자 그냥. 즉흥적으로. 그 당시에 인제 아까도 말했지만, 대부분 광부나 간호원들은 거의가 90%이상은 돈을 벌기위해서 갔죠. 돈을 벌기위해서 여기 와서 막 용자해서 한국으로 송금하고. 우리가 독일에 막 도착하니깐 그 광산에서 그때 2000마르크씩 인가 용자를 해줬어요. 은행에 해가지고. 매달 봉급에서 인제 갚어 나갔어. 그걸 가지고 인제 한국에서 뭐 빚지고 온 거 빚도 갚고, 한국에 보내라 그래가지고. 근데 대부분이 다 용자내서 인제 보내고. 그거 가지고 동생들 학비하고, 부모님들 집 사는데 보태고, 전부 시골에서는 그걸로 논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지원할 때 보면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백을 쓰고 또 뭐 돈을 쓰고. 대부분이 다 돈도 쓰고 백도 쓰고 그래가지고 인제 그렇게 해서 어렵게 지원했어요. 왜냐하면 이 경쟁이 워낙 심하니까. 내가 알기로는 심할 때는 그게 뭐 50:1, 70:1 그렇게 됐었던 경우도 있었다고. 근데, 아마 여기 독일 온 교민들 중에서 아마 나 같은 사람 없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아무런 도움 없이 지원을 해서 되면은 간다. 돈을 쓰고 백을 써서 까지 그렇게 갈 생각은 없다. 지원을 허니까 내가 인생의 그 진로가 그때 이미 결정이, 운명적으로 결정이 났는지는 모르지만, 일사천리로 착착착 그냥 합격이 되는 거예요. 필기시험이야 웬만하면 합격이 되겠죠. 신체검사도 문제가 없었어요. 척척척척. 아무 저기 없이 막 합격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여권도 나고 딱 일주일 후에 출국이 됐어요. 그때 집에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집에서 인제 깜짝 놀래고 말이지, 그때 우리 형님이 그 인제 정치를 하셨는데, 내가 70년대에 왔으니까 아직 그때는 원내론 못 들어갔고.

그때는 신민당이죠. 신민당이 통합이 되가지고 그 고려대학교 총장 하시던 유진오 씨가 신민당, 학계에서 정계로 진출해가지고 신민당 총재를 하시고. 인제 그럴 때예요.

## 가족과 성장 배경

---

**가족 사항이 어떤지 잠깐 얘기해주세요.** 예, 가족 사항이요. 우리 집에 6남매인데, 4남 2년데. 내가 이제 그, 3남입니다. 내 위로 형님 두 분, 누님 두 분. 그리고 나. 내 밑에 남동생 하나 이렇게 6남매데. 이제 큰형님이 그때 이미 정계에 계셨어요. 우리 큰형님은, 아. 그 양반이 1929년생인데 자유당 이승만 정권 때, 그 당시 장면 박사가 부통령 하실 때. 그 부통령 비서실에 20대 중반에, 비서실에 들어가서 인제 장면 박사를 모시고 있다가. 인제 4·19가 나니까, 4·19가 나가지고 민주당이 집권을 하니깐 그때 9개월 동안 민주당이 집권을 했죠? 그니까 우리 형님이 평생을 정치를 하면서 딱 9개월 집권 기간을 가졌어요. 그것도 뭐 아주 혼란의 시기죠. 4·19 직후니까. 그러다가 5·16이 나니까, 5·16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그, 김대중 씨도 모시고. 계속 민주화 투쟁, 야당으로 탄압받고 뭐, 중간에 진짜 정치적 악법에 묶이고. 그담에 또 원내에 있을 때 유신 나가지고 또 끌려가가지고 1주일간 그냥 빨가뻐져서, 거꾸로 매달아서 고춧가루 물 먹고 고문당하고. 그러고 있다가 80년도에 유신정권이 무너지고, 서울에 봄이 왔잖습니까? 이제 그, 3김(三金), 김종필, 김대중, 김영삼. 그게 서울에 한참 인제 민주화가 꽃피는 그런 찰나에, 전두환, 이 양반이 또 나타나가지고 하루아침에 팡! 하는 바람에 전부 다 그냥. 하루아침에 인제. 그때도 또 갖은 고초를 겪고. 그래서 있다가 나중에 결국에 저... 그 무슨 당입니까? 야당에서 통합해가지고 대통령 선거할 때 김대중 씨, 평민당에 김대중, 민주당에 김영삼이죠? 여기 이쪽에 저 노태우 나왔을 때. 그때 인제 그 양김(김대중, 김영삼)이 단일화를 해야 이게 승산이 있는데, 이 김대중 김영삼이가 다 욕심 부려가지고 입후보하니깐 결국은 노태우가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되고. 그 노태우 씨는 그때는 이미 뭐 민정이라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전두환 그 후계자나,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는 군사정권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인제 있다가 결국은 71년도, 71년도 총선거 때 그때 처음으로 원내에 들어갔죠. 전국구로.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젊을 때부터 정계에 임해가지고 평생을 그냥 야당으로 민주화 투쟁을 하다 결국은 지금은 작고(作故)하셨지마는. 내가 어릴 때부터 그런 그 집안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내가 고등학교



교 때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집에 정계에서 그냥 국민이 알 만한 그런 사람들 이철승 씨나, 박준규, 김재순, 이런 분들 전부 다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형님하고 술 같이 허는거 내가 술 심부름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얻어들은 귀동냥으로, 한국 정치사회가 들어가는 상황을, 우리 또래에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자세히 아는 편이야. 왜냐하면 그런 그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때. 그때는 우리 형님이 아직 미혼으로 있기 때때, 그 당시 야당 허다가 군사 정권에서 정치 정학에 묶여가지고 정치를 못 하고. 소위 정치 룸펜(Lumpen, 실직자)이 전부 우리 집에 모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이제 그 주부가 없으니까. 제일 만만하잖아요. 다른 집은 전부 다 프라우(Frau, 아내)가 있으믄 이제 싫어하니까. 전부 다 우리 집으로 모였다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내가 이제 술 심부름허믄 들락날락 허믄서 얻어들은 얘기, 또 뭐 전화허는 얘기 들어보면은 참. 전부 다 어떤 때 보믄 그 다음날 신문에 기사화되고 말이죠. 그 이철승 씨도 그때 한때는 대통령까지 꿈꾸고 그랬던 분이니까. 그런 건데. 김대중 씨도 나는 우리 집에서 한두 번 봤어요. 집에는 안 들어오고 차에 타가지고 밖에 앉아 있고, 우리 형님이 박종률인데. 아마 정계에서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자기 그 양반 자기 계보를 창설할 때, 그 양반이 낙점을 해서 저거 해서 김대중 씨 그 참모로 들어가는 순간에 고민을 이 양반이 무지허게 허더라고. 왜냐면, 이거 정치허는 사람들은 그 보스를 잘 만나야 되는데. 장면 박사 보스를 잘못 만나가지고 평생을 고생을 했거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요즘 시대들은 모르겠지만, 5·16 비화 보면은, 그때 장면 박사가, 그 양반이 절실한 가톨릭 신자 아십니까? 5·16 직후에 그 혜화동 수녀원에 들어가서 숨지 않고 미 대사관이나 미 8군 사령부로 피신 했으면은 5·16이, 그 혁명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성공허기가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미군 측에서는 그 5·16 박정희 혁명정권 인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4, 5일 동안은. 빨리 장면 박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양반이 혜화동 수녀원에 숨어가지고 수녀 옷 치마폭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사흘 후에 나와서 피를 보기 싫다고 정권을 그대로 인수 했잖아요. 그러니까 5·16이 쉽게 성공을 헨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밑에 있는 장면 박사 참모들은, 내가 우리 집에서 그 양반 술 먹을 때 보믄 그렇게 욱을 허더라고. 이렇게 참 무능허고 말이지, 그 장면 박사에. 그 양반이 대학 총장이라 할 뿐이지 일국의, 일국의 정권을 쥐고 나라를 이끌어갈 인물은 못 된다 이거지. 야심도 없고 결단력도 없고 배짱도 없고 말이지. 쉽게 그렇게 손들고 투항하는 바람에 5·16혁명이 쉽게 성공을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보스를 만나는 걸, 신중히 허드라구. 그래서 김대중 씨한테 가면서 얼마나 심사숙고를 허더라고. 심지어는 우리 형수를 갖다가 점쟁이한테 보내서, 자기 사주를, 앞으



로 장래를 보는 게 아니라 김대중 씨 사주를 보는 거야 [웃음] 이 양반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왜, 그 양반한테 갈래면은 자기 평생이 결정이 되거든, 정치인들은. 그때 상황으로는 독일말로 “Gibt's keine andere Wahl”(선택의 여지가 없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야. 그때 당시도 혁명정부에서 우리 형님한테 많이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혁명정부로 오면은. 왜냐하면 장면 민주당 사람이, 아주 측근 참모로 정치 비서로 쓴 사람이니까 혁명정부 측으로 오면은. 굉장히 선전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면 정권을 무찌르고 인제 정권을 잡았으니까. 그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면 정권에 있던 사람이 혁명정부에 동조했다, 그러든 자기들이 그 굉장한 선전효과를 얻기 때때. 장면 정권에서 그때 넘어간 사람들이 예를 들면, 박준규, 김재순 이런 사람들은 그때 혁명정부로 넘어갔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국회의장까지 해먹고 정말, 공화당 내에서 아주 중심으로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 형님 이런 얘기를 해요. “공화당 정권이 18년, 19년 갈 줄 알았으면 나도 그때 넘어갔다” 이거야. 근데 자기는 이 혁명정권이 오래 못 간다고 판단했다 이거지. 정치인의 최종 목표는 집권이에요. 집권을 해야 자기 정치적인 경로를, 포부를 펴고 자기 역량을 발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권을 못하면 평생을 야당으로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자기 경력을 펴 수가 없지. 그래 정치인의 최종 목표는 집권인데, 우리 형님같은 거는 평생을 정계에 두시면서 딱 그것도 장면 정권 때 9개월 집권, 집권헌 건데. 그것도 아주 혼란한 시기죠. 그것도 뭐 자기들 힘으로 집권한 게 아니고 4·19가 일어나가지고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니까. 자동적으로 민주당이 제1야당이니까 정권이 글로 넘어간 거죠. 국민들이 안겨준 정권이니, 민주당 정권.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이렇게 취약성이 있기 때때 9개월 동안 흔들리다 결국은 5·16 그 계 났죠.

근데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인제 독일에 간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너 지금 군대 제대하고 진짜 지금 니가 저거니까 허는데. 니가 그렇대면은,” —그 당시 인제 KBS 사장 허신 분이 박현태 씨라고. 그 한국일보 정치부장허던 분인데. 인제 공화당에서 이렇게 스카웃 돼가지고 언론인으로서 공화당에 입당해서, 공화당에서 뭐 국회의원도 허고 정책실장인가 허다가 KBS 사장으로 인제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형님 정계에서 자기가 맡은 임무가 주로 언론인들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정치부 기자들을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박현태 씨가 KBS 사장으로 있을 때 —“내가 그러든 KBS 박 사장한테 얘기해가지고 너를 언론계에서 일하게 도와줄게.” 난 그때 방송계 들어가 PD나 이런 걸 허고 싶었어요. 고려대학교 사학과 우리 그 4년 선배 중에서 텔레비 탈렌트허든 김성옥 씨라고, 옛날

보면 알거야. 한때는 아주 톱스타였죠. 김성옥 씨라고 그 양반 있었고 김성옥 씨 그 또래에 우리 사학과는 아니지만 영문과에 지금 돌아가신 텔레비 탈렌트 여운계 씨. 그 양반이 그때 영문과를 졸업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고대 문리대 그 사학과 우리 2년 후배가 누구냐면은 아실 거예요 아마, 그 여자분. 연극배우하고 저 민주당 정부 때 환경부 장관 한 손숙. 손숙이 고려대학교 사학과 우리 2년 후배예요. 제가 3학년 때, 그분이 연예입학을 했드라고. 사학과. 그리고 우리 인제 그 당시 국문과에 지금 한국에서 아주 그냥 톱 방송극작가 김수현. 그 사람도 우리하고 같은 61학번이에요. 난 그 양반하고 강의도 같이 들었는데. 문리대니까 문리대 사학과 국문과 철학과 영문과 이게 전부 다 문리대에 인제 교양과목들 전부 다 합동으로 강의를 듣거든. 근데 그 김수현 씨 그분은 학교 다닐 때는 전혀 극작가로서 눈에 띄지 않다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성공했지요. 지금 한국에서 뭐 방송극작가로 아주 뭐 톱 A급이라 그러대. 그다음에 고대 법대 그 유명한 가수 김상희, 그것도 우리 같이 61학번이고. 그 여자는 법대니까 우리하고 인제 완전히 단과대학교는 틀렸지만 학교에서 자주 봤지. 그 때 우리 고대 중에서 비교적 그래도 연예계에서 아주 톱 클래스 자리도 오르고 그런 사람도 많고. 뭐 텔레비 탈렌트 가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때 학교에 연예활동 그런 게 참 많았어요. 선배 뭐 후배. 뭐 손숙이 그 사람두 한때는 연극배우로 아주 그냥 톱으로 올랐죠. 결국은 김대중 정부 땐가? 환경부 장관까지 했지 아마. 손숙이라고, 호리하고 키가 크고.

## 광부로서의 초기 정착 생활

---

그래서 결국은 인제 이러저러해서 외국에 나가서 좀 내 꿈을 좀 펴고 싶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든 무슨 뭐 보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막연한 심정이고. 그래서 그때 극구 외국 나가는 것을 말렸는데, 내가 뿌리치고 그랬죠. 내가 하튼 이 한번 결심 헨거니까, 가서 그냥 오는 한이 있드래도 일단 가보긴 가봐야 되겠다. 내 고집 부러가지고 내 인제, 70년도 7월 23일에 여기 뒤셀도르프(Düsseldorf) 공항에 도착했지. 도착해가지고 저 루르(Ruhr) 지방에 겔젠키르헨(Gelsenkirchen)이라고 지금 저 에센(Essen) 옆에, 바로 인접해 있는 도시. 에센하고 도르트문트(Dortmund) 사이에 있는 겔젠키르헨이나 거기가 일종의 탄광촌이죠. 거기, 거기,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3년간을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 나같이 막연한 꿈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 지하에 들어가서 노동을 시작하는데. 우리는 그때 한국에서 나갈

때 아 서독은 뭐 광산이 전부 기계화 돼가지고 전부 기계로 하기 때문에 버튼만 눌러서 되고 [웃음] 우린 그런 참, 그런 거 환상에 젖어서 갔었다고. 근데 서독에 와 보니까 광산에 있는 기계들이 전부 서독인들 체구에 맞게 만든 기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 동양, 한국 사람들 그 체격에는 전부가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력적으로 굉장히 견뎌내기가 힘들었죠.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때, 진짜 삼 한번 안 잡아보고 매일 다방에서 그냥 그 음악이나 듣고 그러다 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특히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은 한국에 말하자면 고급 실업자죠? 전부 대학교 졸업 해가지고 말이야, 뭐 그때는 정말 지금하고 달라. 요즘 한국에 실업이 많다고 그러지만, 저 일만 헐라 그런데만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죠. 그러나 힘든 일 않고, 돈은 많이 받을라 그러니까 없는 거지. 근데 그 당시에 우리는 참 다 암담했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은, 길가를 지나가면 순경한테 걸려가지고 이 머리 너무 길다고 가위로 잘리고, 여자들 가다가 스커트 너무 짧다고 자로 재고 이런 때였으니까. 그게 얼마나 이 사회적으로 이게 숨이 막혔겠어요, 특히 젊은이들한테. 응? 그리고 방송도 이렇게 복장이 노출이 많으면 방송 출연도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예를 들면 무슨 뭐 지금 요즘 그루페(Gruppe, 그룹)들, 뭐 아이돌들 이름이 무슨 뭐 전부 영어로 괴상한디. 그때는 그룹 이름도 영어로 못 지었어요. 그래서 그룹 이름을 전부 다 한국말로 고쳐쓰야 돼. 그러니까 군사정부에서, 이 분위기 자체를 갖다 공포 분위기로 조성을 해가지고 아주 획일적으로 통제, 처음서부터 끝까지 전부 통제라. 일종의 그 무역도 통제죠. 사실 박정희 정권에서 국가에 큰 경제개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전부 다 강제였죠, 강제. 총, 칼로.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한국 경제가 내가 보기엔 그래요. 이 독일 같이 중소기업이 주축이 되가지고 이렇게 바탕에 튼튼하게 주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진 경제가 아니고, 그냥 그 국가에서 공권력으로 그냥 무조건 때려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그 IMF같은 거,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초가 안 닦여진 거지. 전부 다. 그러니까 이 경제개발이, 경제 발전이 전부 대기업 의지로 된 거거든, 대기업 의지로. 그 한국의 중소기업이 전부 지금 어렵잖아요.

독일 보세요. 독일은 중소기업이 뭐든지 중추가 돼 있어요, 중소기업이. 한국같이 무슨 뭐 몇,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들이 경제를 주도하는 게 아니고 독일은 전부 중소기업들. 여기 지금 독일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나도 그 한때 교회에 파이프오르간. 내가 그걸 배우고 싶었어요. 왜 한국에 파이프오르간, 그때 당시 명동성당에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드라고. 시 민회관에 하나 있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배울라고 거기에 아우스빌둥(Ausbildung, 직업교육)

이지, 가서 가 보니까. 파이프오르간 하는 게 대대에 내려와서 파이프오르간을 치자 그런 거예요. 파이프오르간은 대량 생산이 안 돼, 전부 손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파이프를 전부 다 손으로 깎아서 나무를 까. 그러니까 파이프오르간 배우러 가니까 맨 처음 6개월간은 저것만 시켜요. 대패질만, 그리고 용접하는 거. 왜냐면, 파이프가 인제 나무로도 만들고 이 알미늄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용접해서 인제, 예를 들면 파이프오르간 하나에 파이프가 4천 개가 들어가는 데, 낮은 도음을 내는 파이프는 높이가 4미터, 5미터가 되는 거예요. 보통. 거긴 아주 저음, 도 소리가 나고. 여기는 아주 고음 도 소리가 나는 파이프. 고 파이프관이 불과 10센티 미만이야. 똑같은 ‘도’음이 나는데 여기서 5미터나 되는 파이프에서 아주 저음 ‘도’ 소리가 나고, 여기는 아주 고음. 그런 파이프가 4천 개가 모여가지고 그 나오는 소리니까, 말하자면 교회에서 그 파이프를 치면은 천상에서 천사가 노래하는 거 같이 웅장한 음이 나오잖아. 그 파이프를 제작하는,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독일 경제가 이런 식이라 이거지. 모든 게 그런 중소기업 일이 모아가지고 탄탄하게 이루어진 경제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기업, 예를 들면, VS(비디오 팩토리) 전부 이런 게 다 시골에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세계 유명한 기업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울 대도시에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전부 시골 그냥 거길 찾아가, 한국에서 온 그 바이어들이 놀래요. 이게 유명한 기업이 이렇게 시골에 있냐고, 전부 시골에 분산돼 있다고 여기는. 한국같이 이게 서울에 집중된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교육도 물론이고, 이 기업도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인제 내가 지금 얘기가 자꾸 옆길로 자꾸 새는데 [웃음] 이게 힘들어요. 이게, 허다 보면은 딱 간추려야 되는데.

**관찰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거는, 그 당시에 한국에 정치상황, 경제상황이.

## 광산에서의 작업과 어려움

여기 오셔가지고 탄광에 기계들이 다 독일인 체구에 맞게 되어서. 예, 그래 오케이, 예, 예. [웃음] 다시 인제 회귀를 해서. 그 들어가니까, 단 평생에 나쁜이 아니 대부분 그럴 거야. 평생에 삶을 처음 들어보는 데, 결론적으로 딱 말하면은 거꾸로 먼저 얘기하든, 여기 독일에서 광부를 마치고 캐나다랑 미국으로 간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성공한

그 근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3년간 광산 생활하면서 그때 그걸 참고 견뎌낸 그 의지, 그게 전부 그 밑바탕이 된 거예요. 여기서 광산에 작업을 3년을 마치고 갔다 그러면은 3년 동안 거기서 버텼다 그러면은 일단 그 사람의 의지, 그 사람의 의지력은 정말 일단 시험대에서 참 통과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지하 1,000메타를 내려잡니다. 지하 1,000메타를 내려가면은 1,000메타를 저걸 타고 내려가요, 그 샤프트(Schacht, 수갱, 수직 갱도)라고 그러는데 여기말로, 에레베이터 풀이죠? 전부 다 복장을 인제 하고 내려가는 데, 이거 작업복 입고 신발 신고, 이게 장비가 아마 글썽, 전부 해가지고 허리에 차면 한 20키로는 될 거예요. 그럼 20키로 장비를 하고 1,000메타를 그 인제 에레베이터를 타고 내려간다고. 1,000메타를 내려가면은, 거기는 환해요. 꼭 무슨 저 한국의 어디 기차역 같아, 대낮같이 환해. 거기서부터 인제 이 철로가 짝 나 있는 거야 복잡하게. 이쪽으로 가는 철로, 이쪽으로 가는 다른 철로. 거기 내려서, 그 철로로 가는 그 일종의 기차 같은 거죠? 맨 앞에 인제 끌고, 나머진 연결해서 이렇게 쭉 그래. 그걸 타고 작업장까지 긴 데는 30분~40분 뒤 이렇게 타고 간다고. 거기서면은 이제 내리면은 벌써 지열이, 지열이 탁 숨이 확 맥혀요, 일단. 거기서, 거기부터는 인제 껌껌혀요. 그러면은 지열이 아주 심헌 데는 뭐 40도~42도 이렇게 된다고. 지열이. 가만히 있어도 땀이, 그 무거운 장비를 매고, 이게 전부 다 두꺼운 작업복 입고 이 작업화 신고, 가만히 서있어도 그냥 땀이 비 오듯 흐른다고. 거기서 인제 8시간, 7시간 그 탄이 계속 내려오면은, 그니까 물론 기계로 혀요. 기계를 탄을 파가지고 큰 관으로 계속해서 날러가잖아? 그러믄 이게 오면서 다 옆으로 떨어지고 그럴거 야냐. 이 옆에서 그걸 삽으로 다 퍼서 올려야 되는 거야. 그걸 손으로 해야지 기계로 할 수가 없잖아 그런 거는. 그리고 이 퍼서 또 이 그 저 큰 석탄 차에다 이렇게 퍼 날르고. 그다음에 또 이 무슨 철로를 새로 인제 개설을 현대든가. 탄을 파 들어가면 그 탄을 운반하기 위해서 이 철로를 계속 또 나가. 그 철로만 놓는 그 작업하는 사람이 있고, 앞에서 이 트랜스포트(Transport, 운송)를 허다가 흘르는 탄만 삽질해서 탄차에다 실어 날르는 사람, 전부 작업이 분업화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 인제 그 날 재수가 나빠가지고, 나쁜 그런 작업조건에 걸리면은 진짜 7시간 8시간을. 이게 인제 탄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이 탄가루가 날라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1메타 전방이 안보여요. 1메타 앞에 있는 사람이 안보이고 이 철모에 쓴 이 램페(Lampe, 전등), 고거에 비추는 앞쪽 거기만 불이 비치니까, 거길 보고 인제 삽질을 헨거거든. 그러믄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비 오듯 허는데, 위에 탄가루 떨어지거나 그러믄 물방울 같은 게 이게 탁 몸에 쫓히면요, 그게 파랑게 해가지고 앉아요. 그게 광부들 등에 보면 전부 다 그런 쪼그만 돌멩이, 날카로운 돌멩이 맞아서 난

자국이 다 있다고. 왜냐하면 더위를 못 견디겠으니까 다 옷통을 벗는다고. 옷통을 벗고 나중에는 바지도 벗고 인제 팬티 바람에 이제 신발을 신어야지. 만약 잘못 되든 그 인제 위험하니까. 작업화, 그 작업화 특수 작업화예요. 거기 저 이 쇠가 들어있는 그런 작업화. 그러니까 팬티 바람에 작업화만 신고 이 삼질헌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그렇게 허다 보면은 이 온몸이 땀이 나가지고 이 작업화에 땀이 발이 끈적거리요. 땀이 다 작업화로 들어갈 거 아냐? 그런데서 6시간 삼질을 해야 되거든. 그냥 공기가 뭐 1메타 앞도 안보여, 탄가루 천지지. 그러니까 작업을 마치고 인제 전부 다 거기서 다 만나요. 맨 처음에 에레베타 타고 그 내려간데 있죠? 거기가 인제 정거장이라, 이 하웁트 반호프(Hauptbahnhof, 중앙역)이지. 이 작업 끝나면 전부 인제 거기로 다 모이는 거지.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 얼굴이 썩카망고 눈하고 이빨만 하얗게 보여. 누구여, 누구여 어찌고 김 형이여? 박 형이여? 얼추 물어보지. 누군지도 모르고. [웃음] 거기에 인제 불은 대낮같이 흰하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지. 눈 허고 이빨 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보고 다 착각을 하지.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한다면은, 나보고 동료들이 그러지 “저 친구 뭐 어쭈, 저 친구 먹기 살기 위해서 온 친구는 아니고 저거 인제, 심하게 표현허든, 저 친구 저 바람 들어가지고 곁땀 들어가지고 여기 외국 나와서 사치에 허영심이 붙어가지고 여기 왔다” 나도 그런 쪽에 분류 현대론 그런 축으로 분류가 충분히 될 수가 있지. 나보고 전부 그랬어요, 저 친구 많이 가야 한 달 간다. 왜냐면 중간에 도중하차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힘들어서. 한 달 두 달 사이에 벌써 몇십 명 도중하차야. 아이구 못 있겠다고 그러고, 보따리 싸가지고 귀국하는 사람, 어디 무슨 다른 나라로 간 사람들. 오지로 가고 하루아침 뭐 어디 없어지고. 심지어는 이북으로 간 사람들이, 이북으로. 나중에 행방불명되는데 나중에 보면 이북이 있대, 이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거기 여기 광산 진입하면 우리 하임(Heim, 기숙사)에 한 200명이 있는데, 200명이 별 사람들 다 있지. 전직 깡패, 전직 무슨 교사, 전직 경찰관, 전직 뭐 하여튼 전직 사기꾼, 전직 노름꾼 뭐 별, 한국에 별 잡다한. 학벌도 대학교 출신서부터 국민학교 못 나온 사람까지 다요. 그러니까 그런 집단사이에서 나는 그때 그랬어요. 아까 그 똑같은 얘긴데, 집에서 이렇게 말리는 거 뿌리치고 왔는데 가서 한두 달 있다가 못 견디고 오면은 주위에서 친구들이나 집에서 부모 형제들이, “거 봐라, 니가 그렇지.” 이제 그럴거 아냐. 난 그게 그, 오기가 생기드라고. 내가 이대로 한번 버텨보려고 3년간을. 이제 한 몇달 저도 적응이되니까, 할만해. 그리고 또 월말이면 봉급표 나오면은, 봉급표. [웃음] 그니까 인생에 태어나서 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처음으로 내가 노동을 했든 뭘 했든 간에, 순전히 내 자력으로



로 처음으로 그런 큰 돈을 인제 만져보는 거잖아요. 월말에, 인제 봉급이 나오면은. 근데 거기서 느끼는 거 어떤 그 성취감, 희열감 그런 것도 있고.

**그때 한 얼마쯤 벌었습니까?** 그때 여기서 진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에서 나기전서부터 그런 얘기를 허더라고 독일에 갔다 온 선 그런 사람들이. 독일에 가면은 봉급이 똑같은 일을 해도, 기혼자하고 미혼자하고 차이가 많고, 똑같은 일을 허는데도. 똑같은 시간을 일을 해갖고 똑같은 직종의 일을 했어도. 그다음에 또 기혼자 중에서도 애가 하나 있는 사람하고 둘 있는 사람하고 셋 있는 사람하고 봉급 차이가 많드라. 그래서 한국에서 사람들이 미혼자들이, 가짜로 호적에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많고. 진짜 호적에 올려서 결혼을 안고 호적만 올려서 그렇게 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아예 호적을 가짜로 위조를 해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나는 그때 그랬어요. “야, 그까짓 거 돈 뭇푼 더 받을라고 말이야, 멀쩡한 놈이 무슨 뭐 기혼자라고.” 뭐 난 그런 건 안 한다고 그랬어요. 독일에 와서 한 몇 달 지나 보니까, 아니 나하고 같은 그 조에 끼가지고 똑같은 일을 허고 오는 저 친구는 봉급표를 보니까, 브루토(Brutto, 세전)말고 네토(Netto, 순수익, 세금공제후), 네토만 보는 거지 은행에. 그때는 우리가 네토, 브루토의 개념이 없지만 지금 생각하면 브루토 얼마지는 관심이 없고, 얼마를 내가 수령허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잖아. 수령액. 그니까 우리 브루토는 뭔지도 그때 모를 때야. 그래 똑같이 일했는데 이 친구는 1,100마르크 받는데 나는 758마르크밖에 안 되는 거야. 굉장히 큰돈이라. 이게 한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고 3년간을 계속 이렇다고 생각하니까, 아 이게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 [다 같이 웃음] 그래서 71년도 그때 이제 총선이 있기 때때 70년대, 70년 7월 달에 와가지고 한 70년도 연말까지 있다가 아이 안 되겠어, 이대로 3년간을 너무나 억울해. 그래서 내가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인제 편지를 해가지고 야, 옛날에 서소문에 대사관이 쪽 많이 있었드라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소문에. 서소문 그 대사관 고런 곳에 가가지고 아무렇게나 그 호적 그거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애 셋 있는 걸로 올려가지고 호적등본 좀 보내라 그랬다고. 그래서 보내 왔는데 내가 봐도 이거는 너무나 엉성한 거야. 이걸 가짜라, 내가 봐도 알겠는데. 그럼 그 호적등본을 어떻게 해야 되나면은, 대사관에 보내서 대사관에서 인제 이거 공증을 해줘야 돼. 대사관에서 스탬프를 찍어줘야 인제 그 서류를 광산 그 페어발통(Verwaltung, 행정과)에 제출허면은 인제 저거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인제 서류가 왔는데, 이걸 한 달 또 갖고 있어야 되네. 겁이 난다고. 대사관에서 보내서 거기서 이거 가짜서류 판명이 나가지고



[웃음] 공문서 위조 돼가지고 또 뭐 어떡해. 근데 그때 마침 70년 선거 때기 때때, 대사관에서 나쁜이 아냐, 그런 사람이 많이왔어. 대사관에서 알면서도 그냥 따따 넘겨줬어요. 이거 뭐 서독정부 돈 뺏어 먹는 거지, 우리 국가에서 [웃음] 먹는 건 아니니까 다 알고 이거 찍어줬어요. 그래서 그걸 제출하니깐, 지금까지 밀린 거 한꺼번에 해가지고 그냥 목돈이. [웃음] 지금까지 그 소급 돼가지고 다 나오는 거지. 그런담 또 한국에서 드라이 킨더(Drei Kinder, 세 아이) 애 아버지다. 그런데 올 때 그 서류를 잘, 그때만 해도 영성했어요. 참 호랑이 담배 물던 시절, 그때만 해도 우리가 경차를 사가지고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사진만 붙은 증명서만 보여주면 됐어. 주민등록증, 제대증 이런 거 보여줬다고. 폴리차이(Polizei, 경찰)가 검문하든. 이거 한국 면허증이다. 애들 다 그냥. 그렇게 영성하게 했어요, 그때. 호랑이 담배 물던 시절. 지금은 어렵도 없지. 그러니까 독일, 그 광산 페어발통(Verwaltung, 행정과)에서도 그냥 그대로 받아준 거야. 그래서 3년간을 인제 드라이 킨더의 아버지로 인제 봉급을 타 먹었어요.

**그렇게 댔을 때는 얼마, 네토가 얼마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인제 나중에 자꾸 갈수록 봉급이 올라가는데, 내가 그 저보러 맨 처음에 총각일 때 내 기억으로는 그때가 800마르크 정도 받은 거 같아요. 그때 800마르크면 그때가, 내가 환율을 정확히 기억해, 그때 달러하고 환율이 4:1이었어요. 1달러가 4마르크였다고. 그걸 확실히 기억해요. 그러니까 800마르크면 200불밖에 안 되는 거야. 그때 200불이면 큰돈이에요. 아까 그러잖아요, 그 공무원 봉급이 그때 만 오천 원, 이만 원 헐 때고. 그거 올리니까 인제 뭐 1,100마르크, 뭐 심헐 맨 1,200마르크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네토가. 드라이, 드라이 킨더로 해서 올리니까. [웃음] 그래 인제 한국 광부들이 그 참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래 인제 3년 후에, 아까 말한 거와 같이, 계약이 끝나고 인제 한국 귀국을 앓고 여기서 눌러 인제 살고 싶은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호적이 독일에 있는 이 서류에는 드라이 킨더 아버지로 돼 있잖아. 결혼을 어떻게 해 이거. 그때서부터 인제 마누라를 죽이는 거야, 그때서부터 [웃음] 한국에 있는 부인 사망신고가 그냥 줄을 잇는 거야. 그 독일 암트(Amt, 관공서)에서. 아니 왜 한국 사람들 부인들이 왜 그렇게 많이 죽냐 이거야 별안간. [다 같이 웃음]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독일에 광부로 가있는 사람들의 프라우(Frau, 부인)들끼리 친목교를 만들어서 배를 타고 여행을 허다가 배가 침몰해가지고 [웃음] 광부 부인들은 뭐 한 30명이 죽었다, 이런 말도 허고 다들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사관에 가서 인제 사망신고 가짜 올려가지고 공증을 받을래니까 이제 대사관에서 뵈히 알지. 어떤 친구는 대사관에 영사실에 들어가 영사 보

자마자 “아 영사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편지가 왔는데 지난주에 우리 집에서 마누라랑 애 새끼 둘이랑 연탄가스 중독이 되가지고 하룻밤에 전부 죽었습니다.” [웃음] 이렇게 사망신고 한 거야. 그런 다음 막 결혼들 하고 그랬어요. 결혼하면서도 인제 애를 먹는 거라. 인제 가짜로 올린 마누라를 인제 죽여야 되잖아. 그래서 전부 그게 70년대 중반, 80년대 초반까지 거의가 다 잘 정돈이 됐죠, 정리가 인제. 결혼할 사람 결혼하고, 미국 갈 사람 가고 캐나다를 갈 사람 가고 귀국할 사람 귀국하고 인제. 뽕뽕이 헤어진 거지. 그래서 이 밴드도 아까 타이거스 밴드라는 것도 내가 그거를 71년도에. 나는 한국서부터 음악을 하고 싶었으니까.

## 가톨릭단체에서의 음악활동

1971년도에 이게 인제 애초에 뭐로 시작이 됐냐면, 내가 71년도에 가톨릭 영세를 받았어요. 독일 와가지고. 그때 인제 쾰른 교구에서 한국의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쾰른 교회, 그때는 독일 교회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특히 가톨릭은 이게 한 파(派)였으니까 총 본분은 로마 교황청이 있고. 신부들은 전부 다 그 교구에 속하면은 이게 세계적으로 딱 체계가 잡혀 있는 거니까, 가톨릭은. 기독교하고 틀려가지고. 그때 인제 쾰른에 그 한국 사람을 위해서 그 선교하고 미사를 드리는 신부님이 그때 와 계셨다고. 박 신부님이라고. 그 양반이 여기서 이 루르(Ruhr) 지방도 광산촌에 전부 다 가톨릭 신자들 전부 다 저걸 해줬잖아. 그때 인제 그때 그 영세를 받은 것도 이 가톨릭 신자들이 그 간호원들하고 같이 주말이면 뭐 세미나를 하고 뭐 술롱(Schulung, 교육) 해가지고 항상 어디 유겐트하임(Jugendheim, 청소년 복지회관)에 모여서 간호원들하고 이게 접촉 할 시간이 많아, 그래갖고 보니까 야 이거 간호원들 새기는데 가톨릭 신자들은 아주 그냥 조건이 유리한 거야. 그래서 난 사실 그 젊은 나이에 야, 거기 가면 뭐 간호원들이 있냐? 가톨릭을 영세 받음, 또 내 방에 있는 친구가 가톨릭 신자데 그 친구가 거기 인제 성신교회 회장하면서 “야, 너도 영세 받으든 뭐 임마 어찌구저찌구...” 그래서 인제 뭔지도 모르고 영세 받는다고 교리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엉터리로 해서 70년대 영세를 받았는데. 그때는 그 독일말로 CAJ, 체-아-웃트라고 크리스트리헤 아바이터유겐트(Christliche Arbeiterjugend, 가톨릭노동청년회), 한국말로 허믄 인제 가톨릭노동청년회이죠? 가톨릭노동청년회라는 조직이 세계적인 조직이라고요. 한국에도 그게 굉장히 활발히 선교활동을 했죠. CAJ안에서 한국 사람들끼리 조직을 해가지고, CAJ 조직을 자꾸 넘겨 줄 때예요.

그래서 이거 가톨릭 신자들끼리 나같이 지금 영세를 받기 위해서 예비교리를 받는 사람들하고 이미 영세 받은 사람들 있고 그래가지고. 음악에 좀 “야, 너 이렇게 하면 우리 음악을 연주해달라.” 그래서 우리 그 CAJ 조직을 확대해 나가는 그 활동의 일환으로서 밴드가 있으면 좋지. 어디 세미나 할 때 끝나면 인제 예배시간에 밴드 연주하고 놓고 그러니까. 그래서 CAJ 투사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투사.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가톨릭노동청년회 투사. 그 투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가톨릭노동청이라 그걸 붙여오는 JOC조(Jeunesse ouvrière chrétienne, JOC. 영어로는 Young Christian Workers, YCW). 독일말론 CAJ고. 그래서 그 조직에 일환으로써 이런 밴드를 만들어서 우리 가톨릭 CAJ를 이렇게 조직을 확대해 나가는데. 거기 그 CAJ 회장은 그 지금 염수영 씨라고. 회장을 한국 사람으로 뽑고. 거기에 사무장이라는게. 사무장은 독일 교구에서 지원을 해줘요. 독일 교구 페스트 안게슈텔테(Festangestellte, 정식채용인)야. 그 독일 교구에서 봉급을 주고 인제 한국 사람들에서 채워서 조직을 확대해 나가는 그 업무를 맡는거야 그래서 차도 주고, 차량비도 그 차, 저 뭐야 운영비도 주고 보험도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CAJ 사무장을 하면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뭐 미국 대통령도 안 부러운 자리야. 얼마나 이게 신선놀음이야. 그래 그 친구는 그 차 타고 다니면 이 전국을 독일 돌면서 간호원청에 다니면서 간호원들, 가톨릭 신자들 모아놓고 이거 CAJ 들라고 막 선교를 하고 그러는 거라고. 그래서 인제 그 CAJ 사무장하던 분이 지금 안행근 씨라고 밀렌(Miellen)에 사는 분인데, 골프 회장도 했었고. 그 양반이 또 음악을 좋아해. 그래서 그 양반이 뒤에서 막 후원을 해가지고 타이거스라 밴드를 만들었어요. 처음 멤버 네명이 다 CAJ 가톨릭노동청년회 그 투사들이라. 가톨릭 그 선교의 그 하나의 방법으로써 그 밴드가 출발하게 된 거예요. 결국엔 CAJ 사무장 그분이 막 뒤에서 후원해줘, 그래서 72년 뮌헨올림픽 때 대사관에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72년도 8월 몇 일에 뮌헨공항에 올 한국 올림픽 선수가 도착하는데, 그때 당신 밴드를 뮌헨에 가가지고 공항에서 환영식 할때 애국가를 좀 불러주고 그날 밤에는 환영파티를 큰 중국집에서 하는데 밤에 연주를 해달라고. 그때 너무나 일손이 부족했어요. 한국에선 높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때 누가 왔냐면 IOC위원이 지금 돌아가신 공화당의 김택수, 그 양반이 IOC위원 할 때고. 그런 분들이 다 오니까 이 대사관에서는 접대할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는 거라. 우리가 도저히 안되니까 그때 돈으로 2,000마르크를 줄테니까 당신네들이 이 돈을 가지고 알아서 켈젠 키르헨서 뮌헨이면 거리가 한 800km 가까이 되죠. 그 우리는 뮌헨이라는건 지금 뭐 독일이지만 그전엔 한번도 못 가보고 그쪽으로 진짜 엄두를 못 낼때지. 이 돈을 가지고 당신네들

이 뭐 어떻게 해서든지 와서 뮌헨 공항에 몇월 며칠 몇시에 거기에 나와서 아까말한대로 그 애국가 불러주고 밤에 파티. 이거 두번만 해달라.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야. 우리가 그래서 결국에 아까 CAJ 사무장 안행근 씨, 그분한테 부탁해서 그분이 가톨릭 신자들 다 알고, CAJ 조직을 갖고 있으니까. 뮌헨에서 50킬로 떨어진 바쉴부르크(Wasserburg)이라는 쪼끄만 소도시, 거기 한국 간호원들이 한 20명이 한 병원에 이렇게 있었다고. 그 양반이 글루 전화해가지고 여기서 좀 지금 한국 밴드가 몇월 며칠날 가니까 지금 좀 숙소들 좀 마련해달라고. 숙소는 인제 시골이기 때문에 그때 많았어요. 시골에 가면 왜 시골에 그 호프집에 가면은 호프집에 딸린 지금 그 한국의 민박집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모텔 비슷하게 운영하는 집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알아봐가지고 우리 밴드 4명에다가 그때 뒤스부르크(Duisburg)에 밴드가 또 한 팀 있었어요. 우리는 인제 전자악기, 기타, 전자 오르간(Organ), 드럼, 노래 이런 게 주로 댄스파티 하는 데 쓰는 그런 음악을. 이 친구들은 주로 브라스 스타일이야, 트럼펫, 색소폰. 관악기로. 그러니까 인제 공항에서 애국가를 연주 하는 데는 그 친구가 필요하고, 밤에 실내에서 파티를 하는 데는 우리가 필요한 거라. 그래 인제 그 팀들은 이미 근데 인제 막 깨어지기 직전이야. 팀들이 다 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팀하고 우리팀하고 인제 합류를 해서 합동팀을 만들어가지고 인원이 그때 8명인가 그럴꺼야. 우리팀 네 명, 그 팀 네 명, 8명. 8명이 인제 차를 봉고차를 빌려가지고 그 뮌헨을 갔어. 뮌헨 시내를 숙소를 구할 수가 없고. 전부 다 풀(voll, 꽉찬)이니까. 그거 50km 가야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50km에서 숙소를 마련해주고, 식사는 그 간호원 그 기숙사 식당, 구내식당에서 자기들이 간호원들이 뭐 개네들이 해준다고. 그분들은 독일에 와가지고 한국남자를 처음 보는거야. 한국남성을, 특히 그 20대에 자기들하고 그렇게 연령이 맞는 그런 저거. 그러니까 뭐 자진해서 요리해주고.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서 그 공연을 보고 공연이 끝나고 바로 안 오고 거기서 논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동네에서 연주를 한 번 해가지고 또 숙박비도 그 주인이, 공연한 걸로 대신 해내고 해가지고 재미있게 놀다 왔어요. 72년도에 뮌헨 올림픽 때. 그렇게 오고 74년도에 우리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팀이 전부 다 깨졌죠. 각자 인제 귀국헌 사람, 뭐. 그 밴드는 완전히 깨지고, 교민사회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임시적으로 소위 인제 프로젝트 밴드 비슷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음악을 해왔죠.

## 한국으로 귀국의 좌절과 체류 생활

그리고 이제 그 73년도 이후에 나는, 독일에서 이 계속해서 체류를 할래든 천상 방법이라고는 결혼을 하는 겁니다. 한국 간호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여기서 가정을 꾸미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때 대부분 남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했죠. 그런데 나는 그때 아휴, 여기 독일에 체류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거는 참,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73년도에 계약이 끝나고 귀국혈이라고 그랬는데 72년도에 유신이 나가지고, 우리 형님이 유신이 나니까 또 원내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 내가 귀국을 해봤자 전혀 뭐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 군사독재정부의 반대하는 정치인이 집안에 있다 그러든 그 집안이 형제들은 전부 다 불이익을, 불이익을 당했기 때때 내가 계획이 이제 틀어진거죠. 73년도에 계약끝나고 귀국혈라 그러는 게. 73년도 이후에 79년도, 지금 내 아내를 만날 때까지 거의 뭐 5~6년 동안 여기서 그냥. 하튼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여기서 그냥한 말로 말하자면 허송세월 헛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볼까 하고 그 쾰른 대학교에 그, 추라송(Zulassung, 입학허가서)을 내가지고 이제 입학했죠.

아, 73년에 쾰른대학에? 아니지, 시작한 거는 아니죠. 그때가.

그럼 체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체류 허가가 그때 예, 나 그 얘기를 할게요. 73년도에 이제 나 같은 경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죠?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 안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때 그 본(Bonn)에 크로이츠베르크(Kreuzberg)라고 아시는지 몰라, 크로이츠베르크 그 산으로 올라가면 헤르만 브레스캄프라는 독일 분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뭐냐 하면은 그 당시, 개발도상국가, 후진국을 독일정부에서 지원 하는 거.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맡아가지고 후진국, 미 개발도상국에서 독일에 와 있는 사람들 모아서 기술 연수를 시켜서 기술 습득을 시킨 후 귀국해서 그 나라하고 기술을 향상을 하는데 종사하게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 그래서 이 양반이 그때 거기에 나 같은 경우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별떼같이 모였어요. 그럼 거기에 뭐 한 30~40명 가량 수속해주는 시설이 돼 있어요. 거기에 우리 한국뿐이 아니고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였어, 뭐 브라질에서도 왔고 인도에서 와 있고 거기 가가지고 각자 여기서 무슨 기술 배우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개별 면담을 해서 본인 희망대로 해서 이제 그 교육을 시켰다고.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내가 거기를 찾아갔죠. 나 같은 경

우 한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 한 20~30명 됐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까 말한 대로, 거기서 내가 파이프오르간을 제작하는 거 기술 배우고 싶다. 그래서 거기서 인제 그 파이프오르간을 제작하는 그 기업으로 나를 인제 보내서, 거기서 한 뭐 6~7개월을 다녔나? 그런데 다녀보니까 6개월 계속 목수 일만 시키고 그러드라고. 그러니까 독일 교육이 그래요. 아주 기초서부터 탄탄히, 3년간을, 3년간을 갖다 그 파이프 제작현 기술을 가리킨다고 소위 인제 아우스빌둥(Ausbildung, 직업교육)이지, 3년 마치고 인제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면 인제 거기 소위 독일에 마이스터(Meister, 장인) 제도라고 그러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마이스터가 되면은 인제 내가 그 자격증을 갖는 거지. 난 파이프오르간을 할려면 음악적으로 뭐 조율하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맨 마지막 최종작업이고, 매일 6개월, 옛날에 한국에서 중국에서 무슨 산에서 무예를 배워 가면은 3년 걸리는 거 반만 절에서 시킴, 시키는 대로 해라, 바로 무술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이라. 6개월 다니다가 때려쳐 버렸어요. 이걸 무슨 가서 매일 대패질만 하고 청소만 하고 말이지, 근데 사실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야. 모든 독일에 마이스터 제도가 그래요. 요즘 아우스빌둥이 3년인데 자기가 하는 것 따라서, 기초적으로 또 해야 되니까. 그래 때려쳐, 쳐버리고 그다음서부터는 방탕생활한 거죠.

**근데 때려치운 이후에 체류 허가가 계속 있었습니까?** 체류 허가는 그때 직업교육으로 난 게 있었죠. 그다음 단계가 여기 재독 교민총연합회 회장님하고, 대사관에 이상구 공사하고 그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그때는 광부들이 계속 올 때니까, 광부 오는 케이스에 음악하는 밴드들을, 그 연주인을 일차적으로 편입을 시켜서. 독일에 와서 광산에 근무하면서 주말에는 교민들을 위한 공연, 말 그대로 위문공연. 또 어떻게 심하게 표현하면은 그 정부를 위한 정부 선무공작? 그러니까 나보고 한국 가서 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을 광부로 지원하게 해서 독일와서 밴드 활동하라는 거야. 그런 일환으로써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조비조(sowieso, 어차피)로 이렇게 광부들이 계속 매달 독일에 올 때니까. 그래서 나는 그때만 해도 그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독일 아겐투어(Agentur, 음악회사), 흥행사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유럽에 투어도 하고. 그런 걸 나는 상상을 했어요. 여기 동양인 밴드가 없기 때문에. 그건 내 하나 꿈이었고, 아마추어들 모아가지고 참 불가능한 애긴데.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그다음 차선책으로 허다못해 우리 독일 교민들 행사가 많았거든. 결혼식이다, 한인회 송년회다, 8·15 경축 체육대회다, 그런 데 행사가 많으니까. 그런 데라도 밴드가 참 심심치 않게 연주할 기회가 있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그 임무를 띠고 내가 귀국을 했죠.



그때 언제였죠? 그때가, 76년도예요. 76년도.

그럼 73년부터 76년은 특정한 직종, 직업이 없이 사셨군요. 예. 아우스빌등한다고 그것도 몇 개 허다 때려지고 공부한다고 쾰른대학교 해가지고 거기도 또 뭐 언어 그거 몇번 나가다 그만두고. 그래서 3년간을 갖다 말하자면 완전히 방탕하게 살았지. 그동안에 내가.

쾰른대학에서는 뭘 하고 싶었어요? 나는 한국에서 사학을 전공했기 때때, 쾰른대학에서도 인제 동양 근대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내 기억으로는 그때 그 전공과목도 못 들어. 맨 처음에 인제 교양과목부터 해야 되니까 진짜 내가 뭐 강의실에 한번인가 두 번인가 갔나, 나이가 벌써 30대 중반이 됐는데, 내가 원래 뭐 차분히 앉아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웃음] 공부가 싫어서 독일에 왔든 거. 내가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간 이유가 뭐냐면, 간단해요. 내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서울 중앙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내 담임선생님이, 니 실력으로는 집에서 고대 연대 서울대 아니론 안 된다고 하니까 사학과를 원서를 넣어 보면 독일말로 knapp, vielleicht geht's, vielleicht geht's nicht.(간당간당,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다는 거야. 난 원래 그 수학이나 이공계통 난 질색이니까. 그래서 난 그때 국문과나 뭐 영문과나 뭐 고런 게 가고 싶었는데. 인제 고대 문리대 중에서 문과, 이과는 제외하고 그때 사학과 영문과 국문과 철학과 불문과 독문과 아마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언어도 독문이나 불문은 그때 전혀 뭐 생소하고, 영문과 가서 영어공부를 좀 하고 싶고 그랬었는데, 영문과는 경쟁률이 셋어요. 하여튼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이, 니 실력으로 사학과를 원서를 넣으라고 했는데 그래 나는 합격했어요. 그때 철학과는 굉장히 쉬웠어요. 고대 철학과는 제일 커트라인 낮았어요, 하지만 철학과는 전혀 그런 쪽으로 안 맞고. 그래서 고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내 실력으로 가능성 있는 과를 고르다보니까 사학과가 걸린 거. 그래서 사학이 관심 있어서 간 게 아니니까 그 당시는 대부분이, 대학교를 가는 게 무슨 학문을 공부하려 가는 게 아니고 좌우간 대학교를 졸업을 해야, 그나마 졸업장이 있어야 그나마 뭐 취직되고 사회에서 그래두 좀 이렇게 활동하고, 어디서 인정을 받고. 결혼 조건에도 그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집에 부모들은 대학 중에서도 2류, 3류는 싫고. 그거는 뭐 인정을 안 해주고. 그때 사실 우리 때는요, 2류, 3류는 원서만 내면 들어갔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데는 가나마나 허니까. 서울대 가면 제일 좋지마는 그건 뭐 실력이 워낙 낮고, 그래서 서울대 들어가면 학비가 저렴하다며.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도. 그래 서울대 안 되니까 고대, 연덴데, 우리 집이 그



때 제기동에 살았어요. 바로 고대정문 앞에. 그리고 내 취향에 연대 애들은 좀 얌체 같고 그래서 난 그래도 고대는 호랑이라고 그리고, 연대는 독수리라고 아는지 모르지만. 상징동물, 이거 연고전 고연전 있지만. 그래 이제 대학생활 하면서, 내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나는 그때 대학교 들어가는데 야, 내 대학교를 가면.

## 학창 시절과 가정생활

---

내가 그때 고등학교 때부터 완전히 미친 게 이 팝송하고 그 다음에 당구. 이 두 가지에 내가 완전 미쳐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학교 가면은 그냥 책가방 들고 당구장 가서 책가방 땀겨 놓고 거기서 뭐 그 수업 안 들어가고 땡땡이 치고. 그다음에 음악 감상실에, 그때 고등학생은 이제 출입금지니까 이렇게 사복하고 그냥 뭐 빵모자 뒤집어쓰고. 그때 60년도 우리 고3 때 그때 한국에 처음으로 이제 그 외국 팝송이 물밀듯이 들어올 때, 그래가지고 60년대 우리가 한참 막 심취해서 팝송가수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폴, 앵카(Paul Anka), 폴 앵카라는 가수가, 나하고 동갑이야. 42년생이에요. 근데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도 기억이 생생헌데, 폴 앵카라는 가수가 17살 먹은 이 친구가 캐나다계 미국 사람이죠? 디아나(Diana) 그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불러서 히트 현 친구야. 그때 폴 앵카 17살 때 그때는 판이, 음악이, 이 CD 이런 건 전혀 없었고 그때는 LP판, 소형 LP판에 저 앞에 4곡 뒤에 4곡 8곡이 들어 있는데, 8곡이 나오는 그 LP판에, 내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헌데, 폴 앵카가 그 8곡을 자기가 본인인, 17살 먹은 친구가 작사, 작곡해가지고 8곡을 실었는데, 그 판이 세계적으로 이제 히트를 했어요. 그 판에 그 Diana, Crazy Love, You're my Destiny 이런 팝송에 고전, 주옥같은 명곡들이 다 들어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내 지금도 그 음악이 나오잖아요. I am Paul Anka, I am 17 years old(나는 폴 앵카입니다. 저는 17살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내 17살 먹었을 때야 저런 저 친구가 나하고 동갑인데 저 친구 보면서 저런 멜로디를 작사, 작곡, 그 노래를 불렀. 그거 이제 거기에 미쳐가지고 그럴 때고, 나는 그 전에 미친 게 뭐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 Love me tender. 그 56년돈가 7년도예요, 내가 중학교 3학년 땀까, 그 엘비스 프레슬리 맨 첨에 그 서부 영화에 나오면서 그 Love me, 그때 처음으로 이제 세계에 알려질 때예요. 그 Love me tender라는 그 노래를 그 서부영화에 통기타 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 Love me tender가 엘비스 프레슬리 일약 세계적인 가수로 만들고.

인제 그때 그 Love me tender 그 노래를 듣고 난 중3때부터 팝송에 심취한 거야. 그래가지고 인제 고등학교 때 와가지고 완전히 팝송마니아가 되가지고. 뭐 그렇게 새로, 팝송이 나오면은 그냥 그 가사를 우선 먼저 숙지를 해야 되니까. 그때 인제 한국에 처음으로 팝송이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 명동에 '카네기홀'이라는 처음으로 한국 최초의 그 팝송 음악 감상실이 생겼어요. 인제 '돌체'라는 다방은 클래식 전문으로 하는 음악다방이었고. 그다음에 인제 명동에 '카네기홀'이라는 음악 가게 하나 생겨가지고. 인제 거기 그 다음에 지금 요즘에 나오는 그 세시봉이라는 거 있잖아? 그 카네기홀 다음으로 종로 2가 뒤에 그 '디췌네', '세시봉'. 이쪽 그 종로2가 이쪽. 고려당 위에 그 '뉴월드'. 이런 음악 감상실이 인제 딱딱 그냥 우후죽순으로. 그때 인제 세시봉, 요즘 보니까 송창식이, 윤희주, 무슨 뭐 세시봉 열풍이 붙었다 한국에 그러대? 근데 세시봉도 그 음악감상실 중에 하나야. 근데 거기에 인제 거기 식으로 라이브로 인제 팝송을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인제 사람들이 췌 많이, 대량으로 모였죠. 젊은 대학생들이. 거기 출신지라. 전부, 조영남이, 저 송창식이, 윤희주, 김세환이. 요즘, 요즘 다시 세시봉이 인제 복고풍이 일어나지고 개들이 뭐 뜬다 그러대. 근데 난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에서부터 그 당구하고 팝송에 미쳐 있었어, 그래서 좌우간 대학교만 들어가면 내가 하고 싶은 당구치는 거고, 그때는 전부 다 모르게 숨어서 해야 되잖아. 음악 감상실도 모르게 빵모자 쓰고 [웃음] 숨어서 들어가. 전부 다 금지사항이고. 당구도 그래. 당구장에서 내가 한번 당구를 치다가 우리학교 체육선생님이 들어오는데 단속 나온다고 당구대 밑으로 숨어들어 갔는데. 이 선생이 당구 치러 온 거야! 그래 당구 칠 때까지 당구대 밑에서 숨어서 누워서 있으니깐 그날. 우리가 단골로 다니는 당구장이 있었다고. 내가 그 당시 당구를 300을 쳤어. 생각을 해봐 당구를 300을 칠려면, 얼마나 당구장에 갔다 돈을 바쳤겠나. 그때 우리 청소년문화가 그랬다고. 그때는 그 통기타 쥐고 그렇게 팝송하는 거 뭐 당구 치는 거 음악 감상실 가는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놀이가. 지금 같이 뭐 인터넷이 있나 뭐가 있나. 극장에 인제 몰래가는 거. 극장도 출입금지지. 극장에 그 학생 입장 허가하는 영화 외에는 전부. 우리가 극장 숨어서 들어가다가 걸리면 뭐 정확 당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전부 억압이라, 복장서부터 머리. 그래서 내가 대학교 들어간 내 목표는, 그 당시 그랬어요. 당구 내 마음대로 인제 뽀뽀 들어가서 출입해서 당구치고, 음악 감상실에 내 멋대로 들어가는 거.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대학을 들어가야 된다. 대학 들어가는 목표가 바로 그거였다고. 참 무서운 얘기죠. 무슨 뭐 학문을 연구하고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때 청소년 때니까 사춘기 때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집은 그래도, 나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그때 서울대 사

범대학 다니는 서울사대생을 붙잡아서 우리집에 가정교사로 들어와가지고 나하고 내 동생, 둘을 가르치고 그랬어. 우리 부모님들이 교육열이 심했어요. 어떻게든 나를 좌우간 고대, 연대 보낼라고 그랬고.

**아버님이 뭐하셨어요?** 아버님은 이 양반은 우리 집이 원래가 우리 조상이 우리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호남 무슨 그 양반집에 그 토지, 부호(富戶). 그래서 뭐 옛날에 천석꾼, 만석꾼 하는 거. 조금 넉넉히 살아서. 우리 아버지 때부터 이 시골에서 그때 내 기억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쌀 이런 걸 전부 다 시골에서 서울로다 갖다 먹었다고. 그래 시골에 인제 우리 소작농이 있어가지고. 그래 아버님은 그 인제 맞아, 농사를 지었죠. 농사를 본인 직접 농사한 게 아니라 인제 아버님은 평생을 그냥 병환으로 사셔서, 나중에 그 전라북도 고창이라는 데 거기에 우리 논이 많이 있어가지고. 따져보면 우리 조상이 호남 말하자면 그 토라, 토. 옛날 박 참판(參判) 박 판서(判書) 하튼 그랬대. 우리 어머니가 교육열이 대단하신 분이여.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때부터 애들을 서울로 보냈어. 다 서울로 따로 집을 해놓고 거기서 우리 6남매가 다 서울서 학교를 다녔어요. 우리 6남매가. 우리 큰형님이야 벌써 그 양반이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6·25사변이 났으니까. 그 양반은 그때서부터 그 해방 직후에 좌·우익 타령 할 때, 그때서부터 그 학생운동을 했어요. 해방 직후에, 이승만 정부 들어설 때까지 그 기간 3년 동안, 그때 그 좌·우익 대결이 심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8·15 경축 기념식을 좌익들, 빨갱이들은 남산에서 하고, 이쪽 우익 학생들은 서울공단에서 하고. 그 광복절 기념식 끝나고 나와서 을지로, 종로에서 기념식 하려다 광화문 국회 선언할 때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그냥 각목으로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때가 그럴 때예요. 그리고 그때는 대학교수들 절반 이상이 그때는 공산주의 사상이 그때만 해도 만연했고, 그 이론은 좋잖아. 한국 지식인들이 전부 다 한때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 안 해본 사람 없어. 그냥 대학교 교수들도 절반 이상이 빨갱이들이라, 학생들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쪽 우익, 한국의 경찰력만으로 빨갱이, 저희는 빨갱이라 그러죠? 공산주의. 지금은 인제 빨갱이 안 하지. 늘 왔다가 통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쪽 우익 계통의 총학생, 우익 계통의 총보스가 이철승 씨라. 그 양반이 주먹도 썰고 우익 계통으로는 총 아주 보스고. 직업 깡패로는 김두한이고, 막 그럴 때그든. 지금 그 정계에 지금 뭐 김영삼이니, 김영삼 씨는 이 양반은 서울대 그 철학과 나왔지. 그리고 송원영 이런 사람들 한국 정계에 쟁쟁한 사람, 전부 다 보면은 사실 학생 출신으로는 이철승 씨 고대 나왔잖아요. 고대 나와가지고 그때 고대에서 조금 정암교를 더 들어가면 서울 상대가

있었는데, 서울 상대가 빨갱이들이 쥔 많았대요. 그래서 이쪽에 있으니까 그 밧줄을 들고 가가지고 그냥 그 서울 상대에 가서 밧줄로 그 상대 건물 휘감고 막 이런 빨갱이 학교는 때려 부셔야 한다고 막 그러고 막 그랬다. 그리고 이철승 씨는 권총 차고 다니면서 경무대 이승만 박사 막 면담허로 가가지고 막 그냥 세상이 막 그럴 때니까. 그때 우리 형님도 그때서부터 학생운동 현 거예요. 해가지고 그때 여기 윗 자국에 상처가 있지만 그때 빨갱이들 길거리에서 만나면 그냥 각목으로 막 씹들허고. 한국이 완전히 좌익, 우익으로 갈려가지고. 그냥 그 피비린내 나는 그런, 학생들도 전부 다 사상적으로 갈려가지고 그렇게 험 때니까. 그리고 나는 그때는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6·25사변이 났는데... 그럼 무슨 얘기를 허다가. [웃음]

네. 76년에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셨다고... 예. 한국으로 돌아가서 인제...

## 광부 은퇴 직후 생활의 회고와 밴드 생활

---

그럼 73년에 76년 사이에 직업이 없었는데, 그럼 어떻게 생활을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생활이 그때의 내가 아까 말한 거 같이 한국에서 그 아파트 팔아가지고, 그거 갖다가 그때는 그 외화를 외국으로 반출을 못했지. 그래서 한국에 가는 사람들 인편에 한국 돈들을 주고 그 사람이 여기 독일와선 마르크, 달라는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거따 쓰고. 그때 내가 증말 그 인생에 그 시절을 하여튼 외국에서 완전히 그 방탕생활을 했어요. 뭐 그때 술도 많이 마시고 여기 저 카지노 가서 도박도 허고. 독일여자하고 잠깐 뭐 한 몇 달간 동거도 허고 하여튼, 완전히 반은 자포자기. 아이 될 대로 돼라,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저거허고. 그러니 결혼, 뭐. 결혼을 내 험라고 마음먹었으면 결혼을 했었죠. 왜냐하면 그때 간호원들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또 뭐 결혼까지 이렇게 원하는 간호원들도 좀 있었고 했지만, 난 결혼은 허기가 싫드라고. 결혼은. 그래 내가 인생 여기서 뭐, 체류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험다. 그게 아주 거부감을 갖고 그랬는데.

그 대사관 측에서 인제 밴드 만들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게 또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아니 그러니까, 대사관 측에서 그 당시 그 이상구 공사. 그분을 내가 이렇게 밑에 중앙정보국 유럽 총책으로 나와 있고, 그답에 인제 교민연합회 그 유호정 회장님은 내가 필요했든

지. 또 자기가 교민 그 연합회장으로써 활동하는데, 요 밴드를 허는 이런 음악허는 친구가  
 인제 필요했든 거라. 그러니까 그게 이용헌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대사관에서는, 그때 인제  
 한참 그 군사독재정권 때니까. 그때 뭐 인제, 그때 16년 전 벌써 유신이, 인제 유신정권이 완  
 전히 그냥 기준으로 볼 때거든? 76년도에. 79년도에 그 박정희가 사망을 했으니까 75년도, 6  
 년도에 한참 아주 유신이 그냥 아주 그냥 최고의 기승을 부릴 때지. 그래서 인제 여기 반정  
 부들이 아주 심했다고, 반정부들이 많고. 그래서 인제 그 여기 독일에 있는 교민들, 67년 때  
 동백림 사건 났고. 독일 있는 교민들, 그 반정부허는 사람들도 무마시키고 말허자면 선무공  
 작의 일환으로 그런 거 놀이문화가 필요했든 거야. 교민들을 주말이면 이렇게 한국노래 연  
 주허는 밴드가 하나 있어가지고 교민들이 왔다가 어디 그 관심을 글로 돌려서. 뭐 반정부허  
 고 뭐 정치적인 이런 거 와해시키기 위해서. 그 인제 그 대사관에서는 인제 그런 걸로 밴드  
 의 필요성을 느꼈고, 또 여기 우리 독일, 교민연합회 측에서는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그  
 런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런 일로 됐죠. 그래서 광부들 오는, 그게 특별히 무슨  
 따로 뭐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내는 것, 파견허는 것도 아니고. 독일광부로 서독으  
 로 매달 올 수 있으니까 정부 측에서 볼 때는 손 안대고 코 푸는 거지. 그걸 따로 별도로 밴  
 드를 만들어가지고 보낼려면, 그게 국가예산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마  
 지막 하나의 궁여지책으로 그런 거 했는데, 77년도에 광부가 딱 끊기는 바람에. 아 인제 그  
 래서 밴드를 갖다가 그 당시 광부들은 계속 그 한 달에 한번, 두 번씩 계속 올 때니까. 대사  
 관 측에서 “여기 교민사회에 여기 상주허는 밴드가 하나 필요하다. 한국음악을 연주허는 밴  
 드가 필요하다” 이런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당시 그 교민연합 회장허던 그 유호정 씨허  
 고 얘기가 되서, 내가 한국에 나가서 광부들 오는 그 케이스에 음악허는 연주인들이 독일로  
 광부를 오기 희망허는 그런 연주인들을 선발해서 독일에 오는 광부에 오게 해서 여기 광산  
 에 열심히 근무허면서 주말이면 교민들을 위해서 공연도 허고 인제, 그런 그 뭐 아우프트락  
 (Auftrag, 임무)을 내가 받고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해서, 뭐 한국에 가서 독일에 광부로 갈  
 사람 허니까 뭐 그냥 뭐 줄로 스지. 서로 가겠다고. 그래 인제 그 뭐 해외여행에 아무런 결  
 격사유가 없고 허는 사람들 해가지고 멤버를 탁 짜가지고 올라고 그러는데, 76년도에 귀국  
 했으니까 77년도. 고 1년 사이에. 77년도 내가 알기론 10월 달서 부턴가 서독으로 오는 광부  
 들이 딱 끊졌어요. 서독정부에서 인제 더 이상 외국 광부들 안 받는다 그래서 그게 끊기는  
 바람에, 그 거의 뭐 1년 뭐 한 10개월 가까이 했든 준비가 그게 전부 그냥 수포로 돌아가고  
 그렇게 됐죠. 그래 인제 내가 그 나이에 한국에서, 난 도저히 인제 한국에선 못 살 거 같고

그래서, 나 혼자서 독일에 다시 오는데 인제 독일교민연합회에서, 그 이동영사관을 만들어서, 이동영사관을 운영할라 그러는데 그 사업을 나한테 맡기겠다 그래서, 독일 그 연합회에서 초청장을, '이 사람 우리 독일 교민회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초청장을 보내줘서 그 초청장으로 여권을 내 가지고 다시 독일에 다시 재입국헌거죠. 물론 비자 없이. 그래 인제 독일에 와가지고, 3개월이 지나니까 비자 기간이 끝나고 사실 그때서부터는 실질적인 불법체류가 된 거야. 그때 사실 불법체류란 게 독일에서 무슨 사건만 안 생기면은 여기서, 물론 여기서 정식으로 어디 취업해가지고 이런 거는 못 허지만은, 여기 와서 뭐 여기 친구들도 많고 또 한국식당도 여기 생기고 그럴 때니까 뭐 가끔가다 식당에서 일해서 용돈도 벌고, 또 내가 스스로 뭐, 예를 들면 내 이름으로는 사업을 못 허지만 남의 이름, 친구들 이름으로 빌려가지고 사업하고 관련해서. 그런 것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나는 그때 친구 같이 동업으로, 내 이름으로는 인제 안 허지만, 친구 이름으로 해서 그런 것도 해보고.

## 연애와 결혼

---

하여튼 78년도에 다시 여기 독일 와가지고 그런 생활 허다가. 지금 가정을 꾸리고 있는 내 아내를 만난 건데. 내 아내를 만난 게 운명적이예요. 그래서 사실은 얘기가 조금 거슬러 올라가는데 75년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그 광복절 기념 체육대회가 크게 열렸어요. 해마다 허는 거지만, 그 해에는 지금은 카스트롭 라우셀(Castrop-Rauxel)에서 하지만 그때 이영창 씨가 연합회장 할 땐데. 그분이 프랑크푸르트에서 광부들을 글로 유치를 해서 프랑크푸르트에서 크게 했어요. 낮에 크게 체육대회를 허고 밤에 야간 문화행사로 할 때, 그때 인제 내가 또 주축이 되가지고 독일에서 음악하는 밴드들 다 모아가지고 아주 그냥 육인조로 크게 해가지고 인제 밤에 야간 문화행사를 했는데, 그때 지금의 내 처가 어디 무슨 뭐 배구팀으로 와가지고 낮에 인제 체육대회를 허고 밤에 인제 야간 그 문화행사에 참석해서 인제 저녁 먹고, 밤에 행사를 허는데. 사람들이 너무 그때 한 3,000명 이상이 실내체육관, 크게 거기 가설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그 무대 위에서 연주를 허는데. 그 뭐지 삼천에 모여가지고 있어 있고 그다음에 춤들을 뭐 한 몇 백성이 나가서 춤을 추니까, 뒤에 티쉬(Tisch,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 무대가 안 보였어요. 그 춤추는 사람들, 수십 명 춤을 추니까 춤추는 사람들이 가려있고, 여기는 앉아 있으니까. 뭐 무대가 높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제 우리



를 위해서 연주하는 그 연주인들은 안보이고 음악소리만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 뒤에서 이제 나중에 안 얘기지만, 저 친구(아내)가, 어이 저 노래하는 사람 누구냐고 그랬대. 그러니까 아이 그때 자기가 들어보니까 뭐 Summer Time 자기가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팝송인데 Summer Time 노래를 하고, 뭐 Autumn Leaves라고 해서, 저 노래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아이 독일에서 밴드,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어이고 노래 잘한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누군지 얼굴도 안보고, 그게 75년도야. 그리고 이제 자기는 다시 이제 집으로 온거지? 그리고 있다가 3년 후에, 78년도 그때 이제 레버쿠젠(Leverkusen)에서, 레버쿠젠 한인회에서 11월 달에 한인회 송년회를 하는데 내가 그때 레버쿠젠에 친구가 있었어요. 거 음악하는 친구, 색소폰 부는 친구데. 그 친구 집에 놀러가서 이제 술 마시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한 11시쯤 되가지고 그래요. “야 여기 지금, 동네에서 여기 옆에 있는 홀(Hall, 연회장)에서 레버쿠젠 한인회 송년회 하는데 거기나 놀러 갈래?” 그래서,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 임마, 다 끝나가는 데 지금 가서 뭐허냐” 그랬더니 “아이 그래도 아직 헐꺼라고. 함 놀러 가보자”고. 그래서 그 친구, 뭐야 본집머(Wohnzimmer, 거실)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그냥 술상 그대로 놔두고 바로 그 가까운 데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레버쿠젠 한인회 송년회 거의 다 끝나가고 그날 수고한 임원들이 모여서 티쉬(Tisch, 식탁)에 놓고 앉아가지고 수고했다고 뒷풀이 하고 있드라고. 근데 우리가 들어가니까 아 이거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거 앉아서 이제 저거 하고 있는데. 그때 나는 이제 지금 저 친구(아내)를 처음 봤어요. 거기서 처음 봤는데, 거기 이제 그렇게 일 도와주고 있드라고, 한인회 임원들. 그래서 뒷풀이 하는데 뭐야 음식도 갖다 날르고 이렇게, 저 맥주잔도 날르고. 그래 나는 의례히 뭐 누군지, 유부녀 줄 알고, 저 친구가 그때는 이제 좀 나이가 자기 나이보다 들어보였어요. 그리고 나는 내 나이보다 더 훨씬 어려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짝이 맞는 거지. 사실은 참 내 처하고 나하고 띠동갑인데, 나이 12년 차인데. 그래서 나는 의례히 뭐, 내가 인상이 좋아가지고 같이 간 친구한테 “저 프라우(Frau, 여자)는 누구?” 왜냐하면 웬만한 사람들 내가 다 알거든요, 여기 오래 살았기 때문에, 쾰른, 레버쿠젠 다 같은 지역이니까. 저분은 누구 프라우(Frau, 여자, 아내)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글쎄 나도 처음 보는 여잔데, 가만있어. 내가 한번 물어보고 올게” 그러드니 같이 간 친구가, 갔다 오드니 유부녀가 아니고 처녀라고 그러다고. 그래 이제 내가 약간 좀 관심을 보였지? 그리고는 이제 한인회 행사를 내가 가서 도와준 거지. 도와주고 이제 한인회 측에서 임원들이 이제 행사가 끝났으니께 집에 이제 데려다, 차로 집에 데려다줘야 되는데 내 친구가 이제, 나를 위해서 자기가 뻘히 아는 사람들이니까, 한인



회 임원들한테 아이 저 이 친구 성이 정인데, Ms. Jung은 내가,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그래  
 인제 한인회 임원들이야 좋지, 이거 데려다 줘야 되는데 데려다 준 대니까. 그럼 데려다주라  
 고. 그래서 인제 내 친구 차에 타가지고 이 친구가 인제 Ms. Jung 집에 안 데려다주고 자기  
 집으로 그냥 간 거야. 저 친구(아내) 따라온 게 뭐냐면, 친구가 뭐 애가 있고 이런 유부남이  
 고 또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가니까. 그래 인제 내 친구 집에 가서 마시다가 그대로 온  
 술상이 그대로 있으니까 거기서 인제 12시가 넘어가지고, 얘기하다보니까 3년 전에 프랑크  
 푸르트에서 그때 그 밴드 연주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뭐 Autumn Leaves 쳤냐 그래요. 내  
 가 했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야 얼굴도 모르고 음성만 듣던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확  
 인했어요. 나는 저 분을 전혀 모르지. 근데 그때 우리 배구팀으로 가서 밤에 거기서 식사하  
 면서 얼굴은 안보이고 보이시만 들어가지고 그런 얘길 하다보니까 아 그게 나라고 그래가지  
 고, 3년후에. 그래서 거기서 교제가 시작 된거지, 말하자면. 그리고 나도 뭐 첫 인상이 나쁘  
 지가 않았고 자기도 자기가 좋아하는 팝송 불러가지고 누구냐고 그러고 3년을 그런거 잊어  
 먹었는데 3년후에 어디에서 보니까 그게 바로 참, 나왔다 그래가지고. [웃음] 그래서 인제 저  
 친구하고 교제가 시작 된 거예요. 교제가 시작됐는데, 그담에 참 교제를 한 몇달간 했어요.  
 저 친구 교제했는데, 그때 저 친구도 인제 오프라덴(Opladen)이라고 레바쿠젠 근교에 있는  
 그 쪼그만 병원에 기숙사에 있었는데. 거기 원래 그 기숙사에 남자는 출입금지예요. 근데 그  
 몰래 숨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인제 그 기숙사 방에서 잠도 자고, 난 쫄른에 있으면서 기  
 차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제를 하고 있는 중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 친구가 아침반  
 근무를 나가고 나는 거기서 정신없이 자고 있는데 새벽에 레바쿠젠 행정관청하고 경찰관들  
 이 들이닥쳤어요. 누가 안차이젠(Anzeigen, 신고)을 한거라. 그 새벽에 정신없이 자고 있는데,  
 저 친구 근무나가고 없고, 그 간호원 기숙사 방에서. 기숙사 방이라는 게 쪼끄만 방 이고 방  
 안에 인제 그렇잖아, 기숙사가. 전부 인제 독방인데. 자다 깨보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권  
 다 보니까, 여권이 벌써 입국 날짜가 1년이 넘었고, 난 불법체류지. 그래서 거기서 그대로  
 내가 연행이 됐어요. 연행이 돼가지고 불법체류로 바로 그냥 구속이 되고, 거기서 집에 가  
 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구속이 되고, 거기서 이게 참 아주 그냥, 놀렐 일이죠. 일종의 반전인  
 데 거기서 바로 그냥 강제 귀국조치가 내려진 거야. 거기서, 그 구치소에서 일주일인가 있다  
 가 집에 가보지도 못하고. 나야 미련도 없고 지금까지 독일에서 실컷 뭐 놀고 싶은 대로 다  
 놀아 보고 했으니까. 그때 한국 가서 인제 새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인제 귀국조치  
 를 당해가지고 인제 나 혼자 그대로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귀국이 됐죠. 그걸로 그 참 파란

만장한 독일 생활이 정식으로 끝나는구나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3년인가 그렇게 살면서 독일서 언젠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 하고 있을 때니까, 에이 차라리 잘됐다. 그런 심정으로 귀국을 했는데. 저 친구는 죄책감에 시달린 거라, 자기 집 와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별안간 새벽에 자다가 연행 되가지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거기서 인제 전화를 하고, 국제전화. 그때는 전화비도 비쌌어요. 그때는 저 공중전화가서 5마르크짜리 동전을 넣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 진짜 5마르크짜리가 수수수 떨어졌다고. 전화 한번, 다섯번 하면 뭐 40마르크, 50마르크 막 들어갈 때야.

그 삶이란 게 그래요. 저 친구가 그때 아휴, 한때 그래도 죄책감은 있지만 이제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리고 말았으면 우리가 서로 지금까지 그 뒤로 다시, 만날 일이 없을 텐데. 저 친구 인제 죄책감도 있고, 또 그 어떤 연민의 정도 있고. 이게 그래서 레버쿠젠 아우스란츠암트(Auslandsamt, 외국인청)에 가가지고 계속 나를 다시 독일로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 거예요. 그러든 결혼신고를 하고 남편으로 초청을 하면 된다. 암트에서 그런 답을 준거야. 독일 외국인체류법 의해서 여자가 여기서 취업, 정식으로 취업이 돼가지고 체류를 하고 있으면 그 독일체류법에서, 부부는 같이 살수 있는 권리가 있대. 인간의 기본권이 지. 그런 헌법 취지에서, 여기서 부인이 옛 남편하고 같이 살고 싶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남편을 초청하고자 한다면 여기서 비자를 주게 돼 있어요, 체류 허가를. 그 남자가 와가지고 몇 년 이상 지날 때까지 노동 허가는 없어가지고 취업은 못허지. 그냥 부부가 같이, 같이 동거할 수 있는, 그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독일헌법 취지에서 그게 보장 돼 있다고. 그래서 저 친구가 휴가를 받아가지고 한국을 나왔지. 그러니까 양가에서 이 결혼을 다 반대허지. 그 이해가 가요. 첫째는, 나이차이가 지금도 그러지만 그때만 해도 나이 차이가 띠동갑이면만 12년차이잖아. 나이 차이가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 저 집에서도, 아니 여기에서 생계벌이도 못하는 작자를, 날건달 같은 나이 열두 살이나 더 많은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독일에 간대니까. 뭐 저기 친구가 장년데, 집에서 그 찬성할 리가 없지. 어느 부모가 찬성하겠어. 또 우리 집은 우리 집대로, 이제 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허다 왔으니까 인제는 정신 채리고 새로 시작해라. 무슨 결혼은 결혼이나, 열두 살이나 어린 여자하고 말이야. 더군다나 니 독일 가서 뭘 할 거 있나. 한국에서 양가에서 다 반대를 한거야, 그야말로 사면초가야, 사면초가. 어디 가서 뭐 하소연 할 데가 없어. 그래서 우리 그때 진짜, 서울서 여관방을 전전하면서 붙들고 울기도 울고 진짜, 그랬어요. 그러다가, 자. 우리가 우리 뜻대로 강행허자. 우리가 사는 거니까, 부모가 반대해도 부모가 우리 인생을 살아주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한국은 이,

결혼신고가 신고제잖아, 그래서 동대문 구청에 가서 결혼신고를 해버렸어요. [웃음] 결혼신고를, 결혼식도 뭐 이런 것도 없지. 자기 우어라움(Urlaub, 휴가), 휴가 가서 4주 동안에 전부 다 벌인 일이니까.

그때 우리 집에서는 내가 누님이 두 분인데, 큰 누님은 결혼해서 저하고. 작은 누님이 그래도 그 내 입장을 이해했어. 니가 그렇게 좋아현대면 누가 그걸 말리냐. 그래서 내가 작은 누님 그 아파트에는 내가 저 친굴 데리고 [웃음] 가서 자고 오고 그랬어요. 내 편은 그 작은 누님이 그래도 내 편이었던 거라. 근데 왜냐하면 내 잠깐 여기서 얘기를 할게, 이게 인제 전혀 프리바트(privat, 사적인) 얘기지만. 고 3때 그 서울사대 다니는 가정교사가 우리 집에 한 1년간 숙직 하면서 나하고 내 동생하고, 나는 대학 보내고 내 동생은 그때 고등학교 공부 가르쳤어요. 근데 그때 우리 작은 누님이 이대 약대를 나왔어요. 이 그때는 약대가 참 인기가 좋았어요. 이제 약사 자격증으로 약국을 개업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교사가 그 서울사대에 다니다가, 서울사대 다니다가 휴학하고 그때 고시공부를 하고 있었다는거라. 아주 인제 생활이 어려운, 그 남의 가정집사로 들어가면 생활이 어려운 저거지, 시골에서. 그 양반이 고향이 어딘가, 전라도 나준가 그럴꺼야. 그 서울사대 다니다가 고시공부 허니까 참 어렵지. 법대도 아니고 사댄데, 사대는 선생, 교원 서울사범대학교니까. 또 공부를 잘했으니까 서울대학교를 들어가. 그래서 그때 서울대학교 대학 도서관에서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더라고, 근데 그 가정교사 하고 작은 누님하고 눈이 맞은 거야. 나이도 우리 작은 누님이 2살인가 더 많아요. 연하의 가정교사하고 눈이 맞은 거야. 근데 집이 다 반대할 때 나만 그때, 나는 깨어있다고 그럴까? [웃음] 내가 그때 대학교 2학년 때인가, 내가 그때 사이에서 그 작은 누님하고 우리 그 양반, 염태훈이라고 염썬데, 그 양반은 서울사대 도서관에서 고시공부 할 때. 내가 중간에서 편지를 갖다 전해주고, 집안 부모들 모르게. 집안에서 다 난리가 났지. 그래가지고 우리 큰형님이지 그때. 그 4·19 나가지고 민주당 정권(잡고). 그때 그 형님이 막강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 큰형님 자기 여동생하고 떼어놀라고. 나이도 두 살이나 어리고, 우리 집 가정교사고 여러 가지 사실 안 맞지 서로가. 그래가지고 내가 알기로 그때 검사 시보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손을 떠라 이거지. 그런 거 하든 나는 어릴 땐 데 지금 기억에 내가 중간에서 편지 심부름도 하고 그랬다고. 그리고 인제 염태훈 씨, 그분하고 나하고 공부를 같이 하면서 참 나를 많이 해줬어, 내가 그때 사춘기 때 고2, 고3 때 내가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했거든. 그냥 정말 그 사춘기는 그렇지 안 짱어. 심지어는 세상이 살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랬어요. 내가 왜 하고 싶을 때 못 하게 허나.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나를 이해를 많이 했다

고. 그래가지고 공부만 가르친 게 아니고, 인생으로써 참 도움을 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결국 그 양반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그 철도청장까지 했어요. 끝내 두 사람이 못 이뤄지고, 우리 작은 누님은 딴 사람한테 시집가고 그분은 저거 되가지고. 나중에 독일 와서 신문을 보니까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올라가다 철도청 차장하다 철도청 청장까지 하고. 지금은 인제 모르지.

**편을 들어주셨군요.** 이번 일은 인제 이 꺼꾸로 되는 거지 [웃음] 그래서 인제 그 작은 누님이 그때 원효로 4가, 그러니까 선화아파트 살 땐데 그래서 한 달 동안 뭐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지, 그러다가 인제 결혼신고를 하고 저 친구 인제 들어오고. 결혼신고를 해서 호적등본을 떼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대사관에 본을 떠가지고 암트(Amt, 관공서)에 내니까, 이제 암트에서 내 비자가 나온 거지. 그래서 내가 거기서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때 내가 한국에 있었어요. 그때 인제 저 친구는 결혼식장 가고 4주 휴가 끝났으니까 여기 들어와서 근무를 다시 시작해야지. 그럼 나는 인제 남아 있고, 근데 여기 와서 인제 호적등본을 다 해서 번역을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시간이 몇달이 걸리지. 고 기간이라. 고 기간 때 79년도 10월 26일 날 박정희 저거 할 때, 그때 난 서울에 있었다고. 그러고 그때 여기 와가지고 80년도, 3월 달.

## 출국 전 한국 정치의 혼란과 독일에서의 사업

3월 달에 내가 비자를 받아서 왔는데, 80년도 3월 달에 그때 이미, 국민들은 모르지만 전두환은 내부적으로 정권을 장악한 적이었어요, 보안사령관 하면서. 그때 정승화 잡아놓고. 그 때 서울에 그랬죠? 신문에, 그 ‘안개 정국’이라고. 서울에 봄이 왔는데, 박정희가 죽으니까 인제 민주화가 꽃피는데. 이게 지금 정국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떤 안개에 싸여 있다, 그때 이미 전두환이 실질적으로 정권을 내부적으로 장악하고 있어서 그게 신군부 세력이었지. 내가 독일에 3월 달에 왔는데, 5월 달에 광주사태가 나고, 80년도. 4월 달에 그 우리 서대문 경찰서에서 나를 찾으러 왔대요. 그래 내가 한 달만 늦게 나왔으면 못 나오는 거야.

**왜 찾았어요?** 박종률의 동생이라 그러니까. 집에 나와서 신상을 검사를 하는데, 박종률 동

생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어디 간 거냐? 이렇게 찾는 거지. 외국 나갔대니까 이 사람들이 신경을 더 쓰는 거지. 그때 반정부 현 사람 다 나가가지고. 그때 인제 김대중이 내란음모사건으로 해가지고 사형선고를 내리고 막 그럴 때 아니야? 그때 우리 형도 그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연루돼가지고 그냥 그 신문기자들이 이 15분전에 알려줘가지고 우리 형님집이 평창안장인데, 평창안장 그 뒷산으로 도망가가지고 안 붙잡힌 거야. 붙잡혔으면, 우리 형도 그때 같이 들어가가지고 사형 받는 건데. 그냥 간발의 차이로 그 기자들이 소스를 알려줘가지고, 우리 형 그냥 고무신 바람으로 평창 뒷산으로 숨었는데, 20분 있다가 군인들이 군화신고 들어닥쳤지.

**그럼 80년에 독일에 오셔서 그 다음은 어떤 생활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결혼생활이 시작된 거지. [웃음] 3월 달에 와가지고, 일은 못 하고. 나는 원래 내가 일을 한다고 그래도 내가 무슨 어디 직장이나 공장에 노동자로 근무하는 거는 생각 못 했고. 그때서부터 내가 요식업에서 일했어요. 내 친구들 한국식당들이 막 생기고 그럴 때예요. 74년도에 쾰른에 그 한일관이라고 독일에 최초로 한국식당이 생겼어요. 그 친구가 남정균이라고 카셀(Kassel)에, 내가 아까 카셀에 있던 친구있지? 그 친구가 그때 74년도만 해도 한국 사람 이름 앞으로는 영업허가 안 나왔어요. 근데 그 남정균이가 그때는 독일 부인하고 결혼해서 살 때거든? 그러니까 독일부인 이름으로 이제 식당허가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74년도에 그 친구가 처음으로 한일관을 개업해가지고 독일서 최초의 한국식당이지? 그때 내가 주로 그 친구가 허는 식당에 가서 일도 해주고, 뭐 거기서 막 왔다갔다 거리고 그럴 때. 그때서부터 그 친구하고 같이 동업으로 뭐 잠깐 했었고. 난 그때서부터 험하게 그런거밖에 없잖아. 요식업이라든지 한국식당이나, 아니면 독일 호프집이나. 나 여기 와가지고 안 해본 게 없어요. 식당도 해보고, 독일 호프집도 해보고, 저기 케르펜(Kerpen)에서 테니스할레(Tennishalle, 테니스장) 그것도 해보고. 뭐 그냥 난 여기 독일 와서 평생을 한 번도 직장 생활 해본 적이 없어요. 저 친구는 인제 지 나름대로 간호원 생활 허니까, 해가지고 8년간 저 친구도 그렇고 간호원 그거 집어치우고 내가 허는 사업에 같이, 나 혼자 너무 힘드니까 같이 도와서 같이, 한 8년간 했었고. 그래가지고 나이가 먹고 애들이 자라니까 인제 안 되겠더라고.

**8년 동안 한 사업이 뭐라고요?** 8년 동안은 저 친구가. 내가 혼자도 허다가 8년 동안을 저 친구도 인제 병원도 휴직하고. 그 테니스할레 헐 때는 또 혼자 못해요. 그래 애들 둘을 육아

를 해야 되고. 좌우지간 저 친구가 직장 생활 할 상황이 안 되었지. 그래 테니스할래, 여기 케르펜이라고 아헨(Aachen) 가는 중간에 있는데, 거기 가서 테니스할래하면서. 그때는 뭐, 장사도 잘되고 해가지고 거기 있다가, 애들이 커가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겠다. 다시 켈른으로 와야 되겠다. 왜냐면 애들 한글 학교도 보내야 되고. 애들이 크니까 한글 가르쳐야 되고, 이게 정체성이 문제가 나오는 거라. 애들을 한글을 가르쳐야 되고 해야지. 애들 어릴 때 시기를 놓치면, 교육은 싫게하면 안되잖아 그지? 그 한글학교가 그 켈른에 있으니까, 그 케르펜에서 여기 50킬론데 이게 뭐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테니스할래 그거 다시 아우프회렌(Aufhören, 그만두고) 하고 이리로 이사를 온 거야. 이 집으로, 집을 사가지고. 97년도에, 그래서 여기서 97년부터 살고 있지?

구술자 부인 여기서 애들 낳고 나서 있다가 한국에서 살 거냐? 여기서 살 거냐? 이제 결정을 했었지.

글쎄, 그것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고민을 많이 하고 한국에 나가서 알아보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한국서는 내 생각은 그래. 나 같은 경우는 거기서, 나는 이미 한국에서 거기서 정착하기는 뭐 시기적으로 싫기도 했고. 그 다음에 기반도 아무것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 나가보니까 친구들 전부 다, 고대 사학 동기들 그때 가니까 국회의원이 13명인가 되고, 동기에 ROTC해서 했던 친구들이. ROTC는 대학교 3학년, 4학년 동안 군사교육 받고 졸업 후, 동시에 임관되어서 2년만 근무하면 제대를 할 수 있다. 제대를 한 사람들이 있지만, 절반은 제대를 안했어요. 왜? 제대하고 나와봤자, 취직이 되나 뭐가 되나. 그러니까 뭐 백이 없고 배경 없는 사람은 그대로 그냥 주저앉은 거야. 근데 그 ROTC 맨 처음에는 그 강령에, ROTC 출신들은 최고 올라가야 대령. 영관급밖에 못 올라간다, 별 다는 거는 ROTC는 안 된다. 이게 이렇게 돼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 보통 중위, 대위 달고 제대를 하는데 2년 있다가 제대를 하는데, 제대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대를 해봤자 사회에 나와서 막연하니까. 근데 인제 ROTC 근무자들이 근무성적이 좋고 사병들한테 인기가 아주 좋았어요. 오히려 육사 출신보다 ROTC 출신들이 이 근무, 왜냐면 육사출신들은 개들은 그냥 그야말로 걸음 걷는 것도 직각으로 걷고 이미 사병들한테 굉장히 그 거부감을. ROTC 일반 대학 출신들은 인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유연성이 있지. 그래서 국가에서 인제 장성이 모잘라가지고, ROTC 출신들 중 우수한 자,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이제 별을 단거야. 그러니까 80년도부터 살면서 그때서부터 뭐야, 여기 체류 그거만 있지 일을 할 수 있는, 내 이름 앞으로 무슨 뭐 사업허가라든가 이런 거는 도저히 안 되니까. 최소한 편법으로 내가



사장해서, 뭐 친구들 이름으로 해가지고 같이 동업을 현대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 저것 하면서 나는 정말 그 기간 동안에 안 해본 거 없이 허다가 87년도에 첫 애가 생기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는 이게 풀린 거야, 영업도 할 수도 있고 내 이름으로 사업허가도 나고. 체류가 5년 이상이 되니까 노동 허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뭐 직장을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 나이에.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 했어요. 식당을 여러 군데 해서 오랫동안 못 하고 또 허다 결국은 케르펜가서 테니스할레 그거 하면서. 거기서 좀 조금 좀 안정이 됐지. 93년도가 되니까 큰애가 그룬트슐레(Grundschule,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고 그러니까 인제 안 되겠다라고. 이게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 애들 교육이. 그래서 우리가 안 되겠다, 쾰른으로 가자. 애들 한글학교도 보내야 되고 아무렴 도시로 나가야지, 애들 교육이 안되겠다. 그래서 97년도에 여길로 와가지고 이 집을 사고, 이 집을 여기 이집을 입주할 허고 그 다음에 쾰른에다가 또 그 독일 호프집을 내가 냈어요. 조그만 호프집을. 그래가지고 한 3년간 운영을 했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그러지, 이게 술집인데 이게 뭐, 여기 집은 여기고, 가게는 저쪽 쾰른 저쪽이고. 애네들은 인제 학교 입학했고, 저 친구는 직장 나가고. 애들이 엉망이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인제 그 호프집을 둘이 같이 했지, 혼자서 못해요 그게, 교대로 해줘야 되니까. 아침 집에서 9시에 나가면 저녁 1~2시에 집에 들어오는 데. 그 애들은 학교 보내고 뭐, 밥 맥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3년간을 계약 허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인제 호프집을 처분허고 저 친구 허는 얘기가, 당신 집에 앉아서 애들 돌보고, 나는 다시 병원에 취업하겠다. 그때 간호원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때. 어디 뭐 그리고 저기 저 친구는 엑삼(Exam, 자격증) 정식간호원 출신이니까 어디가든지 취직은 잘 됐지. 그래서 저 친구는 다시 취업을 허고, 나는 가게를 다 정리를 허고 난 그때서부터.

구술자 부인 하우스 마이스터(Hausmeister, 건물관리인) [웃음]

## 연금자 생활

---

인제 연금자 생활을, 생활에 들어간 거지. 2000년도, 2001년도서부터. 그리고 여기 와서 이 동네 가까운데서 다시 뭘 할러 그러니까 저 친구가, 결사반대 허는 거라. 가게를 또 시작하면은 또 애들이 엉망이 된다. 사업해 돈을 좀 번 사람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애들이 엉망이



야. 그 사업, 부모들이 애들 놔두고, 방치해두고 둘이 그 사업장에 매달리니까 참 애들이 뭐 잘못 된 애들 많고, 그래요. 그래서 뭐 돈이 다가 아닌데, 독일서 뭐 그때만 해도 둘이 하나만 직장에 나가면 그게 생활이 되니까. 그 동안 조금 모아놓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2001년 전 서부터 나는 인제 완전히 연금자 생활하면서 집에서 애들만 저거하고, 저 친구는 그때서부터 다시 직장 나간 거지.

그러면서 내가 이 음악을 옛날같이 밴드는 틀렸고, 지금은 독일 음악계가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때 가끔 탄츠로커(Tanzrocker, 밴드 소공연장을 의미) 이런데 가본 독일 밴드, 그 음악 라이브밴드가 3인조, 4인조 다 있고 그랬는데. 인제 디스코텍이 나오면서 3인조, 4인조 밴드들도 다 죽었어요. 전부 다 DJ가 디스코텍에 나와서. 소위 디스코 나오니까 라이브로 밴드를 허는 시대가 간 거라. 그리고 업주 측에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 페이(Pay, 보수)를 줄만한 이게 안돼요, 그러니 밴드가 여기 독일에 다 없어지고 그 사람이 다 뭘로 들어가냐면 소위 알라인 운터할터(Alleinunterhalter, 1인 밴드). 혼자서 음악 허는 거 있지 왜. 근데 또 장비가 요즘은 최신형 전자악기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버튼만 누르면 거기서 전자악기 속에서 뭐 5인조, 6인조 막 사운드가 나잖아. 드럼 소리 나고 베이스도 나오고. 이거 뭐 조작만 잘하면 혼자서 충분히 그 밴드, 4~5인조 밴드 효율 내는 거라. 그러니까 인제 지금 독일도 소위 저 알라인 운터할터라는 말이 그때로 생겼는데, 지금 독일 이거 봐요. 전부 다 혼자 다니잖아, 혼자. 그래서 나도 그러다가 한국에서 가라오케가 나와가지고 음악을 그때 CD가 나오고 MP3가 나와, 저기 되니까. 내가 지금 음악허는 이 반주 음악을 전부 CD로 내가 그걸 만들었어요. CD를 만들어가지고, CD를 넣고 CD를 Play시키면서, 그 반주에 맞춰서 내가 인제 나팔을 불고 노래를 허는 거라. 그러니까 나도 알라인 운터할터 혼자서 인제 음악을 해야겠다. 같이 한다는 거 이제는 불가능하고, 언제 모여서 연습을 하고 어찌구. 내가 그동안 애로사항이 많았죠. 이 한국 사람들을 4명, 5명이서 음악 한다는 게 각자 마음이 틀리고 뭐 하든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여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장소도 있어야 되고. 지금은 인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라 조건이. 그래서 혼자, 그때서부터 내가 혼자해가지고 내가 그 사업하고 장사하느라고 교민사회에서 완전히 동 떨어져 있다가. 몇 년도부터지? 몇 년도부터 다시 그 나복찬이, 교포신문에 인제 박종선, 다시 컴백허다 해가지고. 혼자서 알라인 운터할터가 되가지고 흘러간 팝송만 이렇게 허는 그런게 되가지고. 그제서부터 한인회 여기저기 인제 돌면서. 근데 그동안에 그거 혼자서 음악허면서 함부르크, 베를린, 뮌헨 웬만한 독일 한국 사람 도시들은 다, 이렇게 돌고. 삼성 같은 데서 뭐 혈 때 불러가지고 거기 가

서 저저도 하고. 연말 같은 때는 그랬죠. 그런데 이제 제 취미생활로 지금 취미생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젊었을 때 꿈꿨던 게 드디어 이제 말년에, 인생 말기에 취미생활로 지금은 [웃음] 조금 이루어졌지. 그렇게 호비(Hobby, 취미) 생활로 해가지고. 그것도 뭐 교민사회에서 이제 박종선 허몬, 아 그 사람 그 따따라하는 친구? 이렇게 알려지고 그 올디(Oldy, 1960~70년대 음악) 현다고 그래서 그렇게 알려지고. 그답에 이제 여기 조그만한 음악사회지만, 이것 저 집도 내 집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이제 살면서 여기서 뼈를 묻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가서 한다는 건, 내가 그사이에 그때가 몇 년도냐? 가가지고 한국 가서 좀 다시 거기 정착을 해볼까 하고 나가봤는데.

1991년에... 네. 여러 가지 여건이 불가능이에요. 애들 교육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국에 모든 여건이. 그 당시 나가보니까 ROTC 했던 친구들이 전부 별 달아가지고, 그 별 둘 달고 사단장하고 있고 뭐 국회 보니까, 그때 국회의원이 13명이나 되드라고. 우리 거 61학번 중에서. 근데 그 친구들하고 나하고는 이미 전혀 다른 세계야. 만나서 술 한 잔 먹고 아야, 너 오래간만이다. 어찌구. 이 얘기 하면은 옛날 학교 다닐 때 얘기했나 헐 얘기가 없잖아. 개네들 지들끼리 보면 전부 다 학교 때 별로 안 친한 애들도 지금은 전부 다 탁탁, 연결고리가 맺어져있어요. 말하자면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정치하는 놈은 정치자금 필요하고. 사업하는 놈은 권력이 필요하고. 군대 그 별단 애들은 이제 진급 할래면. 그러니 서로가 이제 선거 때 선거자금 대주고, 사업하는 애들은. 그리고 저 이제 국회의원 되면 애 사업하는 애들, 그 사업할 때 또 필요할 때 거기서 잘해주고. 전부 다 지들끼리 연결 돼 있고, 나는 이제 거기 가서 대화에 거기 끼어봤자 옛날 학교 다닐 때 이야기밖에 헐 얘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만나서, 아휴 오래간만이다 술 한 잔 먹고 어찌구 저저. 그리고 다스 바스?(das war's?, 그래서?) 그걸로 끝나지, 그 이상 이게 더 진전이 안 돼. 그래 내가 나 거기서 몇십 년 살았으니까 거기서 살아라. 여기 나와봤자 그렇다. 전부 다 그런 얘기야. 개들은 현실적으로 애길하는 거지.

## 연금자 생활과 한국과의 관계

---

그리고 내 집안에 우리 형님이 결국은, 우리 형님 얘길 잠깐 허면요. 그 김대중 씨가 그때 아까 잠깐 얘길 해다 말았지만, 김대중 씨가 그 인제 야당이 다 통합해가지고 그때 노태우 대통령선거를 허는데 그때 김대중 씨가 미국에 망명했다 귀국했죠. 귀국해가지고 인제 이 야당이 전부 통합을 하고 신민야당통합을 해서, 김대중 씨 입당을 해가지고. 당내에서 대통령 후보를 김대중, 김영삼. 양 쌍두마찬데. 이 당내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대로 하면은, 김영삼 씨가 압도적으로 돼 있어요. 김대중 씨는 계속 망명해서 외국에 나가 있었구. 그러니까 국민적인 인기는 김대중 씨가 좋지마는 당내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대로 허면은 김영삼 씨가 압도적으로 되게 돼 있다고. 그런데 지금 전두환이 끝나고 노태우가 그쪽에서 나오는데 여기 두 사람 다 나오면 노태우가 되는 건, 어린애가 봐도 그건 뭐 아주 삼척동자도 알 일 이야. 근데 이 두 사람들은, 김대중이는 광주에 가면은 30만, 40만 광주시민들이 모여가지고 김대중 연호하고. 거기 가면 자기 대통령 될 거 같애. 김영삼이 부산 가든 또 김영삼, 김영삼. 이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그래요. 그 대통령 될 욕심에, 두 사람 다, 온 국민들을 두 후보가 해서 단일화 허기를 전부, 온 국민의 열망인데. 그래 김대중 씨가 결국은, 당내에서 실력내기를 해가지고 후보질문 대의원 전당대회를 열어서 대의원 후보, 대통령 후보 지명돼야 되든 자기는 안 되겠으니까. 이 사람이 평민당이란 당을 만들어서 다시 나왔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내가 보기에 그때서부터 그 젊었을 때 그렇게 투쟁하던 사람이, 상황 판단이 흐려진 거야. 정권력에 눈이 어둡고 주위에 전부 그, 소위 간신들만 들식거리고. 옳은 말 허는 충신 참모들은 그냥 뭐 전부 잘라버리고. 우리 형도 그중에서 이러든 안 됩니다, 여기서 또 당을 만들어 나가면은 국민들한테 배신행위고, 이번은 대세가 김영삼 씨니까 이번은 우리가 양보해서 단일화를 만들어서 김영삼 후보를 밀어주면은, 5년 후에는 김대중 씨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온 국민이 그냥 국부로 추앙을 해가지고 더 좋은 여건 하에서 성공현 대통령직을 수행 할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김영삼이한테 양보를 험시다. 이게 옳은, 정확한 판단한 거라. 그런 그 진화를 한 사람이 참모가 몇 있는데, 그런 사람들 전부 김대중이가 전부 내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양보험니까. 나가든 되는데 나가든 되는데. 결국은 이 사람 결국 평민당 만들어서 나왔죠 그리고 노태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형님은 평민당 만들어 나갈 때 그 김대중 씨를 따라서 안 나갔어요. 거기 그냥 잔류했어요. 그래서 김영삼 씨가 고마워가지고, 김대중 사람인데 김대중 따라서 평민당, 분당해서 안 나가고 그대로

잔류허니까 참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인제 그 김대중 사람이 거기 잔류허니까 김영삼한테는 큰 그 말하자면, 자기 체면이 스고 선전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 보상 차원에서 그때 선거 때 우리 형님을 갖다 민주당 사무총장을 시켰지. 그래서 우리 형님 그때 그 민주당에 정승화 육군참모, 정승화 씨를 갖다가 민주당을 입당하는 그 작업을 우리 형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5공 청문회 때 보면은 우리 형님도 많이 나와요, 그 텔레비전, 뉴스 화면에. 정승화 씨 입당시켜가지고 정승화 씨를 선거 유세하는 데 김영삼이 선거 유세 하게 하고. 그런데 결국은 박종률은 어쨌든 간에 김대중 사람. 근데 김영삼이한테 거기에 갔지만, 김영삼이는 또 원래 계보가 있잖아. 예를 들으면 지금 최용호나 김정명이니. 거기에 물과 기름이지. 그래서 김영삼 씨가 보상 차원에서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한국 지도자육성회라는 사단법인, 그 재단이사회가 있어요. 그 정부에서는 거기 이사장 시켜주면서 그때부터 우리 형님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고혈압하고 당 앓고. 투석하면서 일주일에 세네 시간 병 투석하고. 정치활동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그냥, 어느 날 고혈압으로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대로 의식이 안 깨어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그 양반은 파란만장한 삶. 정치인으로서 참 불운헌, 내눈으로 지켜본, 한국 현대 정치사의 그 완전히 신증인이라. 그 돌아간 게 다 보이고. 그래서 그 형도 돌아가고.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가가지고 부모도 안 계시고, 뭐 형제도 우리 큰형, 작은형 다 돌아가시고. 큰누님도 돌아가시고, 큰매형 돌아가시고. 한국에 살아생존해 있는 건 아까 그 작은 누님, 지금 파부되가지고. 남편 벌써 돌아가시고. 하고 혼자 그냥 외롭게 살고 그것뿐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가봤자 나는 집도 없고, 뭐도 없고 진짜 거기 뭐 내 조국이라고 그러지만. 그리고 인제 여기서 살다보니까 애들도 학교때때 또 저런 교육활동을 이어, 여권을 또 독일 시민권으로 바꾸니까. 이걸 사실 독일 사람이 한국 가봤자지, 선거권도 없고. 그래서 나 개인적인 저저로는 여기서 인제 뼈를 묻고 내 생을 마감하는, 그런 걸로 인제. 원허든 원허지 않든. 그렇게 내 생을 마감하는 그런 단계에 왔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끝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한국에서 그 독일로 가는, 그때가 60, 70년도에 간 광부, 간호사들. 이분들이 뭐 한국의 경제개발에 이바지했고 뭐 어찌구 해서 인제 뭐 국가유공자로 뭐 지정을 해줘야 된다 허는 청원을 어쩍 한다는데. 내 생각으로는 틀려요. 그때 우리가 온 사람들이 거 한국에 경제 발전에서 뿔도 아니고 그때 먹고살기 힘들어서 나온 거고. 그다음에 인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때. 내 그 분명히 그 이야기가 하고 싶은데, 내가 그 직접 그 역사현장에 있던 사람이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 1964년 그 독일. 저 선진들, 광산에

있을 때 독일 방문한 게 있어가지고. 여기 루르 지방 광부, 광산에서 저거 하고 그랬는데. 그 때 혁명직후에 “국가적 최고의 장” 해가지고 미국 가서 혁명정부를 인정을 안 해서, 그 원조도 않고. 미국 가서도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그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경제개발5개년계획이라는 혁명정부에서 그걸 이반한 게 아니고, 내가 알기로 모든 이반은 민주당 정부 때, 장면 정부 때 해놓은 거 갖다가 민주당 그 정권을, 저 장면 정권에서 그걸 실천하려고 그러는데 혁명이 나가지고. 그걸 혁명정부에서 그걸 이제 이반할 걸 갖다 그걸 추진해서 이제 저거한 건데. 근데 돈이 필요하니까 차관을 얻기 위해서 미국 갔다가 전부 저절당하고. 독일에 그때 들려서 그때, 독일에 대통령이 뤼프케(Luebke)인데. 그 양반이 한국에 방한했었고. 그래가지고 독일 와서 차관을 내가 알기로, 그때 얼마였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150만 마르크가? 차관을 얻어, 독일서 내가 알기로 혁명정부에서 차관을 얻은 것은, 그게 이제 경제개발 착수를 허는, 착수지금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그때 서독으로 간 광부, 간호원들 봉급을 담보로 해서 그걸 담보로 잡히고 차관을 얻어왔다. 이런 얘길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여기 있을 때, 그때 통역으로 했던 백영훈 박사. 그 양반이 여기 몇 와가지고 뭐하고, 그 당시 박 대통령 왔을 때 그때 광부들 육영수 여사가 말하는데 전부 다 눈물 바다 되고 아주 참 독일말로 위버트라이벤(übertreiben, 과장) 해가, 위버트라이벤 해가지고 얘길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그 당시 나도 저걸 했지만은, 우리 나 독일에 와가지고 난 독일 와서 아까도 말했지만, 1마르크도 한국에 송금한 일이 없고 내 봉급가지고 누구 뭐 정부에서 봉급을 담보로 잡히고 왔대면 내 봉급을 내가 맘대로 못 써야지 그게 차관, 담보로 잡혔대는데 말이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자기 봉급 가지고 한국에 송금 할려면 하고, 쓸려면 쓰고 뭐 그랬지. 전혀 우리들 봉급이 여기 독일 정부에서 차관허다가 그게 담보로 잡혀가지고 뭐 일부라도, 전액이 아닌 일부라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봉급의 뭐 50%로 이상은 한국으로 반드시 송금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여기서 저축을 해야 된다. 그런 거나 전혀 그런 제약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위버트라이벤(übertreiben, 과장)한 거고, 사실이 아냐. 내가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에서 어떤 학자가 연구해가지고 이건 사실이 아니다, 역사는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데 이거는 일부 사람들이 왔다가 참 과장해서 현 얘가지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나는 독일서 3년간 작업한 그렇게 병가 많이 안 끊고, 나는 성실히 근무를 해서 3년을 마쳤어요. 나는 그런 면에서 참 떳떳하게 3년 동안 내 봉급, 내가 맘대로 쓰고 그랬지. 전혀 거 제약을 받아가지고 봉급이 어디 담보로 잡혀가지고,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백영훈 박사는 뭐 참 개인이름을 좀 거명해서 안 됐지만은, 사실이

아닌데 왜 그렇게, 독일말로 위버트라이벤 해가지고, 뭐허냐면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더 이렇게 숭배를 해가지고, 위대한 훌륭한 인물이란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뜻으로 허는지 모르지만, 그건 사실이 아닌 얘기를 갖다가.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 물어보든 하 여튼 여기서 우리가 일헌, 그 보수는 우리가 맘대로 관리하고 그랬지 정부 측에 제약을 받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 면담 개요

<b>구술자</b>	박종선 (전 파독광부)
<b>면담주제</b>	파독광부의 생애사
<b>면담일시</b>	2012년 10월 4일 (목) 20시 25분 ~ 22시 45분
<b>면담장소</b>	구술자(박종선) 자택, 필른
<b>면담자 1</b>	이유재 (튀빙겐대학 한국학과 교수)
<b>면담자 2</b>	이선영 (튀빙겐대학 한국학과 연구원)

# 정승식



# 정 승 식

- 1947 경상북도 문경 출생
- 1969 군 입대
- 1970~1971 월남 파병
- 1971~1972 월남 재파병 1971.10~1972.7
- 1974 파독광부 2차 27진로, 아헨 Emil Mayrisch에서 근무
- 1977 파독간호사와 결혼, 부인이 사는 괴닉슈타인으로 이주  
외국인으로 임대주택을 구하기 힘들어 아파트 구입  
KHD: Klöckner-Humboldt-Deutz AG 토나도 만드는 공장에서 근무  
슈퍼마켓 3개월 자영업으로 운영하다가 망함  
식당 10개월 운영하다가 실패
- 1991 네커만 통신판매회사에서 9개월 정도 근무  
루프트한자에서 15년간 근무
- 2007 조기 은퇴  
호텔 경영



## 어린 시절과 서울 상경

---

저는 정승식이구요, 경북 문경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부 못했고, 농촌에 아버님을 모시고 살면서, 우리 아버님은 너무 술, 그리고 또 우상, 뒤편 우상을 다 섬기면서 동네사를 다 섬겼습니다. 이렇게 살아오는 우리 아버지 밑에서의 삶이 너무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그런 다종교를 섬기면서 보통 술이 이렇게 취하시면 그런 화풀이를 가족들에게 하고요, 부인한테 아니면 저한테. 제일 타겟트가 되는 사람이 어머니하고 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많이 맞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다가 군대 가기 전에 8월 추석날이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18 살쯤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 8월 추석 때는 이제 좀 옷이라도 제대로 입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야 되겠는데 돈을 벌 길이 없어가지고 마을에 어른들이 벌목하는데, 거기 가서 한 달 하면은 돈을 좀 번다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른들 그 벌목하는데 좀 일을 끼어달라고 그러니까 힘이 약하다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사정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벌목을 그 참, 한 달 반인가 했어요. 그 나무 이렇게 무거운 거 진짜 힘들었어요. 어른들 이제 뭐 물심부름, 뭐 점심 심부름 이런 거는 내가 맡아서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 추석 바로 대목 장날이었습니다. 그때 한 달반 일한 거를 벌목한 사장이 돈을 준다고 그래서 갈땡 장날 되는 날, 돈을 타러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날 신기하게도 아버지가 먼저 시장을 내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시장 내려간 다음에 내가 1시간쯤 늦게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그 사장한테 내가 그 한 달반 일한 거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자네 어른 드렸지.” 그러더라고요. 그때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그래 아버지를 찾아다니니까 어느 술집에서 아버지 또래 되시는 분들하며 술판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그 돈 제가 번 거니까 좀 주세요.” 그랬더니만, 다 술값 갚고 없대요, 돈이.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친구들이 죽 있고 그래서 별 얘기를 못하고 이제 좀 실의에 빠져가지고 이래 있었는데, 아버지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막 달라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강요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놈시키, 내가 이만치 키워냈는데!” 그러면서 그 키운 돈, 그거 니가 도로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옆에 동석한 부인의 웃음] 그래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는 추석날이 됐는데 그 또 뭐 옷도 한 벌 없지, 친구들하고 나가서 놀러니깐 이제 뭐 처량하고 그래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루 종일 추석날 마루에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그때 추석날 사방에 다니면서 이웃끼리 술도 드시고 그래가지고 해가 질 무렵에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오시더니만 내가 이렇게 처량하게 앉아 있는 게 보기 싫었던지 저렇게 앉아 놀지 말고 일을 하든가 하지 그렇게 있다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아버지한테 한번 처음으로 달려들었어요. 시골이니깐 쉽게 잡을 수 있는 게 지게작대기가 있어요, 그거 이제 아시는지 몰라, 이렇게 가지 쳐가지고. 그 지게 작대기가 이제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 작대기를 들고 아버지께서 저한테 막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도망가다가 눈에 빠져가지고 옷도 다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 눈에 빠져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음... [구슬자가 울먹인다] 도저히 이제 내가 아버지하고는 같이 못 살겠다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한테 들어와가지고, 제가 용기를 내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보기 싫은 자식이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겁도 없이 그냥 나왔지요. 그때 해는 쬘고, 시골인데 동네사람 제가 아버지하고 싸우는 걸 다 봤어요. 내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나오니까 막 마을아줌마들하고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서 가지마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울면서 구슬] 저는 한 번 마음먹은 거니깐 그냥 나왔어요. 나오니까 어머니가 이제 돈을 그때 200원인가 이렇게 주머니 꼬깃꼬깃 숨겨놓은 돈을 주시면서 너도 니 갈 길을 찾아서 가라고 하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 200원 가지고 계산하니까 약 부산까지 내려갈 수 있는 차비가 가능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가지고 내려가다가 김천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요. 부산에 가면은 고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형편이 되면 내가 고모한테 가서 또 아쉬운 소리를 할 것 같애가지고는 김천에서 방향을 서울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천에서 서울 올라가는데 대전에 올라가니깐 차비가 다 떨어졌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전에서 일을 하려고 하니깐 나를 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계속 서울로 갔어요. 대전서 수원까지 올라가는데 3일이 걸렸는데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3일을 굶으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그때가 8월 추석이 끝난 기간이었기 때문에 기차에는 귀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막 문을 안 닫고 옆에 붙어서 가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서울 올라가는데 하도 사람이 많으니깐 이제 슈바츠(Schwarz, 무임승차), 차비를 안내고 한 역서 다음 역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원까지 왔는데, 수원에서 서울 가는 건 도저히 안 되겠어, 수원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를 받은 해는 져서 어둑어둑한데, 그 경기도 사람들이 참 약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일 좀 하겠다니까 내가 그때 이 몸이 너무 약하고, 그 체질가지고 농사일 못한다고 그러면서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아주 깊숙이 들

어가니깐 어떤 할아버지가 절뚝절뚝 하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나 농사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깐, 어, 이렇게 보더니만 그 체격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냐고 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한 번 시험해보겠다고. 그래서 밤에 어두운데, 밥도 계속 3일 굶었는데, 벼를 한 짐 지고 오라고 그래, 자기 아들하고 이제 들판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벼를 그 사람 아들 못지않게 짐을 지고 왔습니다. 그래 저녁을 얻어먹고, 뭐 굶었더니만 밥을 한 두 그릇 정도 먹었죠. 다음날부터 그 할아버지가 볼 때 아, 일은 그래도 잘하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한 달을 일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일을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비가 와서 노는 날은 밥값을 빼겠다 해서, 거기서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비 오는 날이면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이제 하루 종일 새끼를 까꿨어요. 그러니깐 그거를 이제 밥값을 한거 빼고 한 달 일을 했는데 돈을 상당히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옷 좀 새로 사 입고, 서울에 올라갔는데요, 그때가 10월, 양력으로 한 11월 달쯤 된 것 같아요.

**몇 년이었습니까?** 그때가 67년쯤 됐을 거예요. 예, 67년. 그때 서울 올라갔는데, 서울을 들어가는 산마다 전부 집이니까, 밤에 집마다 창문으로 빛이 나와요. 내가 그 버스를 타고 들어가면서 그때 내 생각에 야, 저 많은 집 중에 내가 들어갈 집은 하나도 없구나. 좀 이제 그렇게 처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던지 그 날 밤을 어떻게 지내고, 어떤 아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제지공장에 들어가서, 화장지 만드는 그런 공장에서 일을 한 1년 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그냥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아, 우연히 알게 된 사람.** 무조건 일 좀 할 수 있게끔 서울에서 찾아다녔으니까. 그러면서 어떤 분을 알게 되었는데, 그럼 자기하고 일을 같이 하자고 그래서, 거기서 일을 같이 했어요.. 그 사람도 이제 집이 없어요. 그 공장에서 자가면서 일을 했어요. 식구는 어머니하고 동생이 있다 그랬는데. 그때 얼마나 추울 때예요? 그래서 화장지를 토파낸 종이, 그거를 풀어가지고 그 사람도 그 속에 들어가 자고 나도 그 속에 들어가 자는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이 사람이 뭘했냐면은, 전기다마를 이렇게 해가지고 철사로 요렇게 망을 만들어가지고, 또 다마를 그 속에 넣고 그거를 이제 우리 두 사람 사이에다가 놓고 자면 그 다마의 열에 의해서

그 추운 겨울 좀 피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같이 생활을 하고 밥도 거기서 해 먹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내가 한 번은 다마에 발이 데어가지고 한 3개월을, 약도 없고 이러니까 3개월 동안 발이 데어 고생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름이 되어서 방을 하나 얻어 자취생활을 했지요. 집 나온 지 한 1년 반 돼가지고 궁금해서 집에 편지를 했더니만 아버지가 답을 하셨더라고요. 저기 영장이 나왔으니까 빨리 오라고. 이제 군대가 4월 달 입손데, 군대 입소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내가 그 2년 동안 밖에 있으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온다고 생각했는거봐요. 근데 뭐 돈이 없잖아요. 군대 입소하는데 돈 한 푼도 안 주시고,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 군 생활과 베트남 파병

그냥 뭐 빈손으로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안동 36사에서 군대 생활하면서 내가 가장 슬펐던 것은, 많은 훈련생들이 자잖아요, 내무반에서 자는데... 그 다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아, 자기 형은 중앙정보부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때 박정희 때 중앙정보부면은, 그 중앙정보부가 요원이 나타나면 산천이 편다고 그랬어요. 중앙정보부에 있는데, 자기는 훈련만 마치면은 육본으로 간다 어디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쪽 듣는데, 나에게서는 아무것도 도와줄 사람이 없지요. 그런 중에서도 나같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103보나 면했으면 좋겠다." 103보, 101보가 최전방이었던거봐요. 거기 가면 겨울에 막 이런 거 입고, 철책선 앞에서 밤새도록 보초 서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103보하고 101보만 면하면은 행운이다, 다 그렇게 얘기 하더라고. 나는 뭐 103보, 101보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될 대로 되라고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동 36사에서 훈련을 마치고, 내가 병과가 육일공 운전병이니까 부산 운교대로 팔렸어요. 운교대로 넘어가 운교대에서 한 6주 또 교육을 받는데, 아, 운교대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요, 들어간 날부터 막 조교들 밥 사먹어야 되고요, 돈 없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밤 12시만 되면 깨워가지고 사람들을 못살게 그러는데. 그래서 하도 견디다 못해가지고 집에 편지를 했어요, 돈을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좀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운전할 때 딱 탈 때 조교한테 하얀 장갑 하나, 그때가 담배가 제일 좋은 게 신탄진 담배였어요. 신탄진 담배 하나, 하얀 장갑 한 켤레를 조교를 딱 주면서 타야지, 안 그러면은 타자마자 여기가 막 그냥 주먹

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번갯불이 팍팍 튀는 거죠. 아버지 돈 보내 준 것 가지고 한 일주일 쓰니까 돈 다 떨어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돈이 없으니깐 그냥 탔어요. 한 번은 울산 내려오는 데서 길이 엄청 난간 있는 데서, 여기 그냥 불이, 쪼갯기가 막 세 차례 맞고 나니까 나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를 난간으로 몰면서 같이 죽어버리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랜 거죠. 그래가지고는 다시는 안 그러더라고요. 운교대 그걸 하면서 그때 부정이 얼마나 심했는지 대단했습니다. 내 교육 마치는 거 한 일주일 앞두고 낮에 새카만 세단차가 한 3대가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막 6월 달, 7월 달 한참 더울 텐데. 세단차가 들어오더니만 바로 교육관실로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는 별 볼일 없는 걸로 생각하고 그날 잘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교육관이 바뀐 거예요. 바뀌면서 그 사람이 직접 그 배식하는 데 서가지고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하면서. 갑자기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배 고프지? 많이 먹어라.”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도 그 교육 받는 중에 진짜 중앙정보부에 속한 사람 동생이 있었다 그래요. 이 사람이 끝까지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고, 그 운전 노상훈련 가면서 계속 편지를 써가지고 길에다 던졌어요, 이렇게. 누구든지 이 편지를 줍는 사람이 좀 부쳐달라고. 그래 했는데 그 많은 편지를 부쳤는데 한 통이 아마 들어갔는가봐요. 그래가지고 중앙정보부에서 교육대장하고 참모들은 싹 그 날 하루에 다 바뀌치운 거예요. 보통 교육이 끝나고 배치할 때 돈 받고 해야 되잖아요. 돈 많이 낸 사람이 좋은 데 가고 그래야 하는데 이게 다 바뀌고 나니깐요, 정식으로 한 거예요, 순서대로 잘라가지고. 운전교육 마치고 난 다음에 딱 배치를 하는데 나는 제일 마지막까지 안 부르는 거예요. 제일 끝 세 사람이 남았는데, 세 사람이 우리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지 그러고 있는데, 세 사람한테만 부평에 있는 미 애스컴(ASCOM: Army Service Command) 그리 간대요. 미애스컴이 뭐지? 뭐지? 그러고 있는데 우리 세 사람은 찾아가래요, 주소하고 주면서. 그래서 세 사람이 기차를 타고 부평 미 애스컴에 왔습니다. 거기 딱 오니깐 이게 진짜 미군부대대요. 아, 진짜 뭐 놀랄 정도로 정말 좋더라고요. 가니깐, 이제 거기 가니깐 막 고생했다 그러면서 고참들이 막 중식을 갖다가 한상 차려놨어요, 저녁에. 맛있게 먹고 “야, 우리가 무슨 운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지?” 하면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근데 같이 온 세 사람이 나같이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그런 행운을 만나고,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복무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박 대통령이 유신헌법(1969년 10월 17일 삼선개헌 국민투표)이었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인사계가 저녁에 와서 교육을 해요. “내일 아침에 너희들 투



표할 텐데, 다 거기다 알았냐?” 그래서 “예.” 그러죠. “알았냐?” 하면 전부 찬성 찍으라는 거거든요. 제가 박 대통령 다른 건 다 좋았는데 그런 유신헌법 이런 것들 저는 반대했습니다. 저는 반대를 찍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 먹으러 식당에 들어가니깐 인사제가 바로 문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보고 “정승식! 이놈 새끼!” 이러면서, “너 당장 월남 가!” 이러더라고요. 나도 안 그래도 ‘군대 가면 월남 한 번 가야 되겠다, 거기 가서 총이라도 좀 한 번 쏴봐야겠다.’ 이렇게 원했고 바랬던 곳이니깐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장 그 이튿날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오음리 가서 훈련을 받고, 월남 갔습니다. 월남 갔는데도 52포대에 떨어져가지고 정말 좋은 생활을 했습니다. 월남 생활이 너무 좋았어요. 좋은 생활이었고, 그 다음에 마치고 나서 한국에 왔는데.

**월남엔 얼마나 계셨습니까?** 1년요.

**월남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이제 처음에는 보급차 운전을 했어요. 보급차 운전을 하면서 내가 손재주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발전기, 그건 다 자가발전이니깐, 발전기를 제가 맡아가지고 했어요. 발전기 고장 나면 제가 고쳐가지고, 발전 공급을 해주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월남에서 뭐 내무 서열이고 뭐 이런 거 다 열외였어요, 발전병이었으니까. 그래서 정말 월남 생활이 그때 정말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아무한테도 그런 제재를 안 받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1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럼 월남에서 그럼, 뭐 월급을 더 많이 받았습니까, 아니면 혜택이 있었습니까?**

월남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달에 한 60불인가 나왔어요. 60불인가 나오면 한 사람당에 그것을 주는 돈이 5불 내지 6불을 주는데요, 그것도 현금으로, 현찰로 주지 않고 쿠폰으로 줘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귀국선물도 사고, 모아가지고 카메라도 사고, 전축도 사고 그래가지고 나옵니다, 1년 후에, 사병들은.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나올 때, 장교들이 가지고 나오는 박스가 2m×2m. 그러면은 거기다가 월남에서 전쟁 때 모은 구리 같은 거, 포 쏘는 신주 같은 거를 가지고 나오면요, 부산에서 그거 큰 돈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나는 포병도 아니었고 수송병이었으니까 귀국 박스가 없었어요. 빈손으로 그냥 나왔죠. 그래도 어쨌든 1년 월남 생활에서만 받은 돈을 가지고 한국에서 시골 땅을 몇 마지기, 논을 몇 마지기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었고, 큰 황소 한 마리 값 정도 되는 하여튼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큰 밑천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받았습시다. 저는 그 돈을 다 아버지한테 드리고, 그리고는 다시 한국 부대에 들어갔는데, 전 연막부대에 들어갔어요. 한국에선 그때 그 부대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나는 거기 가서는 못 살겠더라고요. 월남서 그러다 오니까.

**언제 오셨어요, 다시? 월남에선 언제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깐 70년 때에 갔다가 71년에 나왔죠. 4월 달에 나왔다가, 도저히 못 살겠어서 다시 자대배치 돼가지고, 71년 10월 달에 내가 또 다시 월남 재파를 했습니다. 재파를 해가지고, 72년 7월 달쯤인가 나왔는데…

**그럼 두 번째 가셨을 때도 같은 일을 하셨습니까?** 두 번째 갔을 때는 이제 수송부로 갔는데, 급수차 운전했습니다. 그때 급수차도 아주, 진짜 특수종이었어요. 이제 물만 각 부대에 한 습 실어다 주면 내 임무는 끝이니까. 그리고 사실 뭐 급수차 운전수가 장교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우가 좋았어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두 번을 가는 게 흔한 일이었습니까?** 아니죠.

**근데 신청하면 문제없이 갈 수 있었어요?** 아니요. 그게 소총수로 가면은 되는데요, 수송병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일군사령부에 가가지고 재파를 원한다 그러니깐 수송은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수송은 가도 돌아온대. 그래서 자기가 내줄 순 있대요, 수송수로. 근데 내주는데 가봐야 100프로 돌아오니까 안 된대요. 오음리에서. 그래서 난 돌아와도 좋으니깐 수송부로 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줬는데, 오음리에 몇 천 명이 모였죠. 그때 재파자가 한 280명이 됐어요, 280명 중에 나 하나를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인사병이 상병이에요, 난 이제 병장이고. 인사병 상병이 딱 올라서더니만 “정승식!”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손을 딱 드니깐, “너 재파자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단 “너 말 조심해!” 내가 딱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나는 병장이고 너는 상병이니까 “너 말 조심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인사병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말을 놓을 수 있대. “군대는 계급이야.” 그러면서 내가 따졌어요. 그러면서 그거 하는 말이, “너 누구 백으로 가는 거야?” 나보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백으로 간다.” 내가 딱 그랬어요, 거기서. 어차피 뭐 배짱으로 나가는 사람이니까. 내 백으로 간다 그러니까, “너 이거 가지고 못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어차피 그랬어요. “내가 못 가는 건 괜찮은데, 내

못 가는 거 때문에 니한테 오는 후폭풍은 니가 스스로 책임져.” 내가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만 거기서 겁 먹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오음리갔는데, 아무 말 없이 훈련을 받고 다시 이제 월남을 갔습니다. 월남을 가가지고 이제 재밌으니까 제대가 한 달 이상 오바됐어요. 그러니까 한 수송관이 부르더라고요. “야, 육본에서 너 나와서 빨리 제대하래.” 그래서 “아이, 안 갈랍니다.” 그러니까, “가!” 그래가지고 나와서 제대를 했습니다.

## 파독 과정

---

제대한 때가 한 7월 달쯤 됐는데요. 사실 막상 제대하고 한국 사회에 나오니까, 먹고살 길이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농토도 또 충분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와가지고 한 4개월 동안은요, 전연 두문불출하고 집에서 농사일만 조금 거 들고 그리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보기에 너무 답답했던지 돈을 한 2,000원인가 주시면서, 오늘 장인데 한 번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000원 가지고 갈평장에 나오니까 친구들도 만나고 아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장래문제가 이제 이야기 되는 거죠. 야, 어떻게 살 것인가. 넌 지금 뭐하고 사냐?”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은 폐광된 데 가가지고 철이 많이 든 돌을 골라서 그것을 장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나도 어떻게 좀 살 수 있는 길을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원도 어디 가면은 오징어잡이 하는데 그때 그 겨울에 오징어 딸릴 철이래요. 그걸 한 번 잘 만나면 괜찮은데, 날씨를 잘못 만나면 망한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외항선, 배를 타면은 너무 좋대요. 그게 뭐냐면은, 한 3개월 동안 배를 타고 가다가 부두에 닿으면은 3개월 동안 번 돈을 다 쓰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야, 그럼 그 외항선 타는 거 조금만 알아봐라.” 그랬더니, 그것도 1년 교육을 받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그리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문경에 있는데, 거기서 갈평까지 올라가면 한 30km 되는 거리를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왔어요. 전화도 없고 그럴 때니까. 중앙일보 신문을 들고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야, 여기 파독광부 모집이 나왔는데 너 한 번 안 갈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난 가면 좋지. 그런데 조건이 안 되잖아.” 그랬더니만. 보니까 15개월 광산 경력이 있어야 되고 뭐 이제 그런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건 조건이 하나도 나

한테 맞는 게 없잖아.” 그러니깐, 체중이 절대 60kg 이하는 안 되고, 나는 그때 56kg, 58kg 밖엔 안 나갔으니까 이게 안 되고 그러는데, 체중은 니가 알아서 조정하고 다른 광산경력은 내가 해결, 책임져줄 테니까 간다면은, 갈 거냐? 안 갈거냐? 말만 하래. 그래서 동교동에 가서 신체검사해서 떨어지고 이러는 건 자기는 못해주고 광산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해달라 그랬어요.

**그게 언제였어요?** 73년도 12월쯤 됐어요, 그게 제가 사실 그 광산경력 15개월을 맞추니깐요, 제대한 날짜하고 거기 광산에 들어간 거, 그리고 해외 개발공사에 신청한 거 하고 하니까요. 14개월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개가 15개월을 했는데, 해외개발공사에서 접수할 때 그걸 가져로 만든 거니까 밤새도록 물질을 해가지고 닦았어요. 닦아가지고는 그걸 14개월로 줄였어요. 왜냐하면 제대하고 안 맞으니깐. 차라리 한 달 모자라는 게 나아. 그래가 접수를 했는데.

**근데 그 친구는 그걸 어떻게 했어요?** 친구는 뭐 자기 아버지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깐, 광산에. 자기 아버지가 또 광산 사장이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든지 해줄 수 있죠. 서류에다 자기 아버지 사인하고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거니깐 해준 거죠. 그래 했는데, 해외개발공사에다 그걸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 사람이 서류를 딱 보더니만 대번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양반 왜 이거 위조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 없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말밖엔 안했어요. 그랬는데 일단은, 우리 독일 오는 사람들 모래가마니 드는 게 있어요. 그게 한 60kg 되네요. 모래가마니를 그걸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여기 들고 있는 그 시간이 한 5, 6초씩 되는가 그렇게 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요구하는 수준만큼 모래가마니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모래가마니를 이렇게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 등치는 막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도 모래가마니를 무릎에서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저걸 못 올리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모래가마니 드는 걸 계속 봤지요, 주시해 봤는데, 특히 모래가마니가 물렁물렁한 것들은 더 못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어느 게 제일 딱딱한가 그걸 봐가지고 딱딱한 걸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확 올라가버렸어요, 이 모래가마니가. 그러니까 그 심사하는 사람이, 오와, 이 양반 그 갈비에 어디에 그 힘이 나왔대? 허허허. 그래가지고 들고 있으니까 “됐어, 됐어.” 놓으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났어요. 그래가 거기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신체검사에서 우리가 그 여기 독일을 위해서 두 팀이 우리하고

같이 다녔는데, 16명이 같이 이제 늘 다니면서 그걸 했는데, 16명 중에 저 하나 밖에 못 왔어요. 나머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6대 1 이에요. 그 일행을 내가 따라댕기면서 내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들 중에 못 갈 사람은 틀림없이 난데, 하, 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런 고민을 늘 가지고 따라다녔는데, 고민했던 나는 오고 나머지는 다 못 왔습니다. 그래 내가 온 다음에 1년 후에 한 사람은 다시 돈 써가지고 재파해서 독일 오긴 했는데 그 사람은 1년도 못 마치고 갔습니다.

그래 이제 독일에 와가지고 아, 독일 오면 모든 것이 참 형통하게 잘 풀릴 줄 알았지요. 독일에 와서 4주를 위버타게(Übertage, 지상) 교육이라고, 위에서, 지상에서, 광산에 들어가서 하는 일들을 교육을 받는 겁니다. 슈템펠(Stempel, 지주) 이렇게 치는 거, 이런 거를 교육을 4주를 받고, 막상 이제 지하에 들어갔는데요, 운터타게(Untertage,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한국에서도 교육을 받았습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광산 교육, 광산에 뭐 그런 이런 거 이런 거 일한다는 것만 교육 받았지요. 광산에 우리가 그 한국에서 교육받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광산에 쓰는 기구들, 도구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필요한 용어들. 뭐 "샤이세(Schleiß, 뚱, 쟀장), 누구, 뭐!" 이런 것들 좀 배우고요, 뭐 다른 거는 특별히 배운 게 없고. 실질적으로 이제 교육 받는 거는 독일에 와서 그 이제 운터타게 교육을 받았습시다.

또 운터타게에 들어가가지고,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또 한 6주 동안 실제 마이스터(Meister, 장) 밑에 붙으면서, 교육을 받았어요. 처음에 들어갔는데요, 그 슈템펠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쇠로 돼가지고 이렇게 그 쭈꺼비라는 걸 놓고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쪽쪽쪽쪽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그 칼 이렇게 돼가지고 걸면은 여기다 이걸 못 놀게 받쳐가지고 기계로 돌리면 바람으로 해서 이게 탁 받쳐주거든요. 이렇게 받쳐주면 우리가 아래서 탄을 파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 슈템펠이라는 게 밑에가 이렇게 코끼리 발처럼 벌어져 있어요. 왜냐면 땅으로 안 들어가라고. 근데 그게 아마 한 20, 30kg쯤 될 거야, 그 거 하나가. 근데 그게 위에서 기울어져가지고 한 중간쯤 붙이면요, 빼내질 못하는 거예요. 우린 그걸 쭈껌으로 그걸 땡겨가지고 이렇게 쇠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쇠로 잡아 땡기는 게 있어요. 그걸로 빼내면은 일을, 능률을 못 올리잖아요. 독일 사람들은 힘이 좋으니까 이렇게 안고 두어 번 주석주석 하면 금방 빼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나는 못 빼내니까. 한 일주일 다니고 2주 다니고 했는데요,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어요, 제 힘으로는. 그래가지고 슈타이거(Steiger, 갱부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쉬운 자리를 나 좀 얻을 수 없냐?" 그러

니깐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일을 했어요. 했는데, 아무리 해도 내가 일을 못해낼 것 같  
어요. ‘야, 이거 큰일났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도저히 내가 감당을 못해 갖고, 우리  
가 이제 일하는 데 보편은 그 위치는 실트(Schild, 방패)라고 해가지고 새로 나온 건데, 철판  
이 한 1m×1m 돼가지고 그냥 그 밑에 열쇠를 가지고 탁 조종하면 이게 기계로 그냥 축축축  
축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하고 싶은데 안 붙여주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그 다음에 마이스  
터(장)한테 “나 저것 좀 하고 싶어.” 그러니까 안 된대요. 그래 그 다음날은 아침 근문데 아  
침에 안 나가고 오후에 나갔어요. 오후에 나갔는데, 마침 그때 오후에 나가니깐 그 슈템펠하  
는 데는 사람이 다 있고, 실트하는 데 사람이 하나 모자랐어요. 그래갖고 보조를 붙여주더라  
고요. 보조를 붙여주길래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가 화요일 날부터 보조를 했는데, 그 금요일  
날까지 내가 그걸 열심히 하면서 그 하는 거를 잘 봤어요, 저걸 어떻게 하는 건가. 그래가지  
고 그 실트 그 작동하는 그 열쇠까지 내가 이제 그 자재실에 가서 하나 타가지고, 그 다음주  
월요일 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만, 내가 보조를 해주던 그 마이스터가, 마이스터가 그 다  
음주에 나가니깐 이 사람이 크랑크(Krank, 병가)로 안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마이스터가 나  
보고 뭐라고 하나하면, 니가 일주일 동안 보조 했으니깐 할 수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번 해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하여튼 내가 그거 하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내  
가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스터가 내려오다가 놀래더라고요. 그러더니 계속 그냥 그  
걸로, 3년 마치는 동안에 그 일을 해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남보다 돈도 훨씬 많이 받았  
요.

**아, 기술직입니까?** 예, 예. 기술직이고요.

**그럼 얼마를 받았습니까, 그때?** 그때 제가, 다른 사람들은 그때 받는 돈이 보통 1,400마  
르크, 1,300마르크, 1,200마르크 받는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나는 뭐 그때 거의 1,600에서  
1,800 받았습시다, 마르크로, 엄청 많이 받은 거죠.

**어디에 가셨었죠?** 그때 아헨(Aachen)이라고. 거기에 에밀 마이리쉬(Emil Mayrisch) 광산이  
있었습니다. 우리 광부들이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숫자 적은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이  
제 아헨에서 그 일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그 3년 하는 동안에 참, 잘 은혜 중에 잘 했습니  
다. 잘하고.



**숙소는 어디어디 있었어요? 기숙사가 따로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기숙사 그 광산에서 해주는 기숙사에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내다가요, '내가 독일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같이 있으니까는 한 방에 4명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독방을 얻어가지고 나오려고 하니깐, 또 어떤 친구가 같이 나오겠대요. 그래가지고 거절할 수 없어가지고 둘이 나왔는데, 그래도 둘이 되니까 공부를 좀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공부를 좀 계속 좀 하면서...

**독일어 공부요, 아니면 어떤 공부요?** 네, 독일어 공부죠. 독일어 공부를 하면서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또 어떤 기회가 돼가지고 혼자 방을 얻어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문제는 3년 마치기 전에 보니까 3년 동안 번 돈이 내가 한국 가서 뭘 할 수 있을 만큼 됐어야 되는데 안 됐어요. 그게요. 왜냐하면은 내가 원래 독일에 올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2년은 내가 열심히 벌고, 1년은 좀 즐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때, 독일에 올 때 아버지가 돈을 안 대주는 바람에 독일에 오기 위해서 내가 그 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한 4개월 동안 돈 받는, 그 교육 받는 비용을 빌려가지고 이제 빚을 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한 1년, 1년은 몰라도 그 6개월 번 거는 그 빚 갚는 걸로 쓰고요, 나머지는 아버지한테 보냈는데 아버지가 그 돈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결국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동생한테 편지가 왔는데 아버지한테 돈 보내지 마라고 그렇게 편지가 왔더라고요. 근데 뭐 나는 어차피 신경 안 쓰니까 다 보냈어요.

## 결혼 생활과 신앙 생활

---

**형제가 밋이었어요?** 원래 형제가 삼형제였는데, 제가 독일에 왔을 때 중간 동생이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때 아버지하고 트러블 때문에, 독일 온 지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차를, 현 차를 하나 사가지고 그때부터 운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운전하고 다녔는데, 3년 마치고 닳았는데 돈이 없잖아요. 한국 가도 뭘 할 수 있는 기본이 안 되니까, 야, 미국으로 어떻게 갈 수 없나. 또 미국으로 가려고 하니깐 그때도 뭐 2만, 1만 마르크를 내야지 브로커들이 미국으로 보내줬어요... 미국까지 데려다 주는 것만 1만 마르크를 내야 돼. 미국까지 데려다주는 거...

그래서 그건 안 하겠다 하고.

친구들이 이제 결혼을 쪽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많은 소개를 받았어요. 새벽 2시까지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돌아왔는데 다 아니에요, 근데 저 어떤 친구가 그 “쾨닉슈타인(Königstein)에 미스 박이라는 아가씨 있는데 한 번 만나 볼래?” 그러더라고요. 만나보지 그래가 왔는데 [옆의 부인을 가르키며]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독일에서 사는데…

**결혼은 몇 년도에 하셨나요?** 77년 3월 26일. 광산 끝날 무렵에 결혼했습니다. 4월 달에 끝나는데 3월 달에 결혼하고. 슈탄데스amt(Standesamt, 호적사무소에서 하는 혼인신고)에는 5월 5일이지. 그랬는데 원래 내가 실력이 없는 사람이니깐 한국에서 이 부정 같은 걸 해가지고 내가, 내 체신을 유지해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일에서도 사실은 내 운전면허증이 미군부대에서 받은 5톤, 그 큰 트레일러 있죠? 그거 면허증이 있는데, 그거 월남에서 도둑을 맞았어요, 돈하고. 그리고 이제 면허증이 없었는데, 독일에서 운전을 하면서 면허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위조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딱 내니까 이게 다 들통이 난 거죠. 들통 나가지고는 이제 경찰에 모든 것을 얘기하고 전부 포기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제가 막 어려움이 닥치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 설교 중에, 제가 원래는 교회를 그냥 어영부영 믿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에,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하나님이 축복을 한다. 그런 설교에 제가 이제 그 은혜를 받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일가친척 아버지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에서 그러더라고요. “일가친척 아버지집, 그거는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살던 사고방식,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가르치는 그 법, 거기로 따라 나서라.” 그런 설교를 받고 ‘아, 그렇게 한 번 살아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때 면허증 그거 딱 뺏기고 난 후에요. 그래서 차도 없는데 어떤 분이 밤에 찾아왔더라고요. 와가지고, 면허증을 가짜로 해줄 테니까, 진짜 같이 해주는데, 경찰들이 봐도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그런 거래요. 그러면서 나보고 그걸 한 2,000마르크를 주면 해준대. 근데 내가 그때 신앙으로 살려고 각오를 했으니까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이제 부정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 이 사람 참 정신없네. 당신

이 여기서 그 실력 가지고 면허증 딸 것 같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따든 못 따든 그렇게 한다고, 정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거절하고 사실 면허시험을 열심히 휴가 받아가지고 준비했는데, 면허증을 땀습니다. 따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Kontrolle (Kontrolle, 검문)을 당한 적이 없어요.

**그럼 결혼하시고 그러면 어디에서 사셨습니까?** 퀴닉슈타인에서 살았죠.

구술자 부인 저희는 타우누스 클리닉(Taunus Klinik, 타우누스 병원)에.

**그럼 이쪽으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그렇죠.

**퀴닉슈타인으로 이사를 오신 거군요?** 퀴닉슈타인에 내려와가지고 기숙사에 이 사람하고 살았는데, 기숙사에 살다보니까 우리 큰애 임신을 했어요, 일(큰아들 이름). 배가 이렇게 부르니까 기숙사에서 이제 여기는 파밀리에(Familie, 가족)가 사는 데는 아니니까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독일에 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그걸 잘 모르니까 독일 슈베스터(Schwester, 간호사)들한테 그 집, 임모빌리엔(Immobilien, 부동산) 한 번 보라고 해가지고 방 하나, 방 두 개 난 거를 찾아서 가잖아요. 가면은 이제 그것도 그 슈베스터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가요. 가면 이 사람이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문 딱 열어보고, “Ach, tut mir leid. Wir haben eben vermietet.”(아, 안타깝지만 우리 막 다른 이에게 세웠어요.) 이러면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감이 ‘아, 안 주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와서 그 슈베스터들한테 다시 전화해보라고 하면 아직 방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세 번을 그러고 나니깐요, 오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사자. 그래가지고 이제 집 사는 걸로, 사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쉬본(Eschborn)에 아파트를 싸게 샀습니다.

**근데 그 살 돈이 충분히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돈을 좀 모아 났구요. 제가 광산 나오면서 만 한 8,000마르크가 그게 이제 또 나오는 게 있어요...

구술자 부인 저도 3년 끝나면 피터 프리바트(Privat, 사보험) 생명보험있잖아요, 피타 고계 또 나왔고. 우리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좀 모았는데, 마침 그때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이자가 높아 갖고. 그래도 집을 못 얻으니까. 애는 낳아야 되고. 일단은 병원에서 애를 또 낳았어요. 그리고 기숙사에서 살았어요, 당장 쫓아낼 순 없잖아요. 슈베스터들이 다 있고

그런데, 그래도 이제 병원에서 많이 봐준 거죠.

그래서 그 이 집을 아주 싸게 샀어요. 아파트가 방 4개고 엄청 싸가지고 샀는데. 그때 살 땐 그 미테(Miete, 월세)로 들어와 있는 세입자는 우리가 신경을 안 썼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사가지고 들어가면 세입자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산거예요. 샀는데, 어떤 독일 사람, 아는 사람이 “우리가 세입자가 있는 집이다.” 그러니깐 깜짝 놀라면서, 그 세 든 사람하고 계약관계 얼마 되냐고 물어요. 아직 7년 남았다고 그러니깐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큰일 났다.” 이러는 거야. 그 세입자한테 가가지고 언제 나가겠다고 사인을 받든가 해야 된대. 7년, 그 사람 못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가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지금 애도 있고 이래가지고 집을 샀는데 당신은 언제 나가냐 이러니깐, 뭐 12월 그때, “Ende dieses Jahres.”(올해 말까지) 이러면서 그 12월 달쯤 나간다고 미테 그 계약서 밑에다가 뭐 이렇게 글씨 쓰고는 자기 사인해주더라고요. 그걸 우리는 이제 특별히 믿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 나가라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 우리가 싼 집을 못 찾겠으니까 너들이 찾아달래. 아,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호사한테, 피닉슈타인 변호사한테 찾아갔는데, 그때 변호사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아예 가능성이 없으면 싸우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이걸 안 되니까, 싸우지 마라. 여기 사인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소용 없대. 노타르(Notar, 공증인) 공증 해가지고 뭐가 있어야지, 이걸 소용 없다는 거예요, 킨더슈piel(Kinderspiel, 애들 장난)이라 그러면서. 변호사분 한 세 군데 알아보는데 세 군데가 똑같은 말을 다 했어요. 그래서 ‘아, 큰일 났다.’ 그래서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중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했어요, 둘이. 기도하면서, 해가지고, 기도를 막 하면서 한 번은 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야, 이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근처에 아는 한독가정에게 문의해보자. 독일남편하고 결혼한 한국 여자. 이제 그 집이 잘 아니깐 우리 문제를 가지고 그 집에 가서 한 번 얘기라도 해보자. 그래가지고 집 서류를 가지고 그 집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는 도중에 어떤 독일 여자분이, 눈으로 보기에 이렇게 조금 수수하지 않는 여자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아, 얘기 중에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아, 괜찮다” 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독일 사람이 나보고 계속 얘기를 하라고 눈짓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독일말 반, 한국말 반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이 얘기를 다 들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참 안됐다고.” 그러면서 그 여자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한 번 도와줄 수 있느냐고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 독일 사람이 눈짓을 하면서 승낙하래요. “아, 그러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집 서류를 다 자기를 갖다 줘야 된대. 그래서 집 서류를 다 갖다 줬죠. 갖다 줬는데, 그 여자가 진짜 그 변호사하고 싸워가지고 1년을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그래가 변호사비가 15,000마르크가 나왔는데, 그거는 진 사람이 다 물고. 그래도 안 나가니깐 츠방스로이뭉(Zwangsräumung, 강제이전), 츠방스로이뭉을 하게 됐는데, 이 츠방스로이뭉하는 새벽에 이 사람들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한 20년 동안 참 생활을 잘하고 했습니다.

**그 여자분은 어떤 분이였습니까?** 여자분은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거 도와주고 끝이었어요.

구술자 부인 하여튼 하나님께서 예비해놓으신 것 같애. 굉장히 인텔리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애도 있지요, 우리가 집 시놓은 목적이 단지 애 하고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 세 들어있는 분이요, 좀 사람이 가벼워요. “하하, 나도 집이 있다, 뭐. 허허허허.” 뭐 이러면서 그러는데. 그런 게 다 약점 잡혔어요. 그분이 워낙 그러니깐.

사람을 무시한다, 벨라이디궁(Beleidigung, 모욕)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술자 부인 우리는 거기에 법원에 가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이 직접 가가, 그 정말 이 사람이 기숙사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 사람들 집이 필요하고 애가 지금 있고 이런 데.” 이렇게 할라니까 이 사람은 자기 집도 있다 그러는데 고의적으로 안 나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법원에서 그 우리 편을 든 거예요. 원래는 진짜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분이, 여자분 워낙 똑똑하니까 해낸 거예요. 우리 둘은 정말 그 땐 신앙생활 바로 시작하고 그래서 순수했죠. 하여튼 그 기숙사 부엌 옆에 야채 같은 거 허드래기 놓는 광이 하나 있는데, 밤에 거기 들어가 어떨 땐 머리가 쭈뼛쭈뼛 선대요, 그래도 막 그런 거 참고 기도하고, 나는 또 방에서 막 기도하고 이랬는데. 진짜, 정말 우리하고 아무 그거 없는데 그분이 그렇게 저기 해가지고 도와줘가지고.

그 도와준 다음에 우리가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된다고, 딱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러곤 끝났어요.

구술자 부인 몰라요, 우리는 그러고, 그분도 어디 이사를 가시고 그랬는지.

끝났고.

## 새로운 직장과 차별 경험

---

뢰닉슈타인으로 이사 오셔서 그럼 여기 새로운 직장을 구하셨습니까? 새로운 직장을 구했죠. 새로운 직장을 구했는데. 새로운 직장이 그게 어디냐면 오버우어젤(Oberursel)에 카하데(KHD: Klöckner-Humboldt-Deutz AG)라고 그때 당시에 독일 전투기 토나도(Tornado) 그거, 저기 트윈모터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거기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했는데, 거기서 취직을 해서 일을 하면서 사실 우리 아시아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무시를 엄청 당할 때였잖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그때 한참 막 독일에 망명 나오고 이럴 때였는데. 거기 한 사람이 나를 그렇게 미워하더라고요. 인사를 하면 안 받아. 그런데 그때만 해도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이게 내가 주눅이 들질 않았어요. 당당했어요. 내가 독일에 서 산다는 자체가 아예 정말, 독일 사람들에게 오히려 참 그 뭐니까, 자존감을 갖게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싫어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카타이(Kartei, 카드식 색인)에 뭐가 어디에 있는가 고거를 카타이(Kartei, 카드식 색인)에 조종, 이렇게 타자로 이렇게 탁탁 타자를 치는 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쳐다보니깐 그 사람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아침이니까 “구텐 모르겐!”(Guten Morgen, 안녕하세요!) 그랬더니만 인사도 안 받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Wann gehst du in deine Heimat zurück?”(너 언제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니?)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내가 딱 쳐다보면서요, 그때 이게 내가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사람에게 내 성질에 그냥 한 대 쳤을 거예요. 그런데, 딱 쳐다보면서 내가 씩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웃으면서 “Ich habe nur zwei Koffer. Ich kann immer nach Korea fliegen. Aber mein Gott hat mich für euch hierher geschickt. Ich muss hier bleiben.”(나 가방이라고는 두 개밖에 없어. 난 언제든 한국으로 갈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냈어. 난 여기 있어야 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어이가 없다고 막 깔깔거리고 “고트, 고트!”(Gott, Gott!,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안 믿는대요. 안 믿고,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죽으면 자기 몸도 대학병원에 기증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다 하면서 헤어졌는데, 그 사람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목요일 날 그랬는데 금요일 날 일 나가니까 그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연락을 딱 듣고 ‘아, 참 신기하구나, 정말 신기하구나.’ 하나님이 이게 뭐 한두 번 그러면 이게 뭐 운으로 볼 수 있는데, 이래 매번 건마



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깐 이진 정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정말 물리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면서부터 두렵더라구요 나중에. 그러면서 내가 이 독일 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독일 사람들에게 절대 주눅이 안 들었어요. 직장 생활 하면서 뭐 하면은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내가 뭐 너희들한테 기죽을 필요 있냐? 그러면서 당당하게 했는데, 참 직장에서 지금까지 잘 인정받고 신앙생활 잘 했습니다.

아까 그 독일 직원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너희를 위해 여기에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신 거예요? 예, 예.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지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나를 여기 머물게 했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요, 그랬더니만 이 사람은 정말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월급은 어땠습니까? 광산에서 일할 때보다 더 많았습니까? 하, 적지요.

훨씬 더 적었습니까? 네, 그때 제가 받은 돈이 1,300마르크 정도 받았습시다.

구술자 부인 일은 쉬웠잖아요. 주말 안 하니까. 신앙생활 하기엔 좋았는데.

일은 뭐 너무 쉬웠어요. 일은 너무 쉬웠고요. 1,300마르크 받아가지고...

구술자 부인 그리고 남자니깐 더 부대끼지.

교회에다가 십일조 하고 뭐 이런 거 하니깐요. 살기가 빠듯해요. 집 샀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에이씨, 다른 사람들 식당해가지고 돈 잘 버는데 나도 식당을 한 번 시작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을 시작했는데요.

## 식품점과 식당 운영

---

언제예요, 그게? 어, 원래는 식당하기 전에 이제 사업을 제가 꿈 꿔오니깐 그 프랑크푸르트 노르트베스트슈타트(Nordweststadt) 그 옆에 그 어떤 한국 사람이 하는 그 슈퍼마켓이 쪼마난 게 한 개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이 그걸 판다고 그래가지고 슈퍼마켓을 샀는데...

구술자 부인 권리금 주고 샀죠.

권리금이 33,000마르크가 그랬어. 33,000마르크 권리금을 주고 샀는데요, 그 가게를. 뭐, 먹고

사는 거는, 처음에 들어갔을 땐 먹고 사는 거, 고 정도 되더라고요. 돈은 버는 건 안 되고. 그래 했는데 우리가 그걸 한 3개월 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하는 부흥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 부흥집회를 우리는 꼭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슈퍼마켓을 하면서 그...

**구술자 부인** 일주일간, 일주일간 휴업을 했어요.

쿤데(Kunde, 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뭐가 있어서 이제 일주일간 문을 닫는데, 5일 동안, 이해해주겠냐?” 그러니깐 이 가게는 늙은이들, 기동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있는 가게이기 때문에 하루도 닫아본 적이 없대, 이 가게는 선 날부터. 근데 당신이 문 닫으면 끝난대. 아무도 안 온대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거를 얘기를 했더니만 어떤 할머니가 이제 그 뭐라고 쓰냐면 패밀리엔팔(Familienfall, 집안 사정)로 해가지고 그 이제 ‘이 가게를 일주일 동안 닫는다.’ 그걸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창문에 붙여놓고 부흥집회를 갔었습니다. 부흥집회를 월요일부터 시작하니 금요일까지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문을 여니깐 한 사람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러니깐 어, 한 두 달, 석 달 동안 한 사람도 안 들어오니깐요, 식품만 전부 그 페어팔스다툼(Verfallsdatum, 유통기한) 있잖아요, 페어팔스다툼이 지나가니깐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한국 식품점이 아니고 일반 식품점이었습니까?** 예, 예. 일반 독일식품점.

**구술자 부인** 쪼만한 가게, 가게, 동네에.

근데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깐 집세는 밀리지, 뭐 다른 빚들하고 뭐 이제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뭐 안 되지. 그래가지고 막 한 3주, 내가 금식을 못하는데, 3일을 막 기를 쓰고 금식기도를 했어요.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게를 이 사람하고 같이 하고 점심시간에 쉬니까, 점심시간에 이 사람 밥 하러 올라가고, 나는 이제 가게 문을 닫고 이제 우리 작은 애가 킨더가르텐(Kindergarten, 유치원)에 있으니깐 개 데릴러 가서, 개 데리고 딱 들어오니깐요, 이 창문이 새카만 거예요, 그냥. 보니깐, 안에 이제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문이 딱 닫혔으니깐 연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 물이 줄줄 줄 흐르고. 아,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어떤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내가 막 당황해 하니깐 그 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도 그 교회에서 권사님이 되시는 분이데, “그러지 말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분이 이제 기도를 막 하고 났는데, 나도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3일간 금식까지 했는데 그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고 막 반항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막 소방서에 연락했잖아요. 그래서 소방서에 연락을 해서

소방서가 와가지고는 작은 가게니까는 금방 물을 몇 번 뿌리고 꺾어요. 꺾고 보니깐 우리가 거기 추워서 그 석유곤로를 피웠는데 거기서 불이 난 거죠.

구술자 부인 그게 고장이 났는지요, 불뚱이 하나 뭐가 그래 특 튀어가지고 튀었는데, 그 쓰레기, 뭐 배추, 거기로 튀어가지고 거기서 불은 안 나고 계속 연기만, 연기만 이렇게 나가 전부 다 연기로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건은 못 쓰죠. 전혀.

그리고 나니까 가게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문을 닫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뭐 어떤 방향도 없고 이젠 뭐 그야 말로 참담한 거예요. 둘이 이제 좀 실신한 상태로 앉아 있는데, 한 이틀 지났는데, 밑에 초인종 소리가 나더라고요. 내려갔더니만 우리 가게에 와서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사과 하나씩만 사가는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아들 하나 데려오고. 그런데 그 여자는 손이 없어요. 요기 요것도 없고, 요 손도 여기 없고, 이쪽 손도 없고, 이쪽 손도 요만치 없고…

손이 없어.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 가게를 들리면서 늘 사과만 하나씩 사가는 분이었는데, 딱 보고는 어떻게 됐냐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불 났다고, “페어브란트.” (Verbrannt, 불났어요) 그랬죠, 그랬더니 그럼 대책을 세웠냐고 그러니까 “카이네 아눔.” (Keine Ahnung, 몰라요)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들어오더니만 그 서류를 다 내놔 보래요. 가게 살 때 서류를 다 내놓으니까 여자가 서류를 착 뒤지니까 살 때 이제 앞에 하던 사람 보험을 내가 위버네멘(Übernehmen, 인수) 한다는 거를 그냥 백지에다가 하나 사인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 하고 그 사람이 보험으로 하나 보낸 거, 그것이 종이 하나가 있어요. 그걸 하나 딱 찾더니만 이게 사실은 잘 되진 않는데 이게 있으니까 한 번 자기가 해보겠다고. 그래 그 여자가 이 글씨를 못 쓰니까 딱 그걸 어떻게든 써가지고는, 그때 한 4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0시까지 걸렸어요, 그 편지 한 장 쓰는데. 그걸 또 잘 아는 타자치는 사람 불러서, 타자 쳐가지고, 그 편지가 다 끝나니까 밤 10시가 됐는데,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그 중앙역에 가면은 중앙역의 포스트 암트(Postamt, 우체국)는 밤새도록 여니까 거기 가서 불이라고. 그래가지고 부쳤어요. 편지를 부친 후, 3일 되니까 보험회사에서 누가 나왔더라고요. 나와가지고, 불났냐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요 안의 인벤탁(Inventar, 재고품 목록)를 전부 적어서 올려라. 그래서 종이를 딱 주고 갔어요, 전부 다. 그래 우린 그 인벤탁을 정확하게 해서 보냈더니만 이제 그 다음 사람이 또 왔더라고요. 와가지고는, 인벤탁 했는데 이제 다른 거 뭐 더 올릴 거 없느냐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올렸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은 아르바이츠 클라이dung(Arbeitskleidung, 작업복) 해가지고 한 3,000마르크를 이 사람이

자기가 더 추가해서 적어 넣었는데, 33,000마르크, 산 돈, 그거를 돌려 받았어요. 그래서요 이런 거를 보면서도, 그게 정말, 그게 하나님이 그냥 해준다 해도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버려야 될 것들이예요.

구술자 부인 쓸 만한 거는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 가져가고. 완전히 그 뭐 우유 이런 제품은 못 가져가잖아요. 그건 어려운 이분들 드리고.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이 또 그분들 살리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 가게는 팔았습니까?** 예, 예. 그 가게는 그걸로 끝을 냈죠. 보험 받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고 있는데, 그 독일에 온 사람, 아까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자꾸 나보고 뭘 동업을 같이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하고 지금 식당을 하기로 하고. 그분이 식당을 찾아가지고 그 식당이 좋으니까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식당을 우리가 위버네멘(Übernehmen, 인수)을 했는데…

**그럼, 그 가게는 전체 몇 개월을 하신 겁니까?** 10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식당을 이분하고 했는데, 식당을 할 때 이제 이 사람은 엄청 반대했죠. 반대하고, 나는 기도했는데, 나는 되는 쪽으로, 또 이 사람한테는 안 되는 쪽으로 이제 기도 응답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구술자 부인 아우, 기도 그 얼마나 했는데. 밤새도록 밤 근무 하면서.

그 사람도 기도하고 다 했어요. 했는데, 일단은 기도, ‘이제 나도 식당을 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 욕심에 끌린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식당을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식당을 하다보니까 둘이 동업해가지고는 도저히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 그분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걸 맡아가지고 혼자 다 하든가, 아니면 나한테 넘겨서 혼자 하든가, 둘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 그분이 이제 자기가 상황파악을 해보니까 자기는 도저히 혼자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구술자 부인 돈도 한 푼도 없었어요. 그냥 이름만 말만 해가지고 동업하자고 그러니.

돈도 안 넣고 그랬으니까. 그래 그 식당을 나한테 전부 위임을 하더라고요. 내가 맡아가지고 하는 동안에 아, 처음에는 이게 한 1년 동안은 그래도 잘 됐어요. 근데 식당이 뭐가 문제냐면은 그 1년, 그 주일날이 문제잖아요.

**식당이 한국식당이었습니다?** 중국식당이었어요. 주일날이 문제잖아요. 식당은 주일날, 중국식당은 특히 주일날 다 문을 여는데, 그 이제 주일날 문을 닫는다는 거, 중국사람들한테는 얘기하니까 그건 뭐 아예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러면은 주일날 닫는 걸로 하는데, 1년만 이제 내가 식당을 그냥 주일도 열고 1년 딱 지나면은 주일날 닫는 걸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그걸 4월 달에 했는데 그 다음해 4월 달에 돼가지고 주일날 문 닫는다고, 주일날은 휴무라고 이제 그걸 문에 써 붙여놓고, 요리사한테도 중국사람인데, 얘기를 하니깐 중국 사람이 신동신동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넌 망했다, 망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문 닫으니깐 안 돼. 뭐 손님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오는, 주일날만 오는 손님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식당이라는 게 손님을 위해서 있는 건데, 우리가 정말 너들한테 와가지고 정말 밥 먹으면서 즐겼고 행복했는데 주일날 문 닫으니깐, 너희들 어디 갔었냐? 하면서 불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 마음에 주일날 열까, 어떡할까, 막 이게 이제 마음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다, 문 닫는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딱 계속 문을 닫고 했는데, 한 5년 하면서요 한계가 왔어요. 이제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아, 이 이제 식당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분이 식당을 꼭 하겠다고 그래서 그분한테다가 “그러면은 내가 팔지, 파는 게 아니고 니가 그럼 하고 싶으면 한 번 그냥 경험삼아 해봐라.” 그리고 식당을 그냥 넘겨줬어요.

넘겨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은, 그 안 될 때 그래도 돈이 조금씩 들어오는 게 다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딱 끊어졌는데, 돈줄이 끊어졌으니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식당 넘겨주고 난 다음에 내가 놀진 말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직장을 찾으니깐 아무 직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가 몇 년이었어요?** 그때가 90년 통독 되고 난 다음이니깐 91년 겨울이에요. 제 나이 마흔다섯 정도 됐을 거예요. 그걸 하고 냈는데 빚은 남았어요. 피난츠암트(Finanzamt, 세무서), 뭐 페어조날(Personal, 직원) 월급 등. 피난츠암트에 돈을 못 내니깐 전부 차압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편지봉투도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시퍼런 딱지, 붉은 딱지 붙어오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리고 있는 가운데 식당이 망한 거잖아요. 망했는데, 그때 식당이 망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뭐가 일어났냐면은 다 이혼, 사업이 망하면서 거의 이혼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남자가 진 빚에 여자가, 내가 바보같이 니 빚까지 떠안냐? 하고는 다 여자들이 이혼신청하

고 다 떠나는 그런 단계였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내가 이혼하는 거, 참 저 식당 망하는 건 좋은데 내 가정만은 지켜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애들하고 전부 다 행복이 넘쳐나는데, 기쁨이 넘쳐났는데. 뭐 진짜 먹을거리가 없어가지고 진짜 된장 하나도 없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뭐 슬픈 거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애들이 뭐 천재고, 일(아들 이름)하고 바울(아들 이름)이가 너무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하고. 밥상에는 밥 조금 해놓고 거기다 된장 하고 반찬 조금 차려놓으면서도 둘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우리 혹시 둘은 게 아니야, 둘은 게 아니야? 이 제정신이 아니네.” 이러면서 서로 그러면서 밥을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렇게 잘 지내게 하면서...

## 네커만(Neckermann)과 루프트한자 근무

그 네커만(Neckermann)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루프트한자(Lufthansa)에다가 그 베베어붕(Bewerbung, 지원서)을 냈어요. 근데 루프트한자에서 이미 베베어붕이 다 끝났고, 당신은 지금 안 받는다고. 그 편지를 받고나서 포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네커만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거기서 전부 알바니아 사람들, 모로코 사람들만 일해요. 이태리 사람들도 좀 깡패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고 일했어요.

**저기서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네커만이니까 그 페어잔트(Versand, 통신 판매), 페어잔트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 들어오는 거를 실어다가 그거를 이제 그 아우프축(Aufzug, 승강기)으로 해가지고, 나는 1층에서 그 들어오는 물건을 받아다가 3층으로 올려주는 역할이에요. 그 4층까지 있는데, 4층까지 받아주는 사람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2층에 있는 사람 따로 있고, 1층에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다 달라요. 나는 3층에다가 그 물건을 갖다 대주는 걸 하는데, 그게 옷이 난 그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 옷하고 이걸 실으면요, 바겐(Wagen, 카트, 손수레)이 내가 땡겨도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독일직원들보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Nein, nicht meine Sache.”(싫어, 내 일 아니야!) 하고 하나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오면은요, 완전히 차 대놓고 집에까지 들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막 조금 쉬었다가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일을 했는데, 한 7개월 하고 나니깐요, 더 이상은 거기서 일을 이제 못 하겠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한계에 왔구나.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100일을 하려니까 너무 길고, 한 40일을 하자. 그래 40일을 작정기도를 정해놓고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할 다른 방법은 없고 집에 그 차를 차고에 딱 대고 거기서 한 10분씩 20분씩 기도를 하고 집으로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주말에는 집에서 하고 그렇게 했는데, 40일이 끝나는 날이 토요일 날이었습시다. 이제 토요일 날 이 사람은 어디 가고 없었고 나 혼자 집에 있는데, 심란한 게 이제 인생 사는 게 뭔가 하고 뭐 실의에 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누르길래 누구냐고 물었더니 뭐라 그러냐면 텔레팩스(Telefax, 전보)래요. 아, 텔레팩스? 그러면은 한국에서 무슨 문제가 있구나.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중병으로 나오라고 하는 편지겠구나, 탁 내가 그렇게 추측이 되는 거예요. 야, 이 마당에 이렇게 되면 오도가도 못하고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문을 열어주니깐 그 우체부가 이제 편지를 주더라고요. 편지를 주는 걸 받아가지고 보지도 않고는 거기다 던져 놨다가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그래도 이 편지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니깐 뜯어나 보자 하고 뜯어 보니까 루프트한자에서 편지가 왔어요. 보니깐 노란 글씨로 루프트한자 딱 찍혀가지고 편지가 왔는데, 뜯어 보니까 월요일 날 면접 보러 오라고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 날 텔레팩스를 보내가지고 월요일 날 면접 보라고 오라는 것은, 독일에는 그렇게 급하게 일처리를 하는 게 있지도 않잖아요? 보통 한 3개월 전에 편지가 오잖아요. 그러니깐 이게, 그러니까 나는 뭐 정말 황홀한 거죠.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아침에 네커만에 전화를 하고, 나 지금 뭐 저 암트(Amt, 관청)에 볼 일 있어가지고 못 간다, 그리고 루프트한자에 갔어요. 가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서 면접하고 신체검사 하고, 다 하고 났는데. 그 마지막에 그 여자 페어조날(Personal, 인사) 담당하는 여자가 딱 보더니만, 3개월만 된대요. 3개월만 루프트한자에서 일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는 아니래. 근데 내가 그 여자한테 그랬죠, “내가 지금 다른 회사, 다른 직장을 그만두고 여기 오는데 3개월만 하다가 일을 그만두면 어떡하냐?” 이러니깐, “Ihre Sache.”(그건 당신 일이구요), 그러면서 딱 냉정하게 자르더라구요. 아, 실망이 또 되잖아요, 실망이. 야, 이게 뭔가, 꿈도 깨지고, 그 기대했던 꿈이 이게 뭔가 하고는… 그러고는 딱 실망에 빠져 고민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야, 그 페어발터(Verwalter, 관리인)가 내지, 그 여자냐?” 그게 내 가슴에 딱 걸리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오케이, drei Monate!”(그래, 세 달 하자) 해가지고 사인을 딱 했어요. 했는데, 3개월 동안 제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제 거기서 뭐냐 하면은, 루프트한자 손님들이 필요한 것들, 커피 같은 거, 비행기에서 나오는 포물라(Formular, 신고용지), 입국신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커피서비스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실을 수 있게끔. 거기 플란(Plan, 계획표)이 딱 나옵니다. 점보(Jumbo) 744면 거기에 올라가는 플란이 나오고, 뭐 점보 777이면 거기에 올라가는 플란이 다 나와요.

기내에서 필요한 걸 이제 보급해주는 일이었나요? 예, 기내에서 스텐더디스들이 해줄 수 있게끔 우리가 그걸 해주는 거죠. 그리고 밥, 음식 하는 텐 다 완전히 판 데고. 우리는 거기 이제 뭐 그런 밥그릇 같은 거, 잔 같은 거, 이런 것들 준비해주는 그런 역할 같은 건데… 괜찮아요. 일이 재미있어요. 거기를 이제 하는데, 3개월 됐는데요, 정말 신기하게 그 압타일롱스 쉐프(Abteilungschef, 과장)가 종이를 덜렁덜렁 들고 찾아왔더라고요, 나한테. 당신 정식 페어트락(Vertrag, 계약)을 하자고. 그래서 페어트락을 해가지고 루프트한자에서 15년 동안 근무를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나이가 있으니깐 좀 조기, 한국으로 말하면 그 명퇴, 그거죠 지금에. 60에 퇴직을 하는 거를 하라고 자꾸 거기서 권유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노니까, 너희들이 나가면은 젊은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일하니까 그렇게 하라. 대신 조건이 5년 동안 돈을 주는 거예요. 루프트한자에서 돈을 주면서 아르바이츠암트(Arbeitsamt, 노동청)에서도 조금 보조해주고, 그래가지고… 수당만 안 붙지 월급은 다 받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러면 그것을 물어봤어요. 6년을, 65세를 다 채우고 나오면 얼마 차이냐고 그러니까 한 달에 150유로 더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럼 좋다. 그럼 일찍 60세에 내가 들어가는 걸로 하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계약을 하고 나오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지요. “아, 아직 젊은데 놀 수는 없고 뭐가 해야겠다.” 그러면은 은행에 용자를 받는 것도 아직 루프트한자에서 5년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깐 뭐가 호텔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우리 애들하고 가족이 다 상의를 했어요. 우리 애들도 “아빠, 호텔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호텔을 찾았습니다.

## 호텔 운영

---

찾았는데, 저쪽에 마인 타우누스(Main Taurus) 호텔이라고, 그거 완전히 다 망한 호텔이에요.

완전히 망한 호텔인데, 그게 우리가 그 임모빌리엔(Immobilien, 부동산)한테 갔는데 중개업자가 “그 권리금 없이 들어가는 호텔이 하나 있으니 해볼래?” 하더라고. 그래서 둘이 같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은 우리 일이가 먼저 받았어요. 큰애가 “아빠 그거 괜찮아요, 하면. 전 응답이 떨어졌어요.” “나도 그거 괜찮다, 그러면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걸 하고, 말고 나니깐요, 아, 진짜…

구술자 부인 이틀이고 먼지하고 뭐 거미줄 하고 치우느라고. 아이고, 진짜 나는 사인할 때도 안 갔거든요, 또. 아유, 내가 진짜…

그래 했는데 그걸 말고 나니깐요, 진짜 손님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호텔이, 호텔이 얼마나 컸어요?** 방은 17칸데 방은 이것보다 조금 더 컸죠. 이 사람이 밤에 내가 일하고 들어오면 막 우는 거예요. 못하겠다 이거야.

구술자 부인 무서워서.

“큰일, 큰일났다.” 이거야, 우리는 망했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망했어요, 진짜.

**그러면 권사님은 그때 계속 그 간호사로 일을 하셨습니까?** 안 했죠.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구술자 부인 저는 그 병원이 마인 타우누스 클리닉(Main Taunus Klinik)이 제가 22년 반 이렇게 거기서 근무했는데 그 병원이 닫았어요. 환자도 자꾸 줄어지고 그 건물을 또 어떤 사람한테 팔았어요. 지금 켐핀스키(Kempinski) 호텔 있잖아요. 그 자리가 제가 일했던 자리, 마인 타우누스 클리닉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본의 아니게 직장을 나오게 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은 뭐 할버 탁(Halber Tag, 반나절 하는 일)이었으니깐 뭐 이렇게 해도 다른 사람보다 적더라고요. 저는 이제 장로님이…

1만 마르크가 받았잖아?

구술자 부인 이, 뭐 하여튼 2만 마르크…

2만 마르크 받았어요.

구술자 부인 2만 마르크 받았어요. 그때 그 마르크 받은 거 아빠가 사업해서 힘들었을 때, 식당 하고 끝났을 때 그걸로 또 갚았죠. 내가 항상, 왜냐면 이 독일 땅에 우리 장로님[남편을 지칭] 예수 믿고, 예수에 미쳤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하여튼 돈만 생기면 빛 이렇게 갚고, 갚고 이렇게 하니깐. 언젠간 이것이 끝

이 나는데, 지금은 까마득하게 안 보이지만은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끝이 온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다 영켜 있겠지만 다 실타래가 하나 풀리면 다 풀릴 거라 그런 느낌이 오고 이래가… 하여튼 거기 호텔을 한 것, 저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이건 네 돈이 아니다, 네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언젠간 나한테 주실 거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또 이제 저도 병원이 그래 닫았지만 병원에서 소개해주는 데를 가니깐요 잘 안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좀 쉬었다가 또 이제, 직장을 찾았어요. 할머니들 간호하는, 이렇게 해주는, 집에 가서 하는 거. 저는 또 그때 차가 없었으니까 고 밑에 사무실인데 고 위에 아파트에 있는 할머니가 벌써 7, 8명 돼요, 거 안에 든 사람을 제 뚝으로 이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한 달 끝나면은 그 할머니들이 이렇게 손을 떨고 이래도 그분들의 사인을 다 받고. 이거 다른 간호원들은 귀찮아서 안하거든요. 저는 회사 측도 생각하고 이래가지고 그거 다 받아가 다 일했는데… 근데 이분, 그 셰프(Chef, 원장)가 사람이 좀 이렇게 그거해요. 하여튼 뭐 이렇게 탁 잘해줬다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를 이제 뭐 그렇게 일해도, 그런 일 잘해주는 건 관심이 없고 자기하고 맞거나 이래 하면은 좋아하는데, 이제 저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그만두게 하려고. 그런데 어떤 한 번은요, 계속 이게 아무래도 느끼잖아요. 전 제대로 하니깐. 아, 고 전에 한 독일여자가 짤려나가고, 소련여자가 짤려나가고, 이랬는데… 제가 제일 나중에 남았는데, 그리고 그 역센 독일여자들, 뭐 이런 여자들은 같은 나라 사람이니까. 근데 한 번은 저한테 이렇게 오더니 뭐 종이 이렇게 주면서 밑에 사인을 좀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봤더니, “Für was denn?”(뭐 때문에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획 집어던지고 안 해줬어요. 왜냐면 평소에 그런, 저한테 그래 대하니깐. 그래 나는 보니깐 자기 나름대로 다 계약해지서 쓰고 고 사인만 받는데, 내가 쿤디궁(Kündigung, 해약서) 고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 딱 안 하고 그랬는데요. 그랬는데, 고거 하기 전에요, 그 사람이요 이렇게 내가 방을 이렇게 다니니까 그 할머니들이 그 헤르(Herr) 무드지란 사람이, 그 사람 셰프가 아침 일찍이 저는 오후 근무니까, 이렇게 다 일을 해놓으면 아침에 내가 저녁에 어떻게 헨 거를 다 볼 수 있잖아요. 아침 일찍이 그 사람이 다 이렇게 방방 돌면서 봤대요. 아, 예감이 이상하다, 이 사람이 뭘갈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느꼈죠. 그 사람 이렇게 던지고 밤에 이렇게 자려고 했는데요, 밤새도록 내가 잠을 못 잤어요. 항상 일 갔다 오면 심장이 막 뛰는데도 가만히 이제 누워 있으려고만 했는데 제가 병이 있었는데 제가 병이 있었는데 걸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날 잠 못 자고 몸이 아파서 갔더니 의사가 이러면서 어떻게 일을 했냐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병이었다고요?** 구술자 부인 그래가지고 고혈압이요. 그때 갔더니요, 200에 뭐 170이었던가, 의사가. 그런데도 저는요, 맨날 바보같이 그렇게 일을 한다고,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크랑크(Krankenschein, 진단서, 병가)도 안 끊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나를 아주 그냥 쉬게하려고 그랬나 봐요. 의사가 아유, 이렇게는 안 되고 병가를 내야된다면서 병가를 해주더라고요. 계속 병가를 해주고, 나중에는 그 우리 병동에서 저를 슈타트카세(Stadtkasse, 시 재무국) 있죠? 그 의사, 거기다 위임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로. 거기로 했더니 오히려 거기서는요, 제가 피타 보험이면은 휴양도 안 되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 요양까지 딱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거 가서 에어홀룽(Erholung, 요양) 하고, 이십몇 년 간을 크랑크도 안 하고, 애 낳은 뒤에는 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다 분리하고 잘 먹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다가 돌아오고. 그러고부터는 계속 그 병원하고는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크랑켄카세(Krankenkasse, 의료보험) 1년 그거 끝나고 거기 다 대주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아르바이츠로스(Arbeitslos, 실업자)로 또 이제 한 1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츠로스 끝날쯤 되니까 나보고 바이터빌둥(Weiterbildung, 이직을 위한 직업교육)을 하래요. 당신이 이런 약점이, 건강상 할 수가 없으니깐. 그래서 바이터빌둥을 하는데 제가 그 전에는 애기 키우느라고 계속 밤 근무만 해가지고 독일어를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냥 말만 독일어에 몇십 년, 이십 년 이래 뒀지만, 밤에만 나가고 일하고 내가 애 키우고 이러니까 내가 이 독일 사회를 전혀 모르는데, 바이터빌둥 그거를 1년 하면서 뭐 별난 거, 예를 들어 여기 수도가, 도시가 몇 갠데, 이런 것까지 다 기본 상식, 독일 거 다 가르쳐주더라고요. 아, 그때 그런 거 다 배우고 하여튼 재밌었어요. 잘 다니고 그랬는데, 그게 거의 끝나고 수수료증을 얼마 안 남겨두고 있는데 이 호텔을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를 시켰더라고요. 그거 뭐 이제 저는 뭐 자유니깐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이 일을 했어요.

**아, 그럼 호텔을 같이 하시게 됐네요?** 구술자 부인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바이터빌둥 다 끝나고 호텔을 했는데요, 어쨌든 처음에는 삼만 얼마 그 은행에서 대출을 그렇게 안 해줄라고 그러더라구요, 적은 돈인데...

한 사만...

구술자 부인 40,000유론데, 하는데도요, 우리 살고 있는 집까지도 다 사진 찍고, 뭐 하여튼 다 해가지고요 그걸 어렵게, 40,000유로를 해가지고 빌려가 했는데요, 그게 한 6개월도 못가니깐 이 호텔에 다 들어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꾸 제가 겁이 오는 거는, 가게 어려웠죠,

식당해가지고 다 했죠. 아우, 막 이젠 두려운 거예요. 내 인생이 다 망하는, 자꾸 사단이 다 망한다니까. 니 마지막 이제 얼마 갖고 있는 그 렌테(Rente, 연금), 렌테가 아니고 아, 보험 있죠, 생명보험. 그게 일종의 렌테잖아요. 솔직히. 고게 조금 있는데요, 자꾸 이것까지 다 나간다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도 있고요, 막 또 이거, 내가 버는 것도 없는데, 고거 있는데. 그리고 막 그거 호텔도 큰데, 밤에 한 11시 돼야 들어오는데 혼자 이래 앉아 있고. 그 진짜 축복 안 안되려니깐 한 사람 와가지고 원래는 방값이 40유로 이런데도 20유로 준다 해도 도 망가버려요, 안 오고.

15유로까지 했는데도 안 자고 가요.

구술자 부인 그러니까 막 떨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물론 마음에서는 막 두려워서 더 이상 나가면은 이게 다 잃는다는, 이거 생명보험 이 쪼매 남은 것도 다 잃는다는 그거 두려움과… 그래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요, 그거 내놓으래요. 그거를 하래요. 내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는 말을 그리 쉽게 하지만 내가 얼마나 어렵게 마련한 건데.” 아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면은 내래. 그래가지고 겨우 8,000유론가, 8,000유로를 우선 급한 대로 막았어요. 막고 그러면서 거기 무슨 기도회, 중보기도학관가, 뭐 복음학관가 있어. 거기 가면서도 계속 아들이 나를 계속 데려다 주는데 계속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계속 뒤에서 울고. 그리고 있는데요, 한번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이 막 못하겠다고 우니깐요 나도 이젠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아, 또 뭐 병신 짓 또 한 번 했구나. 그럼 그만두자 이래서. 이제 아직도 그때 루프트한자 일을 할 때니까.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이게 뭐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그거 그만두면은 내가 안 기뻐한다. 이게 아주 오는 거예요, 가슴으로. 그래서 ‘그래, 아, 그래,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면 축복 하시겠구나.’ 그러고는 와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해보래, 그러니깐 힘 내.” 그러면 또 좋아가지고는…

구술자 부인 예, 나도 애들을 보기 위해서는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자꾸 돈이 들어가니깐 포기하고 싶고.

또 한 3일 지나면은 또 울면서, 끝났어, 못하겠어. 뭐 그러면, 또 가서 기도하면은 또 하나님이 다. 한 세 번을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났는데 더 이상 뭐 한계가 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독일 사람이 한 팀이 오더니만, 방이 얼마나 있느냐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마인타우누스 방, 15개를 계속 해가지고요, 한 3개월 동안을 주말도 없이 계속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깐 고 우선 막 밀렸던 돈들을 그걸 해가지고 막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고 나니깐 또 허당이에요, 그냥. 또 없어요. 아, 그러고 났는데 둘이 쳐다보고 할 일이 없으니깐 고민 중에 있는데, 어떤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호텔 잘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뭐 그냥 그렇지.” 그러니깐… 그 친구가 “내가 손님 하나 보내줄 테니깐 좀 잘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보내주면 잘해주지.” 그러니까… 삼성에 있는데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주는데, 그 친구의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그래 와가지고, 저는 보지도 못해요. 일 나간 다음에 두 사람이었나?

구술자 부인 응.

두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조금…

구술자 부인 두 사람이 왔는데 보고 갔어요.

그 사람은 조금 직책이 있는가봐요. 그러니깐 두 사람 보고 너들 여기서 자라 그리고 이제 했는데요, 그때에 우리 마인타운뉴스 호텔을 시작하면서 여기 66번 도로공사가 벌어져가지고요, 거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1시간쯤 걸렸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자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삼성 사람만…

구술자 부인 마음에 들었나봐요.

예, 하도 잘 해주니까. 삼성 사람들을 계속 데려와, 방이 없어가지고 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삼성 사람들이 한 1년 하니깐요, 빗하고 밀린 거 다 갚고 이 움젯츠(Umsatz, 매출)가 확 올라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나면서 에쉬본(Eschborn)에 또 막 한국의 민박집, 호텔이 생기면서, 그 가까운 데 생기니까 삼성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빠져버렸어요. 빠지고 나니깐 또 그냥 조용해. ‘이제 큰일났구나, 이제 또 이제 끝났구나.’ 그랬는데, 한국에 대우가 오펠(Opel)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대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또 대우 사람으로 해가 채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대우로 사람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해오다가 거기 마인타운뉴스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단계에 와가지고는 정리하고요. 이제 그걸 정리하면서 이걸 샀어요. 이걸 샀는데, 이제 이걸 사고, 이걸 살 때는 한국 GM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일단 여기 머물렀는데. 이거 사고 한 1년 하고 나니깐요, 그때 그 유류파동이 일어나면서 GM 사람들이 1년 동안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싹 끊어진 거예요.

구술자 부인 GM 그때 안 좋았을 때여서.

GM이 어려우니깐. GM이 빗이 많이 지고 이래가지고.

구술자 부인 오펠이 안 좋아가지고. 판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음, 한 1년을 하니깐 은행에 빗이 막 산더미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

니까 은행 거기 크레딧(Kredit, 융자) 그 담당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 호텔을 잡으려고, 전부 우리 모르게 참, 다 우리 모르게 이미 서류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나도 이제 그때 와서 한계에 왔어요. 이제 끝났구나 싶었어요. 아하, 마인타우누스 그걸로 끝나고 말았어야 됐는데 괜히 이걸 사가지고 또 이렇게 바보짓 하는구나, 그리고 있는데…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있을 순 없고 은행 크레딧 담당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좀 할 얘기가 있는데, 당신이 이리 올 거냐, 내가 당신한테로 가는 게 좋냐?” 이러니까 자기가 이리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자주 왔으니까, 오면은 내가 뭐 커피나 주스나, 처음에는 항상 그 티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티를 주고 그랬는데, 그 날 왔는데 티를 원하냐 그러니까, “나인(Nein!, 아니!)”. “주스?” 나인. “바찌(Wasser, 물)?” 나인. 전부 나인이래. 아, 이 사람 나름대로 결정을 하고 왔구나.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좀 산책하러 나갔고, 나는 부엌에 잠깐 들어가서 ‘하나님 무슨 말을 하죠, 어떡하죠?’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나가가지고 그 사람이 큰 티쉬(Tisch, 책상)에 앉아가지고 서류를 짹 펼쳐놓고 그러는데, 내가 딱 앉으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요, 샷대질을 해가면서, 당신 나한테 겁내지 마라고. “Sie haben vor mir viel Angst! Warum haben Sie Angst?”(당신 나한테 겁 먹었죠? 왜 겁을 먹어요?) 나도 모르게 막 흥분해가지고. 그러고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절대 안 망한다.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어려운 단계를 통해가지고 이 어려운 손을, 꼭 어려운 단계를 통할 때마다 나를 한 단계씩 올려주셨는데, 지금 요런 단계를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올려주실 텐데 당신 그거 지금 술덴(Schulden, 빚) 된 것 가지고 겁내지 마라.” 내가 막 한참 흥분해가지고 그랬더니만 하나님 얘기 꺼내니깐 “아, 자기는 뭐…” 한참 내가 얘기를 하고 나니깐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아무 얘기도 안하고 서류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빛이 18,000유로가 많이 낮을 때였는데, 우리가 그 리미트(Limit, 한도)가 20,000유로까지 있거든요. 그 20,000유로에서, 그 전에 20,000유로 뭐 21,000, 23,000까지 나가고 말았는데, 그때 편지 온 게 뭐였냐면은 20,000유로에서 1센트도 감면이 안 된다는 식으로 편지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집세하고 뭐하고 하면 8,000유로가 떼어져 나가야 되는데, 8,000유로가 떼어져 나가면은 23,000에서, 저 18,000에서 23,000, 24,000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뭐 그 사람은 갔고, 연말 돼가지고는 은행에서 사실 24,000 정도 마이너스가 됐는데 아무 연락이, 얘기가 없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있었는데 어떤 젊은 사람, 독일 사람이 들어오더니만 여기 방 있느냐고 그래서 있다고. 그 사람이 여기 방을 주니깐 하룻밤 자고, 두 사람 더 있는데 방 두 개 더 있냐고, 더 있다고. 또 뭐 그 사람 두 개 더 있냐

고, 두 개... 그래 그 사람들이 계속 해가지고요. 그것도 이제 그 사람들도 땀니까, 주말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빛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GM 사람들도 오고 하면서 이제 빛이 다 갠지더라구요. 이게요, 사실 빛만 갠 게 아니고요, 이게 거기에 호텔을 하던 게 아니고 식당이었으니깐. 소방법에 걸린게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소방법에 걸려가지고 암트(Amt, 관청)에 갔더니만 못한다는 거예요. 저쪽이 방 5개였고, 고거는 호텔로 나오고 이쪽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프하임 바우암트(Hofheim Bauamt, 호프하임 시 건설부)에 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큰애하고 갔는데. 그래서 내가 딱 그랬어. 그 바우암트에서 그랬어. “오케이, 그러면은 너는 플라이테 멜덴(Pleite melden, 파산 신청)하고, 독일에 마인 브루더 소치알암트(Mein Bruder Sozialamt. 나의 형인 사회복지부)가 있으니깐 소치알암트(Sozialamt, 사회복지부)에 멜덴(Melden, 신청) 해가지고, “Nur kleines Essen, aber leben im Paradies, lange schlafen, keine Sorge, kein Stress, bestes Leben!”(보조금 받으면 나는 단지 적게 먹지만 그래도 천국에서 같이 살거다. 늦게까지 자고, 더 이상 걱정도 스트레스도 없이 최고의 삶을 살겠다), 내가 그것을 바우암트(Bauamt, 건설부)에서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딱 이 사람들이 아, 그러지 말고 우리가 봐줄 테니깐 돈 되는 대로 수리해가면서 하래요. 딱 자세를 바꾸더라구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뭐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그 싼 재료를 살 수 있는 데까지 막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봤어요. 지금 해나가는데 소방 그 검열하는 거 전부 다 하고요.

구술자 부인 거의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구술자 부인 요 창문 새로 많이 하고... 크기가 안 맞아요.

한 100,000유로 거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지금까지 해나가면서, 지금까지 이끌어주셨습니다. 기적이예요. 사실은 그때 우리 벌써 파산하고 끝났을텐데, 그래 되어야 할 텐데... 이게 이렇게 되면서 우리 또 자녀들에게도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뭐 자녀들도 사업이 번창하고, 그리고...

구술자 부인 지금은 독일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은 이제 한국 사람이 안 오니까 독일...

구술자 부인 독일 사람으로 완전히 채우죠. 그리고 옛날에는 좀 잘 돼도 이상하게 뭔가 걱정이 됐는데 지금은 걱정이 안 되고요, 다 이렇게 평안하고, 그냥 뭐. 그때는 너무 이거 많이 들어와서 걱정이 됐었는데, 어떻게 저희가 좀 주먹구구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슈토르니렌(Stormieren, 취소) 되면, 그때 또 슈토르니렌 안 되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딱 거기까지 하나님, 세밀하시더라구요. 하여튼 우리 이렇게 역사하는 거 보면 진짜 놀라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메쎬(Messe, 박람회) 때는 또 다른 손님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적으로 살아왔고, 기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런 이제 단짠니다, 그리고.

구술자 부인 은행도 이제 우리한테 대우가 너무 좋고, 이제는 뭐 어떤 팁같은 것도 줘요. 어디 뭐 좋은 데 있으면 뭐 키노(Kino, 영화관) 뭐 이런 데도 가라고 티켓이 오고 그래요. 완전히 그렇게 무시하더니...

그럼 여기 호텔은 몇 년서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여기 이 호텔을. 구술자 부인 이거는 2007년도. 그리고 저희가 뭐 하여튼 이제 매달 값이 나가니까 저희 거를 보고 뭐 누구한테 신경도 안 쓰이고. 전에는 워낙 손님도 많이 왔지만, 손님이 많이 오는 대신에, 또 이렇게 측정했던 그 관리비가, 보단 얼마나 많아. 세 배 정도. 마지막 때는 이렇게 호텔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잘 될 때 올라갔던 그 관리비를 그 관리비를 받더라고요. 그것도 뭐 우리가 세밀하게 이리 잘 하지도 못하니깐 그런 데서 지적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그 하니깐 아끼면 아끼는 대로 모든 게 적게, 눈에 보이도록. 너무 편하고. 조금 물론 이게 우리 건물이니까 뭐 혜택 받는 거는 조금 적다해도 이게 세를 내면은 이게 내 건물이니깐 일단 상점, 빚을 매달 갚아도 이게 크레딧(Kredit, 융자) 된 거, 융자 한 거를 갚아도 그게 저희 수입으로 잡더라고요. 뭐 그래도 일단 모든 게 우리가 적게 써서 가야할 길, 검소, 이렇게 아끼면 아끼는 대로. 우리 애들은 어떨 때는 아우, 제가 막 세금 많이 낸다고 이렇게 하면은, “엄마 프로이엔(freuen, 기뻐)하세요. 그만큼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지. 독일에 한 일 년 살았어요?” 오히려 이젠 애들한테 말도 못해요.

그러면 앞으로 얼마큼 더 이 사업을 계속하실 겁니까? 계획이? 2년에서 한 3년, 뭐 그 중간에 하나님, 그만두시라고 하면은 언제라도 그만둘 각오가 돼 있고요. 지금 이 사람 렌테(Rente, 연금)가 아직도 한 3년 더 부어야 되니까, 고 기간 동안은 붓고.

구술자 부인 그리고 뭐 저는 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근데 남편이, 또 그것도 남편의 의견도 따라야 되니까. 저는 지금 뭐 정말 이렇게, 제가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고, 놀면 뭐 하는가, 그렇게 또 많은 사람 상대하고 이렇게 하니깐 유익 되는 것도 좀 많더라고요. 참 기쁨으로.

요즘은 재밌어요.

구술자 부인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하기 싫으면은 못하는데 요즘은 재밌으니깐.

구술자 부인 저희는 해야 될 공사, 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거의 청소도 둘이 정리하면 제가 하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는지 딱 사람도 하나 이렇게 해줘가 그 사람 신청... 멜덴(melden, 등록)하고 그냥.

구술자 부인 다 멜덴 해가지고 게노센샤프트(Genossenschaft, 협동조합), 거기하고 뭐 해가지고 정식으로 그 사람을 써주니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코소보 사람인데 자기도 그렇게 뭔가 정식이 있어야 여기 머무는 것도 좋고.

**직원으로서요?** 구술자 부인 네, 직원으로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깐, 하나님께서 마인타우누스 호텔부터 한 10년 됐는데, 이제 10년째 저를 조금 이제 풀어주시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오면 이제 여기 일 하면 내 나름대로 또 다른 일이 있으니까 다른 일 하고. 이렇게 하면 청소는 이제 그분이 하니깐. 아유, 그것만 해도요, 그것만 해도.

## 노년의 계획과 독일 생활 회고

---

**그러면 노년에는 이 사업을 그만 하셔도 그럼 이제 독일에서 계속 사시려고요?**

독일에서 계속 산다는 거는 잘 모르겠고요, 이제 제가 꿈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실 텐데, 계획이 되면은 남해로 그렇게 불행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비전을 심어 주고, 꿈을 심어 주고, 어, 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도 준비 중에 있고요.

구술자 부인 준비를 참 많이 시켜요. 말씀을 되게 많이 보시고요,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면 정말 은혜스러워요. 제가 남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 계속 그렇게 말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이렇게 쓰실 것 같아요. 간증을 하시든, 뭐 간증 하면서 말씀을, 그죠?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저야 뭐 하여튼 항상 기도할 테니까. 예수님 마음 도울라 그러고. 그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왜냐면 독일에서는 또 독일말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깐. 근데 난 독일 말 가지고 독일 사람 전도하기는 힘들어. 뭐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한국에서도 지금 불행한 튼(Typ, 타입)을 보면은 너무 소외당해가지고 그렇게 사고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너무 세상에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선 막다른 골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우리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알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들이 참 필요한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냉정한, 또 뭐 세상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냉정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있고요.

구술자 부인 이거야 이제 다 해놓으면요, 누가 들어와도 사실 잘 될거예요. 미군부대가 여기 비스바덴(Wiesbaden), 거기 완전히 전체 다 모인대요. 비스바덴이 여기서 한 15분인가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한국식당 하다가 그 사람이 못하고 달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무슨 쿨투어슈타트(Kulturstadt, 문화도시)라 행사가 많아요. 바인페스트(Weinfest, 와인축제), 11월 달 되면 호프하임 마르크트(Hofheimmarkt, 호프하임 시장). 그러니까 여기가 한국식당이 하나 있으면요, 괜찮아요. 그리고 호텔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 미국 사람들이 한국음식을 많이 좋아한대요. 이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식당을 열면, 저희가 여기 좀 있으니깐 그렇지 집에 왔다갔다 하려니깐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기 자리하고 요기 하고 저 안에 자리 하고, 우리 지금 사용하는 데 하고 식당하고 하면요, 누가 젊고, 아이디어 좋고, 독일어 잘하고 이러면요, 굉장히 괜찮은 곳이에요. 저희가 이제는 손님도 이렇게 거의 다 확보해냈죠, 뭐 이랬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누가 해도 그렇고, 팔아도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깐. 근데 그건 또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니깐 지켜봐야 하고요. 지금 하는 데까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오던 사람들이 이제 오고 하니까. 뭔가 한다는 게 사람이 너무 이렇게 좋아요. 노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꾸 열심히 하다 보면 머리도 쓰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생을 돌아보시면 그럼 독일에 오신 게 잘하신 거 같으세요?

잘한 거죠. 근데 사실 독일에 오게 된 것도, 나는 내가 내 운이 좋아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요. 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에게 왔던 그런 고난과 환난의 시대는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된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또 소망과 비전을 갖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참 너무 좋아요, 좋고. 전



지금 그래요, 뭐 어제도 우리 독일에 같이 온 사람들 모임이 있었는데, 카톨릭 신자들이니깐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나를 빙자해서 하는 건지 뭐 장로 뭐 어찌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도 내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기만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나중에 뭐 카톨릭 어찌고 그러길래 “나는 카톨릭이나 뭐 이런 기독교를 평가하거나 비방하는 그런 거는 아니다. 단지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자기 마음 속의 그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그런 눈으로 나타난 거 가지고 뭐 그런 거 하는 거 그건 난, 성경에서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어, 우리는 증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증인은 사실 증인다워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는 그럼 증인으로서 증인다운가, 이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인으로서. 정말 증인으로서 내가 당당하게 나타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죠.

## 한국인 및 독일인과의 관계

---

그럼 어제 그렇게 카톨릭 한인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예, 한인분들.

구술자 부인 같이 오신 분들...

그런 모임은 자주 하시나요? 아니요, 처음 했어요, 처음.

아, 처음 하셨어요? 구술자 부인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죄송합니다. 몇 년도에 오셨다고 그랬죠? 74년 4월 달에 왔어요.

아, 그때 오신 분들? 그때 몇 명이 같이 오셨어요? 그때 온 사람들이 한 팔십, 팔십육 명인가 왔어요. 86명이.

지금은 몇 명 있어요? 86명이 왔는데, 지금 남은 사람은 10명 정도 있죠. 10명 정도 있습니다.

구술자 부인 어제 모이신 분은 남자 분 다섯 분.

다섯 사람.

구술자 부인 응, 다섯 분, 고 한 분은...

아헨 쪽에 있고, 아헨 쪽에.

주로 그러면 그 70명 정도는 어디로 갔습니까? 다 한국으로 돌아갔죠.

다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거의 이제 결혼하고 오신 분들이니까. 예, 결혼하고 오신 분들이고. 그 중에서 결혼하고, 안하고 온 사람이 나 하고 어제 모였던 사람들, 한 네 사람이 결혼 안하고 온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제 결혼은 했는데 혼인신고가 안 됐으니까. 어차피 혼자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고 있구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각자 사시다가 왜 이제 74년에 오신 분들끼리 따로 모이자 이런 말이 생겼습니까? 아, 그게 이전에 그게 어떤 사람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에서 이제 “야, 이거 우리가 이제 정말 모임이 있어야지, 이제 뭐 우리 같은 진들이(같이 그룹으로 온 광부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협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모임을 처음에 좀 하다가 이제 서로 사업하는 사람들 뭐 다 바쁘니깐 중단됐어요. 중단됐는데, 중단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친구가 또 전화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오랫동안 못 만났는데 만나는 거를 한 번 하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보고 “그럼 니가 해라.” 그래가지고는 그 친구가 모임을 주도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뭐 돌아가면서 가정에서 한번씩 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하고는 헤어졌지요.

그러면 또 지금 교회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구술자 부인, 구술자 네.

그 외의 한인회라든가, 향우회라든가 이런 활동은 하시나요? 한인회 활동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구술자 부인 없고, 월남 파병 그것도 가끔 한번씩 가고 그래요. 월남 갔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 모임이. 그래가지고 거기도 뭐, 거기는 잘 하는 게 아니고, 뭐 사업이 있고, 교회일 하고 하니까 그런 데는 많이 못 가고, 가끔 가죠.

사실 뭐 프랑크푸르트 한인회 뭐 이런 것들은 한 번도 못나가 봤어요. 또 관심이 없고. 거긴 나가야 되는데, 제 성격하고는 안 맞아요, 거기 나가면은.

**독일 친구분들도 있습니까?** 독일 친구분은, 뭐 친구라고 할 만한 그런 거는 없습니다. 독일 친구는, 예.

구술자 부인 그 이웃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고.

친구라고 할 만한 독일 사람은 없지요.

구술자 부인 루프트한자 다닐 때 좀 왔다갔다 하고 한 사람들.

아이, 그건 친구가 아니지 콜레게(Kollege, 동료)지, 아르바이트(Arbeit, 직장) 동료지, 친구라는 거는 다르지, 종류가.

**그때 사람들과의 관계는 많이 있으셨나요? 그 직장동료들과의 관계라든가?** 직장동료들과의 관계는 많이 있었지요. 서로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고, 같이 뭐 술 먹으러 가자고 그러면 나는 따라가서 콜라 마시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모임이 제가 조금 꺼려한 게 뭐냐면은, 술 마시는 거. 어제도 모였는데 술 마시는 거, 술 얼마든지 마실 수 있지요. 근데 왜 술을 안 마시냐면은 내가 술을 한 잔 마시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게 된다면은 안 마셔야 되겠다는 게 이제 제 입장이에요. 어제도 그것 좀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왔는데 아, 포도주는 마셔도 된다고 그래서 포도주를 마셨다고 그러면서 그런 변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뭐 마시는 사람은 또 안 마시는 사람을 욕할 필요 없는 거고, 또 안 마시는 사람은 마시는 사람을 흥 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튼 내가 어제 그런 모임에서도 내가 술을 아예 입을 안 대야지, 여기에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좀 다른 것을 나타내야겠구나 싶어서 아예 계속 그런 걸 안했어요. 안 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뭐라고 할까,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나를 비난하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오히려 조금 뭐라고 그럴까, 조금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앙적으로 말 한마디를 해도 그냥 아, 참 도전받았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내가 술을 먹으면서 하면은 이게 설득력이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상 사람들과 모임에 술을 마시거나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 한 잔 마시라 그러면 마시는 거고, 여기서는 마시지 마라고 하면은 마시지 않으면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여기 이제 호텔 경영하시고 그러시느라 바쁘실 텐데 한국은 얼마나 자주 방문하시나요? 한국은 갈 때는 한 두 번씩도 가고요, 안 갈 때는 1년에 한 번도 못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술자 부인 우리는 조건이 좋아요. 장로님이 루프트한자 다녀가 비행기표도 싸고, 원래도 지금 12월에 여기 보통사람들이요, 12월 한 성탄절하고 새해 때는 거의 회사들이 놀아요. GM, 오펔도 그렇고. 그래가 그때 우리가. 작년에는,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뭐 마요르카(Mallorca)에 갔다 오고요, 올해는 한국을 좀 가려고요.

한국 가서서 이렇게 보시면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나오신 지도 벌써 10년 넘으셨는데. 한국에요?

구술자 부인 40년 우리 됐죠.

아, 그러니까 40년. 네. 한국에 가면은, 한국에 가서 서울에서는 저는 안 맞아요. 근데 시골에 가서는, 좀 지방 같은 데 가서는 한국 가서도 아직도 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데 가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서울에서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모든 것이 돈으로 측정이 되니깐요, 그런 것들이 지금 한국에서 제일 좀 이렇게 부담이 되는 일들이고. 독일에서는 돈이 없어도 다 이렇게 서로 인정해주고 그러잖아요. 한국에는 돈이 없으면 아예 무시를 해버리는 그런 사회가 되니깐요, 그런 걸 이제 좀, 그거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국 가서 뭘 하라고 하면 그거는 해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한국을 되게 사랑합니다. 처음에 예수 제가 처음 믿고부터 지금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요, 근데 그때 내가 한국에 그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선교대국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지금 선교대국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고, 뭐 대국이 됐죠.

구술자 부인 우리 애들 한국어 가르친 거.

근데 우리 애들한테 계속 한국말을 가르쳤던 거는, 왜냐하면은 애들이 한국 정부가, 한국 정부가 애들을 필요로 할 때가 온다는 거를 저는 그때 이제 직감적으로 그걸 했기 때문에 계속 한국말을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 그 어떤 분이 김정문 목사님 카세트를 하나를 줬는데, 그 김정문 카세트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80년대 그때 한국이 굉장히 암울하고 그랬는데, 그분 그 카세트에 설교를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한국이 21세기는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로 설 텐데, 한국은 잘 돼가면서 잘 되는 나라가 아니고 망할 듯 망할 듯 하면서 잘 되는 나라기 때문에 한국은 희망이 있다.”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맞다, 한국이 망할 듯 망할 듯 하면서 잘 되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 대한 그 꿈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될 거고, 한국이. 우리 애들한테도 정말 한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들 분들은 그러면 한국 관련된 일을 합니까?** 예, 둘 다, 둘 다 하고 있지요. 예, 하나는 한국에서 물건을 사다가 독일에 수출을, 이렇게 파는 장사 하고요, 한 애는 독일 물건을 갖다가 한국에 파는 장사를 하구요. 그러면서 또 독일에서 또 다른 장사 하고요.

아, 임포트, 익스포트(Import, Export, 수입, 수출)하나요?

구술자 부인 그걸 하면서요, 지금 그거 아세요? 벨렌슈타인(Wellensteyn, 옷 브랜드)이라고. 왜 십자가 같은 거 왜 이런 거, 옷에 왜 빨간 거. 옷. 근데 애네들이 지금 가게를 엄청 많이 냈어요. 아울렛에. 벨렌슈타인, 골프할 때, 그거 봤어요, 신문에 광고 난 거?

베어트하임(Wertheim 아울렛 시장), 그거 골프대회 스폰서 해가지고 그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 우리 이 박사님께서도 가셔가지고 그거 한 번 사세요. 우리 아들 이름 하고 제가 한 번 전화하면 엄청 싸게 해줘요. 애들은 그게 뭐 문제 아니니깐, 한 번 사시면.

**네. 좀 옷이 굉장히 고급이어서는 이제.**

구술자 부인 이 표 혹시 보셨어요? [옷을 직접 가지고 나온다.]

**아, 네, 그럼요.** 구술자 부인 우리 아들이 지금 베어트하임(Wertheim) 하고 벨기에(Belgien) 하고, 어제부터 또 그거 잘츠부르크(Salzburg)에 새로 가게 내고요. 지금 네덜란드. 곧 또 네덜란드도. 너무 잘 돼요. 이게 베어트하임(Wertheim) 거기가 너무 잘 되니까 지금. 굉장히 어렵대요, 이거 따기도.

이거 굉장히 유명한 상품이니까. 구술자 부인 유명한 상품인데, 이게 우리 아들이 이걸 하고부터 가게가 거기서도 탐으로 달린대요. 그 베어트하임에서요

한국에서도 장사가 잘 되고요? 예, 한국에도 잘 되고요.

구술자 부인 이걸 한국, 이제 한국도 조금 하겠쬬, 근데.

아니, 한국에 하는 건 이걸 하는 건 아니고, 그 작은 애가 베엠에프(WMF, 독일 주방용품 브랜드)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구요.

구술자 부인 거기에 애가 일을 다 봐주고, 개는 참 월급 줘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월급 줘.

큰애는 이거 하면서 한국에서 그 주스기, 독일에서 하는 거, 지금 독일에 이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 잘 모르겠는데, 그거 지금 하고 있고.

구술자 부인 고거 하면서 요거 옷, 이거는 형제가 같이 해요. 응, 같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꼭 애들이 그거 세상에서 잘 된 것, 그제 아니라 애들이 신앙으로 키워놓으니까 아버지한테 잘 대하고. 근데 자기네들 차 좋은 거 타니깐 미안하니까 아버지 차 사라고 매달 이렇게 돈을 주는데도 저는 이걸 다 끝내야지 산다고, 좀 일단은 잠잠하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브레이크 걸어가 애들이 황당해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이제 일부러 돈까지 이제 매달 넣어주는데도. [웃음] 저는 하나“이게 끝나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고.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지금은 좀 그래도 처음엔 되게 섭섭해 했어요. 애들하고 며느리하고 다 있는데도 거기 제가“이거 너희들한테 돈 받는 거 안 된다고.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래가면서.

믿음의 차이가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사람 눈으로 보는 걸 가지고 자꾸 따지고, 나는 눈으로 안 보이는 거, 그걸 가지고 따지는데.

구술자 부인 여자들 좀 그렇잖아요? 이 하나 이렇게 이거 벌여놓고 이래버리면 제가 이걸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요거 다 끝나면은 이제.

큰애가 저기, 그 UPS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나보고 찾아왔더라고요, 심각하게. “아빠, 전 사업을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내 그랬어요, “사업해. 애 없을 때 빨리 시작해.” 그래가지고 그냥 UPS 떠나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지도 배고픔을 한 4, 5년 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탁 열어주시는 거예요. 애는 진짜 뭐, 진짜 무일푼으로 시작했어요, 사업을. 돈 땀 한 푼 없이 시작한 애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길도 열어주



시고, 물주도 돼 주시고. 참 놀랄 노 자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장시간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지요.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 면담 개요

<b>구술자</b>	정승식 (전 파독광부) 정승식 부인 (전 파독간호사)
<b>면담주제</b>	파독광부의 생애사
<b>면담일시</b>	2012년 9월 29일 (토) 10시 15분 ~ 12시 20분 (125분)
<b>면담장소</b>	구술자(정승식)가 운영하는 호텔, 호흐하임(Hochheim a.M.)
<b>면담자 1</b>	이유재 (투빙겐대학 한국학과 교수)
<b>면담자 2</b>	이선영 (투빙겐대학 한국학과 연구원)



김재승

# 김재승

- 1950 전라남도 곡성군 삼오리 출생
- 1967 군 입대
- 1969~1970 월남 파병
- 1973 군 제대
- 1974 파독광부 2차 33진, 노이키르헨-블린 Niederberg에서 근무
- 1977 오펠(Opel)에서 16년 근무
- 1993~1999 중국 연변대 한의학 공부, 한의사 자격증 취득
- 1999~2002 하일프락티커 직업교육
- 2002~ 한의원 운영, 한의사로 활동

中國

醫學



## 가족 사항과 광부로 오기 이전까지의 삶

제 이름은 김재승이구요. 1950년 2월 18일에 전라남도 곡성군 있는 삼오리라는 데서 태어났죠. 가난해도 너무나 이렇게 가난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은 쪼끄만한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제 부모님하고 또 삼촌들까지 이렇게 한집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워낙 가난하게 살다보니깐 제가 커서, 정말 빨리. 다 같은 생각들이잖아요. 빨리 내가 성장해서 돈 벌어주고 우리 집 좀 약간 잘살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성장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장남의 외아들. 그러니까 제 여동생이 인제 여섯이 있고 저하고 막내하고 24살 차이인데. 한국에서 정말 학교도,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겨우 어떻게 뭐 해가지고. 졸업해가지고서 제가 스물네 살 때 독일에 광부로 왔어요. 광부로 왔는데, 그 이전에 군대 생활을 하면서, 외아들은 원래 월남도 안 가는데 제가 또 월남까지 갔다 왔어요. [웃음]

**입대는 언제 하셨습니까?** 입대는 67년도에 했지. 67년 4월 달에 해서 69년도부터서 71년도 동안 월남 갔다 와서. 그때도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제가 돈 좀 써서 몇 시작했다가, 아버님이 안 좋은 점만 자꾸 나타나고 해서 내가 말았는데. 다른 분들은 부모님들이 외아들이 월남 가서 어떻게든 성공시켜주려고 재정과 재산도 잘 관리해서 성공했는데, 우리 아버님은 그런 거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내가 논밭이나 쪼끔 사드리면 그걸 다 팔아버리고. 그렇게 하시다가 제가 이렇게 24살 때 독일로 와가지고서, 광산에서 4년을 근무했어요.

**그러면 그 죄송합니다만, 제대하시고, 그러니까 월남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67년도에 입대해서...?** 67년도에 입대해가지고. 69년도에서 70년까지 월남 갔을 거예요, 제가.

**군대의 마지막 1년을 갔다 오신 겁니까?** 아, 제가 군대 생활을 5년 반 했어요. [웃음] 얘기가 많은 게, 학교를 졸업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정말 뭔가는 해야 되겠고. 제가 그때 직업 군인으로 갔다가, 지금 월남 갔다 와서 그냥 제대해서. 그래서 이거 스물세 살 때 제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일찍 갔죠, 군대를.



그러니까 고등학교 마치시고, 조금 있다 막 바로 가신 겁니까? 네. 바로 갔어요. 바로. 네. 제대해가지고서, 그때는 검문소들이 많아가지고, 버스 타고 어디 다니면 경찰들이 세워가지고 검문하고 그랬는데, 내 것을 이걸 보여주면은 꼭 나는 그냥 의심적계, 그러니까 나이는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제대해가지고 다니니까. 다시 내려가지고. 조사받고. 그리고 있다가 인제 아니다 싶어서 스물네 살 때 제가 독일에 왔죠.

## 이주의 계기와 정착

---

제대하고 막 바로 오신 거네요? 그러면 어떻게 독일에 오실 생각하셨습니까?

제 작은아버님이 먼저 오셨어요. 여기를. 그래가지고 저보다 1년 전에 오셨었는데, 그때는 여기 한 달 월급 가지면 한국에 한 6개월 월급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한국에서 자꾸 경제성장 되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여기는 발전된 상태니까 그렇게 돈벌이가 많이 안 되고 그런데, 요즘에는 오히려 한국이 수입도 많고 그러는데. 암튼 여기 온 이유가 뭐. 네 [웃음] 돈 벌려고 온 거죠 뭐. 여기 왔다가. 인제 그때 광산에서 근무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그냥 원하면 연장을 시켜주드라구요 그래서. 4년 반을 하다가...

어디로 가셨었어요? 노이키르헨-플뤼른(Neukirchen-Vluyn)이라고. 거기 뒤스부르크(Duisburg) 옆인데. 한국 사람들이 딱 1년 갔었어요. 거기. 그래서 1년만 받아주고서 이제 광부를 안 받았었는데. 거기 있다가 결혼해서 오펔(OPEL, 자동차 회사) 거기다 인제 입사했죠. 거기서 입사해가지고서 근무하다가 이젠 아니다 싶어서 중국 가서 인제, 연변대학(延邊大學)에서 중의학(中醫學)을 마치고나니까 중의사나 한의사가 여기서 또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된단 얘기는, 중의사나 한의사 제도가 없단 얘기죠 이 나라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시 30개월 또 하일프락티커슐레(Heilpraktikerschule, 민간요법치료사 과정) 나가가지고. 그리고 인제 합격해서, 저희가 여기 프랑크푸르트(Frankfurt) 내려온 덴 10년째네요.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한의원을 열었죠. 그전엔 보훔(Bochum)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보훔에서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자꾸 일로 내려와서 하라 그래가지구 내려온 지 10년 됐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오시게 된 계기가 작은 아버님의 권유로 오셨다고 그러셨는데 그

럼 시험 보실 때라던가, 경력증이 필요하다던가, 그때의 시험 절차는 어땠나요?

그때는 1년의 경력이 있어야 됐었어요. 광산에. 근데 뭐, 그게 인제 경력증이 없던 사람들은 어디더라? 거기 가가지고 실측도 좀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그때 인제 신체검사 물론 하고, 60kg 모래 가마니를 이렇게 바닥에다 놓고 그걸 어깨에다 멘 사람만 오더라구요. [웃음] 근데 지금 하라고 하면 무거워죽겠는데 그땐 그걸 해냈어... 60kg 바닥에 놔둔 걸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서. 그리고 나서 인제 합격을 했다고 집에 가서 있으면 연락을 하겠노라고 했는데, 우리 팀들이 올 때 저는 또 연락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시험보고, 독일어 코스도 한 2개월 하지요? 거기서 신청을 해서 했는데, 나만 혼자 또 낙오가 됐어요. 거기서... 해외개발공사에서 연락을 했다는데, 못 받은 거지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 팀과 한 10개월 있다가 왔는데, 집에서는 그 팀하고 또 못 올 줄 알고 난리들 났었지. 인제 연락하겠노라고 해놓고 10개월 있어도 인제 연락이 안 오니까. 또 못 가나 보다 걱정했지요. 준비하고 기다리는 동안 그러니까 비용 많이 나잖아요. 비용 많이 나지. 근데 결국 못 오게 되면 난리 나잖아요.

어떤 비용이 들었습니까? 기다리는 동안 서울에 있으면서 그 생활하는 비용도 들고, 서류하고 뭐하는 데 그 비용들이 한 몇십만 원 들고. 그때쯤 몇십만 원 꽤 큰돈이었는데, 그런 비용들이 다 나잖아요.

그럼 가족들은 독일에 광부로 가시기를 굉장히 바라셨나 봐요? 바랬죠. 그럼 [웃음] 당연하지. 지금 생각하면은, 애들을 낳고 사니까 막 아이들이 외국에 광부로 간다 그러면 참 부모들 입장에서 그게 내키는 것은 아닐텐데. 근데 속으로야 좋았겠어요? 근데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랬었겠죠 뭐.

그럼 오셔서 생활은 어떻게 하셨나요? 기숙사 생활을 하셨나요? 네, 여기 와서 기숙사에서 있다가. 그때는 기숙사비가, 거기서 자고 먹고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400마르크(Mark)씩 낸 줄 아는데. 프리바트(Privat, 사적, 개인적)로 이게 방을 한 칸 얻어가지고 나가면 그게 안 들었어요, 생활비가.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있다가 방을 얻어가지고 나갔죠. 나갔는데.

기숙사가 방보다 더 비쌌습니까? 예. 거긴 그렇게. 400얼마면 그때 꽤 큰돈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자고 먹기까지 다 하나니까.

아. 뭐 음식까지 같이 나오는? 예, 근데 독일음식 편하잖아요. 빵 먹고 그러니 힘이 들고.

음식은 좀 입에 맞으셨어요? 독일음식... 입에 안 맞죠. 그러니까 주말이면은, 불식계라는 걸 하임(Heim, 기숙사)에다가 내면은. 그러니까, 불식계, 밥을 안 먹겠노라고 식권 반납을 하면은, 그 만큼은 월급에서 안 떼가요 이 사람들이. 그걸 내놓고 하임(Heim, 기숙사)에 있으면서 그때 무슨 요즘같이, 배추가 나와요? 뭐가 나와? 캐비지(Cabbage, 양배추) 사다가 이렇게 고춧가루를 양념해가지고서, 제일 많이 사다 먹은 게 그때 족발. [웃음] 그걸 사다가 삶아서 먹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음식은 안 맞더라고요. 요즘도, 요즘도 한국음식 꼭 하루에 한 끼씩은 먹잖아요. 아무리 몇십 년 살아도.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노력했노라고 했는데, 인제 아버님이.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때 연세가 쉰셋이었거든요. 제가 여기 와서 결혼하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그때 뭐 결혼한다고 해도 한국에서 나올 수 있는 실정이 아니었고. 그때 비자가 안 나왔어요. 요즘같이 뭐 그냥 3개월 무조건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후에 인제 예순 살 넘은 분들, 여기서 변호사한테 가서 공증받아다 주고 이렇게 보내면은, 비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그런 생활 속에서 결혼한다 라고 해도 부모님도 형편도 못 됐고, 결혼하고서 한 달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쉰세 살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셔도 어차피 뭐 내가 인제 다 동생들 뭐하고 할 입장이었었는데, 아버지 안 계시고 나니깐 인제 더 책임감이 컸죠. 그 뒤로 어머니 혼자 시골에서 사시는데, 저 다섯째 여동생이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지 식구들하고 시골에서 같이 살겠다고 이렇게 얘길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라고. 어머니는 혼자 계시는데. 아 근데 애네들이 말썽을 부러가지고 [웃음] 그렇게 집이 뭐... 논떼기 밭떼기 있는 거 다 이렇게 없애버렸어요. 뭐 한국은 이게 있잖아. 뭐 농협에서나 밭 열고 그러면 보증을 서야 되잖아. 그걸 아마 어머니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머님 나중에 어디 계실 데도 없어가지고. 근데 인제 그 집도 다 남의 손에 넘어가 버리고 그랬는데, 제가 중국에서 졸업식을 할 때 어머님을 한 번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와계시면서, 시골에서 어떻게 나오느냐는 거지. 이렇게 부끄러워서 아무튼 그 집에서 나는 뼈를 묻히고 살아야 되니까 그 집을 다시 사 달라. 그렇게 얘기해서, 그리고 인제 다시 사줬는데. 결국은 또 못 지키고 다시 사준 것도 또 날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마지막에 서울에 와계셨어요. 다섯째, 안산에. 안산에 계시다가, 작년에

80세. 돌아가시고. 그래서 제가 금년, 8월 달에 한국 갔다 왔어요. 탈상(脫喪) 모시고 하느라고 한국 갔다 왔죠.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한국을 떠나실 때는 3년만 계획을 하시고 그렇게 독일에 들어오신 건가요? 그때는 3년만 아무지게 했어도, 정말 한국 가서 어디같이 기반 닦는다고 해야하나? 그 정도는 돼서 3년만 있다 갈려 그랬죠. 그런데 워낙 송금시켜주면은 한국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3년 마치고 나니까 남는 돈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지.

그럼 그때는 월급 받은 것 중에 상당 부분 한국에 송금하셨습니까? 거진 다 보냈죠.

얼마 정도 됐습니까? 그것도 한달 버는 돈이. 그때 제 기억으로 한 달에 한 1,200마르크씩, 정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한국에 올 때, 군대 생활을 하면서 4급 월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그때 4급 월급인데 3만 원, 이렇게 저기 했어요. 1,200마르크면은, 그때 환율이 20만 원 정도 안됐나 싶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4년을 예, 3년 있다가 결혼하고서 1년 만에 탈상 모시러 집사람하고 같이 나가니까. 작은 아버님이,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건 서운한데 하시고 싶은 건 다 하시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에요. [웃음] 아버님이 저기 떠라고 그러나. 시골에서 해결사예요, 해결사.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 가족은 이렇게 못 돌보면서 남의 일은 그렇게 이렇게 다 해주는 거야. 무슨 사건 나도 아버지한테 다 짜고. 그러니 어렸을 땐 그게 알맴더라고 그제. 그래가지고 시골에 사셨어도 마을에 농사일이 아니면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실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고. 괜히 인제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에 뭐 하시고 그러니. 근데 결국은 여기서 일한 사람들, 그런 것 겪은 분들이 참 많아요. 한국에다가 집 사놓고 있는 분들이 다 동생들이가 산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해.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이 집이 흔적이 없어지고 그런 게 뭐 참 많긴 많아요. 여기서 한두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또 잘해준 집은 또 잘해줘 가지고. 뭐 근데 그게 안 된 거 같아요.

특히 또 장남으로서의 책임감도 크셨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시집온 집사람한테 미안하죠. 괜히 뭐 참, 그 시대가 받쳐부리고. 아직도 가난하게 살잖아. [웃음]

## 광부로서의 경험과 어려움

광산 노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광산에서 처음에 인제 와가지고서 여기서도 독일어 코스를 한 4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인제 독일어 시험 봐가지고 조금 실력이 있는 사람들, 실력이 있다는 게 이해를 조금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을 보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작은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시나면은, “돈 벌려면 막장을 가라” 그래요. 막장이라는 게 정말 그 탄 캐내고 그런 곳인데. 그래서 정말 그 일렉트릭(Elektrik, 전기장치) 사용하는 술로서(Schlosser, 시설공) 같은 것도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제가 그거 할 때는 막장으로 갔죠. 그랬더니 막장 가서 보니까, 처음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울었던 얘기가 힘들어서도 뭐한테, 제일 뭐한 게 독일하고 한국하고 그런 게 언어, 풍습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샤이세(Scheisse, 똥, 젼장) 하는 소리도 그냥 혼잣말로도 하고 뭐하는데 그때 인제 우리가 독일 사람들 샤이세를 하면, 재가 분명히 나한테 지금 욕하는 거다! 이런 인상을 받고. 그러니깐 말이 안 통하니깐, 안 통하잖아 말이. 그리고 인제 또 막장에서 일하는 기구들이 전부 독일 사람들에게 맞게 이렇게 다 만들어 놓거나, 한국 사람들 기구 다루는 데는 힘이 약해요.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압 바우하머(Abbauhammer, 채굴용 해머)라고 이렇게. 공기 이용해가지고 굴착기라고 그러나 그런 게 있는데, 힘이 부쳐가지고 정말 굴착기를 잡고서 한다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난리죠. 욕은 분명히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래가지고 저희들 오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장에서 호벨(Hobel, 채탄기)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인제 탄층이 있으면은, 탄층이 있으면은 호벨에다가, 탄층에다 뭐라고 하나? 쇠슬 같은 걸 내려가지고 왔다갔다 하면서 허물어 내리잖아 그걸. 허물어 내리면은 판차(Panzer)라고 하는게 실어 날라요, 밖으로 이렇게. 근데 탄층이 무너지면서 바위가 하나 이렇게 큰 게 떨어져서 그걸, 밖으로 안 나가고 해서 밖에 그 걸쳐서 흘러 내려가는 거를 분명히 이쪽에서 (바위를)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했을 텐데. 그 얘기를 못 듣고 있다가 여기 [머리 쪽을 가르키며] 그 위에다가 갈라버렸죠. 그 놈 온지 6개월도 안 됐어요. 6개월도 안 되가지고 죽고 뭐 했대는데. 처음에 와가지고선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공기를 환풍을 시키느라고 바람이 한쪽으로, 그러니까 입구가 있고 요기 출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을 파는데 그 먼지가 이렇게 앉아있어도 잘 안보일 정돈데, 거기서 이렇게, 우리가 일했던 데가 1미터가 안됐어요. 탄층 높이가. 1미터가 안 되가지고 무릎 꿇고 한번 이제 그 안에 가면은 마칠

때까지 못나오죠, 밖으로. 그런데 거기서 있으면서, 그 일을 못한다고, 아까 얘기했던 슈타이거(Steiger, 갱부장)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와서 욕하고 다니지, 이거 일은 힘이 부쳐서 안 되지. 운 적이 한두 번이. 다 그랬을 거예요 그때.

근데 그 광산에서 일하는 게 군대 생활도 오래하시고, 월남전에도 가시고 그랬는데 전쟁에 간 것보다도 더 어려웠습니까? 육체적으로는 훨씬 힘들었죠. 육체적으로 그런 것이 힘들고.

그리고 또 그만큼 위험했습니까? 사망 사건도 있고. 예. 전쟁터에서야 정말 뭐 총알만 피하면 뭐 이렇게. [웃음] 거기서야 육체적으로 실제 해야 되고, 슈템펠(Stempel, 지주)이라고 해서 허물어지지 말라고 세우는 게 쇠로 돼 있는데, 그게. 독일 사람들은 힘이 세가지고 착착 옮기고 그러던데 그런 거 옮기는 거, 또 아까 말씀 드린 압바우하머(Abbauhammer, 채굴용 해머)로 굴들 그런 거 파내는 거. 또 인제 요령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줄 알면은 힘이 부쳐도 요령껏 할 텐데. 이거 해라고 시키지, 오늘 할 일이 뭐뭐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시키면 오히려 인제 이렇게 쪽 할 텐데. 꼭 다니면서 이거해 이거해 이런 식으로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이었죠. 그제. 그래가지고선 월남에 있을 때야 뭐 날씨 때문에 힘들고, 제가 또 통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힘들고, 육체적으로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요기 광산서야 뭐 완전히 육체적으로 힘들었지요. 그래서 제가 작은아버지 욕도 많이 했어요. 더 좋은데 가서 하라고 그러지 하필 또 막장 가서 하라고 그래가지고서. [웃음] 막장 가서 정말 고생 많이 했죠.

또 작은아버지가 여기 계셔서, 그래도 좀 도움된 것도 있습니까? 작은아버지는 오버하우젠(Oberhauen)에 있었고 저는 노이키르헨(Neukirchen)에 있었는데, 작은아버지는 일찍 가셨죠. 그러니까 제가 1년 후에 왔으니까 같이 있었던 시간은 2년 정도. 한 2년 정도 있다가. 주말에만 한 번씩 만나는 정도지 뭐. 특별히 뭐.

그럼 광산에서는 임기 끝나실 때까지 막장에서 계속 쪽 일을 하셨던 건가요?

예. 나중에 슈타이거(Steiger, 갱부장)가 하도 못된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한국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는 것 같더라구요? 근데 좋게 얘기하면 할 텐데. 코레아너(Koreaner, 한국인)



어찌구저찌구 하면서 아주 무시하는 친구가 있어서 한번은 이, 이 사람을 혼냈어요. 제가. 막장 안에서.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웃음] 삼을 들고 쫓아가가지고 겁을 줬더니, 무서워서 같이 일 못하겠다고 혼자 하라고. 나중에 그거 일을 한 2년 혼자 했던 것 같아요. 물건운반 해 주는 거. [웃음] 그거 해서 속으로는 얼마나 다행이었던지 몰라.

그럼 막장에서 하는 게 3반으로, 하루 3번씩 나눠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주말수당 따로 있  
고요? 예. 그러니까 그때도 힘들어도, 토요일 날 가서 하면은 25%가? 월급이 더 나왔었구  
요. 일요일 날 가서 하면은 50%를 주고 세금 안 떼고. 그러니까 힘들어도 하루라도 더 할려  
고 그랬지. 그렇게 금요, 수요일쯤 되면은 이제 얘기를 해요. 너 이번 주말에 와서 일 하라  
고, 인제 쭉 말하는데. 혹시 내 이름 안 불러주나 하고서는 뭐하고.

미리 주말 일을 신청할 수도 있었어요? 본인이 신청은, 물론 얘기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  
린 또 성격이 그래서 내가 얘기하지를 못하는데. 아무튼 일 하라고 이렇게 얘기 해주기를  
원했죠. 근데 그 차이가 참 많이 났어요. 왜냐, 본봉만 1,200마르크 정돈데 주말에 가서 이제  
한 몇 번만 해도 1,700~1,800마르크 나오고 그럴 때니까 훨씬 나왔죠. 그리고 여기 오자마자  
인제, 그 은행에서 용자를 해가지고 한국으로 송금을 시켰어요. 울적에 비용 든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고거를 이제 1년 안에 또 한 달에 얼마씩 해서 갚고 뭐하고 했었죠.

한국에서 오기 전에 들어간 비용을 빚으로 가지고 오셨군요? 그래서 여기서 돈, 돈을 한 일  
년 동안. 네. 일 년 동안 갚았어요.

일년 동안 갚으신 거네요? 아. 3년을 일해도 1년을 우선 빚진 거 갚고. [웃음] 그리고 또 계  
속 집으로 보내시고. 네. 4년 만에 가서 이거 아까 말씀하셨던 작은아버지가 그렇게 말씀  
하시고. 아버님이 그때도 한 빚을 2,000만 원 정도를 안고 계시더라구. 그래서 내가 아까 집  
사람한테 미안하다는 얘기가, 그 빚 또 갚아야 되잖아, 내가. 아들 하나 있는데 어떡해. 그래  
서 그 빚 다 갚고 이제 어지간하나 했는데, 또 여동생 이 녀석이 또 사고치는 바람에. 좀 어  
떻게 뭐가 인생, 줄을 잘못 선거 같애. [웃음] 힘했어요.

## 여가 생활

---

휴가는 며칠 정도 있으셨습니까? 그때, 1년에. 그때는 한 20일 정도 했었는데. 자꾸 휴가가 많아졌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6주로 알고 있어요.

휴가는 보통 어떻게 보내셨어요? 휴가를. 저 이제 휴가 때도 그 무슨 사과 따러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휴가 얻어가지고서. 요즘에야 휴가 다니지만 그때야 휴가 얻는다고 어디 가서 휴가하고 그럴 생각이나 했나요. 일감이나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이런 저 바움슐레 (Baumschule, 임업 수목원) 같은데 가가지고서 일도 하고, 사과 따면 얼마도 받고.

여행 같은 건 안 하셨어요? 여행, 그때 총각 때. 광산 인사과장이 한번 추진을 해서, 버스로 스페인 한번 갔다 온 적 있어요. 2주일. 통역하고 해서 인사과장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스페인, 바르셀로나 옆인데 거기 그 해변가 가서 한 2주 있다가. 버스로 이틀 갔다가, 또 이틀 오고 그랬죠.

휴가 때 똑바로 쉬지도 않으시고 주말에 계속 일하시고 이러면, 몸이 이렇게 잘 따라왔습니까? 근데 요즘 생각하면은 그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도 제가 많이 움직이거든요. 아까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어제도 보훔 갔다 와서도 아침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일하고 또 내려오고. 정말 집사람이 제일 아주 불만이 많아요. 조금 조용하게 살지, 계속. 요즘은 오히려 몸 상태가 좋은데 그때 참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그냥 예. 주말 되면 쉬고 싶고. 그 뭐 했는데. 제 집사람은 한국에서 우리하고 성장과정이 완전히 다르니까. [웃음] 나이는 나하고 두 살 차이뿐이 안 나는데 얘기를 해보며는 정말로 안 통하는게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두 살 차인데 워낙에 주위환경이 이렇게 뭐했다니까요. 이 집은 아버지가 의사였고 어찌고저찌고 하니까, 정말 그 얘기해보면 안 통해요. 그런 것들이. [웃음] 그래서 결혼하고도 공휴자급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말에 내가 가서 하루씩 더 일하는걸. 그걸 나간다고 이제 난리지. 근데 나는 가서 한 공수라도 더 해야 수입이 많아지는데. 그러니 나갈라고 그러지. 아내가 인상을 아주 많이 썼어요, 저한테. [웃음]

## 결혼과 독일 생활

---

**부인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내가 제 친구 결혼식에 갔었는데 부인이 왔었어요. 그러니깐 신부하고 친구여가지고…. 그때 이렇게 안면 있었는데, 뒤스부르크 반호프(Duisburg Bahnhof, 뒤스부르크 역)을 갔었는데 우연히 거기서 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깐 옛날에 인제 또 안면이 있고 그러니깐 거기서 인사하고서, 다른 사람하고 어울려서 하룻저녁을 같이 이렇게 지낸 적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냥 휴가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 집으로. [웃음]

**어디였는데요?** 노이스(Neuss)에서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좀 차분한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찾아갔지. 하임(Heim, 기숙사)으로. 싫진 않았으니깐 문 열어 줬겠지. [웃음]

**그럼 만나시고 얼마 만에 결혼하게 되신 건가요?** 한 1년 사귀다가.

**그럼 광부로 임기를 마치기 전에 결혼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마치고 나서. 마치고 내 연장해놓고. 연장해놓게 했어요, 3년 넘어서.

**3년 넘으면 보통 하우어(Hauer, 광부)가 되지 않습니까?** 예, 하우어라고 하죠.

**그럼 3년 후에는 하우어로 계속 일하시고. 그러면 월급도 조금 오르고?** 예, 약간 올라요. 근데 뭐 여기서야 호봉 수 따라서 월급이 큰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럼 그 연장하실 때 이미, 독일에 좀 더 오래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때는 우선 연장했죠. 연장 해준다 그러니까. 그때 인제 뭐가 있었냐면은, 그때 덩덴(Dingden)이라는 곳에 아카데미 클라우젠호프(Akademie Klausenhof)가 있는데, 저 독일어 교육도 시키고 하는 데가. 광산 3년 마치고 거기 가면 직업학교 교사자격증을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거기 가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광산이 안 되면은, 거기 가서 직업학교를 시작할라고 했지. 거기 학교 등록해놓고 있는데, 광산에서 연장할 사람들 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일 않고 그러는 사람들은 연장 안 시켜주지. 근데 또 뭐 광산에서 착실히 일하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연장하라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광산에서 머물렀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우어는 어떤 겁니까? 하우어는 그냥 결국은 광부, 진짜 광부 된 거예요. 그제. [웃음] 그전에는 저기, 그러니까 셀브슈텐디히(selbständig, 독립적으로) 안 한 상태였고 하우어때 부터서는 혼자 일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그제 뭐 마이스터(Meister, 장인)은 아니고. 오펔에 지원할 때도 그러니까 그걸 또 묻더라구요? 하우어 자격증이 있느냐고? 광부수첩이라고 나오거든요. 거기 다 등록되어 있는데 그거 보여주니까 오케이 그러고.

그럼 그 뒤에는 오펔에서 일하시는 건가요? 네, 그 뒤에는 오펔에서 일했어요.

결혼을 하시고, 그러면 체류문제가 해결 된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광산 연장하면서는 체류는 문제없었었고, 한국 분들 중에서 체류 때문에 또 결혼을 빨리 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분들은 결혼을 안 하면 한국을 안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연장해놓고 했으니까. 그런 건 아니지. [웃음]

그럼 연장했을 때는 체류 허가도 몇 년 연장이 되었습니까? 그때 있으려면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때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5년이 넘으면은 운베프리스테트(unbefristet, 무기한 체류권) 인가 그제 나왔었고. 그러니까 5년, 5년을 넘겨야 된다 라고 그랬는데, 광산에서만 있었으면 5년 넘기는 건 문제없었었고. 제가 나오고 나서도 계속 거기 일했던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결혼하시면서 여기 더 오래 계시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겁니까? 결혼하고서 여기에 낳고 뭐하니까 또, 애들 또 여기서 가르쳐야 되고 그러다보니깐 못 갔는데. 인젠 한국 가고 싶긴 해요. [웃음] 인젠 가서 렌테(Rente, 연금)나 나오면은. 이번에 저기 순천에다가 그 옛날 김화중 보건부장관이었던가? 그분이 한옥마을 한다고 안게보트(Angebot, 제안) 했었잖아요, 여기다가. 그래서 신청을 해봤어요. 김화중 장관, 그분 땅이 거기가 한 20만평 있대요. 여기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 신청을 하면 그 땅을 주고, 100평에다가 30평으로 한옥 지어주는 데 1억씩을, 1억만 내면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1억이면 싸잖아. 그래서 신청했어요. 거기. 딸년에는 그냥 조용하게 살고 싶고.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중국에서, 중국은 학제가 5년이니깐, 5년 마치고 거기 또 국가고시 시험을 안보면 안 된다고 그래서 6개월 인제 공부해서 그제 마치고. 여기 와가지고 또 하일프락티커(Heilpraktiker, 민간요법과정) 하느라고 30개월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9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운데 이것도 또 하다보니

간 스트레스 많이 받네. [웃음] 그래서는 말년에는 그냥 한국 가서 살고 싶어요.

## 오펠(OPEL) 근무

---

그럼 결혼하시고선 어디서 사셨나요? 오펠에서 근무하시면서 어느 도시에서 사셨나요? 그러니까 보훔(Bochum) 옆인데 카스트롭 라우셀(Castrop-Rauxel)이라는 조그만한 도시 하나 있어요. 거기서 한 20년 살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노이스에서 부인 분께서, 거기서 일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결혼하시고 나서 그 카스트롭 라우셀 가서 근무하신 건가요? 그 사람이 노이스에 있다가 카스트롭 라우셀로 옮기더라고, 병원을. 결혼을 하고 나서 옮겼어요. 그러더니 카스트롭 라우셀에 있으니깐 오펠 공장이 또 옆에가 있잖아. 그래서 오펠로 나가게 된 거죠.

오펠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셨습니까? 오펠에서는 그룹리더 했어요. 저 마시넨푸러(Maschinenführer, 기계과담당자)라고 그랬는데, 자동으로 된 거, 선반기 같은 거 그런 거 인제 깎아요. 저는 이렇게 광산에서도 그렇고 오펠에서도 밤근무를 많이 했어요. 밤근무를 하면 또 월급이 많거든, 거의. [웃음] 광산은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하고, 8시간을. 오펠에서는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데 오펠같은 경우는 밤근무 수당만 월급에 한 25%가 돼요. 여기 세금 안 떼고 나오니까 그게 엄청나더라고, 그 차이가. 그래서 오펠에서도 밤 근무만 10년 넘게 한거 같아요.

그럼 오펠에서 받은 월급이 광산에서 받은 것보다 많았습니까? 많았었죠, 더. 오펠에서는 아무래도 공휴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또 광산 월급이 얼마 안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인제 한국에 비하면 1,200마르크라서 많다고 했는데, 3년, 4년 마치고 오펠 들어가니까 그때 1,700마르크 주는데? 그래가지고 오펠이 훨씬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간호사들보단 더 많이 주었잖아요? 간호사들도 비슷비슷했어요. 집사람 월급봉투 하고 보면은 [웃음] 비슷비슷했습니다.

## 가정생활과 자녀교육

그래도 이제 결혼하고 맞벌이하면서는 돈을 좀 모을 수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때도 계속 한국에 송금했습니까? 아니 그게, 모아가지고 쓸데가 없어야 되는데 자꾸 한국에 쓸 데가 자꾸 생기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집 사러 했는데 누가 와서 흘러당 해버리고. 모아도 송금 계속해야 하고. 그리고 여동생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아까 말씀 드렸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2,000만 원 또 빚 남겨놓고 갔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돈 모아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쓴 적이, 물론 이제 이 집, 카스트롭 라우셀에서도 우리가 집을 한 채 사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진 현찰 한 푼 없이 샀어요. [웃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그 집을 21만 마르크인가를 달라고 했는데 은행에 가서 얘기를 했죠. 이 집, 아이들 때문에 성장하고 그래서. 아무튼 집이 750쿠바드랏메타(Quadratmeter, 평방미터)였으니까, 가르텐(Garten, 정원)도 넓고. 애들 놀기 그냥 좋을 것 같아서, 그때 또 은행에서 용자를 해준다는 게 월급봉투만 확실하면 그때 용자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집값보다 오히려 더 많이 용자를 했어요. 해주더라고. 원래는 20% 아이겐카피탈(Eigenkapital, 자가재산) 있어야 해줘요. 그 집에서 10년인가 몇 년 살면서, 그게 월급에서 계속 나가고. 이 집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도, 은행집이지 뭐 우리 집이 아니지. [웃음] 그래서 그 참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이렇게 낭비하고 이런 형은 또 아닌 거 같은데. 물론 구두쇠같이 이런 성격도 아닌 거 같아요. 근데 쓸 때는 좀 써야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헛군데는 안 쓰는 성격이거든요, 내가 봐도. 근데 내 돈이라고 딱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독일 생활하면서 좀 웃겨. 자신을 생각해도[웃음]. 근데 한국에서 식구들은, 받은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게 여러 사람 해주는 사람은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오펔에서 밤반에 근무하시고 부인 분도 이제 간호사로 일을 계속 하셨는데, 맞벌이 하시면서 아이들 키우거나 이런 거는 어려움이 없으셨나요? 아이들 키웠던 게 참 힘들었죠. 서로 교대 근무하면서, 제가 이제 밤근무를 하면은 이 사람은 아침근무를 하고, 그렇게 서로 교대했는데. 한때는 사람이 밤근무를 나가면 병원을 8시에 나가요. 제가 오펔에서 오후근무를 하면 10시에 끝나가지고 집에 오면은 한 3시간 정도가 없잖아. 그때는 윗집이나 옆집 아줌마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조금 와서 몇 시간씩 아이들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애들 키우는 거 다들 힘들게 했어요. 요즘 보면은 뭐, 애들 키운다고 시부모들 불러서 키



우고 어찌구 그랬는데 [웃음] 그때는 어디가 있어요, 그런게. 그래가지고 인터폰 장치해놓고 옆집에다가 선 연결해가지고 해놓고, 애기 울면 와서 봐달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다들 했지. 나 아는 사람은, 저기 애한테 맥주 맥이고 일 나간 사람도 있어요. 잠자라고.

**뒤편이요?** 맥주를 맥였다구. 할 수 없으니까. 오죽 했겠어요. 애기 키웠던 게 어떻게 해냈나 싶어,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맞벌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럼 둘 중에 한 분이 애 키우는 동안은 집에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셨습니까?** 생각할 수가 없죠. 그게 혼자 일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아이들 키우는 게 자기네들 성장해가지고 나가 살겠다고 하기 이전에는 계속 안고 살아야죠. 아비투어(Abitur, 대입시험)를 마치고 인제 보훔(Bochum)대학에 큰 녀석이 입학할 하더니, 나가 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니가 능력이 있으면 나가 살어”, 그랬더니 이녀석이 보훔에다가. 그것도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본게마인샤프트(Wohngemeinschaft, 주거공동체)라고 그래가지고, 한 집에 몇명씩 사는 거. 한참 또 공부하더니 베를린을 또 간대요. 학교를 막 옮긴대. 옮긴다는 데 뭐 못 옮기게 할 수 있나. 그래가지고 개는 지금 아직도 베를린에 있고, 작은 애는 카스트롭 라우셀에 우리하고 같이 살더니 우리가 일로 이사 오니깐 할 수 없이 먼저 방을 얻어가지고 있었고. 참 옛날 얘기네요. [웃음]

**그러면 부인 분께서도 그냥 독일에서 쪽 남아서 살기를 원하셨었나요?** 그때 그 사람도 한국을 갈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나를 만나서 머물렀던 게 몇십 년이 넘었던 것 같고. 처음에는 결혼해서 살면서 한국 나가서 살고 싶단 얘기를 았다가 요즘은 한국 나가서 살아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여수에다가 집도 해놓고.

## 한의사 전직 이후의 삶

---

**오펠에서 20년 동안 근무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어찌다 갑자기 이 완전히 다른 걸 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인제 여기 와가지고서 제가 학교를 시작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나왔는데 여기서 공부를 하고 싶더라고 몇 개의 학교에다 연락을 했더니, 몇 군데서 연락이 왔더라구요. 그 일 년을 카바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도, 또 여기가. 근데 아니 가정이 있는데, 아니 여기 가정 말고 한국 가족이 있는데, 안되겠더라구 또. 근데 계획이 항상 남아있었어요. 한국에서도 공부하고 싶는데 돈 없어서 못 다녔다는게.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또 연변대학에서 그 유학생들을 모집한다는 그런 신문광고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선 인제 시작하게 됐죠. [웃음] 그런데 의학을, 의학을 사실 생각했던 거는 아니었는데.

**원래는 뭘 생각하셨습니다까?** 원래는 제가 이렇게 조금 기계 쪽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아직도 이렇게 뭐, 암튼 손으로 만지면은 다 해내. [웃음] 뭐가 됐든. 거기서 유학생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나서 그냥, 이거라도 하자 했던 생각을 했던 거 같아 그때. 그런데 또 해놓고 보니까 또 이것도 뭐 나이 먹어서 그게 결코 나쁜 직업은 아닌 것 같고.

**그때 결정하기가 쉬웠습니까?** 하, 어려웠었죠. 근데 집사람도 암튼. 내가 이제 뭔가를 하고자 했던 걸 아니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내 고민을 아니깐 하라고 했겠죠. 뭐 인제 그래서 시작했죠.

**그러면 독일에서도 기계 쪽으로 대학을 들어가시려고 하셨나요?** 네, 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하신 게, 몇 년도에 중국으로 가셨는지?** 그때 중국에서 그러니까, 93년도 입학해서 98년도에 졸업했어요.

**그때 비용은 어떻게 하셨습니다까?** 그 학비도 유학생들한테 많이 받더라고요? 중국은, 자국인들한테는 조금씩 받으면서 [웃음] 유학생들한테는 많이 받았어요. 학비도 1학기에 뭐 한 2,500마르크씩 이렇게 받았고. 중국 돈으로 하면 뭐. 자비로 부담 해야죠 뭐. 우리가 이렇게 충당하고 그랬었죠.

**연변에서는 그럼 조선, 한국말이 통했었나요?** 연변대학에서 얘기한 게 원래, 학장님도 조

선죽이고. 연변의 대학 총장이 조선족이더라구요. 교수님들도 다 그렇고.

그런데 나이드 있고,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으니까 또 할 수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때 주위 사람들이 그때 내가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말린 사람이 많았어요. 그거 확실한 것도 아닌데, 하고 나서 또 그걸 해질지 뭐 될 지도 모르는데 그걸 지금 니가 시작하겠느냐고. 그러니까 그때 93년도에 제가 마흔세 살이 었잖아요. 그래도 다른 생각 없고 그냥 하고 싶다는 생각뿐이 없으니까 해지드라고요 그 계.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오히려 한국에서 육십 드신 분도 와서, 거기 와서 있고. 아 그 래서 참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다 이렇게 하는 구나 생각이, 참 많은 위안이 됐어요.

공부하는 데 특별히 어렵고 이런 건 없었습니까? 예, 뭐 특별하게 어려운 것은 없고. 잘 따 라서 또 했던 거 같아요. [웃음]

그러면 혼자 와서 공부하신 건가요, 아니면 부인이랑 같이 중국에 가서서 살았나요?  
혼자 갔죠.

그러면 그 중국에 가서서 공부하시기 전에 이제, 아 그럼 내가 공부를 끝내고서는 독일에 와서 그 어떤 침술이라던가 이런 걸 독일에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 계획하시고 가셨던 건 가요? 그렇죠. 침에 중국에서 공부 시작하면서는 그냥 한국 한의사나 중국 중의사하면은 그 한국이나 중국같이 그냥 여기서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또 생각을 했죠. 나중에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할 수 없이 하일프락티커(Heilpraktiker, 민간요법치료사 과정) 시 작했죠. 하일프락티커, 아이고,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구요 그게.

또 사실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그리고 물자를 공부에 투자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 기 하일프락티커스쿨레 다닐 때도 한 달의 학비가 500마르크씩이었어요. 그래서 인제 프리바 트스쿨레(Privatschule, 사립학교)가 될러니까 그때 500마르크면 지금 500유로나 같잖아요. 많은 돈이더라고 그게.

그럼 몇 개월이나 하셨나요? 30개월 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1년 만에 마칠려고 그랬

는데, 그게 또 그렇게 안되더라고, 30개월 했어. [웃음]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투자한 보람을 충분히 느끼십니까?

네. 주위 사람도 뭐 잘했다 라고 그렇게 얘기들 하고, 또 못해낼줄 알았는데 해보니깐 또 자신감도 생기고. 하지만 처음 환자들 보면 불안했죠. 그니까 환자가 오면은 처리를 잘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죠 그게. 그리고 한의일하는게 무슨 기계가 있어서 이렇게 진단하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내가 맥하고 인제 쳐보고서 뭐니 진단내리고 처방내리고 그러는 건데. 야, 이거 인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웃음] 그 순간 막 불안하고 그랬지요. 요즘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져요. 그니까 요즘은 잘했다 생각하고. 여기가 또 이렇게 보험제도가 뭐 해가지고서 우리에게 온다는 사람들은 양의들이 치료 못하는 사람들만 오죠. 저한테 오면은 내 돈 내고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현대 의학에서 못 나온 사람들만 오지. 근데 이런 사람들 한두 사람씩 잘 치료해주면 또 소문이 이렇게 나고 그래 가지고 오긴 오는데. 뭐, 돈을 보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내 돈 내고서 치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정말 할 수 없으니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한 사람씩 와가지고 고맙다고 얘기하고서 이렇게 못 나올 줄 알았는데 당신 만나서 나왔다고, 그런 얘기하고. 그런 거 보면 아주 보람을 느껴요, 거기서.

그럼 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독일인들인가요? 대부분 독일인들이죠. 대부분 독일인들이고. 여기 인제 프랑크푸르트(Frankfurt)는 주재원(駐在員)들이, 한국 회사에서 나오는 분들이라서 고거는 인제 프리바트카세(Privatkasse, 사보험-의료)가 돼서 보험 처리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몇 분이 오고. 나머진 전부 다. 그니까 난치병환자들이 많이 와요. 한 10~15년, 막 20년씩 그렇게 병 앓고 누워 있던 사람들이 마지막 처방 받으러 왔다고 그러죠.

## 한국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독일의 사회활동

그리고 보면 선생님께서 타향살이를 많이 하셨네요. 월남도 가시고 독일 오셨고 또 중국도 가고. 타향살이만 했죠. [웃음] 집에서 열일곱 살 때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려고 있으니.

그러니깐 어머님이, 그 정말 소원이 아들하고 같이 한번 살아보는 거였는데 결국 못하고 가셨어요. 뻘하잖아요. 아들 하나 있는 거. 같이 좀 살고 싶은데. 예, 어머니한테 불효를 했지요. 한국 한 번씩 나가보면 동생들도 많기는 하지만, 동생들 입장에서 오빠가 하나가 있긴 있는데 오빠하고 같이 이렇게 부딪히고 안 살아봐서 그게 실감이 안나. 그래서 한국가면, 막내, 막내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바닥에 누여 있잖아요. 어, 그럼 오빠 팔 배고 좀 자야지 하면서 팔을 갖다대고, 이려고 자고 안기고 그러는 거예요. [웃음] 하 참, 여동생들하고 같이 살면 재밌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작년 여름에 한국에 갔더니 동생이 공항에 나와서. 오빠왔냐고 그래요. 오빠면 뭐하니 오빠 노릇도 못하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깐. 오빠가 있는 게, 오빠가 존재한다는 게 오빠 노릇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런 얘길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국에 더 나가고 싶어 하는 것도 애네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 사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예요. 여기 외국 생활을 오래 해두요. 여기서 내가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 오래 사셨나 모르겠는데 [웃음] 아이고 내가 이거를 한국서 했으면 얼마나 충성을 갖고 이렇게 보람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여기 계시면서 한국은 얼마나 자주 가세요?** 요즘은 인제 작년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금년에 갔다 왔고. 인제 뭐 하느라고 3~4년은 해 년마다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엔 그렇게 못 다녔죠. 한국 한번 가면은, 어머님 그때 환갑 할 때 우리 식구들이 한번 나갔었고, 그 다음에 인제, 가만있어. [흔젓발로] 10년 동안 안간 거 아냐. 그 다음에 한 3~4년 만에 한 번씩 한국 왔다 갔다 하나? 요즘은 아무튼 1년 만에 왔다 갔다 했어요, 어머니 때문에. 인제는 언제 갈지 모르지.

**그럼 이렇게 독일에 사시면서 뭐 따로 한인회라던가 아님 향우회라던가 교회라던가, 활동을 하시나요?** 한인회 뭐 활동한다 라고 해서 한인회장하고 이런 건 아닌데. [웃음] 그런 것까지 또 하다 보면은 이쪽은 워낙 또 힘들 것 같고. 그 향우회 같은 것도 회장 같은 건 맡길려고 해요 물론. 그 사람들이 하라고 맡길려곤 하는데 맡아 봤다 일 못하면 어떡해. 그래서 거기 저 재독 호남 향우회 같은 무슨 뭐 소위 사무총장인가 그런 걸 또 해 보고 그랬는데, 무슨 뭐 회장을 한다든가 전 그런 건 안 해요. [웃음] 그런 건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한인회를 안 나가는 건 아니예요. 그 구성원이든지 가가지고서 협조할 건 또 협조하고. 한인사회, 그

모임 있어가지고 그 세미나 같은 거 부탁하면은 봐서 그런 건 해주고. 요번에도 11월 며칠 날, 여기서 또 뭐한다고 그러드만. 글뤽아우프회(Glückauf, 재독파독광부협회)라고 성경석 씨라고. 남부지역 글뤽아우프회 회장, 인제 여기서 하는데 재독 글뤽아우프회, 거기 할 때도 가서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 무슨 뭐 간호사들 모이는데 가서 해달라고. 여러 군데서 했어요. [웃음] 가가지고선. 세미나 같은 거 하고.

**한의원 전문가로서 사회활동 많이 해주시나요?** 예 내가 좀 움직여가지고 교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성 싶으면 할려고 해요. 할려고 하고. 교회는 여기 라인마인(Rhein-Main)한인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나가고. 거기 나가면서 그때도 교회에서 무료봉사를 한번 해볼려고, 한 달에 하루씩 이래 나가서 했더니 진료 받으러 오질 않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해서 그냥 중단 하고. 요즘엔 2개월 한번씩 레겐스쿠르크(Regensburg) 내려가. 거기는 토요일 날 하루, 여기서 거기가 350km더라고요, 레겐스부르크에. 아침에 여기서 7시 반차타고 거기 가면은 11시 20분 되요. 거기서 환자 받으면은 한 30~40명씩 하루 받고 저녁 10시 반 차로 올라오죠, 거기서. 그러면, 가서 그냥 무료로 해주고.

**거기는 그럼 한인들입니까, 주로?** 독일 사람. 거기 원불교 회원들이 다 독일 사람들이여가지고. 독일 사람들만 있어요.

**아니 그니까 원불교에서, 그걸 마련해주면 거기 가서 치료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원불교 교도들만 오는 게 아니고, 원불교 교단이 있으니까 거기서 라움(Raum, 공간)을 제공하고 이 사람들이 오르가니제이션(Organisieren, 조직)을 해줘요. 오고 싶은 사람 오면 거기서 진찰하고서 그냥 나는 올라오죠.

**교회를 다니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원래 한국에서도 교회를 다니셨나요, 아니면 여기 오서가지고?** 한국에서 어렸을 때는 오히려 천주교 쪽을 좀 다녔는데, 군대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면서 안 다니고 있다가 여기 와서, 나갔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셔서 나가셨나요?** 결혼식을 교회에서 했고 [웃음] 이 사람은 옛날부터 교회에 다녔고, 이 사람 오빠도 목사님이고 그래서 그쪽에 좀 뭐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보니까 그 좀 판단력을 좀 길러주는 것 같고, 그것 때때 특별한 신앙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되든 착하게 살아가는 법 배우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많이 성장했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여기 또 이제 따로 광부, 글뤽아우프라던가 광부 모임이라던가 베트남 파병 가셨던 분들의 모임이 라던가 그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도 참여하시나요? 네. 참여하고. 거기 베트남 참전 전우회 남부지역 지회장도 해달라고 해서 그거 맡고 있고. 뭐 암튼, 그러니까 인제 회장을 해버리면은 그 짐이 몽땅 나에게 안겨버리니깐 너무 무겁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은 그런 거는 이렇게 책임을 맡고 하구 있죠. 그러니까 이 영사관 같은 데서도, 밑게는 안 봤던 모양이에요. 한인회에서 직책을 맡고 일하는 건 아니어도, 협조하고 뭐 하는 것 다 알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제, 국경일 레셉치온(Reception, 초대연)한다고 영사관에서 연락왔더라. 거기 가가지고 얘기 들었어요, 누구한테. 김창모 선생한테.

## 한의원 운영과 의학 공부

---

그러면 물론 이렇게 그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독일 분들이시지만 그래도 따로 한국 분들, 이렇게 환자분들도 오시고 그러시나요? 네 그러니깐 주재원 가족들이 많이 오구요. 주재원들은 보험 혜택이 있어요. 사보험이기 때문에 보험혜택이 있으니깐 이분들도 오고. 그러니깐 여기서 사는 교포들은 한약을 먹어도 뻘하잖아요. 한국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런데 또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학생들로 온 분들이 몸이 좀 안 좋으니깐 보약 쳐달라고 하지. [웃음] 여기서 사는 교포분들은 그런거들을 생각하지를 못해. 참 그게 성장 과정에서 오는 어떤 영향인 거 같아요, 그런 게. 학생들이 오히려 많이 와요. 내가 요즘에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더니 몸이 좀 안 좋다고 약 좀 지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와요. 교민들은 그런 거 없어. [웃음]

그런데 교민들이 그 육체노동도 많이 하고 밤근무도 더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연령이 높아지면서 건강을 더 주의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있을 텐데, 정말

인제 힘든 분들은 몇 분 와요. 뭐 위가 아픈데 병원 가도 안 되니까는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맨몸을 그렇게 아낄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젊었을 때부터 서 그런 돈에만 신경써가지고, 여기 온다는 게 벌써 뭐, 뭐 때문에 왔겠어요? 어떻게든 다 이렇게 경제적인 영향 때문에 와서 그런지 어떤지. 아프면서도 그러니깐, 어떤 집 가서 보면은 일반 의사한테 가가지고, 약 먹는 약 가짓수가 10가지가 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야기가 의학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갔는데. 그런 분들이 참 안타까운 데가 있어요. 그런데 한의는 원인은 하난데, 그 나타나는 증상들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치료를 하나만 딱 하면 그런 증상들이 다 없어지는데 양의는 안 그렇잖아요. 머리 아프면 머리 아픈 약주고, 고혈압이면 고혈압 약 따로 먹고 그냥 열 몇 가지씩 먹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양약 먹는다는 게, 결국은 또 그렇게 되물림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교포분들이 너무 몸 관리를 안 하는 거 같아.

독일에서 한의원을 하시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침술도 놓고 약도 다 처방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요? 똑같이 해요. 독일 사람들이 오히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약 다려 먹는 것도 내가 약을, 약 한 봉지 물을 얼마 넣고 몇 시간 어떻게 끓여서 아침저녁으로 나눠 드세요 딱 이렇게 써주거든요? 그대로 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우선 내가 안다려주면 안 가져가고. [웃음] 항상 그 팩으로서 딱해서 갖다 놔잖아, 우리 집도 한약을 팩으로 다려 만드는 기계 하나 두고 있어요. [웃음] 근데 독일 사람은 안 다려줘요, 내가. 고지식하게 딱 그대로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약 먹는다고 가져갔다가도 그냥 안 먹고 한 몇 개월씩 놔두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독일 사람들이 침을 놔도 효과가 더 있는 것 같고 약을 먹으면 정말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음식관계도 있는 거 같애, 내가 생각키에는. 한국은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채소를 먹어도, 채소가 약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음식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한약을 먹으면 효과가 더 나오는 것 같아요. 효과 좋아요. 그러니까 그 정말 마시기 힘들어가지고 [웃음] 토하고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약 먹고 나서 효과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몇 번 못 봤어요. 잘 하드라고요.

그럼 그전에 원래 보훔 근처에 카스트롭 라우셀에서 하시다가 왜 프랑크푸르트로 내려오셔서, 왜 여기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세요? 여기서 그 아까 제 말씀 드린 동서, 1진으로 왔

던 분이 여기서 살았었어요. 자꾸 여기 오면 거기보다 좋으니까 내려오라고. [웃음] 그래서 여기 오면 한국 사람들도 7,000명이나 있고. 근데 한국 사람들 많은 게 소용이 없더라구, 독일 사람들 위주로 하니까. 근데 내려와서 뭐 크게 그렇게 뭐 하라고, 보름이 조금 적긴 적었어요. 거기서 어떻게든 9년 해가지고 거기만 머물러있다는 게 조금은 적긴 했는데, 여기 내려와 있으면서도 보름을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지금도 1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니까. 그게 힘들잖아요, 그게. 그래서 지금도 그래. 잘 내려왔나? 잘 못 내려왔나? [웃음] 결정을 아직도 못하겠어요.

그럼 부인 분께서는 내려오시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간호사로 근무를 하셨나요.

아니요. 나하고 같이하고 있어요. 근데 간호사도 했으니깐 환자치료 잘 하잖아. 그래서 그러니 그거하고. 그 답에 환자 받고.

병원 차리는 일은 같이 결정하신 거나요? 같이 차려야지. 공부 시작할 때부터 뭐 암튼, 꽤히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마치고 나서. 지금 생각하면은 그걸 또 하다가 샤펜(Schaffen, 성공)을 못했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하일프락티커(Heilpraktiker, 민간요법 치료 과정)가 그게, 힘들드라구요.

어떤 면이 힘들었어요? 물론 인제 그 한의하고는 전혀 인제 또 다른 방면이고, 전문용어가 많아서 처음엔 정말 무슨 강의 하는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녹음시켜가지고 와서 집에서 다시 듣고서 했는데. 이해가 안 가서, 아내는 병원생활을 해서 내가 가서 이렇게 무슨 얘기냐고 물어봐도, 몰라요. 그래서 야, 이걸 내가 해낼 수 있나 싶었는데. 그니까 하일프락티커 시험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보는데. 문제 나온 것 중에서 우선, 필기시험에서 75점이 넘는 사람이 뭇들리히(mündlich, 구두, 여기서는 구두시험을 의미) 시험을 할 자격을 가지는데. 필기시험보다 이제 앉아서 하는 거 보다 뭇들리히 더 힘든 거 같아요. 시험관 셋이 앉아가지고 45분 동안 물어보는데, 거기서 막혀, 학생들이 다 거기서 떨어져요. 근데 운이 또 있었던 거 같아요. [웃음] 필기시험을 마치고, 시험 볼 때 얘기를 하면 또 아주 재밌어요. 원래 8시 부터 필기시험을 봅니다 라고 연락이 왔는데, 8시라고 읽어놓고 나는 9시라고 슈파이션(speichern,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웃음] 머리에다가. 근데 혹시 아우토반(Autobahn, 고속도로)이 밀리면 안 되니까 빨리 가자고 그래가지고서 한 시간 일찍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한

시간 일찍 가지고 공원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집사람이 시험 보는데 자기도 가겠다고, 그러니까 따라오드니. 아니 거기 시험 보는 시간이 좀 이상하니까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고 그래요. 뭘 다시 확인해봐, 그래서 다시 봐서 읽어보니깐 8신거야. 그래서 뛰어나니까 벌써 위에서 헤어 김!(Herr.Kim, 김씨)이래. [웃음] 그래서 가서 시험을 마쳤죠, 필기시험을. 그래서 미탁(mittag, 점심시간) 마치고서 오후에 뮌들리히(mündlich, 구두시험) 하자고 발표를 해요, 거기 시험 마치고 나서. 그니까 합격 했으니깐 뮌들리히 하자고, 오후에. 그런데 거기 가지고서는 밥 먹자고, 이탤리집에 밥 먹으려고 가서 앉아있는데, 우리 여기 앉아있으면 위쪽 책상에서 앉아있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의사들이야. 뭐 이렇게 누구 뭐 доктор(Doktor, 의사)는 어찌구저찌구 이 얘기를 하는데 의사들이 나중에 뮌들리히 가서, 이 사람들이 시험관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당신 어디 가서 밥 먹은 사람 아니냐고 그 사람들이 먼저 물어, 그러니까 마음이 탁 차분하게 가라앉지 않아요? 아는 사람이라서 봐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험 때 이렇게 맘 불안하면 아는 것도 대답 못하고 모르는데 그렇게 아는 체를 해주니깐 그게 큰 힘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한 45분 물어보는데 한 30분 물어보고 나가라 그래요. 복도에 이 사람 앉아 있다 해가지고, 독일 사람들은 45분 만에 나오면서 막 그냥 맘 불안하게 나오는데, 나는 30분 만에 나오니 또 안될 것 같은 예감이 [웃음] 그래서 나중에 오라 그래서 갔더니, 준비 잘 한 거 같아서 30분 뿐이 안 물어 봤다고. 뭐 축하한다고 딱 그래요. 그래서 야, 그때는 [웃음] 여기서 신학을 하던, 그러니깐 여기서 태어나가지고서 신학을 하다가, 하일프락티커를 시작을 한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30살이 넘어가 있고 그런데. 애도 일곱번 만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언어 때문에도 힘들잖아요. 전문용어도, 애네들이야 정말 힘들게 없는데. 힘든 애들은 힘들더라구. 그래서 야, 정말 운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또 독일에서 그 어려운 시험을 합격한 거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컸겠어요?**

예. [웃음] 뭐. 자부심보다는 그 노력은 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녹음시켜가면서 하고. 또 가장이 한데, 내 일 또 몰라라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또 가장일은 또 해야 되지. 하면서 그렇게 해낸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죠 뭐.

**그리고 또 그게 독일 사회에서 인정받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 은퇴에 대한 생각과 독일 생활 회고

---

이제 만약에 한국으로 돌아가신다면 독일에서 몇 년이나 더 하실려고 생각하시는지?

근데 뭐 렌테(Rente, 연금 들어가는 나이)가 여기 65세부터니까. 지금 62살이잖아요. 예순둘이니까 물론 뭐 몇 년 연기할 수 있고 또 사정이 있고 그런데, 아이구 뭐 내가 렌테까지만 했으면. 그런 생각도 하는데, 한편 생각으로는 또 아까워요. 지금까지, 근데 막시뮴(maximum, 최대) 암튼 일흔 살. [웃음] 근데 이것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꾸 어딜 왔다 갔다 해지고, 제가 자그레브(Zagreb)까지 왔다 갔다 해요. 저, 크로아티아. 여기서 950km데, 거기 간질병 하는 환자가 하나 나왔고 뇌종양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을 하나 치료를 해놨어요. 거기 또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휴가는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가요 또. 거기 누구 하나 이렇게 해변가에 봉갈로(Bungalow)가 있어가지고 키를 아예 맡겨놨어 [웃음] 우리한테. 그래가지고서는, 거기 가면 또 그냥 또 환자들이 오고.

어떻게 소문이 나서 거기까지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깐 거기에 있는 환자를 치료를 해 노니까, 소문이 그렇게 나드라구요. 그 치료해준 집에서 그 집 아들이 그 해변가에 아파트먼트(Apartment) 하나 있어요. 뭐 휴양지지 뭐, 거기 휴가 가서. 거기 가서 암튼, 금년에도 8월 말에는 가기로 해놓고 지금 못 갔잖아요. [웃음] 그러니깐 몇 번이고 메일로 연락 오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휴가도 하고 또 뭐 한편은 환자, 거기 가 있는 줄 알며는 또 글로 와서 치료 받고 뭐하고. 자그레브를 많이 갔었어요. 몇 번 나갔다 왔지.

독일 안에는 독일 내에서 한국 분이, 한의원을 하시는 분이 몇 분 더 계신가요? 네. 몇명 있어요. 저쪽에 하노버(Hannover) 저기 하나 있고, 울첸(Uelzen)이라는 데 한 분 있고. 세 분 인가?

나머지 분들은 여기로 그 광부라던가 그렇게 오셔서 직업을 가지신 건지, 아니면은 교포 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셔서 직업을 가지신 건지? 그때 그러니깐 저 학교 다닐 때, 그때 모 집할 때 같이 가서 공부했던 분들이 몇분 있어요. 그분들 중에서 하일프락티커를 봐서 합격한 사람들이 독일에 지금 세 명 있죠. 세 명, 그분들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광부로 오신 분들? 예. 한 분은 광부로 왔다가 마치고 플레거슐레(Pflegerschule, 간병인 직업학교) 가서 직업교육 받은 후 간병인으로 일했어요. [웃음] 그리고 저는 오펔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한의학 시작해가지고서 지금 한의사 하고 있고. 그니깐 다, 좀 발광끼가 있어야 돼, 그게. [웃음] 그 맨 마지막에 하일프락티커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60살 환갑 될 때하고 공부하고 지금 같이 한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웃음] 그 사람도 7번 봤다고 그래요, 시험을. 7번 봤다고 그래. 오기로 해낸 거지 오기로. 자기 딸이 의산데, [웃음] 모르는 거 있음 딸 앉혀놓고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했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자부심 가지는지 몰라. 힘들드라고 보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부인 분이 이제 간호사셨는데 어떤 도움이라던가 그런 건 받지 않으셨어요? 못 받았어요. [웃음] 아니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녹음시켜서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럼 모르드래니까. 그게 그니깐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간호를 위한 이런 언어만 하고 또 그런 일만 해가지고, 그런 전문적인, 이런 것들이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어려움이 많았죠. 근데 의사하곤 또 차이가 나지. 의사는 분명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도 한 번씩 만나는데, [웃음] 아주 그 옛날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돌아보시면, 독일에 오신 걸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왔죠 뭐. [웃음] 한국에. 결국 여기서 오래 머물러있으면 있을수록에 한국에서 이렇게 생활한 사람보다도 좀 뭐라, 뒤쳐진다고 그래나? 그런 건 있어요, 여기서 살면서. 그러니까 발전이, 한국에 있는 사람은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성장하고 뭐하는데, 여기서서는 머물러있는 상태잖아요. [웃음] 그러니까 여기서 생활하는 사람이, 저는 그래도 어떻게 됐든 여기서 한인회라도 하고 있고 활동을 하니깐 또 뭐한데. 광산생활 마치고 다들 직장 생활하다가 관둔 사람들인데, 여기 또 60넘은, 어떻게 됐든 60넘어도 일 안고도 다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무료하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됐든 빨리 여기 독일에 와가지고 일이라도 오랫동안 하고 그랬지마는, 다른 사람들은 일 뭐 한 10년, 15년 한 사람들은 이제 렌테(Rente, 연금)도 얼마 안돼요. 그래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보니까. 근데 뭐, 독일에 온 거 후회는 안 하는데 결국 인제 어머님을 좀 내가 모셨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좀 남아있어요. 정말 어머님한테 큰 불효를 했구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 가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송금 시켜주고 뭐 한 것들을 조금 한국에서 관리를 잘 해서... 문고리 하날 놔뒀으면, 집이라도 가



지고 있으면 우리가 나가기도 쉬운데, 이런 게 없으니까. 한국에서는 그렇잖아요. 외국생활 몇십 년 했으면, 야 이 사람은 모아둔 게 있어도 한두 푼이 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한국으로 못 나갔던 거죠. 근데 뭐 지금 생각하면 인생에 그게 뭐 꼭, 돈이 있냐 없냐, 누가 썼냐가 어떤 인생관을 정할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을 해요. 후회는 안 해요.

광부 일을 하시고 한국에 돌아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그분들 연락을 받고 이러면 그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발전한 모습을 보입니까? 그러니까 발전한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여기서 나이 먹어가지고 노후를 한국에 가서 보내야 되겠다 라고 나가신 분들은 큰 변화가 없어요. 한국에서 그냥 여기서 렌테나 그런 거 받아가지고 꾸준히 살아가는데. 3년 마치고 간 분들이 별로 또 그렇게 썩 성공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여기서 생활했던 게 3년이 됐던 4년이 됐던, 여기는 사회가 정직하잖아요. 누가 뭐 이렇게 뭐한다 해가지고, 탁 사기 쳐서 이 사람 돈 이렇게 가로채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독일에서 누가 있다가 귀국을 했다고 그 정보제공만 해도 얼마를 주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웃음]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 못했는데요. 그니까 누가 지금 독일에서 몇 년 살다가 귀국했어—라고 그 정보를 누구한테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보를 받은 사람이 이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니까 결국은 누가 독일갔다는 줄 알면은 돈 준 사람이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친단 얘기죠.

돈을 모아서 왔다라는 걸 알고? 네. 그만큼 한국 사회. 저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 분들도, 고향사람들도 이렇게 좀 여기 와서 봤는데 없어요, 성공한 사람이. 물론 인제 그 다는 아닌데. 그리고 여기서 광부로 왔다가 또 학교 마치고 학위 마치고 나가서 이제 뭐한 분들도 몇 분 있고.

근데 그런걸 보면 그러니까. 여기 계속 체류하신 게 더 옳은 판단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런 생각해요. 인제 뭐, 그냥 광산에 있다가, 오펔에 있다가 또 딱 관두고 렌테나 있었으면은 무료하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고 싶을 때까지는 이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70이 됐든 뭐. 70까지는 마음대로해요, 여기 법이. 그러니까 약간

잘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광부들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에서 광부들을 보는 말들은 정말 참 좋게 [웃음] 하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됐든 경제에 이바지했노라고 다들 뭐 암튼 신문지상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얘기만 했지 사실 또, 광부나 간호사 출신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해준 것도 없잖아요. 특별하게 이거 정말 당신네들 수고했으니까 이런, 정부에서 뭐하나.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문화원을 하나 해준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한국 나가서, 우리가 휴가를 나갔을 때도 한국에 무슨 뭐 라움(Raum, 방, 공간)을 해놓고, 한국에 와있는 동안에 여기서 머물 수 있는 곳을 하나 해준다든가 이런 것조차도 없고 정말,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뭔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정부가 맡은 그냥 해요. 당신네들 담보로 해서 내가 차관을 뭐 얻어왔느니, 어쩌니 그런 소릴. 근데 제 생각은 여기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 문젠 거 같아요. 한국에서 무슨 조금 국회의원들이나 장관들.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 왔을 때 비스바덴(Wiesbaden) 저도 거기 갔었거든요. 근데 손들고 얘기한 사람들이 왜 [웃음] 여기 와서 광부로 와서 일하고서 렌테 적은 사람 한국에서 왜 보조 안 해주냐 하는 얘기. 그거 좀, 아니 누가 가라고 해서 왔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원해서 광산에 온 거지. 그거를 국가에서 그냥 당신들이 가야 우리가 차관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억지로 권한 것 같이들 다들 생각하고, 그 너무 이렇게 구차스러운 소리 좀 안 했음 쓰겠어, 한국에, 한국 정부에다가. 근데 한국에서도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한국 글뤽아우프 회의를 뭐 한국 내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거기는 정부에서 원조가 워낙 또 많다 그러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 나와서 이런 글뤽아우프나 이런 데는 뭐를, 보조를 안 해주면서, 거기서 무슨 광부회가 그거를 조직해서, 거기는 일 년 예산이 엄청나게 나간대 그러대? 근데 이런 거를 조금 실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다가. 아니 몇 사람한테다가 예산 세워서 내어주면은 이 사람들이, 쓰잖아요 그걸 다. 쓰는 사람들만 풍족하게 쓰지, 실제로 여기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한번 나가도 정말 머무를 데 없어서 호텔에서 머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아는 사람들만 해서. 우리 아직 한국 나가면 친척들이 서로 자기 집 와있으라고 해요. 예를 들어 호텔을 가서 잠을 잔다고 하면 친척들에게 육먹을 형편이니까 정말 그건 맞아요. 다행스러운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서 호텔에서 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요런거라도 좀 해줬으면 쓰겠어요, 이런 거라도. 그리고 또 말로만 한나라는 생각을 한 게. 요즘은 사텔릿(Satellit, 위성방송) 잘 되가지고요. 외

국민들 보세요, 여기서 어디지, 우리 한국보다 훨씬 못산다고 하는 외국인들이. 무슨 터키니, 월남, 중국. 자기 나라 방송 못 보는 나라가 없어요. 생각해봤어요 그거? 한국방송 못 봐. 한국방송 나오는 게 뭐 있어요. 아리랑 나오죠. 아리랑은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거. 그리고 씨쥐엔(CGN, 기독교 방송)인가 뭔가 그 기독교 방송에서 해주는 거, 하나 나와요. 그리고 케이비에스 월드(KBS World)는 유료죠. 근데 아니, [웃음] 7만 교포들이 외국에 나가있다라고 어찌 구저찌구 하면서 이런 거 하나도 안 해주는. 그런 거 보고선 한국 정부에선 말뿐이라고 생각해요. 그 한국방송 하나, 유료예요 여기 다. 그래서 그런 건 좀 한국 정부에서 잘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을 말든가. [웃음] 말을 뭐 누가 여기서 자꾸 뭐 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나는 미운데. 언젠가 누가 무슨 모임이 있어서 거기 한 번 갔더니 어떤 얘기를 하드라? 인터넷에서 거기 무슨, MBC에서나 뭐 이렇게 연속극 같은 걸 다시 볼려면은 100원인가 500원씩을 내는데, 이런 것들 좀 무료로 해주시오. 허는 얘기가 하고. 참 그래서 나는 나와버렸어, 나와 버렸는데. 그것도 문젠데, 한국 정부에서도 정말 진심으로 그런 얘길 한다면은 좀 실제적으로, 그런 거 좀 해줬으면 쓰겠어요. 아니 저 외국인들 자기 나라 방송 못 보는 나라가 없어요. 아르메니아(Armenia)가 못 봅니까, 어디 뭐 터키가 못 봅니까? 전부 다. 자기 나라 말로 방송되는 것을 봐요. 아리랑(Arirang)은 영어로도 해주잖아요. 요거를 제가 작성해가지고 신문에다 한번 널려고 그랬어, 사실. [웃음] 근데 또 신문에 내면 이러쿵저러쿵 또 말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쓰지 않고 있는데..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에 대한 기대와 애정이 그만큼 더 커진다는 게 있습니까?

예,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예. 근데, 오래 살면은 한국하고 멀어지고 잊혀질 거 같은데 안 그래요, 살아보면은. 그게 그러니까 독일 뉴스는 잘 안 봐도, 한국 뉴스는 매일 보잖아. [웃음]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KBS 아침뉴스는, 아니 저 9시 뉴스는 매일 보죠. 한국 가서 얘기해보면은, 한국 소식을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식구들이 그래요. [웃음]

그리고 동생들도, 가족들을 위해서 한국에 돈을 그렇게 많이 송금 하셨지만, 사실 그것이 굉장히 헌신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까? 그렇죠. 많이는 못 보냈어요, 많이는 못 보냈는데 뭐 그냥. 버는 게 많아야 더 많이 보내지. [웃음] 근데 이제 또 모아진 게 있어야 또, 돈이 늘어나는 퍼센티지가 자꾸 많아지는 데, 모아 놓은 게 없는 상태에서는 한국에서 송금시

킬러면은 여기서 용자 얻어가지고 보내고, 용자 얻은 거 여기서 갚아나갔죠. 이런 식으로 뭐 했죠. 근데 많이는 못 보냈지만 그래도 뭐,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은 그렇게 해주긴 했는데. 이제는 뭐 동생들도 가서 버니까. 가정들 이루고 어지간치 살고 그래서. 어머님도 뭐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고, 어머니 살아가실 때도, 살아계실 때도 어차피 송금은 또 시켜드려야 했었고. 이제는 아이들도 다 학교도 마치고. 어머님한테 또 송금시킬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담 같은 건 이제 뭐 없는 거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있으십니까?** 아니요. [웃음] 제가 뭐. 할 얘기를 요만한 것도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연락하시고.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왜, 저 같은 사람을 [웃음] 뭐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가. [웃음]

**아니에요. [웃음]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면담 개요

<b>구술자</b>	김재승 (전 파독광부)
<b>면담주제</b>	파독광부의 생애사
<b>면담일시</b>	2012년 9월 29일 토요일 19시 50분 ~ 21시 27분 (107분)
<b>면담장소</b>	구술자(김재승) 자택, 에쉬본(Eschborn)
<b>면담자 1</b>	이유재 (튀빙겐대학 한국학과 교수)
<b>면담자 2</b>	이선영 (튀빙겐대학 한국학과 연구원)

김창선

# 김 창 선

- 1947 전라남도 고흥 금산 출생
- 1971 군 입대
- 1972~1973 월남 파병
- 1977 파독광부 2차 40진, 알렌 Bergwerk Westfalen EVB에서 근무  
광산 근무 1년 연장
- 1981 함부르크 한 회사에서 8개월 근무
- 1982 뒤셀도르프로 이주, 식당 서빙으로 채용
- 1988~1996 봄스 LG(금성사)에서 부인과 함께 근무
- 1996~2008 간이식당 12년간 부인과 함께 운영  
프랑크푸르트 한국학교 관리자
- 2012 재독중앙선거관리위원





## 어린 시절과 가정생활

---

저는 1947년에 전라남도 고흥 금산이라는 지금 거금도 라고 하는 그 섬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경찰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해방된 후로 저는 시골에서 경찰가족이니까 그런대로 괜찮게 살았었지요. 그러다가, 근데 그것도 뭐 6·25사변이 터지니까 인제 내가 만 3살 먹던 해에 6·25사변이 터져가지고 아버지는 전투하러 가시고, 어머니와 할머니와 저희 셋이서 피난을 많이 다녔었어요. 많이 다니다가, 휴전이 됐는데 아버지가 그 다음으로는 사직을, 사표를 내시고, 그냥 객지로 방탕생활을 하시는 것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고생이 시작된 거죠. 말하자면. 네 살 때부터. [웃음]

형제는 3남 1녀였어요. 시골에서 저희는 아버지가 안계시기 때문에 어머니 말만 명심하고 잘 들었었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배우시지도 못했는데도 그래도 우리 형제 교육을 “절대 나가서 지푸라기 하나라도 남의 것은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시골에서 가난하게는 살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런대로 살았었어요. 제가 커지면서 초등학교 들어와가지고 반 정도는 결석을 하다시피 했었지요. 그 당시에 학교 다닌다는 게 참 어려웠어요, 초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시골에서는 지계를 지고, 어머니 농사 일을 도와야 했었어요. 어머니가 그래도 자식들 어떻게 가르쳐보겠다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서 저도 들어갔었어요. 근데 실은 고등학교에서는 졸업도 못했었죠. 그리고 제가 학교 그만두고 서울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서울로 와서 시작을 했는데 제 친구들은 다 군대를 갔다 오는데 저는 영장이 나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하든 요즘 세상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데 이상하다 해서 고흥군청에 가서 알아보니까 저희 호적이 없더라구요. 형제들 호적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음에 알고 보니까 경찰가족, 경찰서 같은 데 옛날에 6·25사변 때 불을 질러가지고 불에 다 타버렸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다니셔가지고 방탕하시다보니까 저희 호적관계 이런 걸 전혀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시골에서 그래도 어떻게 올려가지고 고등학교 입학까지 하고 했었는데, 그 뒤로 군대 갈려고 보니까 거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이게 절대 서류가 없이는 안 되는 거지요. 친구들은 이미 제대해가지고 독일도 오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그래서 군청에서 알아보니까 호적 서류가 안 돼 있어서, 제가 법원에 신고를 했었지요. 신고를 하니깐, 그 당시에 일 년마다 부과금이 그러니까 과태료가 굉장히 막 컸었어요. 그게. 그렇게 안 된 형제들하고 다 하다보니까 이게 시골 돈으로 꽤 많은 돈이 되더라고. 순천지방법원에 신고를 해가지고 그걸 하다보니까. 거기서 좀 그 과태

료를 줄이기 위해서 형제간들 출생년도를 무조건 한 사람당 2년씩 줄여서 나가 신고를 했어요. 형제간들 신고를 하다보니깐 할머니 할아버지 혼인신고도 없고 아버지 어머니 혼인신고도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혼인신고에서부터서, 아버지 어머니 혼인신고에서부터서 우리들 출생신고까지 한 날짜로 다 등록이 되었어요. 한 날짜로. 그거 제가 다 올려가지고 그것을 지방법원에서 허락이 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호적에 올라가게 됐었지요.

## 군 생활

---

그래서 영장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당시 초등학교 이렇게만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군대를 안가고, 예비역으로 막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시골에서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했다라면 군대는 무조건 갔었어요. 그래갖고 저 생각에도 군대는 가려고 생각했었고. 그래 군대 입대를 했는데 동네에서 동생뻘들 뭐 두 번째 동생뻘들하고 다 같이 입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군대를 왜 꼭 가시려고 그랬어요?** 왜 갈라고 했었냐면 그 당시 친구들이 월남엘 갔다와가지고 시골 쪽에 상당히 그게 돈이 돼가지고 뭐 전답들을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부락에서 한 20명이 갔다 왔거든요. 140여 명 되는 부락에서. 그런데 뭐 전쟁터라고는 하지만은 갔다 오는 사람마다 다친 사람이 하나도 없이 와요. 내 친한 친구 한 명도 갔다 왔는데 전혀 다친 사람 없이 귀국했었고, 그런데 거기서 벌어들인 돈들을 가지고 뭐 했냐 하면 땅을 샀어요. 우리 부락에는 전혀 땅 살 게 없고, 이웃 부락 이런 데까지 우리 부락에서 다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동네는 옛날에 그렇게 가난해가지고 우리 동네 형들은 장가들을 못 갔었어요. 다들 가난하니깐 시집들을 안 올라 그래가지고 으잉, 다른 쪽에서. 그런데 우리 때부터는 이 부락이 월남 갔다온 친구들 덕분에 부자가 돼가지고. 월남이 다른 시골 쪽에서 서로 시집들을 올라고 그러는 계기가 됐었지요. 그래서 “나도 군대를 가야 된다. 가면 또 월남을 가야 된다.” 또 그런 각오를 하고 군대를 갔었는데 군대 가서 이제 논산 훈련소 6주를 마치고.



**그때가 언제였어요?** 그때가 1971년도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동네 이웃친구들하고 친한 친구들이 월남에서 갔다 오고 또 독일로 광부로도 온 사람이 있었어요. 벌써 나 군대 가기 전에 말입니다. 그리고 인자 그런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가 군대를 갔었는데 군대 가서도 아무튼 나이가 많아서 갔었지마는 참 논산 훈련소 6주 훈련 받고 딱 사단보충대를 가니깐 또 고향친구 형님이 거기 중대장을 하더라고요. 예, 신광민 씨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 자식! 너 참 이 자식, 너는 복 있어! 임마!” 하면서 “아, 참 그런 거 같습니다. 나 군대 와서 형님 만날 줄 진짜 몰랐는데.” “야, 너 거기서 가만있어. 내가 저 조금 편한 데로 보내줄께.” 여기저기 전화하더니 그때 25사단 72연대 본부중대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저는 바로 가가지고 신체적으로 키도 좀 크고 하니깐 바로 입영소 근무를 바로 들어갔어요. 이등병인데, 원래 이등병이 우리 같이 간 인원들을 본부중대 내무반에서 머물고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팔려가기 위해서. 나는 기간병이 돼가지고 입영소에 일등병을 달고 그러니깐 계급 하나가 더 올라간 거예요. 일등병을 달고 입영소 근무를 서는 거예요. 그러니깐 같이 갔던 친구들이 말을 잘 걸지를 못해. [웃음] 자기네들은 이등병이고 나는 일등병이 돼버리니깐. 그래서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참 너무나 편한 생활을 했었지요. 그래서 중대장한테 잘 보이고 했었는데. 월남을 딱 신청을 하니깐, 또 티오(T.O., 정원)가, 저희한테는 T.O.가 없더라고요. 저 소총 소무대에서 전투병과만 있지, 이런데 본부중대는 중대 쪽에는 없어요. 그래서 연대 선임하사한테 할튼 웬만하면 찾아가서는 “저는 월남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랬어요. “자식아! 너는 편하면 편한 줄 알아. 여기서 근무하면 3년 끝나면 되지 말아야, 뭐 월남까지 갈라고 하나? 지금 상태도 안 좋은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월남에 가야 됩니다. 우리 동네친구들도 갔다 왔는데 20명이 갔다 와서도 하나도 안 죽고 살아왔단 말이야. 그러니깐 저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대장한테 겨우 사정을 해서 받아가지고 제가 월남을 갈려고 신체검사를 받으러 사단 보충대를 갔었어요. 가서 전번에 오다 만난 그 신광민이 보충대 중대장님한테 가니깐, “어째 왔냐? 그래서 형님 나 월남 갈려고 신검 받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 자식아, 너 좋으면 좋은 줄 알고 너 거기 편하게 3년 근무하고 제대해.” “아니, 형님 나 이까지 왔는데 내가 이거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동네서 누구 누구 다 갔다 왔는데 뭐 다 지금 안 죽고 잘만 살아왔는데 뭐가 무섭냐?”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신검을 받고 제가 월남을 가게 됐었지요.

그랬는데 저는 월남을 가면서도 실은 소총 소대에 이렇게 전투병과로 떨어질 거라곤 생각 안 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한국군대에서 근무를 할 때 편하게 했었고, 그런 계통으로

또 의장대나 이런 데로 떨어질 꼴로 난 각오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배를 타고 부산항에서 일주일 동안에 거의 다 이제 각 부대별로 배치가 나오거든요. 배 안에서. 근데 한번은 갑판위에 가가지고 지금 월남 같이 간 동기가 죽었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갑판에서 날치 날아다니는 물고기 구경하면서 있다가 내려가 보니까 벌써 그 사이에, 배에서 부대 배치가 다 끝났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저는 제 소총 소대로 전투병과로 떨어지는 거예요. 뭐 죽으면 죽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인제 제가 마음을 먹고 갔는데 그래도 제일 전방 쪽이 아니고 제일 후방 부대로 떨어졌더라고요. 백마30연대 제일 후방 쪽에.

**그게 언제였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72년도 초지요. 72년 3월 달에.

**그럼 군대 가신 지 1년 만에 가신 거네요?** 그렇지요. 인제 1년도 채 안됐었죠. 만 1년도 안됐었는데. 그래서 가서 내려보니, 나하고 같이 갔던 그 친구는 백마 28연대로 떨어졌다고 하니 그 친구가 평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오상병이! 왜 그래?” 그랬더니 “야 너 말 안들어봤냐? 28연대는 병력 보내나 마나, 응? 이 30연대는 월남가나마나.” 그런 소문이 다 나서 있어요. 그러니까 28연대는 갔다하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월남 병력 보내나 마나, 병력이 그렇게 많이 죽어진다 이거죠. 아 그런 말을 하니까 “야, 그래도 응? 오상병 사람이 다 죽겠어? 그런 염려하지마.” 하면서 서로 그런 위로를 하고 왔는데. 퀴논항(베트남 항구 이름)에 딱 떨어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28연대를 간 사람들은 헬기로 싣고 가더라고요. 병력을. 헬리콥터로. 차량 수송은 그쪽으로 위험하니까. 그래 막 울면서 헤어지면서. “우리 김일병! 한국에 가서 다시 만나 살아가서 만나자.” 그러면서 헤어졌는데 그리고 저는 그대로 군대 군용차가 와서 싣고 가고, 그래서 그 월남 생활을 시작했어요. 부대배치 되서 가니까, 선임병들이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땀에 좋아하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전투를 나가면은 제일 앞에 서는 참병 얘기 들어보셨죠? 현대 그 사람이 체력이 좋은 사람을 항상 세우거든요. 제일 앞에. 제가 체력이 좋으니까 다들 좋아 했던 거예요. 그래 가자마자 한 달도 안 되가지고 전투를 나가라 이거예요. 나가라 하니 어쩔 수 없지요. 준비를 해가지고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참병을 서라 이거예요. 참병을 서면은 저희들이 전투를 나갈 때 미리 준비를 합니다. 보통 일주일 먹을 식량, C-레이션이라는 것을 나와가지고 배낭에 다다 다 짊어줘요. 카톤(Karton, 상자, 포장지) 같은 것 다 버리고 다 짊어지고 수류탄, 뭐 부세발, 연막탄, 또 물 수통을 해가지고 여기서 뭐 6, 7개씩 차고 수류탄 이런 거 차다보면 어깨

가 축 쳐집니다. 허리가. 그리고 배낭을 짊어지고. 그래가지고 군장검열이라고 나가기 하루 전에 중대장으로부터 군장 검열을 받아요. 제대로 총 같은 것 수입이 됐는지. 실탄을 제대로 가져가는지. 아니면 수류탄 같은 것도 제대로 샀는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싸우다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죽는 목숨이나 다름없으니까. 그래서 총기 수입같이 잘 해가지고는 군장 검열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일 갈려고 하면은 그날 저녁에 손톱, 머리카락 잘라서 유물함에 다 넣습니다. 그거 아주 기분 나빠요 그제. [웃음] 차라리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그제 죽으면은 인제 부모들한테 갈꺼예요. 그 생각하면 아주 기분 나쁩니다, 그제. 자기 본적지 다 적고 해가지고, 그래갖고 손톱 깎고 머리털 깎고 해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어서 그 유물함, 거기다가 그날 놔두고는 그 다음날 출발해서 가는 거죠. 가서 일주일간 전투를 하다가 인자 숲속을 기는데 성과가 없으면은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번 소대에 1개 소대가 나와가지고 적을 몇명 사살하고 무기를 얼마 노획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성과가 없으면은 연기를 시켜버립니다. 인제, 한 1주일을 뒤 2주일을 더 해가지고 그때까지 인제 성과 있을 때 까지 그 숲속에서 기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이물 다 떨어지지 식량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젊을 때 하루 종일 기다보면 물 이거 한통, 그 뭐야, 1리터짜리 한통 이거 그냥 나무에 기대고 마시면은 한꺼번에 다 마셔요. 그래 땀 그대로 빠니깐. 그래서 물 떨어지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근데 물을 골짜기 마다 다니면서 한국에는 산이 명산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8부 능선이나 9부 능선 같은 데서 물이 나옵니다. 물이. 한국은 그래요. 근데 월남 같은 데는 그 높은 산이지만은 7부, 5부 능선 이런 데서 물이 올라오는 것이 없어요. 저 계곡에 가야만 물이 있어요. 그러니깐 계곡 지날 때면 서로 물을 넣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지요. 그제 일렬종대로 서서 가는데 몇 미터만 떨어지면은 앞에 사람 못 찾으니깐, 따라가야 되니깐. 그러면은 거기서 뭐 원래 배우기는 그렇게 안 배웠지요. 한사람 물 채우고 나오면은 다른 사람 들어가 차례대로 하라고 배웠는데, 사람들이 그러다보면은 많이 못 넣으니깐 한꺼번에 시냇골 들어 가가지고는 막 물 뚜껑을 열고 물 담는 거예요. 그런데서도 중대장이니 소대장이 소리소리 지르고 “이 새끼들아! 다 죽으려고 환장했느냐?” 막 욕이 나오고 난리가 나는 거지요. 물론 그 병사들이 목숨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그래가지고 뭐 물을 수통에 다 채워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또 식량이 없으니깐. 인제 헬리콥터로 한 때 연락을 해서 미군들이 원래 식량을 실어다 주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식량을 싣고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막탄을 띄우면은 그 연막탄을 보고 떨어뜨려야 되는데 떨어뜨리다가 몇 메타(Meter) 십메타 전방에 이런 데서 베프공들이 숨어 있다



가 헬기가 오면은 헬기에다가 사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군들은 무서워가지고 신고 그냥 가버려요. 그냥 또 안 떨어뜨리고. 그러면 또 우리들은 욱을 욱을 해대고. “저 코큰 노무 새끼들 [웃음]!” 욱을 들이 하지요. 근데 그냥 가버리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굶어, 굶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바나나가 맛있으니깐 바나나로 배 채우고 사는 거예요. 바나나로 배 채우고 그래가지고 또 보급될 때까지 배 채우고 살고. 그 아니면은 베트남 마을을 습격을 하면은. 가면은 애네들이 벌써 우리가 오는 줄 알고는 닭이나 돼지 같은 것을 그냥 우리에서 풀어놓가지고 저들 맘대로 다니게 만들어요. 그래야만 사살 많이 못할 거 아니예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사살 못하나요? 총으로 쏘가지고 돼지는 무거우니깐 못 가져 오고 닭 같은 것은 막 몇 마리씩 튀 먹고 살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처량하게 가면서 앞사람 배낭을 보면 먹고 살겠다고 닭다리를 묶어가지고 배낭에다가 달고 가는 거예요. 그럼 닭이 죽으니깐 모가지가, 목이 처져가지고는 머리가 덜렁덜렁 “야, 참 처량하다. 사람 먹고 사는 게 참 더럽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쉬는 장소에서 그것도 인제 크립화 안에 화약이 들어있거든요. 그 크립화 그 화약은 연기가 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인제 묶어왔던 양은 물통 같은 거에다 끓여가지고 먹고, 이런 식으로 생활했지요. 그러다보니까 제일 쉽게는 바나나 먹는 게 쥘 쉽거든요. 근데 바나나 먹으면은 쉬운 거는 설거지를 하지 않아 좋은데 이걸 며칠간 먹으면은 바나나가 변비를 일으키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거예요. 근데 변비는 변비고, 우선 먹어야 되니깐. 그래서 참 새로운 삶을 거기서 느낀 거지요. 전투하면은 옆에 친구들이 그래도 다행히 베트남들 총에 맞고 쓰러져 죽은 사람은 저는 못 봤거든요. 부상당한 사람은 있었어도. 예를 들어. 그것만 해도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죽은 전우를 안 봤다는 것도 참말로 전쟁터에서 그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일 년을 생활하는데 전 나이도 먹고 그랬으니깐 솔선수범했었지요. 저는 그러다보니까 모범 사병으로 신청이 되가지고 사단장 표창도 받고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인제 귀국을 했는데.

통 만 1년 만에 귀국했습니다. 73년도 3월 달에. 보통 1년입니다. 그래가지고 귀국을 하니깐 우리가 수원 비행장으로 귀국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타고 다시 귀국을 하는데 우리는 철수 병력이기 때문에 비행기로 철수를 했었어요. 나트랑(Nha trang) 비행기 안에서 4시간 타고 오니깐. 수원비행장에 떨어지더라구요. 수원비행장에 떨어져가지고 수원비행장에 환영을 그렇게 잘해주는데 나는 어디 먼데로 가는 줄 알았더니 인천 부평역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됐더라고요. 부평역 앞에. 그래 거기서 미군들이 철수하고 난 부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부평역을 카퍼레이드 해가지고는 환영을 열

렬하게 잘 해주더라구요.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생활하는데 한 다른 사람들은 오자마자 그냥 일요일이라고 그 다음날 즉시 그냥 휴가를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행사 연습을 한다고 개선시무식 행사 연습을 한다고 키가 170이상 되는 사람들은 휴가를 안보내주는 거예요. 행사 연습한다고. 그래서 시골 고향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지요. 그 당시 간 사람은 거기서 다 죽었다고 하는데, 이 귀국을 했다는데 왜 안 오느냐? 해가지고 동네사람들이 난리가 났던 모양이더라구. 그래서 일주일동안 행사 연습을 하고 1973년도 3월 20일 날, 서울운동장에 가서 우리가 행사를 했었어요. 개선 신고식. 그때 25사령관이 박정희 대통령 할 때 개선 신고식 하고 거기서 시가행진을 해서 저희 마포공고까지 시가행진을 했었지요. 그래서 그날 행사를 끝내고 시가행진을 하려고 하면서 비가 내렸는데 서울시에서 그날 행사에 온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두 개씩을 주더라구요. 근데 그 당시에 와서 도시락을 먹으니깐 1년 만에 와서 먹으니깐 얼마나 맛있는지 진짜 꿀맛같더라구요. [웃음] 그래서 그걸 먹고 시가행진을 해가지고 마포공고까지 갔었지요. 마포공고에 가서 군 트럭으로 다시 부대로, 부평으로 갔었는데 가니까 그 다음날 바로 일요일휴가를 보내주더라구요. 그래서 일요일을 보관해서 그 다음날 집으로 가는데 그 당시 아버지가 서울 흑석동에서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먼저 들릴라고 갔었는데 가는데 영등포에서 흑석동 글로해서 가는 버스가 있었거든요. 시내버스가. 그래서 버스를 타고 서서 가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아 자꾸 나보고 앉으라고 하더라구요 “아, 아주머니 앉으세요. 저는 뭐야 젊은 사람인데 내가 왜 앉느냐?” 그래서 미안해서 안 앉았는데 “아유, 앉으라고.” “아, 아닙니다. 앉으세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내가 군복을 입고 월남복을 입고 오니깐 월남 갔다 온 줄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는 거예요.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월남 가서 죽었는데 그 오늘 어제 그러니깐 서울운동장에 갔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휴, 지금도 그 아주머니 얘기를 들으면은 그냥 제가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아들이 살아온 줄 알고, 가서 자기 아들도 거기 있을 줄 알고 거기 그 운동장에 갔었다 이거예요. 그래 가가지고는 가서는 시가행진을 하는데 아들이 시가행진을 하는 줄 알고 그냥 미친 사람 같이 막 인도로 뛰어가면서 마포공고까지 같이 가면서 이름을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갔더라 이거지요. 지금 얼마나 하휴, 그런데 그래서 허탕 치고 그냥 집으로 왔었는데 오늘 아침에 국군묘지를 갔더라요. 근데 가면은 인제 살아서 온 사람들이 전우들 위해서 국군묘지를 올 줄 알았다 이거예요. 참배라도 할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깐 아무도 안 왔더라 이거지요. 응? 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생각을 못했지만은 그러고 일개의 병이 생각했더라도 그게 이

루어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물론 상관들이 가라면 가지요. “근데 아주머니 아시다시피 저희는 일개의 병으로서 상관들이 시켰으면은 틀림없이 갈 일이지만은 그런 걸 상관들이 시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글썄 그러네요. 우리가 너무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휴, 김 병장이야 다 위에서 시켜서 하는 사람인데 그걸 할 수 있느냐? 그건 상관들이 잘못 아니냐?” 하면서 “글썄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참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김 병장이 죄송하기는, 그러나 저러나 고생 많이 했다.”고 하면서 나보고 그 전에 어제 행사 했냐고 그래서 저 행사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고생 많았다고 살아와서 참 좋겠다고 하면서 저희 아들은 가서 죽었다고 하면서 참 눈물을 그렇게 흘리시더라구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래서 저는 군대 생활을 그런 식으로 했고, 거기서 인제 부대로 다시 복귀가 되가지고 휴가를 마치고 갔는데 그 당시에 백마사단 일산에 있었는데 기기로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때 일산. 거기가 서울하고 휴전선 하고 거리는 가까운데 거기 상당히 취약하다 해가지고 전투 경험이 있는 백마사단 그때 우리 9사단이 들어가게 됐었어요. 거기서 일개 백마사단이 창설을 하다보니깐 거기가 엄청난 자재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깐 거기가 생활을 텐트치고 천막생활하고 있는데 저는 또 헌병대 가서 근무를 하라고 해서 제가 헌병대가서 일을 했었죠. 하다가 거기서 제대를 했었습니다. 일산에서. 그 제대를 하고 나와서 인제.

**그럼 월남에 파병돼가지고 번 돈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은 그 당시에 병장들을 57불 받았거든요. 57불. 그런데 그것도 강제로 한 80%는 서울 외환은행에 강제로 송금하고, 저축을 하는 거지요. 그걸 다시 귀국하면은 그걸 완전히 찾게 되고. 그리고 본인들한테 한 20%를 줍니다. 우리 용돈 하라고, 거기서. 그래도 아무도 우리들은 별 쓸 것도 없지요. 아무래도 부대 내에서 생활하다보니깐. 인제 나가면 또 무서우니깐 별로 못 나가게 하고. 그래서 별 쓸 것도 없는데

참 귀국할 때 또 어떤 식이었나 하면. 이 얘기 들어보셨을꺼예요. 한 사람 당, 박스라는 걸 하나씩 줬거든요. 귀국 선물 사가게끔. 그러면 우리도 한 사람당 하나씩 처음에는 하나씩 줬는데 철수 명령이 내리니깐, 거기서 일개 군대 9명당 한 박스만 주고는 8개를 회수를 시키는 거예요. 위에서. 무슨 회수냐고 물어보니깐. 한국에 그 당시에 신주같은 것이 전 수입을 해다 쓰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돈이라는 거예요. 거기 박스에다가 신주를 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깐 군인들한테는 8개를 회수해가지고 그 신주를 한국으로 담아서 보내기 위해서 개인적

으로 다 빼앗은 거예요. 귀국준비들 이것저것 뭐 해놨다가 그러니깐 흑백 테레비니 뭐 이런 것을 준비들을 해 놓은 사람들은 못가지고 오게 되니깐 막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헐값에. 막 팔아버리고. 그러니 1개 중대당 박스하나 주니깐 겨우 C-레이션(C-Ration) 박스, C-레이션 두개씩 넣으면은 한 박스 하나가 다 차버려요. 그러니깐 내 개인적으로 내가 뭐 테레비니 비디오니 이런 거 사가지고 전혀 갈 수가 없고, 그 미안했던지 일인당 C-레이션 두 박스씩을 주더라구요. 그 시레이션 두 박스씩 18박스 넣고 나니깐 더 이상 다른 거 못 넣더라구요. 그래서 왔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군용으로 쓰기 위해서 신주를 담아왔었어요. 그런데 그 신주를 또 담아온 것은 괜찮은데 그것을 우리들 보고 포탄 뒤꽂무니 같은 데에 신주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하루에 한 사람당 할튼 몇 박스씩을 채워가지고 꼭 채우라고 해요. 그러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막 숲속을 헤매 다니다가 뭐 베프공 총소리 나면 그냥 쪽 빼 들어오고 [웃음] 이런 식이 됐었지요. 그래서 인제 그게 다 채워져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었어요. 들어왔는데, 그러다보니깐 우리 군인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손해를 본 거지요. 많은 손해를 본 거지요.

####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신주라는 것하고 C-레이션이라는 걸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C-레이션은 전투 나가서 먹는 식량이고, 신주는 이 포를 월남에서 많이 쏘다보니깐 그것은 포를 쏘는 것은 포탄 말입니다. 그 쏘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 주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얼마든지 소모시킬 수가 있어요. 그 소모품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전투 할적에, 100발을 쏘고도 200발 쏘다면은 그거 뭐 무마가 되니깐. 그렇게 많은 저기 베프공들한테 겁을 주기 위해서 밤이 되어도, 밤이면 접근 안 해도 부대 부근에다 포를 막 때립니다. 우리 아군 측에서, 혹시 베프공들이 쳐들어올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깐 포탄마다 신주가 들려있기 때문에 신주를 거기서 포탄 껍데기, 다 신주가 아니라 쉘 꺾무니에만 신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꺾무니에서 빼가지고 그 신주를 한국으로 들어오면은 한국에서 그 군용품으로 그걸 쓰기 위해서. 한국 와서 또 그걸 녹여가지고 다시 포탄 만드는 데 또 들어가고. 그래서 그게 그 뿐만 아니라 그 상자에다가 우리 철수 명령을 내리고 나니깐 이 위에 부대에서 전혀 새로 들어 온 이 짚차나 예를 들어서 무기를 쓰지 못하게 하고 옛날에 있던 무기만 계속 쓰게 하고 미국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걸 쟁여놨다가 이제 한국으로 가지고 오니까 그러니깐 국가적으로 그게 큰 이익이었죠. 한마디로, 예, 무진장 큰 이익이었어요, 그게. 그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 있을 때 A-레이션(A-Ration)니, C-에프피(C-FP)이니 나오는

데, A-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특별히 뭐가 왔나하면은 김치 통조림이 왔거든요. 김치 통조림 오다 보면은 한 달 이상이 걸리는데도 와보면 그게 쉬지요. 그게.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고. 근데 그 김치 통조림 같은 것은 다 우리로 말하자면, 한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미군에다가 납품을 해가지고 그 들어오죠. 그 정글복(군복) 같은 것도 우리가 귀국을 한다고 하니깐 할튼, 뭐야, 무한정으로 우리가 타서 가지고 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웃 어디 버렸던 것도 주서와가지고 한 벌 가요. 중대본부에서 한 벌 저기 새 것으로 한 벌 줘요. 그걸 모아가지고 한 20벌씩 가져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 입을 줄 알았는데 한국에 오니깐 또 다 빼앗아버리더라구요. 한 사람당 3벌씩만 남겨놓고 다 반납하라고. 그래서 다 반납을 하다보니깐. 그것이 다 다른 부대로 나가가지고. 다 월남 갔다 온 사람 같아. 군인들이 다 입고 다니니까. [웃음] 그런 경우가 있었지요.

## 군 제대 후 파독 과정

그렇게 와서 한국에 배치, 일산에 배치해가지고 제대해가지고 저는 이제 독일 광부로 와서 있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 너 빨리 제대하면 서둘러 가지고 독일로 와라.” 이런 편지를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부대에서도 나가 제대했다 하면은 독일로 갈꺼란 걸 다 인정했었지요. 인정하고 부대에서 지금 베를린에서 와서 사업하는 유재상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어머니가 간호원으로 초기에 오셨었는데 나 제대 할 무렵에 하사관으로 바로 우리 부대로 왔었어요. 그 유재상이가. 또 흑석동 중앙대학교를 다녔더라고요. 아버지가 흑석동에 사니깐 그 사람하고 상당히 가까웠고 나도 인자, 그 사람을 잘 챙겼지요. 그러면서 “나도 제대하면 어머니 있는 데로 갈 거예요. 어머니가 초청해주면 나도 독일로 갈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자주 연락합시다.” 이랬는데 인제 그러고는 제가 먼저 제대를 했었지요. 그래서 독일로 올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2, 3년간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 중부시장에서 해초, 그러니깐 김, 미역 같은 장사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시골에서 공급받아 중부 시장에서 장사 좀 하다가 독일로 왔었지요.

저가 77년 3월 달에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해에 10월 달로 마지막으로 광부 오는 것이 끊겼었지요. 그런데 광부로 오는데 그 당시에 경쟁이 너무 치열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빼 없는 사람들이 외국 간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니깐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서울에 와가지

고 장사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많이 만났었지요. 국방부 총무과에 근무하는 사람도, 그 당시에는 또 해외개발공사에 근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좀 저거한테 근무한 사람만 알았어도 그 사람들 통해가지고 연출, 연출로 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그 백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했었는데. 뭘 그렇게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돈만 홀랑 날리고 했었지요.

그러다가 묘하게 내가 그 당시 저기 봉천동에 가서 살았었는데 어떻게 연결하다보니깐, 봉천동 울 집 부근에다 개발공사에서 송출과에 근무하는 사람이 하나 살더라구요. 어떻게 그렇게 하다보니깐. 아, 그라기 전에 참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경력증을, “김형 경력증을 한번 만들어봐, 그럼 가기 쉬울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가 강원도 탄광에 가서 경력증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거기서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가보니깐 우리 고향 형님 되는 한 분이 탄광을 맡아가지고 말하자면, 탄광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염려하지 마소. 나가 경력증, 경력증 만들어 줘세.” 하면서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는 또 토요일 밤에 서울 와가지고 이런 사람들 만나고 또 다시 토요일 일요일 날 저녁에 늦게 가서 월요일까지 가서 근무를 하고 그런 식으로 6개월 하고.

**강원도 어디에 가셨어요?** 강원 사북이라는 데 갔었어요. 영월, 사북, 정선. 정선군 사북읍. 거기로 갔었는데.

**그럼 독일에 나오기 위해서 광산에 가셨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경력증 만들기 위해서. 근데 실은 다음에 알고 보니깐 경력증도 필요 없는데. [웃음] 그래서 일단 그래도 만들었었지요. 거기 가서. 그 백씨라는 분이 만들어주더라구요. 3년 근무한 거를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여기저기 출하를 해보니깐. 우리 집 부근에 그런 분이 사서가지고. 나 거기서 “과장님, 나가 지금 독일 갈라고 하는데, 친구들도 이미 가서 있고, 나가 몇 년째 일하고 있는데 몇 년째 못 가고 있습니다. 나는 시골에서 일도 해봤었고, 나는 월남가서 전투도 해봤었고 난 못 할 게 없습니다. 나 가게 좀 도와주십시오.” “아, 그럼 김씨 그러면은 이번 시험 볼 때 절대 옷 같은 거 뭐 넥타이 메고 옷 빼입지 말고 털털하게 여기 와서 시험 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가서는, 필기시험이야 알파벳 대강 알면 되고. 이 실기 시험 하는데. 일하러 갈 사



람들이기 때문에 신체를 특히 본단 말입니다. 40킬로짜리 모래가마니가 있거든요. 그걸 세 번 이상씩 들어야 되요. 나야 뭐, 난 막 그만할 때까지 들었거든요. [웃음] 한 10번 정도는 든 것 같아요. 아 됐다고, 그만하라고. 그래서 1976년도 12월 24일 날, 완전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되가지고는 얼마나 참, 너무나 즐겁게 보내고. 이제는 독일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개발공사에서 4주간 독일어 교육을 받고 그래 인제, 독일행 비행기를 탔었죠.

**독일 개발공사에서 교육은 어떤 교육이었습니까?** 보통 독일어 교육, 독일어 기초교육과 4주간인데 뭐 특이할거 있겠어요? 뭐 가서 독일 예법이라던가 독일에 가서 어떤 행동 같은 거 뭐 어떤 우리 한국하고는 너무 다른 지역이니까 가서 잘 그런데 적응하고, 또 우리 법이 우리가 보낸 법이 3년이나 3년 안에 충실하면은 다시 연장도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고 3월 24일 날 전세기를 보내 왔더라구요. 그 당시 대한항공이 없었으니깐. 그래서 그 전세기를 타고, 처음 월남에서 총 쏠 때 나는 비행기를 타봤지만, 두 번째 비행기를 타고 인제.

**근데 월남 파병 가서서 돈을 많이 모으셨잖아요? 독일에 또 간, 동기는 뭡니까? 돈을 벌려고 간 겁니까?** 그렇죠. 근데 실은 월남에서는 큰돈이 아니었지요. 생각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한국에 달라 환율이 세긴 셋지만은 그 당시 한 달에 한 50불 정도 내가 모은 거가 한 50불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일년 동안 모은 것이 500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500불이나 600불밖에. 그래서 그 당시에 부평에 가서 있으니깐 군인들 개인들로 가가지고는, 외환은행에 가서 찾기가 위험하니깐, 현찰로 다 받잖아요, 위험하니깐. 직접 외환은행에서 군용트럭에다 돈다발을 싣고 부대로 온 거예요. 부대로 와가지고. 그 정도 돈을 차에다 싣고 [웃음] 뭐 이렇게 때려 싣고 와가지고 몇 천 명을 주다보니까 그것도 그렇잖아요. 돈도 크잖아요. 나는 그 당시 다해보야 한 100만 원도 안 됐었어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서울 신림동이나 봉천동 같은 데서 웬만한 2층 집 정도는 살 정도였거든요. 나도 처형이 “김 서방, 여기서 웬만한 그것을 사놓지 그래? 집하나.” “아, 내가 한국에 살 것도 아닌데 뭐.” 그래 독일에 확실히 갈 줄도 모르면서도. 나는 독일에 가서 살지 난 여기서 안 산다 하면서. 아 그러고 있으니깐 독일 가려고 하는 친구가 나 깨 북턴 친구가 그 친구가 브레멘(Bremen)에 아니 함부르크(Hamburg)에서 살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인제, 독일에 갈려고 하면서 내일모레 떠난다

고 하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아주 찢찢매터라구요. 용돈이 없어가지고. “야, 이거 써라.” 하면서 나가 20만 원을 그냥 줬었지요. 친구 주니깐, “그래 잘 쓰고 나가 독일 들어가면 나가 보내 줄께.” 그러가 인제 떠나보냈는데 그 다음에 나가 군대 있으니깐 돈을 부쳐 왔더라구요. 그 친구는 지금 춘천에, 한국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 파독광부와 베트남 파병

---

그래서 그 당시 그것들을 받고 월남에서 받고 생활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월남 참전자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장장 32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월남 갔다 왔거든요. 32만 명이 갔다 왔는데. 지금 한 3분지 1은 세상을 떴어요. 이미. 세상을 떴고. 그 당시에 거기 월남 가서 전투하다 죽은 사람들이 한 5,500명 정도가 죽었고. 그래서 내가 작년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한국에 가가지고 아차, 이번에는 옛날에 내가 홈페이지에다 올리니깐 옛날에 나하고 월남같이 갔던 친구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죽었다고 나왔더라고요. 간지 얼마 안 되서 죽었다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내가 그때 작년에 가가지고는 국군묘지에 갔었어요. 가가지고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옛날에 월남에 가서 죽었다는데 어디가 묻혀 있냐? 찾아볼 수 있냐?” 그랬더니 찾아볼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 가르켜줘서 묘소 가보니깐, 오찬수 하사 1973년도 월남에서 전사해가지고 비가, 비가 세워져 있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헤어졌었는데 살아서 가서 한국에서 만나자고 하더니 죽어서 자기는 거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그래서 나와가지고 다시 하얀 장미꽃 사가지고 꼽아놓고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월남 갔다 온 광부 출신들이 현재 독일에 한 200명이 살고 있습니다. 200명 살고 있어가지고 1년에 몇 번씩 모임을 갖고 있는데, 옛날에 광부 출신, 처음으로 왔던 분들이 다 1진들이 오셨다가 그분들은 다 캐나다나 미국으로 이민들을 갔잖아요. 가서 지금 잘된 분들 많아요. 그리고 한국에 지금 여기서 또한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 가서가지고 크게 된 분들이 꽤 많더라고. 재작년에 내가 동포한국방문단 해가지고 한번 갔더니, 저기 강남구 무슨 롯데 호텔 지하에선가 환영 만찬을 하는데 뭐 MBC 거기 TV 피디 같은 분도 되시고, 그래서 너무나 반갑다고 해가지고 우리 옛날 광부 생활을 다 영상으로 제작해 해냈다고 얼마나 잘해냈는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 가시는 분들이 좀 여유 있게 사시니깐 옛날 우리들 고생했던 것을 백악관 같은데 가가지고 문서들 들쳐본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 박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 닉슨인가 그 대통령하고 계약했던 브라운 각서라고 해가지고 그것들을 들쳐보니까 어디가 지금 나와 있을 건데 할튼, 병장이 미군들하고 전투병이니깐 똑같이 받아가지고 미국 측에서 병장이 받은 것이 한 달이면 1,080불을 받았었어요. 1,080불. 그러면 우리들한테 57불을 줬으니깐, 그 나머지는 1,030불이라는 그것은 국가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마는 한국에서 경부고속도로가 그 월남 돈으로 다 했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병장이 그러니깐 장교들은 더 받았을꺼고 중장, 소장해가지고 다 나왔는데 할튼 엄청난 돈이었어요. 그러니깐 그것을 지금 가서 그것을 들쳐본 사람들이 그것을 캐내가지고 우리 한국이 이정도 사니깐 그걸 이제 반납해달라 이런 요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상당히 희망성이 없는 일이긴 일이지만은 그렇게 일단 병장들이 1,080불 받았으니깐, 30일 잡고 하루에 얼마 일당은 나오더라구요, 그게. 전투수당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받았었는데, 그것을 지금은 한편에서는 그것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고엽제라고 말 들어보셨지요? 고엽제로 해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너무 고생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저걸 털어주기 위해서 지금 혜택을 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2002년부터서 나고혈압이 있었는데 가서 신체검사를 하니깐 그 당시에 전투했던 그 후유증이라고 해가지고 경도라는 거예요. 고도, 중도, 경도라고 시일 안에 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경도라고 해가지고 매달 한 30만 원 이상씩 저한테 나오고 있고. 지금 그리고 참전자 전원에게는 만 65세 이상 된 사람들에 한해가지고 월 12만 원씩 나와요. 그래서 그게 정부에서 조금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 독일 생활과 결혼 그리고 가족 초청

저는 독일로 올 때부터 다른 사람들은 광산 일에 대해서 힘들다고 그런 식으로 하지만은 나는 어디까지나, 물론 시골에서 일도 해봤지만은 특별한 것은 나는 군대에서 전투할 때 말입니다. 그 정도의 생각이라면 무엇을 못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뭐냐 돈을 안 받고라도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가 기꺼이 도와줍니다. 도와주고, 돈을

주면 좀 받기도 하고, 나 지금 여기 왔던 동료들이 지금 호텔한 사람도 있고, 민박한 사람도 있고 여럿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바쁘다면서 저를 불러들이고 하거든요. 저기 오고개에서 호텔 두개 하는 사람도 가서 도와줄 때는 도와주고, 그래서 제일 문제는 건강만 허락한다면 앞으로도 나는 이제 연금 완전히 들어가면은 좀 공부도 좀 더 하고 싶고. 나 좀 옆에서 부끄럽게 저거할라는지 모르겠지마는 난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도 좀 더하고 싶고, 문학 쪽으로 공부를 해서 나가 지금 살아왔던 것 나가 살아왔던 이 현실을 책으로 쓴다면 젊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절대 저건 안 될 거 같아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글구 나는 특이하게 여태까지 고생은 그렇게 했지만은 젊어서 고생했으니깐 저것도 있고 그래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두 아들들 하나는 대학 나오고 하나는 대학 못 나오고 사업하고 있지만은 이런 생활해서 손자까지도 봤었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우리 모임에 자꾸 저가 시간이 있으니깐 능력도 없는데 이것도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해서 어제도 저가 중앙 선거관리위원이 피택 돼가지고 선거에 좀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총영사관 관저에서 어제 리셉션이 있었거든요. 그래 거기도 갔다 왔고. 또 11월 24일 날은 남부 독일 그러니깐 광부 출신들 모임이 또 있습니다. 저가 거기 또 남부 독일 지역 사무총장이 돼가지고 그 행사를 위해서 조금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그런 행사는 해마다 해왔지만은 광부 출신들은 나 또래가 제일 젊은 사람들이예요. 보면 70넘은 사람들도 많고 80된 사람들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지금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럼 우리 선진들을 위해서 일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절대 개인들한테 부담 안주고 말입니다. 회장하고 나하고 둘이 지금 뭐 다른데서 돈을 어떻게 좀 경비를 충당해가지고. 이번에도 이미 1,500유로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 남부지역 글뤽아우프 회원들이 모임 날짜를 11월 24일로 정했고 행사 준비도 완전히 해냈거든요. 그리고 또 여태까지 광부 30년사도 있고, 45년사도 있는데 이런 거다 우리 광부출신이 했었거든요. 여태까지 두 번. 그런데 이번에 우리 이 박사님이 1.5세 아니면 2세들이 이런 걸 신경써주셔가지고 나는 너무나 고맙구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독일에 맨 처음에 가실 때 독일에 3년만이 아니라 계속 살 걸 아예 생각하고 오신 겁니까?  
 아니요, 친구들은 여기 와서 인자 총각들로 왔기 때문에 결혼들 해가지고 여기서 살았거든요. 근데 저는 3년만 끝나면 한국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그럼 한국에서 결혼하셨습니까? 그렇죠. 약혼만 해놓고 왔었죠. 그리고 나올 때는 이

미 큰애가 임신이 됐었고. 그래서 저는 여기 오면서 솔직하게 친구들한테 속이고 왔었거든. 나가 총각인 것 같이 말해서. [웃음] 그래가지고 왔더니 친구들이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간호원들 말입니다. 너무 양심에 가책을 받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 한번은 실토를 했지요. 나 한국에 부인이 있으니깐 신경 쓰지 마라 그랬더니 두 놈들이 욕을 하고 난리예요. “야, 이 새끼야, 그러믄 진즉 말을 해야지. 그러믄 니거 부인이 알았으면 얼마나 욕을 하겠냐?” 이거예요. “야, 그래 내가 실토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래서 이미 그런 친구들 하나는 지금 한국에 들어와 살다 죽었고, 하나는 춘천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독일 법으로는 기혼자들이 여기 와서 머물고 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총각들은 여기서 독일 여자분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한국 간호원하고 결혼을 하면 체류가 됐었어요. 근데 기혼자들은 전혀 불가능 했거든요. 그 당시에. 여기 체류한다는 것은. 그런데 뭐 한 1, 2년 지나고 나니깐 그 당시에 우리 올 때는 기혼자가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2년하고 한 3년째 되니깐 한 친구가 자기 가족을 초청을 했는데 여행초청을 3개월 와가지고 여기서 “야, 시청에 가니깐 저희 식구 체류 허가를 내주더라” 이거예요. 2년짜리를. “어? 이거 처음 듣는 얘기다.” 했더니 “야, 너도 한번 해봐봐. 너도 한번 해봐봐.” 그래다보니깐 내가 세 번째로 우리 큰애가 나가지고 세 살 됐을 때 데려왔어요, 초청을 해서 왔었어요. 그래 한국에서 그냥 간단하게 온 거예요. 여행 비자니깐 간단하게 왔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저도 시청에 가서 신고를 하니깐 2년 체류 허가를 딱 내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일하다보니깐 인제 막 여러 동료들이 가족을 막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동료들이 아홉 가정인가 초청을 해 왔었어요. 그러다보니깐 애들 셋 있는 사람도 있고, 넷 있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초청을 다 여기 체류가 되는 거예요. 한번 체류가 되니깐 그다음엔 영주권도 다 들어가고.

## 광산 첫 근무와 독일 생활

그럼 여기 오셔가지고 어디 계셨습니까? 제가 처음 와가지고, 여기선 잘 모르실 겁니다.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Nordrhein Westfalen) 뮌스터란드(Münsterland)라는 지역에 알렌(Ahlen)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에쉬바일러 에베파우(Eschweiler Bergwerksverein, EBV) 광산 이거든요. 그 광산은 독일 회사가 아니라 룩셈부르크 공국왕재단이 있어요. 공국왕재단. 그래가지고 시설들이 얼마나 잘 돼있는지 나는 한국 광산 구경하다가 독일 와서 보니깐 “야,

이런데 같으면 늙어죽을 때까지 내가 여기서 하라면 하겠다.” 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편하고. 단, 1,000메타 지하에 들어가 보니까 공기도 뭐 그렇게 나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먼지가 많은 건 사실이고 옆에서 석탄을 캐니까 근데 저희들은 밤에 나가가지고 거기 가스들이 가끔 폭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스가.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먼저 테스트를 합니다. 기계를 뚫어가지고 말하자면 거기에서 기계를 대가지고 여기서 가스가 얼마나 나오는가? 또한 너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품 테스트를 하고 약품을 집어넣어요. 기계에 집어넣는 그 약품이 사이사이로 들어가가지고 클레베(Klebe: Klebmittel, 접착제) 노말 클레미텔(Normal Klebmittel, 보통 접착제) 같이 단단히 들러붙습니다. 그러면 아침 반부터서 들어가면 작업반들이 길을 내가지고 깎어요. 깎는 거 보면은 진짜 우리는 가만 서서 보고 있어요. 너무나 참 신기하고 굴속에서 그렇게 3, 4메터 되는 높이를 발체(Walze, 압연기)가 이렇게 깎아 나가니깐. 그래서 별로 우리는 위험한 것을 안했어요. 저희가 50명 왔었는데 3명이 신체검사에서 떨어져서 다시 한국에 돌아가고 47명이 근무를 했었어요.

**여기 와가지고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습니까?** 예 예 예, 한국에서 신체검사도 뭐 대강한 것 같은데 여기 오니까 여기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체검사 받아서 3명 떨어져 갔는데. 거기에 불운이 있는 사람은 2번째 와가지고도 떨어져 간 사람 있었어요. 최정규라는 사람인데 너무나 불쌍하더라고요. 그 사람 참 한국에 들어와서 그러다보니 잘 못 풀린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인제 여기서 3년, 4년 이렇게 생활하다가 가족을 초청해 왔던 분들도 어떤 분들은 자식들 때문에 또 한국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강원도 출신 친구는 아들만 셋이었는데 가족을 초청을 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살고 광산근무를 계속하고 있는데 애들이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식으로 같은 형제들 세 놈들을 같은 학교에다 보내 노니깐 그룬트슐레(Grundschule, 초등학교) 보내 노니까 누구 하나가 맞기만 맞으면 세 형제가 가가지고 막 달라붙어가지고 그놈을 죽살라게 패고 하는 거예요. [웃음] 그게 말썽이 되가지고 못 견디고 한국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보통 보면은 자식들 그래도 여기 와서 애들이 다 2세들이 잘됐습니다. 어떤 여자애는 우리 큰애하고 동갑인데 지금 독일에서 검사하고 우리 여검사 아마 우리 교포 중에 처음일거예요. 그 애가 그렇게 여자애한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욕심이 많더니 공부를 그렇게 해가지고 검사까지 되더라고. 사람은 욕심이 좀 있어야 되는데. [웃음] 그리고 지금은 참 우리 2세들이 아니면 1.5세들이 여기저기서 너무



나 참 의사들도 많고 변호사들도 많고 너무 풍부하게, 박사들도 꽤 많고 말입니다. 우리 왔을 때 그런 사람 찾아볼 수가 없었지요. 겨우 어쩌다가 한국에서 유학 온 분들이 공부해가지고 여기서 정착했지만은 또 그런 분들은 상당히 우리하고 거리가 머니깐 좀 저저 됐었고. 근데 그 뒤로는 이분들도 나이 들어가시면서 여기저기 개업해가지고, 아츠티(Arzt, 의사) 개업해가지고 교민들한테 친절하게 잘 했었고. 뒤셀도르프(Düsseldorf) 김계수 박사라는 분, 김계수 박사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그 다음 몇 년 저저 하더니 그 다음부터 주로 우리 한국 사람들 상대를 많이 하니깐 참 친절하게 저저하시고, 지금 은퇴해가지고 교민사회에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힘을 쓰고 있지요.

2년 후에 가족을 데리고 오셨고, 3년 말기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러니깐 거기에서 회사에서 근무실적이 좋은 사람들은 1년에 크랑크(Krank: 병가라는 의미)란 게 예를 들어서 30일 이상 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연장을 시켜줬었어요. 연장을 시켜주니깐 거기 이제 그 회사에서 근무를 바로 1년만 더 했었고 나는 만 4년간 광산 생활을 했었지요. 4년간 하고 있는데 함부르크가 산 친구들이 “야, 너 광산 생활 계속 할꺼냐? 다른 회사에 들어가야지.” 하면서 함부르크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함부르크에 가가지고, 가자마자 독일 회사에 1주일 만에 취직이 되가지고 들어갔었어요.

근데 병가 내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네, 많지요. 많지요. 그러니깐 그게 무슨 문제냐면 한국에서 그래도 이 일을 해본 사람들은 그래도 참고 일을 좀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좀 부유하게 산 사람들은 많이 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교장 아들로 참 편하게 지내다가 남이 외국 간다니깐 외국 따라온 사람도 있었거든요. 지금 베를린에 한인회장하는 정영수라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도 한마디로 못 견디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보다는 한 6개월 후에 온 사람인데 광산생활 못하고 한국으로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 사람.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깐 한 20년 만인가, 30년 만인가 여기 한 몇 년 전에 광부 초청 잔치 있어가지고 보트롭(Bottrop)에 갔더니, 아유 그 사람이 와서 아는 척을 하더라고. “난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나 정영수여, 정영수.” “아니, 한국에 들어간 줄 알았더니 어떤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 당시 한국에 안 들어가고 베를린으로 갔던 모양이더라구요. 그 당시에 보통 그런 사람들이 베를린에 많이 갔었어요. 그 당시에 통독이 되기 전에 그 쪽에 일할 자리는 많은데 그쪽으로 가기를 별로 꺼려했거든요. 일을 하러. 동독 가운데가 들어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독일에서 거기를 섬이라고 했었잖아요. 우리도 거기 한번 베를린 갈려면 아주 골치 아팠었고. 그래서 거기 회사들이 오는 사람마다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옛날에 병가가 많던 어쩔든 간에. 그러니까 글로 다 몰려갔었지요. 그래서 우리 교민이 베를린에 많은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 귀국 포기과 이주

---

원래 계획이 3년이나간 끝나고 돌아간 사람이 얼마나 되고 계속 머문 사람 미국이나 캐나다로 간 사람 얼마나 됩니까? 그 당시에 우리 동무들 중에서는 캐나다로 간 사람들 많이 있었고, 그리고는 한국으로 귀국한 사람들은 3년 끝나고는 별로 없었어요. 이려고 중간에 일을 못해가지고 그만둔 사람들이 한 6~7명 있었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한 3년은 채웠는데, 3년 채우고 성적들이 좋다보니깐 연장이 돼가지고 4년간 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미혼자들은 결혼을 해가지고 프랑크푸르트(Frankfurt) 이쪽으로 많이 왔었고. 와가지고 여기 텍스틸(Textil, 방직, 섬유) 회사에 많이 근무를 했었고. 그 당시에 지금 지난 번 재독 연합회 회장했던 이근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나하고 동간에 그 사람도 일을 못해가지고 쫓겨났는데 태권도를 해가지고 독일 부인하고 다시 결혼하는 바람에 여기서 체류하게 됐었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었고. 4년 하다보니깐 한국 들어간 분들 많았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예 기혼자들이지만 부인, 가족들 안 데려왔었고 들어갈 생각으로 그렇게 했었고.

그 4년 후에 돌아간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절반 이상? 그러니까 절반정돈 됐었어요. 절반이 못 됐었지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20명 살고 있으니까.

대부분 독일에 머물렀네요. 그렇지요. 보통은 다 머물렀지요. 그 뭐야, 그 뒤로도 그러니까 광산생활을 한 5, 6명이 광산이 없어질 때까지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4~5명 될 거예요.

그때 한국에 안 돌아가고 독일에 계속 체류하겠다고 생각하신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인은 가족이, 처자식 와서 살다보니깐. 또 작은 애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을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깐, 그리고 독일와서 살았던 친구들이 “야, 여기까지 가족이 다 와서 이렇게까지 생활하는데 한국 들어가봐야 뭘 하려나?” 자꾸 이런 식으로 하고 이리다보니깐. 한국에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더라구요.

**뭘가 어려웠어요?** 어려운 것은 물론 내 나라니깐 들어가면 좋긴 좋겠지요. 좋긴 좋겠지만 가는 가서 새로운 생활 한다는 게 또 어려울 것 같고, 또한 여기 오는 가정주부들이 보통 여기 생활을 다 만족하게 생각을 하더라구요. 그 당시에. 보통 부인들이 가기 싫어해가지고 한국에 안 들어갔어요. 지금 알고 보면 여자들이 생활하기에는 독일 사회가 상당히 좋은 사회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한국에 안 들어가고. 또 한국에 들어간다면 애들 가르치는 데 학비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물론 크게 돈을 벌어서 그런 관계 안 하겠지만은 나같이 여기 와가지고 가족 불러서 혼자 돈 버는 사람은 돈이 많지 않지요. 부인이 독일에 왔지만은 부인들 체류 허가는 내주면서 노동 허가는 안 내줬거든요. 노동 허가 안 내줍니다. 단, 어느 회사에서든지 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노동 허가를 내줘요. 그 회사에서 중요하니까.

그러다보니깐 내가 거기 함부르크에 가서 이렇게 독일 회사를 다니다가 한 6개월 다녔는데 그 당시 유가파동이 82년도에 나가지고 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이래선 안 되겠다 하고는 내가 뒤셀도르프에 갔었지요. 뒤셀도르프에서 다시 광산을 들어갈라고 처음에 마음을 먹었는데 광산은 아무래도 안 될 거 같아서 뒤셀도르프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애들 한글학교 데리고 가서 토요일마다 한 주재원분하고 만났는데 상당히 콘택트(Kontakt, 교제)가 있었어요.

## 금성사 근무

---

근데 그 양반이 누구냐 하면 그 당시 금성사 유럽 지사장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할튼 성부장이었어요. 애들 데리고 와서 애들 수업 끝날 때까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한번은 귀국하신다고 하더라고. 그 양반이 연대 독어독문학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인자 이쪽으로 파견이 되었던 거 같아요. 그 당시. 그랬는데, 그 양반이 한국으

로 들어간다고 해서. “성 부장님, 서운하네요.” 그랬더니 “아이구, 김형 우리는 그런 거 아네요.” 그러나 그 당시 귀국을 하면은 보통 퇴직을 당하는 상황이 많이 되더라구요. 큰 회사에서. “그런데 근무나 제대로 할런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들어가셨거든. 한 2년 되니깐 나왔어요. 그래서 보여요. “그래 성 부장님 어떻게 또 나오셨네요?” 그랬더니 “예, 뭘 일이 있어서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깐 금성, 그 LG에서 그러니까 독일에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옛날에 근무했던 사람이고 독일말 잘하니깐 여기저기 각 주에 다니면서 트라이(try, 시도)를 해보라고 했던 모양이더라고. 그래 그걸 살피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이 양반이. 그래서 “김형,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면서 그래 썼더라고. “그래요? 그럼 좋겠네요.” 그리고 말았는데. 그러다보니깐 교포신문에 금성사 LG가 뱀스(Worms)라는 데로 공장이 들어온다고 기사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 양반한테 한번 만났을 때 어느 식당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성 부장님 금성사가 저기 뱀스에 선다는 게 맞아요?” 그랬더니 “김형, 맞아요. 나가 그 일 때문에 이번에 나왔었습니다.” “아이구 참 좋네요. 그런데 가서 근무 좀 할까?” 그랬더니 “아유 뭐, 김형이 오시면은 아주머니까지 체류 허가 나게 만들어주지요.” 하더라구요. “진짜요?” 그랬더니 “아, 진짜지, 그럼 거짓말이여?” 그래가지고 당장 그 이후에 나가 뱀스에 갔었어요. 차를 타고. 가서 만나니깐 비서가 바로 면담을 시켜주더라고. 그래서 “성 부장님, 전번에 성부장님 얘기 듣고 왔는데.” 그랬더니. “김형 오세요. 그러면은 와가지고 모범되게 근무 좀 하세요.” 그러면은 자기가 충분히 저거 해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깐 비서가 나 혼자 갔잖아요. 가족은 뒤셀도르프에 사는데. 그 당시 어머니까지 오셔가지고 계셨을 때예요. 뒤셀도르프에서. 가니깐 일주일 만에 집을 얻어서 나를 준 거예요. 그 비서가. 여자 비서가 다니면서. 집도 뭐 아주 좋은 집을 얻어줘가지고는. 뒤셀도르프에서 같이 차로 이사 짐 싣고 왔는데 오자마자 집식구도 아르바이츠에어라우니스(Arbeitserlaubnis, 노동허가증) 다 내줬어요. 법인장이 싸인해줘서 아르바이츠암트(Arbeitsamt, 노동청) 갔더니 그대로 해주더라고. 그러니깐 집사람이 한 5, 6년 만에 아르바이츠에어라우니스를 받은 거예요. 일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나도 바로 근무를 하고 이사 올 때까지 주말이면 뒤셀도르프 갔었고, 그러니깐 금성사에서 근무를 만 8년을 했었어요.

**뒤셀도르프 계실 때는 일을 안 하셨습니까?** 일을 그 당시에는 잠깐 식당에 가서 일을 했었어요. 한국식당에 가서. 베디닝(Bedienung, 서빙). 그 당시에 베디닝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콘택트(Kontakt, 교제)가 됐었고, 차범근이 허정무 그런 사람들도 시합 끝나면 거기 식당에서

왔었고, 식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몇 개월 하고는 봄스로 바로 갔었지요. 나는 가자마자 바로 일을 했는데.

**가족은 같이 이사를 안 가고요?** 아니, 그러니까 몇 주 만에 집을 구해줘서 가족이 왔었지요. 이제 집식구도 일을 하고. 애들도 거기서 초등학교. 거기서 적은애가 초등학교를 들어갔구나. 그래갖고 학교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거기에서 저가 근무를, 또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내 나라 기업이니깐, 또 나는 일을 했다 하면 저가 저저하게는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창고를 나를 맡기더라고. 그 당시에 현지인 500명을 채용을 해서 썼거든요. 그러니깐 그 적은 도시에 일하는 사람을 한 500명을 쓰니깐 거기서 아주 대우를 받는 거예요. 거기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대우를 받았는지.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첫 공장을 가동을 하니깐 이게 이 불찰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장 난다던가, 이것저것 하나씩, 한국에서 출장자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반트(Band, 컨베이어 벨트)에서도 해왔던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뭐 독일 사람들을 한꺼번에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놔기 때문에 모르니깐. 한국에서 생산라인에서 일했던 아가씨들을 몇십 명씩 데려와가지고 남자들, 거기서 지도를 하고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저희 집 방이 네 개 있었는데, 그때 애들은 남자 애들은 둘이 한군데서 자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본침머(Wohnzimmer, 거실)도 없이 방 두개로 출장자들 재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꼭 밥을 먹고 일을 나가요. 아침에도. 지금이야 늘 안 그러겠지만은. 그래서 아침에 오면은 집사람이 일을 하는데 일찍 일어나가지고 밥을 해서 먹여가지고 우리가 같이 데리고, 우리차하고 자리가 모자르니깐 택시 몇 대 해가지고 출근시키고 이래가지고 저야 현지인으로 일하니깐 시간 정식되면 퇴근하잖아요. 근데 보통 연장 작업을 많이 했었지요. 왜냐면 실어내고 들어오는 자재 받는다는 게 딱 제시간에 다 오고 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연장 작업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연장 작업을 하고 이 사람들이 나와 있는 출장자들을 또 나가 토요일 일요일은 데리고 여행을 시켰어요. 그런데 한국에선 그 당시 생산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 구경이나 그 당시 누가 뭐 했겠어요? 그러니깐 이런 기회에 한 번씩 여행을 하고 싶어 하지요. 나는 그런데 녹초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연장작업하고 집에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다음 날 여행하는 것이 좋아가지고 잠도 안 자고 김밥을 싸고 그래요. 금요일 저녁에 새벽에, 토요일 일찍 출발을 하니깐. 그럼 나는 일찍 와가지고 차 일단 빌려다놓고 집에 세워놓고 다시 회사에 가서 연

장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12시, 1시가 되어서 와서 조금 잠자고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사람들 태워서 가는데 뭐 다른 사람들 차타고 가면서 잠도 잘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당시에는 또 한국에서 면허증 가진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80년대 말에 면허증 가진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넘어서니까 한국 사람 오는 사람마다 면허증이 있더라도. 근데 물론 있다고 해도 길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맡기진 못하지만. 저가 토요일 일요일 완전히 뛰고 나면은 한 2천, 3천 킬로 뛴니다.

**어디어디 돌아다녔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동부권, 저기 통일되기 전이니깐 동독 쪽으로 해서 옛날 공산권에는 갈려면 아주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서부 쪽으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덴마크, 불란서, 영국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태리,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쪽으로 해서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참 지금 생각하면 할튼 젊었을 때니까 그렇게 했겠지. 갔다오면은 이 사람들끼리 뛰는 거야. 앉아서. 그래서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긴 가봤으니깐 그 다음 주에는 또 저기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또 데리고 뵈스에서 베를린을 가는데 동독 국경 지나가기도 한참 걸리고 그래요. 여권 다 검열하고 그러는 바람에. 그래 이런 것을 다 구경시키고. 거기서 함부르크 쪽으로 해가지고 함부르크에 가서 푸트가르텐(Puttgarten)이라는 데서 배를 타고 차를 싣고 또 코펜하겐까지 가가지고 코펜하겐에서 다시 구경하고 다시 함부르크에 오면은 거기서는 친구들한테 넘겨요. 나 너무나 피곤하니깐 네가 좀 구경 좀 시켜라. 여기 썬트 파울리(St. Pauli)나 부둣가 이런데 구경하는 것은 친구들 시켜요. 그럼 친구들이 나보고 막 욕을 해요. “이 새끼야. 네가 죽을라고 환장을 했냐? 이런 거리를 어떻게 혼자서 이려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너가 좀 시켜주라.” [웃음] 거기서 시켜주면은 데리고 또 쾰른(Köln) 들러서 쾰른 성당 같은데 구경시켜 주고, 뵈스 가서 우리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가면은 보통 12시 넘지요. 그럼 월요일 날 또 깨워가지고 밥 먹여서 데리고 가고.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또 참 내 한국 사람들 위해서 내 회사에 온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일 한다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참 고달픈 거 모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96년도에 법인장이 성법인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최법인장이라고 인하공대 출신인데 그 양반이 여기 두번째 법인장으로 왔었어요. 근데 그 양반은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나보다도 두 살인가, 세 살인가 더 먹었는데 그런데다가 오면서 운전면허증을 해와가지고 그 당시에 법인장한테 운전수가 없었습니다. 전부 지금도 끝날 때까지 없었지만. 그래 본인이 이제 차를 몰고 겨우 회사는 다니는데 한국에서 높은 분들이 오시면은 이

사람이 모셔야 되는데 무서우니깐 그 당시에 메르츠데스 300 옛날 구형, 300이 있었거든요. “김형, 오늘 운전 좀 해줘.” 그러면서는 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실을 아니깐 또 안 해줄 수 없고. 가서 하이델베르크(Heidelberg)니 로렐라이 이런데 구경 다 시켜 주면 다 고맙다고 합니다. 그런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는 조법인장이라고, 지금 한국의 LG에서 은퇴하셔가지고 LG교육원장인가 그렇게 수원에서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구요. 그 양반은 또 와서 계시면서 가족을 안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옆에 상사 직원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꼈지요. 그런데 그 당시 봄스에 살 때 한 20가정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 상사 직원들이, 연구소하고 두 군데 나와 있었으니까. 그래도 내가 적은 도시에 들어가서 우리 LG회사를 위해서 내가 그 가족들, 뭐든 위해서 일해줬더니 지금까지도 연락오고 그러잖아요. 한국 들어가면, 지금 구미가 살면서도 “형님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 나가 대부로 섰던 사람이 폴란드 저쪽 공장에 법인장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이장희 씨라고, 알라바마, 할튼 그 양반 미국에서 또 이쪽으로 왔거든요. 근데 한국에 못 들어가고 외국으로 돌더라고. 그런데 뭐야 저 폴란드 저 북쪽 법인장으로 나와 있어요. 재작년엔가도 한국에서 여행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형님, 구경 좀 시켜줘야 되겠어요.” 하면서 거기서 여기 나와가지고 두 분 모시고 저하고 넷이 독일 여기저기 구경 시켜 보내드리고. 그래 지금도 콘택트(연락)를 하고 있고. 또한 여기서 지냈던 분들이 들어가서 강 과장이라고 그분은 들어가서 과로를 해가지고 죽었어요. 젊은 사람인데. 한번은 부인이 전화가 와가지고 “김 집사님, 아무래도 애들하고 나 여기서 살기가 싫으네요. 그러니깐 독일로 갈려는데 가는 길 좀 트게 해주세요.” 했었어. “그러면 일단 와가지고 주소를 우리 집으로 해놓고 한번 시작을 하자.” 그래서 여기저기 변호사를 통해가지고 왔는데, 얼마 안 가 체류 허가 다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은 그 무슨 장점이 있었냐면 애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다 들어갔기 때문에 애들 핑계를 대는 거예요. 두 번째 올 때, “애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다 갔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부에 집중을 못한다. 적응을 못한다.” 해서 “애들 때문에 나와야 한다.” 그래서 그 여자분은 그 애들 두 놈들이 다 여기서 대학 다니고 있고. 그 여자분은 와서 여기서 살다가 집사서 여기 바스호텔을 남한테 세주고 한국 들어가 살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다른 한 분은 또 우리 교회에 또 나왔던 하은이라는 애 있어요. 그 하은이가 봄스에서 즈그 엄마 아빠가 거기서 대학을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한국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엄마만 나왔는데 또 도와달라 해가지고 그 변호사 소개해 줘가지고 체류 허가 나와서 여기서 딸하고 데리고 나와서 살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사람들



글게 있는데 보통 여자들 생활하기에 독일이 좋은가봐요. 여자분들이 보통 다들 나올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러면 LG에서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8년간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깐 LG에서 초창기 87년, 아니 88년부터 96년도까지.

아까 부인분도 노동허가증이 나오셨다고 했는데, 같이 LG에서 일을 하셨나요?

네, 네. 같이 LG에서 근무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깐 너무 집식구가 참 불쌍하더라구요. 또 밥을 해서 먹여서 데리고 갈라니깐 저거 하잖아요.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한국 사람들이 퇴근도 또 늦게 해요. 보통은 10시 돼서 퇴근해가지고 와서 또 뭐 그대로 가면 될건데 거기서 고스톱들 하고 뭐들하고 하다보면 그렇게 잠을 자가지고 아침에 깨워가지고 밥먹여 데려가는데 이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나오다보니깐 저희가 이사를 했었어요. 큰 독채를 얻어가지고 방 9개짜리로. 그러다보니깐 사람들이 10 몇명씩 있게 되니깐, 그 사람들 다 먹여가지고 다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고. 참 그 LG 회사를 위해서 나도 노력을 참 많이 했었지요.

## 금성사 퇴직과 식당 운영

---

그래서 96년도 되니깐 법인장이 그러더라고요. 법인장이 나보다 한 살인가 적었는데. “김 소장님, 아마도 회사가 이걸 공개적으로 얘긴 못하지만, 인건비 때문에 아마도 옮겨야 될 거 같은데 사직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본인이 쿤디궁(Kündigung, 사직서)을 내면은 쿤디궁스겔트(Kündigungsgeld, 퇴직금)를 주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걸 타 먹을라면은 본인이 와서 그 쿤디궁하는 게 나올 거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생각을 좀 하다가 그 말이 옳겠다 싶어가지고 나한테 나쁘게는 안 가르쳐주겠지 해가지고 쿤디궁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3개월 되니깐 전체를 문 닫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영국 경기가 아주 안 좋을 때였거든요. 그때. 그 수상이 처음 정권 잡으면서 아마도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에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독일 인건비가 배로 비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글로 다 갈려고 하고 있다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LG, 금성도 글로 가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영국으로 옮겨 가는 거예요. 근데 영국 갔다 영국에서 다시 또 저거 하니깐 폴란드로 또 갔었지요. 지금 폴란드에 LG가 두 군데 서있거든요. 처음에는 저기 모스크바 쪽으로 북쪽으로 폴란드 북쪽으로 LG 공장이 있었는데 지금 이 근래에는 완전 남쪽에 그 반대 방향에 독일 가까운 쪽에 지금 공장이 또 썼었어요. 그런데 나가 거기를 가서 그 법인장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민박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하고 그래서 연락을 했었지요. 그랬더니 저쪽에 그 법인장이 이장희라는 부장이 “형님, 나 몇 주 후에 상태를 봐가지고 알려주겠다.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쪽에는 실은 이미 먼저 회사를 다니다가 뭐뭐 부장 과장 됐던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거기서 이미 호텔사업을 시작했다 이거예요. 근데 형님이 여기 와가지고 회사 사람들하고 부딪혀가지고 새로 한다는 것은 돌로 바위치기니깐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구요. 그건 이 부장 말이 맞겠지 뭐, 선진이 하는 말이 맞겠지 뭐. 그럼 저기 뭐 남쪽에 한번 세운다고 하던데 거기 한번 알아보세요. 거기도 중동 쪽에 LG 법인장 나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사표를 내고 거기 와서 지금 민박 사업을 이미 시작했단 말이에요. 호텔 이런 것을. “그런 사람들하고 부딪히기 힘들 거예요. 형님 돈을 얼마 벌어냈는지 모르겠지만. 힘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야 LG에서 근무를 오래했었고 저 법인장까지 다른 지역이지만은 가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이미 티전 잡고 저거 하고 있는데 나가 생판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부딪혀가지고 어려운 문제고, 또 그중에 얘기를 듣다보니깐 폴란드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여기 긴스하임(Ginsheim)에 식당, 호텔 시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폴란드 여자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폴란드를 가서 정탐을 했던 모양이에요. 했는데 “김형, 얼마나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호텔들 으리하게 해놓고 했는데 아이고, 나는 상대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글썄 나도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는데 글썄 나도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상당히 희망이 없더라. 나도 포기한 상태다 했더니 “김형, 포기하세요.” 그분도 포기하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다시 여기서 호텔업을 하고 있습니다.

**96년 그럼 퇴직하시고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96년도 퇴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봄스에서 그러니까 호텔, 한국 교포가 호텔식당을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황영하 씨라고. 저기 저 하이텔베르크에서 식당 하다가 몇 년 전에 죽었어요. 그 사람이 “김형, 그거 인수 맡아서 해.” 그래서, “아이고, 당신이 할 때는 그래도 금성사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

을 줬지만은.” 우리 회식할 때 마다 저거 상당히 도움을 줬거든요. 더구나 금성사도 없는데 뭐 쪼매난 도시에서 하면은 내가 이걸 맡아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도 그래요, “황형도 빨리 넘기세요! 넘겨.” 한 2년 있다가 넘기고는 하이텔베르크 ‘황태자’라는 식당을 했었지요. 그런데, 그걸 안 하다보니깐 뭐 해야 되겠는데, 이게 뭐 그렇다고 나이 먹으니깐 독일 회사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식당업을 한번 하려고 거기에서 이왕이면 뫼스에 살면서 나가 옮기지 않고 애들 학교 관계도 있고 하니깐 거기서 그 부근에 살려고 만하임(Mannheim) 이 쪽으로 해서 식당을 보러 다녔었어요. 보러 다녔는데 마음에 맞지 않아요. 결국에는 프랑크푸르트 한번 가보자. 프랑크푸르트 쪽에 와가지고 할튼 여기서 다른 아는 사람 목사님 덕에 자면서 한 40개 정도 이 부근 내에서 봤었습니다. 여기저기. 보다가 여기 집에서 얼마 안됐는데 임비스(Imbiss, 간이식당)가 하나 났더라고요. 처음에는 가서 그거 하려고 생각도 안 했었어요. 다 다녀 보니깐 거기보다 더 크게 할 데가 물론, 돈 많이 투자해가지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처음 식당업을 하면서 투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일 얼마 안 되게 투자할 곳으로 바로 그전에 봤던 이 부근에 가서 또 봤었어요. 가서 보니깐 안 나가고 있어서 인수를 했었죠. 유고 사람이었는데. 집주인이 좋아가지고. “제발 너는 좀 오래 좀 해달라.” 그러니깐 다른 사람들 와가지고 6개월 하다 그만두고 1년하다 그만두고 몇 사람이 그랬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깐 “너만큼은 좀 오래 해달라.” “나도 해봐야 알지 그걸 알겠냐고.” 답했는데, 결국 뭐 12년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그걸 시작을 하는데 식당 일을 요리 같은 것은 안 해봐가지고. 식당을 해놓으니깐 그걸 조금 알기 위해서 뒤셀도르프에 아는 사람이 임비스를 하고 있는데 큰 임비스, 적은 식당이지요. 거기 가서 일주일간 배웠어요. 배웠는데 남의 식당에 가서 마음대로 배울 수가 있습니까? 대강 적고 어찌고 해가지고 보고 와서 들어서 문을 열었는데 처음에 96년도에 열어놓으니깐 사람을 연변아줌마를 하나 데리고 쓰긴 썼는데. 사람들이 밥을 먹을라고 10메타 이렇게 줄을 서는 거예요. 아이 겁이 되게 나대요. 음식을 이거는 확실하게 할 줄 모르지, 그러니깐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하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수건 같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어데서 압트로크넨(abtrocknen, 닦다, 말리다)을 했느냐? 안 했느냐?” 따지고 당신은 여자가 따로 있는 건지, “당신은 요리사 해본 사람이 아닌 거 같은데, 요리사를 했느냐?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고 막 그래서 나 경력이 있다, 해봤다고 막 그러고. [웃음] 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차 나아졌었지요.

**뭘 주로 임비스에서 만들었나요?** 보통 중식이었지요. 보통. 한식으로는 하나도 없고. 한국

사람이 와서 해달라 하면 집식구가 한국에서 살림거뉘가다 왔기 때문에 한식을 대강 하긴 하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한식 해주고 보통은 중식을 해가지고 하는데 둘 다 지금까지도 길거리에서 만나면 그때 왔던 사람들이 지금도 “너 다시 임비스 안 하나? 너가 할 때 제일 맛있었다.” 하면서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하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난 다음에 또 할거다.” 그래요. [웃음]

**임비스에 식탁도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서서 먹는 임비스였습니까?** 지금은 스테임비스 (Stehimbiss, 의자 없이 서서 먹는 식당)라고 해도 가면 그 집에 티쉬(Tisch, 식탁)가 두개, 세 개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업자가 많다보니깐 게준트하이츠암트(Gesundheitsamt, 보건청)에서도 그렇게 심하게 제재를 많이 안 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스테임비스데 티쉬하나라도 있다하면 그거 뭐 벌금 얼마까지 물어버리고 하니깐 전혀 그런 걸 할 수 없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누가 와가지고는 티쉬 세 개 놔둬도 누가 전혀 말도 안 한대요. 검열도 안하고. 근데 우리 할 때는 와가지고 뭐 “청소, 한 달에 몇 번 하느냐? 뭘 하느냐?” 하면서 아이구,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까다롭게 했었어요. 그래도 아무튼 참 거기에서 스타트쿤데(Stammkunde, 단골)들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사람 보고 참 만나면 지금 하는 사람은 너 할 때보다 훨씬 못하다 어쩌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쥬고.

**돈벌이는 좀 많이 됐습니까?** 그래서 꽤 괜찮게 나왔었지요. 그런대로 저거 했는데. 그걸 딱 그만두니깐.

**왜 그만두셨어요?** 저는 연금 탈 때까지 하려고 했었지요. 근데 집식구가 여자 나이로 뭐야, 55세 넘으니깐 너무 몸도 아프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사람을 데리고 하면은 이 사람들한테 또 먹고 재우는 것도 다 해줘야 되니깐. 그리고 방을 하나 차지해야 되고. 참 너무 저거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집을 따로 얻을 수도 없고. 거기서 그만두고 또 세금낭비가. 또 아시겠지만 독일에서 이 사업한다는 것이 세금관계로 참 철두철미해가지고 보통 머리 써가지고는 감당 못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거 고생들 많이 해요. 한마디로. 제가 그것을 느꼈었고.

## 한글학교 관리자 근무

---

그래 저는 96년도 그만둘 때까지 한 30년간 일을 했었지요. 저는 지금은 아르바이츠로젠겔트(Arbeitslosengeld, 실업수당)도 안 나오고. 연금이 아예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연금도 안 나오고. 그런 거 힐프스겔트(Hilfsgeld, 사회 보조금)라 해가지고 돈이 제 앞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나와도 집에 있으니까 답답해가지고 토요일이면 한글학교 가가지고 관리자로 근무했잖습니까? 그걸 아르바이츠암트(Arbeitsamt, 노동청)에 신고를 했더니 나 받는 반 이상을 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사회가 이래서 일하기를 싫어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한국학교 하우스마이스터(Hausmeister, 관리자) 관리하시는 거에 50%를 뺐다구요?**

60% 정도 떼요. 그러니까 일할 맛이 안 나더라고요. 이래서 독일 애들이 이래서 일하기를 싫어하는 모양이구나! 나 그걸 딱 느꼈어요. 그리고 나는 아르바이츠암트(Arbeitsamt, 노동청)에서 그렇게 떼어버리지만은 학생들이 일을 하면은 아마도 다 찾아먹을 거 같고, 그래서 다른 유학생한테 인수를 이번, 내일 마지막으로 인수를 하고 저는 그만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학생들이 하면은 100% 다 찾을 거예요. 근데 나가 하니까 자꾸 떼더라고요.

## 광부시절의 농장일과 광산 야간 근무

---

그래서 참 여태까지 독일 와서도 여러 가지 일도 해봤어요. 광산일 하면서도 저는 주로 야간일을 했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은 기계가 안돌아갈 때 해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안돌아갈 때 가서 일을 하고 아침에는 나와서 잠도 자고 또 큰 농장 같은데 가서도 일을 했는데.

**농장에는 언제 일하셨어요?** 주말에도 그렇고 주중에도 그렇고요. 주중에도 밤근무조에서 일을 하고 갔다 와서 자도 12시 되면 다 일어나잖아요. 오후 3시, 4시에 붙어서 나가가지고 뭐 6시, 7시까지 몇 시간씩 일을 하고.

**독일 농장예요?** 네, 그렇지요. 아주 큼니다. 농장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니깐 한국에서 지금 빌레펠트(Bielefeld) 살고 계시지만은 그 목사님 조카, 초청을 하니깐은 그 농장에서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한국에서 와가지고는 거기서 일했잖아요.

**농장에서 일을 하면 추가적으로 돈을 또 받으시나요?** 그렇죠. 그것은.

**밤근무를 하면은 돈을 더 받았습니까?** 그럼요. 지금 나 삶의 추억으로 그 당시의 받았던 론카르테(Lohnkarte, 근로소득 카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광산생활이 지금 그 당시에 35년 전 아닙니까? 근데 지금 월급하고 똑같아요. 그 당시에는 광산지역이 회사들이 잘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들 오고 출퇴근하는 시간에 만약 사고가 나면은 그것도 다 쳐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 목욕수당까지 다 주고, 밤반 수당 주고. 그래서 한국으로 돈을 식구 오기 전에는 다 부쳤잖아요. 100%다 부쳤지요. 한국으로. 그러면 나 용돈은 농장에 가서 벌어서 쓰니깐. 그런데 100% 벌어서 쓰고 한국으로 부친 돈은 기혼자들은 그 다음해에 연말정산을 하면은 세금신청을 하면은 100% 이상이 나옵니다. 할튼 그때 법이 잘 돼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띠잖아요. 지금도 그렇지요. 미혼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50%를 띠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혼자도 있고 애 딸려 있으면 제일 적게 세금을 띠거든요. 그 띠는 세금도 그 다음해도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100%가 더 나 온다니깐요. 예를 들어서 1년 2,000유로를 띠었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2,500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자까지 다 해가지고. 그래서 받아서 다 부치고.

우리 동료들 중에서는 다들 돈 부쳐가지고 다 형제간들 한국에 학비 보내고 학비 부치고 나 도 뭐 동생 하나 있는 거 물론 한국에 있었으면 어쩔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와서 돈 다 부쳐가지고 대학까지 다 보내고 부모님 생활비 다 보내 드리고 저희들이 우리 세대 때 고생은 참 죽살라고 많이 했었지요. 했었지만은 그래도 형제간들 부모들 위해서는 노력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래 밤 근무 하시고 낮에는 농장일 하시고 그리고 후에 LG, 금성에 다닐 때도 보니까 주말에도 계속 여행시켜주시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셨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한번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는데 세수하다가 허리를 못 펴고 그냥 넘어졌어요. 근데 그 주에 그 앞날에 나가 불란서 쪽으로 여행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와서 허리 밴트



샤이베(Bandscheibe, 디스크) 그걸 해가지고는 그래서 병원도 많이 갔고 병원도 만하임 어디 전문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가니깐 차 많이 타고 그러냐고 해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차 많이 타고 운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수술 안 시키고 한 2개월 정도를 생활 했었어요. 병원에서. 지금 같으면 그렇게 생활 안 시켜줘요. 병원에서. 그 당시만 해도 병원에서 2개월 동안 치료하더니 퇴원시켜가지고 나오니깐 괜찮았어요. 수술도 안 하고. 그랬는데 그게 재작년인가 언제 다시 재발이 되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술했어요. 그때 해외동포재단에서 초청해가지고 한국 여행을 갔었잖아요. 가서 아까 얘기했던 롯데호텔 지하에서 환영하고 만찬하고는 그 다음날 호텔에서 자고 버스타고 부여로 해서 전주로 해가지고 제주도까지 갈 계획인데 전주 가서 그때 자고 나니깐 그 다음날 완전히 허리를 못 피겠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친구 놈한테 “나 여기서 여행 포기해야 되겠다. 포기하구나 광주 보훈병원에 가서 진찰 좀 해봐야겠다.” 했더니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여행을 그만두고 광주 보훈병원 거기서 가까우니깐 보훈병원에 가니깐 저는 보훈 혜택이 있기 때문에 보훈병원 가서 이것저것 무료로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서 MRI 촬영을 해보더니 허리 디스크니깐 수술하라고. 수술하는데 내가 광주 가서 하면은 한국에서는 옆에 보호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보호자 있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나가 여기서 안 하고 서울 가서 하겠다, 서울보훈병원 가니깐 서울보훈병원에서도 “디스큘입니다. 수술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서울에야 친인척도 있고 저거 할 수야 있는데 차라리 독일 가가지고 한 번 더 진찰을 해보고 하겠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획스트병원(Klinikum Frankfurt Hoechst) 가니깐 당신 수술해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수술 들어갔잖아요. 수술 들어가서 지금도 완전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요.

## 가족 생활과 독일 생활의 회고

일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이나 아니면 여행이나 여가, 우어라움(Urlaub, 휴가) 같은 것도 많이 하셨습니까? 예, 많이 했습니다. 그건 특이하게 제가 LG에 근무할 때, 그니깐 우리 회사에서 어떨 때는 토요일 날 일을 시킬 때가 많아요. 한국에서야 보통 그 당시에 토요일까지 다 했잖아요. 심지어 일요일도 했었지만. 독일에서도 원래는 한국에서 출장 나온 사람들을 토요일까지 시키게 돼있었어요. 그런데 법인장 아랑에 의해가지

고 어디 여행을 갈 때는 그날은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여행 갔다 오라고. 이들은 갔다 와야지 하루 일요일만 왔다 갈 순 없잖아요. 그랬는데 이 양반들이 토요일 날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맘을 놓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휴가 때는 휴가 때도 우리가 여행을 갈려고 포부를 잡고 있는데 한국에서 갑자기 출장자가 나와요. 그러면 어떨 때는 그 사람들 같이 데리고 가는 [웃음] 데리고 가가지고 여행도 시켜주면서 같이. 그 사람들 이제 고맙다 해싸고 그런 경우가 있었고. 저희들도 할튼 동구권 쪽을 빼놓고는 서부 쪽은 안 돌아다니는데 없이 다 돌아다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우리들은 애들 둘을 데리고 남자애들이기 때문에 며칠 같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텐트들을 싣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독일 사람들 여행은 한 군데 가서 오래 쉬었다 오지만 한국 사람들은 돌아다니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깐 저희들은 예를 들어, 여기서 룩셈부르크에 가서 하루 텐트 치고 자고 아니면 한 이틀 자고 또 볼란서 파리 부근에 가가지고 캠핑 플라츠(Campingplatz, 캠핑장)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한 이틀 삼일 자고, 파리 다 구경하고. 또 거기서 제네바로 가가지고 제네바에서 며칠 자고. 몽블랑 들어가가지고 또 며칠자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기 저 바르셀로나 끝까지 해서 저기 저 모나코로 해서 저리 한번 빙 돌아오면 한 2주, 3주는 그냥. 그런 식으로 꽤 했었어요.

**휴가가, 그러니까 쉬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돌아다니다보니깐 참 그래도 재미있고 몇 가정이 이렇게 가면은 말입니다. 꿍여먹고 또 가고. 바닷가에 가면은 생선들 사다가 또 저저하고. 제일 특이한 것은 노르웨이 쪽으로 한 세 번 갔었거든요. 노르웨이 갔는데 참 거기 가서 제일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노르웨이는 바다가 많기 때문에 생선이 그렇게 흔하니깐. 그리고 또 해초가 흔해요. 해초가 흔해가지고 미역 다시다 이런 것은 썩어져 나가니깐. 한국에 톳이라고 있는데, 아실란가 모르는데 톳이란 것도 엄청 나게 있으니깐 뜯어다가 모르는 사람은 못 먹어요. 그러니깐 나는 세 집이 갔는데 나보고 이제 서울 사는 친구가 나 바게스를 들고 가는데 작은 애 하고는 고동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주으면 “야, 뭣허러 줘냐?” 그래서 “잔소리 말고 가만히 있다가 이따가 삶아놓으면 와서 와봐봐.” 그래 가면 금세 들어서 주으면 한 바게스를 주워요. 저녁에 숙소로 와가지고 숙소에서 캠핑장에 가가지고는 거기서 삶아가지고 와서 까 먹으라고 하면 더 잘 먹을라 하고 더 많이 먹고. 그리고 연어 같은 거 연어 할튼 실컷 먹었습니다. 거기 몇 주 동안 있으면서. 함부르크에 사는 친구가 야 노르웨이 갈라면은 언제든지 여기서 싸디싼 소주 좀 많이 사가지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디(Aldi, 독일의 슈퍼마켓 이름)에 가가지고 콘(Korn, 독주)이라는 그 당시에 뭐 몇 마르크 했었어

요. 콘이라는 0.7리터짜리를 한 박스를 사서 싣고 갔었어요. 그러면은 그거 국경선에서 걸리면은 거기선 엄하게 하기 때문에 걸리면은 다 뺏기는데 안 걸리면 보통 검열안하니깐 통과만 하면은 그걸 아침에는 한 병을 들고 부듯가로 나가는 거예요. 들고 서있으면서 아침에 연어 잡아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어부들이 서로 또 바꾸려고 그래요. 콘 한 병하고 연어 4~5키로씩 되는 거 한 마리씩하고 막. 그러니깐 그 한 병하고 바꿔가지고 와가지고 뭐 세집이서 하루 종일 연어회로 먹고, 구워서도 먹고. 할튼 그 노르웨이 연어 참 좋았어요. 다음에 나가 살면은 노르웨이 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그래서 여행도 꽤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광부로 와서 독일에 이렇게 체류하고 사시는 거 후회하시지는 않습니까? 아휴, 후회는요. 그리고 저는 지금 보면 보람을 느끼는 건 뭐냐 하면 물론 그 당시에는 월남하고 독일 온 것도 나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물론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이런 게 모든 게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상당히 헌신이 됐다는 거, 그거 참 나는 크게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 당시. 그래서 우리 독일 와서 교포들이 보낸 송금 같은 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입니까? 국가로 들어갔다는 것이. 우리 월남에서 저거 했던 것도 참 목숨 담보 걸고 가가지고 물론 죽은 사람도 많이 죽었지요. 5,500명이 죽었으니깐. 재작년에 국군묘지 가가지고 파월장병들 전사 묘지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 묘지를 보니깐 나도 죽었으면 여기 있었을 거 아니냐 싶은 생각에 눈물이 얼마나 나오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나라가 이정도 돼가지고 옛날 속담에 시집간 처녀가 친정 잘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이정도 된 것도 참 너무나 발전했다는 것이 참 보람되고 우리나라가 우리 처음 왔을 때는 우리 한국 제품 보기 힘들었습니다. 보기 힘들었어요. 어찌다 가보면은 가발 이런 거 특이하게 가발이 한국 수출품으로 나와 있었지만은 그리고 양말이나 손수건 같은 이런 게 C&A(독일의 옷가게 이름) 같은 데서 좀 조금씩 보였지. 참, 지금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미디어 마크트(Media Markt, 독일의 가전제품마트)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막 흥분이 돼버려요. 야! 참 35년 전에는 그랬는데 우리 한국제품이 이렇게 다 깔려 있다는 건 너무나 신기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에프티에이(FTA)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된 것이 우리나라에게는 얼마나 좋은 것인가. 생각을 하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수출을 해야 하는데. 이것저것 됴으로써 많은 한국 제품이 수출이 되고 한국을 알려야지. 옛날에 여기 와서 살았지만 한국 전혀 몰랐어요. 내가

한국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고. 지금은 여기 저기 가보면 맨날 한국제품이고. 우리 애들도 처음에 어렸을 때 왔지만은 저희 집들 보면 모든 가전제품 한국제품 쓰고 있고. 그래서 나도 그래서 저도 지금은 당분간 차 없이 지내게 됐습니다마는 차를 봄스에 LG 다닐 때 92년도에 제가 보니까 첫 한국 현대차가 처음에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도 폴란드, 네덜란드를 가니까 한국 차가 보이더라고요. 옛날 소니 그제. 어떻게 해서 그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독일에는 안 보였어도 거기에는 보였었어요. 그랬는데 92년도에 나가 LG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봄스 부근에 루드빅스하펜(Ludwigshafen) 거기가 한국 차 핸들러(Händler, 매점)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나 그때 아우디를 타고 있는데 82년 알트(Alt, 옛날) 모델. 그 현대차 핸들러가 들어왔는데, 핸들러를 찾아 갔었어요. 가만 또 독일차가 튼튼하고 좋긴 하나 독일차 탈까 하다가, 나가 먹고 사는 것도 한국 회사에서 먹고 사는데 차도 한국 차 타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는 소타나 2000시리즈를 탔었어요. 그랬는데 그것 타고 우리 장모님 오셔가지고 여기저기 구경 시켜드리니까 “한국 차도 좋네.” [웃음] 이래 샀고 그래서 여행을 많이 시키다보니까 몇 년 안 돼서 20만 킬로가 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폐차시키고 그 다음에 인제 소나타, 아니 산타페를 타가지고. 제가 현대차 2개를 없앴지요. 그래서 독일에서 아우디도 타보고 BMW도 타보고 메르세데스도 타봤지만은 그러다가 현대차가 지금이야 아주 좋게 나왔다는 독일차 마냥은 물론 가격도 그러니까 차이가 있고. 그 당시에 소나타 탔을 때는 힘을 못 내더라고요. 평지에서는 잘 다니는데 불란서에 가면은 고개가 많거든요. 갔는데 독일에서는 별로 못 느끼는데 한 8부, 9부 능선 올라가면은 벌써 기아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런데서 차이가 있기는 있구나 생각했어요.

**독일 사람들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독일 사람들 하고 별로 저는 나쁘게 지내지는 않았 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지낸 분들은 제가 또 우리 의사도 하우스아츠티(Hausarzt, 주치의)도 96년도에 프랑크푸르트로 왔는데 같은 아츠티(Arzt, 의사)에게 지금까지 다니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 양반들이 주기적으로 안 오면 오라고 연락도 하고. 나 테스트 하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지내고 있고. 뭐 독일말 유창하지는 못하지만은 조금 해가지고는 그런대로 지내고 있고. 토요일이면 한글학교에서 한국 사람 만나다보니까 지금은 별로 독일 사람들하고는 많이 만나는 것은 없어요.

## 종교 활동

---

교회 다니신다고 그러셨는데 원래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지셨나요? 아니에요. 독일 와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다 시골 살적에 불교를 믿잖아요. 불교를 믿어도 나가 절에 가서 절해보고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자식들. 이름 써가지고 가서 저거 하는데. 나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여기 오려고 할 때 우리 사촌 여동생이 수녀가 되려고 했어요. 서울 신길동에 마자렐로 센터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생활하면서, 학교 다녔어요. 거기엔 여자분만 들어가서 절대 남자들은 출입금지거든요. 근데 나는 수녀님이 동생이고 반찬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특별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 가면은, “오빠, 독일 가면 꼭 예수 믿어야 돼.” “그래, 알았다 알았어.” 대답만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막상 오려고 마지막 인사드리려고 갔더니 그 수녀님이 “숙자 오빠, 독일 가서 꼭 예수 믿으세요.” 하고 십자가까지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 어떻게 가톨릭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기숙사 부근에 사는 신부님이 한국 한양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슈미트라는 분이. 그 쪽에서 가톨릭재단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오빠가 지금 알렌이라는 기숙사에 가서 생활하고 있으니깐 가서 좀 신앙생활 하게 만들어라 그랬던 모양이더라고. 독일분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숙자 오빠 되냐?”고 “그래, 그렇다.” 그랬더니 “당신 어떻게 우리 숙자를 아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알게 됐다라면서 그 자매가 오빠가 와서 독일에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약속 했다면서 신앙생활 하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안한다고 고개를 살래살래 했더니, “김 형제 그러면 안 됩니다.” 한국말 잘해요.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하고. 그렇게만 얘기를 했지 결국은 교회는 안 나갔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기혼자들은 그 당시에 한국에서 와가지고 한국에서 맥주가 상당히 비싼 저걸로 되가지고 보통 일반인들은 맥주를 못 먹을 때였어요. 독일에 와가지고는 흔하다보니깐 또 기혼자들이 와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할일이 없잖아요. 농장 일 안 갈 때는. 그럼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마치고 불링 치기 아니면 이런 걸 하다가 맥주 내기를 해가지고 맥주 박스를 사다놓고 마셔됩니다. 그래 인제 금요일 날 아침반에 일찍 갔다 온 사람이 몇 박스씩 사다가 쟁이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반 갔다 오면 새벽에 들어오는 사람하고 해가지고 토요일 아침에 붙어서 우리 선진들로 온 사람들이 또 안줴감을 많이 갖다 줘요. 한국에서는 옛날에는 돼지 족발 같은 거, 돼지 머리 같은 거, 귀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니깐 그걸 먹고 싶다니깐 선진들이

마대에다 하나씩 갖다 주는 거예요. 족발 같은거. 그래 그거 삶아 놓고 서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보니깐 총각들이야 뭐 처녀들 여기저기 만나러 가다보니깐 그런데 신경 안 쓰지만 우리 기혼자들이야 앉아있으니 그게 일이에요. 그러다보니깐 술도 꽤 많이 마시게 되고 별로 교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썼지요. 그랬는데 한번은 딱 들이 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인제 밤반을 하고 아침에 여름이니깐 해가 이렇게 흰해져가지고 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지하에서 일해가지고는 바로 나와서는 칸티네(Kantine, 구내 식당)에서 맥주 한 병씩을 마시고 보통 집에 가요. 보통 밥 먹고 한숨자고 우리가 또 우리끼리 농장 한쪽에 밭을 빌려가지고 채소를 심어가지고 채소를 거기서 무 같은 거 심어가지고 거기서 한껏 뽑아다가 담궈서 먹고 그런단 말입니다. 한번은 가서 보니깐 거기에 잡풀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한 12시나 돼서 깨워가지고 밥 먹고는 “우리 오늘 가서 좀 저것 좀 합시다. 너무나 밭이 거처 가는데 밭 주인이 보면 얼마나 욱하겠소. 일 좀 하러 갑시다.” 자전거 타고 모페트(Moped, 소형 오토바이) 타고 그렇게 갔었어요. 가다가 그때 6명인가 7명인가 갔었는데 나가 제일 앞에 모페트 타고 가다가 이렇게 차 다니는 슈넬반(Schnellbahn, 철도길)이 있었는데 건너가다 여기서 우리가 좌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좌회전을 하다 여기서 오는 차가 있었어요. 나는 멀리 오는 줄 알고 이 차를 보고는 좌회전을 이렇게 했었어요. 이 차가 얼마나 빨리 왔던지 나를 들이받은 거예요. 깨어나 보니깐 병원이더라고요. “어쩐 일이나?” 했더니 같이 갔던 사람들이 머리맡에 앉아서 울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어찌 된 거요?” 그랬더니. 가다가 삼거리에서 치여서 거기서 완전히 죽었는데 깨어나니깐 이 사람들이 한숨을 놓는 거예요. 암볼란스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옮겨서 보니깐 다리 이런데서 찢어지고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빌레펠트에 사시는 분 사모님이 한국에서 간호원으로 오셨고 남편 되는 분은 한국에서 신학대학 나오셨는데 여기를 초청해가지고 오셨던 분이예요.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매일 오셔가지고 기도해주고 이런 저절 하시는 거예요. “야, 목사님 참 대단하시네. 뭐 이렇게까지 날마다 이렇게 오시고” 그랬는데 다음에 며칠 후에 사건 경위를 알고 보니깐 나를 받았던 사람이 독일 목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며칠마다 오셔가지고는 “헤어 김(Herr Kim, 김씨), 자기가 잘못된 거 있으면은 얼마든지 처벌 받을 테니깐 법적으로 가서 하실 수 있으면 하라고.” 자꾸 이러는데, 근데 내가 보니깐 내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단, 그 양반은 과속을 했다는 거 그걸 인정하더라고. 하기가 뭐 차타면 그렇잖아요. 보통 60, 70도 나올 수 있는 건데 더군다나 독일 사람한테 내가 잘못해가지고 거기 붙어봐야 얻을 건 하나도 없겠고 다행히 다리도 완치도 되고 몇 개월 있으니깐 완치가 되가지고 목발 짚고 병



원 생활 하고 있으니깐, 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오셨던 분이 “김형, 교회 좀 나오고 하세요.”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오셨다 가시고 오셨다 가시고 날마다 그러셨는데, 차마 잡아떼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었어요. 나가도 그게 저저 했는데 또 다음 휴가를 가가지고 그 여동생을 만나니깐 “오빠 교회 나가?” 그래서 “요즘 교회 좀 나간다.” “근데 오빠 왜 십자가 안 차고 다녀?”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깐 십자가 어디 둔지도 생각이 안 나는 거여. 그래서 “휴가 나올 때 십자가 차고 나오냐?” 하면서 핑계 대고 나왔는데 십자가 안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그 다음에 교회를 나가긴 나가도 믿음이 생기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뒤셀도르프에 있을 때 마침 순복음교회가 옆에 있다보니깐 사람을 가만히 놔둬니까? 순복음교회 분들이 상당히 열성적이잖아요. 밤에도 낮에도 텔러오고. 거기서 저보다도 한 몇 달 늦게 오신분이 있는데 최상호 씨라고. 지금 중국 가서 목회 생활하시는데. 이 양반 보니깐 가게를 하는데 그 양반은 가게 문 닫아 놓고 남 성도들이 이사를 하면 이사를 도와주고 그래요. 그러니깐 집주인이 넌 장사 치우고 차라리 목회를 해라. 그래야지 너는 장사할 사람 못 된다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을 막 저걸 하다보니깐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게 됐었어요. 그러다보니깐 막 육성회도 가고 여기저기도 가고 또 LG로 가서 근무하니깐 한국 사람들 그때 보통 주재원 나와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았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 전도도 해야 되겠고 우리 토요일은 우리 집이 뒤에 가르텐(Garten, 정원)이 크게 있었거든요. 한국식으로 불고기해서 맥주에다가 먹이고, 우리 출장 나온 사람들도 같이 어울려가지고. 그래서 토요일마다 하다시피 했어요. 여기 한국학교 여기 왔다가 오면서 생선 라흐스(Lachs, 연어) 말고, 납작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산 저걸 사와가지고 나보고 잡으라고 해가지고 저녁에 술들 먹고, 일요일 “넌 일요일 꼭 교회들 갑시다.” 그래가지고 교회들 데리고 가고 처음에 거기 가서 만하임 순복음교회를 좀 다니다가 그 목사님이 미국 들어가시는 바람에 성결교회로 같이 모든 사람들이 갔었지요. 지금 그런 분들이 한국 가서도 신앙생활들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은혜 받은 사람들 아까 강 과장이라는 사람도 나이 젊은데 돌아가셨고, 또 이충성 씨라는 부장이 옛날에 테레비 TV 담당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람 좋고 그러더니 전번에 누구 여행 시켜 달래서 여행시키다 얘기 하다보니깐 그 사람하고 잘 아는 이웃집에 살았다나요. 글구 죽었다고 그러더라, 그러더라고. 참 그 사람도 좋았는데 빨리 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가 지금까지 저걸로 봐가지고는 저는 고생은 많이 했지만은 절대 고생했다는 걸 후회는 없고. 단 자신한 것은 남한테 큰 피해 주지 않고 그건 장담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두 아들들

저 정도는 됐으니깐 뭐냐, 그래도 별로 걱정은 없고. 앞으로 저 아까 얘기 했지만은 좀 어떻게 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연금 들어가면은 늦더라도 공부 좀 해가지고는 내 삶에 대해서 거적을 좀 쓴다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절대 해는 끼치지 않고 좀 저거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럼 한국 가서 다시 학교를 다니고 싶으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돈 많이 없어도 한국에 웬만한 아파트 하나 정도 살 정도는 되니깐 한국에서 있다가 여기서 있다가 완전히는 들어가지 않으려고요. 여기는 손자도 있고 애들도 가끔 봐주라고 하니깐 애들도 봐줘야 하고 며느리고 일하니깐 봐줘야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될 때까지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학교도 벌써 알아보신 데도 있습니까?** 늦은 공부이기 때문에 학교는 제가 지금 여러 군데 혼자 인터넷에서 알아보고 있고 정식 4년제 대학 다닌다는 건 상당히 힘든 것 같은데 한번 노력해보겠어요. 여기 보면 67세 된 사람도 공부해가지고 저거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가 지금 말만 앞세운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 한번 노력은 해볼 거예요. 내가 한번 두 가지 학교를 다닌다면 두가지 중에 생각을 해봤거든요. 신학을 할까? 문학 쪽으로 생각을 할까? 특이하게 또 나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1.5세, 2세 들이 신경 쓴다는 게 너무나 고마운 일이에요. 이런 일이 잊지 않고 있다는 일이고 이럼으로써 또 많은 몰랐던 사람들 알게 될 거고 말입니다. 우리 2세들이. 참 고맙습니다. 참 재미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남부 글뤽아우프회 모임 있을 때는 이런 즐거운 말 한번 해볼랍니다. 그때는 다 우리 광부 출신들만 모이거든요. 부부동반이지만은, 여자분들은 따로 뭐 얘기를 좀 하겠고. 혹시 이런 책자가 나온다면 구입을 할 수 있을런지? 저도 제 앞전에 실은 몇 권을 누가 주더라고요 한국에 들어가 있는 광부 출신들 많잖아요. 동료 친구들, 출신들 몇 권 보내줬었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 면담 개요

<b>구술자</b>	김창선 (전 파독광부)
<b>면담주제</b>	파독광부의 생애사
<b>면담일시</b>	2012년 9월 28일, 10시 10분 ~ 12시 30분 (140분)
<b>면담장소</b>	구술자(김창선) 자택, 프랑크푸르트
<b>면담자 1</b>	이유재 (튀빙겐대학 한국학과 교수)
<b>면담자 2</b>	이선영 (튀빙겐대학 한국학과 연구원)

# 나복찬

# 나 복 찬

- 1948 서울 출생  
대학 입학 후 학생운동(노동운동) 참여
- 1972 유신 전에 군 입대  
군 제대 후 가와무라전기 한국 대리점, 삼립유지 서울 대리점 운영,  
구로공단에서 행상
- 1977 파독광부 2차 47진, 아헨 Eschweiler Bergwerk Siersdorf 옴  
광부 일이 어려워서 1978, 1979, 1980년에 완전 귀국을 목적으로  
한국에 갔다가 다시 독일로 돌아옴
- 1980 한국에서 결혼
- 1981~2008 독일 뒤셀도르프 철광회사 만네스만에서 근무
- 1999~ 독일 내 교민신문 『교포신문』 기자
- 2005/06~ 재독교민 1세대를 위한 쉼터 공간 계획 중





## 광부로 오기까지의 삶

---

저는 파독광부로서 독일에 왔습니다. 1977년도에 왔는데, 일단 오기 전 상황을 좀 소개를 함으로써 제 본인 소개랄까 하는 것을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던 1948년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이 고려 말 때부터 그곳에서만 계속 살아왔습니다, 서울에서. 그래서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특이한 것은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꼭 학교를 두 번씩 다녔어요. 국민학교도 두 군데 다니고 중학교도 두 군데, 고등학교도 두 군데. 대학도 두 군데나 다니다가 대학 졸업도 못하고 군대 갔다 와서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독일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세대가 그만큼 쉽지 않은 세대였다고 하는 겁니다. 해방되고 나서 휴전되고 나서 그 어린 시절에 옮겨다닐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중학교 들어오면서 4·19, 5·16이라는 한국이 겪어야 했던 어려운 시기,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엔 한일 국교정상화랄지 데모, 그리고 대학 시절에 역시 이어지는 모든 그런 데모로 많은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학교에서 정학, 무기정학 같은 일을 수차례 걸쳤고. 그 대학 역시도, 제가 전공은 두 번째 전공은 화학공학입니다마는, 화학공학을 마치지 못했지만 하튼 저 교회에서 장로님이 화학을 공부해서, 당신 하시는 회사를 좀 맡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전공을 바꿔가면서 공부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면은 조용하진 못한 그런 성장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에 오기 전에는 백양표 메리야스라고 하는 데하고 일신제강에 들어가서 노동운동도 좀 했었어요. 그 당시 노동자들 앞에 서서 뭐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웃음] 결국은 그분네들한테 도움도 못 주고 결국은 피해만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다가. 제가 개인 사업을 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개인사업을 하다가, 그것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지도 않고 해서. 이제 어느 날 제가 구로공단에 있는 친구들과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행상에 나섰어요. 제가 행상에 나섰다가 거기서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의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 당시에 외무부에 사무관으로, 그런 위치에 있드라구. 그 친구, 아니 너가 왜 여기서 이걸 하느냐고 그래서, 아주 근로자들 속에 들어와서 행상하지만 이렇게 내 사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 덕에 이렇게 독일에 온 게 된 겁니다. 독일에 와서도 이런 광부 교육을 한국에서 받지요 다들. 광부 교육을 받지마는, 그 힘든 일을 안 해봐가지고 [웃음] 독일에 오니까 그 힘든 일을 내가 감당을 하질 못하겠더라고. 그래 이제, 독일 생활을 접고 11개월 만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을 가서, 또 그것도 어떻게 한국에 가서 살려고 하다보니까는 지금 저의 집사

람을 그때 만난 거예요, 한국에서.

## 독일 정착과 한국의 사정

---

그러니까 11개월 계시다가요? 그렇죠. 그 이듬해에 독일 생활을 접고 어떻게 도피를 한국으로 한 거죠.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지금 집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중간에서 포기한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3년 계약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내 자신으로도 허락지 않고 해서 다시 독일을 들어왔죠. 36개월이라는 기간을 채우려고. 다시 들어왔는데, 또 그것도 진득하니 하질 못하고 그 이듬해에 또 나갔어요, 한국을.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염려스러운 게 그 이듬해에 광주사태도 나고 했습니다마는 아주 국내상황이 좋지 않았습시다. 그래서 79년도에 우리 박 대통령의 대권, 10월 달. 79년 10월에. 그래서 그 대권이 임박해서 한국이 조용하지 않대는 소리를 듣고 한국을 다시 나갔어요. 한국에서 뿌리를 붙일래면은 일찍 빨리 나와야지 여기 독일에서 그렇게 오래 있을 수가 없겠드라고. 그런데 국내상황이 박 대통령 그런 문제가 있고 나서 더 조용치 않은게 된 거죠. 그 당시만 해도 독일에서는 간호원하고 결혼하지 않으면은 한국을 갔어야 돼요. 나는 한국에 결혼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걸 접고 가야겠다 하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에 마지막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가겠다고 하신 여러 분이 계셨는데, 결국은 비행기 탈 때 보니까 혼자드라고. 그래서 아, 그분네들이 가지겠다고는 했지만은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다시 독일에 더 머물려고 하시느냐 잘들 계셔야 될 텐데, 하고 저만 이제 단신 귀국길에 오른 겁니다. 그래서 귀국길에 올라서.

그게 언제였죠? 그게 80년. 광주사태 나고 한 6개월 지나서요.

그때 이제 36개월 계약을 다 만료하고요. 그렇죠, 이제 끝났죠. 끝나고. 이제 지금 뒤셀도르프에 사는 한 친구 결혼식을 마지막으로 사회를 보고, 그날 밤에 일본 항공 편으로 귀국을 했죠. 근데 한국에 가서 이제 결혼을 하고 생활을 하다보니까, 80년에 결혼을 했죠. 한국에서. 결혼해서 살다보니까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야 한국이. 그 이듬해에 제가 한국에 갈 때 독일 교회에 장로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원자력발전소에 근무하

던 분인데, 그분이 당신 전공이 있으니깐 자기네 발전소에 있지 뭐하러 자꾸 한국에 가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그 주정부가, 총리가 라우였어요, 요하네스 라우(Johannes Rau 1931~2006, 1978~1988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지사, 1999~2004 독일 연방대통령 역임). 그 당시 그분이 우리 인제 교회 계통이구 우리 한인들이 그런 서명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한국 정세가 이렇고, 못 돌아 가겠다. 그래서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에 최소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이라도 그런 자유를 주자 해가지고 광부계약이 끝났어도 안 가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 하게도 광주사태하고도 굉장히 엇물려 있는 거예요. 한국이 저렇게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면은 이분네들이 정말 독일 사회에서 독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3년간 수고하신 분네들인데 이분들을 기간이 됐다 그래서 돌려보내는 것은 온당치 않은 일이다, 하고 인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도 그걸 인제 완전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독일에서 이렇게 성장하셔서 다들 아시겠지마는, 얼마나 신사의 나라야. 독일이. 그렇게 해서 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이듬해에 원자력발전소에 있던 그 독일 교회 장로분이 항공권을 보내줬어요, 다시 들어오라고. 그 거기 취직을 하라고. 그와 동시에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독일에 기계공구가 굉장히 인기였어요. 고가품이지만은.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하튼 특수철로 만들어진 기계 공구가. 한국에는 기계공구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조합장에 공구하시는 분

선배분인데, 한 번 저한테 제안을 하드라구요. 너는 독일에서 근무도 하고 독일말도 잘하고 하나까 자기 대신 가가지고 한국 에이전트(agent)를 하나 해갖고 나오면은, 니가 에이전트 대표로서 걱정 않고 살 수 있으니깐 한번 그걸 해봐라. 그래서 우연찮게 다시 독일로 그 항공권을 독일 장로님 편에 받아서 들어오게 된 거죠. 다시 들어와서. 결혼하고 그 이듬해니까 신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갓집에 길어야 한 3개월 이내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다시 왔죠. 근데 그때 3개월이라는 걸 30년이 넘었죠. [웃음] 그래서 그렇게 삽니다. 독일 회사에 그 이후에 원자력발전소로 그 방향을 그쪽으로 하지 않고, 그곳은 마침 딱 아헨(Aachen)이에요. 그리고 아헨은 저희가 살기에는, 거주환경이 그렇고. 그래서 이쪽 뒤셀도르프(Düsseldorf)로 나오게 된거죠. 저희 섬기든 교회도 제가 아헨 한인교회였습니다. 아헨 한인교회에서 뒤셀도르프로 오니까 자연히 뒤스부르크(Duisburg)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는. 뒤스부르크 한인교회를 출석하게 되고, 뒤셀도르프에 있는 만네스만(Mannesman)이라는 철광회사에 들어가서. 그 한국 분네들이 그전에도 많았어요, 거기에. 제가 들어가니깐 한 50분 정도 되더라고.

근데 그 아우스빌둥(Ausbildung, 직업교육) 그런 쟈트룸(Zentrum, 기관)에서 시험들을 보는데, 미적분정도까지 그렇게 보고 하드라구. 그러더니 그전에는 왜 그런 시험들을 안 봤었는지 몰라, 그전에도 많은 분네들이 계셨는데. 그랬으면 좀 대우를 받았을 텐데, 그분네들도. 그러드니 그다음부터, 시험 본 성적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배정을 해주드라고, 일자리를. 일자리를 옮겨서 거기서 인제 따로 또 직업훈련도 따로 받고, 그래서 아주 편하게 직장 생활을 했어요.

## 은퇴자 쉼터(Seniorentreff) 운영의 목표와 계기

직장 생활 하다가, 제가 할튼 우연한 기웁니다. 제가 이천 한 오륙년경 된 거 같아요, 가을에. 제가 시내에는 자주 버스나 전차를 타고 다닙니다. 근데 한번 버스를 타고 시내를 가는데, 웬 길가에 그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길가에 의자가 있는데 웬 한국분이 거기에 앉아게 시드라구요, 지팡이를 들고. 그래서 제가 시내에 갔다가 일을 보고 들어오는데 그 두 시간이 넘었어요, 두시간이 아마 더 경과했을 거 같은 그 시각인데, 그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드라구. 그래서 그다음 정거장에서 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글로 갔어요. “여기 이렇게 불편해서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옛날에 6·25 때 경기고등학교 출신이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총리 하던 조순, 한국은행 총재 하던. 그런 분네들하고 다 동창이라고. 아주 유식하신 어른인데, 거기 그렇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알았어요, 그분이 가정불화가 있대는걸. 근데 그렇게 아침 잡수시고 나오셨는데 가실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얼른 생각에 아, 내가 회사에 다닐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뭘 내가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났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늘 저 나름의 노력은 합니다마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된 그것대로 행동을 하면서 살려고. 그러다보니까 집사람한테 구사리만 많이 먹죠. 그분을 위해서 뭘 해야겠다 하고 회사를 나올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당장은 못 나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인제 기간을, 3년 기간을 두고 그럼 인제 후임자를 물색해서 해놓기로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3년 경과 돼갔고 회사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제가 약속은 안 했지만 제 마음속으로 약속을 했어요. 이분을 위한 내가 시설을 꼭 운영을 해야겠다. 그리고 인제 우리 집사람한테 양해를 구하고, 나도 어렵지마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대는 거를 보았다. 그래서 이 일을 해야겠다고. 근데 기꺼이 인제 도우미를 해주드라고 아

내가. 근데 그분을 위한 시설이라는 게 뭐냐면 제니오렌 트레프(Seniorentreff, 은퇴자 쉼터)라는 거예요. 제 눈에 띈 거는 그분 한 분이였지만 이 주변에 그런 분이 많이 계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뒤셀도르프 중앙역 앞에다가 제가 자리를 찾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한 부동산 업자를 만났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깐 업자가 그런 공간을 다른 일반 시중 임대하는 것보다 한 20~30%라도 싸게 해주겠노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작을 하게 됐어요. 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복덕방한테 내가 소개를 받은 조건하고 틀린 거예요. 바로, 계약하려고 보니까, 그 유대인, 그 백만장자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인색한지. 그 복덕방한테 내가 소개받기에는 이렇게 받았으니깐 이런 사항이 안 지켜지면은 나는 서명을 못 합니다, 이러니까. 그게 불과 이백 몇 유로(Euro)였잖아. 그런데도 그 유대인 백만장자는 이백몇 유로에 계약을 않더라고. 그래 제 생각에, 이백몇 유로에 백만장자가 내가 좀 버티면은 좀 해주겠지 했더니 양보 안 트라고, 결국은. 그래서 딴 사람한테 넘어가드라고. 반호프(Bahnhof, 역) 앞에 장소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반호프이냐 하면은 이 주변 그, 루르게비트(Ruhrgebiet, 루르 지역)에서 에스반(S-Bahn, 독일에서 도심지와 교외를 연결하는 광역 철도의 명칭)이 아주 빈번하게 다녀요. 반호프 앞은. 그래서 이제 반호프에다 그런 시설을 하면은, 제가 그 당시에 모든 경비 중에 한 10%씩 어디 댈 만한 데를 제가 어디 주선을 했고, 그 기업도 그렇고 여기 공간도 있습니다만은, 또 상징적인 수준이 됐든 시에서도 받고. 모든 게 다 완벽히 됐는데 그게 건물임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한 시설을 우리가 새로, 뭐 시설 개선을 할 순 없으니깐. 기존 시설, 거기다가 이런 분네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었다가는 시설로서 합당한 시설을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걸 못 보고. 그래서 제가 그분께 약속은 안 드렸지만은. 하튼 제가 그건 정말 가슴을 치구요, 제가 후회하고 있잖아요, 살아생전에 계시실 때 내가 그런 걸 해서 꼭 몇일이래도 모셨어야 했는데, 하는 그런 것이 제가 늘 여기에 [가슴을 가리키며] 지금 맺혀 있고. 사실 뒤셀도르프는 이 주변 동네에서도 그래도 윤택한 동네예요, 우리 한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튼 그런 보호 시설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하튼 제 레벤스아우프가베(Lebensaufgabe, 인생의 숙제)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시간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시간을 교회에 와서 이렇게 봉사과 일을 하는 데. 교회의 역사 남기는 일도 그렇고. 하튼 마침 또 내년이 파독 근로자 50년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가족 이야기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가족배경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주세요. 가족은 저희가 7남매입니다. 7남매인데, 아버님께서는 일정 때 일본 친구들과하고 토건업(土建業)을 했었어요. 서울에 이제 현재 남아있는 건물 중에서, 예를 들어 한국은행 본점 앞에 제일은행 본점이 있었어요. 옛날에 다 일정 때 세운 거죠. 그런 건물. 그리고 고려대 전신인 보성전문. 그리고 왜 서울우유 있는, 저 중랑천 넘어 갈려면 중랑 걸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랑천. 그리고 이북에 있는 장안제변소. 뭐 이런 것들을 그 일본 친구들과하고 같이 토목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다보니까 7남매는 서울에서 크고, 그 일정 때 그 만주 쪽에 나가계신 분네들이나 운동하신 분네들은 속병들이 다 있죠. 그 한국이 해방되고, 그전에 자주 오고 가고 했습니다마는 해방되고 일본 친구들과 결별하고, 토건업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망한 거죠. 많은 부분을 하든 일본 친구들과 완전 결별하는 바람에 거기서는 한푼도 안 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해방 이후에 뭐 반민특위랄지, 뭐 일본 거를 청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은 그 함께 이렇게 이룬 거에 대해서 모든 걸 딱 끊었다 그러드라구요. 일단 우리 민족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하고 사춘동생하고 그런 분네들은 많은 운동을 했어요, 만주 쪽에서. 삼춘은 독립유공자시고, 사춘동생도 독립유공자로서 지금 대우도 받고 그런다고 그러드라구요. 근데 뭐 그분도 이제 90 다 돼가고, 다 돌아가시게 됐고.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해서 토건업을 하다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게 망했으니 뭘 하나 해서, 한의학을 했어요. 그래서 한의사가 됐는데, 한의사 해서 당신이 어떻게 집안을 위한 돈버는 일보다는. 한의사로 예를 들어서, 우리 휴전되고 나서도 제법 뭐 국민학교 들어갈 정도 됐는데도 오줌싸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 거를 전부 무료시술을 해줬어요. 그렇게 무료시술을 해주다가 4·19 나는 해에 그해, 12월에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국민학교, 아니 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아 이때부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나는 혼자 일어서야겠구나. 그때 내 위애가 형제 셋, 전부 학생. 근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사인이 간경환데, 4·19 나던 날까지 우리 한국에서 그 간경화를 고칠 수 있는 병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적십자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3년 동안 계셨어요. 그니까 모든 건 다 병원비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집하나 남겨놓고, 다른 거는 다 없어지고. 3년 병원생활 하신다 그러면은 남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4·19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저희 7남매가 전부 학생인데, 7남매가 정말 하나님 안



에서 큰 거예요. 아무 탈 없이. 7남매가 전부. 그래서 커서 뭐 지금 다들 나이들 먹어가지고 지냅니다마는 저희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애들을 7명이나 남겨놓고 이렇게 가시면 이거 어떡하라는 말이야. 근데 이제 켈 막내 결혼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드라고... 하나님께서 계시냐 안 계시냐를 누가 물어본다면, 저 집(구술자 집) 가서 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 그 7남매가 곁길로 가지 않고 그냥 올바르게 다 키운, 저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그렇지 못했다. 그 우연찮게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의 아주 제일 친한 친구의 아버지라고 그러시드라고요, 그분이. 그 내가 여기 독일에 있대는 걸 알고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아들이 자기 친구인, 이 독일에 있는 친구 목사한테 전화했는데 친구 목사의 교인인거야 나는, 또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런 저런 일을 다 간섭하시지만, 이런 일까지도 다 간섭을 하시는구나 하고. 그게 감사히 생각하고 있죠. 7남매는 그렇게 해서 아무 탈 없이 다 가정 이루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 노동운동의 계기, 그리고 영향

그리고 학창 시절 때부터 데모나 시위 같은 걸 많이 하시고 대학교 때는 노동현장에서도 일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계기로, 그렇게 하시게 되었습니까? 제가 그 아마 4·19 때부터 그랬든 거 같아요. 4·19 때부터 그 당시에 뭐 역사적인 일을 뭐 잘 아시겠지만, 3·15 부정선거 또 뭐 마산에서. 정말 그런 학생 뭐 최루탄이. 물론 인제 해서 물에 빠진 사건, 뭐 이래다보니까 그 당시 중학교 학생으로 좀 이른, 이른 데모 행렬이죠, 사실은. 또 그렇게 하면서 제가 거기서 뭘 경찰들하고, 하튼 군인들의 그런 것을 보면서 아휴 이걸 이래선 안 된다 생각했죠. 한일 국제정상화 할 때 보면은 그때가 인제 고1, 고2, 우리들이 그랬다고. 군인들이 청와대 앞에 틀어막고 있는 애들이 다 뭐 우리 선배 아니야. 선배들이 우릴 어떻게 이러느냐, 그러니까 그 어떤 위의 권력에 그냥 움직여야만 되는. 하튼 난 그런 것이, 저건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하튼 그런 것이 저는 그 어려서부터 그렇게 있었던 거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속에 흐르는 뭐가, 그런 게 있는 거 같애. 지금 내 자식들을 보면 그런 기질이 있드라고. 저건 뭐 누가 가르쳐줘서도 아닌데. 예를 들어 한국 유학생들이 피해를 본대든지 이러면 그냥 가가지고 돕고. 요즘은 예배당도 안 나와요, 이 친구들이. 그렇지만은 그런 걸 해. 교수들한테 가 따지고, 부당하게 왜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경찰한테 많이 가 따지고. 그 지금 우리

아들이 커 가는걸 보면서 생각해요. 난 태어나서 성장할 때 격변기에 자랐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내 영향을 많이 받은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그 바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내가 뭐 어차피 피해 보죠. 그거를 눈을 돌리면은 피해를 안 보지. 그렇지만 거기 그 앞에 나서는 거예요, 나서. 그리고 그런 것이 군대 생활 할 때까지도 보면은, 항상 그런 기질을 통해서 어떻게, 겉으로 보기에는 피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부류로 취급되고 그렇게 살아온 것 같어요. 그러나 지금 저희 큰애도 스칸디나비아(Scandinavia) 그쪽에 가서 사업을 하다가 또 저 유고(Yugoslavia 유고슬라비아) 쪽으로. 전쟁지역이었던 세르비아(Servia) 그쪽에서 일하고요. 하튼 저는 그렇습니다. 니가(아들) 뭐 하든 심사숙고해서 내린 판단이겠거니 하고 놔둬요.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런 데에 갈 때, 자기 엄만 만류하죠. 그러면은 이 친구 하는 말이 그래요. 아휴 아버지는 뭐 그 옛날에, 한국에서 독일을 왔는데 내가 유럽에서 유럽을 가는데 어쩌드냐고 그러면서, 그 뭔가 그런 모험적인 그런 게 지 아버지한테 내려갔나 하는 생각도 해요. 근데 제가 휴전되고 나서, 휴전이 53년도에 됐는데, 그 이후에도 저는 어렸을 때도 그런 걸 봐요. 술집 같은 델 돌아다니면서 어렸을 때, 거기서 약주를 늦게까지 드시는 어른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어릴 때에도 애들 여럿이 모아 갖고, “아이구 빨리빨리 나오세요. 맥에 모셔다 드릴게.” 그래서 썰매 태워서 막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그랬든 기억들이 나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저희 집사람한테 누누이 듣던 얘깁니다. “아니 자기 앞가림이나 하지, 남들을 위해서 저러고 산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웃음] 그래 이제 최근에 들어서도 그렇습니다, 뭐, 이런 생활이 연금으로 들어서다보니까는 아무래도 그 직장 생활 할 때만치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그러나 그거에 위축되지 않고 그대로 할려고 하니깐, 내가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더 살아야 되고. 하튼, 오늘 이 시점까지 온 것이 정신적인 그런 기질이 나를 이렇게 좀 버텨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대학 시절에 노동운동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뭐 인터뷰 처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뭔가 해볼려고 했습니다마는, [웃음] 오히려 그분들한테 피해만 드리게 된 결과였는데 하튼 죄송스럽고. 제가 그 당시에 활동했던 회사가 최근에 아마 동국제강으로 됐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철광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네들이 12시간 근무했어요. 그걸 제가 들었어요. 12시간 하고 바로 퇴근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잔업이라고 하는 걸 시킵니다. 그 잔업 하는 것을 시키는데 그것을, 잔업을 돈을 안 주는 거예요. 12시간만 돈을 주고. 이걸 도저히 있을 수가 없

는 일이라고 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신제강에 위장취업을 한 거예요. 위장취업을 했는데 생신과장이래는 사람이 이걸 듣고, 이런 놈은 발을 회사에 못 붙이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가지고 그 회사를 이제 들어가는 거는 포기하고, 근데 그 사외에서 어떤 일이냐면은, 한국에는 공장에서 나오면은 꼭 무슨 포장마차 같은 데를 들려요, 이분네들이. 그럼 모이는 데가 있어요, 항상, 그 근로자들이. 그러믄 그런 데를 가는 거죠. 그럼 가서 그런 거를 제가 취합을 합니다. 어떤 불공정한 그런 대우를 받는지. 그런 거에서 거기서 그런 자료를 제가 많이 취합을 해서, 이제 기왕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는 친구들한테 그걸 제공을 하고, 그런 자료 모은 데든지. 그러다가 제가 백양표 메리야스에서 또 그런 여공들이 흑사당한대는 얘기를 듣고, 제가 거길 갔어요. 거길 가서 그 소공동에 본사가 있는데, 그 당시 그 백양표 메리야스 사장이 백경기 씨라고, 백경기 사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내 여공들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은 12시간 노동이지만 대강 16시간을 노동을 시킨다 그래. 그리고 잔업수당이라는 걸 중간에서 다 누군가 가로채고. 그런 얘기를 제가 수집을 하러 다니면서 들은 걸, 또 인제 현장에서 뛰는 친구들 또 그 소공동 본사에 들어갔더니 하튼 귀신같이 알더라고, 벌써. 그런 소스를 듣고 온 걸로, 미리 다 막아요, 그 밑에서. 아예 입구에서부터 무슨 친구가 온다, 그러면은 그렇게 막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은, 독일에도 유사한 일을 제가 인제 한 거를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군대를 간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 조직에서 활동하셨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활동하셨습니까? 소그룹에서 조직 외에, 밖에서 서포트 쪽에서 더 일을 많이 했구요.

## 군대 시절과 파독 과정

---

학교 때문에 저는 늦게 갔어요, 군대를. 군대에서 유신을, 그 10월 유신이 된 거죠. 인제 그 때 제가 10월 유신 때, 10월 유신 데모 학생들을 제압하러 서울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에? 몇 개월 전 상황이, 내가 인제 진압하는 군인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거부했어요. 난 못 나간다. 거기선 뭐야, 군대 안에서 왕따 당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그러다보니까는 반란같이 느껴지는 거야. 군에 있는 영창으로 보내는 거지. 그 군대 내에서

도, 하튼 조직 내에서 그게 온당치 않다고 얘기만 하면 그건 그 조직에서 사라져줘야만 되는 거야[웃음] 하튼 그런 거를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인제 금방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군대 보직이 미군하고 뿔 연결해가지고 하는 작전 같은 게 많았어요. 근데 그걸 풀 수 있는 거는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창 갔다가도 미군들이 무슨 무슨 연락 해야 될, 무슨 일 하면은 이 친구가 있어야 되니까, 뭐 들어갔다가 하루 있다가 나오고, 그다음 길어보야 2~3일에 나오고. 그러다가 제가 심지어는 군대 있을 때 이 서울까지도 끌려왔었어요, 그런 일로 해서. 그래서 뭐 그것은, 다 하튼 조직과 권력의 그 대들다가 불이익을 당한 경우죠. 그러면서 만기제대를 하고 미국 군인들하고 관계 때문에 제가 미국인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바로 나와서. 바로 나와서 일하다가도 제가 그 머리에서 안 떠나는 게, 노동운동하는 거. 어떻게 저 사람들에 도움이 되는 길이 없을까, 저도 어려웠지만. 근데 그 미국인 회사에서 3개월 반인가 있다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제가 그쪽으로 자꾸 눈길을 돌린 거죠. 그쪽으로 눈길을 돌리다가 그 군대 갔다 온 그 2년 후에는, 제가 그 일본 회사 카와무라 전기라고 하는 그 전기부품 회사에 한국 대리점을 제가 맡았어요. 그것도 맡게 된 게 뭐 내 실력으로 맡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조선일보에 있던 학교 선배 되는 분이, 너 그러고 하지 말고 이 일을 한번 연결시켜줄 테니까 돈 대는 사람은 따로 있었고, 이걸 한번 해보라 그래서 그걸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전기 스위치예요. 전기 스위치, 그 자동으로 전기가 세계 들어오면은 전원이 차단되는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제가 어딜 들어갔냐면은 제가 구로공단에 들어간 거예요. 구로공단을 들어가서 그 당시에 구로공단에 몇백 개 회사, 거길 들어가서 살살이, 납품도 할 겸, 공장 내부를 전부 직공들하고 그렇게 만나게 된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그 여공들 어렵게 시골에서 와서 고생하고 이런 분네들의 글을, 제가 그 당시에 무슨 샘터랄지 이런 글에 제가 많이 알렸어요. 월간지나. 이분네들의 어려움. 그리고 인제 가르치게는 거, 그네들이 대개 보면은 자기 동생들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드라고. 시골에 있는 동생들. 그러하고 늙으신 노부모님들 봉양하고. 아주 한국 현대판 심청이들. 구로공단에 전부 그런 분네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일을 하다가 일본 일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또 있어요. 권력입니다. 그 당시에 그 미쓰비시하고 히타찌 전기가 들어와 있었어요. 거기에 그거 인제 파워야, 그거 큰 회사 파워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은 회사고. 거기서 인제 제일 결정권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한국전력이예요. 나는 작은 사람이고 큰 파워를 지닌 그 큰 회사들하고 싸우는 거야. 거기서 영락없이 정말 요즘 속된 말로 깨지는 것밖에 없는 거야, 지는 거야.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다 갖다 넣는데도 있는 것은 별거 없었지만 거기

다 다 탕진해버린거야. 그리고 나서 구로공단에서 멀어지게 된 거죠. 그다음에 하던 일이 삼립식품이라고 유지회사 있어요. 삼립식품에 인제, 뭔가 나는 가만히 있질 못했어. 뭔가를 해야지.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니까 뭔가 오는 거야 항상, 일이.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하다가 삼립유지 서울 대리점을 했어요. 그걸 하면서 힘이 생긴 거야. 힘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우선 육체적인 힘부터, 왜냐면 무거운 버터, 마가린 이런 거를 차로 어디 납품을 하면은 운전자랑 나랑 같이 날러줘야 되고 이러니까 여기 인제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겼어. 그러다가 제 동생이 군에서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했는데 회사를 어디 취직을 했는데 거기 못 견디겠다고 그러드라고. 그러면은 “니가 이 일을 맡아 하거라. 서울 대리점을 맡아서 니가 하고, 나는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리고 나는 노상을 끌, 리어카를 마련해서 글로 들어간 거예요. 구로공단에. 구로공단에 들어가서 남는 게, 예를 들어서, 남는 거는 여직공들한테 전부 줬어요. 과일도 있고 리어카에서 남는 거 다 주고 그걸 끌고 용산, 리어카 보관소에 갖다 놓고 인제 거기서 그 당시에 집이 북아현동이였으니까 거기서 걸어옵니다. 천천히 걸어오면서 내일 이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 참 도움 일이, 뭐 보족한 수가 없을까... 늘 이런 궁리를 하면서 다니다가, 지금 그 외국에 있는 그 친구를 만난 겁니다. 인제 그 친구가 이거 자기가 다 사겠다고 그냥. 아니 뭐 다 살 필요가 없고 남으론 이거 여기 또 가져가는 분네들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래니까. 아니 뭐 그렇다면 자기가 산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끌고, 둘이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구로동에서 용산까지 걸어온 거예요. 그 친구랑. 그래 인제 용산에 과일 도매를 거기서 받아요. 그럼 인제 거기다가 보관소에다 맬겨놓고, 이 친구 집이 어디 나면 마포데, 마포까지 또 걸어왔어. 거기서, 용산에서.

용산에서 마포로 원효로로 해서 이렇게 해서 걸어서. 인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거기서 얘기하는 거야. 자기 형도 파독광부로 갔다 왔는데 형이 잘 살아요. 자기 형도, 덕근이 형도 그랬는데 너도 한번 독일가는 걸 생각해봐라. 이렇게 한국에서 안 풀리면은 한번 독일을 갔다 오는게 어떠냐? 난 독일은 전혀 생각치도 않고 있었는데 독일을 내가 무슨 재주로 가냐. 당시에는 전부 돈도 들고 백 없으면 독일로 못 왔어요. 파독간호사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파독광부들은 그랬어요. 근데 백이 아무리 있다 해도 실제 가마니도 들어야 되고, 실제 그 60킬로 그걸 들어야만 됐고, 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삼립유지를 하면서 짐 날르든게 도움이 되었어.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근데 나보다 더 힘 좋은 사람들도 그냥 들지도 못하고 뭐 그러드라고. 근데 나는 가서 그냥 가볍게 들은 거야. 그니까 아, 이게 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가마니 들라고 날 그 일을 시켰나?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그

리고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제가 오늘 그거 쪽 얘기를 안 하고 갔다가, 제가 거기를 가서 가마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거길 가서 가마니를 들었내, 그래서 친구의 개 덕근이가 얘기하는데, 거길 한번 가보라 그래서 갔다 그러니까, 어 너 가고 싶어? 독일을 가고 싶어? 그러드라구요. 하도 뭐가 잘 안 풀리니깐 그 친구 말로는 한번 가보라 그러는데. 아 너가 가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그러시더라니까. 그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제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독일에 오면서 공단에서의 그런 일, 노동운동하던 걸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 독일 광산에 와서 이제 다시 그 기질이 나타나는 거야. 그 당시에 그 광산에 저기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 광산의 부당한 처우와 작업장 이야기

**어느 광산에 오셨었죠?** 저는 77년도에 아헨(Aachen)에 왔죠. 근데 파독광부가 근무하는 광산에, 그 통역 맡으신 분네들하고 일반 근로자들과고 그런 알력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알력이 유별나게 보이는 거예요. 저건 부당한 거다.

**어떤 알력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노조 회의를 하면은 분기에 한 번씩 있어요. 그러면은 노동조합에 자기가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는 노동 조합비를 내요. 노조비를 낸다고. 그러면은 노동조합에서는 그걸 받아서 일부를 분기에 한 번씩 만나는 모임에서 돌려줘요. 돌려주고 그 나머지 돈 가지고 그 조합에서의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한국 조합원들한테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분네들은 한 푼이라도 귀하다고. 예를 들어서 그 100마르크(Mark)를 갖고 사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러면 거기 가면은 얼마큼을 받나면, 20마르크를 그렇게 받아요, 그 회의에 참석을 하면은. 근데 그 행방을 모르는 거야. 참석하라고 통보도 안하고, 그 회의 이제 끝나면은, 누가 가짜로 참석한 걸로 해서 돈을 가로채고. 이런 것들이 제가 있었던 광산에서 그분이 꼭 그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유사한 일들이 통역들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러겠지만. 그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들은 그게 피해인거죠.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사람은 아프다고 그래요, 근데 때린 사람은 살살 때렸는데? 때렸다고 하는 자체는 자기는 살살 때렸든, 힘 있게 때렸든. 맞는 사람 입장에서



는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픈 입장을 나는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깐 뭐 사실 또 미움도 사죠.

그래 저는 하튼 하지 못하는 독일어지만,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많이 다녔어요. 은행으로부터 병원으로부터. 많은걸 그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저보다 일찍 온 사람들도 날 데리고 그런 델 다녔어요. 좀 나 억울하니까 이것 좀 얘기해달라, 경찰서 가서 얘기하고. 하튼 그렇게 다니면서 저 분네들한테 내가 그래도 도움이 된다면... 그래 인제 거기서 얼른 또 생각을 해낸 게, 부식 장사를 생각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굉장하들 비싸게들 사다먹어, 다른 데에서. 그래서 내가 그 여럿이 공동으로 사는 기숙사에다가 모든 부식 갖다놓고 문을 열어놔 버렸어. 그래놓고 가져가시는 분네들이 가져가고 거기다가 적어놓고 가는 거예요, 나도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나는 광산근무를 가면서 문을 열어놔요. 그러면은 누가 와서 뭐 쌀 한 포, 맥주 한 병 적어놓고 가. 그럼 그걸 얼마, 그 당시에 저 본(Bonn) 같은 데에서 김다현 씨 하던 데서 가져오는 거야, 물건을. 그러면은 제가 거기다 적어놓습니다. 치부책에다가 고추장 원가 1마르크 30. 판매가 2마르크 이렇게 적어놔. 그러면은 고추장 항목에는 거주하시는 분이 거따 적어놔. 아 친구가 70센트 80센트, 페니(Penny, 유로 화폐 전의 센트에 해당)지, 이걸 남겨먹네? 이걸 알고 가지고 가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인제 주말이 되서 재고조사를 해보면 한 1/3은 안 적었어요. 그래도 밀지지는 않아. 그만큼 이윤을 보도록 가격을 매겨놔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 이분네들한테 이렇게 하면 도움이, 그리고 밀지는 건 아니잖아. 본전은 되는 거예요. 본전 되고 이분네들이 편하게 갖다먹고. 그런 거를 광산 끝날 때까지 했어요. 광산 끝날 때까지 했는데 미수금이 하여튼 몇 천 마르크 댕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갈 때마다 거따가 써놓고 간다고. 제가 다음 달 며칠날 갑니다. 그러니까 형편 되시는 분네들은 외상값 좀 [웃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데 한분도 안주더라. 내 간다 그러니까 고 기간만 넘기면 되는데, 그걸 줄 리가 없지. 그럼 날보러 참 멍청이라 그래, 멍청이라고. 근데 저는 광산에 들어갔는데, 아주 굉장히 돈을 많이 주는 자리를 들어갔어요. 그게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 줄을 잘서야 된다고. 근데 나는 일을 못하는데 노동을 많이 요구하는 자리면서 돈을 많이 주는 자리로 내가 들어갔어.

**그게 어딴니까?** 그게 인제 판차슈탈(Panzerstahl)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굴을 먼저 파고 나가는 데예요. 그러면 뒤따라오는 그 부대들이 석탄을 캐는 거죠. 그러니까 석탄 깬 데를 미리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나는 힘이 부쳐가지고 도저히 못 하겠드라고. 그러

고 이 삽질 같은 걸 하는데, 삽이 안 들어가요. 이 삽이 들어가야 뭘 어떻게 하는데. 안 들어가서 그 독일 분네들이 요령을 알려 주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너 분명히 이런 경험도 없이 독일을 왔다고. 하튼 내가 열심히 배우겠노라고. 그거를 해가지고 한 3개월이 됐어요. 그 월급이 틀려요. 쉬운 일을 하시는 분네들하고 한 40% 차이가 나, 봉급이.

**그럼 그때 얼마쯤 됐습니까?** 그때가 한 천, 천한 육백마르크 정도 됐나봐요. 1,600마르크. 근데 쉬운 일을 하시는 분네들은 1,000마르크 받는 거야. 근데 정말 일 잘하는 분이 계셨어요. 저 경상북도 대구 사람인데. 근데 내가 그 부식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와가지고는 한번은 푸념을 하더라고. 그분이 부식을 사러 와가지고 한탄을 하시더라고. 얘기가 들어있대요. 나는 그때 총각이었고. 근데 그분은 3년 동안 노동을 해서 가져갈 돈을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당신이 하시는 그 작업환경에선 도저히 그 돈이 안 모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한탄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 그러세요? 그럼 우리 자리를 바꿉시다. 나는 어차피 힘이 부쳐가지고 일을 못하고, 근데 형께서는 그 일을 충분히 해내실 것 같으니깐 바꾸자”고. 근데 우리 막 신참들이 뭘 어떻게 바꿔.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서 작업을 어디서 합니다. 근데 형이 그쪽으로 가시오. 그럼 나는 안 가버릴게, 나는 결근 할 테니까 그 자리를 가.” 그러면은 한 놈이 있어야 되는데, 그놈은 오질 않았는데 다른 한국 사람이 왔거든. 그럼 그 사람을 시킬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피를 낸 거야. “내가 아예 출근을 안 할 테니까 형께서 그쪽으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거는 일도 못하는 친구는 오지는 않고 독일 친구들이 보니까 이 사람 갖고 일을 할 수밖에. 그니까 이 사람하고 일을 하니깐 일을 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어우 그 사람들이 아쉬웠겠지, 또 그 일 못하는 친구가 또 오면은 애는 또 자기 자리로 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한 3일을 안 갔어. 3일을 무단결근하면 해고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통역한테 얘기를 했지, 내가 급한 일로 하튼. 그 이틀까지는 무단결근이고, 3일째 그 얘기를 좀 통보를 하라고. 내가 급하게 저 병은 났는데, 내가 오늘까지만 쉬면은 병이 다 날 거 같다고. 그것 좀 통보 좀 하라고 그랬더니 통보가 됐어. 그래서 해고는 안 됐지. 그래서 3일째 이래 돼가지고 불현듯 거기를 텔레텔레 갔지, 어 너 3일 동안 저기 결근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했대. 어? 그러냐고 속으로는 어이고 고맙습니다 이러면서도, 아니 그런 법이 어딤냐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 일자리로 당신이 가게 돼 있으니까 글로 가라 그러드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일자리는 돈은 조금 벌지만 편한 자리야. 그래갖고 이분이 그 나머지 3년 근무기간 동안 거기서 계속 일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직급도 높아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가지고 난 계약이 종료되어 한국 갈려고 하니까, 그분은 더 근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가야되니까, 그러면은 하여튼 돈 많이 벌어서 한국 가시라고 그러고 갈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한국에 그 저기 (구술자) 주소를 가르쳐달래. 어이 왜 그러냐니까 내가 안 해도 300만 원은 내가 송금을 해주겠다. 왜냐면 나 때문에 나하고 자리를 바꿔가지고 그 돈을 번 게, 하튼 800만 원 이상을 더 벌었다고. 내가 일자리를 그렇게 해줘가지고. 그러니까는 보통 한국에서 그러잖아, 3·7제 4·6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게 몇 %래나? 그거는 내가 너한테 돌려줘야 마음이 편하겠단 그래서. 어휴 그러면 내가 받은 걸로 할게, 말로. 내가 받은 걸로 할 테니까 벌이 잘해가지고 가시라고, 그러고 인제 나는 간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귀국을 했네. 그러니까 그 얼마나 큰 보람이 되든지. 근데 나중에 한국에서 다시 독일로 와서 보니, 그분은 인제 몇 년, 2~3년인가 더 근무하시다 갔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 그 사람 막녕이 결혼할 때 한번 거 갖았어. 그랬더니 인재상을 하는데 굉장히 큰 인재상을 하더라고. 무슨 뭐 건축자재 같은 거. 그래서 아이고 내 잘사는 거 보고 가니까 이게 300만 원이 아니라 너가 3,000만 원 준거보다도 내가 고맙다. 너 잘사는 모습 보고 가니까 그러고. 내가 대구까지 내가 내려가서 보고 오니 그게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그게 나는 자신이 없는데 내가 그거 움켜쥐고 있으면 뭐해,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줌으로써 그분은 그분대로 자기 계획 이상으로 그렇게 돈도 저축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앞으로도. [웃음]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하여튼 독일에서도 지금 그런 우리 파독근로자들의 권익,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헨에 있을 때 몇번 경찰서고 암츠크리히트(Amtsgericht, 지방법원)하고 다녔어요. 그러고 거기서 그런 일을 많이 하신 분이 피호균 디아콘(Diakon, 개신교 사회봉사단체 디아코니아 봉사자). 그분이 참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뭐 그분이 인너레 미시온(Innere Mission, 개신교 전도회) 그런 사회봉사과에도 계시기도 했지만 그분은 참 심성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주로 어떤 일로 경찰이나 암츠크리히트 같은 데를 갔습니까?** 그 인제 그쪽에 가면은 외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은, 슈퍼나 가게에 들어갈 때 위에 그 미는 구루마랄지 또 예를 들어 이런 바구니 같은걸 잘 안 갖고 다니고, 여기다 끼고 이젠 사가지고 또 여기다 끼고 여기다 집어넣고, 아주 사람도 성격이 그렇게 급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천천히 그냥 구루마 끌고 다니면서 물건 넣을 생각 안 하고, 들어갈 때 예를 들어. 문방구 같은 데. 아 담

배 한 갑 사야지 하고 이렇게 들어갔다 담배 사러갔다 또 신문도 사고 또 무슨, 그런 집에 가면 무슨 복권 이런 거 하는 것도 많잖아. 복권하면서 뭐 이것저것 하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계산 안 하고 갖고 나오고 했겠지. 그런 거. 또 무슨 저 물건 잘못 사가지고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얘기를 한다 그러지만 독일 가게 사람들이 그렇게 제대로 안 들어준다고 물건 바꿔줘야 되는데, 거기서 막 뭐라고 그러고 물건은 안 바꿔준다고. 그러면 하임(Heim, 기숙사)에 들어오면은 “아유 뭐 그런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경찰서 들어가서 자초지종을 이렇게 얘기하고, 또 받아내고. 하여튼 뭔가 그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그분네들이 요청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고맙고.

## 은퇴자 쉼터와 한인문화회관 활동

그리고 또 우리 한인사회에서 지금 그래요. 언제 내가 본에 갔을 때에도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은, 참 뭔가 준비가 안 된 상황이야, 지금 우리 1세대들의 노후가. 지금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네들도 많아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분네들, 혼자 계신 분네들. 그런 분네들 연금을 뭐 800유로에서 많이 받는 분네들이 1000까지 받아요. 이럼 인제, 혼자 계신 분네들은 고거 갖고 그냥 사실만한데. 근데 삼시세끼 끓여 잡습고 이러는 데에서 어려운 게 아니라 외로워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떨쳐내지 못하는 게 제니오렌 트레프 (Seniorentreff, 은퇴자 쉼터). 빨리 지금 반호프(Bahnhof, 역) 앞에 해야 되는데. 그 지난주에도 거기 한국에서 그 뭐 광주교대 강성울 교수하고 서정재 차장인가 뭐 저 인력공단에서 왔는데, 그 에센(Essen) 한인회관 거길 돌아보면서 제가 그 얘길 했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이 지역에서만 최소한 두 분은 돌아가세요.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이 한 1,050명 돼, 파독광부가. 그러면은 1,050명이면 그걸 통계로 보면은, 이제 그 빈도수는 더 잦아진단 말야. 한 달에 둘, 한 달에 셋, 한 달에 넷. 이러다 보면은 몇 년 내에 다 죽어. 그런데 그 한인문화회관이 지금 빛이 10만 5,000유로 남아 있어. 그래 지금 저 덩치가 크다보니까 그 유지비도 많이 들어요. 기름 한번 느면은 한 8,000유로씩 기름 넣어야 되고, 그러면 또 몇 개월 쓰면은 또 기름. 그러니까 인제 이런 하이츱(Heizung, 난방) 시설 같은 게 노후가 됐으니까 비용이 더 어딘가 많이 들겠지. 그러니까 어느 때는 좀 덜덜 떨면서도 기름 아꼈려고, [웃음] 하이츱을 안트는 거야. 인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지금 그분들은 25억 가지고 뭘 한

국에 뭐를 한대. 그러니 여기서 빚이 십, 십만 유로 남았으면은 한국 돈으로 그게 1억 얼마 밖에 안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다만 10% 미만 금액이라든 이쪽에 지원을 해주든 파독광부를 위해서 뭘 한다고 하니까... 이거 빚이라도 다 갚고 차세대들한테 줘야지, 10만 유로 빚을 안긴 채 2세대들한테 우리가 줄 수가 없다. 빚이나 다 떨어내고 그게 우리 아주 소원이라고, 그러니까 그분네들이 그 소리를 듣더니 울드라고. 그래서 제가 눈물 안에 참 진정성이 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그랬어. 사실 여기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 할 때 그냥 십시일반으로 돈 내가지고 하든 시대가 지나가는 거라 지금. 그래 지금 한 달에 한 2,000유로 있어야 거기가 운영을 하는데, 옛날에는 2,000유로가 아니라 더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아닌 거라. 그러니까 운영비도 힘든 판에 빚까지 못 갚아, 못 갚은 상태에서 우리 2세대들한테는 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독일 재산으로 다시 반납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인사회에서도 지금 관심이 없어요. 저 건물을 사기는, 42만 유로에 샀는데 지난 3년 동안 한 20만 유로가 들어갔어요, 거기에. 지금은 60만 유로가 넘는 땅이 천 평 가까이 되니까. 삼천 몇 쿠바드랏 메타(Quadratmeter, 평방 미터)라고 대지가. 건 평만 뭐 한 800평방미터 되니까. 저건 인제 어렵게 마련을 했는데, 한인사회에서 참 관심을 안 가지면. 제가 글에도 몇번 썼어. 정말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들 해줘야 된다 이거야. 그거 뭐 몇몇이 하는 건데 뭐 하고 정말 신경들 안 쓰면은, 저거 10만 유로 때문에 60만 유로 그동안 들어간 돈이 없어지는 거야. 그냥 독일 무슨 종교기간이랄지 이런 데로 그냥 반납할 수밖에 없는 거야, 유지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살리기 위해서 우린 별의별 일을 다 했죠. 그동안. 인제 많은 분네들이 오실 수 있도록 무슨 우리 재독동포 역사 자료실, 뭐 파독광부역사, 파독간호사 역사. 인제 아무래도 많은 분네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볼거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인제 작년에는 광산 박물관까지. 근데 인제 고맙기로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금년에 약속 했던 거를 일부 돈을 줘서, 인제 그 매칭펀트(Matching Fund)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4만 얼마를 우리가 갚았는데, 또 5천은 인정을 못해준다 그래서 3만 5천을 외교통상부에서 넘어왔죠. 그래서 그걸 갚고 10만 유로가 남은 거라. 그래서 인제 우리 쪽에서 한 5만 유로라도 하면은 또 매칭펀드로 오만을 받을 수 있겠죠, 외교통상부 장관한테, 그쪽 부서에서 받을 수 있지만. 하여튼 그 지금 아쉽기로는 제가 2세대들 지금 뭐 정승영 감독이든, 바로 옆에 김나지움(Gymnasium, 고등학교) 선생이 있어요. 그런 분한테는 내 늘 얘기를 합니다. 우리 1세대들이 이걸 인제 여기서 이용을 해봐야 몇 년이다. 하여튼 5~6년 이내에, 하여튼 그전에 뭐 빚 같은 거 다 청산을 하겠지

마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와서 이용을 안하면. 그러니까 모든 모임을 이런데서 좀 이용  
 도 하라. 지금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우리 1세대들이 뭐를 하면은 우리 2세대들이 물에 기름  
 곁돌듯이 함께 안 해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 지금 1세대들이 지금 그나마래도 맨들어 논게,  
 이게 유지가 될까? 염려가 사실 됩니다. 그래서 한 일례로, 한인문화회관 같은 거죠. 그래서  
 젊은 분네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강조를 해요, 이게 당신네들 거여. 왜냐면 우리는 아무  
 것도 없는 데서 이저래도 남겨놔왔으니까. 제가 한글학교 교장선생님들 모였을 때도 제가 그  
 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오시면은 그래도 그 옛날에 정말 3·1운동 때 일본 순사들 잡히지 않  
 기 위해서 온 그 이미륵 박사님. 왜 우리 이미륵 박사가 그 압록강을 건너서 일로 오게 됐는  
 지, 이런 역사.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여길로 왔는지. 이런  
 거 여기서 영상으로도 사·청각 교육, 기재가 다 있으니까 와서 좀 보여주고. 여기에 하루 그  
 토요일 날 하루 수업하는 거를 이쪽으로 수업을 돌려서 현장학습을 하고. 뒤에서 날 좋으면  
 그 뜰이 넓으니까, 뜰이 천 평. 뜰이 뒤에 이렇게 서있지, 숲 있지 뭐 거기서 무슨 보물찾기  
 를 해도 좋고. 거기서 애들 저 방문기를 작문을 해도 좋고. 그렇게 해도... 교육원장한테도  
 수차례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움직임을 안보여. 그렇다면은 정말... 모르지 한국공무원들  
 은 여기서 길어야 3년 있다가, 뭐 임기되면 가든 고만이지만. 재독동포 역사자료실 역시 그  
 령습니다. 제가 언젠가 본대학에 계실 때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은, 본 분관이 1999  
 년에 세워지고 나서 제가 분관장님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여 중부 독일에서  
 생성된, 우리 동포 역사를 자료실 여기다가 꼭 하나 해놓으십시오. 이러면은 본 분관의 자  
 랑입니다 이게. 근데 안 터라고, 아니야... 그래 인제 저희들이 파독광부 기념회관 안에 방을  
 하나 얻어서 거기다 이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제발 우리 한인분네들도 그래요.  
 지난 2009년 12월에 기념회관이 됐을 때, 아주 환호했습니다. 한인들이. “야 이게 정말 우리  
 동포사회 구심점이 여기 됐구나.” 그 당시에 빛이 절반만 내고 인수를 한 거예요. 어유 이게  
 절반은 뭐, 금방 턱 갚을 듯이 그런 기세였어요. 기뻐하는 가운데, 그런 환호성을 질르고 그  
 러더니. 그게 그 이듬해 초가 되니까 벌써 다 식었드라구요, 그 열기가. 그래서 제가 1년, 그  
 기념회관 1년 개관기념행사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 1년전 이 날  
 을 좀 되돌아보십시오. 그 당시에 여러 분들이 정말 여기 잡셨던 그 생각이 정말 내 생활 속  
 에 얼마나 현실감 있게 내가 그 일을 이루어 냈는가.” 정말 작년, 2009년 12월에 봤을때는  
 그 뭐 2~3개월 안가겠드라고, 빛 다 갚겠드라니까. 그러더니 그게 아니더라니까. 그래서 1주  
 년 기념식 때, 또 2주년 기념식 때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고때만이에



요, 고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동포 언론을 통해서도 그런 캠페인도 하고 합시다마는 한 분이 5유로씩 내시는 분네들이 계세요. 이것이 이 생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 동포사회 생명. 5천 유로 5만 유로가 아니라, 한 달에 정말 5유로를 한인회관을 위해서. 정말 한인회관이 지나간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 한인사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젊은 애들의 모든 문화 공간이랄지, 미래를 펼쳐 나가는 그런 공간인데. 그런 공간이, 그래도 저는 그 희망을 버리지 않는 그 배경에는 5유로씩 보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분네들이 있는 한 우리 재독동포사회의 미래는 분명히 밝은 서광이 있을 것이다 하고 확신을 합니다.

## 세대 차이와 교포신문

1세대하고 2세대하고 이 소통이 잘 안 되고 아니면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이러신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신 거 같아요? 그것이 한 예로, 그렇습니다. 그 부모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참 극성맞았어요. 자녀들 그런 가정교육도 그렇고, 그 모든 한글교육에서부터 그렇게 했죠. 그리고 독일에서, 예를 들어 초등학교를 다니면서도 뭐 초등학교만 다니는 학생들이 어렸었어요? 무슨 월요일은 어디, 화요일은 어디. 그러다보니까 저희 동네에 그 치과의사가 하나 있는데, 키퍼 오르토펬디(Kieferorthopaedie, 치과 교정술) 때문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이 그런 얘길 하더라고, 아 당신도 애가 반에서 일등하기를 원하느냐고 그래. 왜 그런 얘기를 묻느냐고 했더니 인제 자기 딸, 그 반에 한국 애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그 한국 애기한테는 1등만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자기가 들었다고 하면서. 그래서 나는 그런 분도 훌륭하지만 나는 그렇게 쫓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2세대들이 그 극성에 가까울 정도의 그 교육열, 그것도 인제 아마 결혼들 하시고 30~40 되시고 뭐들 한 2세대도 아마 이해를 할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이번에 정승영 감독이, 2세가 제작하는 영화에도 그렇게 제목이 스테이 아웃(stay out)이라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네도 그걸 뒤늦게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37살인데. 부모네들이 나한테 왜 그렇게 극성맞게 그렇게 했는가.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무슨 청소년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그 부모 내가 그 라이팅(Leitung, 지도, 담당)이 있으면 그 애기들이 안 옵니다. 피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것이, 인제 가정의 얘기가 아니라 한인사회도 그런 거 같아요. 한인사회 역시도 제가,

그 2000년대 뉴밀레니엄이라 그래갖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제가 그걸 항상 강조했어요. 그 동안 우리 한인사회에서 활동하시던 분네들을 전부 2선으로 물러나십시오, 이제. 뉴 밀레니엄이 [웃음] 정말 우리 한인사회에도 뭔가 새로운 패턴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렇하고 좀 젊은 분네들이 좀 서툴드래도, 내가 20~30년 동안 해오든 걸, 그렇게 윤기 나가 젊은 사람들은 해낼 수 없드라 할지라도 두고 봅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젊은 분네들이 전부 안 옵니다. 그렇하고 쥔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한인사회 분네들도 그렇고 종교단체도, 모든 단체에서도 그래요. 이렇게 무슨 명석을 퍼 놓려고 그래요. 우리 차세대들, 분이 와서 뛰어놀 수 있는 명석을 퍼 놓려고 합니다. 그러나 2세들의 뛰어놀 명석은 이분네들이 마련해준 그 명석에서 놀 수 없는 그런 명석이에요. 그 이런 상황에서 빨리 떠나야 돼요. 지금 한인사회의 지도자들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아 2세들을 위해서, 2세들이 미래를 위해서 뭐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분네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밖의 일이에요. 이분네들이 과감히 여기서 뜨는 겁니다. 그리고 2세대들이 놀 명석은 그분네들이 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2세대들이 우리 한인사회 주류로 이렇게 들어오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요원하다고 봐져요. 그래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마는 제 적은 목소리가 안 맥히는 거죠. [웃음] 이 한인사회에서. 교회에서 일레로, 저희는 교회에서 그런 걸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 특정부서는 아예 성인이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특정부서는. 완전히 젊은 분들 위주로 해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예배도 한 주일은 완전히 젊은이들한테 맡깁니다. 젊은이들이 설교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해요. 저희 교회는 교인이 한 300명 됩니다마는 1세대가 100명, 중간세대가 100명, 아주 어린세대가 100명이래요. 전 항상 얘기를 합니다마는 참 큰 축복이라고 봐요. 그래 지금 1세대의 교인들이 금년 내년 해가지고 전부 70세 정년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거의가. 그래서 이런 일을 이제 자연히 청·장년, 청년부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 구조가 그렇게 돼있지요. 그리고 교회 예배 부분, 무슨 젊은 분네들의 활동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청년분네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일도.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우리 한인사회 속에서 자주 예를 들어요.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 꼭 성공하라기보다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분네들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명석을 그렇게 퍼놓든 그분네들이 자기네들이 만들어가면서, 자기네들이 서야할 자리, 활동할 자리를 그분네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제발 해주자고 그래요. 그래 제가 여기 한인회나 재독한인청년연합회 일할 때는, 80년대에 90년대에 모든 걸 제 개인적으로는 전부 마감했어요. 1세대의 활동을. 그 당시까지는 제가 뭐 한인사회의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마는. 그다음에는 저

나름대로 뉴밀레니엄 들어서면서는 1세대는 여기서 이제 종착역에 왔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판단 하에 그 이후에는 한인사회에 제가 관여를 전혀 않고, 우리 1세대들이 꼭 관여해야 될 일, 역사를 남기는 일. 그런 일에 많은 시간을 내주 있죠. 그래 이제 우리 지금 이유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한인교회 발자취 같은 것도 70년대 초의 그 교회기록, 그런 것을 이제 회의록 같은 거 회의록도 묶은 일이 있고, 그다음에 각 독일 내에 있는 그 한인교회들의 지 나온 발자취 하튼 부족합니다만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도 늘 생각에 제가 그 머리 글에도 그렇게 써놨지만은, 우린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하여튼 이렇게 자료래도 넘겨 노론, 나중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광부역사도 그렇고, 동포 역사를 그런 시각에서 이렇게 부족하나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독한인총연합회라고 하는 그 전 퇴수회(退修會)라고 하는 조직, 1962년도부터 만들어진 그런 조직이, 정말 기록이 없어요. 독일에. 근데 그걸 교포신문에서 찾아낸 겁니다.

교포신문은 1995년도에 창간이 됐는데, 30년 전 기록을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포신문 지금 창간 당시의 주역이었던 분네들은 다 돌아가셨죠. 그분네들이 다 돌아가실 나이는 아니었는데, 그분네들이 창간 취지는 교포신문이 그랬어요. “우리 재독동포사회의 역사를 남긴다.” 그런 취지에서 이 신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근데 신문을 처음 만들 때 그 10년 전에 지금 프랑크푸르트에서 그런 신문이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약간 관여를 하다가 실패한 그런 경험이 있어서 훨씬 10년이 지난 이후에 또 신문을 한다 그래서, 예 이 잘들 해보셔. 내 돈 까먹는 건 아니니까라는 식으로 뇌뒀어요. [웃음] 근데 그분네들은 정말 열심히들 했어요, 열심히들 하다가 다 돌아가신 거죠. 창간 3년차, 창간 4년차에 다들 돌아가셨습니다. 창간 멤버들 다 돌아가시고. 그러다보니깐 야 이거 누가 그 사람들 바통, 그 전에도 관여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앞에 나서서 이 일을 해야지 안 되겠다고 그때부터 더 적극적으로 동포 언론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2000 뭐 한 4~5년 됐을 겁니다. 그 때 새로운 동포 언론이 나오게 됐을 때, 저는 그때 그랬어요. 아 이제 두개가 될 정도로 이렇게 동포사회가 그 당시에, 그 재외동포 재단 이사장이었던 이광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침 독일에 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문이 하나 더 나온대문서?” “그래요. 예, 하나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 괜찮어, 두개. 두 개 정도 괜찮어 3만 5천이면은. 건전하게 경쟁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신문이 2개 정도면 나도 이제 발을 떼야 겠구나. 그제 인제 그때 동시에 노인네를 본 겁니다, 길에서. 그래서 아 신문에서 인제 손을

때고 이 일을 해야겠다고... [웃음] 글로 옮겨갔음에도 제가 수차 그런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마는, 노동자를 위해서 뭐를 해보다 그랬다가 실질 도움은 드려본 적 없고. 뭐 그렇게 길에 있던 노인분네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볼려고 했다가 전혀 현실화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처지에서, 정말 나보다 못한 그 러고 어려운. 그 외부적으로 봐선 나보다 더 강하고 더 있다고 하는 분네들이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드라우. 그래 내일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저보다 연금도 많이 받고 그런 본인데 외롭게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주·부식 같은 걸 좀 사가지고 갈려고 합니다. 가서 내가 우습게 얘기로, 그분 만나면 그분이 그렇게 세상사는 한탄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그래요, “그럼 뭐 지금 짐 싸. 나하고 가서 절로 강으로 가지 뭐, 돌이. 가서 그렇게 뭐 세상사는 게 억울하든 머 나는 더 억울한데 같이 가 돌이. 끝내 버리자고 지금 이 시각에.” [웃음] 그리고 내가 우스개 얘기로 그런다고. 그러면서 자꾸 삶의 희망을 갖고 살아라, 인제 그런 분네들이 한 예로 내일 거기 그분을 인제 가서 뵈겠지만은 그렇게 외롭게 사시는 분네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외롭게 사십니까?** 그 보편은, 우리 보통 40년대 생들이 그렇게 어려운 세대에 살았어요. 태어날 때도 뭐 일정 때부터, 해방 전후 또 소년시대를 6·25 휴전, 학창 시절을 뭐 4·19, 5·16. 뭐 하여튼 그런 어려운 세대, 이렇게 살다가.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네들이 63년도에 오신 분네들도 요 주변에 그렇게 계시고, 그런 분네들은 또 다행히 또 내외 간에 계신 분네들은 그냥 그나마도 괜찮아요. 뭐 혼자 사시는 분네들은 쾰른(Köln)에서도 일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함부르크(Hamburg)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 며칠 안돼서 가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혼자 사시는 거죠. 자식들도 있지만은 거들어 볼 여유가 없는 거죠, 자식들이. 지척에 살지 않는 한 정말 1년에 생신 때나 아님 뭐 바이나흐트(Weihnacht, 성탄절), 뭐 오스틴(Ostern, 부활절) 이럴 때나 한번 전화 해보고. 의외로 그렇게 사시는 분네들이 많아요. 근데 어차피 부인이든 남편이든 먼저 가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코레아-젠트룸(Korea-Zentrum)이라고 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구상을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기 보름스(Worms)에 가면 박석일 장로님이 그런 일도 하고 계시지만은, 박석일 장로 베크엘(Bethel)이라는 양로원. 거기도 애당초는 그렇게 시작을 안 했어요. 우리하고 거의 같은 그런 동기로 시작을 했는데, 혼자 되시는 분네들을 위해서 이제 거쳐할 수 있는. 그 인제 각자가 혼자, 언젠가는 혼자가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사신 것

으로 봐서 자식들한테 절대로 안 갑니다. 자식들한테 안 가요.

**왜요?** 인제 자식들한테 피해줄까봐 그러는 거지. 그 자식들하고 멀리하려고 그래. 혼자되신 분일수록 자식들하고 멀리. 혹시라도 나 땀에 피해가 갈까봐.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다보니 인제 점점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분네들을 위해서 정말 교회가, 근데 인제 저희가 보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내에서 꼭 그걸 할려고 그래. 일단은 교인, 그리고 믿는 사람들. 나는 항상 교회에서 부르짖어요. 믿는 사람도 소중하지만 안 믿는 이들이 더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럼 어떻게 교회에서 교회장로가 저러냐고 그런 핀잔도 많이 들어. [웃음] 교회 밖에 분네들 소리를 더 들어야 된다고 교회가. 근데 난 그런 분네들 와서 쉬게끔, 여기 와서 쉬고 여기서 또 실국수래도 끓여서 먹고, 그분들 외롭지 않게. 그런데 여기가 지금 교통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갈려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교통이 좋아요. 하튼 뭐 시내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거기 가면은 한 공간을 제니오렌 트레프(Seniorentreff, 은퇴자 쉼터)를 할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오셔 갖고 바둑·장기, 뭐 교회 내에 있는 공간이라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일반 우리 한인사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로써. 그니까 잡스럽고 주무시고 하는데 어려움은 없어. 낮에 소일거리가 없으신 거야. 낮에 그러면은 맥에서들 끓여 잡스럽고 일로 오십시오. 그럼 여기서 하루 종일 뭐 각 신문을 본대든지, 한국 텔레비전도 요즘 나오잖아요. KBS World 같은 거. 그런 거 한대든지... 그러면 KBS World 안테나 팔고 이러는 분네들이 그러면 다 안테나를 제공하겠대요. 그런 모임을 하면은. 그게 참 우리 동포 한인사회의 힘인 거 같애. 무슨 정말 좋은 뜻으로 하면은 그래도 다 등을 돌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래 거기서 우리 한민족만의 뭐 특유한 뭐 그런 거를 사실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튼, 교회적으로 봐서도 저는 늘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그 교인들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일반인들 제가 잘 아는 가운데 한분은, 아침에 나오시면은 그냥 술병만 들고 계세요, 맥주. 맥주병 들고 공원으로 간다고. 공원으로 가가지고 그 맥주만 들고, 그 부인도 계신 분이예요, 그분은. 근데 집안에서 아마 저 환영을 받지 못하는 분위긴 거 같애. 그 아침이 되면은 공원에서 술병을 들고 계시는 걸 몇 번을 봤어. 대낮에. 그래서 그런 분네들이 설 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교회에서 되면은 실내의 어떤 공간에서 텔레비전을 본대든지 장기·바둑을 둔대든지 그렇게하고. 지금 은퇴하신 뭐 의사 선생님들, 법률가들, 이런 분네들은 저 연금에 관한 거 무슨 슈타트(Stadt, 시)에서 좀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매일, 아니면은 최소 이틀에 한번 정도는 그런 분네들 시간을 한두 시간 듣는

시간 그렇게 하고, 그 외에는 일을 만드는 겁니다. 이분네들이 와서 그냥 즐기고 놀고 마시고만 가는 게 아니라 이분네들한테 아우프가베(Aufgabe, 과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5유로 벌이를 하더라도 일을 시키고. 그래서 5유로에서 2.5유로는 가지고 가지고 2.5유로는 모았다가 또 불우한 이웃, 좋은 일도하고. 그럴 계획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좋은 곳은 좀 좋은 곳으로 흘러내려갈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젊은 분네들도 하튼 제니오렌 트레프를 한대니까, 몇몇 젊은 분네들이 2세대들이, 만약에 그런 곳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무료하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기꺼이 자기네들도 소액이나마 함께 하겠다고 하는 분네들도 있어요. 우리 2세대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하튼 교회 예는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한인사회에 지금 우리 2세 분네들이 2000년대 들어서 한인사회 2세대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다가 이분네들이 몇개월 못 견뎌니다. 도로 나가요. 그러니 기성조직에서 그 바닥을 바꾸지 않으면은 기존 한인사회조직에서는 우리 차세대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 이분네들이 정말 제대로 사회에서, 지금 독일 주류사회에 인제 진입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속도로 한인사회에 이렇게 진입을 못하시는 이유가 우리 1세대들이 참 반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들 독일 올 때 전부 삼십대였어요. 그래 지금 2세대들이 전부 30대 40대 막 넘어가는데, 그럼에도 뭐가 조바심이 나가지고 뭘 마련을 해주려고 하난 말이야.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서 있으면은 그분네들 다 하는데. 근데 꼭 뭘 마련을 해줄려고 그래요. 그게 아주 병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집착돼있어요. 그래 지금 단체장들, 한인, 뭐 독일만이 아니라. 하튼 주변국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차세대들을 위해서 활동무대를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그건 절대로 1세대에서 해줄 수 있는 몫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마는 안 먹힙니다. [웃음] 그럼에도 하여튼 저는 계속 그런 주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 한인사회와 독일 사회

---

**한인사회와 독일 사회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한 예로 어저께, 독일여자들을 상대로 김치 축제가 있었어요. 근데 김치 이러면은, 그건 인제 한인회에서 하는 일입니다마는, 보니까 참석을, 하튼 제가 몇 시간을 지켜봤는데 한 200여 명 되는 거 같더라고. 근데 반 이상이 독일 사람이야. 한인들은, 이 독일 사회 내에서 우리 1세대들도 그래요. 한 예로 제가 우리 슈트



라세(Straße, 길)가 56번지까지 있어요. 56번지까지 있는데 거기가 90세대가 삽니다. 5년마다 거기서 대표자를 하나 뽑아요. 거기는 다 독일 사람들이예요, 외국분네들이 안 사시고. 나만 외국인이고 막 여든아홉 세대는 이제 독일 사람이예요. 근데 거기서 인제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 뽑힌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나를 여기서 대표를 해노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아 당신이 언론에 이렇게 돼 있는 줄 아니깐, 그래서 당신이 CDU(기민련)하고 SPD(사민당) 그런 데 접촉하는데도 좋고 시장하고 소통하는 것도 좋을 거고. 뭐이 라면서 지레 짐작으로 찍은 거야. 그거 5년 동안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젊어서도 그렇다고 하지만 어떻게 독일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찍어, 90 가정이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그 비테(Bitte, 부탁)를 하더라구. 근데 제가 꼭 그래서가 아니라, 제가 첫 그 슈트라세 들어가는데 첫 집이예요. 첫 집인데 제가 시간 날적마다 첫 집 그 앞마당 까지 다 쓸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동네에 들어오면서 부터 거기가 험하다 이거야, 길이. 그러면서 한 독일 사람이, 이웃이 그런 얘기를 하드라고. 당신이 그동안 이 동네에서 사는걸 보니까, 우리 이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히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같아서 자기네들이 뽑았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5년을 그걸 했는데, 그건 한 예고, 저 개인적인 예고. 제가 회사에서도 그래요. 회사에서도 어떤 특수교육을 제가 가니깐, 한국 사람에서 제가 처음이라고 그러드라고. 한국 사람에서 당신이 처음 왔다고 그래요. 그 교육기관에서 그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독일 다시 들어왔어. 그러니까는 불과 3년 조금 넘었을 때죠, 독일 생활이. 근데 무슨 그 교육기관에서 뭐를 하는데, 이게 독일어도 잘 안되고 그러니깐 또 뭐 영어로도 하고. 하튼 무슨 안 되는 영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풀어나가니깐. 어우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잘 풀어나간다면, 이런 걸 처음 경험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 선생이 흑판에서 뭘 이렇게 써내려가잖아? 그래놓고 등을 돌려, 인제 다 썼으니까. 흑판에다가. 그럼 나는 답을 다 써논거라. 그전에.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나중에 그러드라고. 흑판에다가 자기가 다 쓰고 나서 이렇게 학생들을 돌아보면은, 딴 친구들은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친구(구술자)는 가만히 있는 거라. 아이고 저 또 이해를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 한참 동안. 그런데 나중에 와서 보면은 전부 다 맞는 답이고 언제 다 써냈는지 다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내가 졸업을 하고 나가는데 날 보러 그러드라고. 그 굵은 매직펜을 갖고 와가지고 한국 사람으로서 내가 여기 처음 왔다간다. 이걸 하나 써달래. 그래갖고 매직펜으로 ‘한국 사람으로서 몇 년 몇월 며칠날 여기 다녀간다.’ 그랬는데, 그다음부터 한국 사람들이 거길 간 거야. 그 뭐 가기만 하면 선생님이 데려다가 처음에 왔던 한국 사람이 이거 써놓고 갔

다고 그렇게 보여주드란 얘기가, 나중에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근데 거기 그 사람들이 인제 뭐 중국 같은 데죠. 여기서 독일 엔지니어들이 가가지고 교육을 많이 가요. 그 중국에 교육가면 뭐 6개월씩 가고, 뭐 상해대학 나온 애들이고 뭐 북경대학 나오고 공대, 이 공계 애들이 개네들 엔지니어들 교육 시키고 와. 그러면은 성과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누가 가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이 가. 한국 사람이 2개월 동안 교육하고 그냥 와. 6개월 교육을 해야 되는데 2개월을 하나까 더 가리킬게 없는 거야. 그러믄 그 엔지니어들이 전부 이해를 하는 거야, 한국 사람이 가리키면은. 그걸 내가 파독광부사에도 그거 적어놔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한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 회사를 관둔다 그러니까 이 회사 큰일 났네, 인제. 저 한국 사람. 그러니까 내가 관두면서 인제 줄줄이 관두는 거야. 뭐 정년퇴직하고 막 이런. 아 이거 큰일 났네 이 회사가. 하여튼 그럴 정도로 우스개 얘기로 그랬다고 한국 사람들이 떠나간 대니까. 그래 내사 하든 모든 회사에 그래요. 이 주변에 있는 독일 회사들한테, 한국 사람이 마지막 떠날 때, 그 회사에서 우리 한국 공관에서 그 파이어(Feier, 축제)를 할 거다. 그리고 내가 본 분관장이었나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어느 회사든지 요 주변에 있는 헹켈(Henkel), 튀센(Thyssen), 만네스만(Mannesmann)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마워해야 돼. 그 회사에서 인정받고 그 회사에서 그렇게 회사를 위해서도 뭐 일은 했지만은, 개인 가정을 위해서. 또 각 회사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정말 훌륭한 한국 사람으로 다 기록이 돼있어요. 그래 인제 제일 마지막으로 정년퇴직하는 사람이 할 때는 그 회사에, 공식적인 작별은 한국 공관에서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본 분관장이 처음 오면 항상 제가 그걸 다 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온 과학관 교육관이 왔잖아요. 얼마 전에 그 아실 거예요, 아카데미 클라우젠호프(Akademie Klausenhof, 클라우젠호프 독일어학원, 옛날엔 외국인에게 직업교육도 실행함) 거기에 베커(Becker) 박사님, 그 베커 박사님이 은퇴를 하게 됐어요. 은퇴를 작년엔가 했나봐. 은퇴식을 한다고 그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나한테. 그러면서 한국분네들 좀 왔으면 좋겠다고. 그분이 하든 70년대부터 그 교사로, 나중에 교장으로 있으면서, 지금은 한국 학생들이 있어요. 저기 언어 배우고 하는 학생들이. 아주 저 부인도 한국 사람이기도 하지만, 한국 분네들을 그렇게 아주 내 자식같이 그렇게 해서 돌본다고, 그분이. 그런걸 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 파독광부 45년사 책 만들기 전에도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 책도 그 내용들 믿고 했지만은. 그분 퇴임식에 간 거예요. 그래서 몇몇 거기서 공부하신 분네들한테 전부 연락을 했어요. 가능하면은 이 베커 박사가 은퇴식 하나까 여러분들은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노믄 내가 교육관 과학관으로 글로 오라고 해가지고 내가 간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

을 보세요. 옛날 학생들은 하나도 안 왔어, 거기 출신들은 하나도 안 왔어. 그리고 더 한 가지 놀라운 거는 베커 박사님을 통해서 혜택을 본 나라들이 부지기수야. 유럽에만 해도 폴란드도 해서 유고까지 부지기수입니다. 그럼 그분네들한테 그게 연락이 안 갔겠어? 연락이 갔죠. 근데 유일하게 외국에서 온 사람은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야. 대한민국 신문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그 후임 교장선생이 사회를 보면서 그러드라고. 그 많은 분네들이 이렇게 인연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밖에 안 왔다 이거야. 그렇게 소개를 하드라고. 그러니까 이제 교육관이 영어 스피치로 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분은 지금 은퇴하고서도 명예 원장같이 그렇게 일을 뒤에서 봐주고는 있죠. 근데 그분의 인터뷰할 때 몇 년 전 일입니다마는, 저도 광산 끝나고 거기를 아마, 결혼 할 사람이 없었으니까 저도 걸로 갔을 거예요. 그런 생각도 들드라고. 교사가 되는 거니까, 기능 교사가. 거기서 직업교육 받고 기능교사 자격증이 나오면 그 다음 한국 가면은 기술고등학교 선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교육 받은 사람이 114명이예요. 114명인데 지금 대학병원에서 내가 어저께도 병문안을 갔었는데, 그분이 지금 간암이예요. 간암이라 며칠 못 사세요. 그분을 기억하시드라고. 그분은 이제 서울공고 출신인데, 여기 교육을 왔는데, 그 인터뷰 당시에 그걸 기억하고 있어. 그분이 그런 식이다. 무엇을 흑판을 적어놓으면 돌아보면은 가만히 있드래, 그분이 김종일이라고 그러면서 잃어버리지도 않아 이름을. 하이고 저거 또 못 알아듣는구나, 그 사람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이야기야. 근데 보든 그렇게 다 백점이야. 그 114명 중에서 그렇게 다 공부를 잘했으니깐, 그 물어봤어 베커 박사님한테. 하튼 두 명인가 중간에서 그렇게 도망 다니고 그런 사람이 있었대, 두 명이. 그 외에는 전부 제어 굿(Sehr gut, 아주 좋음)이었던대. 어떻게 저런 민족이 있나.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했대. 근데 그 사람이, 베커 박사가 처음 내 사진을 보고 놀랬어. 그 당시에 간호원으로 와서, 부인이, 간호원으로 와서 독일어 교육을 거기서 받은 거예요. 그 학교에서 받으면서 그 부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자마자 이분이 한국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통역으로 부인을. 그분도 사실 그 옛 역사를 증언해주는 분이예요. 그 부인, 사모님이. 베커 박사님 사모님이. 말씀도 없고 그러신데,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서 그 한독기술학교 문제래든지 또 기능교사들을 여기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내보낼 때 한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수차 한국을 방문했었다고. 그런 분네들 참 소중한.

그 지금 이 교수님(면담자)도 그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지만, 저희 교회적으로 봐서도 내년엔 40주년이기 때문에 본 교회보다는 3~4년 정도 늦지마는. 그 당시에 기록을 제가 정리

를 틈틈히 하고 있고, 지금 교회 내에서도 사실 그 핍박받은 일은 많지 않아요? 본 교회 경험에 있어 아시지만은. 그런 부분은 이번에 40주년 때 많은 부분을 좀 더 교인들한테 공개를 할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저 사진, 인제 슬라이드 들어있는 것도 74년도에 발췌(Walsum) 사건, 그 인제 교회내에 중앙정보부 분네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걸 인제 『슈피겔(Spiegel)』지에 나고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만은. 하튼 제가 내년엔 그 파독근로자 50주년 준비를 하면서, 지금 아주 크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 구술체로 받아놓는 거. 그분네들을 영상으로 기록에 남겨두는 거. 지금 그 기록 구술을 해주고 하실 분네들이 전부 지금 팔순이 넘었어요. 그래 인제 저 아래 게시는 이영빈 목사님이나 파독간호사 오시게끔 하신 이종수, 이수길 박사님 이런 분네들이랑. 정말 그걸 지금 받아놔야 되는데,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국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서 사실은 그 아시겠지만은 사할린, 재일 동포 역사 같은 건 다 국고로 다 정리를 했지요. 동포 역사를 고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직접 관여를 할 수 없고, 경비문제 때문에 그렇다면은, 최소한의 경비래도 이런 뭐 공간에 배정을 해서, 그런 일들을 했으면 또 해야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우리 1세대들이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첫째는 시간, 뭐 이런 건 다 낼 수 있어요. 그런 정력도 있어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 할만한 그런 에너지도 충분한데, 제일 중요한 게 재정적인 부분이에요. 전부들 연금세대에 들다보니깐, 당신네가 그냥 겨우 꾸며 잡숴고 살 그런 연금밖에 없는 거야. 또 아니면은 거기에서도 더 턱없이 부족한 연금 갖고 생활하시는 분네들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업들한테도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업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고, 왜냐하면 그분네들도 또 임기되든 또 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외교관 역시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좀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외교관도 있었어요. 아이 그냥 지금 계신 대로 그냥 계세요. 그 얘기는 당신께서 외교관 임기 동안 아무 일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웃음] 그 뒤에는 숨겨 있는 거죠. 저희들도 사실 30년 될 때, 1993년도에 그 책을 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책이 95년에 나왔죠, 2년 늦게. 그 30년 기념 책자도 그렇고. 이번 45년도 역시 2008년 에 나왔어야 하는데 그 이듬해에 나왔어요. 그게 다 뭐냐면은 준비는 다 해놨어요. 준비들은 다 해놨는데, 금전이 뒤따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때 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50년사도 그냥 간단하나마 지난 5년 역사를 주로 해서 뭐 할려고 합니다마는, 사실 그것 역시도 재원이 뒷받침 안 되면은 어렵게 보여요. 그래 지금 새로 오신 김재신 대사도 취임사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파독 50년사하고 국격, 양국 국격에 130년 기념행사를 인제 다양하게 준비

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거 말씀같이 정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재독동포들  
 도 실감이 가는, 그런 행사가 돼야지. 그런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분야에서 좀 준  
 비하고 계시는 분네들이 힘이 합쳐지고, 좀 기대가 되요. 그래 지금 아시겠습니까마는, 지난  
 6월 달에 한독 양 정부에서 그 기념우표 나오는 거는 소식 들었을 겁니다. 그 제가 작년에부  
 터 지금 분데스탁(Bundestag, 연방의회)에 들어가 있는 현종범, 마틴(Martin). 그분한테 늘 그  
 런 얘기를 했어요. 그 하튼 분데스탁에 정책보좌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그 친구를 교  
 포신문에서 발굴한 거예요. 그 아이스하키 독일 청소년 대표할 때, 이걸 누가 좀 이끌어 줬  
 으면 좋겠어요. 참 독일의 국가대표가 되다니, 우리 한인 청년이. 그래서 인제 아이스하키  
 청소년 국가대표가 됐는데, 근데 그 참 실망스럽기는 그와 동시에 그 교포신문에서 그 젊은  
 이를 많이 다루다보니까 그런 얘기도 들리는 거예요. 시샘하는 게. 그리고 신문이 어떻게 그  
 개인 걸 너무 기사화 한대든지. 하튼 뭐 그래요. 그러나 신문의 사명은 그렇습니다. 정말 희  
 망적인 소식은 더 크게 자주 알려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고, 지난 지금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에 라쉴트(Armin Laschet) 장관이 있을 때, 라쉴트 장관이 현종범 젊  
 은이를 굉장히 아꼈어요. CDU인데. 한번은 CDU 당사에 불렀습니다. 근데 그 신문에서 오  
 라 그래, 근데 인제 신문에 제가 갔어요. CDU 당사에서 만났는데, 그 장관하고 그 젊은 친  
 구하고 우리 1세대들이 짝 있는 거예요, 그 당사에. 그 당사 회의실에. 그 현종범이가 거기  
 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장관도 계시고 각 당내의 주요 인사들이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  
 들도 훌륭하다 이거야. 독일 차원에서 아니면 주정부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참 소중한 일들  
 을 하시는 걸 내 존경을 드린다고. 그보다 더 존경하는 분네들이 여기 앉아 계시다고. 그 엄  
 마, 아버지들이 와서 앉아 있거든. 그 소리를 듣고 그 장관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  
 고.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거야, 우리한테. 그러면서 헤어(Herr) 현이 얘기하듯이, 정말 여  
 러분들은 그 어려울 때 여기 오셔가지고 독일 경제 발전에 큰 부분을 담당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하면서 경의의 박수를 보내자고 그러는 거야, 그 독일 사람들한테. 그러  
 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들은 그 CDU 당사 안의 그 회의실에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거야. 이 정말 존경하는 어른들이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  
 를 뭐가 동포사회에서, 이런 정말 전도가 유망한 젊은이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 그  
 래 인제 작년에 이 분데스탁에 들어간지는 지금 몇 년 됐죠. 정책보좌관으로. 근데 제가 작  
 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2013년이든 그게 되는데, 슬슬 준비 좀 해보라고. 왜냐하면  
 은 그때 터키 50년, 여기 수교 기념행사를 이 지역에서 크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정부 차



원에서 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대한민국 수교 130년하고 파독 50년,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한독 수교는 준비하겠지만은, 파독 근로자들 차원에서 준비해야 될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는 모르니까 그 연방 차원, 거기가 앉아 있으니까 보일 꺼 아냐 뭐가. 그니까 연방 차원하고 주정부 차원에서 뭔가 협조방안을 찾아봐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전전긍긍한 거예요. 그러면서 연방 차원에서 우선 금전적인 걸 조금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좋은 답을 못 들은 거 같애. 그러더니 6월 달에 그게 온 거예요. 기념 우표. 그게 첫 성곽입니다. 그래면서 연락이 와서 너무너무 반갑드라고. 그러면서 대사하고 대한민국 체신분가? 뭐 이렇게 와가지고들 만나가지고 찍은 기념사진을 이렇게 보냈드라고. 그래가지고 인제 교포신문에도 났지만. 그래 나는 거기서 그 친구가 한일을 난 과소평가 하고싶지 않아요.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아이고 그거 뭐 또 따로 애쓴 사람이 있겠지” 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그런 얘기를 누가 꺼냈냐는 얘기가. 그리고 이 친구는 여기 그룹에 뒤셀도르프, 여기 국회의원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나라는 사람이 거기 있는데 그 한 분 만나라. 왜 만나냐 하면은 우리 1세대 부모네들이 여기, 지금 베를린에 연방국회를 구경 못해갖고 있는 사람이 제법 되니까. [웃음] 국회의원 당신이 나를 만나갖고, 그 사람이 동포신문 기잔데, 그 사람을 만나갖고 당신이 버스를 한대 주선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분네들을 모시고 한번 와라. 응? 당신이 그런 일을 좀 하거라. 그 뒤셀도르프 시에 여기 담당 연방 국회의원이니까. 그래가지고 편지를 쓴 거를 나한테 복사본을 보냈드라니까. 그래면서 연락이 가든 만나라고, 그래. 근데 그 사람이 떨어졌어. 의원으로. 지난 선거에서 떨어져서 힘은 못 쓰지만. 그러니깐 그런 젊은이가 있는게 참 우리 동포사회의 희망이야. 희망. 그리고 그 뭐야, 하튼 나름대로 그런 데도 그 달란트가 있는 거 같애. 그 공부도 뭐 그런 쪽으로 공부를 했지만. 그러니깐 인제 그런 몇몇분네들도 제가 자주 이유재 교수님은 우리 저 소개를 하는데, 여기서 젊은 분네들 만나든. 하튼 뭔가 예를 들어 그런 교사랄지, 아니면은 여기 건강센터 무슨 소장하는 김남연 박사님. 자기네들이 봤대. 그 신문에, 보고 어떠한 그런 네트워크가 되든 좋겠다고. 변호사들 여기 뭐 변호사들. 자기네들 사실은 지금 이유재 교수님도 그러지만 고 아래 바로 후배세대들, 이 세대들이 제일 차세대에서는 지도자급 세대들이야. 그 세대들이 좀 그런 일을 담당을 하셔야 될 거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짐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하고 제가 고맙기로는, 우리 동포사회에서 새로운 그런 그룹이 생성이 되잖아. 여기서 유학하신 분네들이 여기서 계속 체류하면서 계시는 분네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런데 그분네들이 재독동포 역사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는 걸 난 보고 너무 감사했어.



왜냐하면 지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는 새로운 세대, 그룹이 생성 된대는 것은 우리 동포사회의 큰 에너지라. 그리고 이런 분네들이 어디서 듣고, 아 거기 에센(Essen)에 그런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한인문화회관을 와요. 애기들을 데리고. 그러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은 이제 한가정이 오고 두가정이 오고.

그러면 거기 가보면은 옛날 삼일, 기미년 3:1운동 때 저 평양 뭐 승의학교에서 있든, 어떤 태극기가 있었고 독립선언서 국일관에서 만들어진 사본. 이걸 한글로 베끼면 이렇고 어려운 말로 하면 이렇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미륵 박사 흉상 앞에서 정말 이 의경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해서 왔는가? 그러면서. 재독동포사회에서 특이한 게, 재독동포사회는 그래요. 우리 60년대 오신 분네들이 있고, 70년대 들어스면서 뭐 한글학교 역사 같은 것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우리 민간 차원에서 국경일 행사도 시작한 거 아냐. 1971년 8월, 8월에 광복절 행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 광복절인데 그냥 넘어가? 대사관 같은데서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1971년 8월에 오버하우젠(Oberhausen)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하고 거기서 축구대회를 하면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가지고, 40 몇회까지 이어지고 있잖아. 매년 광복절 행사 때 체육대회를 한게 그게 효시라, 그게 시발점이야.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야 광복절도 있지만 3:1절도 있는데. 그러면서 3:1절 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3:1절 축구대회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3:1절 축구대회를 그것도 70년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정식 대회를 하기 시작한 거는 79년부터 하기 시작했지. 그리고 나서 그때 까지도 뭘 하면은 대사관에 계신 분네들 모셔다가 인사말하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얼마나 그 대사관, 외교관들이나 노무관들을 대접을 했어. 그 당시 결혼하면은 대사관에 무슨 외교관들을 갖다가 주례를 세웠대니까. 그렇게 우리는 존경을 했어요, 왜? 공무원들이고 하나니까. 그 당시 그렇게 많이 했지.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고 나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주례하고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노무관이 뭐 이효석 노무관이래든지, 하튼 노무관이 주례한 집들도 많아. 그 이제 우리는 뭐든지 그러잖아. 우리는 자유당 때도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그 혁명정부 때 뭐 이렇게 살다가 와가지고. 그래도 권력 있는 사람들, 관 먼저 그다음 민 이리잖아. 그래서 무슨 기념식 같은 거 할 때도 꼭 관에 있는 사람들 먼저 인사시키고 그랬었다고. 그러다 이제 3:1절 웅변대회도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거부터해서 20년이 지나서 99년도부터 3:1절 웅변대회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3:1절 축구대회, 웅변대회. 이게 어떻게 시작됐나 그런 역사 같은 것도 거기 다 있거든. 한동안 그렇게 하다가, 아 이거 한인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관이 먼저 인사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항상

무슨 회장이 먼저 인사하고 그다음에 관에서 오신 분네들이 인사하고 그런 모습으로 바꿨죠. 그리고 70년대 들어서면서 73~74년 되면서 아헨, 쾰른 이런데 한글학교 생긴 거. 그것도 인제 60년대 말에 간호원들과 결혼하신 분네들의 애기들이, 그때는 취학연령이 된 거야. 네 살, 다섯 살이 이렇게 막 되고 하나까, 애네들이 한글을 가르쳐줘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 민간 차원에서 그런 걸 맨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글학교는, 뭐 도시 마다 다 있잖아. 그렇게 다 돼 있고, 지금은 인제 고맙기로는, 한인학교, 한글학교가 지금 3세대들이 다니고 있잖아? 한동안 뜸했지. 우리 2세대들이 다 떠나고 나서 뜸하다가 지금은 인제 또 3세 애기들이 다닙니다.

## 한인교회와 한인사회

---

또 인제 교회에서도 보면 그래요. 3세대들이 바글바글해. 그래 인제 영아반, 유치반 가면은 아주 애들 판이야. 우리 교회에는 전통적으로 교회 내에서는 애들이 존중받는, 애들이 예배 중에 막 떠들어도 그냥 가만히 놔둬. 가만히 놔둬. 그냥 우리 옛날에 본(Bonn) 교회 담임목사님도 하셨지만, 장성환 목사님이 그렇게 키웠어요 애들을. 그래서 애들 사진도 저기 어렸을 때 다 한국에서 와서. 개네들 다 그냥 교회 안에 풀어놔. 교인들이 키우고 목사님은 돌아다니고, 사모님이랑. 그렇게 해가지고 커가지고 얼마나 잘 컸어. 다들 하나는 쾰른에 있지만 둘다 다 탄 데 있지. 하나는 스위스, 하나는 함부르크 다 있고. 지금도 그게 교회 어떤 분위기랄지 그게 있어요, 계속.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한국에서 오신 교인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교인들이 있어. 인제 간혹 가다 들렸는데, 어휴 시끄러워서 예배를 못 보겠네. 그러면은 그분이 회사로 왔다 이거야, 출장으로. 그럼 한번 왔다가 안와. 그러면 우리는 잡진 않아.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래, 본 교회도 그랬나 몰라. 우리 이재수 장로님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헨교회 같이 다녔으니깐, 이재수 장로님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같이 예배 1부 준비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한인 교회는 특히 그래요. 한인 교회는 첫, 1972년도에 장성환 목사님이 첫 독일에 대한기독교협의회에서 보낸 거는 최초의 선교사 아니야?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뭐야, 그분이 독일 교회 공무원 아냐. 공무원으로 돼있죠? 교인은 교인대로 자유롭게,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자유롭게 목회하는 거야. 거기에 구속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는 교회가 너무 자유스러워. 아주 굉장히 자유스럽다고. 그렇다고 오는 교인 그냥 붙잡

고 막 이런 게 없잖아, 이게 한인교회 특성이 그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있어요, 그 교회는 굉장히 냉랭하다 그래요. 한인교회들이. 굉장히 냉랭해라고.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거죠, 교회까지 오실 수 있는거면은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구태여 붙잡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 [웃음]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대다수야.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예배 전에도 하지만, 예배집중을 해라예요. 한인 모임에 가도 제가 한인 문화회관에서 뭘 꼭 안내방송 할 때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먼 길 오셨는데 이 행사에 집중 하십시오. 그래야 돼, 하도 얼마나 소란한데. 한인문화회관에서 오랜만에 만나니까. 뭘 하긴 해야 되는데 앞에서 진행은 해야 되는데, 그 오랜만에 만난, 그 얘기들 하시느라고 [웃음] 그렇게 뭘을 진행을 하지 못하죠. 근데 그거를 늘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오래 못 만났다가 만났으니까 저렇게, 앞에서 아무리 마이크 잡고 떠들어도 당신네들 하실 얘기가 있으니까 그게 급한 거야. [웃음] 저건 뭐, 난 오히려 우리 동포사회에 긍정적인 에너지로 보나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든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사는데, 제가 인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 조심스럽고 우려가 되는 것은 우선 한국에서 오신 분네들도 다 그래요. 한국에서 누가 왔다 이러면은 제가 동포 역사자료실에 가야되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상주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상주하시는 분이 없어요. 상주하시는 분내도 최소한 800유로는 드려야지. 그럼 또 거처할 방 또 해놔야지. 그러니까 이게 보통 부담이 아니예요. 그래서 무슨 때 되면은 주말에 가고, 누가 한국에서 방문하고 싶다 그러면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도 사실은 부담이예요. 시간을 내야지, 오고 가는 많은 시간. 그럼 누가 그걸 봐요. 그러나 그것도 한국에서 그런 것이 있어서 보고 싶어 오신 분을 그냥 어떻게 돌려보내, 오시면은. 그러면은 한국에서 오시는 분네들은 100에 99분은 감동, 감동을 받으세요, 그 자리에서. 근데 오래 안 간다고 하는 거야. 그러든 온갖 약속을 다 하고 가신다고. 오시는 분네들이. 어 정말 여기는 지원을 해줘야겠네 한국 정부에서. 아니면 당신께서 소속 돼 있는 그런 단체에 가서 하, 이 건물에 유지해야 될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 거기 현장을 보면은. 근데 한국 가서는 그게 안 되는 거 같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갔는데 뭐 전혀 입 다물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야. 그렇게 정말 뭐, 정말 학식이 있고 그런 분네들이 다 오셔갖고 가보는데. 근데 그 한국사회도 그게 안 맥히는 거 같애. 그분네들이 가서 뭐 입 다물고 있지는 않을 거 같은데도, 뭐 혹시라도 지금 1세대들이 사실은 거기에 관심 갖는 분네들이 한 분, 한 분 줄어들어요. 그게

인제 불안한 거예요. 정말 한 분, 한 분 줄어간다고 하면은, 이게 그전에 빨리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이제 큰일 났구나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빛이 되는 거 다 갚아 놓으면은, 그냥 놔둬두 되잖아. 그냥 놔둬도 언젠가는, 후세대들이 어 거기 집회를 하면은 뭐 150~200명 할 수 있지. 뭐 그런 자료실 있지. 뭐 그러고 자기네들 해야 할 일이라고 느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없으면은 돼, 놔둬도 돼. 그냥 간혹 가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청소나 하고. 언젠가는 올 거기 때문에. 왜 내 재산이 저기 있는데 왜 몰라라 하겠어. 뭐가 누군가는 하지. 그런데 그 전에 그런 그루터기를 못 만들어줄까봐, 혹시라도. 그게 불안한 거야. 그래 저희들도 그래요. 그 한인 문화회관에 열심히 오시는 분네들 뭐 2~3일에 한 번씩 그렇게 와요. 2~3일에 한 번씩 오시는 분네들이, 작년에 2~3일에 한 번 오신 분네들은 금년에 2~3주에 한 번 오는 거라. 내년에 되면 2달 되야야 한 번 온대는 거라. 그럼 더 한 해가 지나면 2~3년에 한 번 오게 되는 거야. 그런 추세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게, 그 회관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네들이 그렇게 아주 눈에 보이게 줄어들어. 그리고 후원하시는 분네들, 소액 후원하시는 분네들은, 소액 후원하시는 분네들이 그나마라도 그냥 유지가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아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고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봐요. 소액이라도 하고 계신 분들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정말 생명줄이다, 내가 그래 항상. 거기서 표현을 그렇게 하죠, 이게 생명줄이다. 이 생명줄이 안 끊기게끔, 거기 관리하시는 분네들이 잘 돌봐야 된다, 플레게(Pflege, 관리)을 잘해야지. 플레게를 잘해야지, 그냥 제가 뭐 한국 신문에도 그런 게 있드라고. 뭐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정말 조금이라도 할 때 잘 해란 말야, 그 분네들이 계속 플레게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제가, 우리 한인 교회가 뒤셀도르프에서도 자체 교회를 갖고 있는 데는 뒤셀도르프 순복음교회밖에 없어요. 다 손님 교회야. 우리는 뭐 그렇게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를 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데도 안 나와. 안 나오고. 하튼 그러니까 금액에 맞힐래니깐 안 나오는 거지. 그래 지금은 더 이상, 그 교인들 때문에 그래요. 제가 주장을 하는 거야. 이 교회에는 우리는 곧 지는 교인들이지만 [웃음] 앞으로 계속 찾아 올 신앙인들, 뒤셀도르프를 위해서 찾아오는 신앙인들을 위해서 꼭 여기 있어야 된다. 넘겨놓고 죽어야 된다. 예배당 이곳을. 그러면 지금 일부 교인들은 그래요, 교회가 빈 교회가 많아요. 뒤셀도르프가 아니니까 문제지.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라. 그러면 뒤셀도르프로 외부에서 출장 온 사람이 거기 외부까지 안 옵니다. 시내에 있어야지. 그래서 여기는 시내에서 조금 외졌지만 그래도 뭐 에스-반(S-Bahn)이고 대중교통이고 다 다니니까, 아우토반(Autobahn, 고속도로)도 가깝고. 그러니까 오실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려고 하는데 조금

큰 교회인데, 한 350명 들어가는 큰 교회. 거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 그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런 일도 교회 밖에 있지만, 교회 내 교회공간을 이용해서 그런 일(1세대를 위한 공간)이 아주 시급해요, 지금. 고런 일이 지역 적으로 고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부르크, 베를린, 뮌헨, 프랑크푸르트 라인-마인(Rhein-Main) 지역 그런 분네들하고 계속 접촉을 가져요. 그래 도대체 그쪽 동네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사정이. 그러면 조금은 나아, 다들. 중부독일이 제일 심각해, 중부독일이. 제일 심각해. 그래서 중부독일에서 빨리 이게 돼야지. 그래서 예를 들어 뒤셀도르프에서 그런 성인들이 만나, 노인네 방이지 어떻게 보든. 노인네들이 만나서 그것이 주어지고 만들어지고 그 운영 되어가는 것이 알려지면은. 제가 한 4년 전인가? 4년 전 우리 교포신문 신년호에 첫 장에다가 제가 그 얘기를 썼어요. 돼있는걸 가상으로 해갖고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네들이 착각을 하시더라고, 돼있구나 그게. 노인 분들을 위한 공간운영 그게 돼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렇게 돼 있고 뭐 거기서 한인노인분네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생활을 하고 이런 모습을 그냥. 그런 시나리오죠, 그걸 보고 좋아들 하시드라고요. 근데 그것이 하튼 현실화 되지 못한 건 제 부족함에서인 것 같고. 근데 앞으로도 그런 일은, 기필코 꼭 해볼려고 해. 꼭 또 해야만 되고, 뭐 제가 아니드래도 어느 분이래도 하셔야 될 것 같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네들이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든서도, 예를 들어서 그와 유사한 경우라고 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 걸인을 만나면 어떻게 해. 우리 일반사람들이 걸인을 탁 만나면은, 어 돕고 싶은 생각이 나. 근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10유로밖에 없어. 10유로를 못 주는 거야. 10유로를 못 주는데, 나는 10유로를 쥐 봤거든? 10유로를 주면서 거기서 생겨나는 기쁨이 10유로가 아니야 그거는. 그 기쁨이. 100유로, 1000유로지, 그 기쁨이. 그 맛을 알면은 그런 일에 기꺼이 동참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끔 하는 거야. 처음 먹었던 그 생각을. 10유로를 만지작거리게 하는 게 아니라, 10유로를 아우 돕고 싶네 할 때 턱 내놓는 거야. 그거야. 근데 그런 경우를 나는 애들한테서도 봐요, 저희 집 애들한테서. 그런 일을 봅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뭐 그렇게 안와. 근데 반호프(Bahnhof, 역)에 갔는데, 반호프에는 그런 걸인들이 많잖아, 뭐 달라고 그러는 걸인들이. 자긴 반호프에 들어가가지고 샌드위치 하나 사먹고 차타고 올려고 그랬대. 근데 걸인이 돈을 달래니깐 자기가 그때 10마르크가 여기 딱 있는걸 그냥 줬대. 주고 거기서 그냥 걸어 왔대는 거야, 그 반호프에서 걸어왔다고 그러드라고 그래서. 어이 너무 참 좋은 일 했다. 너 기쁨이 생기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런 체험. 난 그런걸 계속 강조해요. 우

리, 정말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지만은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애긴 할 수 없고, 우리 참 없고 불쌍한 사람들 보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 근데 정말 그걸 행위로 옮길 수 있는 거는 힘들어. 왜, 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열 번 그렇게 생각해보면 한번쯤은 그렇게 해 보도록 하자, 한번쯤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이제 그런 뜻에 동조하시는 분네들이 난 계속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포사회에, 뭐 한인회관을 참 적은 후원자가 힘이 되 있듯이, 우리 동포사회에도 그런 분네들이 계심으로써 그 맥을 유지해 간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보고 싶은데, 광부로 독일 오셨다가 한국에 두 번 중간에 가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아 그때, 중간에 두 번 간 건 뭐 이제 휴가로 갔던 거고.

아, 휴가로? 네. 맨 나중에는 그 원자력발전소에서 그 취업 초대장을, 갖구 들어왔어요. 취업초대장을 갖구 왔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공구, 기계공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막시 말(Maximal, 최대) 한 3개월이면은 그걸 제가 여기서 협상을 끝낼 것 같드라구요. 그리고 제가 독일교회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내가 다시온 건 여기 취직 할려고 온 게 아니고, 이 일을 해러왔다. 그러니까 일단 취직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 자기는 충분히 이해한대요. 한국 사정이 그렇다면은. 그리고 특히나 나가 한국 가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뭐든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친구가 그 당시에 시장이었대요, 거기에. 그래 시장이었는데, 시장한테 인사를 다 시키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뭐 친구야 이해하거라. 그렇하고, 이분이 일보고 있는 동안이래도 저기 뭐 3년 동안 연금 같은 걸 붓고 사회보장 이거 저 보험 같은 걸 다 냈잖아. 그러니까 3개월 있는 동안이래도 이 사람을 그 저기 실업보험 같은걸 좀 해서 줘라 그래갖고, 아르바이츠암트(Arbeitsamt, 노동청)에서 실업보험금을 날 줬어요. [웃음] 그 시에서. 그러믄서 일 보라고. 그래가지고 일 보다가 그 단가 같은걸 전부 다 맞췄어요, 한국에서 요구하는 걸 다 맞췄는데. 안 되는 문제가 뭐냐면 납품이야. 선적해가지고 항에 들어와서 통과하는 데까지. 그 당시에 제가 보니까는 제 친구들이 세관이고 뭐고 많드라고. 그러니까 이 일이 잘 풀리거 같애. 그래 저도 큰 희망을 가지고 들어왔죠. 이제 뭐 직장 생활하지 않고 그냥 이런 거나 반민간업체같이, 이런 조합에 들어가서 장하면서 편하게 살



겠단 그런 꿈에 한참 부풀었죠. 또 그렇게 될 거 같았어요. 근데 그게 안 맞더라고. 그 당시에 굉장히 선박을 통한 그 한국의 수출이,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고거 납기기간을 한 열흘만 좀 단축시킬 수 있었으면은 독일공구가 굉장히 한국에 많이 퍼졌을거야. 근데 그게 굉장히 유명한 공구회사인데, 도비다트(Dowidat)라고. 근데 언젠가는 한참 지나서 한국을 가서 그 공구 그걸 봤드니, 많이 와 있드라고 도비다트. 그니까 어떤 분이 또 그런 일을 하신 거 같애. 그 이후에는 선적이랄지 무슨 수송수단이 발달을 해서 그런데 아마 어려움이 없었을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튼 그런 인연으로 해서 제가 한국에 무역하는 그런 친구들한테 많은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혁, 무슨 가죽 제품 이런 거를 독일에 무슨 카우프호프(Kaufhof, 백화점)나 이런데 납품 시키는데도 많이 연결을 시켜주고. 또 한국에서 별의별 생산품에 수출품들이 많이 나와요. 하여튼 이분네들, 뭐 그렇게 오래 수명은 안 가드래도 잠깐 이렇게 팔아치울 그런 것들. 많은 친구들 좀 도움도 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연결을 해서. 뭐 또 그러다보니까는 인제 여기서 유럽에서 아니면 독일에서 인제 자랑하는 여러 가지 물품들 같은 거 한국도 많이 소개해주고. 인제 그분네들이 거기서 수고료 같은 걸 줄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1페니(Penny)도 저는 중간에서 받은 일이 없어, 하여튼 그거 저 나름대로, 심하게는 결벽에 가깝다고 그럴 정도로 하여튼 고런 부분은 깨끗하게 했던 거 같애요 제가.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장시간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요. 아이고, 뭐 부족한 답변이 되서, 우리 이 교수님 일행들 인터뷰에, 하여튼 1/100이래도 답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면담 개요

구술자	나복찬 (전 파독광부)
면담주제	파독광부의 생애사
면담일시	2012년 10월 4일, 14시 30분 ~ 17시 (150분)
면담장소	구술자(나복찬)가 다니는 뒤셀도르프 한인교회
면담자 1	이유재 (튀빙겐대학 한국학과 교수)
면담자 2	이선영 (튀빙겐대학 한국학과 연구원)

# 이동철

# 이 동 철

- 1947 경상북도 안동군 출생
- 1969 군 입대
- 1977 파독광부 2차 47진, 레클링하우젠 Bergwerk Recklunghausen (RAG)에서 근무
- 1980 계약 종료 10개월 전 베를린으로 이주  
용접 기술 해운 후 설비 회사 취직, 8년 후 회사 파산, 오랜 기간 병가
- 1989 다른 설비 회사로 이직
- 1999 미국에서 6개월 생활
- 2000 독일로 돌아와서 전에 근무했던 설비 회사에서 다시 근무, 회사 파산 이후 실업자
- 2005~2012 베를린에서 호텔 운영

118



## 유년 시절과 군 생활

---

내 이름은 이동철이고 1947년에 경북 안동군 녹전면 온천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베를린에 살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열네 살 되든 해에 돌아가셔서 나는 소년가장으로 살았던 거지요. 농촌에서 소년가장이 되고 보니까 농사일을 어른들이 하는데, 나는 어른들이 하는 일을 어린 나이에 하느라고 참 힘 드는 세상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누나가 셋이나 되고, 그담에 동생이 둘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연세가 많다보니까 누나를 셋 놓고 아들을 많이 기다렸죠. 그러다가 나를 낳아서 나는 좀 귀엽게 자랐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나는 좀 힘든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열네 살부터 어머니랑 같이 농사일을 하면서 힘든 세월을 살았죠. 그러다가 인제 군대에 갔습니다. 난 초등학교 밖에 못 나왔는데, 군대 갈 때는 자존심 때문에 고등학교 나왔다고 거짓말하고 군대에 갔는데. 군대 가서는 내가 의무병과를 받았는데 헌병 병과로 바뀌어가지고, 헌병학교에서 교육 받고 6사단 헌병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군대 간 건 언젠가요?** 1969년도에 군대 가서 3년 동안 군 생활을 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나니까 배운 것도 없고 농촌에서 힘들게 일하기가 그래서, 독일 광산에 간다는 정보가 있어서 한국에 있는 장성광업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독일에 갈려면은 경력이 있어야 독일에 갈 수 있다 그래서 경력을 쌓기 위해서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4년을 일을 하다가 독일에 오는 기회가 되가지고 독일로 오게 되었습니다.

## 독일에 오게 된 과정

---

**독일에 갈 수 있다는 정보는 어떻게 접했습니까?** 장성에 거기에 아는 친척이 있어서 거기에 다니다보니까 정보를 얻게 되었죠. 77년도에 내가 독일에 왔습니다. 4년 동안 거기 있었으니까. 73년도 정도에 광산에, 제대하고 바로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광산생활을 하면서, 독일 가는 희망을 가졌는데, 4년 동안 못 가니까 그 희망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광산에서 일하면서 보니까 거기서는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안 되겠드라고. 그래서 독일에 못 갈 바에는 장성광업소를 나와야 되겠다고. 그래서 76년도 말, 77년도 초해서 광산에서 연말,



연시에 3일 동안 휴가가 있어서 다른 데로 나가려고 한 바퀴 돌아보고 오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독일 가는 광산 모집이 있다는데, 가보자 하고. 같이 갔는데, 그때 갈 때 한 11명 정도가 장성 거기에 노동청에 신청을 하러 갔는데, 그때 간 사람들 중에서 2명밖에 독일에 못 왔어요.

근데 그전에는 공고 난 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73년부터 77년까지는 모집된다는 소식을 못 들었습니까? 사실은 모집도 있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 지도 모르고, 그냥 있었든 거지. 그냥 막연하게 독일 간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가, 동료들이 말하는 바람에 같이 가서 신청하고 그렇게 해서 독일에 온 것이 제일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온 거죠.

제일 마지막이면 언제? 1977년 10월 26일 날 출발했던 거 같어. 25일인가 26일.

그 동료들 중에서도 2명만 왔으면... 그 다른 분은 왜 못 오게 됐습니까? 그때, 우리가 올 때에, 내가 접수번호가 4170번인가 그러던데. 4,000명 정도가 접수를 했다는 거죠. 그때 온 인원이 대략 한 800명 정도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5:1 경쟁을 뚫고 와야 되니까, 접수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해외개발공사에서도 사람들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가마니 들러 올리오너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떨어뜨리고, 면접하는 데서 떨어뜨리고. 신체검사하는데도 떨어뜨리고. 그렇게 떨어뜨리다 보니까 11명 중에서 2명 온 것도 5:1이 된 거지. 뭐 4,000명 중에 800명 정도가 왔다는 거지.

동료들은 다 경력이 있었잖습니까? 근데도 더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동료들 중에서, 간 사람들이. 모래 가마를 들려면 경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요령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뭐 거의 많이 떨어져버리고. 그리고 면접하는 데에서도 우리 주소가, 광산 주소로 돼 있으니까. 거기서 A, B, C 등급을 매기는 데 우리는 A등급을 받았고. 그다음에 신체 검사 하는데서 또, 나중에서는 떨어뜨리다 보니까 넘 많이 떨어뜨려서 새로 B나 C 받은 사람들을 불러 들어서 교육시켜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우리는 올 때, 먼저 교육을 받고 독일에 올 순서를 기다리는데, 우리보다 나중에 3개월 교육받은 다른 사람들은 다 가는데, 우리가 지금 출발이 안 돼서 웬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서류가 뭐가 잘못 되가지고, 그래서 못 갔다 하면서



서류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보내서 우리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갔지.

아 그러니까 77년 초에 벌써 모든 그 선발 과정을 거쳤는데, 서류가 잘못돼서 연말에 오게 된 겁니까? 켈 마지막에 나오게 된 거지.

독일에 왜 가고 싶었고, 독일에 대한 기대 같은 건 어떤 게 있었어요? 독일에 가는 기대보다는, 농촌에서는 내가 살면서 아무런 발전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녀교육엔 아무것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농촌을 떠나야 되고, 그다음 농촌을 떠난다고 해도 배운 거 없고 아는 거 없으니까 외국이나 한국이나 힘든 건 마찬가지니까, 외국에 와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독일에 나올라고 마음을 먹은 거지.

그러면 나오기 전에 특별한 교육 같은 게 있었습니까? 해외개발공사에서 3개월 동안 독일어 교육이 있었고, 한 분은 오래되어서 잊어버렸는데. 무슨 교육인가. 방공교육인가 무슨 교육인가, 해외 나가서 어떻게 잘하라는 교육인가 무슨 교육을 한 번 받았던 거 같은데. 그 외에는 다른 교육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파독된 사람들이 다 광부는 아니었잖습니까? 그래서 광산 교육 이런 거는 따로 없었습니까? 광산 교육이 있었죠. 한 주일 동안. 독일 광업소에 가가지고 한 주일 동안 갱속에 들어가서 그냥 보는 것인데. 우리는 광산에서 근무했으니까 가서 농땡이만 치고 광산 들어가 보지도 않았지. 광산 모르는 사람들이나 광산 교육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교육받았는지 모르고. 우린 한 주일 동안 그냥 먹고 자고, 놀다가만 왔지.

## 결혼과 가정

---

그러면 결혼은 어떻게 하셨고, 애들은 그럼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우리는 결혼을 일찍 했어요. 어, 어른들한테 끌려가다시피 해서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어른들이 하라 하면은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결혼을 일찍 해서 아이들을 일찍이 낳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일찍 낳고 일찍 키워놓고 보니까, 결혼할 때는 불만이었는데, 일찍 결혼했다는 것이. 그런데 결혼해서 아이들을 일찍 낳아서 일찍 키워 놓고 보니까, 아 참 잘된 일이구나. 참 잘한 일이구나. 늦게야 그걸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독일 갈 때는 그러면 아이들 몇 명이었어요?** 아이들이 네 명이었는데, 막내가 첫 돌 한 달 남겨놓고 내가 독일에 오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3년 뒤에 막내가 막 네 살 될 때, 우리 집사람과 막내를 먼저 데려오고 그 다음에 큰아이들 두 명을 데리고 왔어요. 6개월 뒤에. 거기도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고 영사관에 가서 공인을 받아야 되는데, 영사관에 공인받으러 집사람을 보냈더니마는 마치 그날 어느 학생 하나가 어린 나인데 적응이 안 된다고 돌아간다고 그러길래 다 준비를 해놔 놓고 맥이 빠져가지고, 왔다가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다시 6개월 동안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데려온 것이 6개월 뒤에 아이들을 데려오게 되었죠. 가족 우리, 집사람이 온 뒤에.

## 광부 체험과 이후의 삶

---

**독일에 와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독일에 와가지고는, 레클링하우젠(Recklinghausen)에서 근무를 했는데, 또 거기서 독일 광산 중에서 켈 힘드는 광산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다른 데는 기계로 탈(Tal, 골짜기)을 파는데, 우리는 직접 압바우하머(Abbauhammer, 채굴용 해머)라 하는 공기를 넣어서 공사장 같은 데에 시멘트 캐는 거. 다다다다[의성어] 하면서 깨는 그런 그 압바우하머를 가지고 탄을 직접 손으로 켜어요. 거기 도급이래가지고, 하루에 어느 양을 하지 못 하면 돈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힘 드는 일이었죠. 다른 광산에는 땀을 많이 흘려서 힘들었다는데, 우리도 물론 지하니까 땀도 많이 흘리지마는. 힘 드는 일을 하고 나오면은 빵을 싸가지고 가는데, 빵을 맛이 안 드러났어. 빵 먹고 차를 한 1리터나 2리터 정도 되는 차를 끓여 놓는 게 있어요. 그거를 들고 가가지고 더울 때 물 마시면서. 점심 먹을 때는 그 빵을 물을 마셔서 빵을 녹여가지고 먹었으니까. 빵 맛을 모르고, 빵이 모래 같지 그제. 마른 빵을 싸가지고 가서 먹는다는 게. 그래서 그런 데서 힘 드는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우리 선진들은, 3년 일하면은 무조건 한국으로 돌아갔어야 됐는데. 우리는 3년이 안 끝나도 다른 데로 나가서 일할 수도 있고, 또 한국을 안 돌아갈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길이 열렸다는 걸

알고, 나는 한 10개월 남가놓고 그냥 베를린으로 와서 처음에는 식당에서 식기 닦고 한 5개월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용접학교 가가지고 용접기술 배와가지고 그때는 기술을 배우니까 노동청에서 바로 일자리를 줘서, 노동청에 가서, 아 설비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용접만 3개월 배워가지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데 딸릴 수밖에 없는 게. 첫째는 말 딸리지, 그다음은 이 사람들 힘 좋은데 힘 딸리지, 기술 딸리지. 그 사람들은 다 3년 동안 직업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직업학교서 주는 마이스터(Meister, 장인)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나는 용접만 처음에 가서 하다가, 어깨너머로 배워가지고 나중에 하이쥁-마이스터(Heizung-Meister, 난방기계를 다루는 전문장인)가 되었지.

**그 독일 광산, 레클링하우젠에서 일할 때요. 그게 한국 광산보다 더 힘들다고 느꼈습니까?**

한국 광산은, 우리가 보조로 일했으니까. 사끼 아따, 그니까 기능공이 있고 우리는 보조로 일했으니까. 그 한국 광산에는 아직도 일본말을 많이 쓰는 거 같아요. 노보리라 그러고. 그 갱구로 올라가는데 그날 필요한 나무만 전달해 주면은 일과 끝나는데. 한국 광산도 지열이 썩고 더운데 들어가면은 땀을 얼마나 흘리는지. 가만 앉아 있는데도 땀이 철철철철 나니까. 그런데 지열이 썩 데는 일할 때는 힘들었고, 광산에서 인제 힘들게 일하다보니까 배관공 그 파이프 연결을 하는 데로 나와가지고 지상에서 일하고. 잠깐 들어가서 파이프 연결해주고 오전에 파이프 연결해주고, 오후에 와서 쉬고. 그리고 야간 근무하는 때도 있는데 야간근무는 거기 배관반에서 쉬다가 누가 어디서 파이프 연결해달라거나 아님 뭐 터졌다거나. 그래서 연락이 오면은 들어가서 그 조치해주고 나오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한국 광산도 힘들고 독일 광산도 힘들고.

**음... 근데 더 힘들다 이런 건 없었을까요?** 독일 광산이 더 힘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직접 힘으로 압바우하머(Abbauhammer, 채굴용 해머)를 써서 파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올 때는 힘도 빠지고 배도 고프고 해가지고 약 먹은 썰처럼 샤흐트(Schacht, 수직갱도)가 내려올 때까지, 그 엘리베이터. 그거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줄고 있는 거야. 힘들고 맥이 빠지고 이래서. 독일 광산이 더 힘들었다고 볼 수 있지 우리는. 근데 직책이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힘도 덜 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있는데 일한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힘든 일을 했어요. 근데 우리한테 힘든 일 하는데도 그래도 인제 거기 작업반장이나 통역한테 잘 보이면은 좋은

데로 빠져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했는데.

**그럼, 광산 기숙사에서 생활하셨습니까?** 광산 기숙사죠. 학교다니는 학생들은 기숙사라 그러고. 우리는 기숙사가 아니고 하임(Heim, 기숙사)이라 그랬어요. 광부 하임. 광부들이 모여 가지고 사는 하임. 근데 아파트 전체를 우리가 그거를 세를 내, 받아가지고 지층에서부터 3층, 4층, 5층까지 광부들만 같이 생활했어요. 한방에 두 명, 큰 데는 세 명, 네 명까지 똑 같이 거처를 했으니까. 아파트 하나에 70명에서, 옆에는 한 70명 정도 되고 이쪽에는 한 100명 정도 되고. 하튼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대략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숙사에서 같이 살았어요.

**휴가 때나 주말 때는 여가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휴가 때는 그냥 하임에서 놀았을 거고. 주말에는 교회 가는 거 밖에 몰랐으니까. 그리고 인제 가끔씩 다른 도시로 여행도 하고 그랬는데, 아주 가끔이지 뭐. 그냥 하임에서 생활하는 것이 다였고. 좀 개인 사람들은 차 가지고 여행도 했는데, 우리가 오니까 ‘물새’라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거는 무슨 소리냐 하면은 울고 간다는 소리인데. “차 사면은 물새 된다.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한국 돌아간다, 울면서 간다.” 그런 소리인 모양인데. 그런 소리가 팽배해서 우리 면허증 있는 사람도 차를 잘 안 사고. 한두 대 차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 그때 가족은 한국에 있고 하나까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돈은 인제 총각들 같은 경우는 돈 받아가지고 그냥 쓰고 그렇게 했는 거 같은데. 나 같은 경우는 생활비 한 100마르크 놔두고 다 한국 보냈는 거 같애.

**그때 얼마 정도 벌었어요? 월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월급증서가 저 밑에 있는데, 1,200 마르크가? 2,000마르크가 잘 모르겠네.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지, 기억이 안 나요.

## 베를린 정착과 경제활동

---

네. 그럼 3년 끝나기 전에 벌써 그 탄광촌을 나왔는데 한국을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그때 왜

**안하셨습니다가?** 한국 돌아갈 생각을 안 했어요. 여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환경을 돌아보니까 독일 교육시스템이 참 좋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데려다가 여기서 교육을 시켜야지, 그래서 베를린으로 바로 왔고. 이제 베를린에 와서 직장 잡고 나서 바로 가족 데려오고. 그다음에 6개월 뒤에 아이들도 데리고 오고.

**그런데 왜 베를린을 선택하게 됐어요?** 베를린에는 우리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베를린에 신학교가 있었어요. 순복음 베뢰아신학교라고 거기에 여러 명이 올라왔는데, 한국에서 우리가 올 때 서른세 명 정도가 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3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두 명이나 이 신학 하러 올라와서, 나보고 자꾸 여기 좋으니까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찍 여기서 일자리가 괜찮은 게 있다고 하니까. 지하에서 힘들어 돈 버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다 하니까. 그렇게 일로 온 거지.

**베를린에 온 건 언제죠?** 1980년 1월 15일 날. 그거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웃음]

**그래요. 그러면 여기 와서 용접을 배우고 직장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번 월급은 광산에서 번 것보다 더 많았습니까?** 광산에서 번 월급보다는 조금 많았는 거 같은데, 그것도 지금 기억이 잘 안나요.

**생활하는 데 뭐 부족하든지 불편하든지 이런 건 못 느낀 거죠?** 혼자 살 때야 돈이 남아돌았죠. 그러니까 한국에 돈을 다 보냈어요, 혼자 살 때는. 그래서 그런데 혼자 살 때는 집 한 채, 방 두 칸짜리 하나 얻어가지고 돈 300마르크 내고. 그다음 다 남으니까 한국에 1000마르크 이상을 내가 보냈어. 생활비가 뭐 얼마 안 드니까. 그랬는데 한국 가서 80년에. 베를린 오기 전에 한국에다 집을 해놨었어요. 돈 혼자 쓰니까 얼마 안 쓰고 돈을 다 한국 보내가지고, 80년도에 하나 샀는데. 그 집값이 직장 사는 사람들이 집을 샀더니마는 집이 너무 허술해가지고 사람들이 힘들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 집을 자꾸 팔아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집이 없어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집이 있으면서 물 세고, 파이프 터지고해서 고생한다고. 하도 집을 팔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집을 팔았는데, 800만 원 주고 샀는데 8년 뒤에 팔았는데 850만 원 받고. 그때 돈으로, 팔았는데. 돈이 300만 원밖에 안 남았더라구요. 그래서 돈이 왜 이것밖에 안 남았냐, 나 그랬더니마는, 동생 학교 다니

는 데 돈 좀 주고, 승아 딸 학교 다니는데 돈 주고. 빌려서 썼든 거 값이고 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집이 물도 세는 거도 그렇지만은 돈 빌린 걸 빨리 쥐야 되겠다 싶어서 집을 빨리 팔아야 됐지 않았는가. 나중에 늦게 알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베를린에서, 가족하고 생활할 때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혼자 벌여가지고 혼자 살 때는 돈이 그냥 막 돌아갔는데, 가족이 와서 집을 좀 더 큰 걸로 얻고 살아 보니까. 돈이 모자라드라고. 혼자 일해가지고 가족이 사는 거는, 정말 빠듯하고 힘든 거예요. 돈 여유가 없어요. 그니까 한국에서 온지 얼마 안 되니까 집사람 어디 가서 일할 수도 없고, 아이들 데리고 집에 밥해주고 학교 보내고 하는 것도 바쁘니까, 시장 봐서. 그러니까 혼자야만 일을 했는데 혼자 일해가지고는 생활이 너무 빠듯했어요. 하나도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활이 계속 유지됐어요?** 그래도 혼자 일해서 어렵게 그냥 사는 거죠. 그리고 애들한테 뭐 해줘야 되는데 해줄 수가 있는 게 없고. 돈의 여유가 있어야 뭐를 해줘도 해 주고 하는데, 마음은 옷이라도 예쁜 옷 사 입히고 싶고 여행을 가면 돈이라도 좀 주고 싶은데, 벌이에 여유가 없으니까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죠. 우리 아이들은 저희들대로 다 컸어요.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신문 나르고 잡지 나르고 해서 돈 벌어서 용돈하고. 내가 도와주지 않았는데, 독일도 교육시스템이 좋아서 학교를 아이들이 다 잘했고. 그래서 교육이야기 나오니까 큰아들은 물리학 박사가 됐고, 둘째는 역사학 박사가 되서 교수가 됐고, 셋째는 법학을 해가지고 지금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돈도 잘 벌고 있고. 그렇죠.

**그럼 그 맨 처음에 들어간 용접 회사에 들어가서 계속 거기에 그럼 일을 하신 겁니까?**

용접 회사에 들어가서 우리 회사가 내가 80년도에 들어갈 때, 80년도 10월 달에 들어갈 때 300명이나 되는 회사였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근데 8년이 지나니까 70명으로 줄어들면서 회사가 파산이 난다 그러냐? 독일말로 콘쿠어스(Konkurs, 파산)가 들어가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또 다른 회사에 들어갔다가 또 건강상으로 거기서 크랑크(krank, 병가)를 쓰고 오래도록 쉬다보니까 다른 회사를 또 다시 얻게 되었고. 그래서 좋은 회사를 얻어가지고 그때는 내가 좀 돈을 잘 벌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3마르크로 받는데 그때 난 5마르크, 6마르크 정도. 프라이빌리게 페어지세룽(Freiwillige Versicherung, 의료사보험) 들으라 그러드라고. 한 달에 돈을



적게 벌든 많이 벌든 300마르크 씩 크랑켄페어지세룽(Krankenversicherung, 의료보험) 매달 낸 걸, 그게 한 4~5년? 5~6년. 통일되기 전에는 우리가 참 돈을 잘 벌었는데. 통일 되고나서 또 회사가 동독 회사들이 들어오고, 유럽이 또 통합이 되니까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고, 짠 임금을 가지고 들어오고 하니까 회사가 못 견뎌내고 또 문을 닫더라고.

**그것도 다 그러면 용접하는 회사였습니까?** 똑같은 설비 회사. 그래서 89년도 회사도 그만 하고 나니까 이제 한국 들어갈려고. 89년도. 들어갈려고 준비를 다 해놨다가, IMF가 터졌다고. 그래서. 응, IMF 터졌다 그러더라고. 어, 그때 들어갔으면 기회가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들어갈라 하다가 괜히 겁먹고 안 들어갔다 다시 기술을 돌렸다 그러나? 미국으로 갔죠.

**그럼 한국엔 왜 갈 생각을 하셨고 한국 가서 뭘 할 생각을 하셨었어요?** 한국에 가야 된다, 가야 된다... 만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인제 내가 막내가 대학만 들어가면 내가 인제 자유로워지니까. 대학에 들어가면 저희들끼리 돈 벌어서 저희들끼리 학교를 다 하고 하는걸 보니까. 대학만 들어가면 나는 한국 가야지, 그리고 한국 갈라 하다가 그때 IMF가 터지는 바람에 미국으로 발길을 돌렸지.

## 6개월간의 미국 생활

---

**미국 갈 생각을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미국에는 거기 목사님 한 분이 있어서. 자꾸 날 오라고 그러기도 했고, 그 목사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내가 와 있으면 힘이 되겠다 그러니까 오라고 그래서. 나를 잘보고 했는지.

**목사님은 그럼 어떻게 아셨어요? 미국에 계신 분.** 목사님은 베를린에서 신학교를 한 사람 이니까. 그리고 같은 광산에서, 레클링하우젠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일찍이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베를린에서 신학교를 했고. 여기 와서 같이 가깝게 지내다보니까. 나를 잘 본 거지. 그래서 자기 교회에 와서 자기도 도와주고 여기 일거리도 많으니까 와서 일도 하고 하라고 그래서. 내가 미국에 갈려고 생각한 것은, 80년도 초부터 내가 미국에 갈라

고 생각을 한 것이, 미국을 가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면은 미국이 훨씬 나올 거 같으니까, 미국을 가야 되겠다는 그런 불타는 그런 소원이 생겼었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니까, 아나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국 군인들 중에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에게 알아보고 어떻게 미국 군인으로 들어가면은 미국을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미국을 아이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갈려고 소원했던 것인데, 이제 애들 교육을 여기서, 막내가 대학까지 들어가니까. 나중에 돌아 보니까 옛날에 기도하던 것이 그때 이루어졌는 거구나 했지요. 가서 6개월만 살다가 왔지만은. 6개월 살다가 거기서 그린카드, 그니까 영주권 얻을려고 변호사를 만나서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여기 영주권, 독일 영주권이 있으니까, 미국에 머무를 그 큰 별 필요는 없는데. 싸게 해주면은 변호사한테, 변호사 사무장이 있드라고, 한국 사람인데. 싸게 해주라 그래서 싸게 해가지고 다 해놨는데. 그린카드, 이제 영주권을 신청해오면 2년 동안 미국을 나오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독일 갔다가 오자, 영주권 나올 때까지 2년 동안 못 가니까 비행기 표도 이제 6개월 끊어논 거 있으니까 돌아와서 아이들 보고 다시 와서 영주권 신청해가지고 있자. 그렇게 하고 이제 나오는데, 나올 때는 우리 집사람이 나갔다가 들어오지 못하면은 어떡허느냐고 그렇게 걱정하던 사람이, 베를린에 와가지고는 아이들도 보고 교통편도 좋고 하니까 눌러앉아서 안 가겠다 하니까. 내가 혼자 갈 수도 없고 해서, 독일에 머무르게 됐어요.

**미국에는 어디에 갔었어요?** 시애틀, 옆에 타코마(Tacoma)가 있는데, 시애틀 타코마가 판 도시지만 다 연결이 되가지고 한 도시 같아요. 똑같애.

**그럼 그쪽에도 옛날에 광부로 독일로 왔다가 미국 가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짧은 시간에 갔다 와서 모르겠어요. 광부들이 거기 살고 있는지. 근데 일단 그 목사님은 광부로 왔다가 거기 갔으니까. 그 사람도 한 사람의 광부고, 광부들이 많이 갔죠.

**광부로 왔던 사람들 중에서 미국 간 사람이 그러니까 많은 거예요?** 우리 전에 온 사람들은 사실 광부로 돈 벌러 온 사람들이, 별로 없고. 아 일찍이 온 사람들은 다 여기를 발판으로 해서 제3국으로 갈려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으로 캐나다로. 그때는 한국에서 나갈 길이 없었으니까, 내보내지도 않았으니까. 광부로 해서 그때는 잘 배운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미국으로 캐나다로 간다는데. 가서도 지금도, 그 사람들 광부 모임을 하고 있는

데. 그 사람들 지금 돈도 잘 벌고 자제들 교육도 잘 시키고 잘살고 있다고 그런 소식이에요.

## 민박 사업과 연금생활

---

**그럼 미국 갔다 와서는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미국 갔다 와서 그 옛날 다니던 회사에다가 전화를 했더니마는, 일하는 자리가 하나 나니까,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2000년도까지 일을 했어요. 근데 그 2000년도에 또 그 회사도 문을 닫고, 그러니까 이제 실업자가 그때 또 된 거죠. 실업자가 돼서 있다가, 이제 펜션 아베르나를 하게 됐는데, 아이들이 민박이라도 해보라고 그래서 민박을 찾고 다니다가 이 호텔펜션 아베르나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시작하게 됐어요.

**언제예요?** 그게 2005년도에 시작을 했네? 2005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7년 되었어요. 7년 되었는데, 아마 금년 말로 아마 이것을 그만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믄 인제 내년 4월부터 연금이 나오니까, 일을 많이 안했기 때문에 연금도 많지 않지만 먹고살 수는 있을 거 같으니까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럼 펜션 사업 수입 같은 건 어떻습니까?** 펜션이 내가 들어오기 전에 8년 된 펜션을 내가 이거를 받았는데. 8년 동안 사람이 주인이 4명이나 바꿨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었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들어와서 2년을 계약하고 해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디 가서 일하는 임금만큼은 나오니까 그래도 괜찮았어요. 내가 들어와서 거기 페어미틀룽스피르마 (Vermittlungsfirma, 중개소)라 그러는데 손님 보내주는 회사가 잘 해줘가지고 7년 동안 잘했어요. 근데 지금 손님을 많이 보내주던 회사가 어떨 때는 1/3, 어떨 때는 반 정도까지 보내주던 회사가 지금은 어려워요. 회사가 안 되나 봐. 그러니까 우리도 손님도 별로 많이 안 들고. 그래도 지금까지는 잘 했으니까, 괜찮았었어요. 월급, 둘이서 일하면서 월급 받는 것보다 나왔으니까 괜찮았어요.

**그러면 이 연금으로 들어가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연금, 들어가면 인제 그렇게 가고 싶었던 한국에 가서 시간도 보내고, 근데 한국에 제일 가고, 가야 되고 싶은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장남이니까. 첫째는 우리 누나들이 동생들도 있지만은 동생들 집에 가는 것이 친정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가 봐요. 우리 집에 와야 친정이라고 생각 드는 거 같고. 친정 없도록 삼십 몇 년 이상을 살았는 게 미안하고. 우리 매형들한테는 처갓집이 없도록 살았는 거 같고. 우리 생질들, 생질녀들한테는 외갓집이 큰 외갓집이 없이 살게 했는 것이 미안하고. 그런 것. 또 작은집 아이들한테는 큰집이 없는 그런 상태였었고. 그래서 거기 가서 큰집 노릇도 하고, 처갓집 노릇도 하고, 친정집 노릇도 하고 외갓집 노릇도 하고. 그런 것도 좀 했시든 좋겠고. 종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 누나네 집이나 생질, 생질녀들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전했시든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 영구적으로 한국 가는 걸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내 생각에는, 가능하면 여름에는 한국에 더워 못살겠으니까 여름에는 독일에 와서 보내고. 세 계절은 한국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해마다 왔다갔다 그렇게 했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야 뭐 계획이지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나이 많으면 비행기 타는 것도 힘들드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을 거 같으니까. 한국에는 가가 계속 가고 싶은 향수병이 있어서 한국에는 가고 싶지만 또 살아보면 어떻게 몰르고, 또 아이들이 독일에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사회보장제도가 잘돼 있으니까, 일생을 아마 여기서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요.

## 독일 사회와 한인사회

---

**사시면서 독일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독일 사람들과는 우리가 지금 펜션을 하니까, 독일 사람들과 대화하고 오면은 반갑게 맞아주고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독일 사람들이 켈 외로운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친절하게 해주면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독일 사람들과 이 이웃 사람들과도 친절하게 지내고, 친구 같은 그런 사람들은 없고. 그래도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도 더러 많이 있고. 독일 사람들과 관계가 참 좋아요. 사람은 거울을 보는 거 같다고, 내가 친절하게 해주면은 독일 사람들도 친절하게 대해주고. 우리 이웃에 내가 와서, 지나가 서면은 사람들과 인사하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은, 나한테 먼저 인사를 할 정도로. 사람들과 그렇게 독일 사람들과 친해지고 좋아졌어요.

옛날 광산이나 그다음 용접회사나 이렇게 다닐 때도 동료들하고, 독일 동료들하고 관계가 좋았습니까? 일하러 다닐 때는 독일 동료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힘 딸리고 기술 딸리고 말 딸리고. 그래서 처음에는 참 고생을 많이 했죠. 뭐가 잘못되면 무조건 내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내 잘못이라고 그러고. 그래도 변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언어 실력이 안 되고 했어. 근데 나중에는 인제 내가 내 일을 제대로 잘할 수 있을 때가 되니까 내가 마이스터가 되니까, 그때는 인제 같은 레벨에서 사귀니까 관계가 좀 좋아지고, 좀 좋았었고. 아직도 내가 연락하고 지내는 동료들도 있고.

그러니까 독일 동료들하고 어려웠던 거는 언어 소통이 잘 안 되서 어려웠던 거지, 뭐 한국 사람이라서 어렵고 이런 건 아니었나요? 한국 사람이라서 어려운 건 아니고, 언어 소통이 안 되서 어려웠고. 그 다음에 내가 기술이 딸려서 어려웠고. 기술 딸리고 말 딸리고 힘 딸리니까 사실 무시당한 거지. 그래도 무시당하면, 자존심 상해서 금방 내팽겨쳐버리고 나올,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참 많았지만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많은 인내를 가지고 힘들게 살았지 뭐. 힘들게 살았어.

한국 사람들하고 관계는 어땠습니까? 한국 사람들 관계에는 한인회 모이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다 인사하고 지나고. 우리는 뭐 교회만 다니니까. 교회 사람들하고는 잘 지내고, 사회는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가 별로 없었어요. 그니까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지나고. 교회만 다니다보니까 사회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관심이 있어도 내가 뭐 나가서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랬어요.

## 독일과 한국 생활 회고

---

그러면 지금 되돌아봤을 때, 독일에 온 걸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독일에 오고 싶어서 왔고, 또 와서 보니까 너무 잘 왔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독일은 교육시스템이 좋아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아이들한테 지불 안 했는데도 아이들이 교육을 다 최고 수준으로 받았고. 그런 걸 보면서 아 독일에 나는 참 잘 왔구나, 독일에 와서 나는 복 받았구나. 그러니까 나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복을 줘서 감사하고, 두 번

째는 독일에 내가 감사하는 게 독일에서 우리 자녀들을 다 교육을 시켜줬기 때문에. 난 독일에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한국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나는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지 모르는데, 나는 한국을 그렇게 그리워했어요. 지금도 2년마다 한번, 3년마다 한 번 씩 가면 산을 봐도 다르게 보이고 아파트단지에 있는 감나무를 봐도 너무 신기하게 주렁주렁 달린 감을 봐도 신기하게 보이고. 봄에는 진달래꽃이 산을 불태우는 것 같이 별장게 피어 있는 거 보고. 옛날에 봤던 거지만 요즘에 보면 또 신기하게 보이고. 한국이 나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을 계속 가고 싶어 했고, 지금도 마치면 연금 들어가면 한국에 가서 살고 싶고 그래요.

**근데 한국이 나와 계신 동안 굉장히 또 많이 변하고 그랬잖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여행 갔을 때, 새로 느끼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한국이 너무 많이 변했죠.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끼니를 못 이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먹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은 없고. 가난하다, 가난하다. 어렵다, 어렵다하는 거는 상대적인 어려움이고 상대적인 가난함이지 내가 볼 때는 30년 전, 35년 전 그때에 비해서는, 다 넉넉하게 훌륭하게, 부유하게 잘 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한국이 잘 사니까 우리가 참 긍지를 가지고 살고, 독일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어깨를 펴고 살고, 당당하게 살아요. 한국이 잘 사는 게, 한국에서 인제 간호원이나 광부들은 나가서 어려울 때 돈을 벌어서 보내서 성장의 동력이 되었다고들 말을 하는데. 우리도 여기서 살면서 한국이 잘살고 좋아지니까 우리는 참 어깨를 펴고 활기 있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당당하고 참 좋아요.

**네. 또 다른 이야기 같은 거 하실 게 있습니까?** 이야기가 많았는데, 뭐를 얘길 해야 될지 몰라갖고... 갑자기. [웃음] 그러니까 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독일에도 감사하는 게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맏아들은 다시 말 또 하지만은, 물리학 박사가 됐고. 며느리는 변호사가 됐고. 둘째는 교수가 됐고, 둘째 며느리는 서울대학에서 석사하나 하고 나와서 여기에서도 MBA 석사를 하나 더 받았고. 셋째는 법학을 해서 삼성에서 돈을 잘 벌고 있고. 지금은 법무팀장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너무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독일에 감사하는 것은 독일에서 내가 돈을 아이들한테 많이 투자를 못했는데 못한 게 아니라, 저는 안



했는데도 독일에서 교육을 잘 시켜줘서 나는 너무 하나님한테, 독일에 감사하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요. 내가 아는 장로님이 그래요. 나보고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만큼 이동철 장로만큼 복 받은 사람이 없다고. 자기가 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쯤 많이 복을 받은 거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이제 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이 나고 긍지가 있고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 면담 개요

구술자	이동철 (전 파독광부)
면담주제	파독광부의 생애사
면담일시	2012년 10월 20일 토요일 11시 30분 ~ 12시 40분 (70분)
면담장소	구술자(이동철) 호텔, 베를린
면담자	이유재 (튀빙겐대학 한국학과 교수)

## 찾아보기

---

CAJ(가톨릭노동청년회) 193, 194, 195  
GM 251, 253, 260  
IBM 62, 68  
KBS 185, 295, 364  
LG 20, 40, 298, 320, 323, 324, 325, 329, 330, 333, 336

### 가

가톨릭노동청년회(CAJ) 193, 194  
강원도 54, 56, 83, 100, 101, 143, 229, 310, 316  
고려대학교 174, 176, 183, 185, 186, 198  
고려신학교 48, 52  
고창 201  
고흥 20, 298, 300  
곡성 20, 266, 268  
공화당 185, 194  
광주 20, 36, 50, 51, 52, 55, 76, 78, 100, 105, 215, 330  
광주사태 209, 343, 344  
광천회 90, 94  
교민회 204  
글뤽아우프(Glück Auf, 재독파독광부협회) 14, 17, 29, 48, 65, 90, 128, 136, 166, 286, 287, 294, 314, 337  
금성(현 LG) 38, 40, 298, 319, 320, 324, 325, 326, 329  
김대중 117, 125, 183, 184, 185, 186, 210, 215, 216  
김상희 186  
김영삼 125, 136, 183, 201, 215, 216  
김우중 127, 132  
김재순 184, 185  
김종필 183  
김택수 194

### 나

남진 177  
네커만(Neckermann) 39, 220, 244, 245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67, 344, 370  
노태우 121, 183, 215  
논산 훈련소 52, 301, 302  
뉴질랜드 93

### 다

대우 40, 114, 127, 132, 251  
도르트문트(Dortmund) 119, 186  
독한협회 98, 104, 123, 132, 136  
동백림 사건 26, 71, 203  
뒤셀도르프(Düsseldorf) 20, 56, 134, 142, 145, 146, 186, 298, 317, 319, 320, 326, 336, 340, 343, 344, 346, 371, 375, 376, 378  
뒤스부르크(Duisburg) 20, 76, 79, 82, 90, 195, 269, 277, 344  
딘스라켄(Dinslaken) 20, 140, 142, 146, 147

라

레버쿠젠(Leverkusen) 205, 206, 207  
루르(Ruhr) 16, 44, 78, 90, 186, 193, 217, 346  
루프트한자(Lufthansa) 39, 220, 244, 245, 246, 250, 259, 260

마

명동 133, 200  
명동성당 133, 187  
목포 100, 124, 125  
무안 20, 98, 100, 104, 125  
문경 20, 220, 222, 229  
뮌스터대학 129  
뮌헨(München) 194, 195, 213, 376  
미국 20, 23, 34, 35, 39, 61, 62, 70, 76, 78, 79, 80, 86, 91, 92, 93, 94, 105, 128, 156, 170, 178, 179, 181, 188, 193, 194, 199, 215, 217, 233, 256, 308, 312, 313, 318, 323, 336, 351, 380, 390, 391, 392  
민주당 104, 125, 183, 185, 186, 208, 216, 217

바

박정희 22, 72, 73, 80, 104, 117, 127, 184, 187, 203, 209, 216, 217, 218, 225, 306, 372  
박종률 184, 209, 216  
박준규 184, 185  
백영훈 132, 217  
베를린 16, 20, 26, 36, 70, 129, 140, 157, 158, 159, 160, 162, 164, 165, 166, 167, 170, 171, 213, 281, 309, 317, 318, 322, 371, 376, 380, 382, 386, 387, 388, 389, 390, 391, 396  
베트남전쟁 18, 23, 24, 73  
베트콩 179, 180, 181, 308  
보쿰(Bochum) 122  
본(Bonn) 20, 32, 40, 73, 92, 98, 123, 126, 131, 132, 134, 137, 155, 156, 196, 354, 357, 359, 367, 368, 369, 373  
부퍼탈(Wuppertal) 114, 154

불란서 34, 57, 70, 79, 86, 142, 154, 322, 329, 331, 333  
브라질 196

사

삼성 40, 105, 114, 213, 251, 395  
서울대학교 208  
석굴암 124  
석탄공사 105  
세시봉 200  
손님 노동자 15, 37, 44  
손숙 186  
송정리 105  
순복음교회 64, 336, 375  
슈투트가르트(Stuttgart) 76, 79, 90, 92, 95  
시애틀 391  
신민당 183  
신사참배 50

아

아리랑 295  
아헨(Aachen) 20, 34, 48, 56, 58, 59, 62, 65, 68, 70, 101, 211, 220, 232, 258, 340, 344, 353, 356, 373  
안동 20, 225, 380, 382  
에슈본(Eschborn) 20, 235, 251, 296  
엘비스 프레슬리 199  
영국 57, 79, 130, 154, 322, 324, 325  
오사카 135  
오펠(Opel) 251, 260, 266, 269, 278, 279, 280, 281, 292, 293  
원불교 286  
월남전 177, 179, 180, 274  
유신헌법 22, 226, 227  
6·25사변(6·25전쟁) 21, 22, 51, 81, 176, 178, 179, 201, 202, 300, 345, 363  
유진오 183  
윤이상 70, 71  
이병철 105  
이상구 197, 202

이승만 183, 185, 201, 202  
이철승 184, 201, 202  
이태리 60, 79, 82, 89, 90, 244, 322  
이효석 70, 71, 372  
인도 86, 196  
일본 117, 135, 347, 351, 359

## 자

자그레브(Zagreb) 291  
장면 183, 184, 185, 217  
장성광업소 107, 382  
장성환 67, 68, 373  
전두환 121, 183, 209, 215  
전라남도 48, 50, 76, 78, 98, 100, 104, 105, 122, 125,  
140, 266, 268, 298, 300  
전북대학교 23, 53, 54  
전주 122, 176, 330  
정승화 209, 216  
제일제당 105  
조선일보 351  
조순 345  
중앙정보부 225, 226, 369  
지멘스(Siemens) 39, 62, 140, 158, 159, 160, 161, 162

## 차

청룡부대 177, 178, 179  
청진동 142, 181, 182

## 카

캐나다(캐나다) 35, 70, 78, 79, 80, 81, 84, 92, 93, 128,  
156, 188, 193, 199, 312, 318, 391  
카네기홀 200  
칼빈대학 48, 52  
칼스루헤(Karlsruhe) 129, 137  
괴닉슈타인(Königstein) 20, 220, 234, 235, 236, 238  
콜른(Köln) 20, 32, 131, 174, 193, 196, 198, 205, 206,

210, 211, 212, 218, 322, 363, 373  
크로아티아 291

## 타

타코마 391  
튀빙겐(Tübingen) 45, 78, 95

## 파

파독광부협회(금륙아우프) 18, 65, 90, 128, 166, 286  
페루 93  
평민당 183, 215  
폴 앵카 199  
프랑크푸르트(Frankfurt) 16, 84, 118, 129, 130, 204, 206,  
259, 269, 284, 288, 298, 318, 326, 330, 333, 338,  
362, 376

## 하

하노버 291  
하이델베르크(Heidelberg) 135, 323, 325, 326  
한국전쟁 21, 51  
한글학교 41, 48, 62, 98, 131, 166, 211, 212, 319, 328,  
333, 359, 372, 373  
한인학교 38, 373  
한인회 18, 48, 65, 76, 90, 96, 98, 131, 166, 167, 197,  
205, 206, 213, 258, 259, 285, 287, 292, 317, 361,  
365, 394  
함부르크(Hamburg) 14, 56, 62, 213, 298, 311, 317, 319,  
322, 331, 363, 373, 376  
함평 20, 140  
해병대 176, 177  
해외개발공사 24, 25, 230, 270, 310, 383, 384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t) 87  
헬무트 콜(Helmut Kohl) 132  
화순광업소 107

구술사료선집 29

## 피독광부 생애사

---

**기획·간행** 김득중(사료조사실장)  
황병주(편사연구관)

**구술** 김근철·최종옥·이문삼·김원수·박종선·정승식·김재승·김창선·나복찬·이동철

**면담** 이유재·이선영

**해제** 이유재

---

**발행일** 2022년 12월 10일

**발행인**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김인걸

**발행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www.history.go.kr/>  
(13809)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86  
전화 02-500-8282

---

**편집·인쇄** (주)역사비평사

---

**발간등록번호** 11-1342068-000130-01

**ISBN** 978-89-8236-813-4 94910  
978-89-8236-299-6 94910 (세트)

---

비매품

이 책에 수록한 모든 글 및 사진의 저작권은 국사편찬위원회에 있습니다.

무단 게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COPYRIGHT©2022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ALL RIGHT RESERVED.

All rights reserved including the rights of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 in any form.